제주역사자료총서 35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Ⅸ

正祖代(1795) ~ 純祖代(1801)

(上)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발 간 사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승정원에서 날마다 왕명의 출납과 국정의 논의를 적어 남긴 기록입니다. 국왕과 신하 사이에 오간 말이 그날의 날짜 아래 그대로 실려 있어, 조선 사회가 움직이던 모습을 하루 단위로 따라가 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하나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을 추진하여, 《승정원일기》 가운데 제주 관련 기사를 왕대별로 발췌·번역하고 주석을 붙여 자료집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아홉 번째 자료집은 정조 19년(1795)부터 순조 13년(1813)까지, 정조대 후반과 순조대 전반의 제주기사를 담았습니다. '제주(濟州)·정의(旌義)·대정(大靜)·추자(楸子)·탐라(耽羅)'의 다섯 주제어로 찾아낸 기사 1,319건을 역주하여 실었습니다.

이 시기의 제주는 어려운 일을 잇달아 겪었습니다. 정조 19년(1795)에는 전해의 큰 흉년으로 조정에서 곡식을 보내 구휼하였고, 김만덕이 재물을 내어 굶주린 사람들을 살린 일이 조정에 알려진 것도 이 무렵입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국정의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순조 1년(1801) 신유박해로 제주에 유배된 이들이 있었고, 순조 9년(1809)을 전후해서는 다시 큰 흉년이 들어 구휼이 잇따랐으며, 순조 13년(1813) 말에는 양제해(梁濟海)의 모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이러한 일들이 조정에 보고되고 논의되던 과정과 함께, 목사·판관·현감 등의 임명과 교체, 진상과 세곡(稅穀), 표류민의 처리, 유배인의 관리 등 그 사이사이 조정과 제주 사이에 오간 크고 작은 일들이 날짜를 따라 실려 있습니다.

제주의 역사는 제주 안에 남은 기록만으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정이 제주를 어떻게 보았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는 중앙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승정원일기》는 제주에 관한 논의가 조정에서 어떻게 오갔는지를 가장 상세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자료집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제주의 사정을 살피려는 연구자와 독자들에게 든든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 일기 원문을 발췌하느라 애쓴 고수미, 노우정 선생님과 늘 어려운 번역 및 주석 작업에 힘써주신 백종진, 오창명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번역문과 주석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며 교정 및 교열하느라 애쓴 우리 센터 임승희, 김우리 연구원과 양미혜 선생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집과 출판에 애써 주신 제주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집은 2016년부터 이어 온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아홉 번째 결실이며, 내년 순조 후반과 헌종·철종대 자료집을 끝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십여 년 동안 왕대별로 쌓아 온 자료집이 조선시대 제주의 역사를 살피는 데 오래 쓰이기를 바라며, 마지막까지 소홀함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완 병**

▢ 일러두기

1. 제주학연구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역사 편찬사업〉의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다.

2.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사업'은 2016년부터 조선시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속 왕대별 제주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발간하고 있다.

3. 본서는 《승정원일기》 정조대(1795~1800) 및 순조대(1800~1813) 제주기사를 수집하여 역주하였다.

4. 제주기사의 채록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추자(楸子), 탐라(耽羅)'의 5개 주제어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5. 역주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의 '원문 탈초본'으로 삼았다. 단, '탈초본' 상의 한자에 의문이 생기거나 '결자(缺字)' 등은 원문과 대교하여 이를 각주로 밝혔다.

6. 본문은 원문, 역주 연도, 표제문, 역주문, 주제어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7. 역주자 및 분담 역주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백종진: 1795년(정조 19) 2월 14일 ~ 1806년(순조 6) 6월 25일
   2) 오창명: 1806년(순조 6) 7월 3일 ~ 1813년(순조 13) 12월 26일

8.《승정원일기》 정조대(1795~1800) 및 순조대(1800~1813) 제주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 주제어별 중복된 기사를 포함하면, 1,460건이나 141건의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여 총 1,319건에 대해 역주하여 수록하였다.

• 분량: 총 1,319건

구분	濟州	旌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비고
정조대	441	27(9)/18	26(16)/10	3	56(30)/26	553(55)/498	중복 기사 제외
순조대	640	44(18)/26	62(31)/31	148(33)/115	13(4)/9	907(86)/821	
건수	1,081	71(27)/44	88(47)/41	151(33)/118	69(34)/35	1,460(141)/1,319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旋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정조 19년(1795)	47	8(4)/4	4(3)/1	2	14(7)/7	75(14)/61
정조 20년(1796)	79	3(2)/1	8(4)/4	0	23(12)/11	113(18)/95
정조 21년(1797)	57	7(1)/6	4(2)/2	0	10(6)/4	78(9)/69
정조 22년(1798)	154	1	8(6)/2	0	6(4)/2	169(10)/159
정조 23년(1799)	72	8(2)/6	2(1)/1	0	1	83(3)/80
정조 24년(1800)	32	0	0	1	2(1)/1	35(1)/34
합계	441	27(9)/18	26(16)/10	3	56(30)/26	553(55)/498

• 시기별 기사 발췌 건수

※ ( ) 안의 숫자는 주제어별 중복 기사 건수를 의미함

구분	濟州	旌義[旋義]	大靜	楸子	耽羅	합계
순조 즉위년 (1800)	40	1(1)/0	2(2)/0	1(1)/0	0	44(4)/40
순조 1년 (1801)	44	0	12(4)/8	4(2)/2	3(1)/2	63(7)/56
순조 2년 (1802)	45	3(2)/1	2(2)/0	2(2)/0	0	52(6)/46
순조 3년 (1803)	48	9(2)/7	1(1)/0	5	0	63(3)/60
순조 4년 (1804)	45	2(2)/0	5	11(2)/9	0	63(4)/59
순조 5년 (1805)	31	5(2)/3	3	5	1	45(2)/43
순조 6년 (1806)	73	3(1)/2	9(4)/5	49(8)/41	3(1)/2	137(14)/123
순조 7년 (1807)	40	0	1	20(3)/17	1	62(3)/59
순조 8년 (1808)	89	6(3)/3	6(6)/0	29(7)/22	1(1)/0	131(17)/114
순조 9년 (1809)	30	0	9(8)/1	6	0	45(8)/37
순조 10년 (1810)	35	9(2)/7	3	5(3)/2	1	53(5)/48
순조 11년 (1811)	45	2(2)/0	3(1)/2	3(1)/2	0	53(4)/49
순조 12년 (1812)	28	3	2(2)/0	4(2)/2	1(1)/0	38(5)/33
순조 13년 (1813)	47	1(1)/0	4(1)/3	4(2)/2	2	58(4)/54
합계	640	44(18)/26	62(31)/31	148(33)/115	13(4)/9	907(86)/821

목 차

발 간 사 ····· i
해 제 ····· iii
일러두기 ····· iv

正祖

1795年

19年 2月 14日(丙寅) ····· 2
19年 2月 14日(丙寅) ····· 5
19年 2月 14日(丙寅) ····· 14
19年 2月 18日(庚午) ····· 20
19年 2月 18日(庚午) ····· 21
19年 2月 18日(庚午) ····· 22
19年 2月 20日(壬申) ····· 23
19年 2月 30日(壬午) ····· 24
19年 3月 8日(己未) ····· 26
19年 3月 10日(辛酉) ····· 27
19年 3月 11日(壬戌) ····· 29
19年 3月 11日(壬戌) ····· 30
19年 3月 16日(丁卯) ····· 31
19年 3月 22日(癸酉) ····· 34
19年 3月 22日(癸酉) ····· 35
19年 3月 23日(甲戌) ····· 37
19年 3月 28日(己卯) ····· 38
19年 4月 1日(辛巳) ····· 39
19年 4月 2日(壬午) ····· 40
19年 4月 28日(戊申) ····· 41
19年 4月 28日(戊申) ····· 42
19年 5月 1日(辛亥) ····· 43
19年 5月 11日(辛酉) ····· 44
19年 5月 12日(壬戌) ····· 47
19年 5月 22日(壬申) ····· 48
19年 5月 26日(丙戌[丙子]) ····· 50
19年 5月 28日(戊寅) ····· 53
19年 6月 25日(甲辰) ····· 56
19年 7月 21日(庚午) ····· 57
19年 8月 3日(辛巳) ····· 58
19年 8月 4日(壬午) ····· 59
19年 8月 4日(壬午) ····· 60
19年 8月 6日(甲申) ····· 61
19年 8月 10日(戊子) ····· 62
19年 8月 11日(己丑) ····· 63
19年 8月 15日(癸巳) ····· 64
19年 8月 15日(癸巳) ····· 66
19年 8月 15日(癸巳) ····· 70
19年 8月 17日(乙未) ····· 72
19年 9月 1日(己酉) ····· 73
19年 9月 10日(戊午) ····· 74
19年 9月 15日(癸亥) ····· 75
19年 9月 29日(丁丑) ····· 76
19年 10月 1日(戊寅) ····· 79
19年 10月 2日(己卯) ····· 80

19年 10月 2日(己卯) ····· 82
19年 10月 3日(庚辰) ····· 84
19年 10月 5日(壬午) ····· 85
19年 10月 10日(丁亥) ····· 88
19年 10月 14日(辛卯) ····· 90
19年 10月 15日(壬辰) ····· 93
19年 10月 15日(壬辰) ····· 94
19年 10月 23日(庚子) ····· 97
19年 10月 27日(甲辰) ····· 99
19年 11月 7日(甲寅) ····· 100
19年 11月 15日(壬戌) ····· 102
19年 11月 16日(癸巳[癸亥]) ····· 105
19年 11月 23日(庚午) ····· 106
19年 11月 28日(乙未[乙亥]) ····· 108
19年 12月 2日(己卯) ····· 109

1796年

20年 1月 3日(庚戌) ····· 113
20年 1月 3日(庚戌) ····· 116
20年 1月 4日(辛亥) ····· 119
20年 1月 5日(壬子) ····· 121
20年 1月 5日(壬子) ····· 123
20年 1月 5日(壬子) ····· 125
20年 1月 6日(癸丑) ····· 126
20年 1月 12日(己未) ····· 128
20年 1月 12日(己未) ····· 129
20年 1月 12日(己未) ····· 130
20年 1月 12日(己未) ····· 131
20年 1月 12日(己未) ····· 132
20年 1月 12日(己未) ····· 133
20年 1月 12日(己未) ····· 134
20年 1月 15日(壬戌) ····· 135
20年 1月 18日(乙丑) ····· 137
20年 1月 19日(丙寅) ····· 138
20年 1月 19日(丙寅) ····· 139
20年 1月 27日(甲戌) ····· 140
20年 2月 2日(戊寅) ····· 141
20年 2月 3日(己卯) ····· 142
20年 2月 3日(己卯) ····· 143
20年 2月 4日(庚辰) ····· 144
20年 2月 16日(壬辰) ····· 146
20年 2月 16日(壬辰) ····· 150
20年 2月 16日(壬辰) ····· 151
20年 2月 16日(壬辰) ····· 152
20年 2月 16日(壬辰) ····· 153
20年 2月 16日(壬辰) ····· 155
20年 2月 16日(壬辰) ····· 156
20年 3月 6日(壬子) ····· 158
20年 3月 14日(庚申) ····· 160
20年 3月 19日(乙丑) ····· 162
20年 3月 19日(乙丑) ····· 165
20年 3月 20日(丙寅) ····· 166
20年 4月 2日(丁丑) ····· 168
20年 4月 2日(丁丑) ····· 169
20年 4月 3日(戊寅) ····· 170
20年 4月 3日(戊寅) ····· 173
20年 4月 4日(己卯) ····· 176
20年 4月 5日(庚辰) ····· 178
20年 4月 8日(癸未) ····· 179
20年 4月 8日(癸未) ····· 182

20年 4月 11日(丙戌) …… 183
20年 4月 15日(庚寅) …… 185
20年 4月 20日(乙未) …… 186
20年 4月 25日(庚子) …… 188
20年 4月 26日(辛丑) …… 190
20年 5月 2日(丙午) …… 191
20年 5月 2日(丙午) …… 192
20年 5月 5日(己酉) …… 193
20年 5月 6日(庚戌) …… 194
20年 5月 6日(庚戌) …… 195
20年 5月 9日(癸丑) …… 196
20年 5月 9日(癸丑) …… 197
20年 5月 10日(甲寅) …… 198
20年 5月 12日(丙辰) …… 199
20年 5月 25日(己巳) …… 200
20年 5月 25日(己巳) …… 201
20年 5月 28日(壬申) …… 202
20年 6月 5日(己卯) …… 203
20年 6月 6日(庚辰) …… 204
20年 6月 11日(乙酉) …… 206
20年 6月 15日(己丑) …… 211
20年 6月 19日(癸巳) …… 212
20年 6月 28日(壬寅) …… 213
20年 7月 11日(甲寅) …… 214
20年 7月 11日(甲寅) …… 216
20年 7月 13日(丙辰) …… 217
20年 7月 13日(丙辰) …… 219
20年 7月 16日(己未) …… 221
20年 7月 17日(庚申) …… 222
20年 7月 19日(壬戌) …… 223
20年 7月 25日(戊辰) …… 225
20年 7月 27日(庚午) …… 226
20年 7月 29日(壬申) …… 227
20年 7月 29日(壬申) …… 228
20年 8月 5日(丁丑) …… 229
20年 8月 5日(丁丑) …… 230
20年 8月 9日(辛巳) …… 232
20年 8月 13日(乙酉) …… 233
20年 9月 3日(乙巳) …… 234
20年 9月 5日(丁未) …… 235
20年 10月 5日(丁丑) …… 236
20年 10月 25日(丁酉) …… 237
20年 11月 24日(乙丑) …… 238
20年 11月 25日(丙寅) …… 240
20年 11月 25日(丙寅) …… 241
20年 11月 28日(己巳) …… 242
20年 12月 2日(癸酉) …… 245
20年 12月 15日(丙戌) …… 246
20年 12月 16日(丁亥) …… 247
20年 12月 20日(辛卯) …… 249
20年 12月 20日(辛卯) …… 250
20年 12月 27日(戊戌) …… 251

1797年

21年 1月 6日(丁未) …… 254
21年 1月 6日(丁未) …… 255
21年 1月 6日(丁未) …… 256
21年 1月 6日(丁未) …… 258
21年 1月 8日(己酉) …… 259
21年 1月 13日(甲寅) …… 262

21年 1月 13日(甲寅) …… 263
21年 1月 14日(乙卯) …… 264
21年 1月 19日(庚申) …… 265
21年 1月 22日(癸亥) …… 266
21年 2月 4日(乙亥) …… 268
21年 2月 5日(丙子) …… 269
21年 2月 10日(辛巳) …… 270
21年 3月 15日(乙卯) …… 272
21年 3月 16日(丙辰) …… 273
21年 4月 16日(丙戌) …… 274
21年 5月 5日(甲辰) …… 275
21年 5月 8日(丁未) …… 276
21年 5月 11日(庚戌) …… 278
21年 5月 12日(辛亥) …… 279
21年 5月 12日(辛亥) …… 280
21年 5月 12日(辛亥) …… 281
21年 5月 22日(辛酉) …… 282
21年 5月 22日(辛酉) …… 283
21年 5月 22日(辛酉) …… 284
21年 5月 30日(己巳) …… 286
21年 6月 20日(己丑) …… 288
21年 閏6月 3日(辛丑) …… 291
21年 閏6月 10日(戊申) …… 292
21年 閏6月 19日(丁巳) …… 293
21年 閏6月 19日(丁巳) …… 294
21年 閏6月 20日(戊午) …… 295
21年 閏6月 20日(戊午) …… 296
21年 閏6月 27日(乙丑) …… 298
21年 閏6月 29日(丁卯) …… 300
21年 7月 7日(甲戌) …… 302
21年 7月 12日(己卯) …… 303
21年 8月 2日(戊戌) …… 305
21年 8月 5日(辛丑) …… 307
21年 8月 5日(辛丑) …… 309
21年 9月 10日(丙子) …… 312
21年 9月 18日(甲申) …… 314
21年 10月 3日(戊戌) …… 316
21年 10月 14日(己酉) …… 317
21年 11月 12日(丁丑) …… 318
21年 11月 16日(辛巳) …… 320
21年 11月 18日(癸未) …… 322
21年 11月 18日(癸未) …… 323
21年 11月 18日(癸未) …… 324
21年 11月 20日(乙酉) …… 325
21年 11月 25日(庚寅) …… 328
21年 12月 1日(丙申) …… 331
21年 12月 5日(庚子) …… 332
21年 12月 6日(辛丑) …… 334
21年 12月 10日(乙巳) …… 335
21年 12月 10日(乙巳) …… 336
21年 12月 10日(乙巳) …… 337
21年 12月 12日(丁未) …… 338
21年 12月 13日(戊申) …… 339
21年 12月 13日(戊申) …… 340
21年 12月 17日(壬子) …… 341
21年 12月 20日(乙卯) …… 342
21年 12月 20日(乙卯) …… 343
21年 12月 20日(乙卯) …… 344
21年 12月 20日(乙卯) …… 345
21年 12月 20日(乙卯) …… 346

21年 12月 21日(丙辰) …… 347
21年 12月 22日(丁巳) …… 348
21年 12月 26日(辛酉) …… 350

1798年

22年 1月 10日(乙亥) …… 352
22年 1月 11日(丙子) …… 354
22年 1月 14日(己卯) …… 355
22年 1月 15日(庚辰) …… 357
22年 1月 22日(丁亥) …… 361
22年 1月 22日(丁亥) …… 362
22年 1月 25日(庚寅) …… 363
22年 1月 26日(辛卯) …… 364
22年 2月 17日(辛亥) …… 366
22年 2月 18日(壬子) …… 367
22年 2月 25日(己未) …… 368
22年 2月 27日(辛酉) …… 370
22年 2月 28日(壬戌) …… 371
22年 3月 7日(辛未) …… 372
22年 3月 9日(癸酉) …… 374
22年 3月 11日(乙亥) …… 375
22年 3月 11日(乙亥) …… 376
22年 3月 14日(戊寅) …… 378
22年 3月 18日(壬午) …… 379
22年 3月 18日(壬午) …… 380
22年 3月 19日(癸未) …… 381
22年 3月 20日(甲申) …… 382
22年 3月 22日(丙戌) …… 383
22年 3月 27日(辛卯) …… 385
22年 3月 28日(壬辰) …… 386
22年 4月 3日(丁酉) …… 388
22年 4月 5日(己亥) …… 390
22年 4月 8日(壬寅) …… 391
22年 4月 19日(癸丑) …… 392
22年 4月 25日(己未) …… 393
22年 4月 26日(庚申) …… 394
22年 5月 2日(乙丑) …… 395
22年 5月 2日(乙丑) …… 396
22年 5月 22日(乙酉) …… 397
22年 6月 3日(乙未) …… 398
22年 6月 4日(丙申) …… 400
22年 6月 5日(丁酉) …… 402
22年 6月 6日(戊戌) …… 403
22年 7月 4日(丙寅) …… 405
22年 7月 5日(丁卯) …… 408
22年 7月 6日(戊辰) …… 409
22年 7月 7日(己巳) …… 410
22年 7月 8日(庚午) …… 411
22年 7月 11日(癸酉) …… 412
22年 7月 13日(乙亥) …… 413
22年 7月 13日(乙亥) …… 414
22年 7月 13日(乙亥) …… 415
22年 7月 14日(丙子) …… 416
22年 7月 15日(丁丑) …… 417
22年 7月 15日(丁丑) …… 418
22年 7月 15日(丁丑) …… 419
22年 7月 16日(戊寅) …… 420
22年 7月 17日(己卯) …… 422
22年 7月 18日(庚辰) …… 423
22年 7月 19日(辛巳) …… 424

22年 7月 20日(壬午) ····· 425
22年 7月 21日(癸未) ····· 427
22年 7月 22日(甲申) ····· 428
22年 7月 23日(乙酉) ····· 429
22年 7月 23日(乙酉) ····· 431
22年 7月 24日(丙戌) ····· 432
22年 7月 27日(己丑) ····· 433
22年 7月 28日(庚寅) ····· 434
22年 7月 29日(辛卯) ····· 435
22年 8月 1日(壬辰) ····· 436
22年 8月 2日(癸巳) ····· 438
22年 8月 3日(甲午) ····· 439
22年 8月 4日(乙未) ····· 440
22年 8月 7日(戊戌) ····· 441
22年 8月 8日(己亥) ····· 442
22年 8月 9日(庚子) ····· 443
22年 8月 10日(辛丑) ····· 444
22年 8月 11日(壬寅) ····· 445
22年 8月 16日(丁未) ····· 446
22年 8月 19日(庚戌) ····· 448
22年 8月 20日(辛亥) ····· 449
22年 8月 22日(癸丑) ····· 450
22年 8月 23日(甲寅) ····· 452
22年 9月 2日(壬戌) ····· 453
22年 9月 3日(癸亥) ····· 454
22年 9月 4日(甲子) ····· 455
22年 9月 5日(乙丑) ····· 456
22年 9月 6日(丙寅) ····· 457
22年 9月 9日(己巳) ····· 458
22年 9月 10日(庚午) ····· 459
22年 9月 11日(辛未) ····· 460
22年 9月 13日(癸酉) ····· 461
22年 9月 14日(甲戌) ····· 462
22年 9月 15日(乙亥) ····· 463
22年 9月 16日(丙子) ····· 464
22年 9月 17日(丁丑) ····· 465
22年 9月 18日(戊寅) ····· 466
22年 9月 19日(己卯) ····· 467
22年 9月 20日(庚辰) ····· 468
22年 9月 24日(甲申) ····· 469
22年 9月 25日(乙酉) ····· 470
22年 9月 26日(丙戌) ····· 471
22年 9月 27日(丁亥) ····· 472
22年 9月 28日(戊子) ····· 473
22年 9月 29日(己丑) ····· 474
22年 9月 30日(庚寅) ····· 475
22年 10月 2日(壬辰) ····· 476
22年 10月 4日(甲午) ····· 478
22年 10月 5日(乙未) ····· 479
22年 10月 6日(丙申) ····· 480
22年 10月 7日(丁酉) ····· 481
22年 10月 8日(戊戌) ····· 482
22年 10月 9日(己亥) ····· 483
22年 10月 10日(庚子) ····· 484
22年 10月 11日(辛丑) ····· 485
22年 10月 13日(癸卯) ····· 486
22年 10月 13日(癸卯) ····· 487
22年 10月 14日(甲辰) ····· 489
22年 10月 17日(丁未) ····· 490
22年 10月 18日(戊申) ····· 492

22年 10月 19日(己酉) …… 493
22年 10月 20日(庚戌) …… 494
22年 10月 21日(辛亥) …… 495
22年 10月 22日(壬子) …… 496
22年 10月 23日(癸丑) …… 497
22年 10月 24日(甲寅) …… 498
22年 10月 27日(丁巳) …… 499
22年 11月 2日(辛酉) …… 500
22年 11月 7日(丙寅) …… 502
22年 11月 8日(丁卯) …… 503
22年 11月 9日(戊辰) …… 504
22年 11月 11日(庚午) …… 505
22年 11月 16日(乙亥) …… 506
22年 11月 16日(乙亥) …… 507
22年 11月 17日(丙子) …… 509
22年 11月 17日(丙子) …… 510
22年 11月 17日(丙子) …… 511
22年 11月 17日(丙子) …… 512
22年 11月 18日(丁丑) …… 513
22年 11月 19日(戊寅) …… 514
22年 11月 22日(辛巳) …… 515
22年 11月 23日(壬午) …… 516
22年 11月 24日(癸未) …… 517
22年 11月 25日(甲申) …… 518
22年 11月 26日(乙酉) …… 519
22年 11月 27日(丙戌) …… 520
22年 11月 28日(丁亥) …… 521
22年 11月 29日(戊子) …… 522
22年 12月 3日(壬辰) …… 523
22年 12月 10日(己亥) …… 524
22年 12月 11日(庚子) …… 525
22年 12月 12日(辛丑) …… 526
22年 12月 14日(癸卯) …… 527
22年 12月 16日(乙巳) …… 528
22年 12月 18日(丁未) …… 530
22年 12月 18日(丁未) …… 531
22年 12月 19日(戊申) …… 532
22年 12月 20日(己酉) …… 533
22年 12月 20日(己酉) …… 534
22年 12月 20日(己酉) …… 535
22年 12月 21日(庚戌) …… 536
22年 12月 22日(辛亥) …… 537
22年 12月 22日(辛亥) …… 538
22年 12月 27日(丙辰) …… 539

1799年

23年 1月 15日(甲戌) …… 542
23年 1月 19日(戊寅) …… 546
23年 2月 23日(辛亥) …… 550
23年 2月 25日(癸丑) …… 551
23年 3月 19日(丁丑) …… 553
23年 3月 28日(丙戌) …… 556
23年 3月 30日(戊子) …… 559
23年 4月 9日(丁酉) …… 561
23年 4月 23日(辛亥) …… 562
23年 4月 24日(壬子) …… 564
23年 5月 2日(己未) …… 565
23年 5月 5日(壬戌) …… 566
23年 5月 7日(甲子) …… 568
23年 5月 12日(己巳) …… 569

23年 5月 22日(己卯) …… 571
23年 5月 25日(壬午) …… 572
23年 6月 3日(庚寅) …… 573
23年 6月 9日(丙申) …… 575
23年 6月 22日(己酉) …… 576
23年 6月 23日(庚戌) …… 577
23年 7月 1日(丁巳) …… 578
23年 7月 3日(己未) …… 580
23年 7月 5日(辛丑[辛酉]) …… 581
23年 7月 5日(辛丑[辛酉]) …… 582
23年 7月 8日(甲辰[甲子]) …… 583
23年 7月 13日(己巳) …… 584
23年 7月 19日(乙亥) …… 585
23年 7月 19日(乙亥) …… 586
23年 7月 20日(丙子) …… 587
23年 7月 20日(丙子) …… 588
23年 7月 20日(丙子) …… 589
23年 7月 20日(丙子) …… 590
23年 7月 22日(戊寅) …… 592
23年 7月 28日(乙卯[甲申]) …… 593
23年 8月 9日(乙未) …… 594
23年 8月 22日(戊申) …… 596
23年 8月 25日(辛亥) …… 597
23年 9月 10日(甲子[乙丑]) …… 599
23年 9月 11日(丙寅) …… 600
23年 9月 17日(壬申) …… 601
23年 9月 17日(壬申) …… 602
23年 9月 25日(庚辰) …… 603
23年 9月 26日(辛巳) …… 605
23年 9月 26日(辛巳) …… 606
23年 9月 26日(辛巳) …… 607
23年 9月 27日(壬午) …… 608
23年 9月 27日(壬午) …… 609
23年 10月 2日(丁亥) …… 611
23年 10月 11日(丙申) …… 612
23年 10月 12日(丁酉) …… 613
23年 10月 14日(己亥) …… 615
23年 10月 23日(戊申) …… 616
23年 10月 29日(甲寅) …… 617
23年 11月 5日(己未) …… 618
23年 11月 6日(庚申) …… 620
23年 11月 6日(庚申) …… 621
23年 11月 17日(辛未) …… 623
23年 11月 17日(辛未) …… 624
23年 11月 17日(辛未) …… 625
23年 11月 17日(辛未) …… 626
23年 11月 19日(癸酉) …… 628
23年 11月 21日(乙亥) …… 629
23年 11月 22日(丙子) …… 630
23年 11月 24日(戊寅) …… 631
23年 11月 27日(辛巳) …… 632
23年 12月 2日(乙酉) …… 633
23年 12月 10日(癸巳) …… 635
23年 12月 10日(癸巳) …… 636
23年 12月 11日(甲午) …… 637
23年 12月 13日(丙申) …… 639
23年 12月 13日(丙申) …… 640
23年 12月 13日(丙申) …… 641
23年 12月 14日(丁酉) …… 643
23年 12月 16日(戊戌[己亥]) …… 644

23年 12月 16日(戊戌[己亥]) …… 645
23年 12月 19日(壬寅) …… 647
23年 12月 21日(甲辰) …… 648
23年 12月 22日(乙巳) …… 649
23年 12月 25日(戊申) …… 650

1800年

24年 1月 24日(丁丑) …… 652
24年 1月 24日(丁丑) …… 653
24年 1月 28日(辛巳) …… 654
24年 2月 8日(辛卯) …… 655
24年 2月 9日(壬辰) …… 656
24年 3月 15日(丁卯) …… 659
24年 3月 22日(甲戌) …… 661
24年 3月 24日(丙子) …… 663
24年 3月 24日(丙子) …… 665
24年 3月 24日(丙子) …… 667
24年 3月 25日(丁未[丁丑]) …… 668
24年 3月 26日(戊寅) …… 669
24年 3月 26日(戊寅) …… 670
24年 3月 28日(庚午[庚辰]) …… 671
24年 3月 28日(庚午[庚辰]) …… 672
24年 3月 29日(辛巳) …… 673
24年 4月 1日(癸未) …… 674
24年 4月 2日(甲申) …… 676
24年 4月 2日(甲申) …… 677
24年 4月 5日(丁亥) …… 678
24年 4月 7日(己丑) …… 679
24年 閏4月 24日(丙子) …… 681
24年 閏4月 25日(丁丑) …… 682
24年 閏4月 26日(戊寅) …… 684
24年 閏4月 27日(己卯) …… 688
24年 閏4月 29日(辛巳) …… 690
24年 5月 2日(癸未) …… 693
24年 5月 10日(辛卯) …… 694
24年 5月 22日(癸卯) …… 695
24年 5月 25日(丙午) …… 697
24年 5月 26日(丁未) …… 698
24年 5月 28日(己酉) …… 699
24年 6月 3日(甲寅) …… 701

純祖

1800年

卽位年 7月 7日(丁亥) …… 706
卽位年 7月 11日(辛卯) …… 707
卽位年 7月 19日(己亥) …… 708
卽位年 7月 21日(辛丑) …… 709
卽位年 8月 1日(辛亥) …… 710
卽位年 8月 1日(辛亥) …… 711
卽位年 8月 4日(甲寅) …… 714
卽位年 8月 25日(乙亥) …… 716
卽位年 8月 28日(戊寅) …… 718
卽位年 8月 29日(己卯) …… 719
卽位年 9月 1日(庚辰) …… 721
卽位年 9月 3日(壬午) …… 724
卽位年 9月 5日(甲申) …… 725
卽位年 9月 6日(乙酉) …… 726
卽位年 9月 9日(戊子) …… 727

卽位年 9月 15日(甲午) …… 728
卽位年 9月 16日(乙未) …… 729
卽位年 9月 17日(丙申) …… 732
卽位年 9月 18日(丁酉) …… 733
卽位年 9月 19日(戊戌) …… 734
卽位年 9月 20日(己亥) …… 735
卽位年 9月 24日(癸丑[癸卯]) …… 736
卽位年 9月 30日(己酉) …… 737
卽位年 10月 1日(庚戌) …… 738
卽位年 10月 10日(己未) …… 740
卽位年 10月 16日(乙丑) …… 741
卽位年 10月 19日(戊辰) …… 743
卽位年 10月 22日(辛未) …… 744
卽位年 10月 23日(壬申) …… 745
卽位年 10月 24日(癸酉) …… 746
卽位年 10月 27日(庚戌[丙子]) …… 747
卽位年 10月 28日(丁丑) …… 748
卽位年 11月 10日(戊子) …… 749
卽位年 11月 10日(戊子) …… 750
卽位年 11月 10日(戊子) …… 752
卽位年 11月 23日(辛壬[辛丑]) …… 754
卽位年 11月 23日(辛壬[辛丑]) …… 755
卽位年 11月 27日(乙巳) …… 757
卽位年 12月 25日(癸酉) …… 760
卽位年 12月 26日(甲戌) …… 761

1801年

1年 1月 4日(辛巳) …… 764
1年 1月 14日(辛卯) …… 766
1年 1月 15日(壬辰) …… 767
1年 1月 19日(丙申) …… 768
1年 2月 5日(辛亥) …… 769
1年 2月 7日(癸丑) …… 772
1年 2月 9日(乙卯) …… 773
1年 2月 12日(戊午) …… 774
1年 2月 20日(丙寅) …… 775
1年 2月 28日(甲戌) …… 776
1年 3月 5日(辛巳) …… 777
1年 3月 21日(丁酉) …… 779
1年 3月 24日(庚子) …… 780
1年 3月 27日(癸卯) …… 781
1年 5月 12日(丁亥) …… 783
1年 5月 14日(己丑) …… 785
1年 5月 25日(庚子) …… 786
1年 5月 26日(辛丑) …… 789
1年 5月 29日(甲辰) …… 790
1年 5月 29日(甲辰) …… 791
1年 7月 15日(己丑) …… 792
1年 7月 18日(壬辰) …… 793
1年 7月 20日(甲午) …… 794
1年 7月 22日(丙申) …… 795
1年 7月 23日(丁酉) …… 796
1年 7月 27日(辛丑) …… 797
1年 7月 28日(壬寅) …… 798
1年 8月 1日(乙巳) …… 799
1年 9月 14日(丁亥[戊子]) …… 800
1年 9月 14日(丁亥[戊子]) …… 801
1年 9月 26日(庚子) …… 802
1年 9月 29日(癸卯) …… 803
1年 10月 7日(庚戌) …… 804

1年 10月 10日(癸丑) …… 805
1年 10月 11日(甲寅) …… 806
1年 10月 15日(戊午) …… 807
1年 10月 16日(己未) …… 808
1年 10月 16日(己未) …… 809
1年 10月 30日(癸酉) …… 810
1年 11月 2日(乙亥) …… 812
1年 11月 3日(丙子) …… 813
1年 11月 5日(戊寅) …… 814
1年 11月 7日(庚辰) …… 815
1年 11月 7日(庚辰) …… 816
1年 11月 7日(庚辰) …… 818
1年 11月 8日(辛巳) …… 819
1年 11月 8日(辛巳) …… 820
1年 11月 11日(甲申) …… 821
1年 11月 12日(乙酉) …… 822
1年 11月 12日(乙酉) …… 823
1年 11月 12日(乙酉) …… 824
1年 12月 10日(壬子) …… 825
1年 12月 14日(丙辰) …… 826
1年 12月 14日(丙辰) …… 827
1年 12月 14日(丙辰) …… 828

1795年

(정조 19)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十四日 丙寅

○ 以旌義縣監南浹, 穀物加請上疏, 傳于趙尙鎭曰, 領相則以藥院日次問候, 今方入侍, 左右相亦爲入侍事, 傳諭. 有司堂上及備堂中曾經道伯人, 亦爲來待.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14일(병인)

▢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浹)이 곡물(穀物)을 더 청하는 상소(上疏)와 관련하여 좌·우의정을 입시하게 하라는 등의 전교

○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浹)[1]이 곡물(穀物)을 더 청하는 상소(上疏)와 관련하여 조상진(趙尙鎭)[2]에게 전교하기를, “영상은 약원(藥院)의 일차문후(日次問候) 때문에 방금 입시하였다. 좌의정과 우의정도 입시하라고 전유(傳諭)하라. 유사 당상과 비국 당상 중에 일찍이 관찰사를 지낸 사람도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남속, 곡물, 상소.

---

1) 남속(1751~?): 본관 의령(宜寧). 자 이청(而淸).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정의현감(1793.12(도임).~1795.9.) 역임.

2) 조상진(1740~1820): 본관 풍양(豊壤). 자 이진(爾珍). 시호 익정(翼貞).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병조판서, 대사간, 대사성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十四日 丙寅

○ 旌義縣監南涑疏曰，伏以臣叨承謬恩，待罪島縣，歲將一周矣，政隨手拙，事與心違，尙未能一半分自效，粗塞百里之責，少弛九重之憂，每一循省，只自愧懼，不意窮絶之域，遽値酷烈之災，四顧茫然，欲控靡極，恭惟我殿下，大德日生，一念若保，八域之廣，兆民之衆，無不咸囿於煦濡之中．至於此島，尤以其邈在海外，憂恤拯濟，靡所不至，迺者前牧使臣沈樂洙之馳啓請粟也，日月之明在上，謂狀辭非過實，謂島民爲尤急，凡係進獻，竝從停減，特命一萬包大賑，繼許五千石別饋，用推同慶之意，俾無失所之歎，洪恩所及，羸黑浮黃之民，感極而悲，揮涕攢手，欣欣有更生之望，吁其至矣．苟使守土之臣，體殿下是心之萬一，雖在他時，決不敢恝然於一夫之不獲，自干辜負之罪，伏況明年，乃是何年，而上有浹骨之澤，下守濫觴之戒，其間許多含生，將不免抱携而胥溺，則抑立而視之也已乎？念臣名忝侍從，叨字牧，愚昧之民，期望則稍別，只緣臣不才無狀，不能辦一事救一人，遂令捐瘠之慘，最先且偏於一島之中，以目下光景推之，及見來歲麥秋者，定不爲幾許，臣若徒以越例爲嫌，干恩爲懼，不早爲殿下一言，他日殿下，設以其人微不加之誅，臣敢將何面，還渡重溟，復入修門乎？臣請冒萬死陳此危迫之狀焉．臣所叨之縣，蓋是絶島中偏陲，黃茅黑石，極目荒翳，居無舟楫之往來，俗昧驄涼之交易，耕犁所及，秪是旱田，土瘠已甚，顆粒微疎，且以地不宜麥，民鮮爲業，夏秋饑窘，卽其每歲每然之患．今秋穡事，幸有登豐之望，皮服籐笠，雀躍相賀，忽於秋務垂成之時，大風捲地，鹹水翻盆，穰穰將熟之穀，打成一團如菜沈鹽，臭不可聞，繼以七八日曝陽，齪白腐黑，在野牛馬，亦皆避而不食．試取其早種先熟者，擣而簸之，便卽隨風飛去，厓然一穗之大，都無一二粒之或稔，外此草葉木實，凡屬吾民口吻中物，一是掃盡無去處矣．以官穀言之，糶糴分留，自有法限，而本島則諉以瘴濕之腐損，歉荒之荐仍，傾庫擅分，成一謬例，本自不敷之儲，告竭已久，以民産言之，富戶宿儲，瓶罌殘瑣，俱無以自保其生，此實臣所嘗目覩，下此一等以還，從可推知．夫置之於大海四圍之內，生穀之源先竭，通貨之路又絶，公私蕩然，朝不謀夕，所恃以爲生者，惟是蒼蒼生物之天．今焉至此，噫，彼忍饑望哺之民，莫不斂手却立，失聲哀號，始自風定後兩三日，富者宰殺牛馬，汲汲然若將不及，賤鬻衣服田土，人自不買，貧者奔迸四出，十室九室，傴僂顚連，咸萃于本州之中面，蓋以巨嶽障蔽，被災稍歇故也，畢竟主客俱困，了無所得，則又復扶携而歸．自是以來，窮村荒野，驚心慘目之事，殆無虛日，臣不忍一一提陳，驚動我聖心，而今猶如此，繼此可知，嗚呼，將若之何哉？大抵失稔之歲，有所謂赤地，有所謂大無，固未有高平一樣，菜穀皆然，直是掃蕩擣爛，一如本島今年之經一大變怪也，議賑之民，有所謂尤甚，有所謂丐乞，亦未有貧富俶竭，彼我俱急，無以少延暫活，一如該縣今

日之爲極盡地頭也．以其久虛積瘁之餘，遇此本無創有之災，固知有一箇死字外，更無道理，而不待時日之稍久，不因疾疫之流行，甫過一朔，羸瘠者浮腫，漸綴者委棄，勢若土崩，日漸加而月益甚，則人固未易料也．凡有耳目者，非不卽地聞覩其實，然猶復赽趄悕怳，官或不信於民，營或致疑於縣，久而後稍知，然則風濤之所阻，事理之所在，廟堂亦豈準信於請穀之啓乎？過半成實之議，在所必至，雖然推常理而度非常之變，據前例而應無前之事，遠近異宜，緩急失序，則臣雖至愚，決知夫闔境生靈，必無幸矣．且狀請中二萬石折米，實皮穀四萬石也，此豈率易仰請，罄國穀於垂殫，望聖恩於難繼者哉？於此可見其無可如何之一端矣．政使盡此數得來，尙患不足，況於不足之中，減得過其半乎？臣請有以證之．臣之縣內烟戶，大約二千六百餘，自稍實至丐乞，計口則一巡當入四百石，自來朔至四月排巡，則五朔當爲十五次，準此計之，必得折米六千石然後，始可議其賑活之方．朝廷劃下之穀，設云都付之該縣，量入計出，固未見其有餘，則以此均排於三邑過六萬人口，欲望彼此之俱全，可乎？賑口之分次高下，例也，而該縣之曰稍實曰之次，特取其平居生業，强以名之耳，其視窮丐之戶，無甚異同，顧以穀總之不敷，別施艱窘迫切之法，揀抄於一般頗頷之中，節殺於萬分遑汲之際，多方刷櫛，若恐得食者之或濫．然則船粟往哺之命，實出於一視之至意，而其不及受賜者，不已多乎？況此兩等以下，凜凜然危在呼吸之類，亦無以快脫此套中．數在三分而拔其一，食比常例而減其半，呼號而莫聞，顚仆而不顧，是皆我殿下積費洪造，憂勤哺活者也．牧守之臣，嚴不敢優請，訏謨之地，遠未及盡察，終使之饑而死也，則天下寧有是理？議者必云，列路分賑，委積枵然，朝廷於島民，已施加等之大惠，今雖欲加劃，其道無由．臣伏讀聖教，若曰，陸民猶有轉輸之路，大哉，王言．累萬生民，惟知仰哺於朝廷，得此則生而已，此外了然無他指向營爲之事，朝廷洞悉此狀，則雖至苟簡變通，罄竭轉運，可不於加等之外，又加一等乎？臣坐此絶域，雖未知某道年事之有勝，某邑穀簿之有裕，而終不敢自阻於仁覆之下，斷其必不可得矣．臣聞上上年壬子，島中大歉，土人傳以爲罕見，然比諸今秋，不害爲平年，伊時營縣留庫，以米則萬八千石也，朝廷又捐，無包以賑之，南道屢豐，米商連帆來泊，計亦不下五六千石，自丙午迄辛亥，島豐比登，民食自足，只因一歲之災損，無論以饑以病，死亡則千以數之．今也惟有餘粟一款，比前加厚，餘外事事相反，有生之尙今蠢蜎，亦云異矣，際此賑政，藉令逐數盡付，加巡倍饋，饑病見已入骨，難保其必生，矧玆撙節抄略之極，如右所陳也耶．宜其一邊受食，一邊漸瘠，冬序未闌，僵仆相續，浸浸焉莫可收拾，而拖到窮春，其果至于何境，噫，亦慘矣．臣固知此言一徹，聖心震疊，重煩南顧之憂，臣誠死罪，且臣旣不能出力相救，又不忍袖手熟視，疾聲呼籲，不免爲古人所謂說病症甚危急，而無甚治法之歸，靜思所職，只有惶汗之沾背，然以若境界，遇若災荒，除非添數運粟，恐無別般措劃，彈丸一域，戶口日縮，溝壑日塡，縱使臣

不卽首實, 一向泯默久, 則自當登聞於已無可及之日, 及到是時, 聖心尤當如何. 臣思之至此, 不遑他顧, 若其出位溺職之誅, 臣旣有此一身, 自知其無所逃矣, 區區之憂, 惟願聖慈, 亟降明命, 俾得稱停區劃, 卽速運送, 有若對症處方之勿失錙銖, 救焚拯溺之勿違晷刻, 則豈惟海島孑遺之氓, 獲遂其須臾無死之願, 在微臣, 亦或爲自贖其罪之一事矣, 臣之所望於天地父母之仁, 容有極哉. 臣於十一月初四日, 拜章過海, 傳聞舟覆不達, 伊來三十餘日, 民事日急一日, 旣往已矣, 似此不止, 抑恐餘者無幾. 際伏聞朝廷, 因本島年分狀之回下, 賑需數爻, 特命與道臣相議, 俾無不足之患, 臣不勝感幸攢祝之至, 第以該牧使狀請之數言之, 雖使到底節省費心分排, 必有半不及之弊, 急則勢當更請, 風波程期, 久速難知, 往復遷延之頃, 阽危垂盡之民, 其能遲待乎? 臣旣灼其然, 何敢有懷終默, 不思仰體如傷之聖念乎? 再度緘封, 必欲一達於黼纊之下. 臣亦有人心者, 揆之以理, 固不當得已不已, 張皇爲說, 自速欺罔之罪, 惟聖明垂察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今見去臘初五封章之語, 島民事情, 若在目中, 況殿屎之如彼, 何異於推而納諸? 看來爾疏, 不覺良久無言, 召見大臣·備堂, 另究加劃賑需之策, 期於來月內運輸, 猶恐有後時之歎, 旋用悶念. 然此穀萬包之加劃, 卽以園幸整理所用措置中, 特許除給耽羅, 俾知慈恩之遠暨, 爲道伯牧守者, 知予此意, 雖欲一毫放忽, 得乎? 爾與牧守, 將此批旨, 曉告慈恩於小大民人, 恃而忘饑, 以待萬斛穀物之利運事, 卽令政院, 成送有旨于爾處, 爾其知之.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14일(병인)

▢ 정의현(旌義縣)의 진휼(賑恤)에 필요한 곡물을 추가로 획급(劃給)해 주기를 청하는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의 상소(上疏)

○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이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과분한 은혜를 받들고 섬의 현감 직임을 맡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사가 서툴러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직 조금도 스스로 보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의 책임을 그런대로 채워서 궁궐에 계신 임금님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매양 한 번씩 반성하노라면 절로 부끄럽고 두려울 뿐입니다. 뜻밖에 궁벽한 지역에서 갑자기 혹독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득하기만 하여 그지없는 은덕에 고하고자 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큰 덕이 날로 생기고 한결같은 생각을 보존하니 너른 팔도의 많은 백성들 모두가 온화하게 대하는 가운데로 모여들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섬의 경우

에 있어서는 더욱이 아득히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제함이 이르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심낙수(沈樂洙)[3]가 치계(馳啓)하여 곡식을 청할 때 해와 달과 같은 밝음이 위에 있어서 장계의 내용이 실상보다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고, 섬 백성들이 더욱 급하다고 말하며 무릇 진헌(進獻)에 관계된 것을 모두 정감(停減)[4]하고, 특별히 1만 포(包)로 크게 진휼(賑恤)하게 하고, 이어서 5천 석(石)을 별도로 보내게 하여 경사를 같이 누리는 뜻을 베풀어 의지할 곳을 잃은 탄식을 없게 하였으니, 커다란 은혜가 미친 바에 몸이 파리하고 검게 부황(浮黃)이 뜬 백성들이 감격이 극에 달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뿌리며 손을 모아 기뻐하며 다시 살아날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 정말로 지극합니다. 진실로 지방관으로 하여금 전하의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체득하게 한다면, 비록 다른 때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감히 한 사람이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여 스스로 저버리는 죄를 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이 어떤 해인데, 위에서는 뼈 속까지 젖어드는 은택이 있고, 아래에서는 남상(濫觴)의 경계를 지키는 그 사이에 허다한 백성들이 껴안고 서로 물에 빠지는 것을 면치 못한다면, 그렇다면 가만히 서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생각건대 신은 명색이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의 직임을 맡았기에 우매한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단지 신이 재주가 없고 형편없는 탓에 한 가지 일도 힘쓰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제하지 못하여 마침내 굶어 죽는 참혹함이 한 섬 안에 가장 먼저 또한 치우치게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눈앞의 광경으로 미루어 보건대, 내년 맥추(麥秋)를 보는 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만약에 단지 규례를 어기는 것을 싫어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찍 전하를 위해 한마디 말을 하지 않는다면, 훗날 전하께서 설령 그 사람됨이 미미하여 벌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이 감히 장차 무슨 면목으로 도로 바다를 건너가서 다시 궁궐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을 아룁니다. 신이 맡고 있는 현은 이 절도(絶島) 중의 변방으로 누런 띠[黃茅]와 검은 돌이 눈길 다하는 곳까지 숱하게 펼쳐 있어, 이곳에는 배가 왕래하는 법이 없고, 세속은 말과 양태[驄涼]의 교역에 어두우며, 쟁기가 미치는 곳은 단지 마른 밭인데, 토질은 메마름이 아주 심해서 낱알이 작고 성글고, 또한 땅이 보리농사에 마땅하지 않아서 백성들 중 생

3) 심낙수(1739~1799): 본관 청송(靑松). 자 경문(景文). 호 일환재(一丸齋)·은파.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희천군수, 제주목사(1794.3.~1794.9.) 역임.

4) 정감(停減): 흉년이 들어 백성이 조세(租稅)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그 정도에 따라 징수하지 않거나 감하여 주는 일.

업으로 하는 자가 드물어 여름과 가을에 굶주려 군색(窘塞)해 지는 것이 곧 해마다 매번 그러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농사는 다행히 풍년이 들 가망이 있어서 가죽옷에 등립(籐笠)을 쓴 이들이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며 서로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곡식이 여물어 갈 때 큰 바람이 땅에서 일어나 회오리 치며 불더니 짠물이 날리면서 여물어 장차 익을 곡식을 한 덩어리로 몰아붙여 마치 채소가 소금에 절인 것처럼 되어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칠팔일간 내리쬔 땡볕에 소금이 하얗게 피고 썩어 검게 되어 들에 있는 소와 말이 또한 모두 피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시험 삼아 일찍 씨를 뿌려 일찍 익은 것을 가져다 찧어서 까불려보니 곧 바람을 따라 날아가 버리고, 두툼한 이삭 중에 큰 것도 모두가 한두 알도 혹 여문 것이 없었습니다. 이밖에 풀잎과 나무열매로 무릇 우리 백성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속하는 것들도 모두가 쓸어버려 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관아의 곡식으로 말을 하자면, 환곡을 분급(分給)하고 유치(留置)하는 것은 본래 법이 정한 한도가 있는데, 본도(本島)는 장기(瘴氣)의 습기로 인한 부패와 흉년이 거듭되는 것을 이유로 창고에 있는 것을 모두 들어내어 제멋대로 분급하는 것이 하나의 잘못된 규례를 이루고 있으니, 본디 부족하게 비축했던 것이 고갈된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 백성들의 생산으로 말을 하자면, 부호(富戶)가 비축하여 쌓아둔 것은 항아리에 남은 것이 보잘 것 없게 되어 모두가 스스로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로 신이 일찍이 눈으로 직접 본 바입니다. 이것에서 한 등급 내려가서 돌아보는 것은 따라서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큰 바다가 사방으로 두른 곳에 자리하기에 곡식을 생산하는 근원이 먼저 고갈되었고, 통화(通貨)의 길이 또한 끊겨 공사(公私)가 텅 비어서 아침에 저녁을 도모할 수 없기에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이 푸르고 푸른, 만물을 낳는 하늘뿐입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 저 굶주림을 참고 먹여주기를 바라는 백성들은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서 목메도록 슬피 울부짖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바람이 안정된 뒤 이삼일부터 시작하여 부자들은 소와 말을 도살하고 황급히 마치 장차 미치지 못할 듯 의복과 전토(田土)를 헐값에 팔았지만 사람들은 사지 않고, 가난한 자는 뿔뿔이 흩어져 사방으로 나갔습니다. 열 집에 아홉 집은 허리를 굽히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로 모두가 본주(本州)의 중면(中面)으로 모여들었는데, 대개 거악(巨嶽)이 막아서 가리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것이 조금 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해 질 것이니 끝내 얻을 것이 없으면 또 다시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 아이를 이끌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로부터 가난한 시골과 황량한 들녘의 몹시 놀라운 참담한 광경은 거의 빈 날이 없으니, 신이 차마 일일이 들

어 아뢰어 우리 임금님의 마음을 놀라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오히려 이와 같고, 이것을 이어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으니, 아, 장차 이를 어찌합니까? 대체로 흉년이 든 해에는 이른바 적지(赤地)[5]라는 말이 있고, 이른바 대무(大無)[6]라는 말은 있지만 진실로 높은 곳과 평평한 곳이 한결같은 모양은 있지 않습니다. 채소와 곡식이 모두가 그러하여 바로 휩쓸어 없애 버렸으니, 이는 한결같이 본도가 금년에 일대 변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진휼을 논의하는 백성 중에는 이른바 우심(尤甚)이 있고, 이른바 개걸(丐乞)은 있지만 또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모두 고갈되는 적은 없습니다. 피아가 모두 위급하여 잠시라도 살아있는 것을 조금도 연장할 수 없으니, 이는 한결같이 해당 현이 지금 극진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고 쌓인 피로의 끝에 이와 같이 처음 있는 재앙을 만났으니, 참으로 사(死) 한 글자 외에 달리 도리가 없음을 알겠는데, 시일이 조금 오래됨을 기다리지 않고, 역병의 유행을 따르지 않더라도 겨우 한 달이 지나면 파리한 자는 부종(浮腫)이 생기고, 기운이 없는 자는 버려져서 형세가 흙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되어 날로 점점 더해지고 달로 더욱 심해질 것인 즉 사람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릇 눈과 귀가 있는 자가 즉시 그 실정을 보고 듣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다시 주저하고 당황하여 관리가 혹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영(營)에서 혹 현(縣)을 의심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조금 알게 되니, 그렇다면 풍랑이 가로막는 것과 일의 이치가 있는 것을 묘당(廟堂)이 또한 어찌 곡물을 청하는 계사(啓辭)에서 그대로 믿겠습니까? 과반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의론이 반드시 이를 것이니,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한 이치를 미루어 일반적이지 않은 변고를 헤아려 전례에 의거하여 전에 없는 일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원근(遠近)에 마땅함이 다르고, 완급(緩急)에 차례가 없어진다면, 신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온 섬의 백성들이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계에서 청한 2만 섬의 절미(折米)[7]는 실제로는 피곡(皮穀) 4만 섬인데, 이것이 어찌 경솔하게 청해서 거의 바닥난 것에서 국곡(國穀)을 비게 하고 이어 가기 어려운 것에서 성상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사(政使)가 이 숫자를 다하여 가져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부족한 가운데에서 줄인 것이 절반을 넘을 수가 있습니까? 신은 청컨대 증명

---

5) 적지(赤地): 재해를 입어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한 땅을 말함.

6) 대무(大無): 대무맥화(大無麥禾)의 준말. 큰 흉년이 들어 보리나 벼 등의 곡물이 전멸 상태가 된 것을 말함.

7) 절미(折米): 각종 곡물이나 돈 등을 쌀로 환산하는 것을 말함.

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현내(縣內) 연호(烟戶)는 대략 2,600여 호로, 초실(稍實)에서 개걸까지 계구(計口)하면 1순(巡)에 400섬이 들어가고, 다음달부터 4월까지 배순(排巡)한다면 다섯 달에 15차(次)가 되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반드시 절미 6,000섬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그 진휼하여 살리는 방도를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획하(劃下)한 곡식을 설령 모두 해현(該縣)에 부친다 하더라도 들어온 것을 헤아려 계산해 낸 것이 진실로 그것이 남을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3읍의 6만이 넘는 인구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이쪽과 저쪽이 모두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서야 되겠습니까? 진구(賑口)에 대해 고하(高下)를 나누는 것은 규례입니다. 그런데 해현의 초실과 지차(之次)는 단지 평소의 생업을 취하여 억지로 이름을 붙인 것일 뿐 빈궁한 개걸 호와 비교하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곡총(穀總)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궁색하고 박절한 법을 시행하여 굶주려 부황이 든 가운데에서 가려뽑아 아주 황급한 때에 절쇄(節殺)하여 다방면으로 조사하고는 마치 얻어 먹는 자가 넘칠까 염려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먹이라는 명은 실로 백성을 똑같이 보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미처 준 것을 받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이 두 등급 이하는 숨이 경각에 달린 부류로 또한 이러한 탈 가운데에서 시원하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숫자를 셋으로 나누어 그 하나를 빼고, 먹는 것을 상례(常例)에 비하여 반을 줄여 부르짖는데도 듣지 않고 고꾸라지는데도 돌아보지 않으니, 이는 모두 우리 전하가 은혜를 크게 베풀어 먹여 살리기를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는 자들입니다. 수령의 직임을 맡은 신하가 심하게 감히 넉넉하게 청하지 못하고, 국정을 논하는 곳에서 멀리 미처 다 살피지 못하여 끝내 굶주려 죽게 한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은 필히 말하기를, “열로(列路)에 진휼곡을 나눠주어 쌓아 둔 것이 텅 비었고, 조정이 도민에 대해서는 이미 등급을 더하는 큰 은혜를 시행하였으니, 지금 비록 더 획급(劃給)하려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신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읽어보니, “육지의 백성들은 오히려 전수(轉輸)할 길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임금님의 말씀이시여. 수만 명의 백성들이 오직 아는 것은 조정에서 먹일 것이고, 이를 얻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것 뿐입니다. 이밖에 분명한 것은 달리 지향하여 영위할 일은 없습니다. 조정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비록 구차하고 간략하게 변통하여 전운(轉運)을 바닥이 나게 하더라도 등급을 더한 것 외에 또 한 등급을 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 절역(絶域)에 앉아 있기에 비록 어느 도(道)의 농사형편이 낫고, 어느 읍의 곡부(穀簿)가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 감히 인자

하신 임금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지지난해 임자년에 섬 안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지방사람들이 전하기를, “보기 드물기는 했지만 금년 가을과 비교하면 해치지 않아서 평년 수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영과 현의 창고에 남아있던 것은 쌀이 18,000섬이고, 조정에서 또 내어주었기 때문에 포용하여 구휼하지는 않았으며, 남도(南道)는 여러 차례 풍년이 들어 미상(米商)의 연이은 배가 와서 정박하였지만 계산해 보면 또한 5000~6000섬을 내려가지 않았고, 병오년에서 신해년에 이르기까지 섬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먹을 것은 풍족했는데, 단지 한 해의 재손(災損)으로 인해 굶주림 때문과 병 때문을 막론하고 사망자의 수가 1,000명을 헤아립니다. 지금은 오직 남은 곡식 한 조목만 전에 비해 더 두터워졌고, 그밖의 일들은 상반되어 생명이 있는 것이 아직 지금까지 꿈틀대는 것이 또한 기이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휼 정사를 당하여 가령 숫자대로 다 부쳐 순배를 더하여 배로 먹인다 하더라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병이 이미 뼈 속까지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처럼 아끼고 초략(抄略)하는 것을 지극히 하는 것이 위에 아뢴 바와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받아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력이 다하여 파리해져 겨울이 깊어지기도 전에 쓰러져 죽는 일이 계속 이어져 점점 수습할 수 없게 되어 춘궁기까지 이어졌으니, 과연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에 아, 또한 참혹하단 말입니까? 신은 참으로 이 말이 한번 올라가면 임금님의 마음이 비통하여 거듭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번거롭게 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신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신은 힘을 내어 서로 구원하지도 못하고 또 차마 팔짱을 낀 채 자세히 볼 수가 없어 다급한 소리로 호소하여 옛사람이 말한 ‘병증(病症)이 매우 위급하다고 설명하면서 치료법이 없음’에 귀착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맡은 직임을 생각해 보면 단지 황공하여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실 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계(境界)에서 이와 같은 재황(災荒)을 당한 경우에는 숫자를 더해서 곡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별반 조처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듯합니다. 탄환같이 작은 한 지역에 호구(戶口)는 날로 줄어들고 구렁에는 시신이 날마다 메워지니, 가령 신이 즉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한결같이 입을 다물기를 오래 한다면, 절로 마땅히 미칠 수 없는 날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호소하게 될 것이고, 이때에 이르러서는 성상의 마음이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이 여기에 미쳐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본분을 벗어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는 신이 이미 이한 몸이 있어 스스로 피할 곳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구구(區區)한 근심은 오직 성상의 자애로움으로 속히 밝은 명을 내려 사실에 들어맞게 구획(區劃)하고

즉시 운송하여 마치 병의 증세에 따른 처방에 경미한 것도 놓치지 않고, 불에서 구하고 물에서 건져냄에 잠시의 시간도 어기지 않는 것과 같이 한다면, 어찌 해도(海島)의 남은 백성들이 잠깐이라도 죽지않는 소원을 이루는 것뿐이겠습니까? 미천한 신에 있어서도 또한 혹 그 죄를 속죄하는 한 가지 일이 될 것이니, 신이 천지부모와 같은 성상의 인자함에 바라는 바가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신은 11월 4일 올리는 글이 바다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 이르지 못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로부터 30여 일 백성들의 일은 날로 하루가 급하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만이지만 이와 같이 그치지 않아서 남은 자가 얼마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사이에 들으니, 조정에서 연분장계(年分狀啟)를 회하(回下)한 것으로 인하여 진휼에 필요한 물자의 수효를 관찰사와 상의하여 부족한 근심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히 명하였다고 하니, 신은 감격하고 다행으로 여기며 두 손을 모아 축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목사가 장계로 청한 숫자로 말하자면, 비록 철저하게 절약하고 신경써서 분배한다 하더라도 필시 반도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급하다면 형세상 마땅히 다시 청해야 하는데, 세찬 바람과 험한 파도에 정기(程期)가 오래일지 빠를지 알기 어려우니, 왕복하는 시일이 지체되는 사이에 위태롭게 곧 끝나려하는 백성들이 능히 지체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러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 감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는데도 끝내 침묵하며 백성들을 다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성상의 뜻을 우러러 본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다시 함봉(緘封)하여 반드시 임금님께 한 번 아뢰고자 합니다. 신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치로써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부득이 그만둘 수 없어 장황하게 말하여 임금을 속인 죄를 자초하였으니, 성명께서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금 지난 12월 5일 봉장(封章)의 말을 보니, 섬 백성들의 사정이 마치 눈 앞에 있는 듯하다. 하물며 신음소리가 저와 같으니, 어찌 저곳으로 밀어 넣는 것과 다르지 않겠는가? 너의 상소를 보고 나도 모르게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다가 별도로 진휼에 필요한 물자를 더 획급하는 대책을 궁구하여 다음 달 안으로 실어 나르도록 기약하였지만 오히려 때 늦은 탄식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하지만 이 곡물 1만 포를 더 획급해 주는 것은 곧 원행정리(園幸整理)의 소용(所用)에 조치해 두었던 것을 가지고 특별히 탐라(耽羅)에 떼어 주도록 허락한 것이다. 자애로운 은혜가 먼 곳에 미쳤다는 것을 알게 하라. 관찰사와 목사가 나의 이 뜻을 알았으니,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할 수 있겠는가? 너와 목사는 이 비지(批旨)를 가지고 자애로운 은혜를 대소 백성들에게 알리고, 믿고 굶주림을

잊어 1만 곡(斛)의 곡물이 이롭게 운반되는 일을 기다리도록 하라. 즉시 승정원으로 하여금 유지(有旨)를 만들어 너에게 보내도록 할 것이니, 너는 그리 알라." 라고 하였다.

△ 주제어: 흉년, 정의현감, 남속, 진휼, 상소.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十四日 丙寅

○ 乙卯二月十四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右承旨·同副承旨, 同爲入侍時, 藥房都提調洪樂性, 行右承旨李益運, 左副承旨任希存, 同副承旨李肇源, 假注書吳泰曾, 記注官白慶楷·金良佪, 檢校待教徐有榘,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周命新·李周憲·朴春源·吳仁豐·丁希泰, 以次進伏訖. …… 上曰, 全羅監司狀啓入之. 賤臣承命持入. 樂性曰, 此全羅監司李書九狀啓也, 枚擧濟州牧使李禹鉉, 旌義縣監南涑牒呈, 備陳穀少民多一島顚頷之狀. 仍以爲, 前冬入送之穀, 正月中巡, 想已乏絶, 今番裝運穀一萬二千石, 要不過回巡還賑之資, 則拖到閏月旬望, 又當告罄, 其勢不得不更爲移粟, 而濱海災荒, 無異島中, 賑糶接濟, 末由及時. 船運旁午於沿邑, 陸輸遰及於山郡, 今若更劃穀物, 復令裝發, 則畢竟事勢, 終至於島陸盡劉, 而嶺南右沿, 與本道左沿, 壤地相接, 如濟民倉穀, 雖是爲非[兆]民備豫之需, 到今耽羅民勢, 不可坐視, 道內沿穀更難着手, 而同州加請一萬二千石內, 除今番加送二千石, 餘數一萬石, 雖不可準劃, 更以嶺南右沿穀, 酌量劃下, 卽速裝發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俄於閤外, 與諸堂相議, 則昨年歉荒, 嶺·湖無異, 民勢穀簿, 可知一般窘乏, 今於還賑方張之時, 若或除出穀物, 恐是行不得之事, 顧今春序將闌, 賃船裝運之際, 動費數朔, 則幾及麥登之時, 似無轉運之效. 且於肅廟朝癸巳年, 因島歉有兩南穀轉輸之命, 而臣祖錫輔, 以監賑御史, 下往本道, 以湖沿所在禁御保米及統營會外穀所用, 而嶺穀運輸狀聞還寢, 嶺穀之難於運送, 自古已然, 今者道臣之嶺穀請劃, 決不可從施. 臣意則本道沿邑形勢, 雖甚可悶, 沿海諸邑留庫中, 豈無推移取用之道乎? 向來該牧使李禹鉉, 加請一萬二千石, 而道臣以二千石先已入送, 則未區劃一萬石中, 限五千石, 更爲加劃, 令道臣, 從便入送, 似合宜矣. 上曰, 左右相, 亦陳所見, 而以今春序向半之時, 嶺沿穀物, 何以輸來乎? 爲此行不得之請, 反不若曲爲陸民, 純然防啓, 由前而有從略加劃之請, 由後而有狀語欠誠之歎, 當該道臣, 爲先從重推考, 可也. 彦鎬曰, 本島民情之遑急, 宜有朝家別般軫恤之擧, 而至於嶺穀之難於轉運, 臣亦與領相意同, 勢將以本道某樣穀物, 推移劃給之外, 恐無他道矣. 濟恭曰, 本道民勢, 遑急如此, 其所救濟, 當如拯溺救焚, 而嶺沿設有可運之穀, 見今仲春將半, 輸致湖沿之際, 必犯閏月, 況自湖沿, 候風裝發, 則其到泊本島, 安知不在於麥熟之時乎? 湖南賑事, 雖曰方張, 五六千石穀物推移, 似不至於無以措手, 以道內某樣穀, 量宜裝送之外, 恐無他策矣. 上曰, 諸堂, 各陳所見, 可也. 頤之曰, 臣俄於閤外, 已聞大臣之言, 而嶺穀之不可擧論, 有所酬酢矣. 湖南沿邑穀簿, 雖甚可悶, 留庫豈或全無? 所儲惟至轉粟移民, 亦豈無推移之道乎? 臣意則付之道臣, 某條區劃, 從便輸送之外, 恐無他道矣. 時秀·龍輔·行恁曰, 臣等, 俄於閤外, 亦聞大臣之議, 事勢誠然, 別無他見矣. 上曰, 昨冬

島穀區劃時, 以別置耗條五千石, 特命劃下, 以作別賑之需, 伊後又奉慈敎, 凡所以出於民而供於上者, 一竝停免者, 蓋欲使一島生靈, 咸飽慈覆之恩, 獲保溝壑之命, 島民庶幾知予心矣. 是年何年, 陪慈宮將詣園寢. 此時, 予心又倍昨冬, 而邑守之疏, 際此登徹, 可知島中民勢之遑急, 何可以疏出之在於昨臘, 道臣之加送二千包, 少弛予南顧之憂乎? 今番園幸時經費, 不煩度支, 別爲措置, 自整理所句管, 取其中一萬兩, 特爲劃付道臣, 使之從便作穀, 則可得萬包, 何必限以五千? 若以整理所用移, 濟島中饑氓, 使匹夫匹婦, 咸被慈恩, 則不但島民全活, 實爲宣揚慈德, 推恩飾慶, 恐無大於此者, 諸大臣之意, 何如? 右相, 摠理整理所之任, 亦陳所見, 可也. 樂性曰, 慈恩聖孝, 一擧竝光, 島民聞此敎, 必當不食自飽, 臣等, 亦不勝欽仰攢歎而已, 豈有他見乎? 入送之際, 不必更定差員, 分付道臣與本牧, 往復相議, 無論去來船隻, 從多少量宜載送, 以爲限麥登, 無至絶巡之患, 好矣. 彦鎬曰, 今此劃付之錢, 出自整理之需, 仰體慈覆之恩, 實爲莫大之盛事, 臣固欽仰之不暇, 有何別見乎? 濟恭曰, 以園幸整理所需用之錢, 移付道臣, 使之拮据穀物, 拯救島民, 則是罔非慈恩所暨, 不特島民, 亦必感激蹈舞, 在臣等之心, 惟當攢頌之不暇, 有何他見乎? 上曰, 依爲之. 嚴飭道臣, 期於閏月內, 次次入送, 形止使之狀聞, 可也. 【出擧條】 上曰, 今番亦祭海神乎? 頤之曰, 不必如是, 附于道臣, 從便輸送, 似好矣.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14일(병인)

▢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서구(李書九)의 장계(狀啓)에 따라 제주(濟州)에 내려보낼 진휼곡 마련 방도를 논의하는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등의 계

○ 을묘년 2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하고, 우승지·동부승지가 함께 입시할 때 약방도제조 홍낙성(洪樂性)[8],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좌부승지 임희존(任希存),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오태증(吳泰曾), 기주관 백경해(白慶楷)·김양척(金良倜),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주명신(周命新)·이주헌(李周憲)·박춘원(朴春源)·오인풍(吳仁豊)·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전라감사(全羅監司)의 장계(狀啓)를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가지고 들어왔다. 홍낙성이 아뢰기를, "이

8) 홍낙성(1718~1798): 본관 풍산(豊山). 자 자안(子安). 호 항재(恒齋). 시호 효안(孝安). 1744년(영조 20) 문과 급제. 병조판서, 좌의정, 영의정 역임.

것은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9]의 장계인데,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10]과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곡물은 적고 백성은 많아 온 섬이 부황(浮黃)이 든 상황을 갖추어 아뢰고, 이어서 말하기를, '지난 겨울에 들여보낸 곡식은 1월 중순(中巡)[11]에 이미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번에 꾸려서 운송하는 곡물 12,000석은 요컨대 회순(回巡)에 환진(還賑)[12]하는 물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즉 윤달 열흘이나 보름에 이르러서는 또 의당 바닥이 났다고 고할 것이니, 그 형세상 다시 곡물을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의 재황(災荒)이 섬 안과 다를 것이 없으니, 진휼곡을 조달하는 일을 제때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이용한 운송이 연읍(沿邑)에 붐벼 어수선하고, 육로를 통한 운반이 산군(山郡)에까지 잇닿아 미쳐 지금 만약 다시 곡물을 나누어 다시 짐을 꾸려 보내게 한다면 필경 일의 형세가 끝내 섬과 육지가 모두 죽음에 이르는 지경이 될 것입니다. 영남 우도 연해(沿海)와 본도(本道) 좌도 연해는 경계가 서로 접해 있습니다. (영남의) 제민창(濟民倉)[13]의 곡물의 경우는 비록 이것이 (본도) 백성들의 예비를 위한 것이라(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탐라(耽羅)의 백성들의 형세를 좌시할 수 없고, 도내(道內) 연해의 곡물은 다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동주(同州)가 더 요청한 12,000섬 안에 이번에 더 보낸 2,000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00섬을 비록 수량에 준하여 획급할 수 없더라도 다시 영남 우도 연해의 곡식으로 헤아려 획하(劃下)하여 속히 짐을 꾸려 떠나보내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14]하여 분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전 합문(閤門) 밖에서 여러 당상과 의논해 보니, 작년 흉년이 들었을 때 영남과 호남이 서로 다를 것이 없어서 백성들의 형세와 곡부(穀簿)가 한결같이 군핍(窘乏)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진휼(賑恤)이 한창 진행되는 때에 혹 곡물을 덜어 내는 것은 아마도 행할 수 없는 일인 듯합

---

9) 이서구(1754~1825): 본관 전주(全州). 자 낙서(洛瑞). 호 척재(惕齋)·강산(薑山)·소완정(素玩亭)·석모산인(席帽山人).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평안도관찰사, 형조판서, 판중추부사 역임. 저서 《척재집》·《강산초집(薑山初集)》.

10) 이우현(?~?): 무신. 제주목사(1794.10.(도임)~1796.4.) 역임.

11) 중순(中巡): 진곡 또는 환곡을 분급(分給)하기 위해 안배된 순서를 말함. 통상 1개월을 초순(初巡), 중순(中巡), 종순(終巡)의 3순으로 나눔.

12) 환진(還賑): 환곡으로 진휼한 것.

13) 제민창(濟民倉): 영조 대에 백성을 구휼할 목적으로 지방에 설치한 창고를 가리킴. 1763년(영조 39) 경상도에 처음 제민창을 설치하여 곡식 6만 곡(斛)을 저장하였고 이듬해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설치하여 각각 곡식 3만 곡을 저장하였음.

14) 품지(稟旨): 임금께 아뢰어 교지(敎旨)를 받던 일.

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봄철이 장차 저물어 가는데 배를 임대하여 짐을 꾸려 운반할 때 몇 달이 걸린다면 거의 보리가 익을 때가 되어 운송하는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또한 숙묘조 계사년(1713)에 섬의 흉년으로 인하여 양남(兩南)의 곡물을 옮겨 운송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의 조부 홍석보(洪錫輔)[15]가 감진어사(監賑御史)로 본도에 내려가서 호남 연읍에 소재하는 금위영과 어영청의 보미(保米)[16]와 통영(統營)의 회외곡(會外穀)[17]으로 사용한 바, 영남의 곡물 운송을 장계로 보고하여 도로 거두었으니, 영남의 곡물을 운송하기 어려운 것은 예로부터 이미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찰사가 영남의 곡식으로 획급해 주기를 청하고 있으니, 결코 따라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본도 연읍의 형세가 매우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연해의 여러 고을의 창고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어찌 변통하여 가져다 쓸 방도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해당 목사 이우현이 12,000섬을 더 청하였는데, 관찰사가 2,000섬을 먼저 들여보냈으니 아직 구획하지 못한 10,000섬 가운데 5,000섬에 한하여 다시 더 떼어 주고 관찰사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들여보내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좌의정과 우의정이 또한 소견을 말했지만, 지금 봄이 절반으로 향하고 있는 때에 영남 연읍의 곡식을 어떻게 운송해 오겠는가? 이것을 행할 수 없다고 요청하는 것은 도리어 곡진(曲盡)하게 육지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히 방계(防啓)[18]하는 것만 못하니, 앞의 것을 따라서는 간략하게 더 획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뒤의 것을 따라서는 장계의 내용이 성의가 부족한 탄식이 있다. 해당 관찰사를 우선 엄히 추고(推考)하라."라고 하였다. 유언호(俞彦鎬)[19]가 아뢰기를, "본도(本島) 백성들 사정의 황급함은 마땅히 조정에서 별도로 진휼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남의 곡물을 옮겨 운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신 또한 영상과 뜻이 같습니다. 형세상 본도 모조(某條)의 곡물로 변통하여 획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채제공(蔡濟恭)[20]이 아뢰기를,

---

15) 홍석보(1672~1729): 본관 풍산(豊山). 자 양신(良臣). 호 수은(睡隱). 시호 충경(忠敬). 1706년(숙종 32) 문과 급제. 전라도관찰사, 이조참판, 평안도관찰사 역임.

16) 보미(保米): 여러 군보(軍保)로부터 거둔 쌀.

17) 회외곡(會外穀): 회계 장부에 회록(會錄)하고 남은 곡식.

18) 방계(防啓): 상주(上奏)된 안건에 대하여 담당 관원이 그 일의 부당함을 아뢰어 반대하는 것을 말함.

19) 유언호(1730~1796): 본관 기계(杞溪). 자 사경(士京). 호 즉지헌(則止軒). 시호 충문(忠文).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우의정, 영돈녕부사, 좌의정 역임. 저서 《즉지헌집》.

20) 채제공(1720~1799): 본관 평강(平康). 자 백규(伯規). 호 번암(樊巖)·번옹(樊翁). 1743년(영조 19) 문과 급제. 강화유수, 우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 《번암집》.

"본도의 백성들의 사정이 이와 같이 황급하니 이를 구제하는 것은 마땅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불에서 구해주는 것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남 연읍에 설령 운반할 곡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중춘(仲春)이 반이 되어가니 호남의 연해로 운송해 올 때는 반드시 윤달에 이를 것입니다. 더군다나 호남의 연해에서 바람을 기다렸다가 짐을 꾸려 배를 띄우게 되면, 그것이 본도에 도착하는 것이 보리가 익을 때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호남의 진휼이 비록 한창이라고는 하지만 5,000~6,000섬의 곡물을 변통하는 것을 조처할 수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내 모조의 곡물을 적절히 헤아려 꾸려 보내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상들은 각각 소견을 말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심이지(沈頤之)[21]가 아뢰기를, "신이 조금 전 합문 밖에서 대신의 말을 듣고서 영남의 곡물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호남 연읍의 곡부가 비록 심히 걱정스럽기는 하나 창고에 남아있는 것이 어찌 혹 전혀 없겠습니까? 비축해 둔 것은 오직 곡물을 운반하여 백성들에게 옮겨져 구제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으니, 또한 어찌 변통하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신의 뜻은 관찰사에게 맡겨 모조를 구획하여 편의대로 실어 보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시수(李時秀)[22]·서용보(徐龍輔)[23]·윤행임(尹行恁)[24]이 아뢰기를, "신들 또한 조금 전 합문 밖에서 대신의 의론을 들었는데, 일의 형세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별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 겨울 섬의 곡물을 구획할 때 별도로 비치한 모조(耗條)[25] 5,000섬을 특별히 명하여 내려주어 별도로 진휼에 필요한 물자로 삼게 하고, 이로부터 또 자궁(慈宮)[26]의 하교를 받들어 무릇 백성들에서 나와서 위로 바치는 것을 모두 정면(停免)[27]하게 한 것은 대개 섬의

---

21) 심이지(1735~1796): 본관 청송(靑松). 자 양오(養吾). 1763년(영조 39) 문과 급제. 대사헌, 도승지, 수원부사 역임.

22) 이시수(1745~1821): 본관 연안(延安). 자 치가(稚可). 호 급건(及健). 시호 충정(忠正).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23) 서용보(1757~1824): 본관 달성(達城). 자 여중(汝中). 호 심재(心齋). 시호 익헌(翼獻).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대사헌, 의정부우참찬, 내의원제조 역임.

24) 윤행임(1762~1801): 본관 남원(南原). 자 성보(聖甫). 호 석재(碩齋). 시호 문헌(文獻).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이조참판, 홍문관제학, 전라도관찰사 역임.

25) 모조(耗條): 모곡(耗穀)의 몫. 모곡은 각 고을 창고에 저장한 곡식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했다가 추수 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을 말함.

26) 자궁(慈宮):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를 지칭함.

27) 정면(停免): 기한을 물리거나 면제해 주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가 자애로운 은혜를 입고 구렁에 뒹구는 목숨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섬 백성들은 나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올해가 어떤 해인가? 자궁을 모시고 원침(園寢)[28]에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때에 나의 마음이 또한 지난 겨울보다 배나 되는데, 고을 수령의 상소가 마침 이렇게 올라와서 섬 안 백성들의 형세가 황급함을 알 수 있으니, 어찌 상소가 지난 섣달에 나왔고, 관찰사가 2000포(包)를 더 보냈다고 해서 내가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는가? 이번에 원행(園幸) 할 때의 경비는 호조(戶曹)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별도로 조치하여 정리소(整理所)[29]에서 담당하여 그 가운데 10,000냥을 취하고, 특별히 관찰사에게 획부(劃付)[30]하여 편리한 대로 곡식으로 바꾸게 한다면 10,000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굳이 5,000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 정리소에서 쓰는 것으로 섬 안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여 평범한 백성들이 모두 자애로운 은혜를 입게 한다면, 섬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실로 자궁의 덕을 선양하는 것이 될 것이니, 은혜를 미루어 경사를 꾸미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이 없을 듯하다.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 우의정은 정리소를 총괄하는 직임이니 또한 소견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홍낙성이 아뢰기를, "자궁의 은혜와 성상의 효도가 한꺼번에 빛이 나니, 섬 백성들이 이 하교를 들으면 필시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신들도 흠앙하고 찬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니,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들여보낼 때 차원(差員)을 다시 정할 필요는 없으니, 관찰사와 제주목사에게 분부하여 문서를 주고받으며 상의해서 오가는 배를 막론하고 곡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잘 헤아려 실어 보내되 보리가 여물 때를 기한으로 하여 순(巡)이 끊어지는 근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유언호가 아뢰기를, "이번에 획부한 돈은 정리소의 비용에서 나온 것으로, 자애롭게 감싸 주는 성상의 은혜를 우러러 본받는 것은 실로 막대한 성사(盛事) 이니, 신은 진실로 흠앙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원행 정리소에 쓸 돈을 관찰사에 옮겨 붙여 곡물을 마련하여 섬 백성들을 구제하게 한다면, 이는 자애로운 은혜가 미치는 바가 다만 섬 백성들뿐

---

28) 원침(園寢):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인 현륭원(顯隆園)을 가리킴.

29) 정리소(整理所): 정리(整理)는 가지런히 하다, 바로잡다의 뜻임. 정조의 능행(陵幸)에 따른 일시적인 부대 경비가, 예정된 다른 명목의 경상비(經常費)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로 비용을 마련하고, 호조판서를 정리사(整理使)로 삼아 별도 관리한 데서 비롯되었음.

30) 획부(劃付): 갈라서 다른 계정(計定)에 붙임.

만 아니라 또한 (온나라 백성들이) 감격하여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신들의 마음에는 오직 두 손 모아 송축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 관찰사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윤달 내에 차례대로 들여보내도록 하고, 그 일의 전말을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도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가?"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이와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찰사에게 맡겨 편한 대로 실어 보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흉년, 진휼, 전라감사, 이서구, 장계.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十八日 庚午

○ 以濟州牧使李禹鉉啓本, 應資老人姓名年歲開錄事, 傳于趙尙鎭曰, 令該曹口傳下批.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18일(경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계본(啓本)에 개록(開錄)한 응자노인(應資老人)에 대해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계본(啓本)에, 응자노인(應資老人)[31]의 성명과 나이를 개록(開錄)[32]한 일과 관련하여 조상진(趙尙鎭)에게 전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33]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계본, 응자노인, 개록.

---

31) 응자노인(應資老人): 해마다 연초에 일정한 나이에 이른 노인 가운데 새로 자급(資級)을 주거나 자급을 올려 주어 노인 공양의 뜻을 나타내었음. 양민이나 천민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인 자, 종반(宗班) 부수(副守) 이상으로 80세 이상인 자, 봉군(封君)·시종신(侍從臣)·곤수(閫帥)의 아버지로서 70세 이상인 자, 동반(東班)이나 서반(西班)의 4품 실직을 역임한 자로서 80세인 자들이 해당되었음.

32) 개록(開錄):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의견을 열기(列記)하는 것을 이름.

33) 하비(下批): 재가를 묻거나 진정(陳情)한 데에 대하여 임금이 재가 또는 의견을 적어 내리는 것을 말함.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十八日 庚午

○ 任希存, 以奉常寺言啓曰, 濟州封進去甲寅十二月令宗廟薦新乳柑洞庭橘及來三月令宗廟薦新靑橘, 來到本寺, 臣進詣看品, 則乳柑二百八十八箇, 洞庭橘二百八十八箇, 靑橘二百七十八箇, 封進, 而竝與加封, 腐傷頗多, 擇其可合薦進者, 乳柑僅滿二百七十六箇, 洞庭橘僅滿二百六十六箇, 靑橘僅滿一百四十一箇矣. 在前如此之時, 或有減數薦新之例, 今亦不得已依前例, 宗廟各室, 乳柑十九箇, 洞庭橘十九箇, 靑橘十箇, 推移封進, 而莫重薦新, 如是苟艱, 事體至爲未安, 當該封進官濟州牧使李禹鉉, 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18일(경오)

▢ 썩고 상한 청귤(靑橘) 등을 봉진(封進)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봉상시의 계

○ 임희존(任希存)[34]이 봉상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는 지난 갑인년 12월령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동정귤(洞庭橘) 및 오는 3월령 종묘에 천신하는 청귤(靑橘)이 본시에 도착하여 신이 나아가 간품(看品)하니 유감 288개, 동정귤 288개, 청귤 278개를 봉진하면서 아울러 더 봉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썩어 상한 것이 아주 많아서 그 중 천신에 올리기에 합당한 것을 가리니 유감은 겨우 276개가 찼고, 동정귤은 겨우 266개가 찼고, 청귤은 겨우 141개입니다. 전에 이와 같을 때는 혹 숫자를 감하여 천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부득이 전례에 의거하여 종묘 각실(各室)에 유감 19개, 동정귤 19개, 청귤 10개를 변통하여 봉진하되, 막중한 천신이 이와 같이 구차하니 일의 체모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해당 봉진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종묘, 천신, 봉진, 제주목사, 이우현, 추고.

---

34) 임희존(1748~1828): 본관 풍천(豊川). 자 신지(身之).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공조판서, 판의금부사, 지중추부사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十八日 庚午

○ 任希存,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狀啓持來人十二名處, 各米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18일(경오)

▢ 제주(濟州)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쌀을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임희존(任希存)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에 의거하여 제주(濟州)의 장계(狀啓)를 가지고 온 12명에게 각각 쌀 3말씩을 규례대로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종묘, 천신, 봉진, 제주목사, 이우현, 추고.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二十日 壬申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薦新橘果, 恐有糜〈腐〉傷之慮, 惶恐待罪事, 傳于李肇源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20일(임신)

▢ 천신(薦新)하는 귤과(橘果)가 썩어 상할까 하는 염려로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대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귤과(橘果)가 썩어 상할까 하는 염려가 있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라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천신, 귤과, 대죄.

❖ 乾隆 六十年 乙卯 二月 三十日 壬午

○ 以全羅監司李書九狀啓, 本島劃下錢一萬兩代萬包穀物, 今方罔夜措備, 期於閏月內, 入送計料事, 傳于李肇源曰, 耽羅民事, 夙夜關心, 自聞旌義倅疏, 尤有一倍耿耿, 況萬錢之特下, 兼爲所重, 以此萬錢, 換作萬包, 濟活萬人之頷頤, 則予可以對飯自飽, 當寢始安, 爲道臣者, 莫念及此, 豈必更勤飭諭, 然後盡心督運, 將此傳敎, 令廟堂行會, 日前招問該牧人, 因公上京者, 領略民情, 再運旣到於歲初, 三運能及於麥前, 則比之秋冬光景, 庶幾奠居, 卿亦多般出謀於轉輸之方, 趁時救荒, 毋有緩不及焉, 利運形止, 均分緣由, 亦須陸續陳聞, 以紓九重之勞思事下諭于該牧守臣.

❖ 정조 19년(1795) 을묘년 2월 30일(임오)

▢ 진휼곡을 마련하여 기한 내에 제주(濟州)에 들여보낼 것이라는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서구(李書九)의 장계에 대해 늦지 않게 구황(救荒)하고, 이롭게 운송하고 있는지 그 전말과 균분(均分)하는 연유(緣由)를 계속해서 보고하도록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하유(下諭)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서구(李書九)의 장계에, 본도(本島)에 획하(劃下)한 10,000냥 대신 10,000포(包)의 곡물을 지금 밤낮없이 마련하여 반드시 윤달 내에 들여보낼 계획이라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35]에게 전교하기를, "탐라(耽羅)의 백성들의 일은 밤낮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현감(旌義縣監)의 상소를 들은 때부터는 더욱 한층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10,000냥을 특별히 내리는 것은 겸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이 10,000냥으로 10,000포를 만들어 부황(浮黃) 든 만인을 구제하여 살아나게 한다면, 나는 밥상을 마주하여 절로 배가 부를 것이고, 이불을 펴고 비로소 편안히 잘 수 있을 것이다. 관찰사가 된 자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찌 반드시 다시 간곡하게 타이른 후에야 마음을 다해 운송을 독려할 것인가? 이 전교를 가지고 묘당으로 하여금 행회(行會)하게 하니, 며칠 전에 해당 목(牧)의 사람을 불러와 물어보았는데, 공무로 상경한 자가 백성들의 사정을 대략 알고 있었다. 재운(再運)이 이미 세초(歲初)에 도착했으니, 삼운(三運)이 능히 보리가 여물기 전에 도착할 수 있다면

35) 이조원(1758~1832): 본관 연안(延安). 자 경혼(景混). 호 옥호(玉壺).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병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역임.

이를 가을과 겨울의 광경에 비교해 보면 백성들이 머물러 사는 것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경(卿) 또한 여러 방면으로 옮겨 나르는 방법에 대해 계책을 내어 제때에 구황(救荒)하여 늦어 미치지 못함이 없게 하라. 이롭게 운송하고 있는지 그 전말과 균분(均分)하는 연유(緣由)를 또한 육지로 계속해서 보고하여 궁궐에서 몹시 근심하는 것을 풀어주도록 해당 목사에게 하유(下諭)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이서구, 구황.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八日 己未

○ 以全羅監司李書九狀啓, 濟州特下穀所載船, 次第利泊事, 傳于李肇源曰, 追劃穀物所載船隻, 如是次第利運, 該牧牒語, 亦以優保爲說, 言念島民事情, 極爲多幸. 領運差使員陳德履, 依守令差使員例, 施以賞加之典, 令該曹口傳下批, 教旨, 今日內成送.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8일(기미)

▢ 제주(濟州)의 진휼곡을 이롭게 운송한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 진덕리(陳德履)에게 상가(賞加)의 은전을 시행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의 장계에 제주(濟州)에 특별히 내려준 곡물을 실은 배가 차례대로 잘 도착했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추가로 획급(劃給)한 곡물을 실은 배가 이와 같이 차례대로 이롭게 운송하여 해목(該牧)의 첩보(牒報)에 또한 '우보(優保)'라고 말을 하였으니, 섬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매우 다행이다.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 진덕리(陳德履)를 수령차사원(守令差使員)의 사례에 따라 상가(賞加)[36]의 은전을 시행하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게 하고, 교지(敎旨)는 오늘 내로 만들어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영운차사원, 진덕리, 상가.

36) 상가(賞加): 상으로 자급(資級)을 올려 줌.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十日 辛酉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整理所錢作穀萬石, 劃送濟州, 卿其曉諭民人, 俾知慈恩事, 別諭有旨, 祗受後齊會三邑大小民人, 一一曉諭事, 閏二月十三日封啓, 同牧狀啓, 羅州等邑船九隻, 同月十七日十八日十九日次第穩泊事, 同牧狀啓, 左水營等各邑船三隻, 二十日穩泊事, 同牧狀啓, 南平等邑船二隻, 二十三日穩泊事, 同牧狀啓, 三次加劃萬石內, 先爲利運者六千五十石, 較諸人口, 排比有除事, 傳于蔡弘遠曰, 一念懸懸者, 至今往來於耽羅矣. 觀此各本狀啓之一時登聞者, 次第開緘, 看看奇喜, 最是整理穀特給, 有旨宣諭, 緣由封發之巧湊於華城進饌之日者, 是豈人力所可容爲, 有若神助然者? 尤爲萬萬奇喜. 況二萬五千包穀物, 幾皆利運, 今則排比優優, 濟活綽綽, 減者準式, 未付者加付, 一島生靈, 咸被慈恩, 共沐慈德, 予心之歡欣慶忭, 與有幸焉者, 其可以絲綸, 容諭其萬一乎? 此後接濟之勤慢, 惟係於牧守, 益加殫誠, 使飢者飽, 病者蘇, 環海一區, 家家有鼓腹之喜事, 更令整理所儀軌廳摠理大臣, 別加嚴飭該牧.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10일(신유)

▢ 정리소(整理所)에서 획급(劃給)한 곡물의 도착과 처리와 관련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대해 정리 의궤청(儀軌廳)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제주목사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정리소(整理所)의 돈을 곡물 10,000섬을 만들어 제주(濟州)에 획송(劃送)하고, 경(卿)이 백성들에게 효유(曉諭)하여 자애로운 은혜를 알게 한 일, 별도로 유시(諭示)한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은 후 3읍 대소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 일일이 효유한 일, 윤 2월 13일 봉개(封啓)[37]한 동 목사의 장계에 나주(羅州) 등 읍선(邑船) 9척이 같은 달 17·18·19일 순서대로 온전하게 정박한 일, 동 목사의 장계에 좌수영 등 각 읍의 배 3척이 20일 온전하게 정박한 일, 동 목사의 장계에 남평(南平) 등 읍선 2척이 23일 온전하게 정박한 일, 동 목사의 장계에 세 차례 더 획급(劃給)한 10,000섬 내에 우선 이롭게 운송된 6,050섬을 인구수와 비교하여 비율에 따라 몫을 정하여 덜어낸 일과 관련하여 채홍원(蔡弘遠)[38]에게 전교하기를, "한결같이

37) 봉개(封啓): 밀봉(密封)한 문서로 상주(上奏)함.

38) 채홍원(1762~?): 본관 평강(平康). 자 이숙(邇叔).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홍문관정자, 이조

마음에 걸렸던 것이 지금까지 탐라(耽羅)에 오고가고 있다. 각각의 장계가 한꺼번에 보고한 것을 보고 차례대로 개봉하여 읽어보니 기이하고 기쁘다. 무엇보다도 정리곡(整理穀)을 특별히 주면서 유지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린 것에 대한 연유(緣由)를 봉(封)하여 보낸 것이 화성(華城)에서 연회를 베푸는 날에 공교롭게 맞아떨어졌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마치 신명이 도와서 그렇게 한 듯하지 않은가? 더욱 기이하고 기쁘다. 더군다나 25,000포의 곡물이 거의 모두 이롭게 운반되었고, 지금은 비율에 따라 몫을 정하는 것이 충분하고 제활(濟活)이 넉넉하여, 줄인 것은 규식에 준하고 아직 붙이지 않은 것은 더 붙여주어 한 섬의 백성들이 모두 자애로운 은혜를 입고 함께 자애로운 덕에 젖었으니, 나의 마음이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과 다행으로 여기는 것을 사륜(絲綸)[39]으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알릴 수 있겠는가? 이후로 살아갈 방도를 세우는 것의 근면과 태만은 오직 목사에게 달려있다. 더욱 정성을 다하여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하고, 병든 자는 다시 살아나게 하여 바다에 둘러싸인 한 지역이 집집마다 배를 두드리는 기쁨이 있도록 다시 정리소 의궤청 총리대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해당 목사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정리소, 제활.

참의, 승정원승지 역임. 저서《영남인물고》.

39) 사륜(絲綸): 조칙(詔勅)의 글.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十一日 壬戌

○ 傳曰, 似或未及聞知, 令下則令下, 何必查實? 李晩秀·南公轍, 楸子島定配, 以伸命令, 上直閣吏, 同島發配.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11일(임술)

▢ 이만수(李晩秀) 등을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하라는 전교

○ 전교하기를, "혹 미처 들어 알지 못한 듯한데,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니 어찌 꼭 사실 조사를 해봐야 하겠는가? 이만수(李晩秀)[40]·남공철(南公轍)[41]을 추자도(楸子島)에 정배(定配)하여 명령을 펴도록 하고,[42] 당직으로 숙직했던 각리(閣吏)를 함께 섬에 정배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만수, 남공철, 추자도, 정배.

---

40) 이만수(1752~1820): 본관 연안(延安). 자 성중(成仲). 호 극옹(屐翁)·극원(屐園). 시호 문헌(文獻).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호조판서, 평안도관찰사 역임. 저서 《극옹집》.

41) 남공철(1760~1840): 본관 의령(宜寧). 자 원평(元平). 호 사영(思穎)·금릉(金陵). 시호 문헌(文獻).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저서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42) 이상은 《정조실록》 정조 19년 3월 1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十一日 壬戌

○ 傳于李晩秀曰, 下敎, 果然未及聞知而入來云. 李晩秀·南公轍, 楸子島定配分揀, 下吏亦爲分揀.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11일(임술)

▢ 이만수(李晩秀) 등의 추자도(楸子島) 정배(定配)를 유예(猶豫)하라는 전교

○ 이만수(李晩秀)에게 전교하기를, “하교가 과연 미처 들어 알지 못했는데 들어왔다고 한다. 이만수와 남공철(南公轍)의 추자도(楸子島) 정배(定配)를 유예(猶豫)하라. 하리(下吏) 또한 유예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만수, 남공철, 추자도, 정배, 유예.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十六日 丁卯

○ 兵曹判書沈煥之疏曰, 伏以, 君綱立而人倫敍, 國法行而民志定, 此天下古今當然之理. 臣竊伏見今日君綱不立, 國法不行, 是可以正人倫而壹民志乎? 嗚呼, 明義一部書, 所以寓春秋之大義者也. 上以明聖神相傳之心法, 下以彰亂賊同濟之罪案, 而鐫如金石, 嚴若關和, 其義則可以揭日月也, 其傳則可以亘宇宙也. 今日君臣, 一或撓志, 一或弛慮于是書, 則君不君臣不臣而宗社之危亡, 其亦不日而至矣, 殿下獨不念玆哉? 夫鄭妻者, 明義書中諸賊之一根柢也. 此不置辟, 薄黜近畿, 神人同惋, 厥惟久矣, 況又匿形潛出, 不知所在, 此何變怪也? 事是不虞, 跡固莫測, 至于今六七年間, 在廷諸臣, 然疑相顧, 不敢直陳一語, 臣亦自知爲故重臣宋載經之罪人也. ……. 答曰, 省疏具悉. 事必師古, 政貴率舊, 今日之處鄭妻者, 卽孝廟朝所以處於世龍妻之故事已例也. 世龍妻與鄭妻, 處地旣恰似, 坐犯又相同, 則孝廟朝所以處世龍妻事, 今日若不倣用於鄭妻, 則其可曰師古乎, 率舊乎? 嘗聞故老之說, 世龍妻, 脫自濟州謫所, 潛接於慶熙宮之備邊司朝房, 而勿使朝廷知之, 至今傳以爲盛事, 在其時左右布列於朝廷者, 果皆何許名碩, 而無一人指摘抗言於筵席章牘之際者, 何意也? 然以古今習俗之異宜, 不得不勉屈群請, 有司無狀, 不卽擧行, 寧有如許戲劇之事乎? 此則卿言是矣. 至於不卽自現云云, 未必爲然, 以其未獲宥命於慈殿, 蹤跡如浮雲, 予亦摠計衣糧之支費, 歲給而已. 在處去處, 未嘗一番提詰, 彼雖卽自現, 從何聞知而爲之? 北山之底, 西城之外, 畿邑海郡, 各有買宅. 禁府之曰以不知, 亦可謂不可使聞, 卿其勿辭行公.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16일(정묘)

▢정치달(鄭致達)의 처에 대한 심환지(沈煥之)의 상소에 대해 효종 때 제주(濟州)에 유배되었던 김세룡(金世龍)의 처에 대한 처분 사례를 들어 답한 임금의 비답(批答)

○ 병조판서 심환지[43]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임금의 기강이 서야 인륜이 펴지고, 국법이 행해져야 백성들의 뜻이 정해지는 것이니, 이는 천하 고금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이 적이 삼가 보건대, 오늘날 임금의 기강이 서지 않고 국법이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이렇다면 인륜을 바로잡고 백성의 뜻을 한결같이

43) 심환지(1730~1802): 본관 청송(靑松). 자 휘원(輝元). 호 만포(晩圃). 시호 문충(文忠).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명의록(明義錄)》 한 책은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붙인 것입니다. 위로는 성신(聖神)이 서로 전수한 심법(心法)을 밝히고 아래로는 난적(亂賊)을 동조한 죄안(罪案)을 드러내었으니, 새겨진 것은 금석(金石)과 같고, 엄하기는 관화(關和)[44]와 같아서 그 의리는 해와 달을 걸 수 있고, 그 전함은 우주에 뻗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임금과 신하가 이 책에서 한번이라도 혹 뜻을 굽히거나 혹 생각을 느슨하게 한다면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해서 종묘사직의 위태로움이 또한 며칠 걸리지 않고 이를 것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이것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정치달[45]의 처는 《명의록》의 글 가운데 있는 제적(諸賊)의 한 뿌리입니다. 이를 가볍게 처분하여 경기 가까운 지역으로 내쫓은 데 대해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몸을 숨기고 남몰래 빠져나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슨 변괴입니까? 일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서 자취가 진실로 헤아릴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 6, 7년 동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반신반의하고 서로 돌아보며 감히 곧바로 말하지 못하였으니, 신 또한 고 중신 송재경(宋載經)[46]의 죄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비답하기를[47], "일은 반드시 옛일을 존중해야 하고 정사는 옛정사를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법이다. 오늘날 정치달의 처를 처분한 것은 바로 효묘(孝廟)께서 김세룡의 처[48]를 처분했던 고사(故事)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미 있었던 사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겠다. 세룡의 처는 정치달의 처와 처지가 일단 흡사할 뿐더러 범죄에 걸려든 것도 서로 같다. 그렇다면 효묘조(孝廟朝)에 세룡의 처를 처분했던 일을 오늘날 만약 정치달의 처에게 방불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옛일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옛정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일찍이 고로(古老)의 이야기를 듣건대, 김세룡의 처를 제주(濟州)의 적소(謫所)에서 탈출시켜 경희궁(慶熙宮)의 비변사 조방(朝房)에 남몰래 우거하게 하면서 조정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

---

44) 관화(關和): 《서경(書經)》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나오는 '관석화균(關石和鈞)'의 준말임. 여기서 석(石)과 균(鈞)은 무게의 단위이고, 관(關)은 통(通), 화(和)는 평(平)의 뜻으로, 도량형의 제도를 통일하여 고르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했다는 말임. 곧, 모든 사물의 표준이 되는 법칙이나 규칙을 말함.

45) 정치달(?~1757): 본관 연일(延日). 시호 효민(孝敏). 1749년(영조 25) 3월 영빈이씨(暎嬪李氏) 소생의 화완옹주(和緩翁主)와 정혼하여 일성위(日城尉)가 되었으며, 같은해 7월 혼인하였으나, 1757년에 후사 없이 요절하였음.

46) 송재경(1718~1793): 본관 은진(恩津). 자 자중(子中). 호 기기와(棄棄窩). 1764년(영조 40) 문과 급제. 강화유수, 의주부윤, 충청관찰사 역임.

47) 이하는 《정조실록》 정조 19년 3월 1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48) 김세룡(金世龍)의 처: 인조의 딸 효명옹주(孝明翁主)를 가리킴.

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는 아름다운 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당시 조정에서 좌우에 벌여 서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과연 모두가 얼마나 유명한 석학들이었던가? 그런데도 한 사람도 이를 지적하며 연석(筵席)에서나 장독(章牘)을 올릴 즈음에 맞서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무슨 뜻에서였겠는가? 그러나 옛날과 지금의 습속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애써 나의 뜻을 굽히고 뭇사람들의 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유사(有司)가 형편없이 즉시 거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희극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이 한 말이 옳다. 그러나 즉시 자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다. 그가 자전(慈殿)으로부터 용서받는 명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의 종적은 뜬구름과 같다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의복이나 양식과 관련된 비용을 해마다 지급하게 하였을 뿐 그가 있는 곳이나 간 곳을 한 번도 따져 물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 그가 비록 자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들어 알고서 그런 일을 하겠는가? 북산(北山) 아래와 서성(西城)의 밖과 경기 읍내와 해변가 고을에 각각 집을 매입한 것이 있는데 금부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른다고 하니 이 또한 남이 듣게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겠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공무를 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김세룡의 처, 적소.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二十二日 癸酉

○ 乙卯三月二十二日卯時, 上御重熙堂.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肇源, 假注書趙台榮,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敎曰, 今榜中濟州文臣李台祥·洪達勛·邊景鵬, 旌義文臣高鳴鶴·夫宗仁, 俱是遠人, 先付注書, 皆登筵然後, 次次差代事, 分付.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22일(계유)

▢ 제주(濟州)와 정의(旌義) 출신 문과 급제자를 먼저 주서(注書)에 붙여 모두 연석(筵席)에 나온 뒤에 차차 차대(差代)하라는 전교

○ 을묘년 3월 22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이번 방(榜) 가운데 제주(濟州) 문신(濟州文臣) 이태상(李台祥)[49]·홍달훈(洪達勛)[50]·변경붕(邊景鵬)[51], 정의(旌義) 문신(旌義文臣) 고명학(高鳴鶴)[52]·부종인(夫宗仁)[53]은 모두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니, 먼저 주서(注書)에 붙여 모두 연석(筵席)에 나온 뒤에 차차 차대(差代)[54]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태상, 홍달훈, 변경붕, 고명학, 부종인.

---

49) 이태상(1756~1817): 본관 고부(古阜). 자 군필(君弼).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외아문통례, 창락찰방 역임.

50) 홍달훈(1756~1837): 본관 남양(南陽). 자 대여(大汝). 호 우포(愚圃).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병조좌랑, 청암찰방, 창락찰방 역임.

51) 변경붕(1756~1823): 본관 원주(原州). 자 만리(萬里). 호 일제(一齊).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연서찰방, 사헌부장령, 이조참의 역임.

52) 고명학(1769~1836): 본관 제주(濟州). 자 자화(子和). 호 우졸재(愚拙齋).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53) 부종인(1767~1822): 본관 제주(濟州). 자 자겸(子謙).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대정현감, 성균관사성, 예조정랑 역임.

54) 차대(差代): 갈려간 자리에 후임자를 뽑아 채움.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二十二日 癸酉

○ 乙卯三月二十二日申時, 上御重熙堂. 坐直承旨入侍時, 同副承旨鄭尙愚, 假注書趙台榮, 記注官金良僩, 記事官吳泰曾, 以次進訖. 上曰, 新榜注書中濟州人召入. 賤臣承命出, 與洪達勛·李台祥·高鳴鶴·邊景鵬·夫宗仁, 偕入進伏. 上命奏姓名. 達勛等以次仰奏訖. 上曰, 爾等在於絶域海外, 而伊時登第之文, 俱皆善做, 誠爲可嘉矣. 上曰, 爾等何間上京乎? 達勛等曰, 或於歲前上來, 或於春間上來矣. 上曰, 顧今一島民情何如云耶? 達勛等曰, 歉歲遑急之中, 特蒙天恩, 屢次船粟, 故得保全命矣. 又於整理穀萬石下送之後, 擧皆分食, 而自今麥糧不遠, 此後則更無他慮矣. 上曰, 整理穀, 卽慈宮之特恩也. 爾等還歸後, 宣布慈恩之萬一, 可也. 上曰, 爾等欲於何間下去耶? 達勛等曰, 臣等皆有父母, 故卽欲還歸矣. 上曰, 濟州人下去及上來時, 竝給草料事, 分付兵曹, 待其上來後, 自吏曹草記事, 亦爲分付.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22일(계유)

▢ 홍달훈(洪達勛) 등 제주(濟州)와 정의(旌義) 출신 문과 급제자가 내려가고 올라올 때 초료(草料)를 주도록 병조에 분부하라는 전교

○ 을묘년 3월 22일 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직 승지(坐直承旨)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정상우(鄭尙愚),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기사관 오태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새로 과거에 급제한 주서(注書) 중 제주인(濟州人)을 불러들여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홍달훈(洪達勛)·이태상(李台祥)·고명학(高鳴鶴)·변경붕(邊景鵬)·부종인(夫宗仁)과 함께 들어와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성명을 아뢰도록 명하였다. 홍달훈 등이 차례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절역(絶域) 바다 밖에 있는데, 그 당시 등제(登第) 한 글이 모두 잘 지어졌으니 참으로 가상하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언제 상경하였는가?"라고 하였다. 홍달훈 등이 아뢰기를, "혹자는 새해가 되기 전에 올라왔고, 혹자는 봄에 올라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돌아보건대 지금 섬 백성들의 사정은 어떠하다고 하더냐?"라고 하였다. 홍달훈 등이 아뢰기를, "흉년의 황급한 가운데 특별히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 차례 배에 곡물을 실어보내 주었기 때문에 주어진 목숨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리곡(整

理穀) 10,000섬을 내려보낸 후에 모두가 나누어 먹었고, 지금부터는 보리 수확이 멀지 않았으니, 이후로는 달리 다른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리곡은 자궁(慈宮)의 특별한 은혜이다. 그대들은 돌아간 후에 자궁의 은혜에 대한 만분의 일이라도 널리 알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언제 내려가고자 하는가?"라고 하였다. 홍달훈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모두 부모가 있습니다. 때문에 즉시 돌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인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 모두 초료(草料)[55]를 주도록 병조에 분부하고, 그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린 후 이조에서 초기(草記)[56]하도록 또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이태상, 홍달훈, 변경붕, 고명학, 부종인, 초료.

55) 초료(草料): 초료장(草料狀). 공무로 파견되는 관원에게 연도(沿道)의 각 역참(驛站)에서 역마와 식료 등을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문서.

56) 초기(草記): 상주문(上奏文)의 한 가지. 서울 각 관아에서 정무상(政務上)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사실만 간략히 적어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二十三日 甲戌

○ 乙卯三月二十三日卯時, 上御重熙堂.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肇源, 假注書趙台榮, 記注官金良僩, 記事官吳泰曾, 以次進伏訖. ……. 肇源曰, 今乙卯式文科中濟州直赴人金命獻, 以唱榜前身故, 例贈承文院正字, 纔已啓下矣. 追聞命獻, 應試於上年正月, 而榜出之前, 因推恩加資, 超二階爲嘉善云. 隨品贈職, 旣是格例, 則所當以二品實職追贈, 而該曹之未能覺察, 例贈參下之職, 殊涉不審. 當該堂上推考, 原單子, 使之改付標以入,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23일(갑술)

▢ 창방(唱榜) 하기 전에 사망한 제주(濟州) 직부인(直赴人) 김명헌(金命獻)에 대해 품계에 따라 증직하기를 청하는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의 계

○ 을묘년 3월 23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기사관 오태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조원이 아뢰기를, "이번 을묘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제주(濟州) 직부인(直赴人) 김명헌(金命獻)[57]은 창방(唱榜)[58] 하기 전에 사망하여 으레 승문원의 정자를 추증하고 이미 계하(啓下)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김명헌은 작년 1월에 응시하였는데 방(榜)이 나오기 전에 추은(推恩)으로 인하여 가자(加資) 되어 두 등급의 품계를 뛰어넘어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었다고 합니다. 품계에 따라 증직하는 것은 격례(格例)입니다. 마땅히 2품의 실직을 추증해야 하는데, 해당 조(曹)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으레 참하(參下)의 직임을 증직한 것은 전혀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해당 당상을 추고(推考)하고 원래의 단자는 고쳐 부표(付標)하여 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 나왔다.

△ 주제어: 직부인, 김명헌, 추증.

---

57) 김명헌(1714~1795): 본관 광산(光山). 1794년(정조 18) 제주어사 심낙수(沈樂洙)가 내도하여 시취할 때 특명으로 급제하였음.

58) 창방(唱榜): 방목(榜目)에 든 입격자를 호명하여 반패(頒牌)하는 의식(儀式)을 말함.

❖ 乾隆 六十年 乙卯 三月 二十八日 己卯

○ 刑曹啓目粘連濟州牧[放]未放回啓云云. 大靜梁之蘊, 移錄勿限年爲白乎旀, 啓本及冊子, 多有誤書, 當該牧使, 推考警責,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旀. 梁之蘊段, 係是徒配, 且經大霈, 依法典放送事, 分付爲良如敎.

❖ 정조 19년(1795) 을묘년 3월 28일(기묘)

▢ 대정현(大靜縣)의 양지온(梁之蘊)을 풀어주도록 분부하라는 등의 전교

○ 형조계목(刑曹啓目) 점련(粘連)[59]의 제주(濟州) 죄인 중 풀어줄 부류와 풀어주지 않을 부류에 대한 회계(回啓)에서 운운하기를, “대정현(大靜縣)의 양지온(梁之蘊)을 햇수를 한정하지 않는 정배(定配)로 옮겨 기록하면서 계본과 책자에 잘못 쓴 글자가 많습니다. 해당 목사를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회계대로 시행하라. 양지온은 도배(徒配)에 해당하는데, 또한 대사면(大赦免)을 거쳤으니 법전에 따라 풀어주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 양지온.

59) 점련(粘連): 관아에 제출하는 서면에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임.

❖ 乾隆 六十年 乙卯 四月 一日 辛巳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追劃萬一千石穀物及三百人名, 鱗次利泊, 流伊量捧, 見今餘在之穀, 實無不足之慮岔不喩, 麥種胚胎, 二月以後, 日氣調和, 雨澤適中, 漸就茁茂, 民事萬幸事, 傳于鄭尙愚曰, 去月念前一日所出狀本, 登聞於巾旬之內, 孰謂重溟之絶遠乎, 人皆穩涉, 船則利運, 而民情麥事, 觀於狀事[辭], 庶可以少弛宵旰之念, 千幸萬幸, 喜而不寐. 該牧使誠心鳩穀之狀, 曾已聞之, 而其他擧行, 亦甚勤幹, 何待畢賑狀聞乎? 待其準瓜, 令兵曹別爲陞職調用事, 回諭. 船隻還泊後形止, 星火狀聞事, 亦令廟堂分付湖南道臣.

❖ 정조 19년(1795) 을묘년 4월 1일(신사)

▢ 진휼을 잘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 대해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 병조로 하여금 별도로 승직(陞職)하여 조용(調用) 하도록 회유(回諭)하라는 등의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추가로 획급(劃給)한 11,000섬의 곡물과 300인이 차례로 잇닿아 이롭게 도착하여 여러번에 걸쳐 별러서 준 것을 받아들였기에 지금 남아있는 곡물은 실로 부족할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리는 2월 이후 일기가 온화하고 비도 적당히 내려 점점 싹이 무성해져 백성들의 일이 아주 다행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정상우(鄭尙愚)[60]에게 전교하기를, “지난달 19일에 나온 장본(狀本)을 열흘 안에 보고하였으니, 누가 멀리 떨어진 바다의 아주 먼 곳이라 말하겠는가? 사람들이 모두 순조롭게 건넜고, 배는 이롭게 운반하였으며, 백성들의 형편과 보리농사를 장계의 말에서 보니, 밤낮으로 애쓰던 걱정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다. 천만다행으로, 기뻐서 잠이 오지 않는다. 해당 목사가 성심으로 곡물을 구비한 실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들었으며, 그 밖의 거행 또한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한데 어찌 진휼을 마치고 장계로 보고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 병조로 하여금 별도로 승직(陞職)하여 조용(調用)하도록 회유(回諭) 하라. 배가 돌아와 정박한 후 그 전말을 성화와 같이 장계로 보고하도록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전라감사에게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승직, 조용.

---

60) 정상우(1756~?): 본관 온양(溫陽). 자 중급(仲及).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판의금부사, 좌부빈객, 판돈녕부사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四月 二日 壬午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漂人等生還之後, 始乃覺得, 惶恐待罪事, 傳于金載翼曰, 勿待罪事, 回諭.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4월 2일(임오)

▢ 표류(漂流)했던 사람들이 살아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어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표류(漂流)했던 사람들이 살아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알게되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김재익(金載翼)[61]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표류, 대죄.

61) 김재익(1741~?): 본관 연안(延安). 자 운거(雲擧).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 乾隆 六十年 乙卯 四月 二十八日 戊申

○ 以全羅監司李書九狀啓, 濟州移轉船, 俱爲還泊事, 傳于李肇源曰, 屢萬包利運, 固已喜幸, 而今則竝與所載船隻, 一齊無事還泊, 其爲奇異, 難以容喩, 道伯, 以船格, 監色, 各別撫摩, 爲辭撫摩云者, 何謂也? 語欠別白, 令廟堂關飭, 俾無徒言而無當之弊.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4월 28일(무신)

▢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제주(濟州)에 진휼곡을 싣고 갔던 선격(船格)과 감색(監色)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있게 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이서구(李書九)의 장계에, 제주(濟州)에 곡물을 싣고 갔던 배가 모두 돌아왔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수만 포(包)를 이롭게 운반하였다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고, 지금은 실어갔던 배들이 일제히 무사하게 돌아왔으니 그 기이함을 뭐라 말하기 어렵다. 관찰사는 선격(船格)과 감색(監色)을 각별히 어루만져 달래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루만져 달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이 분명하지 않다. 묘당으로 하여금 관칙(關飭)[62]을 보내어 한갓 말만하고 마땅함이 없는 폐단이 없게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전라감사, 이서구, 선격, 감색.

62) 관칙(關飭):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던 공문. 감결(甘結).

❖ 乾隆 六十年 乙卯 四月 二十八日 戊申

○ 行大司憲李致中, 持平呂駿永等啓曰, …… 新除授掌令邊景祐, 時在全羅道濟州地,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 下諭事依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4월 28일(무신)

▢ 장령(掌令)에 제수(除授)된 변경우(邊景祐)를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下諭)하라는 행대사헌 이치중(李致中) 등의 계

○ 행대사헌 이치중(李致中)[63]과 지평 여준영(呂駿永)[64] 등이 아뢰기를, "〈상략〉 새로 장령(掌令)에 제수(除授)된 변경우(邊景祐)[65]가 지금 전라도 제주(濟州)에 있습니다. 속히 역마(驛馬)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下諭)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략〉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변경우, 장령, 제수.

---

63) 이치중(1726~1802): 본관 전주(全州). 자 치화(稚和).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형조판서 역임.

64) 여준영(1747~?): 본관 함양(咸陽).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65) 변경우(1745~1836): 본관 원주(原州). 자 선재(善哉). 호 자연당(自然堂). 1781년(정조 5) 문과 급제. 고산도찰방, 형조참판, 호조참판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五月 一日 辛亥

○ 乙卯五月初一日辰時, 上御便殿. 咸興·永興儒生試取科次入侍時, 行左承旨李晩秀, 行右承旨李益運, 假注書具得魯,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弘文提學徐有隣, 工曹判書李家煥, 直閣李始源, 檢校待敎徐有榘, 副司果嚴耆·金近淳, 副司正曺錫中·李勉昇·李東萬·姜浚欽·黃基天, 進伏訖. …… 又命書傳敎曰, 永興本宮禮成後咸興·永興儒生·武士試取時, 賦二下咸興居首進士魏光肇, 三上一永興居首幼學金履星, 竝直赴殿試. …… 試券之三上以上及儒武入格榜目, 依關東·嶠南·耽羅賓興錄例, 名之曰, 豐沛賓興錄.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5월 1일(신해)

▢ 함흥(咸興)·영흥(永興)의 유생과 무사의 입격방목(入格榜目)을 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 등의 사례에 의거하여 풍패빈흥록(豐沛賓興錄)이라고 명명하라는 전교

○ 을묘년 5월 1일 진시에 임금이 편전으로 나아갔다. 함흥(咸興)·영흥(永興) 유생에 대한 시취(試取) 과차(科次)에 입시할 때, 행좌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가주서 구득노(具得魯),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홍문제학 서유린(徐有隣), 공조판서 이가환(李家煥), 직각 이시원(李始源),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부사과 엄기(嚴耆)·김근순(金近淳), 부사정 조석중(曺錫中)·이면승(李勉昇)·이동만(李東萬)·강준흠(姜浚欽)·황기천(黃基天)이 나아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영흥(永興) 본궁(永興本宮)의 예를 마친 뒤 함흥·영흥의 유생과 무사를 시취할 때, 부(賦)에서 이하(二下)를 받은 함흥에서 수석을 차지한 진사 위광조(魏光肇), 삼상(三上) 1인으로 영흥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학 김이후(金履垕)를 모두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게 하라. 〈중략〉 시권(試券)의 삼상 이상 및 유생과 무사의 입격방목(入格榜目)은 관동(關東)·교남(嶠南)·탐라빈흥록(耽羅賓興錄)의 사례에 의거하여 풍패빈흥록(豐沛賓興錄)이라고 명명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함흥, 영흥, 입격방목, 빈흥록.

❖ 乾隆 六十年 乙卯 五月 十一日 辛酉

○ 賑恤廳啓目粘連, 觀此濟州牧使李禹鉉畢賑狀啓, 則以捐瘠夥然爲辭, 其不善對揚之責, 烏可置而不論是白乎旀, 賑還民之同爲白給, 不但諸道所無之例, 不過一時徼譽之資是白遣, 且本島土地瘠薄, 告歉頻仍, 而一番創例, 後弊難遏, 該牧使, 令該府, 拿問處之爲白乎旀, 三邑守令段置, 捐瘠之罪, 厥犯惟均, 勞則有之, 別加參酌, 推考警責, 所不可已是白乎旀, 願納私賑人, 令該曹, 考例稟處爲白乎旀, 賑餘皮牟之留作, 土還, 涼藿代捧, 依狀請施行爲白乎矣, 待明春準捧, 俾無消融之弊事, 分付,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旀, 捐瘠夥然之說, 無難登聞, 果甚駭然. 昨見狀本, 非不知嚴處, 而首實猶勝於匿瞞乙仍于, 姑且循例啓下於卿廳是置, 卿之粘語, 深得體段, 而絶海異於內地, 非船粟, 莫可濟活. 去冬頗頷之塡溝, 安知不由於再運之後時乎是隱, 則其在無罪歲之意, 不可專責牧伯之不事事, 拿處姑爲參酌爲乎矣, 勞可掩罪而已, 陞敍過矣. 向下施賞傳旨及承傳, 令該房該曹爻周, 以別涇渭爲旀, 三百石願納人前縣監高漢祿段, 每每捐財, 番番傾貲, 海外土俗之能知存愛, 萬萬可尙. 特令大靜縣監, 仍用郡守履歷事, 分付吏曹, 使之除朝辭赴任, 時縣監, 令該曹口傳遞付軍銜爲旀, 他道則昨秋雖嚴禁, 島民之義氣, 豈或泥之? 況嚴禁之敎, 不及於該牧者乎? 百石願納人洪三弼·梁聖範等, 可敵陸地三千包, 竝令兵曹, 巡將陞差後, 加資官敎, 口傳下批, 今日內, 成送有旨事, 令該房知悉爲旀, 整理穀萬包之特晝, 卽欲遠暨慈恩也. 豈比備例船運之穀物乎? 涼藿代徵一款, 切勿擧論事, 分付, 而狀辭豈敢不爲枚擧乎? 該牧使推考, 以其蕩滌之由, 申諭大小民人, 俾知此亦出於慈恩所推爲良如敎.

❖ 정조 19년(1795) 을묘년 5월 11일(신유)

▢ 진휼(賑恤)을 끝낸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 등의 죄과를 논하는 진휼청의 계

○ 진휼청의 계목 점련(啓目粘連)에, “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진휼(賑恤)을 끝내고 올린 장계를 본 즉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하니, 임금의 뜻을 받들어 널리 알리기를 잘하지 못한 책임을 어찌 그대로 두어 논하지 않을 것이며, 진민(賑民)과 환민(還民)[66]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諸道)에 없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한 때의 명예를 구하는 밑천에 불과하고,

66) 진민(賑民)과 환민(還民): 진민은 무상으로 곡식을 받는 사람, 환민은 환곡을 받는 사람을 뜻함.

또한 본도(本島)는 토지가 척박하여 흉년을 고하는 것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한 번 이런 사례가 생겨나면 뒤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해당 목사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며, 3읍 수령도 버려져서 병들게 한 죄에 대해 그 범한 것이 똑같은데, 수고가 있었으니 특별히 참작하여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을 그칠 수 없으며, 원납(願納)하여 사사로이 진휼한 사람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사례를 살펴 품처(稟處)하게 하며, 진휼하고 남은 겉보리는 남겨 토환(土還)으로 만들고, 양태[涼臺]와 미역으로 대신 거둬들이는 것을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되,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기준대로 받아들여 다 써서 없애 버리는 폐단이 없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회계대로 시행하라.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어렵지 않고 보고하였으니 과연 심히 놀랍다. 어제 장본(狀本)을 보고 엄히 처리해야 함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사실대로 자백한 것이 숨기거나 속이는 것보다 오히려 나으니 우선 관례에 따라 경(卿)의 청(廳)에 계하(啓下)하라. 경의 말이 심히 체단(體段)을 얻었지만 절해(絶海)는 내지와는 다르니, 실로 실어나르는 곡물이 아니면 구제하여 살릴 수 없다. 지난 겨울 부황이 들어 시신이 도랑을 메웠으니, 재운(再運)한 뒤에 이것을 숨긴 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마는 '해[歲]에 죄를 돌리지 않는다'[67]는 뜻에 있어서 목사가 일을 일답게 못한 것을 전적으로 꾸짖을 수는 없다. 잡아다 처리하는 것은 우선 참작하되, 공로가 죄를 덮어줄 만할 뿐이니 승서(陞敍)는 지나치다. 전에 내린 시상전지(施賞傳旨) 및 승전(承傳)을 해방(該房) 해조로 하여금 취소하게 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300섬 원납인(願納人)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68]은 매번 재물을 내놓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능히 본심을 지켜 남을 사랑할 줄 아니, 매우 가상하다. 특별히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하고 이어 군수(郡守)의 경력을 쌓게 하도록 이조(吏曹)에 분부하고, 서울로 올라와 하직인사를 하고 부임하는 것을 생략하며, 현 현감은 해조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체임하여 군함(軍銜)에 붙이도록 하라. 다른 도(道)는 지난 가을에 비록 엄히 금했지만, 섬 백성들의 의로운 기개가 어찌 이것을 거리끼겠는가? 하물며 엄히 금하는 하교가 해당 목(牧)에는 이르지 않은 것인가? 100섬 원납인 홍삼필(洪三弼)[69]·양성범(梁聖範) 등은 가히 육지의

67) 해[歲]에 죄를 돌리지 않는다: 《맹자》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왕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해에다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면[無罪歲], 천하의 백성들이 양(梁)나라로 몰려올 것이다."라는 맹자의 말이 나옴.

68) 고한록(?~?): 1795년(정조 19) 6월에 정운제의 후임으로 임지에 도임하고, 1798년(정조 22) 2월에 떠났음.

69) 홍삼필(1738~1822): 본관 남양, 무과에 급제하고 군관으로서 진제(賑濟)의 공으로 현감에 발탁

3,000포(包)에 필적한다. 모두 병조(兵曹)로 하여금 순장(巡將)에 승차(陞差)한 후 가자(加資)하는 교지를 내리고 구전하비(口傳下批) 하되, 오늘 안으로 유지(有旨)를 만들어 보내도록 해방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도록 하라. 정리곡(整理穀) 10,000포를 특별히 획급(劃給)한 것은 곧 자궁(慈宮)의 은혜를 멀리 미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의례적으로 배로 실어 운반하는 곡물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양태와 미역으로 대신 징수하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거론하지 말도록 분부했다. 그런데 장계의 내용에 어찌 감히 낱낱이 들어 거론하지 않았는가? 해당 목사를 추고하여 완전히 탕감해 주는 사유를 대소 백성들에게 거듭 유시(諭示)하여 이 또한 자궁의 은혜를 확충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라." 라고 하였다.[70]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진휼, 고한록, 홍삼필, 양성범.

되었음. 1798년 2월 고한록의 후임으로 대정현감에 도임하고 같은 해 12월, 좌천되자 파직되어 떠났음.

70) 이상은《정조실록》정조 19년 5월 1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소략하게 확인됨.

❖ 乾隆 六十年 乙卯 五月 十二日 壬戌

○ 鄭尙愚,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狀持來人三名處, 各米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5월 12일(임술)

▢ 장계(狀啓)를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에게 쌀을 지급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한 대로 제주(濟州)에서 장계(狀啓)를 가지고 온 3인에게 각각 쌀 3말씩을 규례대로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장계, 제주인, 쌀, 분급.

❖ 乾隆 六十年 乙卯 五月 二十二日 壬申

○ 乙卯五月二十二日寅時, 上行景慕宮. 展拜禮後, 還宮入侍, 藥房·時原任大臣·閣臣承候入侍時, 兼都承旨李祖源, 行左承旨洪義榮, 假承旨李晩秀, 行右承旨洪仁浩, 假承旨金勉柱, 同副承旨李肇源, 記事官鄭文始, 假注書趙台榮, 記注官金錫泰·金良僩, 檢校直閣南公轍, 直閣李始源, 以次侍立. …… 濟恭曰, 臣日前見賑恤廳之以濟州牧畢賑狀回啓措語, 則有今此狀聞中, 以捐瘠夥然爲辭, 其不善對揚之責, 烏可置而不論等語, 其意雖在於特恩船粟之後, 何不極意拯濟, 使之無一顚連? 乃於狀中, 稱有捐瘠云爾, 而泛以文勢觀之, 有若捐瘠夥然爲辭者, 爲可罪之端. 旣有捐瘠, 則以實狀, 登之狀聞者, 濟牧事, 亦足爲朴實, 該廳啓語, 恐或有後弊, 當該回啓堂上, 推考警責,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5월 22일(임신)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휼을 끝내고 올린 장계의 회계(回啓)에 꾸민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진휼청(賑恤廳)의 회계(回啓) 당상을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할 것을 청하는 채제공(蔡濟恭)의 계

○ 을묘년 5월 22일 인시에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으로 갔다. 전배례(展拜禮) 후에 환궁하여 입시할 때, 약방·시원임대신·각신(閣臣)이 문안하러 입시할 때, 겸도승지 이조원(李祖源), 행좌승지 홍의영(洪義榮), 가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우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승지 김면주(金勉柱),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기사관 정문시(鄭文始), 가주서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석태(金錫泰)·김양척(金良僩), 검교직각 남공철(南公轍), 직각 이시원(李始源)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신이 며칠 전 진휼청(賑恤廳)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진휼을 끝내고 올린 장계의 회계(回啓)에 꾸민 말을 보니, 이번 장계로 보고한 내용 중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으니, 임금의 뜻을 받들어 널리 알리기를 잘하지 못한 책임을 어찌 그대로 두어 논하지 않을 것입니까?'라는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배로 곡물을 실어 운반한 뒤에 어찌 마음을 다하여 구제하여 한 사람도 의지할 곳이 없게 하지 못한 것인가?'에 있다 하더라도 장계 중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칭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루 문세(文勢)로 보건대, 마치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말을 한 것은 죄줄 만한 단서가 됩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실상을 가지고 장계로 보고하는 것은 제주목사의 일이 또한 질박[朴實]한 것입니다. 해당 청(廳)의 회계에서 한 말이 혹 훗날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해당 회계 당상을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진휼청, 회계, 추고.

❖ 乾隆 六十年 乙卯 五月 二十六日 丙戌[丙子]

○ 兪漢寧, 以備邊司言啓曰, 湖南暗行御史鄭晩錫, 別單判付內, 明日卿等, 與諸宰來會備局, 繡衣別單, 逐條論理草記. 如有起疑之端, 問于繡衣, 務從消詳, 俾有差遣之實效及於民事, 命下矣. 取見其別單, 則其一, 一道田政最紊, 査陳或改量事也. …… 其一, 所安島使星守令差員, 及濟州監色船格等, 往來候風時, 供億之需, 收斂島民事也. 康·海兩邑, 輪定都會官, 接濟耽羅公行往來之人, 自是事例. 使客自邑入島之後, 朝夕供饋, 該邑一不備給, 只送吏隷, 空手接應, 以致徵斂島民, 民不支堪之境者, 極爲駭然. 此則嚴飭本道, 凡係公行往來, 無論候風之淹速, 供給之費, 竝自本邑上下, 雖微瑣之物, 勿復侵徵於島民事, 申明舊典定式施行爲宜. …… 竝令該曹, 稟處, 何如? 傳曰, 旣遣繡衣, 探察民隱邑瘼, 及其回也, 若無實惠所究, 實效所及, 則其爲不誠無實, 愧對南民. 此所以使卿等, 齊會本司, 開坐講確, 欲聞實惠實效之條列敷陳者也. 觀此盈握之周紙, 意謂有犁然於中者, 燭下看閱, 過度數更, 眼幾生眵, 傍觀代悶, 而近三十條件, 未見有一條一件之如何爲實惠, 如何爲實效. 於是乎卿等多負詢諮之苦心. …… 卿等更加究理, 就諸條可置者, 直請置之, 可査者直請査之, 別般釐正者釐正, 一番更問者更問, 毋使繡衣差遣之擧, 歸於一場迷藏, 則務實之效, 自有惠究之一端, 須知此意, 更爲草記, 可也.

❖ 정조 19년(1795) 을묘년 5월 26일(병술[병자])

▢ 호남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의 별단(別單)에서 소안도(所安島)가 사성(使星)·수령(守令)·차원(差員) 및 제주(濟州) 감색(監色)과 선격(船格) 등이 왕래하며 후풍(候風)할 때, 공억(供億)하는 비용을 섬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폐단에 대해 구전(舊典) 정식(定式)을 거듭 밝혀 시행하는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와 다시 초기(草記)하라는 전교

○ 유한녕(兪漢寧)[71]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호남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72]의 별단(別單)에 대한 판부(判付) 내에, ‘내일 경들은 재신(宰臣)들과 비국에 모여

71) 유한녕(1743~?): 본관 기계(杞溪). 자 자안(子安).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동부승지, 대사간 역임.

72) 정만석(1758~1834): 본관 온양(溫陽). 자 성보(成甫). 호 과재(過齋).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호조판서, 우의정 역임.

어사의 별단을 조목마다 이치를 따져 초기(草記)하라. 만약에 의심을 일으키는 단서가 있다면 어사에게 물어 될 수 있는 대로 소상히 하여 차견(差遣)한 실제 효과가 백성들의 일에 미침이 있게 하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별단을 가져다 보니, 그 하나는 한 도(道)의 전정(田政)이 가장 문란하여 진전(陳田)을 조사하거나 다시 측량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략〉 그 하나는 소안도(所安島)가 사성(使星)·수령(守令)·차원(差員) 및 제주(濟州) 감색(監色)과 선격(船格) 등이 왕래하며 후풍(候風)할 때, 공억(供億)[73]하는 비용을 섬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강진(康津)과 해남(海南) 두 읍이 윤차로 도회관(都會官)[74]으로 정하여 탐라(耽羅)에 공무로 오가는 사람들을 접제(接濟)하는 것이 본래의 사례(事例)인데, 사객(使客)이 읍에서 섬으로 들어온 후 아침 저녁으로 지급하는 음식을 해당 읍이 한번도 갖추어 주지 않고, 단지 아전과 관노만을 보내어 빈손으로 응접하여 섬 백성들에게 거둬들여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은 본도(本道)에 엄히 경계하여 타일러 무릇 공무에 관계되어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는 후풍의 지체와 빠름을 막론하고 공급하는 비용을 모두 본읍에서 내려주어, 비록 자질구레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섬 백성들에게 빼앗아 들이는 일이 없도록 구전(舊典) 정식(定式)을 거듭 밝혀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략〉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75] "어사를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과 고을의 폐단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만약 실질적인 혜택이 끝까지 미쳐 실효가 미치는 바가 없다면, 성실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는 것이 되어 남쪽 백성들을 대함에 부끄러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경들로 하여금 본사(本司)에 일제히 모여 개좌(開坐)해서 강구하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효력이 나타나도록 조목별로 진달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한 줌도 넘는 이 두루마리를 보고서 깜짝 놀랄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촛불 아래에서 살펴보며 몇 경(更)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눈에 눈곱이 낄 정도라서 옆에서 보고 대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거의 30조목이나 되는 것 가운데 어느 한 조목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끼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실효가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 주는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여기에 있어 경들은 자문을 구했던 나의 괴로운 마음을 저버렸다고 할 것이다. 〈중략〉 경들은 다시 더 사리를 따져 각 조목별로 놔둘 것은 곧장 놔두기를 청하고, 조사해야 할 것은 곧장 조사하기

73) 공억(供億): 필요한 물건을 헤아려 지급하는 것.
74) 도회관(都會官): 서울에서 각 도(道)에 이르는 큰길에 인접한 고을이나 그 고을의 수령을 말함.
75) 이하는 《정조실록》 정조 19년 5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를 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한 번 더 물어보아야 할 것은 다시 물어봄으로써 어사를 파견한 일이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인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실제를 힘쓴 효과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자연히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모쪼록 이런 뜻을 알고서 다시 초기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소안도, 후풍, 공억, 강진, 해남.

❖ 乾隆 六十年 乙卯 五月 二十八日 戊寅

○ 兪漢寧, 以備邊司言啓曰, 因湖南暗行御史鄭晩錫別單, 回啓草記, 傳曰, 旣遣繡衣, 探察民隱邑瘼, 及其回也, 若無實惠所究, 實效所及, 則其爲不誠無實, 愧對南民. 此所以使卿等, 齊會本司, 開坐講確, 欲聞實惠實效之條列敷陳者也. 觀此盈握之周紙, 意謂有犁然於中者, 燭下看閱, 過度數更, 眼幾生眵, 傍觀代悶, 而近三十條件, 未見有一條一件之如何爲實效. 於是乎卿等, 多負詢諮之苦心. …… 卿等更加究理, 就諸條可置者, 直請置之, 可査者, 直請査之, 別般釐正者釐正, 一番更問者更問, 無使繡衣差遣之擧, 歸於一場迷藏, 則務實之效, 自有惠究之一端, 須知此意, 更爲草記可也事, 命下矣. 其一, 査陳或改量事也. …… 其二十六, 所安島使星守令差員及濟州監色船格等, 往來候風時, 供億之需, 收斂島民事也. 康·海兩邑之輪定都會官, 接濟耽羅公行往來之人, 自是事例, 則凡於入島候風之際, 朝夕飯供, 一不備給, 致令島民, 橫被收斂者, 萬萬駭然. 此弊不祛, 將至空島之境, 此後申明都會之例, 凡係公行往來, 毋論候風淹速, 供億之費, 竝自本邑上下, 雖微瑣之物, 勿復侵徵於島民, 如有違越之弊, 該守令, 卽爲狀聞論勘事, 更爲定式施行爲宜. …… 竝令該曹, …… 傳曰, 此草記, 卽前草記之副本, 而前之欲矯其弊者, 此多, 反請置之, 緣予不緊一言, 阻南民鞾向之情, 而李判府建白之嘉猷, 去益相反. 今若只下例批, 謄關全篇, 則雖使劉穆之爲道伯, 其將眩於擧行, 莫若都置之爲省煩而祛僞, 此亦豈成說乎? 今日革一宿弊, 明日行一實政之道, 卿等更加理會, 期於對揚.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5월 28일(무인)

▢ 호남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의 별단(別單)에 대한 회계초기(回啓草記)에서 소안도(所安島)가 사성(使星)·수령(守令)·차원(差員) 및 제주(濟州) 감색(監色)과 선격(船格) 등이 왕래하며 후풍(候風)할 때, 공억(供億)하는 비용을 섬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폐단에 대해 도회(都會)의 규례를 거듭 밝혀 시행하는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와 다시 초기(草記)하라는 전교

○ 유한녕(兪漢寧)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호남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의 별단(別單)에 대한 회계초기(回啓草記)에 대해 전교하기를, ‘어사를 보내어 백성들의 고통과 고을의 폐단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만약 실질적인 혜택이 끝까지 미쳐 실효가 미치는 바가 없다면, 성실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는 것이 되어 남쪽

백성들을 대함에 부끄러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경들로 하여금 본사(本司)에 일제히 모여 개좌(開坐)해서 강구하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효력이 나타나도록 조목별로 진달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한 줌도 넘는 이 두루마리를 보고서 깜짝 놀랄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촛불 아래에서 살펴보며 몇 경(更)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눈에 눈곱이 낄 정도라서 옆에서 보고 대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거의 30조목이나 되는 것 가운데 어느 한 조목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끼칠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실효가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말해 주는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여기에 있어 경들은 자문을 구했던 나의 괴로운 마음을 저버렸다고 할 것이다. 〈중략〉 경들은 다시 더 사리를 따져 각 조목별로 놔둘 것은 곧장 놔두기를 청하고, 조사해야 할 것은 곧장 조사하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한 번 더 물어보아야 할 것은 다시 물어봄으로써 어사를 파견한 일이 한바탕 숨바꼭질을 벌인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실제를 힘쓴 효과가 나타나 백성들에게 자연히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모쪼록 이런 뜻을 알고서 다시 초기하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첫째는 한 도(道)의 전정(田政)이 가장 문란하여 진전(陳田)을 조사하거나 다시 측량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략〉 그 스물여섯째는 소안도(所安島)가 사성(使星)·수령(守令)·차원(差員) 및 제주(濟州) 감색(監色)과 선격(船格) 등이 왕래하며 후풍(候風)할 때, 공억(供億)하는 비용을 섬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강진(康津)과 해남(海南) 두 읍이 윤차로 도회관(都會官)으로 정하여 탐라(耽羅)에 공무로 오가는 사람들을 접제(接濟)하는 것이 본래의 사례(事例)인데, 무릇 섬으로 들어와 후풍하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급하는 음식을 한번도 갖추어 주지 않고, 섬 백성들에게 함부로 거둬들이는 지경에 이른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떨어 없애지 않는다면 장차 빈 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도회(都會)의 규례를 거듭 밝혀 무릇 공무에 관계되어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는 후풍의 지체와 빠름을 막론하고 공급하는 비용을 모두 본읍에서 내려주어, 비록 자질구레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시는 섬 백성들에게 빼앗아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를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즉시 장계로 보고하여 죄를 논하도록 다시 정식(定式)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초기는 지난번 초기의 부본(副本)인 셈이다. 그런데 전에는 폐단을 바로 잡아보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거꾸로 그냥 놔두자고 청한 것이 많다. 나의 '긴요치 않다.'고 한 한 마디 말 때문에 남쪽 백성들의 기대하는 마음을 막아버리고 말았는데, 이 판부사가 좋은 뜻에서 의견을 말했던 것과는 더욱 상반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지금 만약 관례적인 비답만 내리면서 이 전편을 관문(關文)에 베껴 보낸다면 유목지(劉穆之)[76]가 도백(道伯)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거행해야 할지 어리둥절해진 나머지 차라리 모두 그냥 놔두어 번거로움을 덜고 거짓을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할 것이다. 이 초기도 어찌 말이나 된다 하겠는가? 오늘 고질적인 폐단 하나를 고치고 내일 실효성있는 정책 하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들은 다시 더 이치를 궁구하여 기필코 임금의 뜻을 선양해 나가도록 하라. 〈하략〉"라고 하였다.[77]

△ 주제어: 소안도, 후풍, 공억, 강진, 해남.

76) 유목지(360~417): 남조(南朝) 송(宋)나라 때의 명신. 자는 도화(道和)임. 무제(武帝)를 따라 안으로는 조정의 정사를 총괄하고 밖으로는 군정(軍政)을 맡아 벼슬이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에 이르렀음. 조정의 일과 군사에 관한 일을 물 흐르듯이 결단하고 빈객을 좋아하였음. 남강군공(南康郡公)에 추봉(追封)되었고, 시호는 문선(文宣)임.

77) 이상은《정조실록》정조 19년 5월 2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六十年 乙卯 六月 二十五日 甲辰

○ 傳于李祖承曰, 禁將卽爲開坐慕華館, 大會一營軍兵, 江華中軍李章漢, 爲先拿入, 回示三巾後, 以毆打着紅衣奉命掖隷之罪, 一一嚴問得情然後, 犯手府屬, 使之指告後, 亦爲捉來同律, 而章漢嚴棍捧招, 濟州牧減死充軍事, 分付該營.

❖ 정조 19년(1795) 을묘년 6월 25일(갑진)

▢ 액례(掖隷)를 구타한 강화중군(江華中軍) 이장한(李章漢)을 사형을 감하여 제주목(濟州牧)에 충군(充軍)하도록 해당 영(營)에 분부하라는 전교

○ 이조승(李祖承)[78]에게 전교하기를, "금위대장은 즉시 모화관(慕華館)에 개좌(開坐)하여 한 영(營)의 군병을 크게 모이게 하고, 강화중군(江華中軍) 이장한(李章漢)을 우선 잡아들여 3차례 조리돌림을 한 뒤, 홍의(紅衣)[79]를 입은 봉명(奉命) 액례(掖隷)[80]를 구타한 죄에 대해 일일이 엄히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뒤, 손찌검을 한 이속(吏屬)을 지적하여 고하게 한 뒤, 또한 잡아와서 같은 형률로 처리하되, 이장한은 엄히 곤장을 쳐서 공초를 받아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충군(充軍)하도록 해당 영에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화중군, 이장한, 제주목, 충군.

---

78) 이조승(1754~1805): 본관 연안(延安). 자 순여(順汝).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의정부우참찬, 경기관찰사 역임.

79) 홍의(紅衣): 궁궐의 하인이 입는 붉은 옷으로, 궁궐 하인을 뜻함.

80) 액례(掖隷):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이 쓰는 필기구, 대궐 안의 열쇠, 설비 등을 관리하는 관아인 액정서(掖庭署)에 딸린 하인.

❖ 乾隆 六十年 乙卯 七月 二十一日 庚午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涼藿勿徵, 不爲枚擧於畢賑狀啓中, 惶恐待罪事, 傳于鄭尙愚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19년(1795) 을묘년 7월 21일(경오)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장계에, (환곡을) 양태[涼臺]와 미역으로 대신 징수하지 말도록 한 것을 진휼을 마치고 보고한 장계 가운데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정상우(鄭尙愚)[81]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대죄, 회유.

81) 정상우(1756~?): 본관 온양(溫陽). 자 중급(仲及).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三日 辛巳

○ 李勉兢,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貢馬二百匹合三百四十匹內, 三匹船中故失, 七匹到中路故失, 二十二匹華城府親軍衛分給, 十二匹到中路病留, 一匹到本寺病留, 實納馬二百九十五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3일(신사)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면긍(李勉兢)[82]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삼명일 진상마(先運三名日進上馬) 60필, 차비 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합 340필 내에서 3필은 배 안에서 죽고, 7필은 중로(中路)에서 죽고, 22필은 화성부(華城府) 친군위(親軍衛)에 나눠 주었고, 12필은 중로에 병들어 남았고, 1필은 본시(本寺)에 도착하여 병들어 남아서 실제로 바치는 말 295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별단.

82) 이면긍(1753~1812): 본관 전주(全州). 자 대림(大臨).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평안도관찰사, 한성부판윤, 사헌부대사헌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四日 壬午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旌義縣監南涑, 以病癈務, 不得已罷黜事, 傳于李祖承曰, 今日政擇差.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4일(임오)

▢ 병으로 파출(罷黜)된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의 후임을 오늘 정사에서 차정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이 병으로 공무를 폐(癈)하였기에 부득이 파출(罷黜)한 것과 관련하여 이조승(李祖承)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政事)에서 가려 차정(差定)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남속, 파출.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四日 壬午

○ 有政. 吏批, 判書尹薈東進, 參判黃昇源在外, 參議尹行元進, 行左承旨李祖承進. …… 洪相五爲旌義縣監,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4일(임오)

▢ 홍상오(洪相五)를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윤시동(尹蓍東)이 나오고, 참판 황승원(黃昇源)은 밖에 있고, 참의 윤행원(尹行元)이 나오고, 행좌승지 이조승(李祖承)이 나왔다. 〈중략〉 홍상오(洪相五)[83]를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홍상오, 정의현감.

83) 홍상오(?~?): 정의현감(1795.9(도임).~1798.1.)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六日 甲申

○ 李勉兢, 以司僕寺一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一匹, 別御乘馬二十匹, 兵曹別啓請山屯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合二百四十八匹內, 一匹船中故失, 十二匹到中路故失, 實納馬二百三十五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6일(갑신)

▢ 제주(濟州)에서 진상한 말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면긍(李勉兢)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연례진상마(後運年例進上馬) 1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병조가 계청한 산둔마(山屯馬) 20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248필 내에서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12필은 중로(中路)에서 죽어서 실제로 바치는 말 235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별단.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十日 戊子

○ 都政. 吏批, 判書尹耆東進, 參判李益運牌不進, 參議李宗甲進, 承旨蔡弘遠進. …… 趙敬日爲濟州判官,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10일(무자)

▢ 조경일(趙敬日)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이비(吏批)에 판서 윤시동(尹耆東)이 나왔고, 참판 이익운(李益運)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의 이종갑(李宗甲)이 나왔고, 승지 채홍원(蔡弘遠)이 나왔다. 〈중략〉 조경일(趙敬日)[84]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조경일, 제주판관.

84) 조경일(1756~?): 본관 순창(淳昌). 1784년(정조 8) 무과 급제. 제주판관(1795. 9(도임).~1797. 10.)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十一日 己丑

○ 乙卯八月十一日卯時, 上御熙政堂. 吏兵房承旨入侍, 守令·邊將·初仕人同爲入侍時, 右承旨蔡弘遠, 左副承旨兪漢寧, 假注書具得魯, 記注官金良僩, 記事官吳泰曾, 定平府使沈公燁, …… 濟州判官趙敬日, …… 以次進伏訖. 上曰, 邊將則以次問姓名後, 先爲退出. 守令以次進前. 漢謨等以次進伏, 奏職姓名. …… 敎敬日曰, 爾居何地? 敬日曰, 居在開城府矣.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11일(기축)

▢ 새로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된 조경일(趙敬日)이 입시(入侍)함

○ 을묘년 8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이방·병방 승지가 입시(入侍)할 때, 수령·변장·초사인(初仕人)이 함께 입시할 때, 우승지 채홍원(蔡弘遠), 좌부승지 유한녕(兪漢寧), 가주서 구득노(具得魯),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정평부사 심공엽(沈公燁),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 〈하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장은 차례대로 성명을 물은 뒤에 먼저 물러 나가라. 수령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였다. 유한모(兪漢謨) 등이 차례로 나와 엎드리고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중략〉 임금이 조경일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 거주하는가?”라고 하였다. 조경일이 아뢰기를, “개성부(開城府)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일, 입시.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十五日 癸巳

○ 傳于蔡弘履曰, 濟州文臣邊景祐, 欲以民事上疏, 而近有飭禁, 不得捧入云, 故使兵曹堂上查問, 果然是民事, 卽令捧入.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15일(계사)

▢ 제주(濟州)의 문신 변경우(邊景祐)의 상소(上疏)를 봉입하게 하라는 전교

○ 채홍리(蔡弘履)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문신 변경우(邊景祐)가 백성의 일로 상소(上疏)하고자 하였는데, 근래 칙금(飭禁)이 있어 봉입(捧入)하지 못하였다고 하기에 병조 당상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 과연 백성의 일이었다. 즉시 봉입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변경우, 상소.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十五日 癸巳

○ 前正言邊景祐疏曰，伏以，臣以遐土至微賤臣，濫蒙曠絶之恩，猥忝臺閣之列，夙宵惶蹙，無以圖報，時時思惟，感淚交零而已．越遭大無之年，殘喘得保有今日者，莫非我慈聖女堯之別恩，我聖上如保之至德，而環海一島，惟禽惟獸，咸有獲生之樂，況乎臣庶之至情哉？方當景千秋稀有之邦慶，伏在海濱，無由進參，瞻望五雲，徒切耿結．乘馹恩命，忽下於千萬夢想之外，揆以賤分，尤不勝震懍感祝之不暇，而迨其上來，則臺職已遞，而幸參崇呼之班，自不覺欣忭懽躍之至，思所以仰副求助之盛意，而知識鹵莽，無可以贊揚鴻猷遠謨之萬一，然而誠切狗馬，敢效一得．伏乞聖明，少垂察焉．噫，耽羅一島，僻在海外，雖値屢豐，民無儲蓄之穀，或因連歉，人多捐瘠之患者，何也？若其屢豐，粒米狼戾，而民不知節用，浪費於一年之內，及其連歉，菜無遺根，而民不保朝夕，相枕於溝壑之中，由是每當飢饉，聖念憧憧，船粟往哺，以救其顚頷之急，斯民之父子祖孫一膚一髮，摠是我聖上如天仁覆之大德至恩，而其於運粟之際，生弊多端，一則貽憂九重，玉食靡甘，二則貽害沿邑，內服不支，三則阻風愆期，待食而就殞，若因其勢而利導，則豈無可救之一端乎？臣竊觀先賢之論，社倉者，聚穀於屢豐之歲，散穀於連歉之時，故雖有洪水亢旱之災歲，民克聊生者，蓋賴此也．至於耽羅，豈獨不用社倉之制乎？然而古今不同，時勢有異，宜乎有所損益於其間也．古者官或捐廩，民或出財，今則官況旣薄，民食且艱，當究得別般生穀之道，然後庶合時措之宜也．第三邑馬牛所畜之場，橫亘數百餘里，而雖云禁耕之地，亦有起墾之處，若荒野就蕪，水草不軟甘，則許民菑畬，若林藪稠密，馬牛所隱伏，則募人墾闢，此等地所出穀，名曰場稅也，若山麓川坡，民多起墾，此等地所出穀，名曰加耕稅也，所謂場稅加耕稅之一年所納，常不下於數千包，而旣不入經國之需，又不入於保民之資，不過爲守宰之科外添用者矣，故昨年繡衣，以場稅付給該場，使之救弊，而終未免爲監色肥己之物，存之無益，革之無害，臣愚以爲，以此兩稅，逐年捧積於社倉，則五六年，可得萬餘包，十年可得數萬餘包，如此雖値荐飢，以此足可契活，苟如是，則九重南顧之憂，庶可少紓，列邑漕送之弊，亦可自除，何患乎船粟之阻風愆期哉？或曰，本島土瘠民貧，年豐穀貴，難以本島之穀，能濟本島之民，臣近以目覩驗之，則豐歲以四十斗穀換一疋木，災歲以一疋木換七八斗穀，旬日之間，市直之低昂，判若霄壤，以是知民無儲蓄，非穀之不多，而乃民不節用故也．迨其豐而糴之，及其歉而糶之，非今之創始，乃古常平之法也．且臣所謂社倉，旣非出財於民，民必不怨，又非捐廩於官，官必無害，而儲倉之穀，年年生生，其在損上益下之道，何恤乎守宰之科外添用者乎？此兩稅，逐年盡輸於社倉，皆以皮穀捧上，則雖久而不有紅腐之患，而民食足矣．且不待歉歲，穀貴之時，預及有秋，穀賤之際，募民願納，或給加資，或差土任，

則衆民爭趨, 穀不可勝用, 必爲島民數年可支之資, 庶或爲救荒之一助也. 臣今將歸, 有不堪缺然之忱, 敢陳愚昧所見, 冀蒙察納焉,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爾於還鄕之路, 陳此憂民之說, 其誠可嘉, 其言宜聽, 爾疏令政院後錄, 下諭于道伯牧倅, 切勿循例看過, 出意見論理狀聞, 當令廟堂, 從長回啓, 以爲爲島民禦旱澇之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15일(계사)

▢ 장세(場稅)와 가경세(加耕稅)의 곡물을 가지고 사창(社倉)을 설치할 것을 청하는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의 상소(上疏)

○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가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먼 지방에 있는 미천한 몸으로 세상에 드문 은혜를 분에 넘치게 입어 외람되이 대각의 반열에 끼여 밤낮으로 황공하여 보답할 길이 없으니, 때때로 생각해도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흐를 뿐입니다. 큰 흉년을 만난 해에 남은 목숨이 보존되어 오늘까지 있는 것은 우리 자성(慈聖)의 여요(女堯)[85]와 같은 특별한 은혜와 우리 성상의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백성을 돌보는 지극한 은덕이 아님이 없습니다. 때문에 바다를 두른 한 섬의 짐승들도 모두 생명을 얻은 즐거움이 있는데, 하물며 신민(臣民)들의 지극한 정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야흐로 천추(千秋)에 드문 나라의 경사를 당하여 바닷가에 엎드려 있으면서 나아가 참석할 길이 없으니, 대궐을 바라보며 다만 그리운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는 은혜로운 명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내려오니 미천한 분수를 헤아려 볼 때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루다 할 수 없어 감축할 겨를이 없었는데, 올라와보니 대직(臺職)이 이미 체차되었지만 요행히 숭호(崇呼)[86]하는 반열에 참여하여 저도 모르게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성대한 뜻에 부응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지식이 거칠고 서툴러 크고 먼 계획의 만분의 일도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간절하게 구마(狗馬)[87]의 정성으로 감히 일득(一得)[88]의 어리석은 견해를 바치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85) 여요(女堯): 여자 중의 요순(堯舜)이라는 뜻임.

86) 숭호(崇呼): 만세를 부르는 구호. 호숭(呼崇) 또는 산호(山呼)라 하기도 함. 한 무제(漢武帝)가 숭산(崇山)에서 등봉(登封)할 때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들렸다 함.

87) 구마(狗馬): 개나 말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에서 임금에 대한 신하의 겸칭으로 쓰임.

88) 일득(一得): 자신의 견해에 대한 겸사임. 《안자춘추(晏子春秋)》에 "성인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의 실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의 득이 있다[聖人千慮, 必有

는 조금이나마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 탐라(耽羅) 한 섬은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비록 여러 차례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은 저축한 곡식이 없고, 혹 연이은 흉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 우환이 많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만약 여러 차례 풍년이 들면 낟알이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러워도 백성들이 절약할 줄을 모르고 1년 안에 낭비하고, 연이은 흉년에 이르면 채소에는 뿌리도 남아있지 않아 백성들이 조석(朝夕)을 보장할 수 없어 서로 구렁 가운데에서 나뒹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매번 기근을 당하면 임금님은 마음을 졸이며 배로 곡물을 실어가서 먹여 그 굶주려 부황이 든 위급함을 구해주시니, 이 백성의 부자조손(父子祖孫)의 피부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이 모두 우리 성상이 하늘과 같이 인자하게 감싸주는 커다란 덕과 지극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곡식을 운반할 때에 여러 가지로 폐단이 생겨나니, 첫째는 궁궐에 근심을 끼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은 것이고, 둘째로는 연읍(沿邑)에 해를 끼쳐 내복(內服)[89]이 지탱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바람에 막혀 기일을 어겨 먹기를 기다리다 죽는 것이니, 만약 그 형세에 따라 잘 인도한다면 어찌 구제할 한 가지 단서가 없겠습니까? 신이 적이 선현의 논의를 보건대, 사창(社倉)은 여러 차례 풍년이 든 해에 곡물을 모았다가 연이어 흉년이 든 때에 곡물을 풀어 놓습니다. 비록 홍수가 나거나 오랜 가뭄이 든 재세(災歲)에도 백성들이 그럭저럭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대개 이것에 의뢰한 때문입니다. 탐라의 경우 어찌 유독 사창의 제도를 쓰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예와 오늘이 같지 않고, 시세(時勢)가 다름이 있으니, 그 사이에 더하고 덜할 바가 마땅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官)이 혹 연름(捐廩)하기도 하고, 민(民)이 혹 출재(出財)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관황(官況)[90]이 박(薄)하고 민식(民食)이 또한 어려우니, 보통과 다르게 곡물을 생기게 하는 방도를 궁구해 낸 연후에야 형편에 맞게 취하는 조치의 마땅함에 합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3읍의 말과 소를 기르는 목장이 가로로 수백여 리에 뻗쳐 있어 비록 경작을 금하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개간한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친 들판이 황폐해져 수초(水草)가 연하여 맛이 좋지 않으면 백성들의 개간을 허락하고, 임수(林藪)가 조밀해서 말과 소가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사람들을 모아 개간하게 하니, 이같은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장세(場稅)라고 부릅니다. 산기슭과 냇가의 비탈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일구어 땅을 만드니, 이같은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가경세(加耕稅)라 부릅니다. 이른바 장세와 가경세로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은

一失; 愚人千慮, 必有一得]."라고 하였음.

89) 내복(內服): 천자 직할의 지역으로서 기복(畿服)과 같음. 여기서는 본토 곧 육지를 지칭함.

90) 관황(官況): 지방의 수입 중에서 지급하는 지방 관원의 봉급.

항상 수천 포(包)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수입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백성을 돕는 자원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니, 수령의 과외(科外)에 더해서 쓰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어사가 장세를 해당 목장에 붙여 주어 폐단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만 끝내 감색(監色)이 자기를 살찌우는 물건으로 삼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존치하는 것은 무익하고 혁파하는 것이 해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양세(兩稅)를 해마다 사창에 걷어들여 쌓으면 5~6년만에 10,000여 포를 얻을 수 있고, 10년에 수만 포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거듭된 기근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족히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만약에 이와 같다면 임금이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조금은 풀릴 수 있고, 열읍(列邑)이 배로 운송하는 폐단 또한 없앨 수 있으니, 배로 곡물을 실어나름에 바람에 막혀 기일이 어그러지는 것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본도(本島)는 땅이 메말라 백성들은 가난하고, 풍년이 들어도 곡식이 귀하니, 본도의 곡물로 본도의 백성을 구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신이 근래 눈으로 본 결과, 풍년에는 40말의 곡식으로 목(木) 1필을 바꾼다고 하였는데, 재해를 입은 해에 1필의 목으로 7, 8말의 곡식을 바꾸었으니, 열흘 사이에 시장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판이하여, 이로써 백성에게 저축이 없고 곡식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절약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풍년을 만나서 곡물을 사들이고, 흉년이 들어서는 이것을 환곡으로 방출하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곧 옛날 상평(常平)의 법입니다. 또한 신은 이른바 사창이 백성들에게서 출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백성들은 필시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관에서 연름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은 필시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창고에 쌓아둔 곡물이 해마다 생겨나고 생겨나니, 위에서 덜어내고 아래에 보태는 도리에 있어 어찌 수령이 과외로 더 쓰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세(稅)를 해마다 모두 사창에 실어 나르되, 모두 피곡(皮穀)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래되어도 붉게 썩는 근심이 없고 백성들의 식량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또한 흉년이 든 해에 곡물이 귀해지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가을에 곡물 값이 싸졌을 때 백성들의 원납(願納)을 모집하여 혹은 가자(加資)하고, 혹은 토임(土任)에 차정하면 많은 백성들이 다투어 몰려와서 곡물을 이루다 쓸 수 없을 것이니, 필시 섬 백성들이 수년을 지탱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구황(救荒)에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 신이 지금 돌아갈 것이므로 서운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아뢰어 살펴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백성을 걱정하는 말을 아뢰었으니, 그 정성이 가상하다.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하니, 그대의 상소를 승정원으로 하여금 후록(後錄) 하도록 하여 관찰사와 목사에게 하유(下諭)하여 절대 전례대로 보아 넘기지 말고 의견을 내어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회계(回啓)하여 섬 백성들을 위해 가뭄과 홍수를 막는 방도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변경우, 상소, 사창, 장세, 가경세.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十五日 癸巳

○ 乙卯八月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右承旨·同副承旨, 下直閫帥·守令入侍時, 右承旨沈基泰, 同副承旨李肇源, 假注書具得魯,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慶州府尹兪漢謨, …… 濟州判官趙敬日, …… 旌義縣監洪相五等, 以次進伏訖. …… 命書傳敎曰, 欲爲下敎矣. 今因濟州前正言邊景祐上疏, 知其下鄕, 宜使齎往, 爲濟民設社倉禦旱澇之便否, 問于該牧使, 設或如其言而爲, 此係來頭足食之方, 何補於前冬之塡壑乎? 無告何辜, 若已推諸, 令牧使, 就濟州·大靜·旌義三邑, 各設一壇, 致酹於塡壑之類, 三邑中最多處, 不拘一壇, 從附近坊里, 築壇致酹, 牧使酹酒, 地方守令讀文, 而曾多可據之例, 祭文, 文任撰出下送事, 分付.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15일(계사)

▢ 제주(濟州)의 백성을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묻게 하고, 제주 3읍에 단(壇)을 설치하여 흉년에 굶어죽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祭祀)를 지내게 하라는 전교

○ 을묘년 8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우승지·동부승지, 하직 곤수(閫帥)·수령이 입시할 때, 우승지 심기태(沈基泰),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구득노(具得魯),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경주부윤 유한모(兪漢謨), 〈중략〉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 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하교하고자 하였다. 지금 제주(濟州)의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의 상소로 인하여 그가 고향으로 내려간 것을 알았다. 의당 가지고 가서 제주의 백성을 위해서 사창(社倉)을 설치하여 가뭄과 홍수에서 굶주림을 막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해당 목사에게 묻게 하라. 설령 그의 말처럼 한다면 이는 앞으로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니, 어찌 지난겨울에 굶어 죽은 시신이 골짜기를 메운 것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의지할 데가 없는 백성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 마치 내가 이들을 골짜기에 밀어넣은 것 같다. 목사로 하여금 제주, 대정(大靜), 정의(旌義) 3읍에 각각 단(壇)을 하나씩 설치하여 골짜기를 메운 부류에게 제사(祭祀)를 지내 주도록 하라. 3읍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은 단을 한 곳에 구애받지 말고 부근의 방리(坊里)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 주게 하라.

목사가 술을 땅에 부어 강신(降神)을 빌고 지방수령이 제문을 읽되, 일찍이 근거할 만한 전례가 많으니 제문은 문임(文任)[91]이 지어서 내려보내도록 분부하라."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사창, 단, 제사.

91) 문임(文任):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으로서 나라의 문서를 맡아보던 벼슬아치.

❖ 乾隆 六十年 乙卯 八月 十七日 乙未

○ 乙卯八月十七日辰時, 上御重熙堂. 右副承旨入侍時, 右副承旨蔡弘遠, 假注書具得魯,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以次進伏訖. …… 弘遠曰, 濟州民人致酹祭文, 明日當爲撰進, 而頭辭, 前或以王若曰爲之, 今番亦依此爲之乎? 上曰, 唯.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19년(1795) 을묘년 8월 17일(을미)

▢ 제주(濟州) 백성들의 치뢰(致酹)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쓰는 말을 '왕약왈(王若曰)'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묻는 우부승지 채홍원(蔡弘遠)의 계

○ 을묘년 8월 17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채홍원(蔡弘遠), 가주서 구득노(具得魯),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채홍원이 아뢰기를, "제주(濟州) 백성들의 치뢰(致酹) 제문(祭文)을 내일 지어 올려야 하는데, 문장의 첫머리에 쓰는 말을 전에 혹 '왕약왈(王若曰)'로 하였는데, 이번에도 이대로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라고 하였다.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문, 채홍원.

❖ 乾隆 六十年 乙卯 九月 一日 己酉

○ 京鄕儒生應製御考榜. …… 濟州詩三中幼學鄭遠集, 父泰老, 三下通德郎張紋, 父漢喆, 排律三下生員吳霐, 父載權, 幼學鄭興龜, 父道成,…….

❖ 정조 19년(1795) 을묘년 9월 1일(기유)

▢ 유학 정원집(鄭遠集) 등이 응제시(應製試)에 합격함

○ 경향유생응제어고방(京鄕儒生應製御考榜). 〈중략〉 제주(濟州)의 시(詩) 삼중(三中) 유학 정원집(鄭遠集)[아버지는 태로(泰老)], 삼하(三下) 통덕랑 장담(張紋)[아버지는 한철(漢喆)[92]], 배율(排律) 삼하 생원 오점(吳霐)[93][아버지는 재권(載權)], 유학 정흥구(鄭興龜)[아버지는 도성(道成)]. 〈하략〉.

△ 주제어: 응제시, 정원집, 장담, 오점, 정흥구.

92) 장한철(1744~?): 본관 해주(海州). 호 녹담거사(鹿潭居士).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대정현감, 흡곡현령 역임. 저서 《녹담집》·《표해록(漂海錄)》.

93) 오점(1764~1856): 본관 화순(和順). 자 시지(時之). 호 청파(靑坡).

❖ 乾隆 六十年 乙卯 九月 十日 戊午

○ 李勉兢, 以司僕寺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鄭運躋,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入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9월 10일(무오)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면긍(李勉兢)이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94]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정운제, 체임진상마, 별단.

94) 정운제(1740~?): 본관 해주(海州).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대정현감(1792.7.(도임)~1795.6.)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九月 十五日 癸亥

○ 傳于李儒慶曰, 近聞耽羅貢果, 難以如例封進云. 薦新外, 限明秋停免, 其餘各種之祀典所用外, 難辦者, 亦竝限明秋停免事, 令廟堂, 行會守臣處.

❖ 정조 19년(1795) 을묘년 9월 15일(계해)

▢ 천신(薦新)과 각종 사전(祀典)에 쓰이는 것 외에 제주(濟州)의 공과(貢果)를 내년 가을까지 면제하라는 전교

○ 이유경(李儒慶)에게 전교하기를, "근래 들으니 탐라(耽羅)의 공과(貢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천신(薦新)하는 것 외에는 내년 가을까지 면제하고, 그 나머지 각종 사전(祀典)에 쓰이는 것 외에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내년 가을까지 정지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목사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공과, 봉진, 천신, 사전, 면제.

❖ 乾隆 六十年 乙卯 九月 二十九日 丁丑

○ 乙卯九月二十九日未時, 上詣景慕宮. 擧動經宿入侍時, 行都承旨趙尙鎭, 行左承旨洪義榮, 行右承旨李祖承, 同副承旨蔡弘遠, 假注書曺錫中·呂東植,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李始源, 檢校待敎徐有榘, 以次侍立. …… 時秀曰, 臣以北道貿來馬事, 有所仰達者矣. 北關諸邑貿來馬, 本是取種馬名色, 而丁酉年, 因本寺提調筵稟, 取種馬, 姑爲停止, 以其價本, 貿來御乘馬及駕轎馬, 已成年例, 而貿馬諸邑, 每於貿取之時, 未及調習, 旋卽上送之故, 體樣易致瘦瘠, 步品不能調馴, 點退之弊, 多由於此. 若使所貿之馬, 留過春·夏, 待秋上送, 歲以爲例, 則必有其效, 自今年開市爲始, 各別擇貿, 另加留養, 趁明年九月內封進, 此後則永爲定式. 如是而馬品猶復如前, 則不善擇貿, 不謹留養之守令, 自本寺草記重勘之意, 嚴飭分付於該道道·帥臣及貿馬諸邑. 雖以取種馬言之, 前則或貿雌馬, 或貿雄馬, 分送於耽羅及諸牧場, 以爲取種, 故馬品多有高大者矣. 近來耽羅及諸牧場之馬, 漸皆短小疲劣, 絶無合用者. 臣意則北關十邑中, 吉州·明川·茂山·鏡城·會寧五邑, 依近例, 以性馴步快, 可合御乘, 駕轎者, 各一匹貿取, 善爲留養, 待翌年九月內進上, 其餘富寧·鍾城·穩城·慶源·慶興五邑, 則以元會, 減價分貿雌馬·雄馬各一匹, 不必留養, 依前以來年春初, 卽爲上送, 以爲分送於耽羅及諸牧場之地, 而旣爲取種, 則不必求性馴之馬, 只取雄健高大可合取種者而已, 雌馬之價, 必減於雄馬, 如是則一匹會減之數, 足當二匹之價, 依此定式, 似好,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上曰, 古則濟州之馬甚健大, 有胡種, 今則體皆短小, 馬群遂空, 可謂不成說矣. 吏判曾經濟牧, 其時所見, 何如耶? 著東曰, 濟州有養馬別屯, 此則胡馬取種者也, 今若送健大者於濟州, 則其所産, 亦必可用矣.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9월 29일(정축)

▢ 북관(北關)의 부령(富寧) 등 5개 읍에서 사오는 말을 즉시 탐라(耽羅)와 여러 목장에 나누어 보내 종자(種子)를 받게 하는 것 등을 정식(定式)할 것을 청하는 이시수(李時秀)의 계

○ 을묘년 9월 29일 미시에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으로 나아갔다. 거둥에 밤을 지새는 데 입시할 때, 행도승지 조상진(趙尙鎭), 행좌승지 홍의영(洪義榮), 행우승지 이조승(李祖承), 동부승지 채홍원(蔡弘遠), 가주서 조석중(曺錫中)·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이시원(李始源), 검

교대교 서유구(徐有榘)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신이 북도(北道)[95]에서 말을 사오는 일로 아뢸 것이 있습니다. 북관(北關)의 여러 읍에서 사오는 말은 본디 종마(種馬)를 취하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유년에 본시(本寺)의 제조가 연석(筵席)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종마를 취하는 것을 일단 정지하고, 그 값으로 어승마(御乘馬)와 가교마(駕轎馬)를 사들이는 것으로 이미 연례(年例)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무역하는 여러 읍이 매번 말을 사들일 때 미처 조련하지 못하고 곧바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체양(體樣)이 쉽게 수척해지고, 보품(步品)을 길들일 수가 없어서 점퇴(點退)하는 폐단이 다분히 여기에서 말미암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역한 말을 봄과 여름이 지나서 가을을 기다려 올려보내는 것을 규례로 삼는다면 반드시 그 효험이 있을 것이니, 금년 개시(開市)를 시작으로 각별히 가려 사서 별도로 머물러 기르다가 내년 9월 안으로 봉진(封進)하게 하고, 이후로는 영원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은데도 말의 품질이 여전히 다시 전과 같다면 잘 사들이지 못하고, 잘 머물러 두고 기르지 못한 수령을 본시에서 초기(草記)하여 중벌로 처단하겠다는 뜻을 해당 도(道)의 관찰사와 수신(帥臣) 및 말을 무역하는 여러 읍에게 엄히 단단히 타일러 분부하십시오. 비록 종마를 취하는 것으로 말을 하더라도, 전에는 혹 암말을 사거나 혹 수말을 사서 탐라(耽羅) 및 여러 목장에 나누어 보내어 종자(種子)를 받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말의 품질에 고대(高大)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 탐라 및 여러 목장의 말은 점점 모두가 단소(短小)하고 잔약(孱弱)하여 골골하니, 쓸만한 것이 아주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북관의 10개 읍 가운데 길주(吉州)·명천(明川)·무산(茂山)·경성(鏡城)·회령(會寧) 5개 읍은 근례의 예에 따라 성질이 길들여지고 걷는 것이 경쾌하여 어승마나 가교마로 합당한 것을 각 1필씩 사서 머물러 두고 잘 기르다가 다음해를 기다려 9월 안으로 진상하고, 그 나머지 부령(富寧)·종성(鍾城)·온성(穩城)·경원(慶源)·경흥(慶興) 등 5개 읍은 원회(元會)[96]로써 암말과 수말 각 1필씩을 가격을 낮춰 나누어 사들이되, 머물러 두어 기를 필요 없이 즉시 올려 보내어 탐라와 여러 목장에 나누어 보내어 종자를 받았다면 성질이 길들여진 말을 구할 필요없이 단지 웅건(雄健)하고 고대하여 종자를 받기에 합당한 것만을 취할 뿐이고, 암말의 가격은 필시

95) 북도(北道): 함경도의 다른 이름. 북관(北關).

96) 원회(元會): 원회곡(元會穀)을 뜻하는 말인 듯함. 환곡(還穀)을 새나 쥐가 먹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10분의 1을 더 취해 모곡(耗穀)이라 하였는데, 나중에는 그 모곡을 10으로 나누어 그 1분은 공용으로 하여 회록(會錄)이라 하고 그 9분은 본읍(本邑)에 속하게 하여 군자곡(軍資穀)으로 하였음. 이것을 통칭 호조곡 혹은 원회곡(元會穀)·창원곡(倉元穀)이라 함.

수말보다 덜하니, 이와 같이 하면 1필을 회감(會減)[97] 하는 숫자가 족히 2필 값이 될 것이니, 이대로 정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제주(濟州)의 말이 매우 굳세고 커서 호종(胡種)이 있었는데 지금은 몸체가 모두 짧고 작아서 마군(馬群)이 마침내 비게 되었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조판서는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냈는데, 그때 본 바는 어떠했는가?"라고 하였다. 윤시동(尹蓍東)[98]이 아뢰기를, "제주에 말을 기르는 별둔(別屯)이 있는데, 이것은 호마(胡馬)에서 종자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굳세고 큰 것을 제주로 보낸다면 생산하는 것이 또한 필히 쓸 만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북관, 호마, 별둔, 종자.

97) 회감(會減): 회록(會錄)된 재화를 회안(會案)에서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삭감한다는 의미임.

98) 윤시동(1729~1797): 본관 해평(海平). 자 백상(伯常). 호 방한(方閒). 시호 문익(文翼).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 제주목사(1765.8.~1766.6.), 예조판서, 우의정 역임. 저서 《향례합편(鄕禮合編)》·《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一日 戊寅

○ 乙卯十月初一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趙尙鎭, 行左承旨洪義榮, 行右承旨李祖承, 右副承旨金啓洛, 同副承旨蔡弘遠, 假注書曺錫中·呂東植,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以次進伏訖. 上命讀各房公事. …… 尙鎭讀奏禮曹單子濟州方物封進事.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1일(무인)

▢ 조상진이 입시하여 예조(禮曹) 단자에 제주(濟州)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한 일을 읽어 아룀

○ 을묘년 10월 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조상진(趙尙鎭), 행좌승지 홍의영(洪義榮), 행우승지 이조승(李祖承), 우부승지 김계락(金啓洛), 동부승지 채홍원(蔡弘遠), 가주서 조석중(曺錫中)·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각방(各房)의 공사(公事)를 읽게 했다. 〈중략〉 조상진이 예조(禮曹) 단자에 제주(濟州)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예조, 방물, 봉진.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二日 己卯

○ 蔡弘遠, 以備邊司言啓, 曰卽見忠淸監司柳炯狀啓, 則以爲道內穀摠, 素稱不敷, 而今年穡事, 又此失稔, 窮春民艱, 可以預料. 其所接濟, 惟靠還分, 而顧今本道則最被災荒, 兩南則俱幸豐登, 嶺南·湖南兩道中穀簿有裕處, 無論某樣穀, 限三萬石, 特爲移轉, 以爲及時運來, 均排糶糴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 至於兩南移轉, 道臣所請, 似欠斟量. 嶺南則嶺阨阻隔, 海路險遠, 轉輸一款, 有難輕議. 湖南則昨冬今春移送耽羅之數, 至於二萬六千包之多. 且經大賑, 沿邑穀簿, 無不枵然. 今又割出許多穀物, 則實有主客俱困之慮. 以此以彼, 實難許施, 狀啓內辭意, 置之, 何如? 傳曰, 允. 湖南事勢果如此, 嶺南亦然, 而本道艱食, 亦不可不念. 多少間生穀貯穀之方, 更令道臣狀聞事, 分付, 可也.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2일(기묘)

▢ 춘궁기에 대비하여 영남과 호남(湖南)에서 곡부(穀簿)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 곡물(穀物)을 이전(移轉)해 줄 것을 청한 충청감사 유강(柳炯)의 장계에 대해 호남의 경우 작년 겨울과 금년 봄에 제주(濟州)로 26,000포(包)를 이송(移送)하였고, 대대적인 진휼을 거치면서 연읍(沿邑)의 곡부가 텅비어 곤란하다는 비변사의 계

○ 채홍원(蔡弘遠)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충청감사 유강(柳炯)[99]의 장계를 보니, '도내(道內) 곡총(穀摠)은 평소 충분하지 못하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금년 농사가 또 이렇게 흉년이 들었으니 춘궁기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미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살아갈 방도는 오직 환분(還分)에 기대는 것뿐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본도는 가장 재해를 입었고, 양남(兩南)은 모두가 다행히 풍년이 들었으니, 영남과 호남(湖南) 두 도(道) 중 곡부(穀簿)에 여유가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떤 명목의 곡물(穀物)이든 막론하고 30,000섬에 한하여 특별히 이전(移轉)하여 제때에 운반해 와서 환곡을 고르게 분배하도록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양남에서 이전하는 경우 관찰사가 요청한 것은 헤아림이 모자란 듯합니다. 영남은 험준한 산에 막히고 해로(海路)가 험하고 멀어 운반하는 일을 가벼이 의론하기 어렵습니다. 호남은 작년 겨울과 금년 봄에 탐라(耽羅)로 이송(移送)한 수량이 26,000포

99) 유강(1736~?): 본관 전주(全州). 자 사정(士精).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包)에 이릅니다. 또한 대대적인 진휼을 거치면서 연읍(沿邑)의 곡부가 텅비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또 허다한 곡물을 떼어 내면 실로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해지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로보나 저로보나 실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니 장계의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호남의 사정이 과연 이와 같고, 영남 또한 그렇다. 하지만 본도가 먹고살기 어려운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든 적든 얼마간 곡물을 만들고, 곡물을 저축할 방도를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충청감사, 유강, 호남, 곡물, 이송.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二日 己卯

○ 乙卯十月初二日辰時, 上御重熙堂. 左副承旨入侍時, 左副承旨李晉秀, 記事官趙台榮, 記注官金良偁·吳泰曾, 以次進伏訖. …… 又命書傳敎曰, 關心者耽羅民事也. 昨年賑濟, 殫竭誠力, 而及其入聞, 塡壑難計其數云. 罪己貶躬, 若瘝若恫, 今見守臣狀本, 年事又未免失稔. 言念島民, 寧欲無言. 其所賙救之方, 宜急不可緩. 昨冬後時之前鑑, 豈不爲今日之凜然懲羹處乎? 然而湖南沿邑之未登, 無異於昨年, 則爲彼島民, 忽此沿氓, 誠亦有所不忍, 而島民無此陸穀, 何以活出乎? 道臣守臣, 若能悉心經紀, 步集公私之船, 船開貿遷之路, 無泛舟之名, 而有泛舟之實, 則固萬幸, 而此猶不可下手, 則先令湖南備置萬包穀於沿邑, 運致與輸去間, 一從便宜之策. 而其他節目間事, 惟在道臣之措處之如何, 廟堂指揮之又如何. 朝以右相言爲可, 而晩見吏判說, 其所條對, 尤爲詳盡. 卽令有司堂上中吏判添載收議第二三四件, 關問道守臣, 夜中呼燭, 如是申諭, 而有道守臣不能濟活. 若使一夫不獲, 則其可曰域中有朝廷, 朝廷有紀綱乎? 竝以此意嚴明, 分付.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2일(기묘)

▢ 제주(濟州)의 진휼(賑恤)에 관한 전교

○ 을묘년 10월 2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부승지가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진수(李晉秀), 기사관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김양척(金良偁)·오태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마음에 걸리는 것은 탐라(耽羅) 백성의 일이다. 작년 진휼(賑恤)하여 구제하는 것에 정성과 힘을 다 쏟았는데,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굶어 죽은 사람의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한다. 모두가 나의 죄이고 나의 탓이라 하겠지만 마음은 허탈해지고 슬퍼지기만 한다. 지금 목사의 장계를 보니 농사가 또 흉년을 면치 못하겠다. 섬 백성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구제해 줄 방도를 마땅히 서두르고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작년 겨울에 제때에 구제해 주진 못한 교훈이 어찌 오늘 늠연(凜然)히 징갱(懲羹)[100]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호남(湖南) 연읍(沿邑)의 미등(未登)이 작년과 다름이 없으니, 저 섬 백성을

100) 징갱(懲羹): 징갱취해(懲羹吹薤)의 준말. 뜨거운 국을 먹다가 입을 데고 나면 냉채국을 먹을 때도 불어서 먹는다는 뜻으로, 앞서의 잘못이나 실수를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비유함.

위하면서 이 연읍의 백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할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섬 백성들은 이 육지의 곡물(穀物)이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나겠는가? 관찰사와 목사가 제대로 마음을 다하여 경영하면서 공사(公私)의 배들을 집결시키고 무역할 길을 열어주되 배를 띄웠다는 명색만 갖추지 말고 배를 띄운 실효가 있게 한다면 정말 다행이겠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손을 쓸 수가 없으니, 먼저 호남으로 하여금 10,000포(包)의 곡물을 연읍에 비치하여 운반해 오는 것과 수송해 가는 사이에 한결같이 편리한 계책을 따르게 하라. 그 나머지 절목에 대한 일은 오직 관찰사의 조처가 어떠한가, 묘당의 지휘가 또한 어떠한 가에 달려있다. 아침에 우의정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저녁에 이조판서의 설명을 접하니 그 조목조목 대답한 것이 더욱 자세하였다. 즉시 유사당상으로 하여금 이 가운데 이조판서가 첨재(添載)하여 의견을 수렴한 둘째, 셋째, 넷째 조목을 관찰사와 목사에게 관문(關文)을 띄워 물어보게 하라. 밤중에 촛불을 밝히고 이렇게 거듭 유시(諭示)하는데도 관찰사와 목사가 구제하여 살리지 못하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나라 안에 조정이 있고, 조정에 기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이 뜻을 엄히 밝혀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101] 〈하략〉.

△ 주제어: 진휼, 호남, 연읍, 곡물.

101) 이상은《정조실록》정조 19년 10월 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三日 庚辰

○ 乙卯十月初三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 下直閫帥·守令·厚陵參奉同爲入侍時, 行左承旨洪義榮, 左副承旨李晉秀, 同副承旨李義駿, 記事官趙台榮,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 以次進伏訖. 上命讀各房公事. 義駿讀奏濟州牧使李禹鉉狀啓, 雨澤農形事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3일(경진)

▢ 이의준(李義駿)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狀啓)에 우택(雨澤)과 농사 형편에 관한 일을 읽어 아룀

○ 을묘년 10월 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하직하는 곤수(閫帥)·수령·후릉참봉이 함께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의영(洪義榮), 좌부승지 이진수(李晉秀), 동부승지 이의준(李義駿), 기사관 조태영(趙台榮),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 〈중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각 방(各房)의 공사(公事)를 읽게 했다. 이의준[102]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狀啓)에 우택(雨澤)과 농사형편에 관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장계, 우택, 농사형편.

102) 이의준(1738~1798): 본관 전주(全州). 자 중명(仲命).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종성부사, 대사간, 황해도관찰사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五日 壬午

○ 乙卯十月初五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藥房都提調洪樂性, 行都承旨趙尙鎭, 左承旨成種仁, 右承旨鄭尙愚, 左副承旨李義駿, 同副承旨李肇源, 記事官趙台榮, 假注書閔命爀,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李敏德·李周憲·丁希泰, 以次進伏訖. …… 上敎耆東曰, 聞濟州穡事, 今年又歉, 賑濟之策, 不可不預講. 何以則爲好耶? 欲爲船粟, 則逐年沿邑之弊, 亦不可不念. 使道臣聚某樣穀於沿邑, 無論某船, 隨其來往, 次次以運則何如? 耆東曰, 誠如聖敎矣. 濟州年事, 今又判歉, 已因守臣狀聞, 聖念旣軫島民之荐饑, 絲綸屢降, 今復有臨筵下詢之擧. 臣愚淺慮, 則災形雖稍勝於昨年, 民勢必大艱於明春, 槪以蓋藏旣傾, 牛馬盡賣, 涼藿造採, 瘡痍之餘, 力亦不贍. 商船米穀, 雖聞風湊集, 似難於量口換貿, 物産旣乏, 則私商之轉相告而却不入者, 亦事勢之所必至. 以此論之, 公穀往哺, 恐不可已. 軫恤之恩, 島陸一視, 而駕海轉輸, 將害及湖沿矣. 貯穀之計, 前已行會道臣, 當量宜擧行, 而船運一款, 最所悶慮, 本島與沿海船, 勿拘裝載爲好. 諸邑運穀, 自有先後, 則順風候發, 不必同在一日, 差員進詣內島, 計船量穀, 嚴飭監色, 準授畢運, 則只文移往復于本州, 不必身自入島, 以致島民迎送之弊. 此等事更加各別申飭于道守臣處, 星火往復, 俾無先事而有慮不到之悔, 後時而有緩不及之歎, 務令周密詳悉, 期盡對揚德意之方. 如有別般意見之可以有益于民食, 而無損乎公體者, 亦須相議變通, 一一陳聞, 以爲及時措處之地, 何如? 上曰, 卿之所奏, 卽爲行會, 可也. 【出擧條】 耆東又曰, 向聞商賈輩來往之言, 濟州社壇修築時, 混入不潔之木, 自其後無一歲豐登云. 此雖不經之說, 旣聞之後, 恐不可因置, 而亦非朝家指揮之事矣. 上曰, 卿以私書, 通于該牧, 啓請修改, 則當送香祝矣.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5일(임오)

▢ 흉년이 든 제주(濟州)의 백성을 진휼(賑恤)할 방법 등을 아뢰는 윤시동(尹蓍東)의 계

○ 을묘년 10월 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하고,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약방도제조 홍낙성(洪樂性), 행도승지 조상진(趙尙鎭), 좌승지 성종인(成種仁), 우승지 정상우(鄭尙愚), 좌부승지 이의준(李義駿),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기사관 조태영(趙台榮), 가주서 민명혁(閔命爀),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

勉柱),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이민덕(李敏德)·이주헌(李周憲)·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윤시동(尹蓍東)에게 하교하기를, "들으니, 제주(濟州)의 농사가 올해 또 흉년이 들었으니 진휼(賑恤)할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배로 곡물을 실어 나르고자 하면 해마다 연읍(沿邑)의 폐단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찰사로 하여금 어떤 명목의 곡물이라도 연읍에서 모아서 어떤 배를 막론하고 그것이 오고가는 대로 차례차례 운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였다. 윤시동이 아뢰기를,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제주의 농사가 지금 또 흉년이 들었고, 이미 목사가 장계로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임금께서 섬 백성들의 거듭된 기근을 걱정하여 윤음(綸音)을 여러 번 내렸으며, 지금 다시 연석(筵席)에서 하문하는 거조가 있습니다. 신의 어리석고 얕은 생각으로는 재해의 형편이 비록 작년보다는 조금 낫다 하더라도 백성은 반드시 내년 봄에 크게 어려울 것입니다. 대개 쌓아두었던 것이 이미 기울어 소와 말을 다 팔고, 양태[涼臺]와 미역을 만들고 채취하지만 만신창이가 된 끝이라 힘 또한 넉넉하지 못할 것이니, 상선의 미곡(米穀)이 비록 소문을 듣고 모인다 하더라도 인구를 헤아려 물건을 맞바꾸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물산이 이미 부족하니, 사상(私商)들이 서로 알려 물러나 들어가지 않을 것은 또한 일의 형세상 반드시 이를 바입니다. 이것으로 논하면 공곡(公穀)을 가서 먹이는 것이 부득이 할 듯합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은혜는 섬과 육지가 똑같지만 바다를 건너서 실어 나르는 것은 장차 해로움이 호남의 연읍에 미칠 것입니다. 곡물을 비축할 계획은 전에 이미 관찰사에게 행회(行會)[103]하였으니, 마땅히 적절히 헤아려 거행하겠지만 배로 운반하는 한 가지가 가장 염려스러운 바입니다. 본도(本島)와 연해의 배를 구애하지 말고 짐을 꾸려 싣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 읍에서 곡물을 운반하는 데에는 절로 선후가 있으니, 순풍을 기다린 후에 출발하고 하루에 같은 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사원(差使員)은 내도(內島)에 나아가서 배와 곡물을 헤아리고, 감색(監色)을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수량대로 주어 운송이 마무리 되면, 단지 문서로만 본주(本州)와 왕복하여 직접 섬으로 들어가서 섬 백성들이 영송(迎送)하는 폐단이 없게 하십시오. 이러한 일은 다시 각별히 관찰사와 목사에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고, 성화(星火) 같이 왕복하여 일에 앞서서 생각이 미치지 못한 후회와 시기가 뒤쳐져 느긋하게 하다가 미치지 못한 탄식이 없도록

103) 행회(行會):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각 관아에 공문으로 보내어 알리는 것 또는 알리어 실행방법을 의논하는 것을 뜻함.

힘써 주도면밀하게 자세히 알아서 덕음(德音)을 받들어 널리 알릴 방법을 다할 수 있기를 기약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보통과 다른 의견이 있는데 백성들을 먹이는 데에 유익함이 있으면서 공적인 체모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또한 모름지기 서로 의논하여 변통하고, 일일이 보고하여 때에 미쳐 조처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아뢴 대로 즉시 행회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윤시동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상인들이 오고가는 말을 들으니, 제주의 사단(社壇)을 수축할 때 불결한 목재가 들어갔고 그 후로 한 해도 풍년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허망하고 간사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미 들은 후에는 그대로 둘 수 없을 듯 합니다만 또한 조정에서 지휘할 일도 아닌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해당 목사에게 통하여 수리하기를 계청(啓請)하면 당연히 향축(香祝)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윤시동, 흉년, 진휼, 사직, 수축.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十日 丁亥

○ 乙卯十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諸承旨持公事入侍, 三使臣同爲入侍時, 藥房提調李時秀, 行都承旨蔡弘履, 右承旨成種仁, 左副承旨金啓洛, 右副承旨鄭尙愚, 同副承旨李肇源, 記事官趙台榮, 假注書閔命爀,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冬至正使閔鍾顯, 副使李亨元, 書狀官趙德潤,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吳仁豐·李周憲·丁希泰, 以次進伏訖. …… 時秀曰, 濟州所貢安息香·只實, 今方捧上. 而旣有進上物種限明秋停退之敎, 其時自備局卽爲行關, 而今此兩種之封進, 已於關到前離發矣, 不可不稟定後捧上. 故敢此仰達矣. 上曰, 關到前封進者, 何必不捧? …… 上命讀奏各房公事. …… 啓洛讀奏 …… 濟州牧使李禹鉉狀啓韓世澤等兩人逢風漂流事 …… 命書判付.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10일(정해)

▢ 정퇴(停退)하라는 하교가 도착하기 전에 봉진(封進)한 제주(濟州)의 공물 처리에 대해 여쭙는 이시수(李時秀)의 계와 한세택(韓世澤) 등 두 사람이 바람을 만나 표류(漂流)한 일을 아뢰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

○ 을묘년 10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入診)하고,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삼사신(三使臣)이 함께 입시할 때, 약방제조 이시수(李時秀), 행도승지 채홍리(蔡弘履), 우승지 성종인(成種仁), 좌부승지 김계락(金啓洛), 우부승지 정상우(鄭尙愚),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기사관 조태영(趙台榮), 가주서 민명혁(閔命爀),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 동지정사 민종현(閔鍾顯), 부사 이형원(李亨元), 서장관 조덕윤(趙德潤),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오인풍(吳仁豐)·이주헌(李周憲)·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시수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공납하는 안식향(安息香)[104]과 지실(只實)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상하는 물종은 내년 가을을 기한으로 정퇴(停退)하라는 하교가 있었고, 그때 비변사에서 즉시 관문(關文)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가지 물종의 봉진(封進)은 이미 관문이 도착하기 전에 떠난 것

104) 안식향(安息香): 안식향나무의 줄기에서 흘러내린 수지(樹脂). 맵고 쓴맛에 성질은 평하여 한방에서 진정제로 쓰임.

이기에 품정(稟定)한 후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문이 도착하기 전에 봉진한 것을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각방(各房)의 공사(公事)를 읽어 아뢰라고 하였다. 〈중략〉 김계락[105]이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한세택(韓世澤) 등 두 사람이 바람을 만나 표류(漂流)한 일을 아뢰었다. 〈중략〉 쓰라고 명하여 판부(判付)하였다. 〈하략〉.

△ 주제어: 안식향, 지실, 봉진, 한세택, 표류.

105) 김계락(1753~1815): 본관 강릉(江陵). 자 경순(景淳). 시호 문정(文靖).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형조판서, 예조판서, 우참찬 역임.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十四日 辛卯

○ 鄭尙愚,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徐鼎修報本司辭緣, 則以爲濟州三邑災荒之狀, 已蒙朝家軫念, 屢勤飭命, 俾爲其及時接濟之道, 則其所奉行, 不容少緩. 故今方罔夜往復於同州, 講究其從長措處之方, 而卽者濟州牧帶率軍官崔厚鎭及將校金鍾甫等, 以本州補賑穀物, 貿取價錢請得事, 齎持該牧使報狀出來, 報狀自船中漂失, 只以該牧使私書來納, 而以爲島中被災, 雖似較淺於昨秋, 來頭民勢之遑汲, 將必倍甚於今春, 不可不請穀, 而年年船粟之數多, 萬萬惶悚. 爲先以如干廩俸, 換貿雜物, 欲爲發賣於陸地, 貿入補賑之資, 而數甚零星, 不得爲一半之助. 自營門某樣錢中五千兩, 請得劃給, 則貿穀補賑後, 同錢麥秋後, 卽爲準備出送爲計, 玆以別送親裨, 備陳事情云. 同州民情, 若是悶急, 接濟之節, 當如救焚拯溺, 穀物貿遷, 慮或晩時, 若不及今變通, 轉至於穀盡價踊之時, 則將未免狼狽. 且其請貸, 不過半年推移, 則某條許施, 在所不已. 而本營如干留儲, 已於昨年, 盡爲推移於兵水營各鎭堡, 校卒給代條停減之代, 今則蕩然無着手處, 勢將就他公貨, 報稟劃貸, 而往復之間, 將不免緩不及事之慮. 故不得已道內留在賑廳所納某樣錢中五千兩, 直爲劃給於同州褊裨處, 使之及今貿穀計料. 自本司知委該廳, 卽爲許劃事處分爲辭矣. 本牧形勢, 如是遑汲, 道臣之未及論報受題, 事勢固然. 方以依所報限麥秋許貸事, 捧甘該廳, 分付道臣. 本牧貿穀之節, 船運之際, 使沿邑某條措處, 着意顧護, 以爲趁未寒前準數貿去之地事, 一體關飭之意, 敢啓. 傳曰, 知道. 此時風勢, 最利穩泊, 何必五千數? 雖至萬金, 隨其所請, 這這劃貸後, 形止與船粟當否, 陸續狀聞, 俾紓一分南顧之意. 島中昨冬之塡壑, 豈可罪歲, 寧或責倅? 一則朝廷之咎, 二則朝廷之咎. 或使今年島民, 雖一夫一婦, 浮黃黧黑, 腹不飽而膚不庇. 若有入聞於耳邊, 則日御之饍, 限一年當除却一時, 以謝島民, 爲道伯守臣者, 聞此敎而一有泛忽, 其可曰有臣分? 雖以卿等言之, 若或循例行會, 循例分付, 其可曰有道理分義乎? 王言不可不示信, 卿等更須知悉.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14일(신묘)

▢ 진자(賑資)를 보충할 곡물을 사는 데에 필요한 돈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요청대로 빌려줄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106]가 본사(本司)에 보고한 사연(辭緣)을 보니, ‘제주(濟州) 3읍의 재황(災荒)의

실상은 이미 조정의 진념(軫念)을 입어서 여러 차례 칙명(飭命)으로 제때에 접제(接濟)하는 방도를 삼도록 하였기에 봉행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야흐로 밤을 새워 동주(同州)와 오고가며 장책(長策)에 따라 조처할 방도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목(濟州牧)의 대솔군관(帶率軍官) 최후진(崔厚鎭)과 장교 김종보(金鍾甫) 등이 본주(本州)가 진자(賑資)를 보충할 곡물을 사서 올 돈을 청하여 얻는 일로 해당 목사의 보장(報狀)을 가지고 나왔는데, 보장이 배 안에서 표실(漂失)되어 단지 해당 목사의 사적인 편지만 와서 들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인 즉, '섬 안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 비록 작년 가을보다는 덜한 듯해도 앞으로 백성들 형편의 급박함이 장차 필히 금년 봄보다 배가 될 것이니 곡물을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배로 실어나르는 곡물의 수가 많아서 너무나 황송합니다. 우선 약간의 늠봉(廩俸)으로 잡물(雜物)과 바꾸어 육지에 내어팔아 진구(賑救)에 보충하는 물자를 사들이려고 하였는데, 수량이 심히 보잘 것 없어서 일반(一半)의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영문(營門)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이든지 간에 5,000냥을 청하여 얻어 획급(劃給)한다면, 곡물을 사서 진자에 보충한 후에 동전(同錢)은 맥추(麥秋) 후에 즉시 수량대로 갖추어 내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특별히 가까운 비장(裨將)을 보내어 사정을 갖추어 아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주 백성들의 사정이 이와 같이 걱정스럽고 급하니, 접제하는 일을 마땅히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해서 곡물을 사서 옮기는 것이 혹 늦어질까 염려해야 하는데, 미처 지금 변통하지 않아서 곡물이 다하고 값이 치솟는 때에 이르면 장차 낭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빌려주기를 청하는 것이 반년 추이(推移)에 불과하다면 아무쪼록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영(本營)이 약간 비축하고 있던 것은 이미 작년에 병영과 수영의 각 진보(鎭堡)에 추이하여 장교와 군졸의 급대조(給代條)에 정감(停減)[107]한 대충(代充)으로 다 써서 지금은 텅 비어 손 쓸 곳이 없으니, 형세상 장차 다른 공화(公貨)에 나아가 보고하여 떼어주어야 왕복하는 사이에 장차 지체하여 제때에 미치질 못할 염려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부득이 도내(道內)에 남아있는 진휼청에 들일 아무 명목의 돈 5,000냥을 동주의 비장에게 바로 획급하여 지금 곡물을 사게 할 계획입니다. 본사에서 해당 청(廳)에 알려 즉시 획급을 허락하도록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본목(本牧)의 형세가 이와 같이 황급합니다. 관찰사가 미처 보고하여 제사(題辭)

106) 서정수(1749~?): 본관 대구(大丘). 자 국매(國梅).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107) 정감(停減): 흉년이 들어 백성이 조세(租稅)를 제대로 내기 어려울 때 나라에서 그 정도에 따라 징수하지 않거나 감하여 주는 일.

를 받지도 않은 것은 일의 형세가 진실로 그러한 때문입니다. 보고한 대로 맥추를 기한으로 빌려주도록 감결(甘結)을 받은 해당 청이 관찰사에게 분부하게 하십시오. 본목이 곡물을 사는 일과 배로 운반할 때 연읍(沿邑)으로 하여금 아무쪼록 조처하게 하여 유념하여 돌보아 보호하여 추워지기 전에 정해진 수량대로 사서 가도록 일체 관문(關文)으로 타일러 경계할 것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 시절의 풍세(風勢)가 순조롭게 정박하기에 가장 이로운데, 하필이면 5,000냥인가? 비록 만금(萬金)에 이른다 할지라도 요청하는 대로 낱낱이 모두 떼어 빌려준 후에 그 전말과 배로 운반하는 곡물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육지로 계속해서 장계로 보고하여 조금이라도 남쪽을 돌아보는 근심을 풀어주도록 하라. 섬에서 작년 겨울에 굶어 죽은 것을 어찌 해[年]에다 허물을 돌릴 것이며, 어찌 혹여 수령을 책하겠는가? 첫째도 조정의 허물이고, 둘째도 조정의 허물인 것이다. 만약 금년에 섬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지아비 하나 지어미 하나라 할지라도 부황이 들어 거메지고, 배는 부르지 않고 살갗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귀에 들어온다면 임금에게 바치는 음식을 1년 동안 일시에 물리쳐서 섬 백성들에게 사죄할 것이다. 관찰사와 수령이 된 자가 이 하교를 듣고도 하나라도 소홀함이 있다면 신하의 본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들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렇다. 만약에 규례대로만 행회(行會)하고 규례대로만 분부한다면 그것이 도리와 분의(分義)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말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으니, 경들은 다시 모름지기 잘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제주목, 재황, 진자, 운반.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十五日 壬辰

○ 傳于蔡弘履曰, 濟州文官在京人入侍.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15일(임진)

▢ 서울에 있는 제주(濟州) 문관(文官)을 입시(入侍)하게 하라는 전교

○ 채홍리(蔡弘履)[108]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문관(文官)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문관, 입시.

108) 채홍리(1737~?): 본관 평강(平康). 자 사술(士述).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十五日 壬辰

○ 乙卯十月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諸承旨持公事入侍時, 提調李時秀, 副提調蔡弘履, 右承旨成種仁, 記事官趙台榮, 假注書尹命烈, 記注官金良僩,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白成一·李周憲·丁希泰, 以次進伏訖. …… 上曰, 昨日以濟州事, 有所判下於草記者, 卿果卽爲傳示於右相乎? 時秀曰, 卽與右相往復, 仍卽行會湖南道伯處, 以爲預先區劃之地矣. 上曰, 船粟事, 大臣以爲, 何以則島陸兩便云耶? 時秀曰, 大臣以爲, 不滿萬包之穀, 則無以濟活, 此數專責於沿邑, 則勢亦未由, 與道伯相議, 以爲從長區劃爲當云. 故以此意行關該道, 亦以私書相通矣. 上曰, 濟州文官入侍. 賤臣承命出傳, 與奉常副奉事邊景鵬偕入進伏. 上曰, 爾於今春科時上來, 仍爲留京乎? 景鵬曰, 然矣. 上曰, 爾之同榜諸文官, 何不上來乎? 景鵬曰, 當初下去時, 以追後上來爲言矣. 又逢年事之失稔, 皆有仰事俯育之責, 不得離捨而來矣. 上曰, 爾雖不得歸濟州, 聲信必當續聞, 秋事較前年如何云耶? 景鵬曰, 猶可有取種者, 此似勝於前年矣. 上曰, 旣不得食, 何以取種? 前年捐瘠之多, 雖曰有司之不善擧行, 而亦莫非朝廷之責也. 每一念及, 予心如何? 爾知有若己推之之文字乎? 景鵬曰, 知之矣. 上曰, 濟州事, 豈不然乎? 明年若又捐瘠之如前年, 則予心爲一日一食之計, 而昨日判付中, 有傷事面, 初不提及矣. 爾是濟州人, 如有可言之策, 悉陳無隱, 可也. 景鵬曰, 臣生長濟州, 習知民情, 而若値飢歲, 實無轉而之他之路. 故一隅海島, 每多捐瘠, 商賈之來往, 雖不禁遏, 民之有資産者, 始得懸保出送. 而至於貧殘流丐之類, 例不許越海. 故雖欲寄命於持瓢一呼之中, 勢無其由. 今此大無之年, 特許其任意出陸, 得沾其滯穗之利, 而徐待年豐, 以爲刷還之地, 則庶或無塡壑之患矣. 上曰, 往言於有司堂上中曾經濟牧人, 使卽行會該牧, 以爲從便措處之地, 可也. 【出擧條】 上曰, 雖於此後, 如有所聞之言, 可救之策, 爾須往見大臣及有司堂上, 續續言之, 可也. 仍命先退, 景鵬退出.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15일(임진)

▢ 제주(濟州)에 진자(賑資)를 배로 운반하는 일에 대한 대신(大臣) 등의 의견을 아뢰는 이시수(李時秀)의 계와 구휼을 위한 계책을 아뢰는 변경붕(邊景鵬)의 계

○ 을묘년 10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입진(入診)하고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제조 이시수(李時秀), 부제조 채홍리(蔡弘履), 우승지 성종인(成種仁), 기사관 조태영(趙台榮), 가주서 윤명렬(尹命

烈), 기주관 김양척(金良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백성일(白成一)·이주헌(李周憲)·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제주(濟州)의 일로 초기(草記)에 판하(判下)한 것이 있었는데, 경은 과연 즉시 우의정에게 전해 보였는가?"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즉시 우의정과 의논하였고, 이어서 즉시 호남 관찰사에게 행회(行會)하여 미리 구획(區劃)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배로 곡물(穀物)을 실어나르는 일에 대해 대신은 어떻게 하면 섬과 육지 양쪽 다 편하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대신은 10,000포(包)의 곡물이 차지 않으면 제활(濟活)할 수 없고, 이 수량을 전적으로 연읍(沿邑)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형세상 또한 말미암을 수 없으니, 관찰사와 상의하여 좋은 쪽으로 구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뜻으로 해당 도(道)에 관문(關文)을 보냈고, 또한 사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문관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전하고, 봉상시 부봉사 변경붕(邊景鵬)과 함께 들어와 나와서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올봄에 과거를 시행할 때 올라와서 그대로 서울에 머물렀는가?"라고 하였다. 변경붕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와 함께 급제한 문관들은 어째서 올라오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변경붕이 아뢰기를, "당초 내려갈 때는 추후에 올라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농사가 흉년을 당하게 되자 모두 위로 부모님을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기를 책임이 있기에 내버려 두고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제주에 돌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식은 반드시 이어서 들었을 것이다. 가을농사는 전년에 비해 어떠하다고 하던가?"라고 하였다. 변경붕이 아뢰기를, "그래도 종자를 취할 만한 것이 있으니, 전년보다는 나은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먹을 수 없는데, 무엇으로 종자를 취하겠는가? 전년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은 것은 비록 유사(有司)가 잘 거행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또한 조정의 책임이 아님이 없다. 매양 한 번 생각이 미칠 때마다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너는 '마치 자기가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듯하다.'는 글귀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변경붕이 아뢰기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의 일이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내년에도 굶어 죽는 백성이 전년과 같다면 나의 마음은 하루에 한끼만 먹을 계획인데, 어제 판부(判付) 중에는 사리(事理)와 체면(體面)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어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았다. 너는 제주인(濟州人)으로 언급할 만한 계책이 있으면 숨김없이 모두 말해 보도록 하라."라고 하였

다. 변경붕이 아뢰기를, “신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백성들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데, 흉년을 만나면 실로 변통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한 귀퉁이의 해도(海島)에는 매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인들의 왕래를 비록 금지하지 않아서 백성들 중에 자산(資産)이 있는 자는 보증을 세워 내보내기는 합니다만, 가난하고 힘이 없어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부류의 경우는 으레 바다를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바가지를 들고 호소하는 가운데에 목숨을 맡기고자 하여도 형세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처럼 큰 흉년을 만나서 특별히 마음대로 출륙(出陸)하는 것을 허락하여 체수(滯穗)[109]의 이로움을 누리게 하고, 풍년이 들기를 천천히 기다렸다가 쇄환(刷還)[110]하게 한다면 굶어 죽은 시체가 도랑을 메우는 근심은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사당상 중에 일찍이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낸 사람에게 가서 말하여 즉시 해당 목사에게 행회하여 편리한 대로 조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임금이 말하기를, “이후로라도 들려오는 말에 구제할 계책이 있다면 너는 모름지기 대신 및 유사당상을 가서 만나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니, 변경붕이 물러나왔다. 〈하략〉.

△ 주제어: 흉년, 곡물, 변경붕, 출륙.

109) 체수(滯穗): 남은 이삭. 여기서는 남아서 여유가 있게 된 진자(賑資)를 뜻함.

110) 쇄환(刷還): 일반 백성이나 노비 등이 원거주지를 이탈하였을 때, 이들을 찾아 원거주지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함.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二十三日 庚子

○ 鄭尙愚, 以備邊司言啓曰, 向因湖南暗行御史鄭晩錫別單再次回啓草記批旨內, 今日革一宿弊, 明日行一實政之方, 卿等更加理會, 期於對揚事, 命下矣. 蓋此繡單所論邑弊民隱, 外面驟看, 無非可以釐革者, 而第其間或有法久弊生者, 或有襲謬成例者, 或有不必上煩者, 或有未諳事情者, 苟欲逐項依施, 則誠恐一瘼纔祛, 一瘼復生. 前弊旣改, 後弊有倍, 不可不較量其緊歇輕重, 當次第條陳, 以請稟裁, 而其中 …… 濟州公行往來候風時供億之需, 收斂島民事, 所安島之濟州公行候風時供億之需, 專責島民者, 實爲本島窮民最難支之巨弊. 蓋濟州都會官, 每歲以康·海兩邑, 輪回差定, 凡係公行往來之人, 自官供億, 自是事例, 而貽弊窮民, 越視秦瘠, 全不備給, 任其收斂者, 其可曰道有道臣, 邑有守令乎? 事體所在, 萬萬駭然, 此不必別立科條, 只宜申明舊式, 俾不得違越而已. 以此意嚴飭兩都會官, 各其當次時, 公行往來之人, 毋論上下尊卑, 又毋論候風淹速, 供億之費, 竝自都會官計日輸送, 雖微瑣之物, 若或有侵徵島民之弊, 則當該守令, 論列狀聞, 拿問嚴勘之意, 更爲定式施行. 又或因循不察, 現發於繡衣或使星之行, 則當該道臣一體論責事, 亦爲分付, 何如? 傳曰, 今番湖南繡啓之次次回啓, 蓋欲責其實效也. …… 該島民公行受困事, 不可但以嚴勘嚴禁等說, 塞責杜弊, 亦令道臣與地方守令面議, 行之永久, 民得安葬之策, 一體狀聞, 如是措語下敎之後, 若無實效, 反不若循例回啓, 竝以此意, 令道臣知悉, 可也.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23일(경자)

▢ 제주(濟州) 공행(公行)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을 공억(供億)하는 비용을 소안도(所安島)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폐단에 대해 도회(都會)의 규례를 거듭 밝혀 시행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난번 호남 암행어사 정만석(鄭晩錫)의 별단(別單)에 대해 두 차례 회계(回啓)한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 내에, ‘오늘 고질적인 폐단 하나를 고치고 내일 실효성있는 정책 하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경들은 다시 더 이치를 궁구하여 기필코 임금의 뜻을 선양해 나가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대개 어사가 별단에서 논한 읍의 폐막과 백성들의 괴로움은 겉으로 얼핏 보면 개혁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 사이에 혹은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겨난 것이 있고, 혹은 잘못을 답습하여 규례를 만든 것이 있고, 혹은 위로 보고하여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고, 혹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항목을 좇아 허가를 하고자

한다면 참으로 한 가지 폐단이 겨우 제거되자 다시 또 한 가지 폐단이 생겨날까 염려가 됩니다. 앞의 폐단이 이미 고쳐졌지만 후일의 폐단이 갑절이나 있게 되니, 그것이 긴요한지 긴요하지 않은지, 중한지 가벼운지를 비교하여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차례대로 조목별로 아뢰어 품재(稟裁)하기를 청합니다. 그 가운데 〈중략〉 제주(濟州) 공행(公行)이 왕래하며 후풍(候風)할 때 공억(供億)하는 비용을 섬 백성들에게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소안도(所安島)가 제주 공행이 후풍할 때 공억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섬 백성들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은 실로 본 섬의 가난한 백성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커다란 폐막입니다. 대개 제주의 도회관(都會官)은 매해 강진(康津)과 해남(海南) 두 읍을 윤차(輪次)로 정하여 공행에 관계되어 왕래하는 사람을 관에서 공억하는 것이 본래의 사례(事例)입니다. 그런데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월(越)나라 사람이 진(秦)나라 사람의 수척한 모습을 무심하게 보듯 하여 관에서는 하나도 갖추어 지급하지 않고 마음대로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이니, 이것이 도(道)에 관찰사가 있고, 읍에 수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의 체모에 있어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법령을 만들 필요 없이 단지 구식(舊式)을 거듭 밝혀 위반할 수 없게만 하면 됩니다. 이 뜻으로 두 도회관을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각기 차례를 당하였을 때 공행으로 왕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하존비(上下尊卑)를 막론하고, 또한 후풍의 지체와 빠름을 막론하고 공억하는 비용을 모두 도회관에서 날짜를 계산하여 수송(輸送)하여, 비록 자질구레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섬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수령을 죄목을 늘어놓아 장계로 보고하고 잡아다 심문하여 엄히 처단할 뜻을 다시 정식(定式)하여 시행하게 하십시오. 또한 혹여 낡은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피지 않아서 어사와 사성(使星)의 행차에서 발각된다면, 해당 관찰사를 일체 논책(論責)하는 것을 또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번 호남 어사의 장계에 대해 차례대로 회계하게 한 것은 실효를 거두고자 해서이다. 〈중략〉 해당 섬 백성들이 공행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 일은 단지 엄히 처단하겠다거나 엄히 금지한다는 등의 말로써는 형식적으로 폐단을 막는 것일 뿐이다. 또한 관찰사로 하여금 지방 수령과 만나서 서로 의논하여 영구히 시행되어 백성들이 안장(安葬)할 수 있는 계책 일체를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이와 같이 말을 만들어 하교한 후에도 만약에 실효가 없다면 도리어 관례에 따라 회계한 것만 못할 것이니, 아울러 이러한 뜻을 관찰사에게 잘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소안도, 공행, 도회관, 강진, 해남.

❖ 乾隆 六十年 乙卯 十月 二十七日 甲辰

○ 傳于鄭尙愚曰, 今年耽羅貢柑橘柚, 皆停之. 當以柚子代頒, 湖南貢柚適到, 明日春塘臺, 當頒柚, 時刻差晩爲之, 別雲劍外, 侍衛以入直擧行.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0월 27일(갑진)

▢ 금년에 정퇴(停退)한 제주(濟州)의 감귤(柑橘)과 유자(柚子) 대신 호남의 유자로 대신 나누어 주겠다는 전교

○ 정상우(鄭尙愚)에게 전교하기를, “금년 탐라(耽羅)에서 공납하는 감귤(柑橘)과 유자(柚子)를 모두 정퇴(停退)하였다. 마땅히 유자로 대신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호남에서 공납하는 유자가 마침 도착하였으니, 내일 춘당대(春塘臺)에서 당연히 유자를 나누어 줄 것이다. 시각을 조금 늦추어 행하고, 별운검(別雲劍) 외에 시위(侍衛)는 입직으로 거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공납, 감귤, 유자, 정퇴.

❖ 乾隆 六十年 乙卯 十一月 七日 甲寅

○ 傳于金啓洛曰, 曾聞耽羅風勢, 此時最好於入去, 而過冬至則反風, 出來入去俱難云, 向於關問之後, 尙不狀啓, 可知其不卽往復. 如是之際, 好風順便之挨過, 豈成說乎? 本道旣有萬兩貿送之穀, 則舡粟之穀與貿穀, 同時量宜舡運似好, 此意卽令廟堂, 問于完伯, 使之從便擧行後狀聞.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1월 7일(갑인)

▢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주(濟州)에 곡물(穀物)을 운송하라는 전교

○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탐라(耽羅)의 풍세(風勢)가 이때가 들어가기에 가장 좋고, 동지가 지나면 반대로 바람이 불어서 나오고 들어가는 것 모두가 어렵다고 한다. 지난번에 관문(關文)을 보낸 뒤로 아직까지 장계가 올라오지 않았으니, 즉시 가고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때에 좋은 바람의 순하고 편리함을 시간을 끌면서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 어찌 말이나 되겠는가? 본도(本道)에 이미 10,000냥으로 사서 보낼 곡물(穀物)이 있으니, 배로 실어나를 곡물과 곡물을 사들이는 일을 동시에 잘 헤아려 배로 실어 운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뜻을 묘당으로 하여금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물어 편한 대로 거행한 후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곡물, 운송, 전라감사.

❖ 乾隆 六十年 乙卯 十一月 十五日 壬戌

○ 吏曹參議宋煥箕疏曰, 伏以臣猥陳至懇冀蒙新命收還之恩, 及奉批旨, 乃有斯速上來之諭, 臣之隘蹙惶恧, 倍劇於前, 益不知措躬之所也. 至於雪恥酬文正之敎, 以臣之迷闇鈍滯, 其何以仰揣聖意之攸存乎, 臣自承此敎, 歷屢日反覆思惟, 轉益惝怳驚惑, 莫省其所以, 而亦不識其何以仰復也, 第竊惟念殿下, 旣有此敎於賤臣, 則在賤臣義分, 何敢以聖意之不能仰揣, 遂止於怵畏泯默而已乎.

嗚呼, 已未之事, 尙何言哉, 逆豎得罪, 而陰謀益急, 必欲屠戮一邊士流, 先除國家羽翼, 投書上變, 先後迭發, 此皆凶從之所爲, 而其魁則許積是也, 是以積之伊時筵奏, 究厥語意, 尤極凶慘, 臣之先祖臣赤族之禍, 迫在呼吸而幸賴我肅宗大王如日中天, 遂令魑魅, 莫能遁情, 不然則國之爲國未可知, 而臣之家, 滅已久矣, 臣每想是年四月間事, 未嘗不髮豎骨顫, 恨無以洩此憤於百歲之後. 噫嘻, 痛矣. 積雖臣家之讎, 而卽宗國之賊也, 爲臣祖之後孫者, 固有未洩之憤. 論臣祖之當日, 則初無可雪之恥, 而今玆聖敎, 乃在於近日處分後, 此臣所以莫可仰揣於聖意者也. 噫, 草萊賤蹤, 本不以官職自居, 則惟彼憑藉體府, 募入勇士, 假權逆子, 締結近宗之種種情節, 臣雖知之已詳, 聞之已熟, 皆有可考據, 而亦何敢妄有論列, 如在朝諸臣之爲也? 第以大臣疏批, 旣有所諭, 今於賤臣, 又有此敎, 有若臣祖, 眞有恥於當年, 而始獲雪於今日, 顧安有積之復官, 而臣祖雪恥之理哉? 臣於縷縷聖批之下, 不能卽地仰揣者, 固極惶悚, 而身親見與有幸之敎, 亦將仰對以何辭乎? 竊附無隱之義, 略陳驚惑之忱, 而猥瀆宸嚴, 罪戾益重, 秖伏俟譴而已, 若臣所叨之職, 不啻若狙猿之冠冕, 鼫鼠之羈帶, 而不可久辱於樵牧之社者也, 已於前疏, 瀝盡肝血. 伏乞聖明, 曲垂鑑諒, 亟賜鐫改, 仍治臣僭妄之罪, 不勝幸甚.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前批中雪恥酬先正云云, 觀於明聖志光聖德之句語, 意謂爾以爾家之人, 必不言而喩矣, 今爾疏辭之曰, 以莫省所以者, 無或前批之未暢歟? 往昔己未之事, 尙何言哉? 筵請告廟頒敎, 至引濟州吉云節之例, 從又撰進敎文, 而反諉張三之操刃, 李二之償命者, 其人何人, 則如故相之異趣, 設或未及立異, 豈比於右所謂其人之同室操戈乎? 況故相之死在於己巳十年前, 且況最後收議, 雖似依違, 自來庇護, 昭載國乘者乎? 予於先正, 曠想多端, 獨於己未之恥, 未遑一言之槪及. 幸因故相復官事, 始獲提道於今日, 使後生少年, 益知顚末. 復故相卽斥其人, 斥其人卽念先正, 予之謂雪恥酬先正云者, 不亦宜乎, 大抵百年而公議大定, 故相雪其冤, 而先正尤有辭. 使其人愧赧, 惶汗浹背於九地, 眞所謂異條而同貫, 大公而至正也. 見今政月在卽, 爾須卽起幡然. 仍傳曰, 此批答, 下諭道伯傳之.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1월 15일(임술)

▢ 허적(許積)의 복관(復官)과 관련한 이조참의 송환기(宋煥箕)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답에 1679년(숙종 5) 허적 등이 연석(筵席)에서 제주(濟州) 길운절(吉云節)의 사례를 인용한 것을 언급함

○ 이조참의 송환기(宋煥箕)[111]가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이 외람되이 새로운 명을 도로 거두어 주는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고 아뢰었는데, 비지(批旨)를 받들어 보니 속히 올라오라는 유지(諭旨)가 있었습니다. 신이 위축되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전에 비해 갑절이나 되니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치욕을 씻어주어 문정(文正)[112]에게 보답하라는 하교에 이르러서는 신의 어리석은 우둔함으로 그 어찌 성상의 뜻이 간직한 바를 헤아리겠습니까? 신이 이 하교를 받든 후로 여러 날을 보내면서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더더욱 어찌할 바를 몰라 놀랍고 의아스러워 그 까닭을 살필 수 없고 또한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전하가 이미 천신에게 이러한 하교가 있었으니 천신의 의분(義分)에 있어 어찌 감히 성상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침묵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 기미년의 일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113] 역수(逆豎)가 죄를 얻게 되자 더욱 급하게 음모를 진행시켜 기필코 한 쪽의 사류(士流)를 도륙(屠戮)하고자 하였는데, 먼저 국가의 우익(羽翼)을 제거할 목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대로 투서(投書)하여 상변(上變)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흉악한 무리들이 저지른 행동인데 그 괴수는 허적(許積)[114]이었습니다. 때문에 허적이 그 당시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은 그 어의(語義)를 궁구(窮究)하면 더욱 흉측하고 참혹합니다. 신의 선조 신(臣)의 멸족지화가 경각지간(頃刻之間)에 있었는데, 다행히 숙종대왕의 한낮의 해와 같은 은덕으로 마침내 도깨비로 하여금 참된 실정을 숨길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라가 나라답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신의 집안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신은 매번 그 해의 4월 사이의 일을 생각하면, 일찍이 머리털이 서고 몹시 분하여 뼈가 떨리지 않은 적이 없으니, 백년이 지난

111) 송환기(1728~1807): 본관 은진(恩津). 자 자동(子東). 호 심재(心齋)·성담(性潭). 시호 문경(文敬). 사헌부지평, 사헌부장령, 군자감정 역임. 저서 《성담집》.

112) 문정(文正): 송시열(1607~1689). 송시열의 시호가 문정이고, 송환기는 송시열의 5대손임.

113) 이하는 《정조실록》 정조 19년 11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114) 허적(1610~1680): 본관 양천(陽川), 자 여차(汝車), 호 묵재(默齋)·휴옹(休翁). 1637년(인조 15)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지금까지도 이 분함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허적은 비록 신의 집안의 원수이면서 곧 종국(宗國)의 적입니다. 신의 선조의 후손이 된 자로서 진실로 아직 씻어내지 못한 분함이 있지만, 신의 선조가 당시에 행한 일을 논하자면 애초에 씻어야 할 수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성교(聖敎)는 곧 근래 처분한 후에 있었으니, 이는 신이 성상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아, 초래(草萊)의 천한 신분은 본래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몸이었으니, 저이가 체부(體府)[115]를 빙자하여 용사(勇士)를 모집해 들이고 역적의 자식에게 권세를 빌려주어 가까운 종친들과 결탁케 한 정상에 대해서는 신이 비록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도 귀에 따갑게 들어서 모두에 대해 증거를 댈 수 있지만, 또한 어찌 감히 망령되게 논열(論列)하기를 조정에 있는 신하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대신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이미 유시(諭示)한 바가 있고, 지금 천신에게 또 이러한 하교가 있으니, 마치 신의 선조가 참으로 그 당시에 부끄러워할 점이 있었고 비로소 오늘에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게 된 듯합니다. 돌아보건대, 어찌 허적을 복관(復官)하면서 신의 조상의 부끄러움이 씻어지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신은 누누이 내린 성상의 비답에 대해 즉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지극히 황송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직접 보게 되었다.'고 한 것과 '다행하게 되었다.'고 한 하교에 대해서는 장차 무슨 말로 답해야 하겠습니까? 삼가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의리에 따라 놀랍고 당혹스러운 마음을 대략 진술하여 외람되이 숭엄하신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렸으니, 죄가 더욱 무거워 삼가 견책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신과 같은 자가 직임을 맡고 있는 것은 원숭이에게 관(冠)을 씌우고, 날다람쥐에게 고삐를 매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어서 초목지사(樵牧之社)에 대해 오래도록 욕되게 할 수 없음을 이미 전에 올린 상소에서 진심을 피력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은 굽어살피어 속히 개차(改差)하고 이어 신의 망령된 죄를 다스리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전에 내린 비답 가운데 '부끄러움을 씻어주어 선정(先正)에게 보답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지(聖志)를 밝히는 것이 성덕(聖德)을 빛내는 일이다.'라고 한 구절을 살펴본다면, 그대가 그대 집안의 사람이 된 입장에서 필시 말하지 않아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대가 상소를 올려 사직하면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니, 혹 전에 내린 비답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는가? 지나간 기미년의 일에 대해서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

115) 체부(體府): 체찰부(體察府)의 준말로, 체찰사(體察使)가 군무(軍務)를 보던 곳을 말함.

가? 그러나 연석에서 종묘에 고한 뒤 교서를 반포하라고 청하면서 심지어는 제주(濟州)의 길운절(吉云節)[116]의 사례를 인용하기까지 하였는가 하면 또 교서의 글을 작성해 올리면서 거꾸로 '장가(張哥) 성을 가진 세 사람이 칼을 들었는데 이가(李哥) 성을 가진 두 사람이 목숨을 내놓았다.'는 말을 번거롭게 하였으니,[117]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가령 취향이 다른 고상(故相. 許積)이 설혹 다른 의견을 미처 제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위에서 말한 바 그런 사람이 같은 방에서 함께 창을 쥐었던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고상이 죽은 것은 기사년의 일이 있기 10년 전의 일이고, 또 최후에 의논을 드린 것이 비록 주저한 것 같은 인상이 들지는 몰라도 스스로 와서 옹호했던 사실이 국승(國乘)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가 선정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해 왔지만 유독 기미년에 부끄러움을 당한 일에 대해서만은 한 번도 언급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가 다행히 고상을 복관시키는 일로 인해 오늘 처음 말함으로써 후생(後生)의 연소배들로 하여금 더욱 전말(顚末)을 알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고상을 복관시킨 것은 위에서 말한 그런 사람을 배척한 것이요 그런 사람을 배척한 것은 바로 선정을 생각해 준 것이니, 내가 선정의 수치를 씻어주었다고 말한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아니한가? 대저 1백 년 만에 공의(公議)가 크게 정해진 결과 고상의 원통함이 씻겨지고 선정도 더욱 할 말이 있게 되면서 위에서 말한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못이겨 지하에서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었으니, 이는 그야말로 가닥은 달라도 함께 꿰어진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대공지정(大公至正)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지금 정사(政事)를 시행할 달이 눈앞에 닥쳐왔으니, 그대는 모쪼록 즉시 일어나 마음을 돌리고 올라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비답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전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송환기, 상소, 길운절, 허적.

116) 길운절(?~1601): 본관 선산(善山). 정여립(鄭汝立)의 모반군에 모사로 참여한 주모자.
117) 연석(筵席)에서 …… 번거롭게 하였으니: 《승정원일기》 숙종 5년 5월 6일자 기사 참조.

❖ 乾隆 六十年 乙卯 十一月 十六日 癸巳[癸亥]

○ 以全羅監司徐鼎修狀啓, 濟州船運穀五千石今方申飭裝發, 一萬兩貿穀, 待其年貿, 隨運隨報計料事. 傳于申耆曰, 今番則異於昨年, 領運入送, 祭海一款, 不必自京下送, 香祝領運差使員, 只留內島監發, 自該道以此差員, 定爲獻官, 精備祭物, 處誠行事之意分付, 萬兩貿穀外, 又以五千石, 不待該牧狀請, 欲爲先運云, 甚可幸也, 當初以萬包措備之命, 不過遙度之假令, 所除五千石, 則更待該牧狀本及探來事情, 以爲去就之地事, 亦爲分付.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1월 16일(계사[계해])

▢ 제주목(濟州牧)의 장계(狀啓)와 일의 사정을 탐문해 오는 것을 기다려 곡물(穀物)의 운송 거취를 결정하도록 분부하라는 등의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장계(狀啓)에, 제주(濟州)에 배로 운송할 곡물(穀物) 5,000섬을 지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실어 보냈고, 10,000냥으로 사들일 곡물은 그해 사들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운송하는 대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신기(申耆)에게 전교하기를, "금번은 작년과 달리 영운(領運)을 들여보내어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서울에서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 향축 영운차사원(香祝領運差使員)은 단지 내도(內島)에 머물면서 출발을 감독하고, 해당 도(道)에서 이 차사원으로 헌관을 정하여 제물을 정밀하게 갖추어 정성스럽게 일을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10,000냥으로 사들이는 곡물 외에 또 5,000섬을 해당 목사가 장계로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운송하고자 한다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당초 10,000포(包)를 조처하여 준비하라는 명은 멀리서 헤아려 가정하여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니, 다시 해당 목(牧)의 장계와 일의 사정을 탐문해 오는 것을 기다려 거취(去就)를 결정하도록 또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장계, 운송, 곡물.

❖ 乾隆 六十年 乙卯 十一月 二十三日 庚午

○ 金啓洛,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徐鼎修報本司辭緣, 則以爲, 本營親裨濟州裨校等所告內, 租九十一石, 今月初八日, 自寶城裝發, 米三百七十五石七斗, 租三百七石, 今月十三日, 自康津裝發, 米一百四十九石六斗, 同日自靈巖裝發, 皮牟一百九十二石, 租六十六石十一斗, 同日自羅州裝發, 皮牟一百三十四石十斗, 租一百六十七石七斗八升, 今月十五日, 自羅州裝發, 租七百五十石, 同日自同州裝發, 而竝以濟州將校領騎, 次第發送, 一萬兩錢, 今已畢貿, 而米爲一千二百八十四石八斗四升, 租爲二千八百八十一石十四斗, 皮牟爲三百五十九石五斗, 合各穀四千五百二十五石十二斗四升內, 米竝船價一千二百八十四石八斗四升, 租竝船價一千五百十九石十四斗, 皮牟竝船價三百五十九石五斗, 合各穀三千一百六十三石十二斗四升, 已爲裝發, 而租一千三百六十二石, 未及裝發, 故未裝穀物, 罔夜裝載, 陸續入送之意, 連加嚴飭云矣. 裝發數爻洽爲五千餘石本州民事, 誠爲多幸未裝發者各別嚴飭, 鱗次裝載入送, 隨卽報來事, 更爲申飭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1월 23일(경오)

▢ 제주(濟州)에 아직 들여 보내지 않은 곡물(穀物)에 대해 차례대로 실어 들여보내는 대로 즉시 보고하도록 전라감사(全羅監司)에게 다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겠다는 비변사의 계

○ 김계락(金啓洛)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가 본사(本司)에 보고한 사연(辭緣)을 보니, ‘본영의 가까운 비장(裨將)과 제주(濟州)의 비장들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 벼[租] 91섬을 이번 달 8일에 보성(寶城)에서 실어 보냈습니다. 쌀[米] 375섬 7말과 벼 307섬을 이번 달 13일에 강진(康津)에서 실어 보냈고, 쌀 149섬 6말을 같은 날 영암(靈巖)에서 실어 보냈으며, 겉보리 192섬, 벼 66섬 11말을 같은 날 나주(羅州)에서 실어 보냈습니다. 겉보리 134섬 10말, 벼 167섬 7말 8되를 이번 달 15일 나주에서 실어 보냈고, 벼 750섬을 같은 날 나주에서 실어 보냈습니다. 아울러 제주의 장교가 영기(領騎)하여 연이어 보낸 10,000냥으로 이미 곡물(穀物)을 다 사들여 쌀은 1,284섬 8말 4되가 되고, 벼는 2,881섬 14말이 되며, 겉보리는 359섬 5말이 되어 각 곡물의 합 4,525섬 12말 4되 안에 쌀과 선가(船價)는 1,284섬 8말 4

되, 벼와 선가는 1,519섬 14말, 겉보리와 선가는 359섬 5말로 각 곡물을 합한 3,163섬 12말 4되를 이미 실어 보냈고, 벼 1,362섬은 아직 실어 보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직 실어 보내지 못한 곡물은 밤을 새워 짐을 꾸려 실어 육지에서 계속해서 들여보낼 뜻을 지속해서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어 보낸 수효가 넉넉히 5,000여 섬이 되니, 본주(本州) 백성의 일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직 꾸려 보내지 않은 것은 각별히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차례대로 실어 들여보내는 대로 즉시 보고하도록 다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곡물.

❖ 乾隆 六十年 乙卯 十一月 二十八日 乙未[乙亥]

○ 乙卯十一月二十八日辰時, 上御熙政堂. 都承旨·左承旨·右承旨·輪對官同爲入侍時, 行都承旨趙尙鎭, 行左承旨洪義榮, 行右承旨林濟遠, 記事官趙台榮, 記注官馬思人, 記注官金良偶, …… 以次進伏訖. …… 在益曰, 祭享所用黑牛, 例自濟州牧巨濟府, 上送湖西各邑, 使之分養封進, 而該牧上送之時, 或有稚小之欠, 各邑分養之際, 間致瘦瘠之弊, 此後則嚴飭該牧各邑, 另加擇上, 着意喂養, 俾無如前不勤之患似好, 故敢此, 仰達矣. 上曰, 出言于爾之堂上, 嚴飭, 俾有實效, 可也. 【出擧條】 …….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1월 28일(을미[을해])

▢ 제주목(濟州牧)에서 올려 보내는 제향용 흑우(黑牛)에 대해 더더욱 가려서 올려 보내게 할 것을 청하는 윤재익(尹在益)의 계

○ 을묘년 11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도승지·좌승지·우승지·윤대관이 함께 입시할 때, 행도승지 조상진(趙尙鎭), 행좌승지 홍의영(洪義榮), 행우승지 임제원(林濟遠), 기사관 조태영(趙台榮), 기주관 마사인(馬思人), 기주관 김양척(金良偶)이 〈중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재익(尹在益)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쓰이는 흑우(黑牛)는 으레 제주목(濟州牧)과 거제부(巨濟府)에서 호서(湖西)의 각 읍으로 올려 보내어 나누어 기르다가 봉진(封進)하게 합니다. 그런데 해당 목에서 올려 보낼 때 혹 어리고 작은 흠이 있어 각 읍에서 나누어 기를 때 간간이 몹시 야위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해당 목과 각 읍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더더욱 가려서 올려 보내고 먹여 기르는 것에 마음을 써서 전처럼 부지런하지 아니하는 근심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당상에게 말을 하여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실효가 있도록 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향, 제주목, 흑우.

❖ 乾隆 六十年 乙卯 十二月 二日 己卯

○ 林濟遠, 以漢城府言啓曰, 今乙卯年獻民數時, 京中八道戶口摠數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19년(1795) 을묘년 12월 2일(기묘)

▢ 을묘년 경중(京中) 및 8도의 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면서 제주(濟州) 3읍은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임제원(林濟遠)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을묘년 백성의 숫자를 바칠 때 경중(京中) 및 8도의 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濟州) 3읍 백성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섬에서 언제 올라올지 헤아릴 수 없어 한꺼번에 마감할 수 없습니다. 제주 3읍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호구총수, 제주.

1796年

(정조 20)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三日 庚戌

○ 申耆,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徐鼎修狀啓, 則枚擧濟州牧使李禹鉉牒辭, 島中分賑形止及穀物數爻, 磨鍊以報矣. 歲前自備賑救四千口之外, 自正月初巡, 至四月終巡, 十二巡, 壯弱四萬七百三十五口, 容入折米爲一萬四千石零, 而道臣之因朝令先已入送者, 各穀爲一萬一千一百十四石, 已措備未入送者, 爲五千石, 則又有折米七千二百六十餘石加劃, 然後可以準該牧所請, 而見今湖南沿海, 纔經大賑, 昨年雖稍登, 而民力則積困無餘地矣. 已入送穀物, 大爲貽弊, 今又以近萬包折米加之, 則劃出之邑, 運輸之役, 將致官民俱困, 念其事勢, 道臣罔措之言, 誠爲實際, 而所陳未入送五千石, 雖入於該牧穀物摠計之中, 而三邑守令自備, 假令五百餘石, 及歲前私貿遷數千石, 似在摠計之外. 且春開水暖, 結涼採藿, 商舶輻湊, 則歲前數千石私貿者, 歲後則當有加而無減, 島民中貧不農作乞丐資生之類, 勿爲懸保, 許其出送, 以爲從便就食, 待年豐還入之意, 前已行會, 依此擧行, 則減得還賑之口, 亦必不少, 私蓄牝馬, 若許斥賣出陸, 則亦可爲生穀之大助, 以此以彼, 該牧所請中七千二百石之不足, 自當有幾千石之減數, 分付道臣, 以此事宜, 往復該島, 更爲酌量消詳. 定執實數狀聞後稟處, 而大抵假令商量, 則數三千折米, 恐不可不加數備貯, 亦令道臣, 知悉擧行, 以待島中往復, 劃卽措處, 以塞島民待哺之望, 以宣朝家若恫之恩, 牝馬許出之請, 法禁雖嚴, 如此之歲, 宜有闊狹. 且與其盡歸屠宰, 無寧獲善價活窮命, 此則依道臣狀辭, 限麥秋許施, 乞丐許出事, 係是移民拯濟, 大關利害者, 而本牧牒辭, 闕而不爲擧論, 事甚疎忽, 該牧使李禹鉉, 推考, 何如? 傳曰, 允. 若使一民塡壑, 限一年省却一日一時之膳, 旣設言, 言不可不信, 寧忍欺耽羅之民乎? 卿等, 觀於別諭該牧者, 可以知矣. 然特下三萬五千兩, 設或貿牟租萬包, 亦不忍重煩沿海民力, 此所以別下剩縮條, 以示爲民父母十指皆愛之意者, 須悉此意, 消詳枚擧, 行會於道臣及該牧使處, 而今更往復停當, 緩不及期, 豈不切悶乎? 未運五千石, 及今下萬石, 先爲入送, 其外若有不足, 許令牧使, 更爲狀聞, 通商行賈, 固是急務, 而島中民力已竭, 此亦難於勒令爲之, 大抵海利, 異於涼臺, 春和後鰒藿之屬, 安知不多採? 嚴飭道臣及沿邑守令, 看作己事, 着意勸之, 仍令耽牧, 曉諭民間, 優直貿遷, 則聞風而集, 必有其效, 牝馬出送, 前亦行之, 而牛馬殆盡於昨春, 則任他無節, 殊非來頭孳養之道, 亦爲嚴飭牧使, 各別躬檢, 俾有竝行不悖之益, 兩年歉荒, 田野之不闢可知, 三邑守宰, 巡行勸課, 比前百倍用功, 然後今秋可期大有, 此一款, 另加嚴飭, 內下錢物之運, 致沿邑貽弊, 亦不可不念, 就今年當納常賦應貢中, 從便除留, 貿送穀物事, 分付道臣,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3일(경술)

▢ 제주(濟州) 분진(分賑)의 전말과 곡물(穀物)의 수효를 아뢰는 비변사의 계

○ 신기(申耆)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장계를 보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첩보의 내용을 낱낱이 들면서 섬 중의 분진(分賑)의 전말과 곡물(穀物)의 수효를 마련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세전(歲前)에 스스로 준비한 곡물로 4,000구(口)를 구제한 것 외에 1월 초순(初巡)부터 4월 종순(終巡)에 이르기까지 12순(巡)에 걸쳐 장약(壯弱) 40,735구에 들어간 절미(折米)는 14,000섬 남짓입니다. 그런데 관찰사가 조정의 영으로 인하여 먼저 들여보낸 각 곡물이 11,114섬이고, 이미 조처하여 준비한 것으로 미처 들여 보내지 못한 것이 5,000섬인즉, 또 절미 7,260여 섬을 더 획급(劃給)한 연후에야 해당 목(牧)이 요청한 것에 준(準)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연해(沿海)는 막 큰 진휼을 겪었고, 작년에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지만 민력(民力)은 곤궁함이 쌓여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들여 보낸 곡물이 크게 폐단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또 근 10,000포(包)의 절미를 더한다면 획출(劃出)하는 읍에서 운송하는 역(役)으로 장차 관민이 모두 곤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의 형세를 생각해 보면 관찰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은 참으로 실제(實際)입니다. 그런데 진술한 바 아직 들여 보내지 않은 5,000섬을 비록 해당 목의 곡물의 총계에 들였지만 3읍 수령이 스스로 준비한 것이고, 가령 500여 섬과 세전에 사적으로 무역해서 옮긴 수천 섬은 총계 밖에 있을 듯합니다. 또한 봄이 되고 물이 따뜻해져서 양태[涼臺]를 만들고 미역을 채취하면 상선들이 몰려들게 되니, 세전에 수천 섬을 사적으로 무역한 것이 세후(歲後)에는 더해져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섬 백성 중에 가난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여 구걸하여 생을 의지하는 부류에 대해 보증인을 세우지 말고 육지로 내보내어 편리한 대로 취식(就食)하다가 풍년을 기다려 환입(還入)하는 뜻으로 전에 이미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면 환곡(還穀)과 진곡(賑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또한 필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기른 암말을 만약 육지로 척매(斥賣)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또한 곡물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해당 목에서 요청한 것 가운데 7,200섬의 부족분에서 절로 몇 천 섬의 감수(減數)가 있을 것이니,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이 사의(事宜)로써 해당 섬과 소통하여 다시 자세히 헤아려 실수(實數)를 정하여 장계로 보고한 후 품처(稟處)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가령 잘 생각해 보면, 수삼천의 절미는 숫자를 더해서 비축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또한 관찰사로 하여금 잘 알아서

거행하게 하여 섬에 왕복하는 것을 기다려 즉시 조처하여 섬 백성들이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소망을 만족시켜 조정이 슬퍼하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암말을 육지로 판매하는 허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금지가 비록 엄하지만, 이와 같은 해에는 마땅히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두다 도살되는 것에 돌아가기보다 차라리 좋은 값을 받아서 곤궁한 목숨을 살려야 하는데, 이는 관찰사의 장계의 내용대로 맥추(麥秋)를 한정으로 시행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구걸하여 생을 의지하는 부류에 대해 출륙을 허락하는 일은 백성을 옮겨서 구활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해(利害)에 관계되는 것인데 본목(本牧)이 첩보한 내용에 빠져서 거론하지 않았으니, 일이 매우 소홀합니다. 해당 목사 이우현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만약에 백성 하나라도 굶어 죽는다면 1년을 한정으로 하루 한 때의 식사를 생략하여 물리치겠다고 이미 말을 했다. 말은 미덥지 않아서는 안된다. 어찌 차마 탐라(耽羅)의 백성을 속이겠는가? 경들이 해당 목에 특별히 유시한 것을 보았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히 내린 35,000냥으로 가령 보리와 벼 10,000포를 사더라도 또한 연해 민력을 거듭 번거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잉축조(剩縮條)를 내려 백성의 부모로서 열 손가락을 모두 아낀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알아서 소상하게 낱낱이 들어 관찰사와 해당 목사에게 행회하라. 지금 다시 왕복하여 처리하면 늦춰져 기일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어찌 간절하고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직 운송하지 못한 5,000섬과 지금 내린 10,000섬을 먼저 들여보내라. 그밖에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목사로 하여금 다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통상(通商)하여 물건을 파는 것은 실로 급선무이다. 하지만 섬 안에 민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이 또한 강제로 하는 것은 어렵다. 대저 바다에서 나는 이익은 양태와 다르다. 봄에 따뜻해진 후 전복과 미역같은 것이 많이 채집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관찰사와 연읍(沿邑)의 수령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자기의 일처럼 여기고 마음을 써서 권면하게 하라. 이어서 제주목사로 하여금 민간에 효유(曉諭)하여 값을 넉넉히 주고 무역하게 한다면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 반드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암말을 내보내는 일은 전에도 또한 시행했었다. 하지만 소와 말이 작년 봄에 거의 다하였으니, 절제없이 그대로 맡겨두는 것은 또한 자못 앞으로 번식시켜 기르는 방도가 아니다. 또한 목사를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각별히 몸소 검칙해서 모든 시행이 어그러지지 않는 이익이 있게 하라. 두 해에 걸쳐 흉년이 들어 전야(田野)가 개척되지 않음을 알겠다. 3읍 수령은 순행하며 농사를 권장하는 일을 전에 비해 백배 공을 들이도록 하라. 그런 연후에야 금년 가을에 풍년이 들 것을 기

약할 수 있으니, 이 한 조목을 별도로 엄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 내려준 돈과 물건의 운송으로 연읍에 끼치는 폐단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에 마땅히 바쳐야 할 상부(常賦)와 응공(應貢) 중에 편리에 따라 제하여 남겨두고, 곡물을 사서 들여보내는 일은 관찰사에게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118]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전라감사, 서정수, 분진, 곡물.

118)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1월 3일자 기사와《정조실록》정조 20년 1월 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三日 庚戌

○ 丙辰正月初三日辰時, 上詣社稷. 擧動入侍時, 行都承旨趙鎭寬, 行左承旨林濟遠, 行右承旨李益運, 左副承旨申耆, 右副承旨李勉兢, 同副承旨李晉秀, 記事官趙台榮, 假注書金履永,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一提學沈煥之, 二直提學李晩秀, 檢校直閣金祖淳, 直閣李始源, 檢校待敎徐有榘, 以次隨駕. …… 上詣社稷大門外, 降輦乘輿, 入大門詣壇門外, 降輿詣壇內奉審訖. 詣省牲省器所, 省牲省器訖. 命典牲提調入侍, 典牲提調李得臣, 進前. 上曰, 犧牲所供, 一歲幾何? 得臣曰, 牛則濟州三十五首, 巨濟五首, 合四十首, 而一年祭享, 優爲進排, 而羊則只用唐羊而不用鄕羊, 故每患艱貴矣. …… 上曰, 戶曹判書入侍. 賤臣承命出, 與戶曹判書李時秀, 偕入進伏. 命書傳敎曰, 惟予一念民天, 憧憧於寤寐夙宵, 躬詣方社, 曉將祈年, 際接湖南伯枚擧耽羅牧守報牒而登聞者, 卽穀物加劃之請也. 船粟之役, 水夫荐苦, 補縮之費, 陸民俱病, 而亦豈忍恝然於島中生靈望哺之想乎? 今若坐待廟堂之往復, 則西江之決, 不足以救涸轍, 況於昨冬, 以一夫塡壑, 當停一日之饍, 飭諭道伯, 伊後自掌饍尙衣之需, 至于日供常度, 各加撙節, 別貯一庫, 正欲示信於民, 而兼爲今日之用, 特下萬文錢, 剩補縮條, 不在此中, 令道伯, 稱數貿粟, 陸續裝發, 以爲幾萬黔黎喁喁之情, 如是而又有不贍於還賑之資, 令該牧, 劃卽馳啓, 齋宵翦燭, 呼寫十行, 一則爲島民也, 一則爲沿民也. 淮南之占, 南至至元朝爲五十日, 則禾熟民食足, 今年元朝, 計南至洽爲五十日, 日至四而又得辛, 千箱萬庾, 降康其徵, 予以是爲八方祝, 倍爲島民喜也. 仍命書傳敎曰, 此傳敎, 令廟堂行會於全羅監司, 濟州牧使. 仍命權退, 諸臣以次權退.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3일(경술)

▢ 특별히 하사한 10,000냥으로 곡물(穀物)을 사서 제주(濟州)의 진자(賑資)로 삼게 하라는 전교

○ 병진년 1월 3일 진시에 임금이 사직(社稷)에 나아갔다. 거둥에 입시하였을 때,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행좌승지 임제원(林濟遠),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좌부승지 신기(申耆), 우부승지 이면긍(李勉兢), 동부승지 이진수(李晉秀), 기사관 조태영(趙台榮), 가주서 김이영(金履永),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일제학 심환지(沈煥之), 이직제학 이만수(李晩秀), 검교직각 김조순(金祖淳), 직각 이시원(李始源),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가 차례로 거가(車駕)를 따랐

다. 〈중략〉 임금이 사직 대문 밖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대문으로 들어가 단문(壇門) 밖에 이르렀다. 여에서 내려 단 안에 이르러 봉심(奉審)하기를 마쳤다. 희생을 점검하고 제기를 점검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희생을 점검하고 제기를 점검하기를 마쳤다. 전생제조(典牲提調)를 입시하도록 명했다. 전생제조 이득신(李得臣)이 앞으로 나왔다. 임금이 말하기를,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 1년에 얼마가 되는가?"라고 하였다. 이득신[119]이 아뢰기를, "소는 제주(濟州) 35수, 거제 5수로 합 40수이고, 1년 제향에 넉넉히 진배(進排)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 경우는 단지 당양(唐羊)만 쓰고 향양(鄕羊)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매번 어렵고 귀한 것을 걱정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판서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와 함께 들어와 엎드렸다.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120] "나는 오직 한결같이 백성들의 식량을 생각하여 자나깨나 걱정이 되어 몸소 방사(方社)에 가서 새벽에 풍년을 빌고자 한다. 마침 호남의 관찰사가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보고한 것을 낱낱이 들어 등문(登聞)한 것을 보니 바로 곡물(穀物)을 더 획급(劃給)해 달라는 청이었다. 배로 곡물을 운송하는 역(役)은 수부(水夫)들이 거듭 고통을 받고, 축난 곡식을 보충하는 데는 육지 백성들이 다 폐해를 받는다. 그러나 먹여주기를 바라는 섬 백성들을 어찌 차마 모른 체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만약 묘당의 왕복을 앉아서 기다린다면 서강(西江)의 물을 흐르게 하더라도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서 헐떡이는 붕어를 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121] 더구나 지난 겨울에는 지아비 하나라도 굶어 죽을 경우에는 하룻동안 밥을 먹지 않겠다는 뜻으로 관찰사에게 칙유(飭諭)하고, 그 후부터는 장선(掌膳)·상의(尙衣)의 물품에서부터 일상 쓰는 경비에 이르기까지 각별히 절약하여 별도로 한 창고에 저축하였으니, 바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이고 겸하여 오늘날의 용도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특별히 내리는 10,000냥에는 잉여로서 축난 것을 보충하는 조(條)가 이 가운데 있지는 않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119) 이득신(1742~1802): 본관 전주(全州). 자 성량(聖良). 시호 효헌(孝憲).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대사헌, 병조판서, 한성부판윤 역임.

120) 이하는 《정조실록》 정조 20년 1월 3일자 기사와 《비변사등록》 정조 20년 1월 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121) 서강(西江)의 물을 …… 이르게 될 것이다: 붕어 한 마리가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서 헐떡이면서 장주(莊周)에게 살려 달라고 하자, 장주가 오월(吳越) 지방으로 가서 서강의 물을 끌어다 대 주겠다고 하니, 그 붕어가 "나는 지금 당장 한 말이나 한 되쯤의 물만 얻으면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니 나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였음. 《莊子 外物》.

숫자에 맞추어 곡물을 사서 육지에서 계속해서 짐을 꾸려 날라서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몇 만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도 환곡(還穀)과 진곡(賑穀)이 넉넉하지 않으면 해당 목사로 하여금 즉시 장계로 보고하라. 재계하는 밤에 촛불을 밝히고 십행(十行)의 교서를 불러 쓰게 하니, 하나는 섬 백성들을 위해서이고, 하나는 연읍의 백성들을 위해서이다. 회남(淮南)의 점(占)에 의하면 동지(冬至)에서 원조(元朝)까지가 50일이 될 경우 곡식이 잘 되어 백성들의 식량이 족하다고 하였는데, 금년의 원조는 동지로부터 계산하면 50일이 꼭 되고 초4일에 또 신일(辛日)을 만났으니, 풍년을 얻을 징조이다. 내가 이로써 팔방(八方)에 빌어 섬 백성들의 기쁨을 배로 늘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이 전교를 묘당으로 하여금 전라감사와 제주목사에게 행회(行會)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잠시 물러나게 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잠시 물러났다.

△ 주제어: 하사, 곡물, 환곡, 진곡.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四日 辛亥

○ 傳于李晉秀曰, 雖有政命, 今將夜深, 明値齋日, 再明日待開門牌招, 開政下批. 注書望筒事, 昨亦有嚴飭, 而遠人收用, 飭敎, 何如乎? 至於濟州, 豈比於尋常? 遠道則在京旅宦之人, 幷與注書假官而不爲擬望, 實注書所爲, 萬萬無據, 從當嚴處, 而雖以銓曹言之, 如齋郎郵官等職, 隨窠檢擬, 則其爲慰悅, 倍勝於昨日一萬五千兩之下送該牧, 以此嚴飭銓曹, 再明日政, 別檢中, 聞有地處出六無難人, 改差, 其代濟州在京文臣, 先爲擬望. 且以兵曹言之, 今番許多豊窠, 所謂濟州人, 竝與圍繞之末副望, 而不得擧論, 此後待窠, 參上參下中, 隨卽調用事, 分付.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4일(신해)

▢ 정사(政事)에서 제주인(濟州人)의 의망(擬望)과 조용(調用)을 신칙(申飭)하는 전교

○ 이진수(李晉秀)에게 전교하기를, "비록 정사(政事)의 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밤이 깊어질 것이고, 내일은 재계하는 날이니, 모레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하비(下批)[122]할 것이다. 주서(注書)의 망통(望筒)[123]과 관련해서는 어제 또한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했는데, 먼 지방 사람을 수용하라는 칙교(飭敎)는 어찌 되었는가? 제주(濟州)의 경우 어찌 보통에 견줄 수 있는가? 원도(遠道)면 서울에서 벼슬을 구하는 사람은 모두 주서가관(注書假官)에 참여해야 하는데 의망(擬望)하지 않았으니, 실주서(實注書)의 소위(所爲)가 아주 근거가 없다. 응당 엄히 처분할 것이다. 비록 전조(銓曹)로써 말을 하자면, 재랑(齋郎)[124]과 우관(郵官)[125] 등과 같은 직(職)은 자리가 나는 대로 검토하여 의망하면 그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어제 15,000냥을 해당 목(牧)에 내려보낸 것보다 배가 나을 것이다. 이것으로 전조를 엄히 타일러 경계하라. 모레 정사에서 특별히 검토한 가운데 지처(地處)가 출륙(出六)[126]에 무난한 사람이 있다고 들으

---

122) 하비(下批): 임금이 임명을 결재함.

123) 망통(望筒): 어떤 직임에 합당한 자를 적은 문서로, 곧 후보 명단을 말함. 망단자(望單子), 망기(望記)라고도 함.

124) 재랑(齋郎): 묘(廟)·사(社)·전(殿)·궁(宮)·능(陵)의 참봉 혹은 제향(祭享) 때에 향로(香爐)를 받드는 일을 하던 제관(祭官)을 두루 일컫는 말임.

125) 우관(郵官): 찰방(察訪).

126) 출륙(出六): 정7품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에서 참상관(參上官)으로 오르는 것을 말함. 승륙(陞六)이라고도 함.

면 개차(改差)하고, 그 대신 제주인(濟州人)으로 서울에 있는 문신을 먼저 의망하라. 또한 병조로써 말을 하자면, 금번 허다한 많은 자리에서 이른바 제주인이 모두 위요(圍繞)의 말망(末望)과 부망(副望)에만 들었는데 거론하지 못하겠다. 이후로 자리가 나길 기다려 참상(參上)과 참하(參下) 중에 즉시 조용(調用)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사, 제주인, 의망, 재랑, 우관, 조용.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五日 壬子

○ 以濟州防禦使李禹鉉狀啓, 本州人物淪死事. 傳于李肇源曰. 雖曰私販, 人命之淪沒, 至於二十餘名之多, 不知去處, 亦至七十餘名云, 島中事節節憫惻. 淪沒人恤典, 依例擧行, 漂流蹤跡, 另加探訪, 狀聞事, 回諭. 前縣監南涑之無事還泊, 是則多幸, 另愼風勢出送, 期於利還事, 一體,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5일(임자)

▢ 익사한 본주인(本州人)에 대한 휼전(恤典)을 규례대로 거행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본주인(本州人)이 바다에 빠져죽은 일과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비록 사판(私販)이라 하더라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0여 명이나 되고 간 곳을 알지 못한 자도 7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섬 안의 일이 절절이 측은하다. 익사한 사람의 휼전(恤典)을 규례대로 거행하고, 표류(漂流)한 자취를 특별히 탐문하여 장계로 보고하라고 회유(回諭)하라. 전 현감 남속(南涑)이 무사히 돌아가 정박한 것은 다행이다. 별도로 풍세(風勢)를 신중히 하여 내보내어 이롭게 돌아오기를 기약하도록 일체 회유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본주인, 익사, 표류, 현감, 남속.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五日 壬子

○ 鄭尙愚,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李禹鉉, 災實分等狀啓, 則備陳島中歉荒之狀, 仍以爲本州二十二洞里, 大靜四洞里爲稍實, 本州四十九洞里, 大靜十八洞里爲之次, 本州七洞里, 旌義三十七洞里, 爲尤甚. 其中丐乞無依之類, 抄出以爲私賑救急, 而其餘尤甚以下, 則自正月初巡, 至麥登前十二巡, 應分之數, 從實磨鍊, 則米四千石, 太三千石, 牟一萬七千石, 準折米劃下, 蠲減停退等節, 當待回啓擧行, 而候風往來之際, 每致後時之患, 故不得不援例擧行, 後錄諸條, 竝請令廟堂, 稟旨分付矣. 其一, 昨秋停退還上折米一萬四百六十八石零, 移轉穀留作條折米二千七百二十四石, 當此荐歉, 新舊督納, 實是行不得之政, 昨秋停退還上, 限明秋仍爲停退, 移轉穀留作條, 尤甚四十四洞里, 限麥秋全數停退, 之次六十七洞里, 折半, 稍實二十六洞里, 三分一, 亦爲限麥秋停退, 而留作條中, 今秋實捧折米七百三十石零, 今方督捧, 以爲開春種子分給事也. 其一, 之次以下, 合五等壯二萬八千五百六十七口, 弱一萬六千一百六十八口內, 壯二千口弱二千口, 白給次假量計除, 則當爲還分者, 壯二萬六千五百六十七口, 弱一萬四千一百六十八口, 自正月初巡, 至四月終巡, 磨鍊則, 容入折米, 合爲一萬四千二十七石零事也. 其一, 平役軍官身役, 米折半停退, 奴婢身貢米, 男丁大同米, 折半蠲減事也. 其一, 寺奴婢推刷, 待明秋擧行事也. 其一, 軍兵操鍊, 姑爲停行,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也. 分等依狀請施行, 本島民事, 不待該牧陳聞, 朝家業已洞燭, 而今觀啓本辭意, 則目今民勢之萬萬切急, 益可推知. 然昨冬以後, 運入穀物, 該牧狀請之外, 萬包穀之措備入送者, 萬緡錢之作穀船運者, 皆在此狀啓已發之後, 而次第到泊, 不勞懸望, 濟近止之命, 副待哺之情者, 靡不用極, 私商官貿之種種入去者, 不在此中, 而伏況上辛日齋殿宣綸, 萬包穀換貿加劃之敎, 又纔已頒下矣. 喜出望外, 如從天降, 想像本牧官, 與民承聞之時, 其感泣頌祝, 倘復, 如何? 今以該牧所請, 得與朝家所區劃, 酌量其數, 則庶可塗抹分排, 不至有難繼之慮, 而牝馬之許賣, 私商之勸入, 乞丐願出者之各令求食, 又可以添取幾包之穀, 減得幾口之饑, 十二巡支繼之道, 似不患不足, 穀物則姑不必更爲區劃, 以待該牧擧實陳聞, 而仰體德意, 俯殫誠力, 大懲昨年後時多悔之事, 俾無一夫一婦頗頷塡連之患事, 另加嚴飭. 後錄諸條中, 昨冬停退還上, 限明秋仍爲停退事, 移轉穀留作條, 尤甚洞里, 限麥秋全數停退, 之次洞里, 折半, 稍實洞里, 三分一, 一體限麥秋停退事, 平役軍官身役米, 折半停退, 奴婢身貢米, 男丁大同米, 折半蠲減事, 寺奴婢推刷, 待明秋擧行事, 軍兵操鍊, 姑爲仍停, 推奴徵債, 限明秋防塞事, 狀啓封發之時, 該牧皆以按例擧行, 竝依狀請施行事, 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5일(임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재실분등(災實分等)에 관한 장계(狀啓)에 대해 환자(還上)를 정퇴(停退)해 주는 등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를 보니 섬 안 흉년의 실상을 갖추어 아뢰면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본주(本州) 22개 동리(洞里)와 대정(大靜) 4개 동리가 초실(稍實)이고, 본주 49개 동리와 대정 18개 동리가 지차(之次)이고, 본주 7개 동리와 정의(旌義) 37개 동리가 우심(尤甚)입니다. 그 가운데 빌어 먹으면서 의지할 곳이 없는 부류를 뽑아내어 사진(私賑)으로 급히 구휼하였고, 그 나머지 우심 이하는 1월 초순(初巡)부터 보리가 익기 전 12순까지 나누어 줄 숫자를 실제에 따라 마련하면 쌀 4,000섬, 콩 3,000섬, 보리 17,000섬을 절미(折米)에 준하여 떼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견감(蠲減)과 정퇴(停退) 등의 절차는 마땅히 회계(回啓)를 기다렸다가 거행해야 하겠지만 바람을 기다려 왕래하는 동안 매양 시기를 놓칠 근심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록(後錄)한 조목들은 아울러 묘당으로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십시오. 그 하나는 지난 가을 정퇴한 환자(還上) 절미 10,468섬 남짓과 이전곡(移轉穀)으로 남겨두는 조(條) 절미 2,724섬에 대해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신구(新舊)를 독촉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실행할 수 없는 정사이니, 지난 가을 정퇴한 환자는 내년 가을을 한정으로 그대로 정퇴하고, 이전곡으로 남겨두는 조의 경우 우심 44개 동리는 맥추(麥秋)에 한정해서 전수(全數)를 정퇴하고, 지차 67개 동리는 절반, 초실 26개 동리는 3분의 1을 또한 맥추로 한정해서 정퇴하며, 남겨두는 조 가운데 금년 가을에 실제로 거둬들일 절미 730석 남짓은 지금 독촉하여 거둬들여 봄이 시작되면 종자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지차 이하 합 5개 등급의 장(壯) 28,567구(口), 약(弱) 16,168구 안에 장 2,000구와 약 2,000구에 백급(白給)할 것을 대충 계산하여 제하면 마땅히 환곡으로 나누어 주어야 할 자는 장 26,567구, 약 14,168구인데, 1월 초순부터 4월 종순(終巡)에 이르기까지 마련하면 들어가는 절미는 합 14,027섬 남짓이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평역(平役)과 군관(軍官) 신역미(身役米)는 절반으로 정퇴하고, 노비신공미(身貢米)와 남정 대동미(大同米)를 절반으로 견감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시노비(寺奴婢)의 추쇄(推刷)를 내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군병(軍兵)의 조련(操鍊)을 일단 정지하고, 추노(推奴)와 징채(徵債)를 내년 가을로 한정하여 중지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등(分等)은 장계(狀啓)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십시오. 본도(本島) 백성들의 일은 해당 목사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조정에서 이미 훤히 알고 있는데, 지금 계본(啓本)의 내용을 보면 지금 백성들의 형편이 아주 절급(切急)한 것을 더욱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이후 운반하여 들어간 곡물은 해당 목사가 장계로 요청한 이외의 것이고, 10,000포(包)의 곡물을 준비하여 들여보낸 것과 10,000민(緡)의 돈으로 곡물을 만들어 배로 운송한 것은 모두 이 장계가 이미 발송된 후에 있었고, 차례대로 도착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 기근으로 죽음이 가까운 목숨을 구제하고, 먹이기를 기다리는 실정에 부응하는 것이 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사상(私商)과 관무(官貿)가 종종 들어가는 것이 이 가운데 있지 않고, 더구나 상신일(上辛日)에 재전(齋殿)에서 윤음을 선포하여 10,000포의 곡물을 무역해서 더 획급(劃給)하라는 전교를 또 이미 내렸습니다. 이 기쁨은 기대하던 것 외에서 나왔으니 하늘에서 내려 준 것 같습니다. 상상하건대, 본목(本牧)의 목사는 백성들과 함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감읍(感泣)하고 송축(頌祝)하는 것이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해당 목사가 요청한 것과 조정에서 구획한 것을 가지고 그 숫자를 참작하면 거의 숫자를 변통하여 분배할 수 있어 잇기 어려운 염려에는 이르지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암말의 판매를 허락하여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권장하고, 빌어먹기 위해 나가기 원하는 자를 각각 구식(求食)하도록 하면, 또 몇 포의 곡물을 더 취할 수 있고 몇 구의 굶주린 사람을 감할 수 있어 12순(巡)을 지속하는 방법에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니, 곡물은 우선 다시 구획하지 말고 해당 목사가 실상을 들어 보고하는 것을 기다리되, 덕의(德意)를 체행(體行)하고 성력(誠力)을 다하여 작년에 시기를 지난 후에 많이 후회한 일을 크게 징계하여 일부(一夫) 일부(一婦)라도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십시오. 후록의 여러 조목 가운데 작년 겨울에 정퇴한 환자를 내년 가을을 한정으로 그대로 정퇴하는 일, 이전곡으로 남겨두는 조를 우심 동리는 맥추를 한정으로 전수를 정퇴하고, 지차 동리는 절반을, 초실 동리는 3분의 1을 일체 맥추를 한정으로 정퇴하는 일, 평역과 군관의 신역미를 절반 정퇴하고, 노비 신공미와 남정 대동미를 절반 견감하는 일, 시노비의 추쇄를 내년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는 일, 군병의 조련을 그대로 정지하고, 추노와 징채를 내년 가을을 한정으로 중지하는 일은 장계를 봉(封)하여 보낼 때 해당 목사가 모두 전례를 살피고 거행하고자 한 것이니 모두를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27]

△ 주제어: 제주목사, 장계, 재실분등, 환자, 정퇴.

---

127)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1월 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五日 壬子

○ 備邊司啓目粘連, 觀此全羅監司徐鼎修狀啓, 則珍島郡穀簿虛留事, 待勘簿登聞, 更爲稟處. …… 所安島濟州公行貽弊事, 更勿侵責於島民, …… 而成出節目, 永久遵行, …… 何如? 嘉慶元年正月初五日夜五更二點, 啓依回啓施行爲旀, …… 所安島所謂宮房納爲稱者, 亦竝出稅於度支, 其餘土地所出, 出給島民, 名以宮差導掌者, 更或現影於洋中, 則賊害平民, 甚於穿窬, 雖付鎭邑處置, 亦無不可, 此意竝以嚴飭爲旀.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5일(임자)

▢ 소안도(所安島)에 제주(濟州) 공행(公行)이 폐를 끼친 일 등에 대해 섬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비변사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이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장계를 보니, 진도군의 곡물 장부의 빈 수량에 대한 일은 장부를 대조하여 보고하기를 기다려 다시 품처(稟處) 하겠습니다. 〈중략〉 소안도(所安島)에 제주(濟州) 공행(公行)이 폐를 끼친 일은 다시는 섬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중략〉 절목(節目)을 만들어 내어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략〉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가경 원년(1796) 1월 5일 밤 5경(更) 2점(點)에 판부(判付)하기를,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소안도, 공행, 절목.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六日 癸丑

○ 有政. 吏批, 判書沈煥之進, 參判未差, 參議宋煥箕在外, 同副承旨姜忱進. 啓曰, 今月初四日. 傳曰, 雖有政命, 今將夜深, 明値齋日, 再明日待開門牌招開政下批, 注書望筒事, 昨亦有嚴飭, 而遠人收用, 飭敎, 何如乎? 至於濟州, 豈比於尋常, 遠道則在京旅宦之人, 竝與注書假官而不爲擬望, 實注書所爲, 萬萬無據. 從當嚴處, 而雖以銓曹言之, 如齋郎郵官等職, 隨窠檢擬, 則其爲慰悅, 倍勝於昨日一萬五千兩之下送該牧, 以此嚴飭銓曹, 再明日政別檢中, 有地處出六無難人改差, 其代濟州在京文臣, 先爲擬望. 且以兵曹言之, 今番許多豐窠, 所謂濟州人, 竝與圍繞之末副望而不爲擧論, 此後, 待窠參上參下中, 隨品調用事, 分付事, 命下矣. 孝陵別檢李致祜, 寧陵別檢李周奭, 今姑改差, 以濟州文臣在京人邊景鵬·夫宗仁, 擬望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6일(계축)

▢ 효릉별검(孝陵別檢)과 영릉별검(寧陵別檢)에 제주(濟州) 문신 변경붕(邊景鵬)과 부종인(夫宗仁)을 의망(擬望)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나왔고, 참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의 송환기(宋煥箕)는 지방에 있고, 동부승지 강침(姜忱)이 나왔다. 아뢰기를, "이번달 4일에 전교하기를, '비록 정사의 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밤이 깊어질 것이고, 내일은 재계하는 날이니, 모레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패초(牌招)하여 정사를 열어 하비(下批)[128]할 것이다. 주서(注書)의 망통(望筒)[129]과 관련해서는 어제 또한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했는데, 먼 지방 사람을 수용하라는 칙교(飭敎)는 어찌 되었는가? 제주(濟州)의 경우 어찌 보통에 견줄 수 있는가? 원도(遠道)면 서울에서 벼슬을 구하는 사람은 모두 주서가관(注書假官)에 참여해야 하는데 의망(擬望)하지 않았으니, 실주서(實注書)의 소위(所爲)가 아주 근거가 없다. 응당 엄히 처분할 것이다. 비록 전조(銓曹)로써 말을 하자면, 재랑(齋郎)과 우관(郵官) 등과 같은 직(職)은 자리가 나는 대로 검토하여 의망하면 그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 어제 15,000냥을 해당 목(牧)에 내려보낸 것보다 배

128) 하비(下批): 임금이 임명을 결재함.

129) 망통(望筒): 어떤 직임에 합당한 자를 적은 문서로, 곧 후보 명단을 말함. 망단자(望單子), 망기(望記)라고도 함.

가 나을 것이다. 이것으로 전조를 엄히 타일러 경계하라. 모레 정사에서 특별히 검토한 가운데 지처(地處)가 출륙(出六)에 무난한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개차(改差)하고, 그 대신 제주인(濟州人)으로 서울에 있는 문신을 먼저 의망하라. 또한 병조로써 말을 하자면, 금번 허다한 많은 자리에서 이른바 제주인이 모두 위요(圍繞)의 말망(末望)과 부망(副望)에만 들었는데 거론하지 못하겠다. 이후로 자리가 나길 기다려 참상(參上)과 참하(參下) 중에 즉시 조용(調用)하도록 분부하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효릉별검(孝陵別檢) 이치호(李致祜)와 영릉별검(寧陵別檢) 이주석(李周奭)을 지금 일단 개차하고 제주 문신으로 서울에 있는 변경붕(邊景鵬)과 부종인(夫宗仁)을 의망하여 들이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효릉별검, 영릉별검, 변경붕, 부종인, 의망.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二日 己未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薦新唐金橘, 數旣不準, 品亦劣小, 惶恐待罪事. 傳于李益運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2일(기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장계에, 천신(薦新)에 쓸 당금귤(唐金橘)의 숫자를 채우지 못했고 품질 또한 열소(劣小)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130]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천신, 당금귤, 대죄.

130) 이익운(1748~1817): 본관 연안(延安). 자 계수(季受). 호 학록(鶴麓). 시호 정숙(靖肅).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경기도관찰사, 대사헌, 예조판서 역임.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二日 己未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十一月朔薦新洞庭橘·乳柑, 全數闕封, 惶恐待罪事. 傳于李益運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2일(기미)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장계에, 11월 초하루 천신(薦新)에 쓸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의 전수(全數)를 궐봉(闕封)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천신, 동정귤, 유감, 대죄.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二日 己未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社倉設置一款, 不可輕議, 緣由馳啓事. 傳于李益運曰, 事勢旣如此, 則不可强令爲之, 而此後民力稍裕, 公私蓋藏, 如可着手, 更以設施當否, 論理狀聞之意,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2일(기미)

▢ 제주(濟州)에 사창(社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차후 합당 여부를 장계(狀啓)로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장계(狀啓)에, 사창(社倉)을 설치하는 한 가지는 가볍게 논의할 수 없는 연유를 치계(馳啓)한 일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일의 형세가 이와 같다면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 차후 민력(民力)이 조금 여유가 생겨 공사(公私)의 저축을 착수할 수 있으면 다시 설치가 합당한 지의 여부를 조리 있게 논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 라고 하였다.[131]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장계, 사창.

131)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1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二日 己未

○ 以濟州牧使李禹鉉啓本, 士庶年九十人姓名, 成冊上送事. 傳于李益運曰, 令該曹口傳下批, 今日內安寶, 成送有旨.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2일(기미)

▢ 90세 된 제주(濟州) 사서인(士庶人)에게 구전하비(口傳下批)하게 하고, 오늘 안에 옥새를 찍어 유지(有旨)를 보내도록 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계본(啓本)에 사서인(士庶人) 90세 된 사람의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올려 보낸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구전하비(口傳下批)[132]하게 하고, 오늘 안으로 옥새를 찍어 유지(有旨)를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사서인, 90세, 구전하비.

132) 구전하비(口傳下批): 임금이 의망(擬望) 없이 직접 구두로 임명하는 일.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二日 己未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島民中, 貧殘流丐, 待春暖, 許通陸路計料事. 傳于李益運曰, 事勢似然, 依狀辭施行, 而深軫兩便之方, 莫致後悔之歎事,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2일(기미)

▢ 섬 백성 중에 유리걸식하는 자들을 육로로 통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하여 후회하는 탄식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섬 백성 중에 빈천하여 유리걸식하는 자들을 봄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육로로 통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일의 형세가 그러할 듯하니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하되, 양쪽이 편리한 방법을 깊이 생각하여 후회하는 탄식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빈천, 유리걸식, 육로.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二日 己未

○ 金勉柱, 以賑恤廳言啓曰, 濟州進上領來人十三名內, 上來十人及華城府病留人三名等處, 回糧米各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2일(기미)

▢ 진상품을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에게 회량미(回糧米)를 나누어 주겠다는 진휼청의 계

○ 김면주(金勉柱)가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진상품을 가지고 온 13명 안에, 올라온 10인과 화성부(華城府)에 병으로 머물고 있는 3명 등에게 회량미(回糧米) 각 3말씩을 규례대로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품, 회량미, 분급.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二日 己未

○ 李肇源,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李禹鉉貢果薦新狀啓謄報,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柑子, 依數封進, 而至於唐金橘, 以不足之數, 都封上送, 自禮曹, 稟旨封進云矣. 在前如此之時, 多有減數薦進之規, 今亦依前例推移,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2일(기미)

▢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하는 공과(貢果)에 대해 부족한 대로 당일에 천진(薦進)하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이조원(李肇源)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삼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공과천신장계 등보(貢果薦新狀啓謄報)를 보니, '지난 10월령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감자(柑子)는 숫자대로 봉진(封進)하지만 당금귤(唐金橘)의 경우는 부족한 숫자로써 모두 봉(封)하여 올려보내니, 예조에서 품지(稟旨)하여 봉진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숫자를 감하여 천진(薦進)[133]하는 규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전례대로 변통하여 당일에 천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공과, 천신, 당금귤, 감자.

133) 천진(薦進): 철따라 나는 것을 진상함.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五日 壬戌

○ 丙辰正月十五日午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副承旨申耆, 假注書金履永, 事變假注書鄭敬翰, 記注官安經心, 記事官吳泰曾, 右議政尹蓍東, 上護軍金持默, 行司直李柱國, 行工曹判書沈頤之, 禮曹判書具庠, 兵曹判書李得臣, 漢城判尹李敬懋, 刑曹判書李在學, 戶曹判書李時秀, 行都承旨趙鎭寬, 行副司直李漢豐, 副護軍徐龍輔, 開城留守李冕膺, 司諫崔重圭, 校理宋翼孝, 以次進伏訖. …… 蓍東曰, 濟州牧使李禹鉉, 治績賑政, 島陸遠隔, 雖無以詳知, 而以其狀聞所論列觀之, 再昨冬所抄三邑飢口, 爲六萬二千六百九十八口, 而昨冬所抄三邑飢口, 爲四萬七千七百三十五口, 則一年內所減縮, 爲一萬七千九百六十三口, 無論飢與病, 皆是捐瘠者也. 朝家之恤念島民, 前後, 何如? 至下一夫失所, 一日停膳之敎, 則仁恩所被, 可以感動豚魚, 而身爲守土之臣, 不善對揚, 戶口之減, 至於此多, 則豈可掩置不論, 重爲失刑政之歸乎? 濟州牧使李禹鉉, 亟施行譴之典, 其代文官中年少有前程者, 各別擇差, 使之一意民事, 蘇完間, 毋得求解事, 預爲嚴飭,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5일(임술)

▢ 다수의 호구(戶口)를 감축(減縮)하게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견책(譴責)을 청하는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계

○ 병진년(1796) 1월 15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부승지 신기(申耆), 가주서 김이영(金履永), 사변가주서 정경한(鄭敬翰), 기주관 안경심(安經心),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우의정 윤시동(尹蓍東), 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사직 이주국(李柱國), 행공조판서 심이지(沈頤之), 예조판서 구상(具庠), 병조판서 이득신(李得臣), 한성판윤 이경무(李敬懋), 형조판서 이재학(李在學),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행부사직 이한풍(李漢豐), 부호군 서용보(徐龍輔), 개성유수 이면응(李冕膺), 사간 최중규(崔重圭), 교리 송익효(宋翼孝)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시동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치적(治績)과 진정(賑政)에 대해서는 섬과 육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장계로 보고하여 논열(論列)한 것으로 본다면, 재작년 겨울에 뽑은 3읍의 기구(飢口)는 62,698구이고, 작년 겨울에 뽑은 3읍의 기구는 47,735구인 즉 1년

내에 줄어든 것이 17,963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굶주렸거나 병든 것을 논하지 말고 모두가 굶주려 죽은 자들입니다. 조정이 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염려한 것이 앞뒤로 어떠했습니까? 일부(一夫)라도 살 곳을 잃게 되면 하루동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교함에 이르렀으니, 어진 은혜를 입은 바가 돼지와 물고기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방의 수령이 되어 임금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호구(戶口)의 감축(減縮)을 이렇게 많이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덮어두고 논하지 않아서 거듭 형정(刑政)이 상실되는 데로 돌아가겠습니까? 제주목사 이우현을 속히 견책(譴責)하는 법을 시행하고, 그 대신 문관 중에 나이가 젊으면서도 전정(前程)이 있는 자를 각별히 가려 임명하여 백성들의 일을 오직 생각하면서 소생할 때까지 해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34]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호구, 감축, 견책.

134)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1월 1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八日 乙丑

○ 李肇源, 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李禹鉉, 亟施行譴之典事, 承傳啓下矣. 李禹鉉, 慶尙道義城縣定配所, 而時在任所,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執捉, 仍令押送配所, 何如? 傳曰, 允.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8일(을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을 배소(配所)인 의성현(義城縣)으로 압송(押送)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이조원(李肇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을 속히 견책(譴責)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승전(承傳)[135]으로 계하(啓下)[136] 하였습니다. 이우현을 경상도 의성현(義城縣)으로 배소(配所)를 정했는데, 현재 임소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의 서리(書吏)를 보내어 교대한 뒤에 붙잡아 그대로 배소로 압송(押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의성현, 배소, 압송.

135) 승전(承傳): 임금의 뜻을 전달하는 것.
136)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裁可).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九日 丙寅

○ 備邊司薦望, 柳師模爲濟州牧使.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9일(병인)

▢ 유사모(柳師模)를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유사모(柳師模)[137]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천망.

137) 유사모(1750~?): 본관 문화(文化). 자 자용(子用).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제주목사(1796.4.(도임)~1797.6.) 역임.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十九日 丙寅

○ 金祖淳,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 乙卯年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19일(병인)

▢ 제주(濟州) 3읍의 을묘년 민수(民數)를 입록(入錄)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김조순(金祖淳)[138]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3읍의 을묘년 민수(民數)가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규례대로 입록(入錄)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3읍, 민수, 입록.

138) 김조순(1765~1832): 본관 안동(安東). 자 사원(士源). 호 풍고(楓皐). 시호 충문(忠文). 1785년(정조 9) 문과 급제. 이조참의, 총융사, 대제학 역임. 저서 《풍고집》.

❖ 嘉慶 元年 丙辰 一月 二十七日 甲戌

○ 有政. 吏批, 判書沈煥之進, 參判未差, 參議宋煥箕在外, 右副承旨李肇源進. …… 濟州牧使柳師模, 今加通政加資事, 承傳,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월 27일(갑술)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게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나왔고, 참판은 아직 차임되지 않았고, 참의 송환기(宋煥箕)는 지방에 있고, 우부승지 이조원(李肇源)이 나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게 이번에 통정대부를 가자(加資)하였으니 승전(承傳)[139]을 받든 것이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통정대부, 가자.

139) 승전(承傳): 임금의 뜻을 받아 전하는 것, 또는 그 명령을 말함.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二日 戊寅

○ 傳于宋銓曰, 濟州人前萬戶李光秀·高遇泰·洪範瑞今日事, 在渠輩可謂千載一時, 武兼口傳單付, 而餘則見窠外, 加設待窠陞實, 令牧使捧其自願, 起送後狀聞.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2일(무인)

▢ 제주인(濟州人) 전 만호(萬戶) 이광수(李光秀) 등에 대해 무겸(武兼)을 구전(口傳)으로 단부(單付)하라는 등의 전교

○ 송전(宋銓)[140]에게 전교하기를, "제주인(濟州人) 전 만호(萬戶) 이광수(李光秀)·고우태(高遇泰)·홍범서(洪範瑞)의 오늘 일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천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겸(武兼)을 구전(口傳)으로 단부(單付)하고, 나머지는 현재의 자리 외에 가설(加設)하여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실직으로 올리고, 목사로 하여금 자원(自願)을 받아서 기송(起送)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만호, 이광수, 고우태, 홍범서, 무겸.

140) 송전(1741~1814): 본관 은진(恩津).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三日 己卯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進上香橘全數闕封, 惶恐待罪事, 傳于宋銓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3일(기묘)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이 장계에, 진상(進上)하는 향귤(香橘)의 전수(全數)를 궐봉(闕封)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송전(宋銓)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진상, 향귤, 궐봉, 대죄.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三日 己卯

○ 以濟州牧使李禹鉉狀啓, 巡營區劃錢所貿穀, 隨其到泊, 今已畢捧事, 傳于宋銓曰, 區劃萬兩錢, 貿穀之除夕日畢捧, 豈勝奇幸? 歲初特下之御用條所劃貿送穀物, 亦果次第到泊乎? 曾以每日闕一時飯, 少紓此心, 旣設言, 豈忍欺島民乎? 此所以節省劃給者, 卿以升斗粒粒, 知出於御供之餘, 遍分而周施, 俾有一分不欺之效事,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3일(기묘)

▢ 세초(歲初)에 특별히 어용조(御用條)에서 떼어 내려준 돈으로 사서 보낸 곡물(穀物)을 두루 나누고 두루 베풀어 한 푼이라도 속이지 않는 효과가 있게 하라고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에게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순영(巡營)이 구획(區劃)한 돈으로 사들인 곡물(穀物)을 그것이 도착하는 대로 지금 이미 거두어들이는 것을 끝마쳤다는 것과 관련하여 송전(宋銓)에게 전교하기를, "구획한 10,000냥의 돈으로 사들인 곡물을 섣달 그믐날에 거두어들이는 것을 끝마쳤다고 하니 어찌 기특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세초(歲初)에 특별히 어용조(御用條)에서 떼어 내려준 돈으로 사서 보낸 곡물은 또한 과연 차례대로 도착하였는가? 일찍이 매일 한끼의 식사를 걸러서 이 마음을 조금 펴겠다고 이미 말을 하였으니, 어찌 차마 섬 백성들을 속이겠는가? 이것은 절약하여 획급(劃給)한 것이니, 경은 한 되 한 말 알알의 곡식이 어공(御供)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서 두루 나누고 두루 베풀어 한 푼이라도 속이지 않는 효과가 있게 하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141]

△ 주제어: 어용조, 곡물, 제주목사, 이우현, 회유.

141)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0년 2월 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四日 庚辰

○ 金啓洛,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狀啓領來人十五名處, 回糧米各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4일(경진)

▢ 장계(狀啓)를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에게 회량미(回糧米)를 지급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김계락(金啓洛)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대로 제주(濟州)에서 장계(狀啓)를 가지고 온 15명에게 회량미(回糧米) 각 3말씩을 규례대로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장계, 회량미, 분급.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十六日 壬辰

○ 李海愚, 以備邊司意啓曰, 頃以濟州三邑還賑穀物足不足, 更觀民勢登聞之意行會矣. 卽見全羅監司徐鼎修狀啓, 則枚擧濟州前牧使李禹鉉謄報, 以爲本島還民四萬七百三十五口, 歲後十二巡排比條折米爲一萬四千石, 而區劃穀合折米一萬二千五百石零內, 折米一千一百八十三石零, 以四千口私賑, 已爲計除, 則見今實不足折米, 二千六百八十三石零, 而今若不爲加請, 惟事塗抹之計, 則勢將減付減式, 而之次以下付還之民, 自冬至今, 賴以延活者, 惟是應抄準之效, 緣此穀摠之不贍, 强拔飢口, 勒減常式, 誠有所不忍, 不足條折米二千六百餘石, 準折加劃云, 而島民海採, 春暖以後, 各歸其業, 則付還民口, 自當減除, 貧丐之出送, 減得還口, 牝馬之發賣, 補得生計, 私商貿入之穀, 移轉及別下貿穀等, 各穀足爲民間資食之助, 而見今沿邑穀簿罄竭, 海民之受弊, 殆有甚於弩末竿頭, 濟州牧穀物加劃一款今姑置之事, 請令廟堂稟處矣. 當初該牧請劃之數, 準島中三邑民口摠數, 自昨年初冬, 至今年麥秋, 計口計日, 以米磨鍊, 故其數至於折米一萬四千石之多, 道臣狀辭, 廟堂覆啓, 皆以所請過多, 難以準劃爲言, 而如傷之音, 惻怛之旨, 勤勤懇懇, 非一非再, 萬包租牟, 旣出特恩, 萬緡帑錢, 旋又別下, 竝與本道區劃米租及該牧該營之錢貿穀物, 統而計之, 則其數恰爲二萬六千餘石, 牝馬之許出, 魚藿之轉貿, 又不在此中, 開春以後, 可以傭賃資生者, 竝許出陸就食, 則還賑之口, 亦當減得幾許, 若使守臣, 殫誠竭慮, 細察熟量, 賑口還戶, 農糧種子, 各從多寡, 推移分排, 則就此已劃之數, 亦可以支繼而有裕, 今觀本牧狀辭, 則魚藿添穀之數, 傭賃減口之實, 都不較計, 惟以折米之必準初請爲意, 烏在其守牧之臣悉心對揚, 無病公私之道乎? 且念湖南諸邑, 數年以來, 積困於轉輸之役, 而幸賴我聖上一視之澤, 剩縮別下, 糧資優給, 沿民水手, 郡縣官吏, 無一受弊之端, 今當春氣漸舒, 東作方殷之時, 又令本道辦送累千石穀物, 則朝家之軫恤雖極, 沿邑之爲弊不些, 以此以彼, 加劃一款, 實涉重難, 道臣之論理請寢, 誠爲得體, 該牧所請二千六百八十三石加劃事置之, 當該牧使李禹鉉, 所當論責, 而業已遞勘, 今姑安徐, 以前後劃下穀物, 均一措處於還賑之需, 無或有一民呼飢失所之患事, 嚴飭分付, 何如? 傳曰, 不承權輿, 凡人猶戒之, 況爲民父母乎? 在陸民猶不可, 況島民乎? 匹夫匹婦之失所, 猶且不忍, 況幾萬生靈近止之命乎? 莫曰已船運者至二萬二千包之多, 足可濟活, 二萬六千餘石, 一包不足, 致有一人之塡于丘壑, 則亦可謂之惠乎? 道臣之持難, 廟堂之防啓, 特坐於未見其鶉衣鵠形而然耳, 若使道臣·廟堂, 易地而處, 安知加請之不如該牧乎? 設令魚採之屬, 有裕於資生, 魚出於海, 不卽成穀, 則其間永晷, 將何生活? 予自耽羅告饑之後, 重溟千里, 如在目前, 當食忘餐, 當寢忘眠久矣, 顧何惜數千包之穀, 反孤一島待哺之望乎? 今玆加請之數, 終若見塞, 則將以已船運

者, 僅僅塗抹, 而飢民之當受二升者, 必減一升, 當受一升者, 必減幾龠, 如此之際, 頷顚連之患, 何以保其必無乎? 然島民, 民也, 陸民, 民也, 予不忍爲島民, 重困陸民, 則移轉不可議到, 歲初特下內帑錢一萬五千兩之後, 或慮其更請, 已有剩數之措置者, 今又特下木綿五百疋, 錢四千兩, 胡椒一百斗, 丹木三百斤, 付之新牧使到都會官, 從長貿取, 次第輸入, 期於計日繼巡, 新牧使使之當日辭朝, 星火馳進於候風所, 先將此意, 播告島民, 奠厥攸居, 毋使予有不承權輿之歎,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16일(임진)

▢ 제주목(濟州牧)에서 추가로 요청한 진휼곡의 획급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비변사의 계에 대해 특별히 목면(木綿) 500필 등을 신임 목사에게 주어 곡물(穀物)로 바꾸어 운송하여 들어가서 순(巡)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전교

○ 이해우(李海愚)[142]가 비변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난번 제주(濟州) 3읍의 환곡(還穀)과 진곡(賑穀)의 곡물(穀物)에 대한 족부족(足不足)을 다시 백성들의 형세를 보아 장계로 보고하라는 뜻으로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지금 전라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를 보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등보(謄報)를 낱낱이 들어 아뢰기를, '본도(本島)의 환민(還民) 40,735구(口)에 대해 세후(歲後)에 12순(巡)으로 나누어 줄 절미(折米)는 14,000섬입니다. 그리고 구획한 곡물을 합한 절미 12,500섬 남짓 안에서 절미 1,183섬 남짓을 4,000구의 사진(私賑)으로 계산하여 제하면 지금 실제 부족한 절미는 2,683섬 남짓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더 청하지 않으면 오직 그 일이 무산될 것인즉 사세(事勢)로 보아 장차 감부(減付) 감식(減式)해야 할 것입니다. 지차(之次) 이하의 환곡에 붙여진 백성이 겨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힘입어 연명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법에 준하여 뽑아낸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 곡물의 총수가 넉넉하지 못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억지로 뽑아내어 상식(常式)을 억지로 줄이는 것은 실로 차마 하지 못할 일입니다. 부족한 절미 2,600여 섬을 준절(準折)하여 더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섬 백성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봄 날씨가 따뜻해진 이후 각각 생업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환곡에 붙여진 백성들도 자연 감소되고, 가난하여 빌어먹는 백성을 육지로 내보내면 환곡을 받아먹는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암말의

142) 이해우(1760~1832): 본관 한산(韓山). 자 경안(景顔). 시호 정민(貞敏). 우포도대장, 금위대장, 훈련대장 역임.

발매(發賣)는 생계를 돕고, 사상(私商)이 사들인 곡물을 이전(移轉)하는 것과 특별히 내려 사들인 곡물 등 각종 곡물은 민간의 자식(資食)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연읍(沿邑)에 곡부(穀簿)가 텅비었고, 해민(海民)이 받는 폐단은 쇠뇌의 끝과 백척간두보다 아주 심합니다. 제주목(濟州牧)에 곡물을 더 지급하는 일은 지금 우선은 그만 두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해당 목(牧)에서 획급하기를 청한 숫자는 섬의 3읍 민구(民口)의 총수에 준해서 작년 초동(初冬)부터 금년 맥추(麥秋)에 이르기까지 인구를 계산하고 날짜를 계산하여 쌀로 마련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숫자가 절미 14,000섬에 이르기까지 많게 되었습니다. 관찰사의 장계에 대해서 묘당이 복계(覆啓)하니 모두 요청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요청한 대로 획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백성을 다친 사람 돌보듯이 한다는 임금의 소리와 애통하다는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임금의 명령이 비일비재하였으며, 10,000포(包)의 벼와 보리는 이미 특별한 은혜에서 나왔고, 10,000민(緡)의 탕전(帑錢)도 바로 또 특별히 내렸습니다. 아울러 본도(本道)에서 구획한 쌀과 벼 및 해당 목과 해당 영(營)에서 돈으로 사들인 곡물을 통틀어 계산하면 그 수는 흡사 26,000여 섬이 됩니다. 암말을 내어 파는 것과 어곽(魚藿)을 무역하는 것은 또한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봄이 된 이후 품을 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아울러 출륙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환곡과 진곡을 주는 인구가 또한 마땅히 얼마쯤 줄어 들 것입니다. 만약에 수신(守臣)이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자세히 살피고 상세히 헤아려 진구(賑口)와 환호(還戶)에 농사를 짓는 동안 먹을 양식과 종자를 각각 많고 적음에 따라 변통하여 분배한다면 이렇게 이미 획급한 숫자에 나아가서 또한 버티어 나가면서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목(本牧)의 장계를 보면, 어곽으로 더해진 곡물의 숫자와 품을 팔아 살아가게 되어 덜어진 인구의 실수(實數)를 모두 비교하여 계산하지 않고, 오직 절미를 반드시 처음 요청한 것에 준하도록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수목(守牧)의 신하가 마음을 다하여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널리 알리는 데에 있어 공사(公私)의 도리에 병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호남 제읍(諸邑)을 생각해 보면, 수년 이래 수송하는 역(役)에 피곤이 쌓였는데, 다행히 우리 성상이 차별없이 보는 은택을 입어 잉축조(剩縮條)를 특별히 내려주고, 양자(糧資)를 넉넉히 주어 연민(沿民)의 수부(水夫)와 군현의 관리가 한번도 폐단을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 봄기운이 점차 퍼져서 농사 일이 바야흐로 성할 때 또 본도로 하여금 수천 섬의 곡물을 마련해서 보내게 한다면 조정이 진휼(軫恤)하는 것이 비록 지극하지만 연읍에 폐가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더 획급하는 일은 실로 중대하고도 곤란합니다.

관찰사가 이치를 논하여 중지하기를 청한 것은 참으로 체모(體貌)에 맞는 일입니다. 해당 목에서 요청한 2,683섬을 더 획급하는 일을 그대로 두십시오. 해당 목사 이우현은 마땅히 잘못을 따져 꾸짖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체감(遞勘)하였기에 지금은 일단 잠시 보류하고, 앞뒤로 획급하여 내려준 곡물은 균일하게 환곡과 진곡의 수요에 조처하여 하나의 백성이라도 굶주림을 호소하며 살 곳을 잃는 근심이 없게 하도록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시작을 받들지 않는 것을 평범한 사람도 오히려 경계하는데, 하물며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는 어떠하겠는가? 육지 백성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섬 백성들에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살 곳을 잃는 것을 오히려 또한 차마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몇 만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에 있어서는 어떠하겠는가? 이미 배로 운송한 것이 22,000포에 이를 정도로 많아서 족히 구제하여 살릴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26,000여 섬에서 1포가 부족하여 한 사람이 구렁에 빠지는 경우에 이르게 된다면 또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관찰사가 얼른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며 일을 미루는 것과 묘당이 남의 의견을 막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아뢰는 것은 다만 그 해어진 옷과 마른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러한 것 뿐이다. 만약에 관찰사와 묘당이 처지를 바꾼다면 어찌 더 청하는 것을 해당 목사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 수 있겠는가? 설령 물고기를 잡는 무리들이 자생(資生)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물고기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니 곧 바로 곡식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 긴 날을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나는 탐라(耽羅)에서 기근을 보고해 온 이후부터 바다 천 리가 눈앞에 있는 듯해서 음식을 대해도 먹는 것을 잊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잊은 지가 오래되었다. 돌아보건대, 어찌 수천 포의 곡물을 아껴 도리어 한 섬이 먹여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지금 더 요청하는 숫자가 끝내 막힌다면 장차 이미 운송한 것으로 근근이 변통하여 굶주린 백성 중에 2되를 받아야 할 자는 필시 1되를 감할 것이고, 1되를 받아야 할 자는 필시 몇 작[龠]을 감할 것이니, 이와 같은 때에 굶어 부황이 들었는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우환이 어찌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섬 백성도 백성이고, 육지 백성도 백성이다. 나는 차마 섬 백성을 위하여 육지 백성을 거듭 곤란하게 하지 못하겠으니, 곡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론하지 못하겠다. 세초(歲初)에 특별히 내탕전 15,000냥을 내린 후에 혹 다시 요청할 것을 염려하여 이미 남은 숫자로 조처한 것이 있다. 지금 또 특별히 목면(木綿) 500필, 돈 4,000냥, 후추[胡椒] 100말, 단목(丹木) 300근을 신임 목사에게 주어 도회관(都會官)에 이르러 편리한 대로 곡물로 바꾸어 가지고 차례

대로 운송하여 들어가서 날짜를 계산해서 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신임 목사는 당일 사조(辭朝)하도록 하여 성화같이 후풍소(候風所)로 달려가서 먼저 이러한 뜻을 섬 백성들에게 퍼뜨려 알려 그 거주할 바를 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시작을 받들지 못한 탄식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143]

△ 주제어: 목면, 후추, 단목, 곡물, 운송.

143)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2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十六日 壬辰

○ 傳于金啓洛曰, 濟州牧使留待.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16일(임진)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머물러 기다리도록 하라는 전교

○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머물러 기다리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十六日 壬辰

○ 傳于金啓洛曰, 濟州牧使入侍.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16일(임진)

▢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入侍)하도록 하라는 전교

○ 김계락(金啓洛)에게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入侍)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입시.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十六日 壬辰

○ 備忘記, 濟州牧使柳師模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16일(임진)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게 장궁(長弓) 등을 사급(賜給)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하직(下直)하니,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하직.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十六日 壬辰

○ 李海愚, 以備邊司言啓曰, 羅里鋪設倉儲穀, 專爲耽羅一島之民也, 每値歉荒之時, 輒有轉運之役, 而穀物纔入於島, 涼藿旋出於陸, 以其涼藿, 還作穀物, 換貿自有期限, 折價亦有定式, 年年滋長, 以待不時之需, 彼此互濟, 有無相資, 倉雖在陸, 實無異於島民之外府, 則設置法意, 果何如也, 而挽近以來, 爲道臣守臣者, 全不察飭, 一任拋置, 穀物之輸送, 幾乎無歲無之, 而涼藿之出來, 絶未有聞, 羅里鋪一倉, 虛設無用, 而耽羅則一遇歉歲, 專仰朝家之區劃, 運輸旣多, 沿穀漸耗, 始也源穀之充送, 中焉船價之計給, 今則源穀姑舍, 併與船價而皆出於各衙門, 沿民之受弊, 已無可言, 而若使島中之官長民人, 詳知如許事情, 能無怵然於心, 況涼是造於手者, 藿是採於海者, 所稱土産, 無是不有者乎? 其在均島陸備水旱之道, 不可仍循, 置之, 昨年頒下整理穀, 慈恩所暨, 特蠲涼藿者, 固不當擧論, 而從前許多未收之年久者外, 再昨年以後入送穀物, 則使之通計元數, 待秋成依節目措備涼藿, 輸送該倉, 以爲換穀貯留之地, 而三年條之一時準備, 不無難辦之慮, 道臣, 守臣, 往復酌量, 計其穀數, 量其年條, 鱗次分排, 趨期出送, 無或有如前拋棄之弊, 每歲末涼藿出送數爻, 自該牧修成冊上送, 涼趁藿到付穀物換作形止, 自該道亦爲區別, 修成冊上送, 而年條限以幾年, 每年限以幾許, 爲先磨鍊, 枚報本司, 如或過限減數, 又或愆期作穀, 則當該守臣道臣, 各以其罪, 自本司論勘之意, 申明知委於道臣, 新牧使今方辭陛, 亦以此意, 一體嚴飭, 知其警勵, 何如? 傳曰, 允.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16일(임진)

▢ 재작년 이후 들여보낸 곡물(穀物)의 원수(元數)를 통틀어 계산하여 절목대로 양태[涼臺]와 미역을 준비하여 나리포창(羅里鋪倉)에 수송하여 곡물로 바꾸어 저장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해우(李海愚)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나리포(羅里鋪)에 창(倉)을 설치하여 곡물(穀物)을 저장하는 것은 오로지 탐라(耽羅) 한 섬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매번 흉년을 만날 때 문득 곡물을 실어 나르는 일이 있는데, 곡물이 겨우 섬으로 들어가면 양태[涼臺]와 미역이 곧바로 육지로 나오고, 그 양태와 미역으로 도로 곡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환무(換貿)에는 절로 기한이 있고, 절가(折價) 또한 정식(定式)이 있어서 해마다 불어나 불시의 수용을 기다려 피차를 서로 구제하고 유무를 서로 도우니, 창이 비록 육지에 있지만 실로 섬 백성의 바깥 창고[外府]와 다름이 없으니 창을 설치한 법의(法意)가 과연 어떠합니까?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관찰사와 수령이 된 자가 전혀 살펴 경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방치하여, 곡물의 수송이 거의 없는 해가 없고 양태와 미역이 나왔다는 소문을 일절 듣지 못했으니, 나리포창(羅里鋪倉)은 헛되게 설치한 무용(無用)이 되었고, 탐라는 한 번 흉년을 만나면 오로지 조정의 구획(區劃)을 우러르게 되었습니다. 실어 나른 것이 이미 많고, 연해(沿海)의 곡물은 점점 없어지게 되어 처음에는 원곡(源穀)을 채워 보냈고, 중간에는 배값을 계산하여 주었는데, 지금은 원곡은 고사하고 배값을 아울러서 모두가 각 아문(衙門)에서 나오고 있으니, 연해 백성들이 받는 폐단을 이미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섬의 관장(官長)과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안다면 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양태는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역은 바다에서 채취되는 것인데, 이른바 토산(土産)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섬과 육지가 골고루 장마와 가뭄에 대비하는 방도에 있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내려준 정리곡(整理穀)은 자은(慈恩)이 미친 바이고, 특별히 견감한 양태와 미역은 실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종전에 허다하게 아직 거두지 못한 해가 오래된 것 외에 재작년 이후 들여보낸 곡물은 원수(元數)를 통틀어 계산하여 추성(秋成)을 기다렸다가 절목대로 양태와 미역을 조처하여 준비하여 해당 창에 수송하여 곡물로 바꾸어 저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3년조를 일시에 준비하는 것은 갖추기 어려운 염려가 없지 않으니, 관찰사와 목사가 왕복하면서 헤아려 그 곡물의 숫자를 계산하고 그 연조(年條)를 헤아려 차례대로 분배하여 기한에 맞춰 내보내어 혹여 예전처럼 버려두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매 세말(歲末)에 양태와 미역을 내보내는 수효를 해당 목(牧)에서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내되, 양태와 미역의 도착과 곡물로 바꾼 전말을 해당 도(道)에서 또한 구별하여 성책하여 올려보내고, 연조를 몇 년으로 기한을 정할 지와 매해 얼마로 한정할 지를 우선 마련하여 본사(本司)에 낱낱이 보고하게 하여 만약에 기한을 넘겨 숫자를 줄이거나 또는 기한을 어겨 곡물을 마련하였다면 해당 목사와 관찰사를 각각 그 죄로써 본사에서 죄상을 논하여 다스리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관찰사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신임목사가 방금 하직인사를 하였으니 또한 이러한 뜻으로 일체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경려(警勵)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44)

△ 주제어: 나리포창, 양태, 미역, 곡물.

144)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2월 1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十六日 壬辰

○ 丙辰二月十六日午時, 上御便殿. 右副承旨入侍時, 右副承旨李海愚, 假注書曺錫中, 記事官吳泰曾, 廣州留守徐有隣, 直提學李晩秀, 以次進伏訖. 上命海愚, 書全羅監司濟州牧加請狀啓判付訖.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16일(임진)

▢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전라감사(全羅監司)가 올린 제주목(濟州牧)이 곡물(穀物)을 더 청하는 장계에 대한 판부(判付)를 쓰게 함

○ 병진년 2월 16일 오시에 임금이 편전에 나아갔다. 우부승지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가주서 조석중(曺錫中),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광주유수 서유린(徐有隣), 직제학 이만수(李晩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이해우에게 명하여 전라감사(全羅監司)가 올린 제주목(濟州牧)이 곡물(穀物)을 더 청하는 장계에 대한 판부(判付)를 쓰라 하고 마쳤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전라감사, 제주목, 곡물, 판부.

❖ 嘉慶 元年 丙辰 二月 十六日 壬辰

○ 丙辰二月十六日申時, 上御重熙堂. 坐直承旨, 濟州牧使同爲入侍時, 左副承旨金啓洛, 假注書韓致重, 記注官金良偁, 記事官吳泰曾, 濟州牧使柳師模, 諸臣以次進伏訖. 上曰, 島中民事, 誠可矜悶, 今此擇差, 予以爲得人, 固知其善爲, 而益加殫竭, 深思全活之策, 今年運穀之多, 前所罕有, 該牧之加請, 勢不得已, 而廟堂之防啓, 亦不可謂無見也, 適有爲島民措備者, 故今又別給錢木及椒·丹, 欲使島中, 無一民捐瘠, 而此非因以爲例之事也, 大抵島中, 王化之所未暨, 文吏與武守自別, 往須曉諭此意可也, 對揚之責, 宣布之方, 專在於卿, 予何多勉? 雖然島中事情, 有何所聞者, 而亦有措劃稟定之事耶? 師模曰, 雖或有聞, 而海外事未敢遙度, 目下急務, 莫先於生穀, 生穀之道, 惟在於通商賈遷有無, 此等處雖或任謗冒嫌, 苟有便民之端, 不敢拘於形跡, 而不爲矣. 上曰, 從便爲之, 可也. 上曰, 近來涼藿之出來者不多, 何也? 師模曰, 臣亦未能的知, 而傳說以爲, 民皆頷頗, 不能專力於結涼採藿云矣. 上曰, 沿邑之移轉, 凡幾年矣, 自朝廷視之, 則彼亦民此亦民, 豈有島與陸之別, 從前涼·藿多出之時, 雖未能當此入之穀簿, 而亦不無爲陸民之利者, 近年以來, 可謂有出而無入, 此亦不可不相勢着力處也. 上曰, 所出錢木, 出往備邊司, 與有司堂上, 眼同領載, 而今則日已暮矣, 所受諭書, 權安於備邊司, 而歸宿於家, 待明曉發行, 可也. 宣諭文具置之, 須善往還也.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0년(1796) 병진년 2월 16일(임진)

▢ 임금이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게 제주(濟州)의 사정에 대해 품정(稟定)할 일이 있는지를 물음

○ 병진년 2월 16일 신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직 승지와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함께 입시할 때, 좌부승지 김계락(金啓洛), 가주서 한치중(韓致重), 기주관 김양척(金良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 등 여러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안 백성들의 일은 참으로 가엾다. 지금 이렇게 가려서 차임(差任)하였으니 나는 적임자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진실로 잘 할 줄을 알겠지만 더욱 온힘을 다하여 온전히 살려낼 계책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라. 금년 운반한 곡물이 많은 것은 전에는 드문 일이었다. 해당 목(牧)이 더 청한 것은 형세상 부득이 해서인데, 묘당이 의견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뜻을 아뢴 것은 또한 견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마침 섬 백

성들을 위하여 조처하여 준비한 것이 있었기에 지금 또 특별히 돈·목면(木綿)·후추·단목(丹木)을 지급하여 섬 안에 하나의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규례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저 섬 안에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는 바에 있어 문리(文吏)와 무수(武守)가 분명하게 서로 다르다. 가서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을 받들어 널리 알리는 책임과 널리 펴 알리는 방법이 전적으로 경에게 있으니 내가 어찌 다분히 힘쓸 것인가? 비록 그렇지만 섬 안의 사정에 대해 어떤 들은 것이 있어서 또한 조치하여 품정(稟定)할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비록 혹여 들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다 밖의 일은 감히 멀리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장의 급선무는 곡물을 만드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곡물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상인들을 통하게 하여 있고 없는 것을 바꾸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비록 비방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단초가 있다면 감히 형적(形跡)에 구애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편리한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양태[涼臺]와 미역이 나오는 것이 많지 않으니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신 또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말에, '백성들이 모두 기근에 부황이 들어 양태를 만들고 미역을 채취하는 데 힘을 오로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읍(沿邑)에서 곡물을 이전한 것이 무릇 몇 년이 되는데, 조정에서 본다면 저들 또한 백성이고 이들 또한 백성이다. 어찌 섬과 육지의 차별이 있겠는가? 이전에 양태와 미역이 많이 나올 때에는 비록 이렇게 들어가는 곡부(穀簿)를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또한 육지 백성들을 위한 이로운 것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는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형세를 보아 힘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어주는 돈과 목면은 비변사에 나가서 유사당상과 함께 자리하여 받아서 싣되, 지금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받은 유서(諭書)[145]는 비변사에 임시로 보관해 두고 집에 돌아가서 묵고 내일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나라. 선유문(宣諭文)은 구치(具置)하고 잘 갔다 돌아오거라."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양태, 미역.

145) 유서(諭書): 효유(曉諭)하는 글. 관찰사·절도사·방어사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 嘉慶 元年 丙辰 三月 六日 壬子

○ 丙辰三月初六日午時, 上御誠正閣. 回還使臣入侍,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承旨成種仁, 假注書李章孝, 記事官馬思人, 記注官金良僩, 正使閔鍾顯, 副使李亨元, 以次進伏訖. …… 耆東曰, 今因耽羅賑事, 以年年運穀, 民邑俱困, 聖念每軫島陸兩便之政. 然若欲濟活島民, 則駕海轉輸之弊, 自歸沿民, 矯救實無長策. 無已則羅里舖換貿作穀之法, 無論豐歉, 從便轉換, 輪回入送, 而設倉于湖西南交界之臨陂縣者, 當初法意, 俱極周密, 中間生弊, 仍爲廢却. 今復修明舊制, 要爲利專歸於島民, 害不及於沿民之地, 恐合目下急務. 故敢此, 仰達矣. 上曰, 卿於本道本牧, 俱有經歷, 況島陸互濟之政, 莫過於此倉之牢實, 如令初依卿所奏, 爲先出擧條知委該道該牧, 期有刮目之效, 可也. 【出擧條】 耆東曰, 羅里舖更爲設施事, 旣伏承下敎, 須有句管堂上, 往復于全羅道臣, 耽羅守臣, 爛漫商確, 臨陂與羅州之倉舍形便, 島産與陸穀之換貿規式, 取考當初節目, 修明擧行, 然後可以永久遵行. 堂上以刑曹參判趙鎭寬, 護軍徐龍輔差下, 使之專意擧行, 而徐龍輔, 備局堂上仍爲還差,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3월 6일(임자)

▢ 제주(濟州)의 진휼(賑恤) 대비책으로 나리포창(羅里鋪倉)의 재설치, 시행을 건의하는 윤시동(尹蓍東)의 계

○ 병진년 3월 6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돌아온 사신이 입시할 때,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승지 성종인(成種仁), 가주서 이장후(李章垕), 기사관 마사인(馬思人),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정사 민종현(閔鍾顯), 부사 이형원(李亨元)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지금 탐라(耽羅)를 진휼(賑恤)하는 일로 인하여 해마다 곡물을 운반하느라 민읍(民邑)이 함께 곤란을 겪고 있어 성상이 매양 섬과 육지 양쪽 모두가 편한 정사를 진념(軫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섬 백성을 구제하여 살리고자 한다면 바다를 건너서 운반하는 폐단이 절로 연해(沿海)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폐단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데 있어 실로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나리포(羅里舖)에서 환무(換貿)하여 곡물을 만드는 법을 흉년이나 풍년을 막론하고 편리한 대로 전환(轉換)하여 번갈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창(倉)을 호서와 호남의 경계인 임피현(臨陂縣)에 설치한 것은 당초 법의(法意)가

모두 지극히 치밀했었는데 중간에 폐단이 생겨 그대로 폐(廢)하여 물리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옛 제도를 밝힌다면 요컨대 이로움이 전적으로 섬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해로움은 연해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니, 아마도 지금 당장의 급선무에 합당할 듯합니다. 때문에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본도(本道)와 본목(本牧)에 모두 경력이 있고, 더군다나 섬과 육지를 함께 구제하는 정사로는 이 창을 튼실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만일 애초에 경이 아뢴 대로 한다면 우선 거조(擧條)[146]를 내어 해당 도(道)와 해당 목(牧)에 알려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기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윤시동이 아뢰기를, "나리포를 다시 설치하여 시행하는 일은 이미 하교를 받들었으니, 모름지기 구관당상(句管堂上)[147]이 있어 전라도관찰사, 제주목사(濟州牧使)와 왕복하며 충분하게 서로 의논하여 확실히 정하고, 임피(臨陂)와 나주(羅州)의 창사(倉舍) 형편, 섬의 물산과 육지 곡물을 환무하는 규식에 대해 당초 절목을 가져다 살피고 밝혀 거행한 뒤에야 영구히 준행할 수 있습니다. 당상으로 형조참판 조진관(趙鎭寬)[148]과 호군 서용보(徐龍輔)를 임명하여 신경을 써서 거행하게 하되, 서용보는 비국당상으로 그대로 도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149]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 진휼, 윤시동, 나리포창.

146) 거조(擧條): 신하가 임금에게 조목조목 들어 아뢰던 조항.

147) 구관당상(句管堂上): 비변사의 제조(提調)로서 각 도에 1명씩 두어, 각 도에서 올라오는 장계 및 문보(文報) 등 군무를 도별로 나누어서 맡아보던 당상관. 1713년(숙종39)에 처음으로 설치하였음.

148) 조진관(1739~1808): 본관 풍양(豊壤). 자 유숙(裕叔). 호 가정(柯汀). 시호 효문(孝文).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이조판서, 수원부유수, 판돈녕부사 역임. 저서《가정유고》.

149)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3월 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三月 十四日 庚申

○ 丙辰三月十四日辰時. 上詣景慕宮. 經宿擧動入侍時, 行都承旨趙鎭寬, 左承旨李勉兢, 右承旨宋銓, 左副承旨李肇源, 右副承旨李海愚, 同副承旨鄭尙愚, 記事官柳遠鳴, 假注書李毅采, 記事官吳泰曾·金履永, 二提學沈煥之, 二直提學李晩秀, 檢校直閣金勉柱, 原任直閣尹行恁·南公轍·金祖淳, 直閣李始源, 原任待敎徐有榘, 以次隨駕. …… 薈東曰, 濟州新牧使柳師模, 方在靈巖都會所, 所齎去木綿·胡椒·丹木之屬, 皆區處能準六千兩之數, 而作米一款極難處, 公穀則分留之外, 雖道臣, 不能任意遷動, 私商處則元無各穀, 只有白米, 其處市直六千兩錢, 僅可得千石. 船價雜費, 又當除出, 該牧使陛辭時, 奉承下敎折米二千石貿去之數爻, 大相逕庭. 以此之故, 不敢爲候風越海之計, 再次告急于臣等, 舊牧使, 方私次待命, 新牧使, 赴任無期, 本島賑事, 亦誠可憫矣. 湖南沿邑留庫條租牟稍裕, 折米二千石, 不難辦出, 受價許劃, 無少爲害, 今不可固守分留之法而無所闊狹, 使朝家爲島民拔例發帑之德意, 有未盡對揚之歎, 沿邑留庫穀中租牟有裕處, 六千兩價, 折米二千石, 趁卽許劃. 領運一節, 亦令各其地方官, 助力裝載, 交付于該牧發船之前, 俾得從便運入之意, 分付于湖南道臣及該牧使處, 何如? 傳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0년(1796) 병진년 3월 14일(경신)

▢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게 호남 연읍(沿邑)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곡물로써 절미(折米) 2,000섬을 획급(劃給)하여 줄 것 등을 청하는 윤시동(尹蓍東)의 계

○ 병진년 3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으로 나아갔다. 밤을 지낸 거둥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좌승지 이면긍(李勉兢), 우승지 송전(宋銓),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동부승지 정상우(鄭尙愚), 기사관 유원명(柳遠鳴), 가주서 이의채(李毅采),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 이제학 심환지(沈煥之), 이직제학 이만수(李晩秀),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 원임직각 윤행임(尹行恁)·남공철(南公轍)·김조순(金祖淳), 직각 이시원(李始源), 원임대교 서유구(徐有榘)가 차례로 거가(車駕)를 따랐다. 〈중략〉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지금 영암(靈巖) 도회소(都會所)에 있는데, 가지고 갈 목면(木綿)·후추[胡椒]·단목(丹木) 등을 모두 변

통하여 처리하면 6,000냥의 숫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로 만드는 일은 매우 난처하니, 공곡(公穀)은 분류(分留)[150] 외에는 비록 관찰사라 하더라도 임의로 옮길 수 없고, 사상(私商)에게는 원래 각종 곡물은 없고 다만 백미(白米)만 있는데 그 시가(市直)가 6,000냥의 돈으로 겨우 1,000섬을 얻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배값과 잡비를 또 덜어내야 하는데, 해당 목사가 하직인사 할 때 하교로 받든 절미(折米) 2,000섬으로 바꿔 가는 수효와는 크게 서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감히 바람을 기다려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재차 신들에게 다급히 알렸습니다. 구 목사가 지금 사차(私次)[151]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고, 신임 목사는 부임할 기약이 없으니 본도(本島)에 진휼하는 일이 또한 실로 염려가 됩니다. 호남 연읍(沿邑)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벼와 보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 절미 2,000섬을 마련하여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값을 받아서 획급(劃給)하는 것은 조금도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분류하는 법을 고수할 수 없는데도 융통성이 없게 된다면, 조정이 섬 백성을 위하여 전에 없는 특별한 사례로 내탕전(內帑錢)을 내어준 덕의(德意)으로 하여금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널리 펴는 것을 다하지 못하는 한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연읍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곡물 중에 벼와 보리가 여유가 있는 곳에서 6,000냥 값의 절미 2,000섬을 진작에 허락하여 획급해야 할 것입니다. 영운(領運)하는 일 또한 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힘을 도와 짐을 꾸려 싣게 하고 해당 목(牧)이 배를 띄우기 전에 교부하여 편리한 대로 운반하여 들어가게 하는 뜻으로 호남 관찰사와 해당 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절미, 획급, 내탕전.

150) 분류(分留): 환곡(還穀) 따위의 분급량(分給量)과 유치량(留置量)을 말함.
151) 사차(私次): 사사로이 머물러 있는 곳.

❖ 嘉慶 元年 丙辰 三月 十九日 乙丑

○ 丙辰三月十九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副承旨李海愚, 假注書李泳夏, 事變假注書尹命烈, 記事官吳泰曾·金履永, 右議政尹耆東, 行上護軍李柱國·沈頤之, 行禮曹判書閔鍾顯, 兵曹判書具鑵, 行大護軍李敬懋, 戶曹判書李時秀, 吏曹判書沈煥之, 刑曹判書李肇源, 行都承旨趙鎭寬, 行護軍李漢豊, 開城留守李晃膺, 掌令沈奎魯, 持平李福潤, 獻納金履喬, 正言尹悌東, 修撰金熙采, 副修撰尹益烈, 以次進伏訖. …… 耆東曰, 此全羅監司徐鼎修狀啓也. 以爲濟州入送貿運及移轉穀所載扶安等五邑船五隻火燒, 沈失各穀爲一千九百二十八石, 人物一名, 亦爲淹死, 誠不勝萬萬驚駭, 發船之際, 不能董飭, 致令五船落後逢風, 至有失火投水之擧者, 難免不飭之責, 許多船隻到泊之際, 旣不前期等候, 指導安泊, 又不董發浦丁, 登時救護, 致此沈覆者, 極爲駭然. 領運差使員光陽縣監韓師鎭, 濟州判官趙敬日罪狀, 令攸司稟處, 別下貿穀, 乃是格外特恩, 不可以混歸沈失之中, 同州領受各穀一萬三千七十二石中, 一萬石以別下貿運條施行, 三千七十二石以移轉條施行, 而移轉臭載給代, 旣有已行之例. 今番沈失各穀之代, 沿海留庫稍裕處, 預先區劃, 以待處分裝發計料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耽羅入送穀物之火燒沈失, 人物一名之漂溺未拯, 誠萬萬驚駭矣. 道臣之以移轉條移施, 而依例給代事狀請者, 誠爲得體, 竝依狀請施行, 裝發之後, 差先差後, 或利泊或失風, 海路事勢, 自來固然, 火燒沈失. 又是船中無妄之災, 則差使員論勘, 未免太過, 該牧判官之不能指導安泊, 登時救護, 亦非險海浦嶼, 所可容人力周旋者, 而災年新到之官, 非罪遞易, 誠爲可悶, 光陽縣監韓師鎭, 濟州判官趙敬日拿處事, 今姑安徐, 使之盡心民事, 以爲戴罪責效之地事, 更爲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정조 20년(1796) 병진년 3월 19일(을축)

▢ 윤시동(尹耆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로 들여보내는 무운(貿運) 및 이전곡(移轉穀)의 침몰된 일의 처리 문제를 논의함

○ 병진년 3월 19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가주서 이영하(李泳夏), 사변가주서 윤명렬(尹命烈),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 우의정 윤시동(尹耆東), 행상호군 이주국(李柱國)·심이지(沈頤之),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병조판서 구익(具鑵),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이조판서

심환지(沈煥之), 형조판서 이조원(李肇源),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이한풍(李漢豊), 개성유수 이면응(李冕膺), 장령 심규로(沈奎魯), 지평 이복윤(李福潤), 헌납 김이교(金履喬), 정언 윤제동(尹悌東), 수찬 김희채(金熙采), 부수찬 윤익렬(尹益烈)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시동이 아뢰기를, "이것은 전라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濟州)로 들여보내는 무운(貿運) 및 이전곡(移轉穀)을 실은 부안(扶安) 등 5개 읍의 배 5척이 불에 타 각종 곡물 1,928섬을 잃고, 사람 1명 또한 익사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배가 출발할 때 동칙(董飭)하지 못하여 5척의 배로 하여금 뒤에 떨어져 바람을 만나 불에 타서 물에 잠기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검칙(檢飭)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허다한 배가 도착하여 정박할 즈음에 기일 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안전한 정박을 이끌지 않았고, 또한 포정(浦丁)을 동칙하여 즉시 구호하지 않아서 배가 뒤집혀 가라앉게 한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 광양현감(光陽縣監) 한사진(韓師鎭)과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내린 무곡(貿穀)은 곧 보통의 격(格)에서 벗어난 특별한 은혜로 침몰하여 잃어버린 것에 뒤섞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동주(同州)에서 수령하는 각 곡물 13,072섬 가운데 10,000섬을 특별히 내린 무운조(貿運條)로 시행하고, 3,072섬은 이전조(移轉條)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곡의 취대(臭載)는 다른 것으로 대신 주는 것이 이미 행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 침몰하여 잃어버린 각 곡물을 대신하여 연해(沿海)의 유고분(留庫分) 중 조금 여유가 있는 곳에서 미리 구획(區劃)하여 처분을 기다려 실어보내는 것을 계획하도록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탐라(耽羅)에 들여보내는 곡물이 화재로 침몰되고, 사람이 1명 바다에 빠졌는데도 구해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관찰사가 이전조로 시행하고, 규례 대로 대신 지급하도록 장계에 요청한 것은 실로 체모(體貌)를 얻은 것입니다. 모두를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곡물을 실어 배가 출발한 후에 조금 앞서고 조금 뒤쳐지는 것과 혹은 이롭게 정박하고 혹은 의외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바닷길의 형세상 본디 그러한 것입니다. 불이 나서 배가 침몰하여 곡물을 잃은 것은 또한 불의의 재난인즉 차사원에 대해 죄상을 논하여 다스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해당 목(牧)의 판관이 안전한 정박을 인도하여 즉시 구호하지 못한 것 또한 험한 바다의 포구나 섬에서 인력이 주선(周旋)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흉년이 든 해에 새로 도임하는 관원에 대해 죄가 아닌 것으로 체직(遞職)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광양현감 한사진과 제주판관 조경일을 잡

아들여 처리하는 것은 지금은 잠시 보류하고, 이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일에 마음을 다하게 하여 그대로 자리에 머물면서 효과를 바랄 수 있도록 다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이전곡, 침몰, 영운차사원, 광양현감, 제주판관, 조경일.

❖ 嘉慶 元年 丙辰 三月 十九日 乙丑

○ 丙辰三月十九日辰時. 上御重熙堂. 左承旨·有司堂上入侍時, 左承旨李勉兢, 假注書洪奭周, 記事官吳泰曾·金履永, 戶曹判書李時秀, 以次進伏訖. …… 上曰, 向以濟州牧折米二千石, 竝以公穀折給事, 出擧條矣. 意外今番運穀之沈燒, 又近二千石, 若兩條, 俱以公穀充定, 則不但官力之難支, 沿民弊瘼, 亦所當念, 沈燒穀則在朝家軫恤之道, 不可不充數輸送, 而至於折米, 則似當有從便闊狹之路, 退以此意, 言于大臣, 使之商量善處, 可也, 時秀先退.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3월 19일(을축)

▢ 배의 화재로 침몰한 제주(濟州) 이전곡(移轉穀) 등에 대해 충당할 방법을 잘 헤아려 선처하라는 전교

○ 병진년 3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좌승지와 유사당상이 입시할 때, 좌승지 이면긍(李勉兢), 가주서 홍석주(洪奭周),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제주목(濟州牧)의 절미(折米) 2,000섬을 모두 공곡(公穀)으로 절급(折給) 하도록 거조(擧條)를 냈다. 뜻밖에 이번에 운반하는 곡물(穀物)이 배의 화재로 침몰한 것이 또한 근 2000석이다. 만약 양조(兩條)를 모두 공곡으로 충정(充定) 한다면 관아의 힘이 지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해(沿海) 백성들의 폐단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침몰한 곡물은 조정이 진휼(賑恤)하는 도리에 있어서 수량을 채워 실어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절미의 경우는 편의에 따라 융통할 길이 있어야 할 듯하다. 물러가서 이런 뜻으로 대신에게 말하여 잘 헤아려 선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먼저 물러났다. 〈하략〉.

△ 주제어: 침몰, 곡물, 충당.

❖ 嘉慶 元年 丙辰 三月 二十日 丙寅

○ 丙辰三月二十日辰時. 上御重熙堂. 都承旨·左承旨入侍時, 行都承旨趙鎭寬, 左承旨李勉兢, 假注書洪奭周, 記事官吳泰曾·金履永, 以次進伏訖. …… 上曰, 禮房承旨入侍. 【出榻敎】 賤臣承命出傳, 右承旨宋銓進伏. …… 上曰, 兪領敦寧, 今已卒逝, 極庸嗟惜, 如此人者, 豈可易得耶? 鍾顯曰, 誠如聖敎矣. 此大臣, 資稟近道, 操履潔白, 且歷險履變, 久而彌堅, 方其疾革, 神氣不亂, 處置後事, 皆鑿鑿中窾云矣. 上曰, 外貌雖若淸弱, 而中心之操守, 則極爲堅確矣. 年前耽羅之事, 予所不得已也. 雖以尊朝體, 重國法之意, 有此處分, 而豈有一毫欲傷損之心乎? 惟此番一事, 爲自家失着處, 而際遇之隆, 則終始無間矣. 鍾顯曰, 當初實狀, 雖緣誤認本事, 而反有乖於以直事君之道, 故自家亦以爲沒身之恨矣. 終始受知, 眞可謂稀世之遭遇也.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3월 20일(병인)

▢ 임금이 영돈녕부사 유언호(兪彦鎬)의 사망을 애도하며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정배(定配)했던 일을 언급함

○ 병진년 3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도승지와 좌승지가 입시할 때,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좌승지 이면긍(李勉兢), 가주서 홍석주(洪奭周),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예방승지는 입시하라."라고 하였다. 【어전에서 하교를 냄】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전했다. 우승지 송전(宋銓)이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152] "영돈녕부사 유언호(兪彦鎬)가 지금 세상을 떠났으니 매우 안타깝다. 이와 같은 사람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민종현(閔鍾顯)[153]이 아뢰기를,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이 대신은 타고난 자질이 도(道)에 가까워 지조와 행실이 결백하고, 또한 험한 일과 변란을 겪으면서도 오래도록 더욱 뜻을 굳게 지켰습니다. 바야흐로 그는 병세가 위중할 때에도 신기(神氣)가 흐트러지지 않아서 뒷일을 처리함에 모두 명확하게 도리에 맞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모는 비록 청약(淸弱)한 듯하였지

152) 이하는 《정조실록》 정조 20년 3월 1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153) 민종현(1745~1798): 본관 여흥(驪興). 자 공기(公紀). 호 한계(寒溪). 시호 문목(文穆).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대사성, 대사헌, 이조판서 역임.

만 마음속의 지조는 매우 확고하였다. 수년 전 탐라(耽羅)의 일[154]은 내가 부득이해서였다. 비록 조정의 체모를 높이고 국법을 중시하는 뜻에서 이러한 처분이 있었지만 어찌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손상시키려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오직 이 한 가지 일만은 자신의 실수였으나 제우(際遇)[155]의 융숭함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민종현이 아뢰기를, "당초의 실상은 비록 본사(本事)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였지만 도리어 곧음[直]으로 임금을 섬기는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 또한 평생의 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종 지우(知遇)[156]를 얻은 것은 참으로 세상에 드문 만남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유언호, 대정현.

154) 수년 전 탐라의 일: 유언호(1730~1796)는 1788년(정조 12) 경종과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옹호하고 영조를 비판한 남인 조덕린(趙德隣)이 복관되자, 이를 신임의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격하였음. 이에 정조의 탕평을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에 풀려났음.

155) 제우(際遇): 임금과 신하 사이에 뜻이 잘 맞음.

156) 지우(知遇): 남이 자신의 인격이나 재능을 알고 잘 대우함.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二日 丁丑

○ 李晉秀,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洪履祚, 遞任進上馬三疋,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三匹馬, 俱爲體小瘦劣, 所見萬萬駭然. 不可諉以災年所致, 而漫無警責, 當該封進前判官洪履祚, 令該府, 拿問勘處, 何如? 傳曰, 分揀,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2일(정축)

▢ 체구가 작고 수척하며 잔열한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봉진(封進)한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에 대해 죄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진수(李晉秀)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157]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하는 일의 체모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3필의 말이 모두 체구가 작고 수척하며 잔열한 것이 보기에 아주 놀랍습니다. 흉년의 소치라고 핑계대어 경책(警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봉진(封進) 전 제주판관 홍이조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고 죄를 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체임진상마, 봉진, 제주판관, 홍이조.

157) 홍이조(1736~?): 본관 남양(南陽). 자 수백(綏伯).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제주판관(1793.6.도임~1795.9.체거).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二日 丁丑

○ 李肇源,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李禹鉉狀啓內, 濟州判官趙敬日罪狀, 令攸司稟處事啓下矣. 趙敬日,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待待命拿囚,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2일(정축)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을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이조원(李肇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장계에,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의 죄상(罪狀)에 대해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 하도록 계하(啓下) 하였습니다. 조경일은 지금 임소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 나장을 보내어 교대한 후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명(待命)[158]하기를 기다려 잡아다 가두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일, 죄상.

158) 대명(待命): 과오가 있는 경우 처분 명령을 기다리는 것.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三日 戊寅

○ 李晉秀, 以備邊司言啓曰, 今四月初三日, 全羅監司徐鼎修上疏, 答曰, 省疏具悉. 春後之特給帑錢綿椒, 準二萬金之數者, 豈不知無於例之特例乎? 大抵沿民之受困, 無異島氓之阻饑, 此所以不顧無例, 不拘恩竭, 抑損常供, 再發帑需者也. 然而沈失條代送與留庫穀物之換給, 俱出不得已, 疏陳民弊旣若此, 言念沿民之怨咨嗟歎, 不聞如聞其聲, 然則如之何爲可? 卽令廟堂, 從長草記稟處, 待批下三懸鈴星火行會, 俾免後時之弊事, 命下矣. 昨今三年, 濟州區劃各穀, 合爲五萬三千五百餘石, 則船粟往哺之恩, 在島民, 固河海如也. 而沿民之運輸駕海, 積受困瘁, 殆無異於島中之荐罹飢荒, 則朝家非不下燭此狀, 軫恤到底, 而只緣守臣狀請, 民情竭急, 不得不隨請許施, 然宵旰之念, 每軫於船運艱苦, 濟校之從便換貿, 耽船之隨出許載, 差員之不令騎船, 穀縮之別下充補, 船費之帑錢另給, 皆所以兼軫島陸民情, 要令彼此俱便之政, 而今者道臣陳疏, 較量排巡恒式, 歷陳貿取事宜, 且請沈失條代送事, 姑許還寢, 全令新牧使, 擔當擧行者, 其必有的見, 便否 指陳, 中窾而然. 且聞島中農形, 牟麥立苗, 大有可望云, 以此以彼, 竝依所請許施, 而但昨年島民戶口之多數減縮, 專由於請穀之不敷, 接濟之失時, 則懲前毖後, 乃至有前後惻怛之敎, 再次發帑之恩, 而沿民愁恤之意, 未嘗不竝行于其中也. 其方便貿入與穀出該邑, 而交付都會等事, 只令未赴任之新牧擧行, 不有道臣之句管, 則過時誤事之患, 勢所必至此, 則該道臣隨事指揮, 趁卽收合, 陸續裝發, 必於麥嶺前, 盡爲運入, 亦令新牧, 趁卽交龜, 一以宣布德意, 一以奠安民生, 又以勸課農務, 無至有如前遷就之弊, 實合事宜, 以此更爲嚴飭于道臣守臣處, 何如? 傳曰, 允. 沈失穀物, 比之昨今年五萬餘包, 無異滄海一粟, 仍爲無論, 前功可惜, 其在一視之意, 爲沿民, 雖不徵給其代, 亦豈可全然置之, 不念虧簣之歎乎? 況命令當信, 則不可以麥事之有望而忽之, 濟州所封朔膳物膳, 加退二朔, 勿封事, 分付守臣,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3일(무인)

▢ 제주(濟州)의 진휼(賑恤)을 위해 침몰되어 잃어버린 곡물(穀物)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전라관찰사가 사안에 따라 지휘하고,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좀 더 일찍이 교구(交龜)하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진수(李晉秀)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4월 3일, 전라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봄이 지난 뒤 특별히 내린

탕전(帑錢)·목면(木綿)·후추는 돈으로는 20,000냥에 준(準)하는 것인데, 어찌 전례에 없던 특별한 사례임을 알지 못하는가? 대저 연해(沿海) 백성들이 받는 곤란은 섬 백성들이 허덕거리며 굶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전례가 없음을 돌아보지 않고, 은혜가 지극한 것을 구애하지 않고 상공(常供)을 줄여 다시 탕수(帑需)를 내어준 것이다. 하지만 침몰되어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과 유고곡(留庫穀)을 환급(換給)하는 것은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상소에서 아뢴 백성들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연해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을 생각하면 듣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좋겠는가?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고,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려 삼현령(三懸鈴)[159]으로 속히 행회(行會)하여 때에 늦는 폐단을 면하게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주(濟州)에 구획(區劃)한 각종 곡물(穀物)은 합이 53,500여 섬이 되니, 배로 곡물을 싣고 가서 먹인 은혜는 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하해(河海)와 같습니다. 하지만 연해 백성들이 곡물을 운송하며 바다를 건너며 받은 쌓인 곤궁함은 섬 안의 거듭된 기황(飢荒)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즉 조정에서는 이런 사정을 살펴서 진휼(賑恤)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가 장계에서 요청한 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사정이 급해서 부득불 요청하는 대로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염려하면서 매번 배로 운송하는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주의 장교가 편리한 대로 환무(換貿)하고, 탐라(耽羅)의 배가 나오는 대로 실어가기를 허락하고, 차원(差員)을 배에 타지 않게 하고, 곡물이 축난 것을 별도로 내려 보충해 주고, 뱃삯으로 탕전을 특별히 지급한 것은 모두가 섬과 육지 백성들의 사정을 아울러 걱정하여 근심한 것으로, 요컨대 피차로 하여금 모두 편하게 하는 정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관찰사가 상소하여 수량을 헤아려 순(巡)을 안배하는 항식(恒式)에 대해 진술하고, 곡물을 사들이는 일의 마땅함에 대하여 차례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침몰하여 잃은 것을 대신하여 보내주도록 한 일을 일단 취소하여 전적으로 신임 목사로 하여금 담당하여 거행하게 하도록 요청하였으니, 거기에는 분명 명확한 소견을 가지고 편부(便否)를 지적하여 개진(開陳)한 것이 법도에 들어맞아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듣건대, 섬 안의 농사형편은 모맥(牟麥)이 입묘(立苗)하여 크게 풍년이 들 가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아울러 요청한 바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작년 섬 백성들의

159) 삼현령(三懸鈴): 공문을 보낼 적에 긴급한 정도에 따라서 봉투에 방울을 다는데, 가장 긴급한 것은 세 개, 그 다음은 두 개, 그 다음은 한 개를 달았음. 때에 따라서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시하기도 하였음.

호구 중 다수가 감축된 것은 오로지 요청한 곡물이 충분하지 못하여 접제(接濟)에 시기를 놓쳐버린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기에, 이전의 잘못을 거울삼아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곧 앞뒤로 불쌍히 여기는 전교와 재차 탕전을 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해의 백성들을 돌보는 뜻을 일찍이 그 가운데에서 아울러 시행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편리한 형편에 따라 사들이는 것과 곡물을 해당 읍에서 내어 도회소(都會所)에 교부하는 등의 일을 다만 아직 부임하지 않은 신임 목사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고 관찰사의 구관(句管)이 없다면, 시기를 놓쳐 일을 그르치는 염려가 형세상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런즉 해당 관찰사가 사안에 따라 지휘하여 좀 더 일찍이 수합(收合)하여 육지에서 계속해서 짐을 꾸려 보내되, 보리가 익기 전에 모두 운송하여 들여보내기를 기필하고, 또한 신임 목사로 하여금 좀 더 일찍이 교구(交龜)하게 하여 한편으로는 덕의(德意)를 널리 펼치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안정되어 편안하게 하면서 또한 농사일을 권장하여 전과 같이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실로 일의 마땅함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관찰사와 목사에게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침몰하여 잃은 곡물은 작년과 금년의 50,000여 포(包)에 비하면 너른 바다 가운데 한 톨의 좁쌀과 다름이 없다. 그대로 거론하지 말라. 앞서 들인 공이 아깝다. 백성들을 똑같이 보는 뜻에 있어서 연해의 백성을 위해 비록 그것을 대신하는 곡물을 징수해서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또한 어찌 완전히 그대로 두어서 휴궤(虧簣)[160]의 탄식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명령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즉 보리농사가 가망이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제주에서 봉진(封進)하는 삭선(朔膳)과 물선(物膳)[161]을 2달 더 물려 봉진하지 말도록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162]

△ 주제어: 진휼, 곡물, 침몰, 삭선, 물선.

---

160) 휴궤(虧簣): 높은 산을 만들면서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않아서 망친다는 뜻.

161) 삭선(朔膳)과 물선(物膳): 삭선은 매달 각 도(道)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진상(進上)하는 토산물임. 물선은 각 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정조(正朝),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탄일(誕日), 별진하(別陳賀) 때 진상하는 토산물임.

162) 이상은 《정조실록》 정조 20년 4월 3일자 기사와 《비변사등록》 정조 20년 4월 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三日 戊寅

○ 全羅監司徐鼎修疏曰, 伏以臣自叨見職, 早夜憂恐, 祗以隨分殫竭, 惟謹奉行, 爲效一日之責, 而今於耽羅移粟事, 有不得不冒昧陳請者, 本州荐歲告飢, 民事孔棘, 仰貽宵旰之憂, 屢勤往哺之命, 冬春泛舟, 千里相銜, 環島生靈, 擧將旣飽旣煖, 出溝壑而奠衽席, 臣仰承若保之德意, 俯循將劉之民情, 思所宣導對揚, 豈或少忽? 第念賑糴有常式, 民口有定摠, 以前後已運之穀, 較諸應受口摠, 準以常行規式, 則排巡繼等, 決知其不至窘乏, 而該守臣加請之擧, 大非臣始料所及, 殆亦事理之外也. 繼又有船隻沈失, 故論列登聞, 以竢處分, 近萬捐帑, 再出格外, 而仍令就沿邑留庫, 分數劃付, 且有沈失穀代送之命. 臣於是, 惴惧罔措, 不知何以爲計, 耽羅雖隔海, 亦管內屬邑, 其所救拯, 卽臣職分, 豈以島陸有間, 而酌量彼此事情, 陸民之積受困瘁, 未始不若島民之荐罹饑荒, 每有一番轉輸, 輒加一層民弊, 而連年海運, 百弊俱滋, 且沿浦倉儲, 見皆枵然, 今若一準島請, 畢輸乃已, 則非但行之不得, 誠恐公私竝竭, 主客俱弊而止. 爲今之計, 沈失代送, 姑許還寢, 以紓一分民力, 至於留庫推移, 折半區劃之數, 雖已飭各邑, 準斛出給, 其餘折半, 若使陸民, 換貿輸送, 其弊便一移轉. 依昨冬貿穀例, 付之該牧, 分送裨校, 得以方便, 貿入船運一事, 尤係難言之弊, 該牧使方住靈巖都會所, 本州船舶, 且多來泊, 使穀出該邑, 只爲交付於都會所該牧使所住處, 則涉海之便, 島船勝於陸船, 而亦可謂順付除弊. 昨今年沿民偏苦, 臣實見聞, 而唯知趨承爲恭, 不思據實一陳, 仰請明命, 非所以體我聖上一視均惠之道, 玆敢不揆猥屑, 仰瀆崇聽. 伏乞聖明, 俯垂鑑諒, 特許採施使已竭之民勢, 不至重困, 千萬幸甚,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春後之特給帑錢綿椒準二萬金之數者, 豈不知無於例之特例乎? 大抵沿民之受困, 無異島氓之阻饑, 此所以不顧無例, 不拘恩竭, 抑損常供, 再發帑需者也. 然而沈失條代送, 與留庫穀物之換給, 俱出不得已, 疏陳民弊, 旣若此, 言念沿民之怨咨嗟歎, 不聞如聞其聲. 然則如之何爲可? 卽令廟堂, 從長草記稟處, 待批下, 三懸鈴星火行會, 俾免後時之弊.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3일(무인)

▢ 제주(濟州)의 기근으로 곡물(穀物)을 운반하고 나눠주는 문제에 대해 올린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상소(上疏)

○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가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현재의 직임을 맡은 이후로 밤낮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다만 분수에 따라 힘을

다하여 오직 삼가 봉행(奉行)하여 하루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탐라(耽羅)에 곡물(穀物)을 옮기는 일에는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진청(陳請)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주(本州)는 해를 거듭하며 기근을 알려와 백성들의 일이 아주 곤궁하게 되었기에 밤낮으로 근심하는 근심을 끼쳤고, 누차 곡물을 싣고 가서 먹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겨울과 봄에 배를 띄워 천 리 먼곳을 도와 품게 하였으니, 온 섬의 백성들은 모두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죽어 도랑을 메우는 지경에서 나와 일상적인 생활을 안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은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한다는 덕음(德音)을 받들고 장차 죽으려는 백성들의 사정을 어루만지며 선도(宣導)하며 임금의 뜻을 널리 드러낼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어찌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진적(賑糴)에는 상식(常式)이 있고 민구(民口)에는 정해진 총수가 있기에 전후에 이미 운송한 곡물을 가지고 응당 받아야 할 민구의 총수에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규식으로 준한다면 배순(排巡)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곤궁하여 결핍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목사가 곡물을 더 요청한 일은 크게는 신의 처음 생각이 미친 바가 아니니 또한 사리(事理)를 벗어난 것인 듯합니다. 이어서 또 배가 침몰하여 곡물을 잃어버렸고, 때문에 논열하여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려 근 10,000냥의 탕전(帑錢)을 격외(格外)로 내주고, 이어서 연읍(沿邑)의 유고(留庫)로 수량을 나누어 획부(劃付)하였으며, 또 침몰하여 잃어버린 곡물을 대신하여 보내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신은 이에 대해 허둥지둥하면서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탐라는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또한 관내에 속한 읍이기에 그곳을 구제하는 것은 곧 신의 직분이니 어찌 섬과 육지에 차이를 두겠습니까? 하지만 피차의 사정을 헤아려보면 육지 백성들이 누적되어 받는 곤궁함은 일찍이 섬 백성들이 거듭 겪는 기근과 같지 않음이 없습니다. 매번 한 번 곡물을 운송할 때마다 문득 한층 민폐를 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해마다 바다로 운송하면서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포(沿浦)의 창고에 쌓인 것은 현재 모두 텅비어서 지금 만약에 섬에서 요청한 것을 한결같이 준해서 운송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야 그친다면, 시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로 공사(公私)가 아울러 다하여 주객이 모두 피폐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침몰하여 잃어버린 곡물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을 잠시 중단하여 조금이라도 민력(民力)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유고곡(留庫穀)을 변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절반을 구획하는 숫자를 비록 이미 각 읍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섬수[斛]에 준해서 내도록 하였지만, 그 나머지 절반을 육지 백성들이 환무(換貿)하여 수송하게 한다면 그 폐단은 곧 똑같이 연포의 창고에 있는

것을 옮겨보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곡물을 사들였던 사례에 의거하여 이것을 해당 목(牧)에 부쳐서 비장(裨將)과 장교(將校)에 나누어 보낸다면 방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곡물을 사들여 배로 운송하는 한 가지 일은 더욱 말하기 어려운 폐단에 관계됩니다. 해당 목사가 지금 영암(靈巖) 도회소(都會所)에 있고, 본주의 배가 또한 많이 와서 정박해 있으니, 곡물을 내는 해당 읍으로 하여금 단지 도회소의 해당 목사가 거처하는 곳에 교부하게 한다면, 바다를 건너는 편리함이 섬의 배가 육지의 배보다 낫고 또한 가는 편에 부쳐 폐해를 제거하였다고 이를 만합니다. 작년과 금년 연해(沿海) 백성들이 치우치게 고생하는 것을 신이 실제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달려가 받드는 것을 공손한 것으로 알고, 사실에 근거해서 한 번 아뢰어 명명(明命)을 요청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성상이 백성들을 똑같이 보아 고르게 은혜를 베푸는 도리를 본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헤아리지 않고 우러러 숭청(崇聽)을 더럽힙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살펴 특별히 채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고갈된 백성들의 형편이 거듭 곤궁하지 않게 한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봄이 지난 뒤 특별히 내린 탕전·목면(木綿)·후추는 돈으로는 20,000냥에 준(準)하는 것인데, 어찌 전례에 없던 특별한 사례임을 알지 못하는가? 대저 연해 백성들이 받는 곤란은 섬 백성들이 허덕거리며 굶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전례가 없음을 돌아보지 않고, 은혜가 지극한 것을 구애하지 않고 상공(常供)을 줄여 다시 탕수(帑需)를 내어준 것이다. 하지만 침몰되어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과 유고곡을 환급(換給)하는 것은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상소에서 아뢴 백성들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연해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을 생각하면 듣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를 어찌해야 좋겠는가?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초기(草記)하여 품처(稟處)하고,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려 삼현령(三懸鈴)으로 속히 행회(行會)하여 때에 늦는 폐단을 면하게 하라."라고 하였다.[163]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상소, 곡물, 운송, 폐단.

163) 이상은《정조실록》정조 20년 4월 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四日 己卯

○ 丙辰四月初四日辰時, 上御春塘臺. 抄啓文臣親試入侍時, 行右承旨李益運, 左副承旨洪義浩, 右副承旨李肇源, 假注書任俊常, 記注官金良儁, 記事官馬思人[馬思仁], 直閣李始源, 以次侍立. …… 上曰, 濟州船穀事, 何以行會耶? 薈東曰, 爲島民捐帑, 實是前古所無之惠政, 而沿民之荐歉失業, 亦不下島民, 則今爲略干沈失之穀, 又捐列郡之公穀, 其勢不可不念, 道臣疏請, 言甚切實, 依其所請, 卽爲行會矣. 上曰, 濟州新牧, 何日當渡海耶? 薈東曰, 料理穀物後, 可以治發云. 上曰, 明日當爲次對日次, 而卿旣入來, 如有稟定之事, 須於此筵陳奏也. 薈東曰, 濟州貢馬, 在本場時, 擧皆體健有步趣, 及當進貢之際, 必値盛炎, 動軍驅捉, 馬群雜沓, 橫跳亂蹴, 牝者落雛, 雄者致傷, 各場馬額之漸縮, 未必不由於此, 而及其乘船下陸, 病疲無餘地, 至於驅策上京, 則非久輒多致斃, 否亦駑劣不可用, 誠爲可惜. 牧使每年秋, 例爲歷巡, 而點馬爲大政, 自今年定式, 每場各十匹, 驅點時擇取, 令場監與牧子, 刈草而喂養, 過冬待時進貢, 則牛島外十三場, 當得一百三十匹熟馬, 性氣旣馴, 飮齕如常, 雖駕海登程, 決無無端生病之理, 島中事情, 則無甚爲難, 進貢事體則在所當然, 而又除調發時諸般官民之弊, 驅捉時馬群減縮之患, 臣曾待罪本牧, 略知其便否, 且採島民解事者之言. 今因言端而仰達, 以此出擧條, 申飭于耽羅守臣處, 使之惕念擧行, 亦以形止先卽狀聞事, 竝爲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4일(기묘)

▢ 윤시동(尹蓍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배로 곡물(穀物)을 운송하는 일과 제주 공마(貢馬)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병진년 4월 4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로 나아갔다. 초계문신 친시 에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좌부승지 홍의호(洪義浩), 우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임준상(任俊常),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마사인(馬思仁), 직각 이시원(李始源)이 차례로 시립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에 배로 곡물(穀物)을 운송하는 일은 어떻게 행회(行會)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섬 백성을 위해서 탕전(帑錢)을 낸 것은 실로 예전에는 없던 은혜로운 정사이고, 연해(沿海) 백성들이 거듭된 흉년으로 생업을 잃은 것 또한 섬 백성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즉 지금 배가 침몰하여 잃어버린 약간의 곡물을 또 열군(列郡)의 공곡(公穀)으로 내게 하는 것은 그 형세상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찰사가 상소에서 요청하여 말한 것이 심히 절실하니,

그가 요청한 대로 즉시 행회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는 언제 바다를 건너도록 해야겠는가?”라고 하였다. 윤시동이 아뢰기를, “곡물을 잘 마련한 후에 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이 차대(次對)하는 날인데, 경이 이미 들어왔으니 나에게 물어 정할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이 연석(筵席)에서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윤시동이 아뢰기를,[164] “제주의 공마(貢馬)는 본 목장에 있을 때는 거의 모두가 건강하고 보취(步趣)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공(進貢)을 당한 때는 반드시 무더운 계절을 만나서 군사를 동원하여 몰아잡기에, 말떼가 많이 몰려 북적거려 복잡한 가운데 제멋대로 날뛰며 어지러이 발길질을 하여 암말은 유산하고, 수말은 상처를 입으니, 각 목장의 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필시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육지에 내림에 미쳐서는 여지없이 병이 들어 야위고, 채찍으로 몰면서 서울로 올라오면 오래지 않아서 문득 다수가 죽게 되든지 아니면 또한 노열(駑劣)하여 쓸 수가 없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목사는 매년 가을 으레 순력하면서 말을 점검하는 것을 큰 정사로 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정식(定式)으로 삼기를 매 목장마다 각 10필을 말을 몰아 점검할 때 가려 뽑아 목장의 감관(監官)과 목자(牧子)로 하여금 풀을 베어다 먹여 겨울을 지나 때를 기다려 진공하게 한다면 우도(牛島) 외 13개 목장에서 130필의 숙마(熟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질이 이미 길들여지고, 먹는 것이 평상과 같아서 비록 배를 타고 건너는 길에 오르더라도 결코 이유없이 병이 날 이유가 없게 되어 섬 안의 사정은 심히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진공하는 사체(事體)는 마땅히 그러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징발할 때 제반 관민의 폐해와 몰아서 잡을 때 말떼가 감축하는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제주목사로 근무하면서 대략 그것이 편한 지의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섬 백성 중에 일을 잘 아는 자의 말을 들었기에 지금 말이 난 김에 아룁니다. 이것으로 거조(擧條)를 내어 탐라(耽羅)의 목사에게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게 하고, 또한 그 전말을 즉시 장계로 보고하도록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곡물, 운송, 목장, 공마, 정식.

164) 이하는 《정조실록》 정조 20년 4월 4일자 기사와 《비변사등록》 정조 20년 4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五日 庚辰

○ 李晉秀啓曰, 凡於擧條, 以職事稟達者, 隨其職名書塡, 自是格例, 而今此濟州貢馬事擧條中, 職名不以該寺提調書塡, 誤以右議政書入, 有違格式, 事甚未安, 臣之矇然捧入, 不勝惶恐, 當該注書, 所當重勘,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 傳曰, 捧納承旨推考, 當該注書拿處.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5일(경진)

▢ 제주(濟州) 공마(貢馬)의 일에 관한 거조(擧條)에 직명을 해당 시(寺)의 제조로 써넣지 않은 주서(注書) 등에 대한 처리를 청하는 이진수(李晉秀)의 계

○ 이진수(李晉秀)가 아뢰기를, "무릇 거조(擧條)에 대해 직사(職事)로써 아뢰는 것은 그 직명(職名)을 따라서 써넣는 것이 본래 격식으로 되어 있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주(濟州) 공마(貢馬)의 일에 관한 거조 중에는 직명을 해당 시(寺)의 제조로 써넣지 않고 우의정으로 잘못 써 넣어 격식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일이 매우 송구합니다. 신이 어리석게 거둬들였으니 황공함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서(注書)를 마땅히 중벌에 처해야 하는데, 본원(本院)의 추문(推問) 외에 달리 시행할 벌이 없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거두어 바친 승지를 추고(推考)하고, 해당 주서를 잡아다 처리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거조, 공마, 주서, 추문.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八日 癸未

○ 獻納韓興裕疏曰, …… 嗚呼, 比年以來, 耽羅船粟之哺, 殆無虛歲, 島陸俱困, 接濟罔涯. 卽伏見湖南伯疏本, 則其所爲沿民陳弊, 非不纖悉, 而此不過目下燃眉之救急而止耳. 臣嘗待罪南邑, 略知此弊, 爲南民切骨之瘼矣. 朝家之區劃沿穀, 送作島賑者, 必取其精實無縮. 故當其裝送之際, 取留庫中穀物, 簸之揚之, 精而又精, 及其入島之後, 準斛而捧之, 殆如上納之物, 船人逋縮, 甚至鬻船, 蓋其一石所縮, 小不下七八斗, 百石區劃, 縮居其半, 許多所縮, 邑倅無以自當, 營門莫可區處, 其勢不得不分定於民結, 以充其數. 今年如此, 明年又如此, 沿海人民, 若聞濟州飢荒, 則輒蹙頞相告曰, 薄田所收, 何以當濟穀之縮乎? 似此民情, 不待臣言, 我聖上亦可以察燭而憫憐之矣. 救弊之道, 非有別法, 不過申明舊典而已, 湖邑倉籍, 有交濟穀名色, 此所以備他道之荒也. 此糴穀品, 比諸衙門所管, 精麤迥異, 設法之初, 以此糴濟彼荒, 斛準而品精, 如干所縮, 不過一二斗, 官備不難, 民徵無多, 數十年以來, 長吏不飭, 姦胥恣弄, 其麤其縮, 與凡糴無異, 今若更申舊令, 凡以交濟穀爲名者, 開倉之初, 別加察飭, 務捧精實, 如有不時移轉之擧, 則以此穀需此用, 官無簸揚之費, 穀無欠縮之患, 民無分徵之苦, 此在一號令申飭間事耳. 若其交濟穀不敷處, 又以他衙門所管者, 移作此箇名色, 則當其精穀捧入之時, 民或不便, 而及其濟穀移送之時, 民乃知惠, 其間節目之詳, 操切之嚴, 惟在道守臣奉行之勤慢, 臣不必煩陳, 伏願殿下, 分付廟堂, 另飭該道, 俾有實效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 附陳穀物事, 問于廟堂, 爾其勿辭察職.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8일(계미)

▢ 호남(湖南) 읍의 창(倉)에 있는 교제곡(交濟穀)을 정비하여 불시에 이전(移轉)하는 일에 대비할 것 등을 청하는 헌납 한흥유(韓興裕)의 상소(上疏)

○ 헌납 한흥유(韓興裕)[165]가 상소(上疏)하기를, "〈상략〉 아! 근년 이래 탐라(耽羅)에 배로 곡물을 싣고 가서 먹이는 일이 거의 없는 해가 없으니, 섬과 육지가 모두 곤궁해져 살아 나갈 방도를 세우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방금 호남(湖南)의 관찰사가 올린 소본(疏本)을 보니, 연해(沿海) 백성을 위하여 아뢴 폐단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 눈썹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매우 급하

165) 한흥유(1749~?): 본관 청주(淸州). 자 여수(汝秀)·사흥(士興).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장령, 함평현감, 대사간 역임.

게 닥친 재난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은 일찍이 남읍(南邑)의 수령[166]을 지냈기 때문에 대략 이러한 폐단이 남쪽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폐막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연해의 곡물을 구획하고 보내어 섬의 진자(賑資)로 삼는 것은 반드시 정실(精實)하여 축남이 없는 것을 취합니다. 때문에 짐을 꾸려 보낼 때에는 유고(留庫) 중의 곡물을 가져다 키질을 하여 쭉정이나 겨를 날려서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섬에 들어간 후에는 섬수[斛]에 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의 상납하는 곡물과 같게 하니, 뱃사람들이 포탈(逋脫)하여 축을 낸 경우는 심지어 배를 팔기까지 합니다. 대개 1섬에서 축이 나는 것은 적어도 7,8말을 내려가지 않는데, 100섬의 구획에서 축나는 것은 그 절반을 차지합니다. 허다하게 축난 것을 읍의 수령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영문(營門)은 변통하여 처리할 수 없어 형세상 부득불 민결(民結)[167]에 나누어 정하여 그 수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이와 같고, 내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니, 연해 백성들이 만약에 제주(濟州)의 기근 소식을 들으면 문득 눈살을 찌푸리며 서로에게 말하기를, '메마른 밭에서 수확한 것으로 어떻게 제주 곡물이 축난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사정은 신의 말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우리 성상 또한 밝게 비추어 살펴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법이 있지 않으니, 구전(舊典)을 거듭 밝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호남 읍의 창적(倉籍)에는 교제곡(交濟穀)이라는 명색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도(道)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적곡(糴穀)의 품질은 여러 아문이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정실한 것과 거친 것이 아주 다릅니다. 법을 설치한 처음에는 이곳의 적곡으로 저곳의 흉년을 구제하였는데, 섬수가 갖추어지고 품질은 정실하였으며, 약간 축나는 것은 1,2말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관에서 갖추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면서 수령이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지 않아서 간사한 서리들이 방자하게 농간하여 그 거칠어지고 축난 것이 범적(凡糴)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옛 법령을 거듭하여, 무릇 교제곡으로 이름하는 것을 개창(開倉)한 처음처럼 특별히 살피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며, 힘써 정실한 것을 거둬들여 불시에 이전(移轉)하는 일이 있을 때 이 곡물을 가지고 이러한 용도에 사용한다면, 관에는 키질을 하는 비용이 없어지고 백성에게는 나누어 징수하는 고통이 없을 것이니, 이러한 것은 한번 호령하여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

166) 남읍(南邑)의 수령: 한흥유는 1793년(정조 17) 7월 전라도 함평현감(咸平縣監)에 제수되었음.
167) 민결(民結): 일반 백성이 소유한 전지의 결수(結數).

는 사이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교제곡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또한 다른 아문이 관리하는 것을 옮겨 이러한 명색을 만든다면, 정곡(精穀)을 거둬들일 때를 당해서 백성들이 혹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교제곡을 이송할 때에 미쳐서는 백성들이 곧 은혜로움을 알 것입니다. 그 사이 절목의 상세함과 단속의 엄함은 오직 관찰사와 목사가 받들어 행하는 것에 대한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있으니, 신은 번거롭게 아뢰지 않겠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묘당에게 분부하여 해당 도를 특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실효가 있게 하십시오. 신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중략〉 덧붙여 진달한 곡물의 일은 묘당에게 물어보겠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흥유, 상소, 호남, 창적, 교제곡.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八日 癸未

○ 丙辰四月初八日寅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黃昇源, 行左承旨李書九, 左副承旨洪義浩, 同副承旨李晉秀, 假注書尹致永·具得魯, 記注官安經心·金良偶, 檢校待敎徐有榘, 以次進伏訖. …… 義浩曰, 日前金吾草記, 濟州判官趙敬日, 拿來事, 有待待命拿囚之命, 而判官係是面看交代之窠, 差代然後, 始可待命云, 故敢此仰達矣. 上曰, 令該曹, 差代, 可也. 【出擧條】…….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8일(계미)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을 차대(差代)한 연후에 잡아오기를 청하는 홍의호(洪義浩)의 계

○ 병진년 4월 8일 인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황승원(黃昇源), 행좌승지 이서구(李書九), 좌부승지 홍의호(洪義浩), 동부승지 이진수(李晉秀), 가주서 윤치영(尹致永)·구득로(具得魯), 기주관 안경심(安經心)·김양척(金良偶),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홍의호[168]가 아뢰기를, "일전에 의금부의 초기에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을 잡아오는 일과 관련하여 대명(待命)[169]을 기다려 잡아다 가두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관은 곧 면간교대(面看交代)[170]하는 자리여서 차대한 연후에야 비로소 대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일, 차대.

---

168) 홍의호(1758~1826): 본관 풍산(豊山). 자 양중(養仲). 호 담녕(澹寧). 시호 정헌(正憲).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저서 《담녕집》, 《청구시지(靑丘詩誌)》.

169) 대명(待命): 과오가 있는 경우 처분 명령을 기다리는 것.

170) 면간교대(面看交代): 서로 마주 보는 자리에서 사무를 넘겨주고 넘겨받음.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十一日 丙戌

○ 丙辰四月十一日卯時, 上御重熙堂. 諸承旨持公事入侍時, 左副承旨李肇源, 記事官柳遠鳴, 記注官金良僩, 記事官吳泰曾, 以次進伏訖. …… 上曰, 近因多事, 未及從容召接, 詳問湖南民事矣, 珍島邑事, 幾年可以蘇弊乎? 書九曰, 再昨秋歉荒, 大抵挽近所無, 而昨年以後, 屢煩蠲恤之惠澤, 卽今民勢, 雖未知何如? 而年限則未敢預期矣. 上曰, 麥事何如云耶? 書九曰, 湖南專種秋牟, 左道山郡若而處, 或種春牟, 而近聞本道消息, 右沿茂長以下諸邑, 僅免大無, 而其餘則皆將判歉云, 誠甚悶然矣. 上曰, 麥事又如此, 豈不悶甚乎? 書九曰, 牟還似難準捧矣. 上曰, 然則勢必以作租爲請矣. 書九曰, 此外, 雖無他策, 而秋成姑難預知, 民事貴在備豫, 作租亦不過紓力之計而已, 況今耽羅移粟之後, 一路穀簿, 漸益枵然, 是尤悶念處矣. 上曰, 羅里浦倉, 若在臨陂, 則移轉之弊, 或不至如此乎, 羅里穀之耗縮, 專由於涼藿之不能準輸, 卽今未捧條, 果爲幾許耶? 書九曰, 甲寅移轉後, 涼藿則因本牧狀請, 旣有停退之命, 其前則, 別無未收條矣. 大抵該倉在臨陂時, 地方官主管, 故積弊漸生, 穀簿太縮, 近年則, 自監營句管矣. 丁未因濟州武臣金貴澤所懷, 始移羅州, 而其實則羅浦穀, 有名無實, 卽今會付者, 未滿千石, 而此亦年前道臣鄭民始, 爲營邑監色放料之資, 以常賑穀, 報京司劃付者也. 又有監營句管添船價條, 通稱羅浦穀, 其數爲數萬石, 而此則每年耗條, 或移作蕩債, 各有需用之處, 移轉則無年不有, 亦將有難支之慮矣.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11일(병술)

▢ 임금이 호남(湖南) 백성들의 형편을 묻는 자리에서 나리포창(羅里浦倉)의 실상을 아뢰는 이서구(李書九)의 계

○ 병진년 4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기사관 유원명(柳遠鳴),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기사관 오태증(吳泰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미처 조용히 불러 만나서 호남(湖南) 백성들의 일을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다. 진도읍(珍島邑)의 일은 몇 년이면 폐단에서 소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재작년 가을의 흉년은 대저 몇해 전부터 최근까지 없던 바로, 작년 이후 여러 차례 견휼(蠲恤)하는 혜택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한지 모르겠고, 연한(年限)은 감히 미리 기약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보리농사는 어떻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호남은 오로지 가을보리만 심는데, 좌도(左道)의 산군(山郡) 약간의 곳에는 혹 봄보리를 심기도 합니다. 근래에 본도(本道)의 소식을 들으니, 우연(右沿)의 무장(茂長) 이하 제읍(諸邑)은 겨우 큰 흉년을 면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장차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니 실로 심히 민망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보리농사가 또 이와 같으니 어찌 민망함이 심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모환(牟還)은 수량대로 거둬들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형세상 필시 종자 벼 마련을 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이것 외에는 비록 다른 계책이 없다고는 하나 추성(秋成)을 일단은 미리 알기가 어렵고, 백성들의 일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자 벼 마련은 또한 백성들의 힘을 조금 느슨하게 해 주는 계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탐라(耽羅)로 곡물을 운송한 후에는 일로(一路)의 곡부(穀簿)가 점점 더 텅 비게 되었으니, 이것이 더욱 민망하고 염려가 되는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리포창(羅里浦倉)이 만약에 임피(臨陂)에 있었다면 이전(移轉)하는 폐단이 혹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리포창의 곡물이 줄어든 것은 전적으로 양태[涼臺]와 미역을 수량대로 운송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 지금 거둬들이지 못한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갑인년에 이전한 후에 양태와 미역은 본목(本牧)의 장청(狀請)으로 인해 이미 정퇴(停退)하라는 명이 있었고, 그 전에는 달리 거둬들이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대저 해당 창(倉)이 임피에 있을 때 지방관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적폐(積弊)가 점차 발생하여 곡부가 크게 줄어들어 근년에는 감영에서 구관(句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년에 제주(濟州) 무신 김귀택(金貴澤)[171]의 소회(所懷)로 비로소 나주(羅州)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나리포창의 곡물은 유명무실하여 현재 회부(會付)된 것은 1,000섬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것 또한 몇 해 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영읍(營邑) 감색(監色)의 급료를 지급하는 밑천으로 삼았기에 상평청과 진휼청의 곡물로 경사(京司)에 보고하여 획부(劃付)한 것입니다. 또 감영이 구관하여 배삯에 보태는 조(條)가 있어 나리포창의 곡물로 통칭되는데, 그 수량이 수만 섬이 됩니다만 이것은, 매년 모조(耗條)는 혹은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이작(移作)하거나 각기 쓸 곳이 있고, 이전하는 것은 없는 해가 없으니, 또한 장차 지탱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호남, 보리농사, 나리포창.

171) 김귀택(1758~?): 본관 김해(金海). 1783년(정조 7) 무과 급제. 황해도 옹진 우후(虞候) 역임.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十五日 庚寅

○ 李晉秀,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南涑,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允.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15일(경인)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진수(李晉秀)가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남속, 체임진상마, 별단.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二十日 乙未

○ 丙辰四月二十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提調沈頤之, 副提調趙尙鎭, 左副承旨李肇源, 假注書閔命爀, 事變假注書金鎰, 記注官金良僩,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右議政尹耆東, 行上護軍金持默·李柱國, 行禮曹判書閔鍾顯, 行大護軍李秉鼎·李敬懋, 戶曹判書李時秀, 水原留守趙心泰, 刑曹判書李祖源, 行護軍徐有大·李漢豐, 副應敎李明淵, 以次進伏訖. …… 秉鼎曰, 關東穀簿, 自來不敷, 實無從他區劃之策, 通一道之穀, 不能當羅州一邑矣. 故重臣金鍾正, 請得備局句管穀五萬石, 每年取耗五千石, 以補不足之用, 而每年用下, 不下一萬五六千兩, 勢不得不犯用元穀. 故不過十餘年, 元穀已盡. 船稅番錢之先爲取用, 卽前道臣徐鼎修, 請得於備局者, 而此不過補漏封罅之計, 而亦難支久矣. 耆東曰, 此政如羅里舖之事, 蓋羅里舖, 卽故相臣金昌集·趙泰采之建請設置於公州者, 而羅里舖, 卽公州地名也. 當初因湖西還穀之不敷, 有此設施, 不出十年, 穀簿大贏, 幾至十餘萬石, 一道之蒙惠甚廣, 其後因濟州之連歲告饑, 以此爲交濟之資, 移設於臨陂. 又其後, 移設於羅州, 羅里舖之名, 仍而不改, 羅里舖之穀, 殆乎無餘, 三南穀富之地, 尙患如此, 況以嶺東瘠鹵之地, 實無生穀之道, 當待新道伯詳細更報, 而終未思區處之善策矣. 上曰, 一向任置, 亦悶然. 此與關西銀貨之逐歲耗盡, 亦無異矣.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20일(을미)

▢ 관동지방의 곡물 수량 감소에 대해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제주(濟州)의 기근으로 바닥이 난 나리포(羅里舖)의 사례를 듦

○ 병진년 4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제조 심이지(沈頤之), 부제조 조상진(趙尙鎭),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민명혁(閔命爀), 사변가주서 김일(金鎰),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 우의정 윤시동(尹蓍東),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이주국(李柱國),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행대호군 이병정(李秉鼎)·이경무(李敬懋),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 형조판서 이조원(李祖源),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 부응교 이명연(李明淵)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정[172]이 아뢰기를, "관동(關東)의 곡부(穀簿)는 본래 충분하지 못합니다. 실로 다

른 곳에서 구획(區劃)할 계책이 없으니, 한 도(道)를 통틀은 곡물이 나주(羅州) 한 읍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중신(重臣) 김종정(金鍾正)이 비국이 구관(句管)하는 곡물 50,000섬을 얻어서 매년 모곡(耗穀) 5,000섬을 취하여 부족한 재용을 보충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매년 비용으로 내어주는 것이 15,000~16,000냥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형세상 원곡(元穀)을 범용(犯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불과 10여 년만에 원곡이 이미 다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선세(船稅)와 번전(番錢)을 먼저 가져다 쓰는 것은 곧 전 관찰사 서정수(徐鼎修)가 비국에 요청한 것으로, 이것은 새는 것을 막고 틈을 봉하는 계책에 불과한 것이어서 또한 지탱하기 어렵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윤시동이 아뢰기를, "이것은 정말로 나리포(羅里舖)의 일과 같습니다. 대개 나리포는 곧 고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173]·조태채(趙泰采)[174]의 건의에 의해 공주(公州)에 설치한 것으로, 나리포는 곧 공주의 지명입니다. 당초 호서지방의 환곡이 충분치가 않아서 이러한 시행이 있었는데,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곡부가 크게 넘쳐 거의 10여 만 섬에 이르게 되어 한 도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 후 제주(濟州)가 해마다 기근을 알려옴에 따라 이것으로 교제곡(交濟穀)의 밑천으로 삼아 임피(臨陂)로 이설하였습니다. 또 그 후 나주로 이설하였는데, 나리포라는 명칭은 그대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리포의 곡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삼남(三南)은 곡물이 풍부한 지방인데도 오히려 근심이 이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영동(嶺東)과 같이 척박한 지방은 실로 곡물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마땅히 신임 관찰사가 상세하게 재차 보고하는 것을 기다려야겠지만 끝내 변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결같이 임치(任置)하는 것 또한 민망한 노릇이다. 이는 관서지방의 은화가 해마다 줄어서 다 없어지는 것과 또한 다름이 없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관동, 곡부, 나리포, 교제곡.

---

172) 이병정(1742~1804): 본관 전주(全州). 자 이중(頤仲). 호 이암(彝菴).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한성판윤, 예조판서, 함경감사 역임.

173) 김창집(1648~1722): 본관 안동(安東). 자(字) 여성(汝成). 호(號) 몽와(夢窩). 1684년(숙종 10) 문과 급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역임.

174) 조태채(1660~1722): 본관 양주(楊州). 자 유량(幼亮). 호 이우당(二憂堂). 1686년(숙종 12) 문과 급제. 한성부판윤, 판의금부사, 좌의정 역임.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二十五日 庚子

○ 幼學禹夏永疏曰, 伏以臣一介蝘蜓之微也. 窮居草野, 塡迫溝壑, 而未暇魯緯之恤, 妄懷杞天之憂, 每想古人之獻芹, 未嘗不撫躬自悼曰, 一段忠愛, 人所同得於彝性者, 而吾何獨無所獻於吾君也? 迺於食息之暇, 略具狂瞽之見, 名之曰千一錄, 蓋謂千慮之或有一得也, 抱篋彷徨, 恒切耿結. 今我殿下, 遇災修省, 渙發詢蕘之聖教, 警惕之誠, 求助之旨, 藹然於十行絲綸, 爰咨宰輔, 至于末之黎庶, 俾各條陳其素蘊, 恩綸所頒, 跛躄咸聳, 莫不欲效杪芒而贊日月. 念臣一身, 猶是聖朝陶甄中物, 旣有平日之所輯錄, 則終不敢泯默, 略爲抄刪, 裒成冊子, 妄效應旨之具, 惟聖明垂察焉. …… 省疏具悉. 爾所陳十有三條, 皆關民國之實用, 爾必抱才莫達之人也. …… 耽羅條, …… 令廟堂草記.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25일(경자)

▢ 탐라(耽羅)에 관한 조목을 포함하여 백성과 나라의 실용에 관계된 13가지 조목을 진달(陳達)하는 유학 우하영(禹夏永)의 상소(上疏)

○ 유학 우하영(禹夏永)[175]이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일개 벌거벗은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초야에 궁핍하게 살아가며 구렁에 전박(塡迫)하면서 노(魯)나라 과부가 베를 짜는 씨줄을 걱정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176] 망령되게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하는 근심[177]을 품고, 매양 옛 사람이 미나리를 바친 고사[178]를 생각하며 일찍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일단(一段)의 충애(忠愛)는 사람들이 똑같이 타고난 본성에서 얻은 것인데, 나만 어찌 홀로 우리 임금에게

---

175) 우하영(1741~1812): 본관 단양(丹陽). 자 대유(大猶). 호(號) 취석실(醉石室). 경기도 수원 출신. 초시(初試)에 12회나 합격하였으나 회시(會試)에는 번번이 낙방하여, 농사에 종사하며 학문에 힘썼음. 옛 문헌과 당대 제가들의 논설을 널리 읽고 수집하여 국가·사회의 경영 및 개혁 방안을 종합한 《천일록》을 저술하였음. 1796년(정조 20) 조정의 구언교서(求言敎書)가 내리자 우하영은 이를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바쳤다

176) 노(魯)나라 과부가 …… 걱정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4년 기사에, "과부가 베를 짜는 씨줄이 끊어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서 주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하였다[嫠不恤其緯 而憂宗周之隕]"라고 하였음.

177)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하는 근심: 중국 기(杞)나라에 살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여 침식을 잊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뜻임.

178) 미나리를 바친 고사: 옛날 어느 농부가 미나리를 천하에 제일가는 진미(珍味)로 여겨 토호(土豪)에게 바쳤다는 헌근(獻芹)의 고사가 있다(《列子 楊朱》).

바칠 것이 없는가?'라고 하며 스스로 서러워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먹고 숨쉬는 겨를에 미치광이와 장님과 같은 소견을 대략 갖추어 이름 하기를, '천일록'이라 하였습니다. 대개 천 가지 생각 중에 혹 하나의 얻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상자를 안고 이리저리 헤매어 돌아다니면서 항상 간절하게 잊지 않고 마음에 품어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는 재이(災異)를 만나 마음을 가다듬어 반성하며 나무꾼에게도 자문을 구하는 성교(聖敎)를 천하에 널리 선포하였으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정성과 도움을 구하는 뜻이 10행의 윤음에 가득합니다. 이에 재보(宰輔)에게 묻고, 말단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평소에 품은 생각을 조목조목 진달하게 하였습니다. 은혜로운 윤음이 반포된 바, 절름발이와 앉은뱅이도 모두 껑충 뛰며 초망(杪芒)을 본받고 일월(日月)을 도우려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생각건대, 신의 한 몸은 오히려 성조(聖朝)에서 길러 준 물건으로, 이미 평소에 집록(輯錄)한 것이 있으니, 끝내 감히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초산(抄刪)하여 모아 책자를 만들어 망령되게 임금의 명령에 응하는 것을 본받으니, 성명(聖明)은 살펴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179])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가 아뢴 13가지 조목은 모두 백성과 나라의 실용에 관계된 것이니, 그대는 필시 재주가 있지만 현달(顯達)하지 못한 사람이다. 〈중략〉 탐라(耽羅)에 관한 조목은 〈중략〉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하도록 하겠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우하영, 상소.

179) 이하는《정조실록》정조 20년 4월 2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四月 二十六日 辛丑

○ 李海愚, 以備邊司言啓曰, 水原幼學禹夏永上疏批旨內, 耽羅條, …… 令廟堂草記事, 命下矣. 取見其疏本, 耽羅條則島陸事情, 羅舖換貿, 皆有依據, 可以採用. 其中一萬包米二萬包租, 待登熟貿儲, 使島民, 載物産轉販納錢, 本價受穀云云, 尤緊要中窾, 此則待羅里舖改節目時, 參互定規爲計. 貢馬說弊四苦役難支之端, 又各鑿鑿有據. 然馬貢, 則以預先喂養事, 已有擧條之頒下者, 四役則前後守臣, 或遵朝令, 或從民願, 次次省減, 今則似不至於蕩産徵隣族之境云, 此兩條, 姑且置之, 以觀來頭. …… 何如? 傳曰, 允.

❖ 정조 20년(1796) 병진년 4월 26일(신축)

▢ 수원 유학 우하영(禹夏永)의 상소(上疏)에서 진달한 탐라(耽羅)에 관한 조목에 대해 일단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일을 지켜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해우(李海愚)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수원 유학 우하영(禹夏永)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지(批旨) 안에, '탐라(耽羅)에 관한 조목을 〈중략〉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탐라에 관한 조목은, '섬과 육지의 사정과 나리포(羅里舖)의 환무(換貿) 등의 일이 모두 근거가 있어 채용할 만합니다. 그 가운데 10,000포(包)의 쌀과 20,000포의 벼가 익기를 기다려 사서 비축하였다가 섬 백성들로 하여금 물산(物産)을 싣고와서 팔아서 이익을 남겨 돈을 치르되 본가(本價)로 곡물을 받아가게 하라고 운운한 것은 더욱 긴요하고 조리에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나리포의 절목을 고칠 때를 기다려 참작하여 규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공마(貢馬)에 대해 폐단을 말한 것과 네 가지 고역(苦役)으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은 또한 각각 명확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마는 미리 먹여 기르라는 일로 이미 거조(擧條)를 내린 것이 있고, 네 가지 고역은 앞뒤의 목사가 혹은 조정의 명령을 따르고, 혹은 백성들의 소원을 좇아 차차 줄이고 있어 지금은 가산을 탕진하며 인족(隣族)에게 징수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목은 일단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일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180]

△ 주제어: 우하영, 상소, 나리포, 공마, 고역.

---

180)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0년 4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二日 丙午

○ 傳于李肇源曰, 濟州判官入侍.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2일(병오)

▢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입시(入侍)하게 하라는 전교

○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입시(入侍)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입시.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二日 丙午

○ 丙辰五月初二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黃昇源, 行左承旨閔台爀, 行右承旨李益運, 左副承旨李肇源, 右副承旨李晉秀, 同副承旨韓用龜, 假注書尹致永·徐俊輔, 記注官安經心·金良儁, 檢校待敎徐有榘,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判官入侍. 賤臣承命出傳, 與濟州判官朴鼎元, 偕入進伏. 上曰, 爾是鄕人, 似難遠赴, 特許改差焉. 仍命書傳敎曰, 濟州判官仍任前職, 令該曹口傳擇差. 仍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2일(병오)

▢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정원(朴鼎元)의 개차(改差)를 허락하는 전교

○ 병진년 5월 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황승원(黃昇源), 행좌승지 민태혁(閔台爀),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우부승지 이진수(李晉秀), 동부승지 한용구(韓用龜), 가주서 윤치영(尹致永)·서준보(徐俊輔), 기주관 안경심(安經心)·김양척(金良儁),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전하고, 제주판관 박정원(朴鼎元)[181]과 함께 들어와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시골사람이라 먼 지방에 부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별히 개차(改差)를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제주판관을 그대로 이전 직임을 맡게 하고, 해당 조(曹)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택차(擇差)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 주제어: 제주판관, 박정원, 개차.

181) 박정원(朴鼎元): 본관 밀양(密陽).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五日 己酉

○ 以全羅監司徐鼎修狀啓, 濟州入送別下錢椒貿穀船隻, 次第穩泊, 島中牟麥亦旣登熟事, 傳于李晉秀曰, 濟州新牧使柳師模所領別下錢椒貿穀載運船隻, 去月十六日發船, 其翌一齊穩泊於朝天館等處, 而三邑麥農, 亦皆登稔, 遍察民勢, 無難保之慮云. 於是乎耽羅賑救, 可謂能事畢矣. 夙宵用心之餘, 豈勝喜幸? 道臣·守臣狀辭旣如此, 則其所回諭, 何可踰日? 卽令廟堂, 申明嚴飭守臣, 到任以後, 益加採察民情, 差待牟麥快熟, 島民乂安, 更以島中形止, 一從所見狀聞事, 分付.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5일(기유)

▢ 제주(濟州) 곡물(穀物) 운송과 보리농사 상황을 보고한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대해 섬 안의 형편을 한결같이 본대로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가 장계에 제주(濟州)에 들여보낸, 별하전(別下錢)과 후추 등으로 산 곡물(穀物)을 실은 배가 차례대로 안전하게 정박했고, 섬 안의 보리 또한 이미 익었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진수(李晉秀)에게 전교하기를, "신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거느리고 간, 별하전과 후추 등으로 산 곡물을 싣고 운반한 배가 지난 달 16일 출발하여 그 다음날 일제히 안전하게 조천관(朝天館) 등에 정박했고, 3읍 보리농사가 풍년이 들어 또한 모두 익어서 백성들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니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염려가 없다고 한다. 이제야 탐라(耽羅)를 진구(賑救)하는 데 있어 일을 마칠 수 있다고 말할 만하다. 밤낮 마음을 쓰던 끝에 어찌 이루다 기쁘고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관찰사와 목사의 장계 내용이 이와 같다면 그 회유(回諭)하는 것을 어찌 날을 넘길 수 있겠는가?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목사에게 거듭 밝히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도임한 후에 더욱더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 보리가 쾌숙(快熟)하기를 기다렸다가 백성들이 다스려져 편안해진 뒤 다시 섬 안의 형편을 한결같이 본대로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182]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곡물, 보리농사.

---

182) 이상은《정조실록》정조 20년 5월 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六日 庚戌

○ 有政. 吏批, 判書沈煥之受由在外, 參判黃昇源進, 參議宋煥箕在外, 行左承旨閔台爀進. 李光鉉爲濟州判官,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6일(경술)

▢ 이광현(李光鉉)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심환지(沈煥之)는 말미를 받아 지방에 있고, 참판 황승원(黃昇源)이 나왔고, 참의 송환기(宋煥箕)는 지방에 있고, 행좌승지 민태혁(閔台爀)이 나왔다. 이광현(李光鉉)[183]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이광현.

183) 이광현(1732~1797): 본관 광주(廣州). 자 백겸(伯謙). 1761년(영조 37) 문과 급제. 사헌부지평 역임.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六日 庚戌

○ 趙尙鎭, 以吏批言啓曰, 濟州判官朴鼎元, 仍任前職事, 命下矣. 司憲府監察李宗烈除拜時, 原望筒勿施, 仍任下批之意, 敢啓. 傳曰, 無異無故作散, 待窠收用,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6일(경술)

▢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정원(朴鼎元)을 전 직임으로 잉임(仍任) 하겠다는 이비(吏批)의 계

○ 조상진(趙尙鎭)이 이비(吏批)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박정원(朴鼎元)을 그대로 전 직임을 맡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사헌부감찰 이종렬(李宗烈)을 제수할 때의 원망통(原望筒)을 시행하지 말고 잉임(仍任)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아무런 이유없이 현직을 해임당하고 산관(散官)에 임명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거두어 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박정원, 잉임.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九日 癸丑

○ 濟州判官趙敬日仍任事承傳.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9일(계축)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을 잉임(仍任)하라는 승전(承傳)을 받듦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을 잉임(仍任)하도록 하라는 승전(承傳)을 받들었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일, 잉임, 승전.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九日 癸丑

○ 丙辰五月初九日辰時, 上御誠正閣. 同副承旨·右議政·江華留守同爲入侍時, 同副承旨鄭尙愚, 假注書李毅采, 記事官金珍恪·吳泰曾, 右議政尹耆東, 江華留守金履翼, 以次進伏訖. …… 耆東曰, 濟州前判官趙敬日, 以馬牌上送船隻漂失事, 本牧狀請拿處出代矣. 爲人精詳, 可堪字牧之任, 而本律, 其因水火盜賊毁失有顯跡者勿坐云. 就理之後, 自當白放, 本州荐歉之餘, 往赴屬耳, 而旋卽遞代, 迎送之弊, 不可不念. 趙敬日, 今姑仍任,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9일(계축)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의 잉임(仍任)을 청하는 우의정 윤시동(尹耆東)의 계

○ 병진년 5월 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우의정·강화유수가 함께 입시할 때, 동부승지 정상우(鄭尙愚), 가주서 이의채(李毅采), 기사관 김진각(金珍恪)·오태증(吳泰曾), 우의정 윤시동(尹耆東), 강화유수 김이익(金履翼)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시동이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이 마패를 올려보내는 배가 표류된 일과 관련하여 본목(本牧)에서 장계를 보내어 잡아다 처리하고 그 후임을 차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람됨이 꼼꼼하고 자상하여 자목(字牧)의 소임을 감당할 만하고, 본래 형률은 수재, 화재, 도적으로 인하여 훼실(毁失)된 경우 드러난 자취가 있는 자는 좌죄(坐罪)[184]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은 후에는 마땅히 죄가 없음이 드러나서 풀려날 것이고, 본주(本州)의 거듭된 흉년 끝에 부임하여 귀를 기울여 정성껏 듣고 있는데, 곧바로 교체하게 되면 맞이하고 보내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경일을 지금은 일단 잉임(仍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일, 잉임.

---

184) 좌죄(坐罪): 죄를 받음.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十日 甲寅

○ 朴宗來, 以吏批言啓曰, 濟州牧判官趙敬日仍任事, 命下矣. 日昨政新除授判官李光鉉望筒, 勿施, 仍任下批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10일(갑인)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의 잉임(仍任)으로 인해 새로 제주판관에 제수된 이광현(李光鉉)의 망통(望筒)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이비(吏批)의 계

○ 박종래(朴宗來)가 이비(吏批)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을 잉임(仍任)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 정사(政事)에서 새로 제수된 제주판관 이광현(李光鉉)의 망통(望筒)을 시행하지 말고 잉임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일, 잉임.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十二日 丙辰

○ 丙辰五月十二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 大臣·備局稟事堂上同爲入侍時, 行都承旨黃性源, 行左承旨李益運, 右承旨李海愚, 左副承旨蔡弘遠, 右副承旨鄭尙愚, 同副承旨朴宗來, 記事官柳遠鳴, 假注書金處巖, 記事官吳泰曾·金履永, 以次進伏訖. …… 上曰, 近見濟州牧使柳師模狀啓, 耽羅民事, 何以爲之, 而有好道理耶? 薈東曰, 臣嘗待罪湖藩時, 見所謂濟民倉者, 其倉廒極爲宏大, 可想其設置經遠之意, 於此而有積貯之美, 則其於値歉濟民, 庶可以食其效矣.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12일(병진)

▢ 제주(濟州)의 흉년에 대비하여 제민창(濟民倉)에 곡물을 비축할 것을 제안하는 윤시동(尹蓍東)의 계

○ 병진년 5월 1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대신과 비국 품사당상(稟事堂上)이 함께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황성원(黃性源), 행좌승지 이익운(李益運), 우승지 이해우(李海愚), 좌부승지 채홍원(蔡弘遠), 우부승지 정상우(鄭尙愚), 동부승지 박종래(朴宗來), 기사관 유원명(柳遠鳴), 가주서 김처암(金處巖),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를 보았는데, 탐라(耽羅) 백성들의 일을 어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할 때 이른바 제민창(濟民倉)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 창고가 굉장히 커서 그것을 설치한 경원(經遠)의 뜻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쌓아 비축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된다면 흉년에 백성들 구제함에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민창, 흉년, 비축.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二十五日 己巳

○ 李海愚,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李禹鉉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25일(기사)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초기

○ 이해우(李海愚)가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전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立養) 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이우현, 체임진상마, 별단.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二十五日 己巳

○ 丙辰五月二十五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黃昇源, 行左承旨李益運, 右承旨李海愚, 左副承旨蔡弘遠, 右副承旨鄭尙愚, 同副承旨朴宗來, 記事官金履永·柳遠鳴, 記注官金珍恪,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以次進伏訖. …… 弘遠曰, 卽見濟州牧使柳師模放未放成冊, 則定配罪人金後文, 自南海縣移配本牧, 而巨濟府三字, 無端添書於南海之上, 奏御文字, 何等愼重, 而如是錯誤, 事甚未安. 該牧使不可無警, 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25일(기사)

▢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에 정배죄인 김후문(金後文)의 본래 배소를 잘못 기입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좌부승지 채홍원(蔡弘遠)의 계

○ 병진년 5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황승원(黃昇源), 행좌승지 이익운(李益運), 우승지 이해우(李海愚), 좌부승지 채홍원(蔡弘遠), 우부승지 정상우(鄭尙愚), 동부승지 박종래(朴宗來), 기사관 김이영(金履永)·유원명(柳遠鳴), 기주관 김진각(金珍恪),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채홍원이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185]을 보니, 정배죄인 김후문(金後文)이 남해현(南海縣)에서 본목(本牧)으로 이배(移配)되었는데, 거제부(巨濟府) 3자를 이유 없이 남해 위에 더 써넣었습니다. 임금에게 아뢰는 문자를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착오가 있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해당 목사를 경책(警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방미방성책, 김후문, 이배, 추고.

---

185) 방미방성책(放未放成冊): 사면령이 내린 뒤 배소(配所)에 있는 죄인들을 풀어 줄 부류[放秩],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仍秩], 풀어주지 않을 부류[未放秩], 여쭈어 결정할 부류[稟秩], 아직 그 도의 배소에 도착하지 않은 부류[未至配所秩] 등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책자.

❖ 嘉慶 元年 丙辰 五月 二十八日 壬申

○ 司僕寺啓目粘連, 耽羅馬畜之自古已然, 近年以來, 掌牧之官, 全不致意, 各場馬匹, 如是耗失者, 萬萬駭痛. 濟州前判官洪履祚, 大靜前縣監鄭運躋, 旌義前縣監南涑, 竝令該府拿問嚴處, 牛隻欠縮一款, 令禮曹稟處, 何如? 判付啓, 依允爲旀. 容有可恕, 守令拿處, 代以緘推爲旀. 其中旌義前縣監南涑段, 該邑尤異他邑玆除良, 封進馬匹之體大馴良, 近來初有云. 竝與緘推, 勿論爲良如教.

❖ 정조 20년(1796) 병진년 5월 28일(임신)

▢ 각 목장 말의 수가 줄어든 책임으로 제주판관(濟州判官)을 비롯한 제주(濟州) 3읍의 전 수령을 잡아다 처리할 것 등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탐라(耽羅)가 말을 기르는 것은 예부터 이미 그러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목마(牧馬)를 관장하는 관리가 전혀 뜻을 두고 있지 않아서 각 목장의 마필이 이와 같이 줄어들어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홍이조(洪履祚)[186],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남속(南涑)을 모두 해당 부(府)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엄히 처리하게 하고, 소의 흠축(欠縮)에 관한 한 조항은 예조(禮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윤허한다. 그리고 혹 용서해 줄 만한 점이 있다면 수령을 잡아다 처리하는 것을 서면으로 추문(推問)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라. 그 가운데 전 정의현감 남속은 해당 읍이 다른 읍에 비해 특이할 뿐만 아니라 봉진(封進)한 말이 몸집이 크고 길이 잘 들어 순한 것이 근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아울러 서면으로 추문하는 것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말, 제주판관, 대정현감, 정의현감, 추문.

---

186) 홍이조(1736~?): 본관 남양(南陽). 자 수백(綏伯).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제주판관(1793.6.도임~1795.9.) 역임.

❖ 嘉慶 元年 丙辰 六月 五日 己卯

○ 刑曹啓目粘連, 前大靜縣監鄭運躋矣, 容有可恕, 守令拿處, 代以緘推, 罪杖一百收贖, 公罪施行, 何如? 判付啓, 依允爲旀. 功減一等爲良如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6월 5일(기묘)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를 공죄(公罪)로 시행하기를 청하는 형조의 계

○ 형조의 계목 점련(啓目粘連)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정운제(鄭運躋)는 용서할 만한 점이 있어 수령을 잡아다 처리하는 대신 서면으로 추문(推問)하였습니다. 죄 장(杖) 100을 속전(贖錢)으로 거두어 공죄(公罪)[187]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윤허한다. 그리고 공감 1등(功減一等)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정운제, 추문, 속전, 공죄.

187) 공죄(公罪): 공사(公事)로 인해 죄를 범한 것.

❖ 嘉慶 元年 丙辰 六月 六日 庚辰

○ 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 畢賑事, 傳于李肇源曰, 日候調順, 各穀以時耕耘, 庶有成就之望云. 言念賑餘民情, 千幸萬幸, 卿其另加勸課於南畝之政, 人力得以周及, 俾有有秋食實之效. 前巡將洪三弼, 屢遭出義補賑, 其誠可嘉, 其勞當酬, 島中兩邑守令中, 如有準瓜, 或瓜近人, 令該曹後日政差送, 否則待窠卽爲擬望. 老妓萬德, 渠何所求, 辦此近百包白大米, 賙飢濟乏乎? 免賤與別般酬勞間, 卿其從願施行後, 形止狀聞事, 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6월 6일(경진)

▢ 제주(濟州) 진휼에 의연(義捐)한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과 노기(老妓) 만덕(萬德)에 대해 공로를 갚아주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장계에 진휼을 마쳤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일기가 순조로워 각 곡식이 제때에 밭을 갈고 김을 매어 거의 성취할 가망이 있다고 한다. 진휼한 뒤에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니 천만 다행이다. 경은 남묘(南畝)[188]의 정사에 특별히 더욱 힘쓰도록 권하여, 인력이 두루 미쳐 가을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게 하라.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여러 차례 의연(義捐)하여 진휼을 도왔다. 그 정성이 가상하니 그 노고는 당연히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섬 안 양읍 수령 가운데 만약에 임기가 찼거나 혹은 과만(瓜滿)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해당 조(曹)로 하여금 후일 정사에서 차송(差送)하게 하고, 아니면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의망(擬望)하도록 하라. 노기(老妓) 만덕(萬德)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근 100포(包)의 백대미(白大米)를 갖추어 굶주린 자를 진휼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했단 말인가? 면천(免賤)해 주는 일과 별반 공로를 갚아주는 일 사이에서 경이 그가 원하는 대로 시행한 후 그 전말을 장계로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189]

△ 주제어: 홍삼필, 의망, 만덕, 면천.

---

188) 남묘(南畝): 남쪽으로 향한 밭이랑이라는 뜻으로, 논밭을 가리킴. 《시경》 〈소아(小雅) 대전(大田)〉에 "비로소 남묘(南畝)에서 일하여 백곡을 파종한다[俶載南畝 播厥百穀]"라고 하였음.

189)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0년 6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六月 十一日 乙酉

○ 丙辰六月十一日未時. 上御重熙堂. 推考房承旨入侍時, 行右承旨李書九, 假注書金履載, 記事官金景煥·金珍恪, 以次進伏訖. 上命書兼春秋金良佃等, 草供判付訖. 上曰, 羅鋪倉事, 向聞右相所奏, 欲與卿商議處之云, 而卿今登筵, 移置便否, 詳奏, 可也. 書九曰, 臣姑未見大臣, 而蓋此倉初在臨陂, 自賑廳差送別將, 俾主其事, 後罷別將, 使群山僉使兼管矣. 亦不能無弊, 屬之該邑, 令本倅兼管矣. 行之多年, 虛逋漸多, 自監營句管, 而丁未年間, 因濟州武兼金貴澤所懷, 以涼藿輸納時經涉七山險洋, 始爲移設於羅州, 而其實則本倉元無一石儲穀之事, 若値涼藿出來之時, 則營門監色, 下往本倉, 看檢捧上, 分授列邑而已. 大抵設倉之地, 距耽羅相近, 則公私涼藿之出來者, 多積於其處, 不能售善價, 列邑作穀之際, 已爲有弊, 而島民則猶以羅州爲遐, 必欲更爲移設於康·海等邑, 年前該牧使沈樂洙至以此疏請, 臣之待罪藩任時, 亦頗多費商量, 而康津南塘浦, 有一兵營倉舍, 穀多爲弊, 慰諭使徐榮輔, 以此書啓, 故臣遂移其穀於兵營, 而空其倉舍, 姑付本邑, 又爲探問濟州所在船隻數爻, 容載多寡, 略有所領略者, 今若以此倉, 仍作羅浦倉, 限萬石儲穀, 如値歉歲, 使島民持船隻出來, 運穀以去, 則一路之疲於轉輸, 似不至於今日之甚. 而第此穀斂散之方, 終無好道, 若糶糴於附近諸邑, 則他邑民人之春受冬納, 往來勞費, 爲弊不些, 有難輕議, 若糶糴於康津一邑, 則豐歲穀多爲弊, 歉歲船粟之後, 本邑之民, 將無所食, 兩條俱屬不便, 故臣之愚見, 則羅鋪矯弊, 專在於斂散之得宜, 倉舍之移不移, 猶屬餘事矣. 上曰, 羅鋪穀之耗縮, 由於涼藿之不卽出送而然歟? 書九曰, 昨年入送之穀物, 自朝家軫念島民之荐饑, 涼藿姑令停退, 而甲寅以前條涼藿, 則姑無大段逋欠之事, 而但所謂出送之涼藿, 漸致荒蠹, 特以踰越重溟之故, 營門亦不得如例點退, 姑爲捧上, 而以此荒蠹, 分給列邑, 使之作穀, 此固一患. 而且涼藿分受之屬邑, 不但在於沿海, 如綾州·井邑等山野之邑, 亦多參錯, 雖使準數作穀, 値船粟之時, 則此等邑所在穀物, 便同無用, 必從沿海船運便近處劃送, 而島中歉荒之歲, 沿邑亦多歉荒, 此所以穀簿枵然, 主客俱困者也. 上曰, 羅鋪穀都數, 見在者, 爲幾何耶? 書九曰, 元穀之磨勘於備局者, 不過爲九百餘石, 故每當船粟時, 毋論某衙門穀, 以沿邑留庫條, 先爲劃送, 待涼藿出來, 作穀還充於該衙門, 故羅鋪元穀, 無所添益, 元穀外, 又有自營門句管者, 卽辛卯年間, 道臣金魯鎭所別備也, 船粟時添船價名色, 以此劃給, 此穀則雖爲二萬六千餘石, 就其中劃貸於營門蕩債條者, 厥數夥然矣. 上曰, 營門蕩債, 何故有之, 此亦不得已而然乎? 書九曰, 當初營門排朔需用, 皆以營各庫流來公貨, 散債殖利, 歲月寢久, 消耗自多, 每年徵斂之際, 害及隣族, 爲營下居民難支之巨瘼, 故自李在學·沈頤之按藩之後, 至今右相在任時, 漸次蕩債, 而利條之排朔支用者, 隨而虧折, 遂以乙

已以後賑餘穀爲營用者, 移作蕩債穀, 取耗充補, 猶爲不足, 故又就營門句管羅鋪穀耗條中, 劃出二千五百餘石, 一體取耗添補矣. 甲寅冬羅穀之入於停退者, 爲一萬一百餘石, 昨今兩年濟州船粟添船價之會減者, 又爲四千餘石, 若此不已, 而停退條未卽準捧, 則不出四五年, 此穀漸次割本, 將無餘地, 故臣之在營時, 因均廳往復, 有蕩債穀退年限磨鍊之事, 而羅鋪穀移來條, 則不爲退限, 至丁巳·庚申兩年, 卽爲還付本倉之意, 新定節目矣. 上曰, 賑餘穀, 他道則還錄京司, 本道則屬之營用, 其例自何時乎? 書九曰, 臣未知自何時, 而本道之獨異於他道者, 似因營用不敷, 本穀雖爲狀聞還錄, 而耗條則因爲取用, 遂成謬例矣. 上曰, 然則羅鋪倉事, 廟議將何以處之云耶? 書九曰, 似聞關問便否於本道及該牧矣. 上曰, 卿須詳問于句管堂上李冕膺處, 後日更奏, 可也. 大抵甲寅湖南之歉荒, 果是挽近所罕, 珍島則與濟州無異乎? 書九曰, 甲寅之歉, 實是三四十年來所未有, 而珍島·濟州, 俱是海島, 野無收粟, 倉無儲積, 偏受其困, 其勢然矣. 上曰, 昨年濟州人口之致損, 念之慘然, 豈料若是之多乎? 書九曰, 臣於遞任前, 更送校吏, 使之詳探矣. 遞歸後聞其回報, 不勝慘惻矣. 此等傳說, 虛實相蒙, 致損人口之的爲幾何, 雖難詳悉, 要之民勢之罔測, 可推而知矣. 上曰, 朝家賑貸之政, 非不盡力, 而猶不免此患者, 由儲積之不贍也. 爲使儲積裕足, 豈至此乎? 湖南穀簿之見在者, 通計爲幾何耶? 書九曰, 臣之到任也, 爲一百九十餘萬石矣. 其後會減者有之, 停退者有之, 遞任時, 爲一百五十餘萬石矣. 上曰, 若滿三百萬之數, 則民食似無不足之歎矣.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6월 11일(을유)

▢ 행우승지 이서구(李書九)가 입시하여 나리포창(羅里鋪倉)의 일에 대해 논의함

○ 병진년 6월 11일 미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추고방(推考房)의 승지가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서구(李書九), 가주서 김이재(金履載), 기사관 김경환(金景煥)·김진각(金珍恪)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겸춘추 김양척(金良倜) 등에게 쓰라고 명하여 초공(草供)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 마쳤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리포창(羅里鋪倉)의 일에 대해 지난번 우의정이 아뢴 바를 듣고 경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다. 경이 지금 등연(登筵)하였으니 옮기는 것이 편한지 여부를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신이 아직 대신(大臣)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이 창(倉)이 처음에는 임피(臨陂)에 있었고, 진휼청에서 별장을 차송(差送)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후에 별장을 파하고 군산첨사(群山僉使)로 하여금 겸관(兼管)하게 하였는데,

또한 폐단이 없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해당 읍에 붙여 본쉬(本倅)로 하여금 겸하게 하였고, 시행이 여러 해가 되면서 허포(虛逋)[190]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감영에서 맡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미년에 제주(濟州) 무겸 김귀택(金貴澤)의 소회(所懷)로 인하여 양태[涼臺]와 미역을 수납(輸納)할 때 칠산(七山)의 험한 바다를 건너서 비로소 나주(羅州)로 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창에는 본래 1섬의 곡물도 저축한 일이 없고, 만약에 양태와 미역이 나오는 때가 되면 영문의 감색이 본창으로 내려가서 바친 것을 검사하여 열읍(列邑)에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대저 창을 설치한 곳이 탐라(耽羅)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공사(公私)로 양태와 미역이 나오는 것이 그곳에 많이 쌓이게 되어 좋은 값을 받고 팔 수가 없으니, 열읍이 곡물을 만들 때에 이미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백성들은 오히려 나주가 멀다고 하여 기어이 다시 강진(康津)이나 해남(海南) 등의 읍으로 이설하려고 하여, 몇 해 전에는 해당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이것으로 상소를 올려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신이 관찰사의 직임에 있을 때 또한 아주 많이 헤아려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진의 남당포(南塘浦)에 하나의 병영창사(兵營倉舍)가 있는데, 곡물이 많은 것이 폐단이 되어 위유사(慰諭使) 서영보(徐榮輔)가 이것으로 서계(書啓)하였기 때문에 신이 마침내 그 곡물을 병영으로 옮기고 그 창사를 비워 일단 본읍(本邑)에 붙였습니다. 또 제주에 소재하는 배의 수효를 탐문하여 실어나를 수 있는 양의 많고 적음을 대략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 창으로써 그대로 나리포창을 만들고 10,000섬에 한하여 곡물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을 당하여 섬 백성들로 하여금 배를 가지고 나와 곡물을 실어가게 한다면 수송되어 온 곡물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로(一路)의 고달픔이 오늘날처럼 심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다만 이 곡물을 염산(斂散)[191]하는 방법에 있어 끝내 좋은 방도가 없으니, 만약에 부근의 제읍(諸邑)에서 조적(糶糴)한다면 다른 읍의 백성들이 봄에 받고 겨울에 바칠 때 왕래하는 노비(勞費)가 폐단이 됨이 적지 않으니 가볍게 의론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진 한 읍에서 조적한다면 풍년에는 곡물이 많아 폐단이 되고, 흉년에는 배로 곡물을 실어나른 뒤 본읍의 백성이 장차 먹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니, 두 조항 모두 불편할 것입니다. 때문에 신의 어리석은 식견으로는 나리포창의 폐단을 바로잡는 것은 오로지 염산의 마땅함을 얻는 데에 있지,

190) 허포(虛逋): 환곡을 출납하면서 문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돈이나 미곡을 착복하던 일.

191) 염산(斂散): '염적(斂糴)과 산조(散糶)'의 줄임말로, 빈민 구제 정책의 한 가지임. 염적은 쌀값이 쌀 때 관(官)에서 이를 사들이는 것이며, 산조는 쌀값이 폭등할 때 정부가 이를 싼값으로 파는 것을 말함.

창사를 옮기고 옮기지 않고는 오히려 요긴하지 않은 일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리포창 곡물의 모축(耗縮)은 양태와 미역을 즉시 내보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작년에 들여보낸 곡물은 조정에서 섬 백성들의 거듭된 기근을 진념(軫念)하여 양태와 미역을 일단 정퇴(停退)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인년 이전 조(條)의 양태와 미역은 일단 대단히 포흠(逋欠[192])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른바 내보내는 양태와 미역이 점점 궁색해지는 것은 단지 바다를 건너 오기 때문으로, 영문(營門) 또한 규례처럼 점퇴(點退)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궁색한 것을 열읍에 나누어 주어 곡물을 만들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실로 하나의 근심거리입니다. 또한 양태와 미역을 나누어 받은 속읍(屬邑)은 연해(沿海)에 있을 뿐만 아니라 능주(綾州)·정읍(井邑) 등과 같이 산야의 읍이 또한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정해진 수량대로 곡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배로 곡물을 실어나를 때를 당하면 이러한 읍에 소재하는 곡물은 곧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연해 배로 운반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떼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섬 안이 흉년이 든 해에는 연읍(沿邑) 또한 자주 흉년이 드니, 이것이 곡부(穀簿)가 텅 비어 주객이 모두 곤궁한 이유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리포창 곡물을 모두 합한 수량은 현재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원곡(元穀)으로 비국에서 마감(磨勘)한 것은 900여 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매번 배로 곡물을 운반할 때를 당하면 어떤 아문의 곡물이든지를 막론하고 연읍의 유고조(留庫條)로 먼저 떼어 보내고, 양태와 미역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곡물을 만들어 도로 해당 아문에 채워 놓습니다. 때문에 나리포창의 원곡은 더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영문에서 구관(句管)하는 것이 있는데, 곧 신묘년에 관찰사 김노진(金魯鎭)[193]이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배로 곡물을 운반할 때 더해지는 배삯 명목을 이것으로 떼어 줍니다. 이러한 곡물은 비록 26,000여 섬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 영문의 탕채조(蕩債條)에 떼어 빌려준 것은 그 수량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문에서 빚을 탕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인가, 이것 또한 부득이 해서 그러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당초 영문의 배삭(排朔)[194] 수용(需用)은 모두 영(營)의 각 창고에서 전해 내려오는 공화(公貨)를 가

192) 포흠(逋欠): 관청의 재물을 사사로이 써서 축내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함. 여기에서는 구휼곡에 대해 양태와 미역으로 갚지 않는 것을 가리킴.

193) 김노진(1735~1788): 본관 강릉(江陵). 자 성첨(聖瞻). 1757년(영조 33) 문과 급제. 대사헌, 형조판서, 우참찬 역임. 저서 《강화부지(江華府誌)》.

지고 빚을 놓아 이자를 불렸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소모되는 것이 절로 많아 매년 거두어들일 때 피해가 인족(隣族)에게 미쳐 영하(營下)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운 큰 폐막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재학(李在學)과 심이지(沈頤之)가 관찰사가 된 뒤로부터 지금 우의정이 재임할 때까지 점차 빚을 탕감하였고, 이자의 명목으로 달달이 지출하여 쓰던 것은 따라서 휴절(虧折)되어 마침내 을사년 이후 진여곡(賑餘穀)으로 영문의 수용으로 삼은 것을 탕채곡(蕩債穀)으로 옮겨 모조(耗條)를 취하여 보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족하여 또 영문이 구관하는 나리포창의 곡물 가운데에서 2,500여 섬을 떼어 내어 일체 모조를 취하여 더 보태었습니다. 갑인년 겨울 나리포창의 곡물 중 정퇴에 들어간 것이 10,100여 섬이고, 작년과 금년 제주에 곡물을 실어나를 때 배삭으로 회감(會減)한 것을 보태준 것이 또 4,000여 섬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그치지 않고, 정퇴조(停退條)를 즉시 원 수량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4,5년 내로 이러한 곡물은 점차 본곡(本穀)이 잘려 장차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신이 영에 있을 때, 균역청과 소통하여 탕채곡을 연한(年限)을 물려 마련한 일이 있고, 나리포창의 곡물을 옮겨온 조는 기한을 물리지 않았으며, 정사년과 경신년 두해에 이르러서는 즉시 도로 본창(本倉)에 붙일 뜻으로 새롭게 절목을 정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여곡은 다른 도(道)는 경사(京司)에 도로 기록하고, 본도(本道)는 영의 수용에 붙이는데, 그 사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신은 언제부터였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본도가 유독 다른 도와 다른 것은 영의 수용이 넉넉하지 못하여 본곡은 비록 장계로 보고하여 도로 기록하였지만 모조는 취하여 썼기 때문에 마침내 오류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리포창의 일과 관련하여 묘당의 의논은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본도와 해당 목(牧)에 관문(關文)을 띄워 그 편리 여부를 물어보게 하였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모름지기 구관당상 이면응(李冕膺)[195]에게 자세히 물어 후일 다시 아뢰도록 하라. 대저 갑인년 호남의 흉년이 과연 몇 해 전부터 지금까지 드문 바인데, 진도(珍島)는 제주와 다른 점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갑인년 흉년은 실로 3,40년 이래 없던 바인데, 진도와 제주는 모두가 해도(海島)입니다. 들에 거둘 곡식이 없고, 창고에 쌓아 둔 것이 없어서 치우치게 곤궁함을 받은 것은 형세가 그러해서

194) 배삭(排朔): 한 달에 얼마씩 정하여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줌.

195) 이면응(1746~1812): 본관 연안(延安). 자 대언(帶彦). 1787년(정조 11) 문과 급제. 호조참판,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역임.

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작년 제주 인구의 감소는 이를 생각하면 참혹한데, 어찌 이와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신이 체임 전에 다시 장교와 서리를 보내어 자세히 탐문해 보게 했었습니다. 체귀(遞歸) 후 그 회보(回報)를 듣고 슬픔을 이루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하는 말은 허실(虛實)이 서로 뒤섞여서 감소한 인구가 정확히 몇이나 되는지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요컨대 백성들의 망측한 형편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진대(賑貸)하는 정사(政事)에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는데, 오히려 이러한 근심을 면하지 못하는 것은 쌓아놓은 것이 충분하지 못한 까닭이다. 쌓아놓은 것을 넉넉하게 하였다면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호남의 곡부에 현재 있는 것은 통틀어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신이 도임했을 때는 190여 만 섬이었습니다. 그후 회감한 것이 있고, 정퇴한 것이 있어서 체임할 때에는 150여 만 섬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300만의 수량을 채운다면 백성들의 먹을 것이 부족한 탄식은 없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나리포창, 양태, 미역, 진여곡, 탕채곡.

❖ 嘉慶 元年 丙辰 六月 十五日 己丑

○ 兵曹, 軍職官員等褒貶啓本判付內, 啓下兵曹爲旀. 文臣堂下軍職之不參貶坐, 雖有飭敎, 如邊景祐之居在海外者, 豈可以一時磨勘上來, 雖欲上來, 海路何以趲程乎? 重於此之該牧褒貶啓本, 亦許從便踰限, 載在法典, 況當者之磨勘乎? 此後濟州軍職人, 以濟州在外懸註, 勿書不參之中考事, 該牧知委, 該房知悉. 卿曹段置, 準此爲旀, 今當貶目中應在外及衆所共知情病, 中考勿施後, 草記爲良如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6월 15일(기축)

▢ 제주(濟州)의 군직을 맡은 사람은 '제주 지방에 있다.'라고 주(註)를 달아서 포폄좌기(褒貶坐起)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고(中考)라고 쓰지 말도록 해당 목에 알리라는 등의 전교

○ 병조의 군직(軍職) 관원들에 대한 포폄계본(褒貶啓本)에 판부(判付)하기를, "병조에 계하(啓下)하라. 문신당하군직(文臣堂下軍職)이 포폄좌기(褒貶坐起)[196]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록 칙교(飭敎)가 있었지만, 변경우(邊景祐)와 같이 해외(海外)에 있는 자를 어찌 일시에 올라오는 것을 마감할 수 있겠는가? 비록 올라오고자 해도 해로(海路)에 어찌 길을 재촉할 수 있겠는가? 이보다 중한 해당 목(牧)의 포폄계본에도 편의에 따라 기한을 넘기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법전에 실려있는데, 하물며 해당자의 마감은 어떠하겠는가? 이후로 제주(濟州)의 군직을 맡은 사람은 '제주 지방에 있다.'라고 주(註)를 달아서 참석하지 않은 중고(中考)[197]라고 쓰지 말도록 해당 목에 알리고, 해당 방(房)은 그리 알도록 하라. 경의 조(曹)도 이에 준하도록 하라. 지금 폄목(貶目)[198]을 당한 가운데 응당 지방에 있는 자와 모두가 다 아는 정병(情病)에 있는 자는 중고를 시행하지 말도록 한 후에 초기(草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포폄, 문신당하군직, 포폄좌기, 변경우, 중고.

---

196) 포폄좌기(褒貶坐起): 관원들의 성적을 매기기 위해 모이는 자리.

197) 중고(中考): 관원의 근무 성적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고과(考課)하는데, 중에 해당함을 이름. 이조나 병조에서 매년 두 차례 관원의 공과(功過)를 조사하여 벼슬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중고를 받으면 승진하지 못하였음.

198) 폄목(貶目): 포폄제목(褒貶題目)은 포목(褒目)과 폄목(貶目)으로 이루어지는데, 포목은 관원의 성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폄목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가리킴.

❖ 嘉慶 元年 丙辰 六月 十九日 癸巳

○ 鄭尙愚, 以兵曹言啓曰, 本曹今春夏等褒貶時, 堂下軍職不參人員中, 副司直金觀柱 …… 副司果李龜雲 …… 俱是元在外, 副司直邊景祐, 濟州在外, 副司直洪樂敏·李重蓮, 副司果林景鎭亦在外, 而與元在外有異, 初不呈辭受由, 中考施行, 何如? 傳曰, 允.

❖ 정조 20년(1796) 병진년 6월 19일(계사)

▢ 당하군직(堂下軍職) 불참 인원 중 '원래 지방에 있는 자'와 제주(濟州) 지방에 있는 변경우(邊景祐)와 달리 정사(呈辭)하여 말미를 받지 않은 '지방에 있는 자'에 대해 중고(中考) 시행을 청하는 병조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本曹)의 금번 춘하등(春夏等) 포폄(褒貶) 시에 당하군직(堂下軍職) 불참 인원 중에 〈중략〉 부사직 김관주(金觀柱) 〈중략〉 부사과 이구운(李龜雲) 〈중략〉 모두 원래 지방에 있고, 부사직 변경우(邊景祐)는 제주(濟州)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직 홍낙민(洪樂敏)·이중연(李重蓮), 부사과 임경진(林景鎭) 또한 지방에 있지만 원래 지방에 있는 자와는 다릅니다. 애초에 정사(呈辭)하여 말미를 받지 않았으니, 중고(中考)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포폄, 당하군직, 불참, 중고.

❖ 嘉慶 元年 丙辰 六月 二十八日 壬寅

○ 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 流丐人, 麥登後流入, 私屯牝馬出送, 依前防禁事, 判付內, 啓下備邊司爲旀. 卽不過一時權宜, 爲島民闊狹之擧, 豈可仍此蕩然, 如前各別禁斷事, 令政院回諭爲良如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6월 28일(임인)

▢ 유리걸식하는 사람을 보리가 익은 뒤에 유입(流入)하는 것과 사둔(私屯)의 암말을 내보내는 것을 예전과 같이 각별히 금단(禁斷)하도록 승정원으로 하여금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유리걸식하는 사람을 보리가 익은 뒤에 유입(流入)하는 것과 사둔(私屯)의 암말을 내보내는 것을 이전대로 방금(防禁)하는 일과 관련하여 판부(判付)한 내용에, "비변사에 계하(啓下)한다. 곧 일시의 권의(權宜)에 불과하다. 섬 백성들을 위해 융통성 있게 한 일을 어찌 이로 인하여 탕연(蕩然)할 수 있겠는가? 예전과 같이 각별히 금단(禁斷)하도록 승정원으로 하여금 회유(回諭)하게 하라."라고 하였다.[199]

△ 주제어: 유리걸식, 사둔, 암말, 금단.

199)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0년 6월 2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十一日 甲寅

○ 以修撰張至顯上疏, 傳于朴宗來曰, 渠亦爲此, 時事可知, 無論如此如彼, 莫嚴者法律, 則名雖大官, 卽亦人臣, 況有大官小官章疏勿捧之命焉? 其時若有越法捧納之騎堂, 則爲三司者, 雖欲一邊請覈本事, 義當一邊請律該堂, 而渠是何人, 乃敢以守法遵令之該堂, 謂之後弊所關, 若此不已, 則爲本兵堂郎者, 恣意擅便於命令, 而將爲無法律無命令之國, 寧不凜然心寒? 固知此疏之爲大臣甚不幸, 而大臣豈有與聞之理乎? 燎原之懼, 豈待知者, 其在眞箇杜後弊之道, 所當設鞫嚴訊, 明覈罪狀, 減死定配, 而顧其職名, 恕其爲人, 爲先濟州牧大靜縣, 限己身定配, 以尊王綱, 以肅朝紀.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11일(갑인)

▢ 수찬 장지현(張至顯)을 대정현(大靜縣)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하라는 전교

○ 수찬 장지현(張至顯)의 상소(上疏)와 관련하여 박종래(朴宗來)[200]에게 전교하기를, "그도 이런 짓을 하였으니, 시사(時事)를 알 만하다. 이런저런 것을 막론하고 더할 바 없이 엄중한 것이 법률이라면, 명색이 비록 대관(大官)이라고는 하지만 또한 신하이고, 하물며 대관과 소관(小官)의 소장(疏章)을 봉입(捧入)하지 말라는 명이 있지 않았는가? 그때 만약 법을 어기고 봉납(捧納)한 병조 당상이 있었다면, 삼사(三司)를 맡은 자는 비록 한편으로는 본사(本事)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자 하였더라도 의리상 마땅히 한편으로는 해당 당상에게 형률을 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법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해당 당상을 뒷날의 폐단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병조의 당상과 낭청이 된 자가 제멋대로 명령에 대하여 마음대로 처리하여 장차 법률이 없고 명령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니, 어찌 두렵고 한심하지 않은가? 참으로 이 상소가 대신에게는 심히 불행이 되는 것임을 알겠지만, 대신이 어찌 참여하여 들을 리가 있겠는가? 요원(燎原)[201]의 두려움이 어찌 기다려 아는 것이겠는가? 진정으로 뒷날의 폐단을 막는 방도에 있어서 마땅히 국청을 설치하여 엄히 신문하고, 죄상을 분명히 조사하여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해야 할 것이

200) 박종래(1746~1831): 본관 반남(潘南). 자 희보(喜甫). 1770년(영조 46) 문과 급제. 홍문관부수찬, 대사간, 광주부유수 역임.

201) 요원(燎原): 벌판을 태우는 불길. 화란(禍亂)이 장차 만연하게 됨을 이르는 말임.

다. 하지만, 그 직명(職名)을 돌아보고 그 사람됨을 용서하여 우선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으로 종신토록 정배하여 국가의 기강을 높이고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장지현, 상소, 대정현, 종신, 정배.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十一日 甲寅

○ 申鳳朝, 以義禁府言啓曰, 前修撰張至顯, 濟州牧大靜縣, 限己身定配事, 承傳啓下矣. 罪人張至顯, 拿致府庭, 讀諭傳敎後, 全羅道濟州牧大靜縣, 限己身定配, 而以承傳內辭意, 具罪目, 卽令假都事洪理燮, 押送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假都事過畿境後, 上來,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11일(갑인)

▢ 전 수찬 장지현(張至顯)을 가도사로 하여금 배소인 대정현(大靜縣)으로 압송(押送)하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신봉조(申鳳朝)[202]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수찬 장지현(張至顯)에 대해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으로 종신 정배(定配)하도록 승전(承傳)으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죄인 장지현을 의금부 뜰에 잡아다가 전교를 읽어 유시(諭示)한 후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에 종신 정배하되, 승전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즉시 가도사 홍이섭(洪理燮)으로 하여금 배소로 압송(押送)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가도사는 경기 지경을 지난 후에 올라오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장지현, 대정현, 정배, 압송.

202) 신봉조(1768~?): 본관 아주(鵝洲). 자 성지(成之).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十三日 丙辰

○ 申鳳朝, 以義禁府言啓曰, 大靜縣定配罪人張至顯, 拿來嚴問, 得情以聞事, 傳旨啓下矣. 罪人張至顯, 卽爲發遣府羅將所到處, 拿來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13일(병진)

▢ 본부 나장을 보내어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장지현(張至顯)을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신봉조(申鳳朝)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장지현(張至顯)을 잡아다 엄히 신문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보고하도록 전지(傳旨)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죄인 장지현에 대해 즉시 본부 나장을 도착하는 곳에 보내어 잡아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장지현, 대정현, 정배.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十三日 丙辰

○ 丙辰七月十三日卯時，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行右承旨李晩秀，記事官柳遠鳴，事變假注書康就昇，記注官安經心，記事官吳泰曾，右議政尹蓍東，判敦寧府事金持默，行上護軍李柱國，判中樞府事沈頤之，行禮曹判書閔鍾顯，行大護軍李敬懋，吏曹判書金載瓚，戶曹判書李時秀，行大護軍沈煥之，行護軍徐有大，行護軍李冕膺，開城留守趙鎭寬，以次進伏訖．…… 上曰，日前張至顯事，素知其爲人，故處分止此，而欲待今筵，一諭卿等矣．其疏所論，不過請勘，騎堂門將，雖似小事，關係則甚大，渠則以騎堂事，謂有後弊，而予則以爲，此而不嚴處，則後弊不可勝言，三代以上，揖讓杯酒之間，不令而嚴，不言而信，倫綱明矣，風俗淳矣，何等盛際，無容議爲，而孟子猶慮夫世變之無窮，以爲有伊尹之志則可，無伊尹之志則不可．大易亦曰，臣弑其君，子弑其父，非一朝一夕之故，其所由來者漸矣，此可見聖人之謹於微而辨之早也．國之所以爲國，以其有法紀也．有此階限，卽人鬼關頭，雖以今番事言之，旣曰設禁，則騎堂之奉法遵令，自是當然之職，以其奉法遵令而反以爲罪，則安用法令爲哉？存天下之大防，立人紀於萬世，政在此等處，決不可以只請薄勘，泛然看過也．大抵禁令一事，予亦出於不得已，而昨年設一禁令，今年立一禁令，誠不可使聞於隣國，垂示於來後，而苟使治能從欲，人皆率教，則亦豈無收還之時乎？今番禁令，雖無文跡之頒示者，至以懸首之律，分付門將，則設禁之嚴，可謂較重矣．騎曹堂郎，事同師律，何敢冒犯乎？設如渠言，騎曹堂郎，不信命令，不畏法禁，則其流之害，必至於莽操懿溫，接跡而起，人莫敢誰何，從古誅亂賊，而明義理，非爲時君世主也，卽天下萬世民彝物則之所維持者也，衮職有闕，則牽裾折檻，固無所不可，而乃以在下奉法之臣，斷斷請勘，背馳法令，日征月邁，果使命令則尼而不行，奉法者從而罪之，則一部經國大典，火之亦可也．年前專輒二字，固非好語，而以今國綱俗習，此弊不防，則將不知至於何境，豈非凜然心寒處乎？今日三司，不論至顯之犯科，諸宰不請至顯之用律，以何顔登筵席乎？予則以爲至顯，設鞫然後，王法可行，大臣諸宰，各陳所見，可也．蓍東曰，國有法禁，昭揭象魏，一有犯者，其罪，何如？而今番事，則臣等亦未詳知，禁令已下，在外三司，似或未得聞知，但見門將之阻搪，有此騎堂之請勘矣．上曰，果不知設禁乎，此則問於渠，可以知之矣．命書榻敎曰，大靜縣定配罪人張至顯，令該府拿來，嚴問得情以聞．…….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13일(병진)

▢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장지현(張至顯)을 해당 부(府)로 하여금 잡아와서 엄히 신문(訊問)하여 실정을 캐내어 보고하게 하라는 전교

○ 병진년 7월 13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만수(李晩秀), 기사관 유원명(柳遠鳴), 사변가주서 강취승(康就昇), 기주관 안경심(安經心),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우의정 윤시동(尹蓍東), 판돈녕부사 김지묵(金持默), 행상호군 이주국(李柱國), 판중추부사 심이지(沈頤之),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심환지(沈煥之), 행호군 서유대(徐有大), 행호군 이면응(李冕膺), 개성유수 조진관(趙鎭寬)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일전에 장지현(張至顯)의 일은 평소 그 사람됨을 알기에 처분이 여기에 그치고, 오늘 연석(筵席)을 기다려 한번 경들에게 유시(諭示)하려고 하였다. 그의 상소에서 논한 바는 병조 당상과 문장(門將)을 처벌하기를 청한 데에 불과하다. 그런데 비록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관계된 바가 매우 크다. 그는 병조 당상의 일을 가지고 뒷날의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이러한데도 엄히 처단하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읍(揖)하고 사양하고 술을 마시는 사이에도 명령하지 않아도 엄숙하고, 말하지 않아도 미더워서 윤리 기강이 밝고 풍속이 순박하였다. 이렇듯 성대한 시절에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맹자는 오히려 세상의 변화가 무궁한 것을 염려하여 '이윤(伊尹)의 뜻이 있으면 괜찮지만 이윤의 뜻이 없으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주역에도 또한 말하기를,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자식이 그 아비를 시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 유래하는 바가 점차적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성인(聖人)이 은미한 것에 대해 삼가면서 미리 예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는 것은 법과 기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한(階限)을 가지는 것이 곧 사람과 귀신의 가장 중요한 지경(地境)이다. 비록 금번 일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이미 금령을 제정했다고 한다면, 병조 당상이 법령을 받들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본래 당연한 직분이다. 그가 법령을 받들어 명령을 따른 것을 가지고 도리어 죄를 삼는다면 어디에다 법령을 쓰겠는가? 천하의 대방(大防)을 보존하여 인간으로서의 기강을 만세(萬世)에 세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곳에 달려있는 것으로, 결코 단지 박한 죄를 청하여 범연(泛然)히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저 금령 한 가지 일은 내가 또한 부득이 해서 낸 것으로, 작년에 하나의 금령을 설치하고, 올해에 하나의 금령을 세우게 된 것으로

실로 이웃 나라에 알려지도록 하거나 후세에 보이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정사가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사람들이 모두 가르침을 따른다면 또한 어찌 도로 거두어들일 때가 없겠는가? 금번의 금령은 비록 문적(文跡)으로 반포하여 보여준 것은 없지만 현수(懸首)의 율로써 문장에게 분부하였으니, 금령을 설행함에 있어 그 엄중함이 비교적 중하다고 말할 만하다. 병조 당상과 낭청의 일은 군사 규율과 같으니 어찌 감히 범할 수 있겠는가? 설령 그의 말대로 병조 당상과 낭청이 명령을 믿지 않고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말류의 폐해가 반드시 왕망(王莽)·조조(曹操)·사마의(司馬懿)·환온(桓溫)과 같은 사람이 잇달아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예로부터 난적(亂賊)을 벌하여 의리를 밝힌 것은 당시의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곧 천하 만세 인간의 떳떳한 도리와 사물의 법칙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다. 임금의 자리에 결함이 있으면 임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거나 난간을 부러뜨리면서까지 간쟁하는 것은 진실로 안 될 것이 없지만, 아래에 있으면서 법을 받드는 신하로서 단단히 죄를 청한 것이 법령에 반대가 되어 어긋나고,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명령이 저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법을 받드는 자를 따라서 죄를 준다면 한 부분의 경국대전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 또한 옳을 것이다. 몇 해 전의 '전첩(專輒)' 두 글자는 실로 좋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기강과 습속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막지 않는다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으니, 어찌 두렵고 한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삼사(三司)가 장지현이 죄를 범한 것을 논하지 않았으니, 재신들은 무슨 얼굴로 연석에 올라왔는가? 나는 장지현에 대해 국청을 설치한 후에야 왕법이 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신과 재신들은 각자 소견을 말해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윤시동이 아뢰기를, "나라에 법금을 두어 밝게 게시한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죄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금번 일은 신들이 또한 미처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금령이 이미 내려졌지만 밖에 있는 삼사가 혹 들어알지 못하여 단지 문장이 저지하였던 것을 보고 이렇게 병조 당상에 대한 처벌을 청한 것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금령의 설행을 알지 못했을까? 이것은 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203] 쓰라고 명하여 어전에서 하교하기를,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定配罪人) 장지현을 해당 부(府)로 하여금 잡아와서 엄히 신문(訊問)하여 실정을 캐내어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 정배죄인, 장지현, 신문.

---

203) 이상은 《정조실록》 정조 20년 7월 1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十六日 己未

○ 丙辰七月十六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黃昇源, 行右承旨李晩秀, 左副承旨金翰東, 右副承旨朴宗來, 同副承旨魚用謙, 記事官金履永, 假注書具得魯,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檢校待敎沈象奎, 以次進伏訖. 昇源讀奏 …… 濟州漂民領來差倭接待事, 及雨澤事, …… 上命啓下書判付. …… 命晩秀書張至顯口招判付. 上曰, 渠供中大官小官, 無敢呈一筆跡, 傳敎則見之, 門將處嚴飭則不知云者, 首尾橫決, 令金吾更爲捧供, 可也.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16일(기미)

▢ 행도승지 황승원(黃昇源)이 제주(濟州) 표민(漂民)을 데리고 온 차왜(差倭)를 접대한 일과 우택(雨澤)에 관한 일을 읽어 아뢴 것과 장지현(張至顯)의 공초(供招)를 다시 받으라는 전교

○ 병진년 7월 16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황승원(黃昇源), 행우승지 이만수(李晩秀), 좌부승지 김한동(金翰東), 우부승지 박종래(朴宗來), 동부승지 어용겸(魚用謙),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가주서 구득로(具得魯),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황승원이 〈중략〉 제주(濟州) 표민(漂民)을 데리고 온 차왜(差倭)[204]를 접대한 일과 우택(雨澤)에 관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중략〉 임금이 계하(啓下)하도록 명하여 판부(判付)를 쓰게 했다. 〈중략〉 이만수에게 명하여 장지현(張至顯)의 구초(口招)[205]에 대한 판부를 쓰게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의 공초(供招) 중의 대관(大官)과 소관(小官)은 감히 한 글자도 올림이 없는데 전교는 보았고, 문장(門將)에게 엄히 타일러 경계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공초를 받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표민, 차왜, 접대, 장지현, 공초.

---

204) 차왜(差倭): 관백(關白)이나 관백의 명을 받은 대마도주(對馬島主)가 특별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파견한 왜인.

205) 구초(口招): 죄인이 자백하는 공술(供述).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十七日 庚申

○ 禁府啓目, 大靜縣定配罪人張至顯口招云云, 傳敎內辭意, 發問目反覆嚴問, 則一辭發明, 終不直招, 泛稱遲晩, 究厥情狀, 萬萬痛惡,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 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且有嚴問捧口招以聞之命, 上裁, 何如? 判付啓, 門將處禁令, 初不依俙, 聞知是如, 極口發明, 到今雖難直歸之於知而故犯, 初二日傳敎, 係是登聞於公家文跡以前事, 則猶復捏引, 有若只知初令, 不聞後禁然者, 首尾橫決, 無以分曉, 此一款, 後坐起時, 更爲嚴問取招以聞爲良如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17일(경신)

▢ 장지현(張至顯)을 다시 엄히 신문(訊問)하여 공초(供招)를 받아서 보고하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대정현(大靜縣) 정배죄인 장지현(張至顯)의 구초(口招) 운운에 대하여 전교 내의 내용으로 문목(問目)을 만들어서 반복하여 엄히 신문(訊問)하였더니, 한결같이 변명하며 끝내 바른대로 공초(供招)하지 않고 범연(泛然)[206]히 지만(遲晩)[207]이라고 하였으니, 그 정상을 캐어 보면 너무나도 가증스럽습니다. 형추를 청해야 합니다만,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자에 대해서는 형추를 청하지 말도록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고, 또 엄히 신문하여 구초를 받아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기를, "문장(門將)에게 내린 금령(禁令)에 대해 처음에는 모호하지 않게 들어서 알았다고 온갖 말을 다하여 변명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비록 알면서도 고의로 범했다고 바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초2일의 전교는 바로 공가(公家)의 문적(文跡)에 앞의 일을 가지고 보고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다시 날조해 끌어다가 마치 단지 처음 명령만 알고 뒤의 금령을 듣지 못해서 그러한 것처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분명하지가 않다. 훗날 좌기(坐起)[208]할 때 다시 엄히 신문하여 공초를 취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장지현, 신문, 공초.

---

206) 범연(泛然):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데면데면함.

207) 지만(遲晩): 지체되어 늦었다는 직접적인 문의(文意)에서 확장되어, '너무 오래 속이고 자백하지 않은 것이 미안하다'는, 즉 자복(自服)을 가리키는 법제어.

208) 좌기(坐起): 관사(官司)에 나아가 집무함.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十九日 壬戌

○ 丙辰七月十九日卯時, 上御熙政堂. 親臨都政入侍時, 行都承旨李冕膺, 行左承旨李亨元, 行右承旨洪仁浩, 左副承旨金祖淳, 右副承旨金勉柱, 同副承旨朴宗來, 假注書曺錫中·黃基天,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檢校待敎沈象奎·徐有榘, 吏曹判書金載瓚, 參判黃昇源, 正郎李運行·申光岳, 佐郎尹愭·李明孚, 行兵曹判書趙宗鉉, 參判尹弼秉, 參議李尙度, 參知吳泰賢, 正郎鄭晩錫·呂駿永·南達孫·南浹, 佐郎趙台榮·李海淸·金景煥·金秀臣, 以次進伏訖. …… 上命書傳敎曰, 島邑遞來之後, 欲爲召問, 今適詣臺, 持平南浹, 使之入侍. 賤臣承命出, 與持平南浹, 偕入進伏. 上曰, 濟州事, 何爲而至其然也? 浹曰, 濟州歉荒, 挽近所罕, 草根木實, 皆不成熟, 民事竟至於莫可收拾之境, 而罔非臣奉職無狀之致也. 上曰, 有情勢則言情勢, 有避嫌則言避嫌, 斯速出場, 可也. 浹曰, 臣於見職, 本無一分堪承之望, 而海島歉荒, 積犯不善對揚之罪, 特以人微而倖逭, 其在廉防, 不敢抗顔於淸塗也, 明矣. 召牌之下, 未卽承膺, 致勤飭敎, 臣滿心慙惶, 無地自容, 以此情踪, 其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請命遞斥臣職. 上曰, 依啓. 【出擧條】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19일(임술)

▢ 현직의 체차(遞差)를 청하는 지평 남속(南浹)의 계

○ 병진년 7월 19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친림한 도정(都政)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면응(李冕膺), 행좌승지 이형원(李亨元), 행우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김조순(金祖淳), 우부승지 김면주(金勉柱), 동부승지 박종래(朴宗來), 가주서 조석중(曺錫中)·황기천(黃基天),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서유구(徐有榘),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참판 황승원(黃昇源), 정랑 이운행(李運行)·신광악(申光岳), 좌랑 윤기(尹愭)·이명부(李明孚), 행병조판서 조종현(趙宗鉉), 참판 윤필병(尹弼秉), 참의 이상도(李尙度), 참지 오태현(吳泰賢), 정랑 정만석(鄭晩錫)·여준영(呂駿永)·남달손(南達孫)·남속(南浹), 좌랑 조태영(趙台榮)·이해청(李海淸)·김경환(金景煥)·김수신(金秀臣)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섬의 읍에서 체차(遞差)되어 돌아온 후에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였는데, 지금 마침 대청(臺廳)[209]에 이르렀으니 지평 남속(南浹)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

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지평 남속과 함께 들어와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일은 어찌하여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냐?”라고 하였다. 남속이 아뢰기를, “제주의 흉년은 최근 몇 년 이래로 드문 바입니다. 풀뿌리와 나무 열매도 모두 성숙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일이 마침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이 직임을 받드는 것이 형편이 없는 소치(所致)가 아님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세(情勢)가 있으면 정세를 말하고, 피혐(避嫌)이 있으면 피혐을 말하여 속히 끝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남속이 아뢰기를, “신은 현직에 대하여 본디 조금도 감당하여 받들 가망이 없습니다. 해도(海島)의 흉년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널리 알리는 것을 잘하지 못한 죄를 누차 범한 것은 다만 사람이 미천한 것으로써 요행히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치없는 짓을 못하게 하는 일에 있어 감히 청환(淸宦)의 벼슬에 오르는 길에 대해서는 얼굴을 들어 사람을 대할 수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소패(召牌)가 내렸는데도 즉시 명을 받들지 않고 수고로이 타일러 경계하는 하교를 내리게 하였으니, 신은 온통 부끄럽고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어찌 감히 잠시라도 대차(臺次)[210]에 편안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남속, 대각, 체차.

209) 대청(臺廳):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이 상주(上奏)할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궁중의 청사.
210) 대차(臺次): 대각(臺閣)의 반열.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二十五日 戊辰

○ 鄭尙愚, 以司僕寺言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到中路故失, 十五匹華城府親軍衛分給, 九匹到江頭病留, 實納馬一百七十五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25일(무진)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세공마(先運歲貢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사복시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세공마(先運歲貢馬) 200필 안에 1필은 중로(中路)에서 죽었고, 15필은 화성부(華城府) 친군위(親軍衛)에 분급(分給)하였고, 9필은 강 어귀에 이르러 병이 들어 머물고 있어 실제로 바치는 말 175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별단.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二十七日 庚午

○ 金熙朝, 以司僕寺提調言啓曰, 濟州出來, 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一匹中路故失除, 實納馬八十七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27일(경오)

▢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연례진상마(後運年例進上馬) 등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김희조(金熙朝)가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연례진상마(後運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 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88필 안에 1필이 중로(中路)에서 죽은 것을 제하여 실제로 바치는 말 87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노태마, 별단.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二十九日 壬申

○ 以忠淸監司林濟遠狀啓, 八月令生松茸及早紅柿子, 限內不得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祖承曰, 勿待罪事, 回諭. 薦獻與封進, 隨其摘取, 從便, 勿拘應式箇數, 一依耽羅橘柚例, 而嶺南·湖南, 一體預爲分付. 無論柿與柚與各樣封進實果, 今年則一倂從便爲之事, 令禮曹分付各該道臣, 而松營封進松茸, 依此闊狹事, 亦爲分付.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29일(임신)

▢ 영남과 호남에서 봉진(封進)하는 과일을 규식에 응하는 개수에 구애받지 말고 탐라(耽羅) 귤유(橘柚)의 사례대로 모두 편리할 대로 봉진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충청감사 임제원(林濟遠)[211]의 장계에, 8월령 생송이(生松茸)와 올홍시[早紅柿子]를 기한 내에 봉진(封進)할 수 없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조승(李祖承)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 천헌(薦獻)과 봉진은 그것의 적취(摘取)에 따라서 편리할 대로 하여 규식에 응하는 개수에 구애받지 말고 한결같이 탐라(耽羅) 귤유(橘柚)의 사례대로 하도록 영남과 호남에 일체 미리 분부하라. 감과 유자와 각종 봉진하는 과일을 금년에는 모두 편리할 대로 하도록 예조로 하여금 각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도록 하였고, 송영(松營)에서 봉진하는 송이는 이에 의거해서 융통성 있게 하도록 또한 분부하였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헌, 봉진, 과일, 귤유.

211) 임제원(1737~?): 본관 나주(羅州).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병조참판, 고령현감, 충청도관찰사 역임.

❖ 嘉慶 元年 丙辰 七月 二十九日 壬申

○ 李海愚,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慶守, 乙卯丙辰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7월 29일(임신)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경수(金慶守)의 봉진마(封進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해우(李海愚)가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경수(金慶守)의 을묘년과 병진년 두해 조(條) 봉진마(封進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경수, 봉진마, 별단.

❖ 嘉慶 元年 丙辰 八月 五日 丁丑

○ 以平安監司朴宗甲狀啓, 濟州漂海人等護送事, 判付內, 啓下備邊司爲旀, 濟州許多漂民之生還, 極爲奇幸, 嚴飭所經各邑, 厚給衣糧, 各騎刷馬, 期於無事交付於原籍官爲良如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8월 5일(정축)

▢ 살아 돌아온 제주(濟州)의 표해인(漂海人)이 지나가는 각 읍(邑)이 옷과 양식을 넉넉히 지급하고 각기 쇄마(刷馬)를 타고 가게 할 것을 엄중히 타일러 경계하라는 전교

○ 평안감사 박종갑(朴宗甲)의 장계에, 제주(濟州)의 표해인(漂海人) 등을 호송하는 일에 대해 판부(判付)한 내용에, "비변사에 계하(啓下)한다. 제주의 허다한 표민(漂民)이 살아 돌아왔다니 아주 기이하고 다행한 일이다. 지나가는 각 읍(邑)에 엄중히 타일러 경계하여 옷과 양식을 넉넉히 지급하고 각기 쇄마(刷馬)를 타고 가게 하여, 무사히 원적(原籍)의 관(官)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표해인, 호송, 옷, 양식, 쇄마, 지급.

❖ 嘉慶 元年 丙辰 八月 五日 丁丑

○ 丙辰八月初五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禮房承旨入侍時, 藥房提調沈頤之, 副提調李冕膺, 左副承旨李肇源, 假注書洪奭周,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僩, 檢校待教沈象奎,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李周憲·朴春源·玄必采·李惟鑑, 以次進伏訖. …… 上曰, 八月日氣之若是蒸溽, 可謂罕見, 而其於農功則爲益不少矣. 頤之曰, 農形善成, 米直日減, 惠堂之貿米, 正得其時矣. 上曰, 貿米尙今不擧行云乎? 冕膺曰, 臣父以癰老之蹤, 待罪惠堂, 不得登筵一陳, 極爲惶蹙, 而目今市價極低, 一石之直, 不滿四兩, 若欲貿米, 則此時不可失, 故方欲發關營邑, 而姑以諸議之不齊未及擧行矣. 上曰, 當初疏請, 旣已許施, 而衆論多有參差, 大抵湖南沿民, 新困於耽羅船粟之役, 累萬石船運, 又非容易, 則廟堂之持難, 亦無足怪矣. 疏辭雖以十萬石爲請, 而在今先試之時, 不必踰一二萬石矣. 頤之曰, 諸議雖多異同, 臣意則固以惠堂之見爲好, 而但價錢之一及民, 穀品之一一精好, 有難期必. 道伯·守令, 恐亦多不願者矣. 冕膺曰, 臣父則以爲, 事或有弊, 責固自任, 而若能善爲擧行, 則中間消融之患, 固當期於痛祛, 若以營邑之不願, 而初不發關, 則反有損於國體矣.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8월 5일(정축)

▢ 임금이 신하들과 쌀값이 내려갔을 때 선혜청에서 쌀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호남(湖南) 연읍(沿邑) 백성들이 제주(濟州)로 곡물을 운송하는 역(役)의 괴로움을 언급함.

○ 병진년 8월 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예방승지가 입시할 때, 약방제조 심이지(沈頤之), 부제조 이면응(李冕膺),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홍석주(洪奭周),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이주헌(李周憲)·박춘원(朴春源)·현필채(玄必采)·이유감(李惟鑑)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8월 일기가 이와 같이 찌는 듯 무더우니 드물게 보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농사일에는 이익이 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농사형편이 잘 이루어져 쌀값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니, 선혜청 당상이 쌀을 사들이는 것이 바로 제때를 얻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쌀을 사들이는 것을 아직

도 거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면응이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약한 몸으로 선혜청 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연석에 나아가 한 번 아뢰지 못하였으니 매우 황공합니다만, 현재 시가(市價)가 매우 낮아 1섬 값이 4냥이 못 됩니다. 만약에 쌀을 사들이려고 한다면 이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막 영읍(營邑)에 관문(關文)을 보내려고 하였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의견이 가지런하지 않아 미처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 상소의 요청을 이미 허락하였지만 중론(衆論)에 차이가 많이 난다. 대저 호남(湖南) 연읍(沿邑)의 백성들은 탐라로 곡물을 운송하는 역(役)으로 새롭게 괴로움을 겪고 있다. 수만 섬을 배로 운송하는 것이 또한 용이한 일이 아니니, 묘당이 일을 얼른 처리하지 못하는 것 또한 괴이할 것이 못된다. 상소의 내용에 비록 100,000섬을 청하였지만 우선 시험삼아 하는 때에 있어서는 10,000섬에서 20,000섬을 넘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심이지가 아뢰기를, "여러 의견이 비록 같고 다름이 많지만, 신의 생각에는 실로 선혜청 당상의 견해가 좋기는 합니다. 다만 값이 한결같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곡물의 품질이 하나하나가 깨끗하고 좋을 것을 기필(期必)하기가 어려우니, 관찰사와 수령 중에 원하지 않는 자가 또한 많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면응이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는 일에 혹 폐단이 있다면 책임은 진실로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능히 잘 거행한다면 중간에 다 써버리는 근심을 실로 통렬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읍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관문을 보내지 않는다면 도리어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선혜청, 쌀값, 호남, 연읍, 운송.

❖ 嘉慶 元年 丙辰 八月 九日 辛巳

○ 丙辰八月初九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副承旨魚用謙, 假注書曺錫中, 事變假注書呂東植,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右議政尹蓍東, 判敦寧金持默, 行兵曹判書鄭好仁, 行禮曹判書閔鍾顯, 行大護軍沈頤之, 吏曹判書金載瓚, 戶曹判書李時秀, 刑曹判書尹師國, 大護軍李敬懋, 大護軍沈煥之, 行護軍徐有大·徐龍輔, 修撰韓用鐸, 以次進伏訖. …… 上曰, 今年諸穀則旣如彼豐登, 而至於諸果之不成實, 卽挽近所未有, 非但桃杏, 如柿梨之屬, 皆然否? 蓍東曰, 柿則果無成熟, 而梨則以開花稍晩之故, 不至絶種, 棗栗亦能成樣, 而至於橘柚, 則臣見濟州牧使私書, 殆無成實者, 進上將不免闕封之慮云矣.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8월 9일(신사)

▢ 금년 과실들이 열매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귤유(橘柚)의 궐봉(闕封)에 대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염려를 아뢰는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의 계

○ 병진년 8월 9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부승지 어용겸(魚用謙), 가주서 조석중(曺錫中), 사변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우의정 윤시동(尹蓍東), 판돈녕 김지묵(金持默), 행병조판서 정호인(鄭好仁),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행대호군 심이지(沈頤之),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형조판서 윤사국(尹師國), 대호군 이경무(李敬懋), 대호군 심환지(沈煥之),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서용보(徐龍輔), 수찬 한용탁(韓用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곡식들은 이미 저와 같이 풍년이 들었는데, 과실들이 열매를 이루지 못한 경우는 최근 몇 년 이래로 없던 일이다. 복숭아와 살구뿐만 아니라 감과 배 같은 것이 모두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윤시동이 아뢰기를, "감은 과연 익은 것이 없고, 배는 개화가 조금 늦은 까닭이지만 절종(絶種)에 이르지는 않겠으며, 대추와 밤은 또한 모양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귤유(橘柚)의 경우는 신이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사적인 편지를 보았는데, 거의 열매를 이룬 것이 없어서 진상에 장차 궐봉(闕封)의 염려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귤유, 궐봉.

❖ 嘉慶 元年 丙辰 八月 十三日 乙酉

○ 丙辰八月十三日卯時, 上御誠正閣. 稟事堂上入侍時, 行右承旨李晩秀, 假注書曺錫中,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僩, 行上護軍李柱國, 判中樞府事沈頤之, 刑曹判書尹師國, 吏曹判書金載瓚, 戶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沈煥之, 開城留守趙鎭寬, 行護軍李冕膺, 以次進伏訖. …… 上曰, 近日市直何如, 而今番風後, 不至更踊耶? 時秀曰, 一兩錢, 上米八升, 中米九升, 下米一斗, 而數日之間, 無更踊矣. 日前安嬪祭羞, 每年輸送事, 有擧條批答, 而其中錢五十文, 一兩與一錢之間, 未能的知, 何以爲之耶? 上曰, 曾見度支古例, 五十兩, 稱五十文, 故今春濟州所下條傳敎中, 亦以兩爲文, 卿須詳考前例後, 以兩字, 改付標好矣.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8월 13일(을유)

▢ 안빈(安嬪)의 제수(祭羞)에 수송하는 문(文)과 관련하여 임금에게 냥(兩)과 전(錢)의 구분을 묻는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에게 올봄에 제주(濟州)에 내린 전교에 냥(兩)을 문(文)으로 썼음을 언급함

○ 병진년 8월 13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품사당상(稟事堂上)이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만수(李晩秀), 가주서 조석중(曺錫中),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행상호군 이주국(李柱國), 판중추부사 심이지(沈頤之), 형조판서 윤사국(尹師國),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심환지(沈煥之), 개성유수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이면응(李冕膺)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시가(市價)는 어떠한가, 이번에 바람이 분 후에 다시 오르지는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1냥에 상미(上米)는 8되, 중미(中米)는 9되, 하미(下米)는 10되이고, 며칠 사이에 다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 안빈(安嬪)의 제수(祭羞)를 매년 수송하도록 거조(擧條)에 대한 비답이 있었는데, 그중에 전(錢) 50문(文)은 1냥과 1전 사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호조(戶曹)의 옛 사례를 보니, 50냥을 50문이라 칭하였다. 때문에 올봄에 제주(濟州)에 내린 전교에도 냥을 문으로 한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전례를 자세히 살핀 뒤에 냥(兩)자로 고쳐서 부표(付標)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문, 냥, 전.

❖ 嘉慶 元年 丙辰 九月 三日 乙巳

○ 金翰東, 以義禁府言啓曰, 時囚罪人兪應煥原情公事, 判付內, 依同罪他囚例勘放事, 命下矣. 徽陵前別檢夫宗仁, 係是同罪, 而旣因判付, 特蒙分揀, 則不可罪同罰異, 而臣府不敢擅便, 上裁, 何如? 傳曰, 兪應煥亦是濟州人乎? 同罪云者, 亦非夫宗仁之謂也. 然旣遞職, 分揀放送,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9월 3일(을사)

▢ 유응환(兪應煥)의 감방(勘放)과 관련하여 같은 죄를 지은 제주인(濟州人) 부종인(夫宗仁)을 거론하며 처결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김한동(金翰東)[212]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시수죄인(時囚罪人) 유응환(兪應煥)[213]의 원정공사(原情公事)와 관련하여 판부(判付) 내에, 같은 죄를 지은 다른 죄수의 사례에 의거하여 감방(勘放)[214]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전 휘릉별검(徽陵別檢) 부종인(夫宗仁)이 바로 같은 죄인데, 이미 판부로 인하여 특별히 분간(分揀)을 받았으니, 죄가 같은데 벌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신의 부(府)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유응환도 제주인(濟州人)인가? 같은 죄라고 한 것은 또한 부종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체직(遞職)하였으니, 분간하여 풀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부종인, 죄, 분간.

---

212) 김한동(1740~1811): 본관 의성(義城). 자 한지(翰之). 호 와은(臥隱).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순천부사, 대사간, 승지 역임.

213) 유응환(?~?): 본관 기계(杞溪). 1800년(정조 24) 문과 급제. 호조참판 역임.

214) 감방(勘放): 죄인의 죄상(罪狀)을 조사하고 취조(取調)한 다음 놓아 줌.

❖ 嘉慶 元年 丙辰 九月 五日 丁未

○ 以全羅監司徐鼎修狀啓, 薦新柚子石榴, 不得封進, 令該曹, 稟旨分付事, 判付內, 啓下禮曹爲旀, 薦獻柚子, 自有耽羅貢果, 本道則薦新所用代封與否, 不必稟處, 此意分付爲旀, 嶺南道臣處, 亦爲知委, 使之知此擧行爲良如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9월 5일(정미)

▢ 천신(薦新)하는 유자(柚子)와 석류를 봉진(封進)할 수 없다고 올린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대해 제주(濟州)의 공과(貢果)가 있으니 대봉(代封)할지 여부를 품처(稟處)할 필요가 없다는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유자(柚子)와 석류를 봉진(封進)할 수 없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도록 한 일과 관련하여 판부(判付)하기를, "예조에 계하(啓下)한다. 천헌(薦獻)하는 유자는 탐라(耽羅) 공과(貢果)가 있으니 본도(本道)는 천신에 쓰이는 것을 대봉(代封)할지 여부를 품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분부하고, 영남 관찰사에게도 알려서 이렇게 알아서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봉진, 천신, 유자, 공과.

❖ 嘉慶 元年 丙辰 十月 五日 丁丑

○ 以全羅監司徐鼎修狀啓, 來十月令肇慶廟薦新柚子, 不得薦獻緣由馳啓事, 傳于李益運曰, 待濟州貢果來到, 先爲薦獻後, 狀聞事回諭.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0월 5일(정축)

▢ 조경묘(肇慶廟)에 천신(薦新)할 유자(柚子)를 천헌(薦獻)할 수 없는 연유를 치계(馳啓)한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에게 제주(濟州)의 공과(貢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천헌(薦獻)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오는 10월령 조경묘(肇慶廟)에 천신(薦新)할 유자(柚子)를 천헌(薦獻)할 수 없는 연유를 치계(馳啓)한 일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의 공과(貢果)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천헌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도록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라감사, 서정수, 천신, 유자, 공과.

❖ 嘉慶 元年 丙辰 十月 二十五日 丁酉

○ 刑曹啓目, 向前濟州牧使柳師模, 旣已遲晩, 所當照律施行是白乎矣, 係是防禦使, 臣曺不敢擅便, 上裁, 何如? 判付啓, 分揀爲良如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0월 25일(정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죄를 용서하라는 전교

○ 형조의 계목(啓目)에, "지난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이미 죄를 자백하였으니 마땅히 율(律)에 비추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방어사이니 신의 조(曺)가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분간(分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분간.

❖ 嘉慶 元年 丙辰 十一月 二十四日 乙丑

○ 丙辰十一月二十四日辰時, 上御便殿. 元子侍坐, 時原任大臣入侍時, 行左承旨李晩秀, 假注書尹命烈,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左議政蔡濟恭, 領敦寧金履素, 判府事李秉模, 右議政尹蓍東, 以次進伏訖. …… 濟恭曰, 耽羅妓, 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纔上來而適値劇寒, 彷徨旅邸, 來見臣泣訴, 渠雖賤類, 其義可尙, 其情可憫, 分付有司, 另加顧恤, 似好矣. 上曰, 耽羅人之朝家軫恤, 視他道尤別. 渠以一賤妓, 出義捐財, 助賑窮民, 已極可嘉, 而其所願, 亦不碌碌, 旣已上來之後, 何可使呼饑道路? 自備局更問于渠, 如欲留, 開春後下送金剛山, 使得觀玩後給糧資, 津送本鄕, 以示無物不遂之意, 可也.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1월 24일(을축)

▢ 재물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賑恤)한 탐라(耽羅)의 기녀를 봄이 된 후에 금강산으로 내려보내어 구경할 수 있게 한 후에 고향으로 보내라는 전교

○ 병진년 11월 24일 진시에 임금이 편전으로 나아갔다. 원자가 시좌(侍坐)하고, 시·원임대신이 입시할 때, 행좌승지 이만수(李晩秀), 가주서 윤명렬(尹命烈),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영돈녕 김이소(金履素), 판부사 이병모(李秉模),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채제공이 아뢰기를, "탐라(耽羅)의 기녀가 재물을 내놓아 백성을 진휼(賑恤)하였는데,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면천(免賤)을 원하지 않으며, 왕성(王城)을 한 번 보고 이어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니, 소원을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올라왔지만 마침 심한 추위를 만나 여저(旅邸)를 방황하다가 신을 와서 보고는 울며 호소하였습니다. 저이가 비록 천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그 의리가 가상합니다. 그 사정이 가련하니 유사(有司)에 분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돌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인(耽羅人)을 조정에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도(道)에 비해 더욱 각별하다. 저이가 하나의 천한 기녀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곤궁한 백성을 진휼하는 것을 도운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하지만 그 원하는 바 또한 녹록하지가 않으니, 이미 올라온 후에 어찌 길에서 배고픔을 호소하게 할 수 있겠는가? 비국에서 저이에게 다시 물어서 만약에 머물고 싶어한다면, 봄이 된 후

에 금강산으로 내려보내어 구경할 수 있게 한 후에 양식을 주고 나루[津]에서 고향으로 보내어 모든 만물을 이루어 주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채제공, 기녀, 진휼, 왕성, 금강산.

❖ 嘉慶 元年 丙辰 十一月 二十五日 丙寅

○ 金啓洛,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妓生萬德處, 今朔糧資米一石·錢五兩, 題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値劇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 可也.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1월 25일(병인)

▢ 제주(濟州) 기생 만덕(萬德)이 봄이 되어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沿路)의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넉넉히 양식을 지급하게 하라는 전교

○ 김계락(金啓洛)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제주(濟州) 기생 만덕(萬德)에게 이번 달 양식으로 쌀 1섬과 돈 5냥을 제급(題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재물을 베풀어 주린 백성을 진활(賑活)한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저이에게 바라는 것을 물었더니, 상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한 면천(免賤)을 원하지도 않았다. 원하는 것은 다만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올라왔다가 금강산을 보는 것이라 했다 한다. 하지만 심한 추위를 만나서 금강산을 향해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저이가 비록 천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의기(義氣)는 옛날의 열협(烈俠)에 부끄럽지 않다. 봄이 되면 양식을 주고, 바로 내의원 차비대령행수의녀(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에 충차(充差)하여 수의(首醫)[215]에게 붙여서 각별히 돌보게 하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沿路)의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넉넉히 양식을 지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기생, 만덕, 양식, 행수의녀, 금강산.

215) 수의(首醫): 내의원 소속의 우두머리 의관.

❖ 嘉慶 元年 丙辰 十一月 二十五日 丙寅

○ 李鼎揆, 以內醫院都提調·提調意啓曰, 賑恤廳濟州妓生萬德今朔糧資米錢題給事, 草記批旨內知道. 散施貲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仍値劇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顧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可也事, 命下矣. 依下敎, 濟州婢萬德, 差備待令行首醫女, 加設充差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1월 25일(병인)

▢ 만덕(萬德)을 행수의녀(行首醫女)로 가설(加設) 충차(充差)하겠다는 내의원(內醫院)의 계

○ 이정규(李鼎揆)가 내의원(內醫院) 도제조와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진휼청에서 제주(濟州) 기생 만덕(萬德)에게 이번 달 양식으로 쌀과 돈을 제급(題給)하는 일의 초기(草記)에 대한 비지(批旨) 내에, ‘알았다. 재물을 베풀어 주린 백성을 진활(賑活)한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저이에게 바라는 것을 물었더니, 상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한 면천(免賤)을 원하지도 않았다. 원하는 것은 다만 바다를 건너 서울에 올라왔다가 금강산을 보는 것이라 했다 한다. 하지만 심한 추위를 만나서 금강산을 향해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저이가 비록 천한 부류이기는 하지만 의기(義氣)는 옛날의 열협(烈俠)에 부끄럽지 않다. 봄이 되면 양식을 주고, 바로 내의원차비대령행수의녀(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에 충당하여 수의(首醫)[216]에게 붙여서 각별히 돌보게 하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沿路)의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넉넉히 양식을 지급하게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교 대로 제주 비(婢) 만덕을 차비대령 행수의녀(差備待令行首醫女)로 가설(加設) 충차(充差)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내의원, 기생, 만덕, 행수의녀, 충차.

---

216) 수의(首醫): 내의원 소속의 우두머리 의관.

❖ 嘉慶 元年 丙辰 十一月 二十八日 己巳

○ 萬德傳三上, 權知承文院副正字徐俊輔, 上之十有九年甲寅, 耽羅告饑. 上命發倉往哺之, 於是錢出於帑, 粟出於沿, 厥數皆萬萬, 方舟之汎也, 降香祭海, 海波不揚, 千檣穩涉, 如往而復, 粵翌年乙卯又告饑, 一甲寅之例而加之以慈恩, 一島黎庶, 咸北望稽首, 不知荒年之苦也. 時有萬德者, 州之婢也, 少倜儻有丈夫志, 雖賤娼乎遊, 持身處事, 往往出入意, 官于州者, 亦未嘗蔑之, 饒於財而篤於義, 見人急, 芥捐千金, 常恨局於彈丸, 莫之展其奇. 當牧伯之詣館舍宣布恩綸, 萬德從傍聽諺讀, 喟然歎曰, 重溟遠矣, 九重邃矣, 粒我島民, 如救焚溺, 吾儕小人, 其敢愛其財而利其己乎? 遂散貲累賙貧乏, 前後所活, 爲數千人, 事聞于朝, 上嘉之, 命牧伯詢其所欲爲, 萬德辭曰, 周恤鄰里常也, 敢望償乎? 牧伯欲免其役, 又辭曰, 賤人賤固當爾, 免亦奚爲? 牧伯固問之, 乃曰, 無已則有一焉, 婢之生在數千里南溟之外, 不得一至京闕, 與都人士女, 同瞻羽旄, 且聞國之東, 有皆骨山, 華人至願一見, 耽羅雖僻遠, 亦朝鮮之屬州也, 可無一寓目乎? 遂此兩事至願矣. 牧伯以其實聞, 上獎之以烈俠, 給馬備粻, 旣抵洛, 命太醫院, 屬之女醫之首, 惠廳月支錢米, 時値大雪, 使之待春往金剛, 俾酬其願. 於是萬德之所往, 人皆聚觀而稱道之, 縉紳大夫, 記其事而傳奇, 萬德之名, 乃播於國中. 噫, 積而能散, 男子之所難能, 功而辭賞, 士夫之所難辦也, 萬德以島中之一女子, 身不離婢使之賤而乃能之, 豈不偉也哉? 又況一見京闕之願, 亶出秉彝, 信乎天之降衷, 不限於島陸, 不界於貴賤, 金剛之遊, 又何奇且壯也? 耽羅, 世所稱瀛洲也, 鍾於物, 有騏驥竹箭橘柚之屬, 供于王庭, 萬德亦此類也歟. 嘗聞西[巴]蜀淸, 以丹穴世其富, 秦皇爲之築臺而美之, 今萬德, 有蜀淸之財, 而兼魯家之義, 起於島中, 名聞四方, 若使太史公在者, 其將編於貨殖之傳耶, 烈俠之傳耶?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1월 28일(기사)

▢ 권지 승문원부정자 서준보(徐俊輔)의 만덕전(萬德傳)

○ 만덕전(萬德傳) 삼상(三上). 권지 승문원부정자 서준보(徐俊輔)[217]. 임금님 19년 갑인, 탐라(耽羅)에서 기근을 알려왔다. 임금이 창고를 열어 가서 먹이라고 명하였다. 이에 탕전(帑錢)을 내고 연해(沿海) 읍에서 곡물을 내게 하니, 그 수가 모

217) 서준보(1770~1856): 본관 대구(大丘). 자 치수(穉秀). 호 죽파(竹坡). 시호 문정(文貞).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홍문관제학, 판의금부사, 수원부유수 역임.

두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바야흐로 배를 띄울 때 향축(香祝)을 내리고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니 파도가 일지 않아 숱한 배가 평온하게 바다를 건넜고, 갈 때와 같이 돌아왔다. 다음해인 을묘년에도 기근을 알려오자 한결같이 갑인년의 사례로 하면서 자은(慈恩)을 더하니, 온 섬의 백성들이 모두 북쪽을 바라보며 머리가 땅에 닿도록 몸을 굽혀 절을 하였고, 흉년의 괴로움을 알지 못했다. 이때에 만덕(萬德)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주(州)의 비(婢)이다. 어려서부터 기개가 커서 장부(丈夫)의 뜻이 있었으니, 비록 노니는 자리에서의 천한 창기(娼妓)이기는 하지만 몸가짐과 일처리에 왕왕 들고 나는 뜻이 있었다. 때문에 주에서 벼슬을 하는 자들 또한 일찍이 멸시하지 않았다. 재물을 넉넉히 하면서 의리를 돈독히 하여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는 천금(千金)을 티끌처럼 버리면서도 탄환(彈丸) 같이 작은 섬에 웅크려서 그 뛰어남을 펼칠 수 없음을 늘상 한탄하였다. 목사가 객사에 나아가서 은륜(恩綸)을 선포함을 당하여 만덕이 좇아서 언독(諺讀)을 듣고는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기를, “바다는 멀고, 궁궐은 깊은데, 우리 섬 백성들 먹이는 것을 마치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에서 구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우리 소인(小人)들이 감히 재물을 아끼면서 자기만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많은 재물을 풀어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구제하니, 앞뒤로 구활한 것이 수천 인이나 되었다. 일이 조정에 보고되자 임금이 기뻐하여 목사에게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물으니, 만덕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웃 마을을 구휼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입니다. 감히 보답을 바라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목사가 그 역(役)을 면하고자 하였지만 또 사양하며 말하기를, “천한 사람이 천한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일 뿐입니다. 면하는 것을 또 어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목사가 굳이 물으니 이에 대답하기를, “할 수 없다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수천 리 남쪽 큰 바다 밖에 있어서 한번 서울에 있는 궁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도인사녀와 더불어 함께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싶습니다. 또한 들으니, 나라의 동쪽에 개골산(皆骨山)이 있어서 중국인들이 한 번 보기를 지극히 원한다고 합니다. 탐라가 비록 후미져 먼 곳이기는 하지만 또한 조선에 속한 고을이니, 한번 눈으로 볼 수 없겠습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일이 지극히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목사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니, 임금이 열협(烈俠)으로 칭찬하고 말을 내주고 양식을 갖춰주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태의원(太醫院)에 명하여 여의(女醫)의 우두머리에 붙이고, 선혜청에서 매달 돈과 쌀을 지급하였다. 이때 큰 눈을 만나게 되자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금강산에 가게 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였다. 이에 만덕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살펴보고 칭찬하여 말을 하였고, 벼슬아치들은 그 일을 기록하여 기이한 이야기

를 전했으니, 만덕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아! 쌓았다가 능히 풀었으니, 남자가 능하기 어려운 바이다. 공이 있는데도 상을 사양하였으니, 사부(士夫)가 힘쓰기 어려운 바이다. 만덕은 섬 안의 한 여자로서 몸은 비로 부리는 천함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능히 하였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또한 더군다나 한번 서울의 궁궐을 보고 싶다는 소원은 오직 떳떳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충심(衷心)이다. 섬과 육지를 국한하지 않고, 귀함과 천함을 경계하지 않고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한 것은 또한 얼마나 기이하며 장한 일인가? 탐라는 세상에서 영주(瀛洲)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다. 생산되는 물종(物種)에 좋은 말, 전죽(箭竹), 귤유(橘柚) 등이 있어 왕정(王庭)에 바치는데, 만덕 또한 이러한 유(類)인 것인가? 일찍이 듣건대, 파촉(巴蜀)의 청(淸)은 단혈(丹穴)로써 그 부유함을 대대로 이어 진시황이 대(臺)를 쌓아 찬미했다고 하는데,[218] 지금 만덕은 파촉 청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노가(魯家)의 의리를 섬 안에서 일으켜 이름이 사방에 알려졌으니, 태사공(太史公)[219]이 있다면 장차 화식전(貨殖傳)에 놓을 것인가, 열협전(烈俠傳)에 놓을 것인가?

△ 주제어: 서준보, 만덕전.

---

218) 파촉(巴蜀)의 청(淸)은 …… 찬미했다고 하는데: 《한서》 〈화식전(貨殖傳)〉에 "파촉의 과부 청은 그 선조가 단혈을 얻어 그 이로움을 여러 대 동안 마음껏 누렸지만 집안이 또한 비방을 받지 않았다. 청이 과부로 그 가업을 지키고 재물을 사용하여 스스로 보호하니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시황이 정부라 여겨 객례로 대접하고 그녀를 위해 여회청대를 세웠다[巴寡婦淸其先得丹穴而擅其利數世 家亦不訾 淸寡婦能守其業 用財自衛 人不敢犯 始皇以爲貞婦而客之 爲築女懷淸臺]."라고 하였음.

219)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킴.

❖ 嘉慶 元年 丙辰 十二月 二日 癸酉

○ 蔡弘遠, 以漢城府言啓曰, 今丙辰年獻民數時, 京中八道戶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及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2월 2일(계유)

▢ 병진년 경중(京中) 및 8도의 호구총수(戶口摠數)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면서 제주(濟州) 3읍은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한성부의 초기

○ 채홍원(蔡弘遠)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병진년 백성의 숫자를 바칠 때 경중(京中) 및 8도의 호구총수(戶口摠數)를 초록(抄錄)하여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濟州) 3읍 백성의 숫자는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해도(海島)의 왕래에 대한 빠름과 늦음은 미리 헤아릴 수가 어렵습니다. 일시에 마감할 수 없으니, 이것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호구총수, 3읍.

❖ 嘉慶 元年 丙辰 十二月 十五日 丙戌

○ 傳于李海愚曰, 今日兵曹貶中, 武兼李明東, 以七旬何求爲目, 其年爲幾何? 査問草記 …… 且於武兼洪範瑞, 以遠島之人爲目, 濟州人時仕, 亦爲幾人乎? 亦令草記.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2월 15일(병술)

▢ 제주인(濟州人)으로 현재 병조(兵曹)에 직임이 있는 자를 조사하여 초기(草記)하라는 등의 전교

○ 이해우(李海愚)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병조(兵曹)의 포폄(褒貶) 중에 무겸 이명동에 대해 '칠순에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그 나이가 얼마인가? 조사하여 초기(草記)하라. 〈중략〉 또한 무겸 홍범서(洪範瑞)[220]에 대해 '먼 섬의 사람이다.'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제주인(濟州人)으로 현재 직임에 있는 자는 또한 몇 사람인가? 또한 초기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병조, 포폄, 홍범서, 제주인, 직임.

220) 홍범서(1766~?): 본관 남양(南陽). 1792년(정조 16) 무과 급제.

❖ 嘉慶 元年 丙辰 十二月 十六日 丁亥

○ 丙辰十二月十六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 輪對官, 入格儒生, 同爲入侍時, 行左承旨洪仁浩, 左副承旨李勉兢, 右副承旨李海愚, 同副承旨朴基正, 假注書曺錫中·尹命烈,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僩, 檢校待教徐有榘, 輪對官社稷令尹行逵, 工曹佐郎趙鎭球, 西氷庫別檢李豊林, 義盈庫奉事李是釬, 掌樂主簿宋時淵, 司宰奉事趙遠慶, 禁府都事吳鎭奎·姜世靖·趙鎭順, 司饔主簿韓昇裕, 直長鄭持容, 奉事林周喆·李敬簡, 繕工主簿金聲鳴, 監役徐有昌·權中執, 副奉事李玄謙, 宗簿主簿蔡趾永, 直長朴宗龜, 漢城庶尹丁志德, 長興主簿許曛, 奉事金履度, 典牲直長李尙弼, 副奉事高萬說, 奉常正金晦彬, 判官李東植, 入格儒生李敬參·閔德基·金啓河·洪準源·安光宇·金鎌·李箕采·趙民和, 以次進伏訖. …… 是釬曰, 臣竊聞貢人輩物議, 則濟州三邑常藿進上, 例自戶曹捧納, 出付貢人, 而濟藿, 本來品劣, 不合於御供物種, 故貢人輩, 換貿以用, 此一款, 不無弊端, 臣意, 則一依北關諸邑之已例, 自該曹, 折價代捧, 以爲永久蒙惠之道爲宜. 上曰, 令該曹稟處, 可也.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2월 16일(정해)

▢ 제주(濟州) 3읍에서 진상하는 미역을 절가(折價)하여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도록 할 것을 청하는 의영고봉사 이시한(李是釬)의 계

○ 병진년 12월 1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윤대관(輪對官)과 입격 유생(入格儒生)이 함께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이면긍(李勉兢),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동부승지 박기정(朴基正), 가주서 조석중(曺錫中)·윤명렬(尹命烈),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僩),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윤대관 사직령 윤행규(尹行逵), 공조좌랑 조진구(趙鎭球), 서빙고별검 이풍림(李豊林), 의영고봉사 이시한(李是釬), 장락주부 송시연(宋時淵), 사재봉사 조원경(趙遠慶), 금부도사 오진규(吳鎭奎)·강세정(姜世靖)·조진순(趙鎭順), 사옹주부 한승유(韓昇裕), 직장 정지용(鄭持容), 봉사 임주철(林周喆)·이경간(李敬簡), 선공주부 김성명(金聲鳴), 감역 서유창(徐有昌)·권중집(權中執), 부봉사 이현겸(李玄謙), 종부주부 채지영(蔡趾永), 직장 박종구(朴宗龜), 한성서윤 정지덕(丁志德), 장흥주부 허속(許曛), 봉사 김이도(金履度), 전생직장 이상필(李尙弼), 부봉사 고만설(高萬說), 봉상정 김회빈(金晦

彬), 판관 이동식(李東植), 입격 유생 이경삼(李敬參)·민덕기(閔德基)·김계하(金啓河)·홍준원(洪準源)·안광우(安光宇)·김겸(金鎌)·이기채(李箕采)·조민화(趙民和)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시한이 아뢰기를, "신이 공인(貢人)들의 물의(物議)[221]를 가만히 들으니, 제주(濟州) 3읍의 상곽(常藿)[222] 진상(進上)을 으레 호조에서 거둬들여서 공인에게 출부(出付)하는데, 제주의 미역은 본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어공(御供)하는 물종(物種)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공인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쓰니, 이 한 가지 조항은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북관(北關) 여러 읍의 전례에 의거하여 해당 조(曹)에서 절가(折價)[223]하여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도록 하여 영구히 혜택을 입는 방도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3읍, 미역, 진상, 절가.

221) 물의(物議): 여론.
222) 상곽(常藿): 품질이 보통인 미역.
223) 절가(折價): 어떤 물건의 값을 쌀이나 은 등으로 쳐서 셈하는 것을 말함.

❖ 嘉慶 元年 丙辰 十二月 二十日 辛卯

○ 李勉兢, 以兵曹言啓曰, 傳曰, 今日兵曹褒貶中, 武兼李明東, 以七旬何求爲目, 其年爲幾何? 査問草記, …… 且於武兼洪範瑞, 以遠島之人爲目, 濟州人時仕, 亦爲幾人乎? 亦令草記事, 命下矣. …… 濟州時仕人洪範瑞·高遇泰, 俱在武兼, 而高遇泰, 以其親病, 呈辭下鄕, 今已三朔之意, 敢啓. 傳曰, 知道. 收用之方, 別有下敎矣.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2월 20일(신묘)

▢ 현재 병조(兵曹)의 직임에 있는 제주인(濟州人)의 현황을 아뢰는 병조의 초기

○ 이면긍(李勉兢)이 병조(兵曹)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오늘 병조의 포폄(褒貶) 중에 무겸 이명동에 대해 '칠순에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그 나이가 얼마인가? 조사하여 초기(草記)하라. 〈중략〉 또한 무겸 홍범서(洪範瑞)에 대해 '먼 섬의 사람이다.'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제주인(濟州人)으로 현재 직임에 있는 자는 또한 몇 사람인가? 또한 초기하게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중략〉 현재 직임에 있는 제주인은 홍범서와 고우태(高遇泰)[224]로 모두 무겸입니다. 그런데 고우태는 부모의 병 때문에 정사(呈辭)[225]하여 고향에 내려간 것이 지금 이미 3개월이 됩니다.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거두어 쓰는 방도로 별도로 하교하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병조, 홍범서, 고우태.

---

224) 고우태(1758~1836): 본관 제주(濟州). 1794년(정조18) 제주위유안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撫試才御史) 심낙수(沈樂洙)가 내도(來島)하여 시취(試取)할 때 무과에 급제. 명월만호, 검모포만호, 무신겸선전관 역임.

225) 정사(呈辭): 벼슬아치가 사직(辭職)·청가(請暇)의 원서(願書)를 관부(官府)에 제출하는 일.

❖ 嘉慶 元年 丙辰 十二月 二十日 辛卯

○ 丙辰十二月二十日辰時, 上御春塘臺, 親臨儒生殿講. 輪對官都目政事入侍時, 行都承旨黃昇源, 行左承旨洪仁浩, 右承旨李勉兢, 左副承旨李海愚, 右副承旨魚用謙, 同副承旨朴基正, 記事官柳遠鳴, 假注書徐俊輔, 編修官卜台鎭, 記事官金景煥, 直提學李晩秀, 檢校待敎沈象奎·徐有榘, 待敎李存秀, 以次侍立. …… 又命書傳敎曰, 吏兵曹, 守令初仕, 各別擇差, 忠臣子孫, 中朝人, 軍功人, 依例收用事, 另飭銓曹. …… 耽羅人則近果留意收用, 而文臣猶有侍從及郵官, 武弁之時仕在京者, 只有武兼洪範瑞云, 訓鍊判官擬入. …… 上曰, 濟州武兼受由人改差, 其代, 以濟州上京武士中擬入.【出榻敎】…….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2월 20일(신묘)

▢ 제주인(濟州人)을 훈련원판관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라는 전교

○ 병진년 12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로 나아가서 유생의 전강(殿講)에 친림(親臨)하였다. 윤대관(輪對官)이 도목정사를 위해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황승원(黃昇源),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우승지 이면긍(李勉兢), 좌부승지 이해우(李海愚), 우부승지 어용겸(魚用謙), 동부승지 박기정(朴基正), 기사관 유원명(柳遠鳴), 가주서 서준보(徐俊輔), 편수관 복태진(卜台鎭),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직제학 이만수(李晩秀),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서유구(徐有榘), 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또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이조와 병조는 수령 중 초사자(初仕者)를 각별히 가려 차임(差任)하되 충신의 자손, 중국 조정의 사람, 군공인(軍功人)은 규례에 의거하여 거두어 쓰도록 전조(銓曹)에 특별히 타일러 경계하라. 〈중략〉 탐라인(耽羅人)은 근래에 과연 유의하여 거두어 쓰고 있다. 그런데 문신은 오히려 시종신(侍從臣)과 찰방(察訪)이 있지만 무관(武官)으로 현재 벼슬을 하며 서울에 있는 자는 무겸 홍범서(洪範瑞)만 있다고 하니, 훈련원판관에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어전에서 하교를 냄】〈하략〉.

△ 주제어: 제주인, 무관, 훈련원판관, 의망.

❖ 嘉慶 元年 丙辰 十二月 二十七日 戊戌

○ 丙辰十二月二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右承旨李益運, 假注書李存秀, 事變假注書金致龍,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偶, 右議政尹著東, 行左參贊鄭民始, 行上護軍李柱國, 行禮曹判書閔鍾顯, 行大護軍李秉鼎·李敬懋, 戶曹判書李時秀, 吏曹判書沈煥之, 行護軍徐有大·李漢豐, 工曹參判徐龍輔, 刑曹參判李亨元, 行護軍李書九, 執義鄭景祚, 司諫閔師宣, 副應教李景溟, 掌令趙章漢·張至冕, 正言李勉昇, 修撰沈奎魯, 以次進伏訖. …… 時秀曰, 濟州常藿, 以錢代捧, 甚便好, 而此是土貢, 故代捧似涉如何矣. 上曰, 所捧之數幾何? 時秀曰, 元貢爲五百斤, 別貿爲三千斤矣. 上曰, 代捧亦何妨也? …….

❖ 정조 20년(1796) 병진년 12월 27일(무술)

▢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상곽(常藿)을 돈으로 대신 받는 것에 대해 논의함

○ 병진년 12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가주서 이존수(李存秀), 사변가주서 김치용(金致龍),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우의정 윤시동(尹著東), 행좌참찬 정민시(鄭民始), 행상호군 이주국(李柱國),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행대호군 이병정(李秉鼎)·이경무(李敬懋),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이조판서 심환지(沈煥之),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 공조참판 서용보(徐龍輔), 형조참판 이형원(李亨元), 행호군 이서구(李書九), 집의 정경조(鄭景祚), 사간 민사선(閔師宣), 부응교 이경명(李景溟), 장령 조장한(趙章漢)·장지면(張至冕), 정언 이면승(李勉昇), 수찬 심규로(沈奎魯)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시수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상곽(常藿)은 돈으로 대신 받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토공(土貢)입니다. 때문에 돈으로 대신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거둬들이는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원공(元貢)은 500근(斤)이고, 별무(別貿)[226]는 3,000근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돈으로 대신 받는 것을 또한 어찌 꺼리겠는가?"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상곽, 토공, 돈.

---

226) 별무(別貿): 원정 공물(元定貢物)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품.

1797年

(정조 21)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六日 丁未

○ 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 進上柚子, 數旣不準, 品亦多劣, 惶恐待罪事, 傳于李益運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6일(정미)

▢ 유자(柚子) 진상(進上)과 관련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狀啓)에, 진상(進上)하는 유자(柚子)가 수량을 채우지 못했고, 품질 또한 많이 좋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사모, 장계, 진상, 유자, 대죄.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六日 丁未

○ 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 文靖公金麟厚陞配文廟時香祝版材, 船路阻風, 日時已爲差過, 更待知委擧行事, 令該曹稟處事, 判付內, 啓下禮曹爲旀, 當初不能擇送各〈吉〉日, 難免不審之責, 判堂推考爲良如教.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6일(정미)

▢ 김인후(金麟厚)를 문묘(文廟)에 배향하는 일시가 어긋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예조판서를 추고(推考)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문정공 김인후(金麟厚)[227]를 문묘(文廟)에 배향할 때의 향과 축문의 판재(版材)가 뱃길이 바람에 막혀 일시가 이미 어긋나 잘못되었으니 다시 통지를 기다려 거행하겠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해당 조(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한 일과 관련하여 판부(判付)하기를, "예조에 계하(啓下)한다. 당초 능히 길일을 택하여 보내지 못했으니, 살피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조판서를 추고(推考)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김인후, 문묘, 배향.

227) 김인후(1510~1560): 본관 울산(蔚山). 자 후지(厚之). 호 하서(河西)·담재(湛齋). 시호 문정(文正). 1540년(중종 35) 문과 급제. 세자시강원설서, 홍문관부수찬, 제술관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六日 丁未

○ 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 本島儒生陞補, 考官未備, 不得設行事, 傳于李益運曰, 陞補旣未設行, 卿其別出詩·賦·論·箴·銘·頌中三題, 試官, 島中文侍從差定, 卿考試以劃多者, 依卿之在泮中時泮儒應製賞格例, 分等紙筆墨米斗施賞, 其中三魁, 以內下安寶朱書百選·八子百選·史記英選分給, 之次三人, 各給內下安寶奎章全韻一件, 而科作及榜目, 修正上送事, 令內閣回諭牧使.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6일(정미)

▢ 유생 승보시(陞補試)가 고관(考官)이 갖춰지지 않아서 설행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섬 안에서 문관으로 시종신(侍從臣)을 지낸 자로 고관을 차정(差定)하라는 등의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본도(本島) 유생 승보시(陞補試)가 고관(考官)이 갖춰지지 않아서 설행할 수 없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익운(李益運)에게 전교하기를, "승보시를 설행하지 않았으니, 경은 별도로 시(詩)·부(賦)·논(論)·잠(箴)·명(銘)·송(頌) 중에서 3개의 시제(試題)를 내고, 시관(試官)은 섬 안에서 문관으로 시종신(侍從臣)을 지낸 자로 차정(差定)하라. 경은 고시(考試)에 획다자(劃多者)이니, 경이 성균관에 있을 때 성균관 유생의 응제시(應製詩)의 상격(賞格)의 사례에 의거하여 등급을 나누어 지필묵과 쌀말을 시상하되, 그중에 삼괴(三魁)는 내하(內下)[228]의 옥새가 찍힌 주서백선(朱書百選)[229]·팔자백선(八子百選)[230]·사기영선(史記英選)[231]을 나누어 주고, 지차(之次) 3인은 각각 내하의 옥새가 찍힌 규장전운(奎章全韻)[232] 1건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그리고 과작(科作)

---

228) 내하(內下): 임금이 관청이나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줌.

229) 주서백선(朱書百選): 정조가 주자전서(朱子全書) 가운데서 가장 요긴한 내용 1백 편을 뽑아 모아 엮은 책. 1794년(정조 18)에 내각(內閣)에서 간행하였음.

230) 팔자백선(八子百選):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문장가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 구양수(歐陽修),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 증공(曾鞏), 왕안석(王安石) 등 8명의 문장 100편을 정선하여 정조 때 어정(御定)으로 편찬한 책.

231) 사기영선(史記英選): 1796년(정조 20) 정조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정수(精粹)를 직접 뽑아 엮은 책.

232) 규장전운(奎章全韻): 정조의 명에 따라 규장각(奎章閣)에서 편찬(編纂)한 운서(韻書). 1796년(정조 20) 간행되었음.

및 방목(榜目)은 수정하여 올려보내도록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목사에게 회유(回諭)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승보시, 고관, 시종신, 차정.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六日 丁未

○ 以濟州牧使柳師模年分成冊, 傳于李肇源曰, 此後依前例後錄啓聞之意, 分付.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6일(정미)

▢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연분(年分) 성책(年分成冊)의 후록(後錄)을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연분(年分)[233] 성책(年分成冊)과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이후로는 전례에 의거하여 후록(後錄)[234]을 장계로 보고하라는 뜻을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연분, 성책, 후록.

233) 연분(年分): 연분구등(年分九等). 조선 세종 때부터 실시한 조세 제도의 하나. 그 해의 농사의 흉풍(凶豐)에 따라 상상전(上上田)에서 하하전(下下田)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음.

234) 후록(後錄): 앞의 기록에 덧붙여 적어 넣는 기록.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八日 己酉

○ 李益運,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柳師模年分狀啓, 則以爲本島農形, 夏穀旣登, 秋穡繼豐, 見今一年生穀之數, 優報兩歲告歉之災, 本州爲最登, 大靜爲次, 旌義又爲其次, 各樣措置, 別具成冊以聞, 固當仰請處分, 而謹依已例, 一邊馳啓, 一邊擧行, 竝請令廟堂, 稟處矣. 其一, 兩年未收條藿産, 今又過節, 涼臺未及織造, 涼則限歲前徵納, 藿則待春採, 準捧出送事也. 其一, 甲寅未捧米七千一百三十七石, 竝與新還七千八百八十六石零, 出秩捧上, 而甲寅停退條中絶戶所食米五百九十八石零, 今旣指徵無處, 考諸丁丑·庚寅等年謄錄, 雖有蕩減啓聞之例, 事係特恩, 不敢擅便, 姑爲仍停, 更竢處分, 丐乞無依, 害及隣族之類, 參量分數, 仍停者仍停, 準捧者準捧事也. 其一, 平役軍官身役米, 係是諸般公用及苦役例下之需, 昨年停退條之今夏仍停者, 一竝準捧, 寺奴身貢米每口二斗內一斗, 男丁大同米每口五升內一升, 依每年已例減捧事也. 其一, 軍兵操鍊, 謹依朝令, 姑爲停行, 而逃老故代丁, 各別申飭, 一一塡充事也. 其一, 寺奴婢推刷, 昨年當次, 而以荐歉之故不得擧行, 今年則民勢稍定, 待捧糶了畢擧行事也. 今年本島農形, 實是挽近所罕見之大有均豐, 秋耕牟麥, 又能糧優力贍, 目下立苗, 可占來歲之登稔, 一島生靈, 敷腴整暇, 皆知出溝壑奠衽席之樂, 前後之船粟發帑, 朝家始收效矣, 分等一款, 非所可論, 而各樣催科與諸般徭役, 其或停或捧或減或準, 旣皆稱量而逐條論列. 且據已例而先爲擧行, 竝依狀請許施, 其中甲寅停退米五百九十八石零, 謂之指徵無處, 先引蕩減之例, 繼置仍停之科, 終以更竢處分爲請者, 跡近依違, 事體未安. 該牧使柳師模, 推考, 何如? 傳曰, 允. 同是沿民而所施有殊於海口南北, 則能無向隅之歎. 湖南沿郡甲寅條, 去秋旣命拔例闊狹, 今爲舊還, 此而不然, 若令仍停, 指徵之無處, 不但今猶古, 況本牧甲寅民事, 尙何言哉? 數百包鬼錄, 年年侵困, 爲島民未決之案, 是與前春不惜萬金帑需之本意, 若相反然, 特拔糶簿, 俾有終始之惠, 可也.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8일(기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연분장계(年分狀啓)에서 2년 동안 거두지 못한 미역과 양태를 거둬들여 내보내는 일 등에 대해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을 허락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연분장계(年分狀啓)를 보니, '본도(本島)의 농사형편은 여름곡식은 이미 풍

년이고, 가을수확도 이어 풍년입니다. 현재 1년 생산한 곡물의 수량은 2년의 흉년을 넉넉히 보충할 수 있는데, 본주(本州)가 가장 풍년이고, 대정(大靜)이 다음이고, 정의(旌義)가 또 그 다음입니다. 각양(各樣)의 조치는 성책(成冊)하여 보고하여 마땅히 처분을 청할 것입니다. 삼가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치계(馳啓)하고, 한편으로는 거행하면서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2년 동안 거두지 못한 조항의 미역 생산은 지금 또 계절을 지나쳤고, 양태[涼臺]는 미처 직조(織造)하지 못했습니다. 양태는 세전(歲前)을 한하여 징납(徵納)하고, 미역은 봄을 기다렸다 채취하여 기준대로 거둬들여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갑인년에 거둬들이지 못한 쌀 7,137섬과 신환(新還) 7,886섬 남짓을 출질(出秩)하여 봉상(捧上)하고, 갑인년 정퇴조(停退條) 중 절호(絶戶)가 먹은 쌀 598섬 남짓은 지금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정축년과 경인년의 등록을 살펴보면 비록 탕감을 장계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일이 특은(特恩)에 관계된 것이기에 감히 마음대로 처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어서 연기해 주고 다시 처분을 기다리는데, 개걸(丐乞)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피해가 인족(隣族)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 분수(分數)를 헤아려서 이어서 연기해 줄 것은 이어서 연기해 주고, 기준대로 거둬들일 것은 기준대로 거둬들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평역군관(平役軍官)의 신역미(身役米)는 바로 제반 공용과 고역(苦役)에 으레 내리는 비용입니다. 작년 정퇴조를 금년 여름에 이어서 연기한 것을 한꺼번에 기준대로 거둬들이되, 시노(寺奴) 신공미(身貢米)는 매구(每口) 2말 내에 1말, 남정 대동미(大同米)는 매구 5되 내에 1되를 매년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감봉(減捧)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군병의 조련을 삼가 조정의 명령에 의거하여 일단 중지하였지만, 도망가고 늙고 죽은 자를 대신하여 군정(軍丁)을 채우는 것을 각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일일이 채워 보충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시노비(寺奴婢)의 추쇄(推刷)가 작년에 차례를 당했지만 거듭된 흉년인 까닭에 거행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은 백성들의 사정이 조금 안정되었으니, 환곡 상환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거행하는 일입니다. 금년 본도의 농사형편은 실로 최근 몇 년 이래로 보기 드물게 고르게 큰 풍년이 들었고, 가을에 가는 보리도 양(糧)이 넉넉하고 노력이 풍부한데, 목하(目下)에 서있는 싹도 내년의 풍년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온 섬의 백성들이 얼굴이 펴지고 여유가 있어 모두가 도랑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요를 까는 자리가 안정되는 즐거움을 알고 있으니, 앞뒤로 배로 곡물을 실어나르고 내탕전(內帑錢)을 내린 조정이 비로소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분등(分等)[235] 한 가지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양 최과(催科)[236]와 제반 요역(徭役)을 혹은 중지하고,

혹은 거둬들이고, 혹은 감(減)하고, 혹은 기준대로 거둬들이면서 모두 사정이나 형편을 헤아려서 조항대로 논열(論列)하였고, 또한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먼저 거행하였는데,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을 허락하십시오. 또한 그 가운데 갑인년에 정퇴한 쌀 598섬 남짓은 지정하여 징수할 곳이 없다고 하니 우선 탕감의 사례를 인용하고, 이어서 정지하는 조목에 두었다가 끝내 처분을 다시 기다리겠다고 요청한 것은 자취가 의위(依違)[237]에 가까워 일의 체모가 온당치 못합니다. 해당 목사 유사모를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똑같은 연해(沿海)의 백성인데, 베푸는 것이 해구(海口)의 남과 북이 다르다면 어찌 향우지탄(向隅之歎)[238]이 없겠는가? 호남 연군(沿郡)의 갑인년조는 지난 가을 이미 명을 내려 특별히 융통성있게 처리하도록 했다. 지금 구환(舊還)으로 삼아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어서 연기하게 한다면, 지정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 것은 지금이 옛날과 같을 뿐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본목(本牧)의 갑인년 백성들의 일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수백 포(包)의 귀록(鬼錄)[239]으로 해마다 곤란을 주어 섬 백성들의 미결된 안건으로 남아 있으니, 이는 지난 봄에 만금의 탕수(帑需)를 아끼지 않은 본뜻과 상반되는 듯하다. 특별히 환곡장부에서 삭제하여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240]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연분장계.

---

235) 분등(分等): 연분 등제(年分等第)의 준말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보아서 등급을 정하는 일임.

236) 최과(催科): 조세의 상납을 독촉함.

237) 의위(依違): 가부(可否)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양.

238) 향우지탄(向隅之歎): 홀로 곤경에 처한 것을 의미함. 한(漢)나라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귀덕(貴德)〉에 "가령 사람들이 당에 가득 모여서 술을 마실 경우, 그중에 한 사람이 홀로 쓸쓸히 구석을 향하여 운다면 온 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즐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음.

239) 귀록(鬼錄): 이름뿐인 빈 문서를 뜻함.

240)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1년 1월 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十三日 甲寅

○ 以禮曹濟州正朝方物看品內入單子, 傳于李肇源曰, 不卽提稟, 使遠人, 齎糧滯留, 當該中官, 過名日後嚴治.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13일(갑인)

▢ 제주(濟州)의 정조방물(正朝方物) 단자(單子)를 늦게 보고한 해당 중관(中官)을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전교

○ 예조가 제주(濟州)의 정조방물(正朝方物)[241]을 간품(看品)하여 궐 안으로 들여보낸 단자(單子)와 관련하여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즉시 제품(提稟)하지 않고 먼 지방의 사람으로 하여금 양식을 가지고 다니면서 머물게 하였으니, 해당 중관(中官)[242]을 명일(名日)이 지난 후에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조방물, 단자, 중관.

241) 정조방물(正朝方物): 정월 초하룻날에 지방에서 바치는 특산물.
242) 중관(中官): 내시. 환관.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十三日 甲寅

○ 李益運,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濟州進上領來人二十六名處, 回糧米各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13일(갑인)

▢ 진상물을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에게 회량미(回糧米)를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대로 진상물을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 26명에게 회량미(回糧米)를 각각 3말씩 규례대로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물, 제주인, 회량미, 분급.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十四日 乙卯

○ 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 莫重薦新進上柑橘, 俱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晩秀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14일(을묘)

▢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대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막중한 천신(薦新) 진상(薦新進上) 감귤(柑橘)을 모두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였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만수(李晩秀)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천신, 진상, 감귤, 대죄.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十九日 庚申

○ 洪義榮,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 丙辰年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19일(경신)

▢ 제주(濟州) 3읍의 병진년 민수(民數)를 입록(入錄)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3읍의 병진년 민수(民數)가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규례대로 입록(入錄)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3읍, 민수, 입록.

❖ 嘉慶 二年 丁巳 一月 二十二日 癸亥

○ 丁巳正月二十二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都承旨李鼎揆, 行右承旨李晩秀, 假注書尹命烈, 事變假注書李毅采,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右議政尹耆東, 行左參贊鄭民始, 行禮曹判書閔鍾顯, 兵曹判書李得臣, 吏曹判書李秉鼎, 漢城判尹李敬懋, 戶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沈煥之, 行護軍徐有大, 開城留守趙鎭寬, 行護軍李漢豐, 行護軍李書九, 以次進伏訖. …… 耆東曰, 箭郊放牧, 自秋徂冬, 屢經嚴寒, 而馬畜有肥大蕃殖之勢, 見放數十匹, 卽姑且試可之事也. 旣知其必可成就, 則多放善馬之種, 以爲孳養之道爲好, 濟州雌馬一百五十匹, 江華雌馬四十匹, 鐵山雌馬六十匹, 晉州雌馬五十匹, 使之來納, 濟州則限二年貢馬中分數除減, 雄馬則今番北關開市時, 公私貿得者, 其數夥然, 限四十匹, 以體大健實者, 給準價買取, 趁卽來納, 而價本以某樣耗穀或木布會減後狀聞之意, 發關分付于咸鏡監司·南北兵使處, 使之卽速擧行,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월 22일(계해)

▢ 전교(箭郊)에 제주(濟州) 등지에서 바친 암말과 북관(北關) 개시(開市)에서 산 수말을 방목(放牧)하여 번식(繁息)하게 할 것을 청하는 우의정 윤시동(尹耆東)의 계

○ 정사년 1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정규(李鼎揆), 행우승지 이만수(李晩秀), 가주서 윤명렬(尹命烈), 사변가주서 이의채(李毅采),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우의정 윤시동(尹耆東), 행좌참찬 정민시(鄭民始),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병조판서 이득신(李得臣), 이조판서 이병정(李秉鼎), 한성판윤 이경무(李敬懋),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심환지(沈煥之), 행호군 서유대(徐有大), 개성유수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이한풍(李漢豐), 행호군 이서구(李書九)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시동이 아뢰기를, "전교(箭郊)[243]에서의 방목(放牧)이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매우 심한 추위를 겪었는데도 말들이 비대해져서 번식(繁息)할 형세가 있으니, 지금 수십 필을 방목하여 즉시 우선 시험해 볼만한 일입니다. 필시 성취할 수 있음을 이미 안 이상 좋은

243) 전교(箭郊): 도성의 동교(東郊)인 전곶(箭串)으로 살곶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뚝섬에 해당함. 《홍재전서(弘齋全書)》〈일득록(日得錄) 8〉에 따르면, 전교의 목장은 샘이 달고 풀이 풍성하여 말을 기르기에 가장 알맞다는 이유로 정조가 사복시에서 말을 번식시켜 나라를 부유하게 할 방책으로 삼도록 하였음.

말을 많이 방목하여 새끼를 낳아 기르는 방도로 삼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제주(濟州)에서 암말 150필, 강화(江華)에서 암말 40필, 철산(鐵山)에서 암말 60필, 진주(晉州)에서 암말 50필을 와서 바치게 하되, 제주는 2년에 한하여 공마(貢馬) 중에 수효를 나누어 덜어주십시오. 수말은 금번 북관(北關)에서 개시(開市)할 때 공사(公私)로 사들인 것이 그 수가 매우 많으니, 40필에 한하여 몸집이 크고 건실한 것을 그 값에 준하여 사가지고 즉시 와서 바치게 하되, 값은 모양(某樣)의 모곡(耗穀)이나 목포(木布)로써 회감(會減)한 후에 장계로 보고할 뜻을 함경감사와 남북병사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전교, 암말, 북관, 수말, 방목, 번식.

❖ 嘉慶 二年 丁巳 二月 四日 乙亥

○ 洪義榮, 以吏曹言啓曰, 守令薦, 應薦不薦人, 察推事, 命下矣. 行廣州留守徐有隣, …… 濟州牧使柳師模, …… 俱是應薦而不薦,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2월 4일(을해)

▢ 수령을 천거하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 등에 대해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할 것을 청하는 이조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수령천(守令薦)[244]에 있어 마땅히 천거할 처지인데도 천거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하여 밝혀내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행 광주유수 서유린,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 〈중략〉 모두 마땅히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았으니,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수령천, 제주목사, 유사모, 추고, 경책.

244) 수령천(守令薦): 수령에 합당한 사람들을 추천하는 제도.

❖ 嘉慶 二年 丁巳 二月 五日 丙子

○ 李益運, 以兵曹言啓曰, 因承政院啓辭, 邊將應薦不薦人, 令該曹察推事允下矣. 行廣州留守徐有隣, …… 濟州牧使柳師模, …… 俱爲應薦而不薦. 竝依定式, 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2월 5일(병자)

▢ 변장을 천거하지 않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 등에 대해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할 것을 청하는 병조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승정원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변장(邊將)을 마땅히 추천(推薦)해야 하는데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밝혀내도록 윤하하였습니다. 행광주유수 서유린(徐有隣),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 〈중략〉 모두 마땅히 천거해야 하는데 천거하지 않았으니, 아울러 정식대로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추천, 제주목사, 유사모, 추고, 경책.

❖ 嘉慶 二年 丁巳 二月 十日 辛巳

○ 丁巳二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藥房提調鄭民始, 副提調徐邁修, 假注書徐俊輔,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行右承旨申大謙, 假注書李毅采, 事變假注書崔仁簡, 右議政尹蓍東, 行上護軍金持默, 行禮曹判書閔鍾顯, 兵曹判書李得臣, 吏曹判書李秉鼎, 行大護軍李敬懋, 戶曹判書李時秀, 水原留守趙心泰, 行護軍徐有大·李漢豐, 行左承旨李益運, 大司諫宋銓, 副校理金履喬,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周命新·朴春源·李周憲·玄必采·吳仁豐·丁希泰, 以次進伏訖. …… 時秀曰, 頃因義盈庫奉事李是釬所懷, 濟州常藿代納事, 有該堂稟處之命矣. 常藿係是土貢, 島民難責代納, 該貢人之元貢所受, 北道例納, 本自有裕, 別無爲弊之端, 置之,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1년(1797) 정사년 2월 10일(신사)

▢ 제주(濟州)의 상곽(常藿)을 다른 물건으로 대납(代納)하게 하지 말 것을 청하는 호조 판서 이시수(李時秀)의 계

○ 정사년 2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약방제조 정민시(鄭民始), 부제조 서매수(徐邁修), 가주서 서준보(徐俊輔),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행우승지 신대겸(申大謙), 가주서 이의채(李毅采), 사변가주서 최인간(崔仁簡), 우의정 윤시동(尹蓍東),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병조판서 이득신(李得臣), 이조판서 이병정(李秉鼎),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호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 행좌승지 이익운(李益運), 대사간 송전(宋銓), 부교리 김이교(金履喬),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주명신(周命新)·박춘원(朴春源)·이주헌(李周憲)·현필채(玄必采)·오인풍(吳仁豐)·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시수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의영고봉사 이시한(李是釬)의 소회(所懷)로 인하여 제주(濟州)의 상곽(常藿)을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여 바치는 일에 대해 해당 당상이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상곽은 곧 토공(土貢)이어서 섬 백성들에게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공인(貢人)들이 원공(元貢)으로 받는 것을 북도(北道)에서는 으

레 (다른 물건으로) 대납(代納)하는 것은 본래 여유가 있고, 달리 폐단이 되는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경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상곽, 토공, 대납.

❖ 嘉慶 二年 丁巳 三月 十五日 乙卯

○ 以濟州牧使柳師模狀啓, 薦新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勉兢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1년(1797) 정사년 3월 15일(을묘)

▢ 천신(薦新)하는 청귤(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 대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청귤(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일과 관련하여 이면긍(李勉兢)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청귤, 봉진, 제주목사, 유사모, 대죄.

❖ 嘉慶 二年 丁巳 三月 十六日 丙辰

○ 司僕寺啓目粘連, 觀此濟州牧使柳師模啓本, 則各牧場馬點, 同本州判官趙敬日所管牧馬, 剩爲四百八十匹, 大靜縣監高漢祿所管牧馬, 剩爲一百二十一匹, 竝當依事目施以陞敍之典是白乎矣. 事係恩典, 不敢擅便, 上裁, 何如爲白乎旀, 至於點烙時, 闔失闕點, 大關後弊, 該牧使柳師模, 推考, 闕點牛段, 令該曹稟處, 何如? 判付啓, 依回啓施行爲旀, 其在勸後之道, 不可循例陞敍而止, 無論內外職, 以陞敍收用然後, 作窠差代事, 嚴飭銓曹爲良如敎.

❖ 정조 21년(1797) 정사년 3월 16일(병진)

▢ 말 번식을 잘한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과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승서(陞敍) 등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사복시의 계목점련(啓目粘連)에, "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계본(啓本)을 보니, 각 목장의 말을 점검할 때 본주(本州) 판관 조경일(趙敬日)이 관리하는 목마(牧馬)로 남는 것이 480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이 관리하는 목마로 남는 것이 121필이니, 아울러 마땅히 사목(事目)대로 승서(陞敍)[245]하는 은전을 시행해야 할 것이지만, 일이 은전에 관계되는 것이기에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금이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점낙(點烙)할 때 잃어버려서 점낙을 빠뜨린 것은 뒷날의 폐단에 크게 관계됩니다. 해당 목사 유사모를 추고(推考)하고, 점낙에서 빠뜨린 소는 해당 조(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회계(回啓)대로 시행하라. 후일을 장려하는 방도에 있어서 규례에 따라 승서하는 것으로 그칠 수는 없다. 내직과 외직을 막론하고 승서하여 거두어 쓴 연후에 작과(作窠)[246]하여 차대(差代)[247]하도록 전조(銓曹)에게 엄히 타일러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목마, 조경일, 고한록, 승서, 유사모, 추고.

---

245) 승서(陞敍): 벼슬을 올려 줌.
246) 작과(作窠): 다른 사람을 등용하기 위하여 현임자(現任者)를 갈아냄.
247) 차대(差代): 갈려간 자리에 후임자를 뽑아 채움.

❖ 嘉慶 二年 丁巳 四月 十六日 丙戌

○ 傳于申耆曰, 去正月朔專經文臣殿講居首前別檢夫宗仁, 以耽羅之人, 能爲居首之通牲, 極爲可嘉, 兵曹佐郎見窠, 令該曹卽爲擬入.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4월 16일(병술)

▢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에서 수석을 차지한 탐라인(耽羅人) 부종인(夫宗仁)을 병조좌랑에 의망(擬望)하라는 전교

○ 신기(申耆)[248]에게 전교하기를, "지난 정월 초하룻날 치른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249]에서 수석을 차지한 전 별검 부종인(夫宗仁)은 탐라인(耽羅人)으로 능히 수석을 차지한 통생(通牲)[250]이 되었으니 매우 가상하다. 병조좌랑의 빈 자리를 해당 조(曹)로 하여금 즉시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전경문신전강, 수석, 부종인, 병조좌랑, 의망.

---

248) 신기(1741~?): 본관 평산(平山). 자 국로(國老).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249) 전경문신전강(專經文臣殿講): 오경(五經) 중에서 경서(經書)로 문신에게 궁중에서 보이는 강독 시험. 정월·4월·7월·10월에 통훈대부 이하의 37세 이하인 문신에게 오경(五經) 중에서 한 책을 임문(臨文)으로 시험하였음.

250) 통생(通牲): 과거에서 찌[牲]를 뽑아 외는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뜻으로 주는 점수.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五日 甲辰

○ 丁巳五月初五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洪明浩, 行左承旨李晩秀, 行右承旨洪仁浩, 左副承旨韓晩裕, 假注書宋冕載, 李允謙, 記事官金景煥·金珍恪, 檢校待敎沈象奎, 以次進伏訖. …… 晩裕讀奏濟州牧使柳師模狀啓, 金文正公陞配文廟事.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5일(갑진)

▢ 좌부승지 한만유(韓晩裕)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문정공 김인후(金麟厚)를 문묘(文廟)에 배향하는 일을 읽어 아룀

○ 정사년 5월 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홍명호(洪明浩), 행좌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우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한만유(韓晩裕), 가주서 송면재(宋冕載)·이윤겸(李允謙), 기사관 김경환(金景煥)·김진각(金珍恪),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한만유[251]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장계에 문정공 김인후(金麟厚)를 문묘(文廟)에 배향하는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유사모, 문정공, 김인후, 문묘, 배향.

251) 한만유(1746~1812): 본관 청주(淸州). 자 여성(汝成).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예문관제학, 한성판윤, 이조판서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八日 丁未

○ 洪仁浩, 以備邊司言啓曰, 前正言邊景祐上疏批旨內, 令廟堂從長回啓, 以爲爲島民禦旱澇之道事, 命下矣. 取見其疏本, 則以爲耽羅一島, 僻在海外, 民食且艱, 當究別般生穀之道, 庶合時措之宜也, 耽羅豈獨不用於社倉之制乎? 三邑馬牛所畜之場, 橫亘數百餘里, 而所謂場稅之一年所納, 不下於數千包, 旣不入於經國之需, 又不入於保民之資, 不過爲守宰之科外添用者, 以此兩稅, 逐年捧積於社倉, 則五六年可得萬餘包, 十餘年可得數萬餘包, 盡輸於社倉, 皆以皮穀捧上, 則必爲島民數年可支之資, 庶或爲救急之一助爲辭矣. 耽羅若値災荒, 則民食苦無出處, 社倉積穀, 非不爲長策, 而但念耽羅爲邑, 寄在重溟孤島, 守宰之賴以爲日用之資者, 想是千餘包場稅, 而今乃稱以社倉之糴, 沒數移入, 則官府必不得成樣, 此亦不可不念, 臺疏所陳, 新設社倉一款置之, 餘外本司之未回啓者, 不無三四張, 而其所論列, 皆欠明白指的, 別無可以煩聞者, 故覆啓之不卽擧行, 實非拋却而然也, 差待登筵, 當陳其委折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8일(정미)

▢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변사의 회계(回啓).

○ 홍인호(洪仁浩)[252]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정언 변경우(邊景祐)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지(批旨) 내에,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회계(回啓)하여 섬 백성들을 위해 가뭄과 홍수를 막는 방도를 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그 상소를 가져다 보니, '탐라(耽羅) 한 섬은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민식(民食)이 또한 어려우니, 보통과 다르게 곡물을 생기게 하는 방도를 궁구해 낸 연후에야 형편에 맞게 취하는 조치의 마땅함에 합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탐라의 경우 어찌 유독 사창(社倉)의 제도를 쓰지 않는 것입니까? 3읍의 말과 소를 기르는 목장이 가로로 수백여 리에 뻗쳐 있고, 이른바 장세(場稅)로 1년에 받아들이는 것은 수천 포(包)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수입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백성을 돕는 자원으로도 들어가지 않으니, 수령의 과외(科外)에 더해서 쓰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양세(兩稅)를 해마다 사창에 거두어들여 쌓으면 5~6년만에 10,000여 포를 얻을 수 있고, 10년에 수만 포를 헤아릴 수 있습니

252) 홍인호(1753~1799): 본관 풍산(豊山). 자 원백(元伯).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승지, 대사헌, 강원감사 역임.

다. 모두 사창에 실어 나르되, 모두 피곡(皮穀)으로 받아들인다면 필시 섬 백성들이 수년을 지탱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구황(救荒)에 일조(一助)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탐라가 만약에 재황(災荒)을 당한다면 민식이 괴로워져 나올 것이 없으니, 사창에 곡물을 쌓아두는 것은 좋은 계책입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탐라라는 읍은 바다 위의 외로운 섬으로, 수령이 의지하여 일용의 물자로 삼는 것은 생각건대 이 1,000여 포의 장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창의 환곡[糴]으로 칭하여 모든 수량을 옮겨 들인다면 관부는 필시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간(臺諫)이 상소로 아뢴 바에서 사창을 신설하자는 한 조항은 그대로 두십시오. 나머지 본사(本司)가 아직 회계하지 않은 것으로 서너 장(張)이 있는데, 그 논열한 것이 모두 명백하게 지적하는 데에 흠이 있어 특별히 번거롭게 보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복계(覆啓)를 즉시 거행하지 않았으니, 실로 물리쳐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경연에 오르기를 기다려 마땅히 그 곡절을 진술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253)

△ 주제어: 변경우, 상소, 사창, 신설.

253)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1년 5월 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十一日 庚戌

○ 丁巳五月十一日午時, 上御誠正閣. 右承旨入侍時, 行右承旨洪仁浩, 假注書李允謙, 記注官金良儁, 記事官金履永, 以次進伏訖. …… 濟恭曰, 濟州牧使柳師模, 身病沈重, 廢却公務, 連呈辭狀, 濟州事可悶, 合有變通之道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11일(경술)

▢ 신병(身病)으로 연이어 사장(辭狀)을 올린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 대한 조처를 청하는 채제공(蔡濟恭)의 계

○ 정사년 5월 11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할 때 행우승지 홍인호(洪仁浩),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김이영(金履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신병(身病)이 매우 중하여 공무를 폐하고 연이어 사장(辭狀)을 올렸습니다. 제주(濟州)의 일이 염려스러우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신병, 사장.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十二日 辛亥

○ 備邊司薦望, 以曺命楫爲濟州牧使.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12일(신해)

▢ 조명집(曺命楫)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조명집(曺命楫)[254]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 주제어: 조명집, 제주목사, 천망.

254) 조명집(?~?): 제주목사(1797.6.도임~1799.7.)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十二日 辛亥

○ 吏批三政, 以丁志元爲獻納, 濟州牧使單曺命楫,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12일(신해)

▢ 조명집(曺命楫)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이비(吏批)가 3차 정사(政事)를 하였다. 정지원(丁志元)을 헌납으로 삼고,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조명집(曺命楫)을 단부(單付)하였다. 〈하략〉.

△ 주제어: 조명집, 제주목사.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十二日 辛亥

○ 丁巳五月十二日申時, 上御誠正閣. 全羅監司入侍時, 右副承旨金達淳, 假注書李允謙,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全羅監司李得臣,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牧使許遞之代, 亦令今日議薦下批, 待下批謝恩.【出榻敎】…….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12일(신해)

▢ 허체(許遞)한 제주목사(濟州牧使)의 후임자를 오늘 의천(議薦)하고, 하비(下批)를 기다려 사은(謝恩)하게 하라는 전교

○ 정사년 5월 12일 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전라감사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김달순(金達淳),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전라감사 이득신(李得臣)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를 허체(許遞)한 대신 후임자를 또한 오늘 의천(議薦)[255]하여 하비(下批)[256]하게 하고, 하비를 기다려 사은(謝恩)하게 하라."라고 하였다.【어전에서 하교를 냄】[257]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허체, 의천, 하비.

---

255) 의천(議薦): 의논하여 천거함.

256) 하비(下批): 정사(政事)를 마친 뒤 이조나 병조, 즉 전조(銓曹)에서 새로 제수된 관원의 이력 등을 적은 하비단자(下批單子)를 올린 데 대해 왕이 계하(啓下)하는 행위를 말함.

257)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1년 5월 1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二十二日 辛酉

○ 洪仁浩啓曰, 前忠淸監司林濟遠, 前全羅左水使李運昌, 密符還納修正次, 密匣請出之意, 敢啓. 傳曰, 濟州牧使, 今日辭朝, 而南兵使, 何可不爲辭朝乎? 使之一體辭朝. 當此悶旱之時, 一念在於民事, 此時守令, 豈可曠官?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22일(신유)

▢ 제주목사(濟州牧使)가 하직(下直) 인사를 함

○ 홍인호(洪仁浩)가 아뢰기를, "전 충청감사 임제원(林濟遠)과 전 전라좌수사 이운창(李運昌)의 밀부(密符)를 도로 들여 수정하기 위해 밀갑(密匣)을 내주기를 청하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가 오늘 하직(下直) 인사를 하는데, 남병사(南兵使)가 어찌 하직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일체 하직 인사를 하게 하라. 이처럼 가뭄을 근심하는 때에 온통 생각이 백성들의 일에 있는데, 이러한 때에 수령이 어찌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있는가?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하직.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二十二日 辛酉

○ 備忘記, 南兵使曺允精, 濟州牧使曺命楫下直, 長弓一張, 長箭一部, 片箭一部, 筒兒一箇賜給.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22일(신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 등에게 장궁(長弓) 등을 사급(賜給)하라는 비망기

○ 비망기(備忘記)에, "남병사 조윤정과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하직(下直)하니, 장궁(長弓) 1장(張), 장전(長箭) 1부(部), 편전(片箭) 1부, 통아(筒兒) 1개를 사급(賜給)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하직.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二十二日 辛酉

○ 今五月二十二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時, 原任大臣·閣臣·承候諸承旨持公事, 次對同爲入侍時, 藥房提調沈煥之, 行右承旨金履翼, 行都承旨趙鎭寬, 行左承旨洪仁浩, 左副承旨李勉兢, 右副承旨李海愚, 同副承旨金達淳, 假注書徐俊輔·李允謙, 記事官吳泰曾·金履永, 檢校待敎沈象奎, 領議政洪樂性, 左議政蔡濟恭, 領敦寧金履素, 右議政李秉模, 原任直提學徐浩修·徐龍輔·鄭大容, 檢校直閣金勉柱, 原任直閣南公轍·金祖淳, 檢校待敎徐有榘, 原任待敎李存秀, 事變假注書南度中, 行判尹金文淳, 行上護軍金持默, 行禮曹判書閔鍾顯, 兵曹判書權禶, 吏曹判書李秉鼎, 開城留守黃昇源, 行護軍李書九, 校理朴吉源,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白成一·李周憲·李惟鑑·玄必彩[玄必采]·吳仁豐, 以次進伏訖. …… 上曰, 下直閫帥·守令入侍. 【出榻敎】 賤臣承命出, 與南兵使曺允精, 濟州牧使曺命楫, 豊德府使金珠淵偕入進伏. 各奏職姓名. …… 敎命楫曰, 耽羅逖矣, 王化猶阻, 況當年前瘡夷之餘乎? 汝須下往善爲之也.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22일(신유)

▢ 임금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을 입시하게 하여 잘 다스리도록 하교함

○ 5월 2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할 때, 원임대신(原任大臣)과 각신(閣臣)이 승후(承候)를 위해,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차대(次對)에 함께 하여 입시할 때, 행우승지 김이익(金履翼),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이면긍(李勉兢),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동부승지 김달순(金達淳), 가주서 서준보(徐俊輔)·이윤겸(李允謙),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영돈녕 김이소(金履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원임직제학 서호수(徐浩修)·서용보(徐龍輔)·정대용(鄭大容),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 원임직각 남공철(南公轍)·김조순(金祖淳), 검교대교 서유구(徐有榘), 원임대교 이존수(李存秀), 사변가주서 남도중(南度中), 행판윤 김문순(金文淳),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병조판서 권엄(權禶), 이조판서 이병정(李秉鼎), 개성유수 황승원(黃昇源), 행호군 이서구(李書九), 교리 박길원(朴吉源),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백성일(白成一)·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인풍(吳仁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

금이 말하기를, “하직하는 곤수(閫帥)와 수령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어전에서 하교를 냄】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남병사 조윤정(曺允精),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 풍덕부사 김주연(金珠淵)과 함께 들어와 나와 엎드렸다. 각자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중략〉 조명집에게 하교하여 말하기를, “탐라(耽羅)는 멀리 떨어져 있어 왕화(王化)가 막히는데, 더군다나 연전(年前)에 당한 상처의 끝이라 어떠하겠는가? 너는 모름지기 내려가서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 嘉慶 二年 丁巳 五月 三十日 己巳

○ 以濟州牧使柳師模啓本, 雌馬上送事判付內, 啓下司僕寺爲旀, 昨日軍器寺, 以甲冑新造形止啓聞, 監造堂郎, 分等論賞, 而修擧之都相, 已作古人, 傷惜何言? 耽羅別爲分定之馬匹, 又爲上來, 卽故相修擧中一事. 凡事, 人存政擧旀不喩, 箭串牧場, 異於外邑各牧, 若不別般致察, 難期十分食效. 此所以二十年來, 非不留意於復舊畜牧, 而荏苒至今者, 蓋由參倚於事勢是置. 故相則銳意爲此, 今或一毫泛忽, 則以若假設之柵標, 依樣之垓址, 決知其無其效, 一遵前令尹約束, 守而勿失, 其責豈不在於新都相乎? 以此着念, 期有實效爲良如敎.

❖ 정조 21년(1797) 정사년 5월 30일(기사)

▢ 제주(濟州)에서 올려보낸 암말을 방목하는 전곶(箭串) 목장의 새 도상(都相)에게 유념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계본(啓本)에 암말을 올려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내린 판부(判付) 내에, "사복시에 계하(啓下)한다. 어제 군기시(軍器寺)에서 갑주(甲冑)를 새로 만든 전말을 계문(啓聞)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감독한 당상과 낭청을 등급을 나누어 논상하게 하였다. 그런데 수거(修擧)[258]한 도상(都相)은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애석함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탐라(耽羅)에 별도로 분정(分定)한 마필(馬匹)이 또 올라왔는데, 곧 고인이 된 도상이 수거한 것 중 한 가지 일이다. 모든 일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한 정사(政事)가 거행될 뿐만 아니라 전곶(箭串)[259] 목장은 다른 읍의 각 목장과 달리 만약에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20년 동안 목축을 복구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음이 없으면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은 대개 사세(事勢)를 항상 잊지 않고 늘 마음에 간직하였기 때문이다. 고인이 된 도상은 예의주시하여 이것을 하였는데, 지금 혹여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가설한 책표(柵標)와 본떠서 만든 해지(垓址)같은 것은 결코 그 효과

---

258) 수거(修擧): 잘 다스려서 좋은 성과를 올림.

259) 전곶(箭串): 도성의 동교(東郊)인 전곶(箭串)으로 살곶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뚝섬에 해당함. 《홍재전서(弘齋全書)》〈일득록(日得錄) 8〉에 따르면, 전교의 목장은 샘이 달고 풀이 풍성하여 말을 기르기에 가장 알맞다는 이유로 정조가 사복시에서 말을 번식시켜 나라를 부유하게 할 방책으로 삼도록 하였음.

가 없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한결같이 전 영윤의 약속을 따르며 지켜서 잃지 말게 할 그 책임이 어찌 새로운 도상에게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유념하여 실효가 있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유사모, 계본, 암말, 전곶, 도상.

❖ 嘉慶 二年 丁巳 六月 二十日 己丑

○ 丁巳六月二十日卯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藥房提調沈煥之, 副提調李翼晉, 行左承旨洪仁浩, 記事官金履永, 假注書尹命烈, 事變假注書宋應圭, 記注官金良僩, 記事官吳泰曾, 檢校直閣金勉柱, 右議政李秉模, 行上護軍金文淳·金持默, 行禮曹判書閔鍾顯, 刑曹判書趙尙鎭, 行護軍徐有大, 行都承旨趙鎭寬, 行護軍李漢豐, 行右承旨李益運, 校理朴吉源, 醫官金孝儉·金光國·李周憲·朴春源·李惟鑑·玄必采·吳仁豐, 以次進伏訖. …… 秉模曰, 頃以羅里鋪仍舊制設倉于臨陂事, 筵稟行會矣. 卽見全羅前監司徐鼎修所報, 則枚擧濟州前牧使柳師模牒呈, 以爲鋪倉利害, 專係於島産發賣之便否, 而七山上下, 貴賤判異. 故當初本倉之必設於海路最遠之臨陂, 竝屬湖西九邑, 轉販於兩湖者, 創始本意, 固已周密, 特以島人涉險之難, 移倉於羅州, 涼·藿買賣, 比臨陂爲難, 而島中民情, 必皆稱便於臨陂, 不願於羅州. 今以島陸物議, 參諸擧行便否, 倉所之復設臨陂, 不害爲兩便之道云, 今若復設臨陂, 則當依元節目, 申復科條, 兩湖屬邑及換貿節次, 竝令仍舊擧行, 而臨陂縣庫舍, 移倉後, 仍爲毁撤, 修補公廨, 今無見存. 營建物力, 他無出處, 其所拮据之道, 惟在於涼·藿發賣時從便取剩, 而倉廒旣未得設置, 則涼藿勢不得不姑令輸納於濟民倉爲辭矣. 臨陂則有一小利, 而大不便者三, 涼·藿區處之道, 稍勝下道, 此所謂小利, 而經過七山也, 海路絶遠也. 旣毁之倉舍, 難於改建也, 此其三不便也. 羅州則有小不便者一, 而所便者三, 涼·藿之價, 比臨陂稍賤. 此所謂小不便, 而海路至近也, 倉廒堅實也, 雄牧典守, 勝於小縣也. 此其所便者三, 爲彼一小利, 捨此三便, 遽議銷刻之政, 恐非得計, 姑爲仍置於羅州, 依節目擧行爲宜, 而第念沿民切苦之弊, 專在於倉無素儲, 逐邑發運. 若以前頭涼·藿換貿之穀及其他某樣穀, 假令限數萬餘石積峙, 仍行二留一分之法, 則庶免臨時分劃之弊, 亦無還多病民之慮, 更令道臣講究便否, 具意見論理狀聞後, 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6월 20일(기축)

▢ 나리포창(羅里鋪倉)을 임피(臨陂)에 복설하지 말고 그대로 나주(羅州)에 두기를 청하는 우의정 이병모(李秉模)의 계

○ 정사년 6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약방제조 심환지(沈煥之), 부제조 이익진(李翼晉),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가주서

윤명렬(尹命烈), 사변가주서 송응규(宋應圭), 기주관 김양척(金良倜),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상호군 김문순(金文淳)·김지묵(金持默),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형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행호군 서유대(徐有大),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이한풍(李漢豐),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교리 박길원(朴吉源), 의관 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이주헌(李周憲)·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인풍(吳仁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260]가 아뢰기를, "이전에 나리포(羅里鋪)의 옛 제도를 그대로 하여 임피(臨陂)에 창(倉)을 설치하는 일과 관련해서 연석(筵席)에서 품처(稟處)하여 행회(行會)[261]하였습니다. 지금 전 전라감사 서정수(徐鼎修)가 보고한 것을 보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나리포창(羅里鋪倉)의 이해(利害)는 전적으로 섬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편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칠산(七山)의 위와 아래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아주 다릅니다. 때문에 당초 본창(本倉)을 필히 해로(海路)에서 가장 먼 임피에 설치하고, 아울러 호서(湖西)의 9개 읍을 붙여서 양호(兩湖)에 옮겨 판매하게 한 것은 처음 설치할 때의 본뜻이 진실로 이미 주도면밀한 것입니다. 다만 섬사람들이 험한 바다를 건너는 곤란함 때문에 나주(羅州)로 창을 옮겼는데, 양태[涼臺]와 미역의 사고파는 데에 있어 임피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섬 안 백성들의 사정은 필시 모두가 임피가 편하다고 하면서 나주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섬과 육지의 여론을 가지고 거행의 편의 여부를 참작하여 창소(倉所)를 임피에 복설(復設)하는 것이 양쪽을 편하게 하는 방도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임피에 복설하면, 마땅히 원래의 절목에 의거하여 과조(科條)를 거듭 회복하여 양호에 붙이는 읍과 환무(換貿)하는 절차를 아울러 옛 제도를 그대로 따라 거행하게 하고, 임피현의 고사(庫舍)는 창을 옮긴 후에 그대로 훼철하여 공해(公廨)를 보수해야 하는데, 지금 현존하는 것이 없고, 영건(營建)[262]하는 물력이 달리 나올 것이 없으니, 그 일할 방법은 오직 양태와 미역을 판매할 때 편의에 따라서 남는 것을 취하는 것인데, 창을 이미 설치할 수 없으니, 양태와 미역을 형세상 부득이 우선 제민창(濟民倉)으로 실어다가 납입해야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임피는 하나의 작은 이로움이 있지만 크게 불편한 것

260) 이병모(1742~1806): 본관 덕수(德水). 자 이칙(彝則). 호 정수재(靜修齋). 시호 문익(文翼).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홍문관제학, 우의정, 영의정 역임.

261) 행회(行會): 각 관아의 관장(官長)이 조정의 새로운 명령 내용을 관아에 속한 아랫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를 말함.

262) 영건(營建): 집이나 건물을 지음.

이 세 가지이니, 양태와 미역을 변통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하도(下道)보다 조금 나으니, 이것이 이른바 작은 이로움입니다. 하지만 칠산을 지나는 것과 해로가 아주 먼 것과 이미 훼철된 창사(倉舍)를 개건하는 것이 어려운 것 이것이 그 세 가지 불편함입니다. 나주는 작은 불편함이 하나가 있고, 편리한 것이 셋이 있으니, 양태와 미역의 값이 임피에 비해 조금 낮은 것 이것이 이른바 작은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해로가 가깝고, 창고가 견실하고, 웅목(雄牧)의 전수(典守)[263]가 작은 현보다 나으니, 이것이 편한 바 세 가지입니다. 저 작은 이로움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편리함을 버리고 갑자기 의론하여 소각(銷刻)[264]하는 정사는 계책을 얻은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일단 그대로 나주에 두어 절목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연해(沿海) 백성들이 아주 괴롭게 여기는 폐단은 전적으로 창에 평소 저축한 곡물이 없어서 읍마다 발운(發運)하는 것에 있으니, 만약에 앞으로 양태·미역과 바꿀 곡물 및 기타 모양(某樣)의 곡물을 가지고 가령 수만여 섬에 한하여 쌓아두고 그대로 3분의 2는 유치(留置)하고 3분의 1은 분급(分給)하는 법을 시행한다면, 때에 임하여 분획(分劃)하는 폐단을 면할 수 있고, 또한 다시 백성을 많이 괴롭히는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편리 여부를 강구하여 의견을 갖추어 이치를 논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한 후 품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65]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나리포창, 임피, 나주.

263) 전수(典守): 곡식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264) 소각(銷刻): 인장(印章)을 새겼다가 도로 녹이는 것으로, 명령을 자주 번복하는 것을 의미함.
265)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1년 6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三日 辛丑

○ 今閏六月初三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洪明浩, 行左承旨李晩秀, 行右承旨申耆, 左副承旨李勉兢, 右副承旨李泰永, 同副承旨李翼晉, 假注書金處巖·韓耆裕,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檢校直閣金勉柱, 以次進伏訖. …… 上曰, 守令入侍, 處巖承命出, 與谷山府使丁若鏞, 平山府使李景溟, 遂安郡守南涑, …… 偕入進伏訖. …… 上敎涑曰, 遂安水土, 何如? 勉兢曰, 水土頗好云矣. 上曰, 泮儒應製, 以居首最多之故, 遂爲筮仕, 是乃初有之事矣. 年前濟州飽經苦辛之狀, 尙復何說? 今番須下往善爲之.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3일(신축)

▢ 임금이 수안군수(遂安郡守)로 내려가는 남속(南涑)을 격려하며 몇 해 전 제주(濟州)에서 고생한 일을 언급함

○ 윤6월 3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홍명호(洪明浩), 행좌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우승지 신기(申耆), 좌부승지 이면긍(李勉兢), 우부승지 이태영(李泰永), 동부승지 이익진(李翼晉), 가주서 김처암(金處巖)·한기유(韓耆裕),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검교직각 김면주(金勉柱)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김처암이 명을 받들고 나가 곡산부사 정약용, 평산부사 이경명, 수안군수(遂安郡守) 남속(南涑)과 〈중략〉 함께 들어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남속에게 하교하기를, “수안의 수토(水土)는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면긍이 아뢰기를, “수토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 유생의 응제시(應製詩)에 수석을 차지한 자가 가장 많은 까닭에 마침내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몇 해 전에 제주(濟州)에서 실컷 고생한 정황에 대해서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번에 모름지기 내려가거든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남속, 수안군수.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十日 戊申

○ 以事變假注書望筒, 傳于李儒慶曰, 一番擬望點下, 旋卽差代, 反不若諺所謂漢江之浴, 殊非務實之政, 而以高爲姓, 懸以旌義, 在外則知是夫高良之高, 豈非島中之名族乎? 前假住書[假注書]高鳴鶴, 令該曹口傳, 陞付典籍, 使之起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10일(무신)

▢ 가주서 고명학(高鳴鶴)을 전적(典籍)으로 승부(陞付)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라는 전교

○ 사변가주서의 망통(望筒)[266]과 관련하여 이유경(李儒慶)[267]에게 전교하기를, "한 번 의망(擬望)하여 점을 찍었으면 즉시 차대(差代)해야 하는데, 도리어 속담에 '한강에서 목욕하기' 보다 못하니, 자못 실질을 힘쓰는 정사가 아니다. 고(高)를 성(姓)으로 하고, 정의(旌義)라고 현록(懸錄)하여 지방에 있다면, 이는 부(夫)·고·양(良)의 '고'이니, 어찌 섬 안의 명족(名族)이 아니겠는가? 전 가주서 고명학(高鳴鶴)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구전(口傳)하여 전적(典籍)으로 승부(陞付)하고 올려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고명학, 전적.

---

266) 망통(望筒): 관원 임용 후보자의 추천서. 망단자(望單子).

267) 이유경(1748~1818): 본관 함평(咸平). 자 이선(而善). 1772년(영조 48) 문과 급제.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十九日 丁巳

○ 李肇源,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十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五十匹箭串牧場放養次, 雌馬代三十匹, 壯勇營軍馬代二十二匹, 華城府親軍衛分給計除, 實納馬一百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19일(정사)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세공마(先運歲貢馬)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조원(李肇源)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세공마(先運歲貢馬) 210필 내에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1필은 도중에서 죽고, 50필은 전곶(箭串) 목장에서 놓아 기르는 용으로, 암말 대(代) 30필과 장용영(壯勇營) 군마 대 22필을 화성부(華城府) 친군위(親軍衛)에 나누어 준 것을 계산하여 제외하면, 실제 바치는 말 106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전곶, 장용영, 화성부, 친군위, 별단.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十九日 丁巳

○ 李肇源,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一匹到中路故失, 一匹到江頭病留, 實納馬八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19일(정사)

▢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연례진상마(後運年例進上馬) 등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조원(李肇源)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연례진상마(後運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마(凶咎駑駘馬) 20필, 합 88필 내에 1필은 중도에서 죽고, 1필은 강 어귀에 이르러 병이 들어 머물고 있어 실제로 바치는 말 86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노태마, 별단.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二十日 戊午

○ 傳于洪義榮曰, 今因備局書入者見之, 耽羅漂海人之萬死獲生, 今日當自畿營押付原籍官云, 爲渠輩奇幸, 而其中前忠壯將李邦翼, 與無知島氓有異, 卽堂上朝官也. 卿等招致慰諭, 仍令該曹相當職作窠, 口傳調用, 渠必思土, 急於還鄕, 不必留置, 竝以此意分付事, 令備郎傳于左右相.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20일(무오)

▢ 탐라(耽羅)의 표해인(漂海人) 중 이방익(李邦翼)을 구전(口傳)으로 조용(調用)하게 하라는 전교

○ 홍의영(洪義榮)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비국에서 써서 들인 것을 보니, '탐라(耽羅)의 표해인(漂海人)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자를 오늘 마땅히 기영(畿營)에서 원적(原籍)의 관청으로 압부(押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무리들은 다행이지만, 그 가운데 전 충장장(忠壯將) 이방익(李邦翼)[268]은 무지한 섬 백성들과는 다름이 있으니, 곧 당상의 조관(朝官)이다. 경들이 불러다가 위로하고, 이어서 해당 조(曹)로 하여금 상당하는 직(職)을 자리를 내어 구전(口傳)으로 조용(調用)하게 하면, 그는 반드시 고향을 그리워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급히 할 것이니, 머물러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 뜻으로 분부하도록 비국 낭청으로 하여금 좌·우의정에게 전하게 하라."라고 하였다.[269]

△ 주제어: 표해인, 이방익, 조용.

---

268) 이방익(1756~1801): 본관 성주(星州). 1784년(정조 8) 무과 급제. 충장장, 오위장, 전주중군 역임.

269)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1년 윤6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二十日 戊午

○ 丁巳閏六月二十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次對同爲入侍時, 藥房提調金文淳, 左副承旨李肇源, 記事官柳遠鳴, 假注書具得魯, 事變假注書趙璜鎭, 記注官金良儁, 記事官吳泰曾, 檢校待敎李存秀, 右議政李秉模, 行上護軍金持默, 行禮曹判書閔鍾顯, 吏曹判書金載瓚, 兵曹判書李祖源, 行護軍徐有大·李漢豊·李書九, 執義尹悌東,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李周憲·李惟鑑·吳仁豊·安昌禧, 以次進伏訖. …… 秉模曰, 濟州漂民出送事, 禮部咨文出來矣. 以前頭使行奉表稱謝之意, 撰出回咨, 正書安寶後, 定禁軍騎撥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致北京之地, 今年節行, 順付太上皇帝·皇帝前, 無方物謝恩各一起, 加磨鍊之意, 一體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20일(무오)

▢ 제주(濟州)의 표민(漂民)을 내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나온 청나라 예부의 자문(咨文)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으로 회자(回咨)를 지어 북경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우의정 이병모(李秉模)의 계

○ 정사년 윤6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차대(次對)가 함께 하여 입시할 때, 약방제조 김문순(金文淳),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기사관 유원명(柳遠鳴), 가주서 구득노(具得魯), 사변가주서 조황진(趙璜鎭),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병조판서 이조원(李祖源),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豊)·이서구(李書九), 집의 윤제동(尹悌東),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오인풍(吳仁豊)·안창희(安昌禧)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표민(漂民)을 내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청나라) 예부의 자문(咨文)[270]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행(使行)에 표문(表文)을 받들어 감사하다는 뜻으로 회자(回咨)[271]를 지어내어 정서(正書)로 써서 옥새를 찍은 후에 금군기발(禁軍騎撥)을 정하여

270) 자문(咨文): 조선시대 중국과 외교적인 교섭(交涉)·통보(通報)·조회(朝會)할 일이 있을 때에 주고받던 공식적인 외교문서.

271) 회자(回咨): 회답하는 자문(咨文).

만부(灣府)로 내려 보내고,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어 북경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금년 절행(節行)은 태상황제(太上皇帝)와 황제(皇帝) 앞에 순부(順付)하되, 방물(方物)이 없는 사은으로 각기 1기(起)를 마련할 것을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72]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표민, 자문, 회자.

272)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1년 윤6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二十七日 乙丑

○ 丁巳閏六月二十七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 守令同爲入侍時, 行左承旨洪義榮, 行右承旨李集斗, 左副承旨李肇源, 右副承旨李海愚, 同副承旨睦萬中, 記事官柳遠鳴, 假注書洪奭周, 記事官吳泰曾·金履永, 檢校待敎沈象奎·李存秀, 沔川郡守朴趾源, 以次進伏訖. …… 命守令進前, 趾源進, 奏職姓名. 上曰, 曾經幾處守令乎? 趾源曰, 經安義縣監矣. 上曰, 爾年幾何? 趾源曰, 六十一歲矣. 上曰, 久聞爾才華, 而未能一試矣. 爾之文體, 今果善變乎? 趾源曰, 伏承下敎, 惶恐, 不知所達矣. 上曰, 以若才華, 何必爲如是文體乎? 方有好材料, 欲令爾作一文字. 濟州漂海人李邦翼事蹟甚奇, 爾聞之乎? 趾源曰, 略聞其事矣. 上曰, 沔雖小邑, 此亦難治, 須善爲之. 仍命先退.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27일(을축)

▢ 면천군수 박지원(朴趾源)에게 제주(濟州)의 표해인(漂海人) 이방익(李邦翼)의 사적을 글로 지어보라는 임금의 하교

○ 정사년 윤6월 27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하고 수령이 함께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의영(洪義榮), 행우승지 이집두(李集斗),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동부승지 목만중(睦萬中), 기사관 유원명(柳遠鳴), 가주서 홍석주(洪奭周),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이존수(李存秀), 면천군수 박지원(朴趾源)[273]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수령을 앞에 나오도록 했다. 박지원이 앞으로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어디에서 수령을 지냈는가?"라고 하였다. 박지원이 아뢰기를, "안의현감을 지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나이가 몇인가?"라고 하였다. 박지원이 아뢰기를, "61세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재화(才華)를 오래도록 들었는데, 한 번도 시험해 보지 못했다. 그대의 문체가 지금 과연 잘 변화되었는가?"라고 하였다. 박지원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를 받들자니 황공하여 아뢸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화가 비

273) 박지원(1737~1805): 본관 반남(潘南). 자 미중(美仲)·중미(仲美) 호 연암(燕巖)·연상(煙湘)·열상외사(洌上外史). 시호 문도공(文度公). 1786년(정조 10) 음사로 선공감감역에 제수. 안의현감, 면천군수, 양양부사 역임. 저서 《열하일기(熱河日記)》.

슷하다고 하여 어찌 반드시 이와 같은 문체가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 좋은 재료가 있으니, 그대로 하여금 글 하나를 짓게 하려 한다. 제주(濟州)의 표해인(漂海人) 이방익(李邦翼)의 사적이 아주 기이한데, 그대는 들어보았는가?"라고 하였다. 박지원이 아뢰기를, "대략 그 사적을 들어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면천은 비록 작은 읍이지만 이곳 또한 다스리기 어렵다. 모름지기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먼저 물러가라고 했다. 〈하략〉.

△ 주제어: 박지원, 표해인, 이방익.

❖ 嘉慶 二年 丁巳 閏六月 二十九日 丁卯

○ 丁巳閏六月二十九日午時, 上御重熙堂. 都承旨·左承旨·左副承旨入侍時, 行都承旨徐邁修, 行左承旨洪義榮, 左副承旨李肇源, 假注書洪奭周, 記事官金景煥·金珍恪, 以次進伏訖. 上曰, 前濟州牧使入侍. 【出榻敎】 景煥承命出, 與前濟州牧使柳師模, 偕入進伏. 上曰, 耽羅年事, 今年, 何如? 師模曰, 兩麥旣善成, 各穀亦可期登熟矣. 上曰, 乙卯年年事, 果何如? 而捐瘠爲幾許耶? 師模曰, 可謂慘歉, 而損瘠夥然, 在耽羅一方, 便一殺運矣. 上曰, 損瘠之如是夥然, 皆是饑饉之所致乎? 師模曰, 饑病相仍, 以致如此矣. 上曰, 何時發程, 而幾日渡海. 師模曰, 初旬前發程, 而一二日內渡海矣. 上曰, 速矣. 海道幾里, 而如得風便, 則亦多一日而渡者乎? 師模曰, 水路約爲九千餘里, 而風和之時, 則雖一日亦可利涉, 若値風高, 則易致失路, 終難順泊矣. 上曰, 曾經承旨乎? 師模曰, 未經矣. 命師模先退.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윤6월 29일(정묘)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입시하여 제주(濟州)의 금년 농사형편과 지난 을묘년 흉년의 정황 등을 아룀

○ 정사년 윤6월 29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도승지·좌승지·좌부승지가 입시할 때, 행도승지 서매수(徐邁修), 행좌승지 홍의영(洪義榮),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홍석주(洪奭周), 기사관 김경환(金景煥)·김진각(金珍恪)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어전에서 하교를 냄】 김경환이 명을 받들고 나가 전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와 함께 들어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탐라(耽羅)의 농사 형편은 금년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보리와 밀은 이미 잘 이루어졌고, 각종 곡식 또한 잘 익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을묘년의 농사 형편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연척(捐瘠)[274]은 몇이나 되었는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참혹한 흉년이라 이를 만하였는데, 연척은 아주 많아서 탐라 한 지방은 곧 모두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연척이 이와 같이 아주 많았던 것은 모두가 기근 때문이었는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기근과 병이 서로

274) 연척(捐瘠): 버려져서 야위어 병든 사람.

이어져 이와 같이 이르렀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언제 길을 떠나서 며칠만에 바다를 건넜는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초순전에 길을 떠나 1,2일 내에 바다를 건넜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빠르구나. 바닷길은 몇 리인가? 만약에 바람이 순조로우면 또한 하루에 건너는 자가 많은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수로(水路)는 대략 9,000여 리입니다. 바람이 온화할 때는 비록 하루에도 또한 이롭게 건널 수 있지만, 만약에 바람이 높게 불면 쉽게 길을 잃어 끝내 순조롭게 정박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승지를 지냈는가?”라고 하였다. 유사모가 아뢰기를, “아직 지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유사모에게 명하여 먼저 물러가게 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농사형편, 흉년, 수로.

❖ 嘉慶 二年 丁巳 七月 七日 甲戌

○ 李鎭復,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牧使柳師模, 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三匹馬中, 一匹馬體小瘦瘠, 事極駭然. 當該封進前牧使柳師模,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封進馬之如是體大能步, 二十餘年內初見, 問備, 非所可論矣.

❖ 정조 21년(1797) 정사년 7월 7일(갑술)

▢ 몸집이 작고 마른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봉진(封進)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에 대한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진복(李鎭復)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서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의 일의 체모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3필 중에 1필이 몸집이 작고 말랐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封進) 전 제주목사 유사모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 경계를 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봉진한 말이 이와 같이 몸집이 크고 걸음걸이에 능한 것을 20여년 내에 처음 본다. 문비(問備)[275]를 논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유사모, 진상마, 종중추고.

275) 문비(問備): 죄과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 죄상을 관원 명부에 기록하였다가 인사 사무에 반영하였는데, 이를 부과(附過)라고도 함.

❖ 嘉慶 二年 丁巳 七月 十二日 己卯

○ 丁巳七月十二日卯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藥房提調趙宗鉉, 副提調洪明浩, 行右承旨洪仁浩, 左副承旨李勉兢, 假注書吳泰曾, 事變假注書曺錫中,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俔, 右議政李秉模, 戶曹判書金華鎭, 工曹判書金文淳, 行上護軍金持默, 行吏曹判書閔鍾顯, 行大護軍李秉鼎, 禮曹判書李時秀, 右參贊沈煥之, 行大護軍趙心泰, 兵曹判書李祖源, 開城府留守黃昇源, 刑曹判書趙尙鎭, 行護軍徐龍輔·李書九, 掌令朴道翔, 校理李羲甲, 醫官柳光翼·金孝儉·金光國·白成一·李周憲·李敏德·李惟鑑·吳仁豐, 以次進伏訖. 上曰, 守令·邊將初仕人, 旣有入侍之命, 則所當隨入於承宣之後, 而留在閤外, 不卽入來, 承旨何如是知委擧行耶? 史官出去率入, 可也. 賤臣承命出傳, 與會寧府使李潤謙, …… 淮陽府使李羽晉, …… 偕入進伏. …… 敎羽晉曰, 作宰幾處? 羽晉曰, 旌義·固城·扶安矣.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7월 12일(기묘)

▢ 회양부사(淮陽府使) 이우진(李羽晉)이 입시하여 정의(旌義) 등에서 수령(守令)을 한 이력을 아룀

○ 정사년 7월 12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약방제조 조종현(趙宗鉉), 부제조 홍명호(洪明浩), 행우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이면긍(李勉兢), 가주서 오태증(吳泰曾), 사변가주서 조석중(曺錫中),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俔),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공조판서 김문순(金文淳),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이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행대호군 이병정(李秉鼎),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우참찬 심환지(沈煥之),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병조판서 이조원(李祖源), 개성부유수 황승원(黃昇源), 형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행호군 서용보(徐龍輔)·이서구(李書九), 장령 박도상(朴道翔), 교리 이희갑(李羲甲),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김광국(金光國)·백성일(白成一)·이주헌(李周憲)·이민덕(李敏德)·이유감(李惟鑑)·오인풍(吳仁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守令)과 변장 초사인(初仕人)에게 이미 입시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마땅히 승지의 뒤를 따라 들어와야 하는데, 합문 밖에 있으면서 즉시 들어오지 않으니 승지는 어찌 이와 같이 통지하여 거행하는 것인가? 사관은 나

가서 데리고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천신(賤臣)이 명을 받들고 나가 전하고, 회령부사 이윤겸, 〈중략〉 회양부사(淮陽府使) 이우진(李羽晉)[276] 〈중략〉 과 함께 들어와 엎드렸다. 〈중략〉 이우진에게 하교하기를, "수령을 어디에서 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이우진이 아뢰기를, "정의(旌義)·고성(固城)·부안(扶安)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이우진, 정의, 수령.

276) 이우진(1741~?): 본관 전주(全州). 자 성익(聖翼).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정의현감(1781.7.도임~1781.12.), 병조참의, 대사간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八月 二日 戊戌

○ 傳于李肇源曰, 耽羅馬匹之歲貢, 而爲御乘者, 自古罕有, 今番牧使柳師模上來後, 封進馬體制堅剛, 步品如飛, 直爲御乘, 已立於御乘十望之中, 此設牧以後, 雖謂之初有, 可矣. 激勸之道, 其所論賞, 豈後於馬醫司僕尋常燕貿直御乘之功乎? 該牧群頭及其外頭目之可合論賞者, 招問前牧使, 論理草記事, 傳諭一提擧, 使之別般論賞, 該牧使柳師模, 特賜內廐馬一匹, 使之閤門親受, 而此乃先從隗始之意也. 此後益加着意, 皆依今番例, 以爲直御乘之地事, 亦爲下諭于濟州時牧使, 此傳敎及草記批答揭板, 知所興勸.

❖ 정조 21년(1797) 정사년 8월 2일(무술)

▢ 어승마(御乘馬)를 봉진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를 논상(論賞)하여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라는 전교

○ 이조원(李肇源)에게 전교하기를, "탐라(耽羅)의 말로써 세공(歲貢)으로 진상된 것 가운데 어승마(御乘馬)가 된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 금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올라온 후에 봉진한 말의 체제(體制)가 견강(堅剛)하고, 보품(步品)이 나는 것과 같아서 바로 어승마로 삼아 이미 어승십망(御乘十望) 가운데 섰으니, 이는 목장을 설치한 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로 볼 때, 그 논상(論賞)하는 바가 어찌 마의사복(馬醫司僕)[277]이 예사로 중국과 무역하여 바로 어승마를 삼게 한 공보다 뒤로 할 수 있겠는가? 해당 목(牧)의 군두(群頭)[278]와 그밖에 두목(頭目)으로 논상에 합당한 자를 전 제주목사를 불러 물어 이치를 논하여 초기(草記)하도록 일제거(一提擧)에게 전유(傳諭)하여 별도로 논상하게 하라. 해당 목사 유사모에게는 특별히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여[279] 그로 하여금 합문(閤門) 앞에 와서 친히 받게 하라. 이는 곧 '먼저 곽외(郭隗)로부터 시작한 뜻'[280]이다. 이후로는 더욱 유념

---

277) 마의사복(馬醫司僕): 마의(馬醫). 조선시대 사복시(司僕寺)에 속하여 말의 질병을 치료하던 잡직(雜職).

278) 군두(群頭): 1군(群)의 목축을 관장하는 두목(頭目).

279) 이상은 《정조실록》 정조 21년 8월 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280) 먼저 곽외(郭隗)로부터 시작한 뜻[先從隗始]: 연 소왕(燕昭王)이 즉위하여 곽외(郭隗)에게 어진 인재의 천거를 요청하니, 곽외가 "임금께서 현사(賢士)를 초빙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저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어찌 천 리 길을 멀다 하겠습니까?[王必欲致士 先從隗始 況賢於隗者 豈遠千里哉]"라고 하였음. 이에 소왕은 그를 후대하고 스승으로 모셨는데,

하여 모두 금번 사례에 의거하여 바로 어승마로 삼을 수 있도록 또한 현 제주 목사에게 하유하고, 이 전교와 초기비답(草記批答)을 게판(揭板)하여 흥권(興勸)하는 바를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 어승마, 유사모, 논상.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을 등용하여 부국(富國)을 이루었음. 《史記 卷34 燕召公世家》

❖ 嘉慶 二年 丁巳 八月 五日 辛丑

○ 宋銓,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下敎內, 耽羅馬匹之歲貢而爲御乘者, 自古罕有, 今番牧使柳師模上來後, 封進馬, 體制堅剛, 步品如飛, 直爲御乘, 已立於御乘十望之中, 此設牧以後, 雖謂之初有, 可矣. 激勸之道, 其所論賞, 豈後於馬醫·司僕, 尋常燕貿, 直御乘之功乎? 該牧群頭及其外頭目之可合論賞者, 招問前牧使, 論理草記事, 傳諭一提擧, 使之別般論賞. 該牧使柳師模, 特賜內廐馬一匹, 使之閤門親受, 而此乃先從隗始之意也. 此後益加着意, 皆依今番例, 以爲直御乘之地事, 亦爲下諭于濟州時牧使, 此傳敎及草記批答揭板, 知所興勸事, 命下矣. 依下敎, 問于前牧使柳師模, 則以爲群頭, 雖是牧子之頭目, 初不關涉於馬政, 未免有名而無實, 若其抄擇體品, 看養調習, 則都習馬及習馬名色, 專掌主管, 而今此封進馬抄擇看養之節, 都習馬高昌盛及習馬三名, 次知擧行云矣. 濟州馬之直爲御乘, 古聞八駿馬之一, 而近所未有之事, 其在激勸之政, 不可無各別褒賞之道. 都習馬高昌盛, 施以賞加之典, 習馬三名, 令該牧米木從厚題給後, 後錄狀聞. 今下傳敎及草記批答, 卽爲揭板, 常目興勸之意, 分付時牧使處, 何如? 傳曰, 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8월 5일(신축)

▢ 봉진마를 잘 가려 돌보아 어승마로 삼을 수 있게 한 고창성(高昌盛) 등에 대해 가자(加資)하는 은전 등을 베풀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송전(宋銓)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한 내용에, '탐라(耽羅)의 말로써 세공(歲貢)으로 진상된 것 가운데 어승마(御乘馬)가 된 것은 예로부터 드물었다. 금번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올라온 후에 봉진한 말의 체제(體制)가 견강(堅剛)하고, 보품(步品)이 나는 것과 같아서 바로 어승마로 삼아 이미 어승십망(御乘十望) 가운데 섰으니, 이는 목장을 설치한 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로 볼 때, 그 논상(論賞)하는 바가 어찌 마의사복(馬醫司僕)이 예사로 중국과 무역하여 바로 어승마를 삼게 한 공보다 뒤로 할 수 있겠는가? 해당 목(牧)의 군두(群頭)와 그밖에 두목(頭目)으로 논상에 합당한 자를 전 제주목사를 불러 물어 이치를 논하여 초기(草記)하도록 일제거(一提擧)에게 전유(傳諭)하여 별도로 논상하게 하라. 해당 목사 유사모에게는 특별히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여 그로 하여금 합문(閤門) 앞에 와서 친히 받게 하라. 이는 곧 '먼저 곽외(郭隗)로부터 시작한 뜻'이다.

이후로는 더욱 유념하여 모두 금번 사례에 의거하여 바로 어승마를 삼을 수 있도록 또한 현 제주목사에게 하유하고, 이 전교와 초기비답(草記批答)을 게판(揭板)하여 흥권(興勸)하는 바를 알게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교대로 전 제주목사 유사모에게 물어보니, '군두가 비록 이들 목자(牧子)의 두목이기는 하지만 애당초 마정(馬政)에 관여하여 간섭하지는 않아서 유명무실함을 면하지 못하고, 체품(體品)을 가려서 돌보아 기르며 조습(調習)하는 것은 도습마(都習馬)와 습마(習馬) 명색이 전적으로 맡아서 주관하고 있으며, 금번 이 봉진마를 가려서 돌보아 기른 것은 도습마 고창성(高昌盛)과 습마 3명이 담당하여 거행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마(濟州馬)가 바로 어승마가 된 사례는 옛날 팔준마(八駿馬) 중의 하나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근래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격려하여 권장하는 정사에 있어서 각별히 포상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도습마 고창성을 상으로 가자(加資)하는 은전을 베풀고, 습마 3명에 대해서는 해당 목으로 하여금 쌀과 무명을 후하게 제급(題給)한 후 후록(後錄)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지금 내린 전교와 초기비답을 즉시 게판하여 항상 눈여겨보며 흥권하는 뜻을 현 제주목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도습마, 고창성, 습마, 가자.

❖ 嘉慶 二年 丁巳 八月 五日 辛丑

○ 丁巳八月初五日卯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提調沈煥之, 副提調金履翼, 假注書具得魯,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右副承旨李肇源, 假注書李允謙, 事變假注書崔鳳和, 右議政李秉模, 兼戶曹判書金華鎭, 行工曹判書金文淳, 行上護軍金持默, 行吏曹判書閔鍾顯, 行大護軍李秉鼎, 禮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趙心泰, 兵曹判書李祖源, 開城留守黃昇源, 刑曹判書趙尙鎭, 行護軍徐龍輔·李書九,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貢馬之直爲御乘, 百餘年來初有之事也, 豈不異哉? 秉模曰, 耽羅有御乘生峯, 今番貢進馬之直爲御乘, 異哉異哉? 非但步品之絶類, 稟性亦甚良種云矣. 又曰, 臣於濟州前前牧使李喆運·李禹鉉事, 適有所聞之, 可以仰陳者, 李喆運則治績賑政, 至今爲島民追思, 而當初所坐, 旣出於土人梁之蘊之逞憾構誣, 繡啓論列, 亦無十分眞贓, 前後三邑守令之遞來者, 莫不極口稱冤, 雖以島民言之, 甚至於痛嫉梁哥, 不與之言者, 比比有之云. 大抵本島, 處在海外, 撫摩之政, 雖無所不用其極, 彈壓之道, 比內地尤當致意, 苟有貪官汚吏, 則固宜施以加倍之律, 而萬有一橫被誣詆, 久罹罪籍, 適中奸民怨憾之計, 徒結島氓咨嗟之思, 則此非爲喆運一人地也. 其爲後弊, 有不可勝言, 李禹鉉則一心誠謹, 殫力賑濟, 畢竟捐瘠之數多, 非無罪焉, 而實績則尙有島中之稱道云. 功罪庶幾可以相準, 故敢此仰達矣. 上曰, 李喆運事, 伊時按査之繡啓, 亦不能到底, 未免屈初見聞, 於後倅之說, 亦可見大同之民情, 李禹鉉事, 故相之請罪, 出於重民命之意, 竝放送, 可也. 【出擧條】 仍命書榻敎曰, 前濟州牧使李喆運·李禹鉉, 竄配竝放送.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8월 5일(신축)

▢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과 이우현(李禹鉉)의 찬배(竄配) 방송(放送)을 청하는 우의정 이병모(李秉模)의 계

○ 정사년 8월 5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에서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제조 심환지(沈煥之), 부제조 김이익(金履翼), 가주서 구득노(具得魯),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우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최봉화(崔鳳和),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겸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공조판서 김문순(金文淳),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이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행대호군 이병정

(李秉鼎),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병조판서 이조원(李祖源), 개성유수 황승원(黃昇源), 형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행호군 서용보(徐龍輔)·이서구(李書九)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의 공마(貢馬)가 바로 어승마(御乘馬)가 된 것은 100여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어찌 기이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탐라(耽羅)에 어승생봉(御乘生峯)[281]이 있는데, 금번 공진(貢進)한 말이 바로 어승마가 된 것은 기이하고도 기이합니다. 보품(步品)이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품성 또한 심히 좋은 종자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이철운(李喆運)과 이우현(李禹鉉)의 일에 관하여 마침 들은 바로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이철운은 치적과 진정(賑政)으로 지금까지 섬 백성들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당초 죄를 받게 된 것은 이미 토인(土人) 양지온(梁之蘊)이 한을 풀려고 터무니없는 일을 꾸며 모함한 데서 나온 것으로, 어사가 장계로 논열(論列)한 것에도 분명 진장(眞贓)[282]이 없었고, 앞뒤로 3읍의 수령으로 교체되어 돌아온 자들이 온갖 말로 원통함을 들어 말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섬 백성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 양가(梁哥)를 통렬히 미워하며 더불어 말도 하지 않는 자도 흔하게 있다고 합니다. 대저 본도(本島)는 바다 밖에 있기에 무마(撫摩)하는 정사가 비록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어서 인심을 진정시키는 방도가 내지(內地)에 비해서 더욱 마땅히 백성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만약에 탐관오리가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갑절로 더한 형률을 베풀어야 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억울하게 비방을 받게되면 오랫동안 죄적(罪籍)에 오르게 되어 간악한 백성의 원한의 계책에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고, 한갓 섬 백성들이 한숨을 쉬며 한탄하는 생각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는 이철운 한 사람의 처지를 위한 것이 아니니, 뒷날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우현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진휼하였지만 마침내 버려져 굶주린 자의 수가 많았으니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은 오히려 섬 안에서 칭송됨이 있다고 합니다. 공(功)과 죄(罪)가 서로 맞먹는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283] 임금이 말하기를, "이철운의 일은 당시 조사했던 어사의 장계가 또한 철저하지 못하여 처음 보고 들은 것을 굽히는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뒤의 수령의

281) 어승생봉(御乘生峯): 어승생오름. 한라산 북쪽 산록 표고 950m 지점의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음. 산정 표고 1,169m, 비고 350m, 둘레 5,842m, 기저직경 1,968m, 면적 2.54㎢의 단성화산(單成火山)임.

282) 진장(眞贓): 도둑질한 물건인 줄 알면서도 감추어 주거나 사거나 팔아 준 사실이 확실한 흔적.

283) 이상 전 제주목사 이철운과 이우현의 일에 관한 내용은《정조실록》정조 21년 8월 5일자 기사에서 확인됨.

말에서 또한 공통되는 민정(民情)을 알 수 있다. 이우현의 일은 고(故) 상신(相臣)이 죄를 청한 것이 백성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모두 방송(放送)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이어서 쓰라고 명하여 어전에서 하교하기를, "전 제주목사 이철운과 이우현을 찬배(竄配)에서 모두 방송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이철운, 이우현, 찬배, 방송.

❖ 嘉慶 二年 丁巳 九月 十日 丙子

○ 丁巳九月初十日午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副承旨金達淳, 假注書呂東植, 事變假注書金銓, 記事官承膺祚·吳泰曾, 右議政李秉模, 兼戶曹判書金華鎭, 行上護軍金持默, 行大護軍李敬懋, 禮曹判書李時秀, 漢城判尹趙心泰, 刑曹判書趙尙鎭, 行大司成趙鎭寬, 行護軍徐龍輔·李書九, 漢城右尹李益運, 校理朴吉源, 以次進伏訖. …… 秉模曰, 臣於日前登筵, 固已悉暴衷懇, 而以情以病, 萬無供職之望矣. 今日伏承傳敎下者, 身旣備位, 則有不敢偃然在家, 冒沒入來, 而下情悶縮, 不知所達矣. 第伏念嶺·湖之沿野民憂, 誠如聖敎矣. 且臣之每所憂慮者, 濟州爲第一, 而伏見該牧使狀啓, 則七月之雨, 大有蘇枯之效云. 其次則嶺南之東沿, 亦免大歉, 年分狀, 雖未及到來, 而大體則亦不到於移粟之境云. 此兩處, 最所憂慮者, 而皆免大無, 誠不勝萬幸矣.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9월 10일(병자)

▢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입시하여 제주(濟州) 등의 농사 형편에 대한 소견을 아룀

○ 정사년 9월 10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부승지 김달순(金達淳),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사변가주서 김전(金銓), 기사관 승응조(承膺祚)·오태증(吳泰曾),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겸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한성판윤 조심태(趙心泰), 형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행대사성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서용보(徐龍輔)·이서구(李書九), 한성우윤 이익운(李益運), 교리 박길원(朴吉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연석(筵席)에 나아가 실로 이미 간절한 심정을 이미 다 아뢰었습니다. 정세로 보나 병으로 보나 직임을 수행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삼가 전교를 내린 것을 받들어 보고는 몸이 이미 벼슬에 있기에 감히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하게 집에 있을 수 없어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들어왔지만 나의 마음이 근심스럽고 위축되어 아뢸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영남(嶺南)과 호남(湖南) 연안과 평야의 백성들에 대한 근심은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또한 신이 매양 우려하는 것은 제주(濟州)가 제일인데, 해당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를 보니 7월에 내린 비가 시든 것을

소생시키는 효과가 크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영남의 동쪽 연안도 큰 흉년을 면하여 연분(年分)의 장계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는 또한 곡식을 옮기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곳이 가장 우려되는 곳인데, 모두가 큰 흉작은 면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영남, 호남, 제주, 흉작.

❖ 嘉慶 二年 丁巳 九月 十八日 甲申

○ 丁巳九月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副承旨李肇源, 假注書趙璜鎭, 事變假注書宋應圭, 記事官承膺祚, 記事官吳泰曾, 右議政李秉模, 行工曹判書鄭民始, 行上護軍金持默, 禮曹判書李時秀, 兵曹判書李祖源, 行大護軍李敬懋, 判尹趙心泰, 行大司成趙鎭寬, 大護軍李漢豐, 右尹李益運, 行護軍李書九, 前黃海監司徐邁修·李泰永, 以次進伏訖. …… 民始曰, 典牲署祭享所用黑牛, 卜定於濟州, 分養於湖西, 而以如干首, 留養該署, 以備祭享之需. 在前則留養之數, 多不過十首內外矣, 挽近以來, 留養之數, 漸次增加, 今則爲三十五六首. 蓋留養, 元無定數, 喂養草價, 該署報于戶曹, 自戶曹轉報本廳而上下, 戶曹則, 旣非該曹上下者. 故初不憑考前例, 一從該署而轉報, 本廳則只憑戶曹所報而上下, 本無恒式, 貢人輩利其貢價之增數, 符同員役, 夤緣加數, 至於此多, 一首之一年草價, 幾爲四十石, 則數十首增出之草價, 數甚夥然. 非但經用之浪費, 極爲可悶, 其重祭享之需, 初無定數, 一任下輩之加減, 事體極爲未安. 不可不釐正, 五享之間爲三朔, 而春秋則所用各八首, 夏冬則所用各五首, 今若以二十首爲留養恒定之數, 而過祭享後, 湖西分養者, 卽爲取來充數, 則恒留之數, 比所用幾爲三倍, 推移取用, 必無不足之慮. 且三朔喂養, 則肥腯充實, 亦必無不合用之理, 以此定式之意, 往復該署提調, 則亦以定數爲好, 而只以變通持難矣. 事關祀典, 下詢大臣處之, 何如? 上曰, 大臣之意, 何如? 秉模曰, 惠堂所奏, 旣有所據, 臣亦無異見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1년(1797) 정사년 9월 18일(갑신)

▢ 제주(濟州)에서 바치는 제향용 흑우(黑牛) 중 전생서(典牲署)에 머물러 두고 기르는 숫자를 정식(定式)할 것을 청하는 행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의 계

○ 정사년 9월 1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동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조황진(趙璜鎭), 사변가주서 송응규(宋應圭), 기사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 병조판서 이조원(李祖源),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판윤 조심태(趙心泰), 행대사성 조진관(趙鎭寬), 대호군 이한풍(李漢豐), 우윤 이익운(李益運), 행호군 이서구(李書九), 전 황해감사 서매수(徐邁修)·이태영(李泰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정민시가 아뢰기를, "전생서(典牲署) 제향(祭享)에 쓰는 흑우(黑牛)는 제주(濟州)에 복정(卜定)하여 호서(湖西)에 분양(分養)하되, 약간의 수

(首)를 해당 관서에 머물러 두고 기르면서 제향의 수요에 대비합니다. 전에는 머물러 두고 기르는 수가 많아야 10수 내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이래로 머물러 두고 기르는 수가 점차 증가하여 지금은 35,6수가 됩니다. 대개 머물러 두고 기르는 것은 본래 정해진 수가 없고, 먹여 기르는 초가(草價)는 해당 관서가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에서 다시 본청(本廳)에 보고하여 지출하는데, 호조는 이미 해당 조(曹)가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애초에 전례를 빙고(憑考)하지 않고, 한결같이 해당 관서를 따라서 다시 보고하면, 본청은 단지 호조에서 보고한 것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래 항식(恒式)이 없기에 공인(貢人)들은 그 공가(貢價)가 늘어나는 것을 이롭게 여겨 원역(員役)과 한통속이 되어서 연줄을 대어 숫자를 더한 것이 이에 이르러 많아졌고, 1수당 1년의 초가가 거의 40섬이 되니, 수십 수가 증가한 초가는 수량이 심히 과다합니다. 경상 비용의 낭비가 매우 염려될 뿐만 아니라 그 중히 여기는 제향의 수요가 애초에 정해진 수가 없이 하배(下輩)의 가감(加減)에 일임하고 있으니 일의 체모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향(五享)[284]의 사이가 3개월이 되는데, 봄과 가을에는 소용되는 것이 각 8수이고, 여름과 겨울에는 소용되는 것이 각 5수이니, 지금 만약에 20수를 가지고 머물러 두고 기르는 항정(恒定)의 숫자로 삼고, 제향이 지난 후에 호서에 분양한 것을 즉시 가지고 와서 숫자를 채우면, 항상 머무는 숫자는 소용되는 것에 비해 거의 3배가 될 것이니, 변통하여 가져다 쓴다면 필시 부족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3개월을 먹여 기르면 살이 찌고 충실해져서 또한 필시 소용이 적합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식(定式)할 뜻을 해당 관서의 제조와 소통하니 또한 숫자를 정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변통하는 것 때문에 얼른 처리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일이 사전(祀典)[285]에 관계되니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혜당(惠堂)이 아뢴 바가 이미 근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전생서, 제향, 흑우, 정식.

---

284) 오향(五享): 오향제(五享祭).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내는 춘향(春享), 하향(夏享), 추향(秋享), 동향(冬享) 제사와 납일(臘日)에 지내는 납향(臘享) 제사를 말함. 각 계절의 제사는 각 계절 중월(仲月) 상순(上旬) 안에 택일하여 지냄.

285) 사전(祀典):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예전(禮典).

❖ 嘉慶 二年 丁巳 十月 三日 戊戌

○ 丁巳十月初三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左承旨李書九, 行右承旨李敬一, 左副承旨李儒慶, 假注書金熙洛·呂東植, 記注官金良儁, 記事官承膺祚, 原任待教李存秀, 以次進伏訖. …… 儒慶讀奏全羅兵使申鴻周啓本, 式年武科初試, 濟州三邑入格人開錄事.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0월 3일(무술)

▢ 좌부승지 이유경(李儒慶)이 전라병사 신홍주(申鴻周)의 계본에서 식년 무과초시에 제주(濟州) 3읍에서 입격(入格)한 사람을 개록(開錄)한 일을 읽어 아룀

○ 정사년 10월 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좌승지 이서구(李書九), 행우승지 이경일(李敬一), 좌부승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김희락(金熙洛)·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승응조(承膺祚), 원임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유경이 전라병사 신홍주(申鴻周)의 계본에서 식년 무과초시에 제주(濟州) 3읍에서 입격(入格)한 사람을 개록(開錄)[286]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전라병사, 무과초시, 3읍, 입격, 개록.

286) 개록(開錄):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의견을 열기(列記)하는 것을 이름.

❖ 嘉慶 二年 丁巳 十月 十四日 己酉

○ 李翼晉,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進上領來人四名處, 各米三斗式, 依例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0월 14일(기유)

▢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영래(領來)한 사람에게 쌀을 지급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이익진(李翼晉)[287]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 대로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영래(領來)한 4명에게 각각 쌀 3말씩을 규례대로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 영래, 쌀, 분급.

287) 이익진(1747~1819): 본관 전주(全州). 자 치명(穉明).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내의약원부제조, 호조참의, 대사간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十一月 十二日 丁丑

○ 李海愚, 以刑曹言啓曰, 因罪人姜彝天等捧供啓目, 判付內, 向聞大臣所奏, 政欲火其紙而人其人, 姜哥不知本意之如此, 急於自拔, 往告重臣, 到此當顧事面, 使之一番推問是置, 嚴刑島配, 俾圖自新更生之方, 而所謂金哥之履白稱名漢, 嚴刑減死定配, 金鑢定配, 金鏞何足責? 與金信國·李周璜勿論事判下矣. 依判下, 罪人姜彝天, 嚴刑一次, 全羅道濟州牧, 金履白, 依前劃紙加刑後, 羅州牧黑山島, 減死定配, 金鑢, 咸鏡道慶源府定配所, 竝卽押送, 金信國·李周璜等, 謹以判付內辭意曉諭, 放送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1월 12일(정축)

▢ 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제주목(濟州牧) 배소로 압송(押送)하겠다는 형조의 계

○ 이해우(李海愚)가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죄인 강이천(姜彝天) 등의 공술(供述)을 받은 계목(啓目)으로 인한 판부(判付) 내에, '지난번 대신이 아뢴 바를 듣고는 바로 그들의 글을 불태워서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였다.[288] 강가(姜哥)가 본뜻이 이와 같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벗어나는 데에 급급하여 중신에게 가서 고하였다. 이에 이르러 마땅히 일의 체면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 번 추문(推問)하게 하고, 엄히 형신(刑訊)하여 도배(島配)함으로써 새롭게 다시 살아날 방도를 도모하게 하라. 이른 바 김가(金哥) 중에 이백(履白)이라고 이름하는 놈은 엄히 형신한 후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 김려(金鑢)는 정배하고, 김선(金鏞)은 어찌 책망할 수 있겠는가? 김신국(金信國)·이주황(李周璜)과 더불어 논하지 말라.'라고 판하(判下)하였습니다. 판하 대로 죄인 강이천[289]은 한 차례 엄히 형신한 다음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김이백은 이전 획지(劃紙)대로 형문을 더한 뒤 나주목 흑산도에 사형을 감하여 정배하고, 김려는 함경도 경원부에 배소를 정하여 모두 즉시 압송(押送)하고, 김신국·이주황 등은 삼가 판부

---

288) 그들의 글을 불태우고 …… 만들려고 하였다: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책을 불태우며 그들이 거처하는 곳을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人其人 火其書 廬其居]."라고 한 데서 온 말임.

289) 강이천(1768~1801): 자 성륜(聖倫). 호 중암(重菴). 1797년(정조 21)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와 접촉하면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해도(海島)의 진인(眞人)이 나타나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11월 제주도로 유배되었음. 이어 1801년(순조1) 3월 29일 국문 받던 중에 물고(物故)되었음. 저서 《중암고(重菴稿)》.

내용으로 효유하여 풀어줄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290]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압송.

290)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정조실록》정조 21년 11월 12일자 기사에 간략한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十一月 十六日 辛巳

○ 丁巳十一月十六日午時, 上御誠正閣. 時原任大臣·閣臣·藥房承候入侍時, 行都承旨徐邁修, 行左承旨李益運,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左議政蔡濟恭, 領敦寧府事金履素, 右議政李秉模, 藥房提調趙宗鉉, 一提學鄭民始, 二提學沈煥之, 原任直提學徐浩修·徐龍輔, 檢校直提學李晩秀, 原任直閣金勉柱·金祖淳, 檢校待敎沈象奎·李存秀, 以次進伏訖. …… 濟恭曰, 刑曹罪人姜彝天罪狀顚末, 臣以不見文案, 故未詳其裏面, 而但聞彝天, 締結匪類, 出入京外, 做出妖言, 誑誘鄕曲無知之輩者, 已有年所云. 其心則出於欺人取物之計, 而其跡則妖言惑衆, 正是當律, 懸之藁街, 懲一勵百, 夫誰曰不可, 而以天地好生之德, 止於刑訊島配, 臣何必力爭, 而第念彝天, 性旣妖邪, 又兼薄才, 如耽羅遐遠之地, 招聚蚩蠢之類, 誑惑人心, 如前日之爲, 則有國法, 在渠固無足惜, 而無罪蚩氓, 若因渠而陷於罪辟, 則不亦可矜乎? 臣意則嚴飭耽羅守臣, 嚴加伺察, 無論班族與常漢, 使無敢出入於彝天居接之主人, 以絶稔惡之路, 恐不可已, 故敢此仰達, 而今番諸罪人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 申飭各其所配官, 防戢伺察, 一依耽羅例爲之之意, 亦爲各別知委, 何如? 上曰, 他人之見惑姑無論, 渠輩圖生自新之方, 政在於閉門讀書, 追悔愆尤, 若自新爲端士, 則豈不卽爲酌放乎? 以此嚴飭各該道臣及地方官, 一邊曉諭, 一邊嚴戢, 期於爲人, 可也. 【出擧條】…….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1월 16일(신사)

▢ 제주(濟州)에 도배(島配)한 강이천(姜彝天)에 대해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엄히 사찰(伺察)을 가할 것을 청하는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계

○ 정사년 11월 16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과 각신(閣臣)·약방이 안부를 묻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서매수(徐邁修), 행좌승지 이익운(李益運),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증(吳泰曾),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영돈녕부사 김이소(金履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약방제조 조종현(趙宗鉉), 일제학 정민시(鄭民始), 이제학 심환지(沈煥之), 원임직제학 서호수(徐浩修)·서용보(徐龍輔), 검교직제학 이만수(李晩秀), 원임직각 김면주(金勉柱)·김조순(金祖淳),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채제공이 아뢰기를, "형조 죄인 강이천(姜彝天)의 죄상에 대한 전말을 신이 문안(文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면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듣건대, 강이천은 못된 무리와 결탁하여 서울과 외방을 출입하면서 요망한 말을 지어내어 향곡(鄕曲)의 무지한 무리들을 속여 꾀어낸 것이 이미 몇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취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자취는 요망한 말로 대중을 미혹시킨 것이니, 바로 해당 형률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수하여 거리에 매달아 하나를 징계하여 백을 면려시킨다 한들 누가 불가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천지(天地)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써 형신(刑訊)하여 도배(島配)에 그쳤으니, 신이 어찌 반드시 힘써 다투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강이천은 천성이 이미 요사스럽고 또한 변변치 못한 재주를 겸하였으니, 탐라(耽羅)와 같이 먼 지방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무리들을 불러모아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 미혹시키기를 전날 했던 것처럼 한다면, 국법이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족히 애석할 것이 없지만 죄없는 어리석은 백성은 그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또한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탐라의 수신(守臣)을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엄히 사찰(伺察)을 가하여 양반과 상놈을 막론하고 감히 강이천이 묵고 있는 주인에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추악한 일을 저지르는 길을 끊어버리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될 듯합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그리고 금번 죄인들은 강이천과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들이니, 각기 배소관(所配官)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방지하여 사찰하기를 한결같이 탐라의 사례대로 하라는 뜻을 또한 각별히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타인이 미혹을 당하는 것은 일단은 거론할 것이 못 된다. 저들이 살기를 도모하여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바로 문을 닫고 독서를 하면서 허물을 뉘우치는 데에 있다. 만약에 절로 새로워져서 단정한 선비가 된다면 어찌 즉시 참작하여 석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각 해당 관찰사와 지방관에게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한편으로는 효유(曉諭)하고, 한편으로는 엄히 경계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도배, 사찰.

❖ 嘉慶 二年 丁巳 十一月 十八日 癸未

○ 有政. 吏批, 判書沈煥之進, 參判李敬一進, 參議李勉兢內閣進, 同副承旨金達淳進. 以李相璜爲大司諫, …… 趙章漢爲濟州牧使〈判官〉,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1월 18일(계미)

▢ 조장한(趙章漢)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심환지(沈煥之)가 나왔고, 참판 이경일(李敬一)이 나왔고, 참의 이면긍(李勉兢)은 내각(內閣)에 나아갔고, 동부승지 김달순(金達淳)이 나왔다. 이상황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중략〉 조장한(趙章漢)[291]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조장한.

291) 조장한(1743~?): 본관 한양(漢陽). 자 유문(幼文).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제주판관(1797.12.도임.~1799.10.)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十一月 十八日 癸未

○ 金達淳,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上來人十一名處, 依前例, 各米三斗式合米二石三斗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1월 18일(계미)

▢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제주인(濟州人)에게 쌀을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김달순(金達淳)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 대로 제주(濟州)에서 올라온 11명의 제주인(濟州人)에게 전례에 의거하여 각각에게 쌀 3말씩 합 쌀 2섬 3말을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쌀, 분급.

❖ 嘉慶 二年 丁巳 十一月 十八日 癸未

○ 丁巳十一月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右承旨韓晩裕, 左副承旨李海愚, 同副承旨金達淳, 假注書呂東植·李允謙, 記事官承膺祚·吳泰曾, 檢校待敎李存秀,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判官之代, 今日政擇差待下批, 不多日內下送.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1월 18일(계미)

▢ 제주판관(濟州判官)의 후임자를 오늘 정사에서 택차(擇差)하여 며칠 내로 내려 보내도록 하라는 전교

○ 정사년 11월 1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우승지 한만유(韓晩裕), 좌부승지 이해우(李海愚), 동부승지 김달순(金達淳), 가주서 여동식(呂東植)·이윤겸(李允謙), 기사관 승응조(承膺祚)·오태증(吳泰曾),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판관(濟州判官)의 후임자를 오늘 정사에서 택차(擇差)하여 하비(下批)를 기다려 며칠 내로 내려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후임자, 택차.

❖ 嘉慶 二年 丁巳 十一月 二十日 乙酉

○ 丁巳十一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提調趙宗鉉, 副提調徐龍輔,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良偶, 記事官吳泰曾, 檢校待敎李存秀, 右承旨李肇源, 假注書李允謙, 事變假注書趙碩章, 右議政李秉模, 行上護軍金持默, 漢城判尹李秉鼎, 禮曹判書李時秀, 吏曹判書沈煥之, 刑曹判書趙心泰, 行護軍徐有大·趙鎭寬·李漢豐·李書九, 大司諫李相璜, 司諫趙德潤, 獻納李羲甲, 正言鄭晩錫·朴宗京, 校理林漢浩, 醫官柳光翼·李周憲·朴春源·李惟鑑·吳仁豐·丁希泰, 以次進伏訖. …… 相璜等曰,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殆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1월 20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이상황(李相璜) 등의 계

○ 정사년 11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제조 조종현(趙宗鉉), 부제조 서용보(徐龍輔),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오태

증(吳泰曾),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 우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조석장(趙碩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한성판윤 이병정(李秉鼎),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이조판서 심환지(沈煥之), 형조판서 조심태(趙心泰),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조진관(趙鎭寬)·이한풍(李漢豐)·이서구(李書九), 대사간 이상황(李相璜), 사간 조덕윤(趙德潤), 헌납 이희갑(李羲甲), 정언 정만석(鄭晩錫)·박종경(朴宗京), 교리 임한호(林漢浩), 의관 유광익(柳光翼)·이주헌(李周憲)·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오인풍(吳仁豐)·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상황[292] 등이 아뢰기를,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293]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294]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292) 이상황(1763~1841): 본관 전주(全州). 자 주옥(周玉). 호 동어(桐漁)·현포(玄圃). 시호 문익(文翼). 1786년(정조 10) 문과 급제. 영의정, 호조판서, 영중추부사 역임. 저서 《동어집》·《해영일기(海營日記)》.

293)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294)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295]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295) 이상은《정조실록》정조 21년 11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十一月 二十五日 庚寅

○ 丁巳十一月二十五日辰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提調趙宗鉉, 副提調徐龍輔,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良偶, 記事官承膺祚, 左副承旨李肇源, 假注書李允謙, 事變假注書趙碩章, 右議政李秉模, 行工曹判書鄭民始, 行上護軍金持默, 漢城判尹李秉鼎, 禮曹判書李時秀, 兵曹判書李祖源, 刑曹判書趙心泰, 行護軍徐有大·趙鎭寬·李漢豐·李書九, 修撰韓致應, 醫官柳光翼·李周憲·李惟鑑·吳仁豐·安昌禧·丁希泰, 以次進伏訖. …… 秉模曰, 此濟州牧曺命楫災實狀啓也, 分等名色, 不爲擧論, 仍以爲可以從便措處者, 開錄于左, 而風高船路, 遲速無期, 每患不及, 故依近例, 一邊狀聞, 一邊擧行, 事涉擅便, 極爲惶恐爲辭矣. 其一, 各年舊還, 姑爲停退, 以紓民力事也. 其一, 各寺奴婢身貢, 依近例每口減給一斗事也. 其一, 男丁大同米, 每口各減一升事也. 其一, 軍兵逃老故病廢之類, 嚴飭各該邑, 使之隨闕充定, 待明春從附近哨司鍊計料事也. 今年旱災, 偏在於南沿, 而本島年事, 得占稍登, 分等之不爲擧論, 尤可見三邑之無甚優劣, 誠爲萬幸, 後錄諸條, 便屬已擧行之事, 而舊還停退, 旣得便宜, 奴婢身貢之每口減一斗, 男丁大同米之每口減一升, 亦係近例, 竝與軍丁之待明春從附近哨司鍊事依施, 而原狀啓, 自政院誤下於戶曹, 以致覆奏之稽滯, 當該承旨罷職, 雖以本牧言之, 先擧行後狀聞, 雖是前例, 必以令廟堂稟處爲辭, 而近年以來, 或請廟堂稟處, 或不請廟堂稟處, 此後則先擧行後狀聞, 雖依前爲之, 結辭則以令廟堂稟處爲請之意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秉模曰, 全羅道濟州牧漂到異國人二十名, 旣願以從水路還歸云矣. 待本道發送狀聞之來, 令槐院, 撰出咨文, 別定禁軍騎撥, 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致北京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1월 25일(경인)

▢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입시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재실장계(災實狀啓)에 보고한 조항의 처리와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한 이국인(異國人)의 환송(還送) 자문(咨文)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 정사년 11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제조 조종현(趙宗鉉), 부제조 서용보(徐龍輔),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승응조(承膺祚),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조석장

(趙碩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한성판윤 이병정(李秉鼎),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 병조판서 이조원(李祖源), 형조판서 조심태(趙心泰),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조진관(趙鎭寬)·이한풍(李漢豐)·이서구(李書九), 수찬 한치응(韓致應), 의관 유광익(柳光翼)·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오인풍(吳仁豐)·안창희(安昌禧)·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재실장계(災實狀啓)입니다. 분등(分等) 명색은 거론하지 않고 말하기를, '편한 대로 조처할 만한 것은 왼쪽에 개록(開錄) 하였습니다. 바람이 높아 뱃길이 빠르고 느릴지를 기약할 수 없어 매양 제때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때문에 근래의 예에 따라 한편으로는 장계로 보고하고, 한편으로는 거행하였습니다.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지극히 황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각년(各年) 구환(舊還)을 우선 정퇴(停退)하여 백성들의 힘을 펴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각시 노비(各寺奴婢)의 신공(身貢)을 근래의 사례대로 매구(每口)에 1말을 줄여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남정의 대동미(大同米)를 매구에 1되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군병 중 도망갔거나 늙었거나 죽었거나 병들어 못쓰게 된 부류는 각 해당 읍에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비는 대로 충정(充定)하고, 내년 봄을 기다려 부근의 초사(哨司)부터 훈련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금년의 한재(旱災)는 남쪽 연읍(沿邑)에 치우쳐 있고, 본도(本島)의 농사는 조금 풍년을 점칠 수 있어 분등을 거론하지 않았으니, 3읍이 심한 우열이 없는 것을 더욱 알 수 있으니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후록(後錄)한 여러 조항은 곧 이미 거행한 일에 속합니다. 구환의 정퇴는 이미 편하고 마땅함을 얻었고, 노비 신공을 매구에 1말을 감하고, 남정 대동미를 매구에 1되 감하는 것 또한 근래의 사례입니다. 아울러 군병을 내년 봄을 기다려 부근의 초사부터 훈련하는 일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원래의 장계는 승정원에서 잘못하여 호조에 내려 복주(覆奏)가 지체되었습니다. 해당 승지를 파직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본목(本牧)을 말하자면, 먼저 거행하고 뒤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은 비록 이것이 전례이기는 하지만 필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혹은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기도 하고, 혹은 묘당에서 품처하기를 청하지도 않습니다. 이후로는 먼저 거행하고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은 비록 종전대로 하더라도 결사(結辭)는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달라고 청하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이병모가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표도(漂到)한 이국인(異國人) 20명이 수로를 따라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본도(本道)에서 발송한 장문(狀

聞)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지어내고 별도로 금군 기발(禁軍騎撥)을 정하여 의주부에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여 북경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296]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재실장계, 이국인, 표도.

296)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1년 11월 2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一日 丙申

○ 洪義榮, 以漢城府言啓曰, 今丁巳年獻民數時, 京中·八道戶口摠數, 抄錄入啓, 而濟州三邑民數, 姑未上來矣. 海島之往來遲速, 有難預料, 不得一時磨勘, 此則依已例待其上來, 追後添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일(병신)

▢ 지체되고 있는 제주(濟州) 3읍의 민수(民數)에 대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금년 정사년 민수(民數)를 바칠 때, 서울과 8도의 호구총수를 초록(抄錄)하여 입계(入啓)하였는데, 제주(濟州) 3읍의 민수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해도(海島)를 왕래하는 빠름과 늦음을 미리 헤아리기 어려워 일시에 마감할 수 없으니, 이것은 전례에 의거하여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추후에 첨록(添錄)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3읍, 호구총수, 첨록.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五日 庚子

○ 丁巳十二月初五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禮兵房承旨同爲入侍時, 藥房提調趙宗鉉, 副提調李魯述, 假注書李允謙, 記注官金珍恪, 記事官承膺祚, 檢校待敎沈象奎, 行左承旨姜彝正, 左副承旨李肇源, 假注書李泳夏,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李敏德·李周憲·李惟鑑·吳仁豐·丁希泰,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柑橘進上, 皆已來到乎? 肇源曰, 橘則先來, 而柑則五六日後當入來云矣. 上曰, 何故今始入來? 肇源曰, 聞其發船, 下陸今幾一朔, 而中間連値雨雪, 不能趲程矣. 上曰, 來者幾人, 而何當還去乎? 肇源曰, 來者十四人, 漂人又十人, 合爲二十四人, 而今明間當下去云矣. 上曰, 另加勞問, 且給行資之意, 戶曹惠宣惠郎廳, 使之來待, 可也. 允謙承命出傳. 上曰, 柑製今日當設行, 諸生企待之久, 豈可不以橘代行乎? 命書傳敎曰, 橘·柚通用, 旣多其例, 而貢果來到, 柑製通方外, 今日爲之, 處所, 春塘臺, 當親臨. 適値齋日, 鼓樂, 置之. 日寒若此, 入場儒生毛具, 勿禁.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5일(경자)

▢ 진상하는 귤을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과 표해인(漂海人)에게 노자(路資)를 지급하라는 전교와 감제(柑製)를 오늘 설행(設行)하겠다는 전교

○ 정사년 12월 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예·병방승지가 함께 입시할 때, 약방제조 조종현(趙宗鉉), 부제조 이노술(李魯述),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김진각(金珍恪), 기사관 승응조(承膺祚),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 행좌승지 강이정(姜彝正), 좌부승지 이조원(李肇源), 가주서 이영하(李泳夏),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이민덕(李敏德)·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오인풍(吳仁豐)·정희태(丁希泰)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濟州) 감귤(柑橘) 진상이 모두 도착했는가?"라고 하였다. 이조원이 아뢰기를, "귤은 먼저 왔고, 감은 5,6일 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로 이제야 들어왔는가?"라고 하였다. 이조원이 아뢰기를, "듣건대, 배를 띄우고 육지에 내린 것이 거의 한달이고, 중간에 연이어 눈비를 만나 길을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온 자는 몇 인이고, 언제 돌아가는가?"라고 하였다. 이조원이 아뢰기를, "온 자는 14인이고, 표해인(漂海人)은 또 10인으로 합

이 24인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내려간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위로하고 또 노자(路資)를 지급하라는 뜻으로 호조와 선혜청의 낭청을 와서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윤겸이 명을 받들고 나가서 전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제(柑製)[297]를 오늘 설행(設行)해야 할 것이다. 제생들의 기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귤로 대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귤과 감을 통용하는 것은 이미 그 사례가 많다. 공과(貢果)가 도착하였으니, 감제를 방외(方外)를 통틀어 오늘 시행할 것이다. 처소는 춘당대(春塘臺)로 하고 마땅히 친림(親臨)할 것이다. 마침 재계일(齋戒日)을 만났으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그만 두도록 하라.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 시험장에 들어가는 유생의 모구(毛具)[298]는 금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감귤, 표해인, 노자, 감제, 설행.

297) 감제(柑製): 황감제(黃柑製). 매년 제주에서 감귤을 진상하면 임금이 성균관과 사학(四學)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실시한 시험.

298) 모구(毛具): 털로 만든 방한구(防寒具).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六日 辛丑

○ 李晩秀,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進上領來人十四名, 漂海人十名, 依前例, 各米三斗式合米四石十二斗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6일(신축)

▢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 등에게 쌀을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이만수(李晩秀)가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 대로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14명과 표해인(漂海人) 10명에게 전의 사례대로 각각 쌀 3말씩 합 4섬 12말을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진상, 표해인, 쌀, 분급.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十日 乙巳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薦新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趙鎭寬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0일(을사)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천신(薦新)하는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해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해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조진관(趙鎭寬)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천신, 감귤, 대죄.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十日 乙巳

○ 趙鎭寬,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曺命楫狀啓,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唐金橘, 所結僅爲七箇內, 二箇間已枯落, 而薦新事體, 至爲尊嚴, 不敢以他橘代封, 故以五箇謹援已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進獻爲辭矣. 謹稽本曹謄錄, 則結果稀疎之時, 或有減數封進之例, 而今此唐金橘五箇, 有不可備用於莫重薦新, 還爲下送, 只以五箇封進, 而狀聞中以稟旨進獻措辭者, 事體極爲未安, 該牧使曺命楫, 推考, 何如? 傳曰, 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0일(을사)

▢ 당금귤(唐金橘)을 봉진하면서 올린 장문(狀聞) 중에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 하라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조진관(趙鎭寬)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를 보니, ‘지난 10월령 종묘(宗廟)·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당금귤(唐金橘)이 열매가 맺힌 것이 겨우 7개 이내인데, 2개가 중간에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천신하는 일의 체모가 지극히 존엄하여 감히 다른 귤로써 대신 봉진하지 못하기에 5개를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封)하여 예조로 올려 보내니,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본조(本曹)의 등록을 살펴보건대, 결과(結果)가 희소할 때는 혹 수를 감하여 봉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금귤 5개는 막중한 천신에 비용(備用)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도로 내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단지 5개만 봉진하면서 장문(狀聞) 중에 품지하여 진헌하라고 기술한 것은 일의 체모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해당 목사 조명집을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당금귤, 제주목사, 조명집, 추고.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十日 乙巳

○ 丁巳十二月初十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趙鎭寬, 行左承旨李書九, 行右承旨姜彝正, 左副承旨李魯述, 右副承旨魚用謙, 同副承旨尹光普, 假注書曺錫中·呂東植, 記事官吳泰曾·金履永, 檢校待敎沈象奎, 以次進伏訖. …… 上曰, 守令入侍. 【出榻敎】 錫中承命出傳, 與濟州判官趙章漢偕入進伏. 章漢進奏職姓名. 上曰, 年幾何? 章漢曰, 五十五矣. 上曰, 下往善爲之也. 仍命宣諭, 講七事訖. 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0일(을사)

▢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장한(趙章漢)이 입시함

○ 정사년 12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조진관(趙鎭寬), 행좌승지 이서구(李書九), 행우승지 강이정(姜彝正), 좌부승지 이노술(李魯述), 우부승지 어용겸(魚用謙), 동부승지 윤광보(尹光普), 가주서 조석중(曺錫中)·여동식(呂東植),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 검교대교 심상규(沈象奎)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을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어전에서 하교를 냄】 조석중이 명을 받들고 나가 전하고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장한(趙章漢)과 함께 들어와 나와 엎드렸다. 조장한이 앞으로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이는 몇인가?"라고 하였다. 조장한이 아뢰기를, "55세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려가거든 잘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선유(宣諭)하도록 명하고, 칠사(七事)[299]를 강(講)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장한, 칠사.

---

299) 칠사(七事):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을 가리킴. 농상(農桑)을 진흥하고, 호구(戶口)를 늘리고,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사송(詞訟)을 간결하게 하고, 간활(奸猾)한 자가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함.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十二日 丁未

○ 尹光普,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曺命楫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宗廟薦新洞庭橘二百八十箇, 依例封進, 而至於乳柑, 則僅爲二十五箇, 故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宗廟薦新洞庭橘, 當日依例薦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則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進之例, 今亦依此例推移, 一體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2일(정미)

▢ 종묘(宗廟)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을 변통하여 천진(薦進)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윤광보(尹光普)[300]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 등보(謄報)[301]를 보니, '이번 12월령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동정귤(洞庭橘) 280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였는데, 유감(乳柑)의 경우는 겨우 25개입니다. 때문에 모두 봉진하여 올려보내니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묘에 천신하는 동정귤은 당일에 규례대로 천진(薦進)하고,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하는 유감은 전에 이와 같은 때에 있어 숫자를 감하여 천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러한 사례대로 변통하여 일체 천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종묘, 경모궁, 천신, 동정귤, 유감.

---

300) 윤광보(1737~?): 본관 파평(坡平). 자 성박(聖博).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301) 등보(謄報):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동급 또는 상급의 관사에 보고하는 것, 또는 그러한 문서.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十三日 戊申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莫重貢獻旣未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魚用謙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3일(무신)

▢ 공헌(貢獻)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막중한 공헌(貢獻)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어용겸(魚用謙)[302]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공헌, 대죄, 회유.

302) 어용겸(1742~?): 본관 함종(咸從). 자 사익(士益).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十三日 戊申

○ 李書九,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趙敬日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至爲重大, 且於前濟州牧使柳師模遞任進上馬上來後, 習馬等特蒙賞典, 此後封進之節, 自本寺別關申飭, 則今此馬品, 俱爲孱劣, 全無步才, 事之可駭, 莫此爲甚, 當該封進官前判官趙敬日, 姑先從重推考, 以懲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3일(무신)

▢ 잔약하고 용렬한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봉진(封進)한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에 대한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이서구(李書九)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조경일(趙敬日)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서 입양(立養)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하는 일의 체모는 지극히 중대합니다. 또한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의 체임진상마가 올라온 후에 습마(習馬) 등이 특별히 상전(賞典)을 입었고, 이후로 봉진(封進)하는 일은 본시(本寺)에서 별도로 관문(關文)을 보내어 단단히 타일러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들의 품질이 모두가 잔약하고 용렬하여 전혀 보재(步才)가 없으니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심하지가 않습니다. 해당 봉진관인 전 제주판관 조경일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경일, 진상마, 종중추고.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十七日 壬子

○ 沈晉賢, 以漢城府言啓曰, 濟州三邑民數, 今始上來, 依例入錄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17일(임자)

▢ 제주(濟州) 3읍의 민수(民數)를 입록(入錄)하겠다는 한성부의 계

○ 심진현(沈晉賢)[303]이 한성부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3읍의 민수(民數)가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규례대로 입록(入錄)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3읍, 민수, 입록.

303) 심진현(1747~?): 본관 청송(靑松). 자 희인(羲人).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수찬, 대사간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日 乙卯

○ 南原府使朴知源仍任事承傳, …… 李東煥爲旌義縣監,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0일(을묘)

▢ 이동환(李東煥)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남원부사 박지원을 잉임(仍任)하는 일을 승전(承傳)을 받들었다. 〈중략〉 이동환(李東煥)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이동환, 정의현감.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日 乙卯

○ 傳于李晩秀曰, 旌義縣監李東煥, 仍任前職, 其代擇差.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0일(을묘)

▢ 정의현감(旌義縣監) 이동환(李東煥)을 전 직임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후임을 택차(擇差)하라는 전교

○ 이만수(李晩秀)에게 전교하기를, "정의현감(旌義縣監) 이동환(李東煥)을 전 직임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후임을 택차(擇差)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이동환, 후임, 택차.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日 乙卯

○ 以韓錫仁爲英陵令, …… 洪三弼爲大靜縣監.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0일(을묘)

▢ 홍삼필(洪三弼)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한석인(韓錫仁)을 영릉령으로 삼았다. 〈중략〉 홍삼필[304]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홍삼필, 대정현감.

304) 홍삼필(1738~1822): 본관 남양(南陽). 대정현감(1798.2.도임~1798.12.)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日 乙卯

○ 以金明遇爲龍川府使, …… 文躍淵爲旌義縣監.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0일(을묘)

▢ 문약연(文躍淵)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김명우(金明遇)를 용천부사로 삼았다. 〈중략〉 문약연(文躍淵)[305]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문약연, 정의현감.

305) 문약연(1742~?): 본관 남평(南平). 자 약천(躍天).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정의현감(1798.1.도임~1799.10.) 역임.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日 乙卯

○ 丁巳十二月二十日辰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進春秋書, 抄啓文臣·宣傳官宣賞計劃, 文臣進箋, 大臣·備局堂上引見, 輪對官·吏兵曹政官同爲入侍時, 藥房提調趙宗鉉, 副提調李晩秀, 行左承旨沈晉賢, 行右承旨洪仁浩, 左副承旨金啓洛, 右副承旨魚用謙, 同副承旨李溏, 記事官柳遠鳴·曺錫中, 事變假注書尹致任, 記事官吳泰曾·金履永, 以次進伏訖. …… 煥之曰, 大靜縣監高漢祿, 今已瓜滿, 而曾有陞遷收用後差代之命矣. 今番適無相當窠, 陞擬間姑爲仍置乎? 上曰, 訓鍊僉正加設單付, 待窠陞實, 可也. 【出擧條】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0일(을묘)

▢ 임기가 찬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을 훈련원첨정에 단부(單付)하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실직에 올려주도록 하라는 전교

○ 정사년 12월 20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춘추》를 써서 올리고, 초계문신과 선전관의 선상(宣賞)에 대한 계책으로 문신이 전문(箋文)을 올리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윤대관과 이·병조의 정관(政官)이 함께 입시할 때, 약방제조 조종현(趙宗鉉), 부제조 이만수(李晩秀), 행좌승지 심진현(沈晉賢), 행우승지 홍인호(洪仁浩), 좌부승지 김계락(金啓洛), 우부승지 어용겸(魚用謙), 동부승지 이당(李溏), 기사관 유원명(柳遠鳴)·조석중(曺錫中), 사변가주서 윤치임(尹致任), 기사관 오태증(吳泰曾)·김이영(金履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이 지금 임기가 찼는데, 일찍이 승천(陞遷)[306]하여 수용(收用)한 뒤에 후임자를 임명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 상당하는 자리가 없으니, 승천을 의망(擬望)하는 동안 우선 그대로 두도록 합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훈련원첨정을 가설(加設)하여 단부(單付)하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실직에 올려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고한록, 훈련원첨정, 단부.

---

306) 승천(陞遷): 승직(陞職).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一日 丙辰

○ 丁巳十二月二十一日辰時, 上御熙政堂. 諸承旨持公事, 吏兵房承旨與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行都承旨李晩秀, …… 旌義縣監文躍淵, …… 獻陵參奉金命淵, 以次進伏. …… 敎躍淵曰, 擧爾顔. 顔甚熟矣.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1일(병진)

▢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이 입시(入侍)함

○ 정사년 12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入侍)할 때, 이·병방승지와 수령·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만수(李晩秀), 〈중략〉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 〈중략〉 헌릉참봉 김명연(金命淵)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문약연에게 하교하기를, "얼굴을 들라. 너의 얼굴이 아주 익숙하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문약연, 입시.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二日 丁巳

○ 正言閔命爀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揑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2일(정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민명혁(閔命爀)의 계

○ 정언 민명혁(閔命爀)[307]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08]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307) 민명혁(1753~1818): 본관 여흥(驪興). 자 명여(明汝).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해주판관, 수안군수, 신천군수 역임.

308)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09]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09)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二年 丁巳 十二月 二十六日 辛酉

○ 李肇源, 以備邊司言啓曰, 琉球國漂到濟州漂民出送事, 禮部咨文, 出來於齎咨官回便矣. 以前頭使行奉表稱謝之意, 令槐院撰出回咨, 正書安寶後, 定禁軍騎撥下送于灣府, 傳給鳳城, 以爲轉致北京之地, 何如? 傳曰, 允.

❖ 정조 21년(1797) 정사년 12월 26일(신유)

▢ 유구국(琉球國)에 표도(漂到)한 제주인(濟州人)을 돌려보낸다는 예부의 자문(咨文)에 대한 회자(回咨)를 승문원에서 작성하여 북경에 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이조원(李肇源)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유구국(琉球國)에 표도(漂到)한 제주(濟州)의 표민(漂民)을 내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예부의 자문(咨文)이 재자관(齎咨官)[310]의 회편(回便)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행(使行)이 표문(表文)을 받들고 가서 사의(謝意)를 표하겠다는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을 지어내고 정서(正書)하여 옥새를 찍은 후에 금군 기발(騎撥)을 정하여 의주부에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여 북경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311]

△ 주제어: 유구국, 표도, 제주인, 자문.

---

310) 재자관(齎咨官): 자문(咨文)을 보내기 위하여 파견하는 관원. 자관(咨官).

311)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1년 12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1798年

(정조 22)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十日 乙亥

○ 大司諫李尙度, 獻納朴吉源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 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滃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 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10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이상도(李尙度) 등의 계

○ 대사간 이상도(李尙度)[312], 헌납 박길원(朴吉源)[313]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14]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

312) 이상도(1738~?): 본관 광주(廣州).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313) 박길원(朴吉源): 본관 반남(潘南). 자 백상(伯常).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314)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15]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15)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十一日 丙子

○ 戊午正月十一日辰時. 上御明政門, 朝參入侍時, 行都承旨徐邁修, 左承旨李勉兢, 右承旨李肇源, 左副承旨蔡弘遠, 右副承旨金啓洛, 同副承旨李海愚, 記事官洪奭周, 假注書呂東植, 記事官承膺祚·金履永, 檢校直提學李晩秀, 檢校待教李存秀, 以次侍立訖. …… 尙度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11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이상도(李尙度) 등의 계

○ 무오년 1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명정문(明政門)으로 나아갔다. 조참(朝參)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서매수(徐邁修), 좌승지 이면긍(李勉兢), 우승지 이조원(李肇源), 좌부승지 채홍원(蔡弘遠), 우부승지 김계락(金啓洛), 동부승지 이해우(李海愚),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사관 승응조(承膺祚)·김이영(金履永), 검교직제학 이만수(李晩秀),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이상도(李尙度)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十四日 己卯

○ 司諫崔烜, 獻納金孝秀, 正言李德鉉·金熙華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14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최훤(崔烜) 등의 계

○ 사간 최훤(崔烜), 헌납 김효수(金孝秀), 정언 이덕현(李德鉉)[316]·김희화(金熙華)[317]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16) 이덕현(1763~?): 본관 용인(龍仁). 자 성삼(聖三).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진주목사, 사간원 사간, 동래부사 역임.

317) 김희화(1765~?): 본관 청풍(淸風). 자 관여(觀汝).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도총부도총관, 판윤, 공조판서 역임.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十五日 庚辰

○ 戊午正月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藥房提調沈煥之, 副提調韓晩裕, 右副承旨李海愚, 記事官曺錫中·洪奭周, 事變假注書李運恒, 記注官金良僩, 記事官金履永, 右議政李秉模, 兼戶曹判書金華鎭, 行上護軍鄭民始·金持默, 行大護軍李敬懋, 禮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趙心泰, 兵曹判書李祖源, 開城留守黃昇源, 刑曹判書趙鎭寬, 行護軍徐有大, 左尹李漢豐, 行護軍徐龍輔·李書九·李益運, 持平權睃, 獻納金孝秀, 副校理李羲甲, 正言李德鉉·金熙華, 副修撰韓致應,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白成一·李周憲·李惟鑑·玄必采·吳仁豐·朴宗潤, 以次進伏訖. …… 秉模曰, 頃以羅里餔穀, 積峙數萬餘石, 仍行二留一分便否, 論理狀聞之意, 筵稟行會矣. 卽見全羅監司李得臣狀啓, 則以爲羅州時留各穀十二萬三千四百八十六石內, 應分爲七萬九千三百六十石, 民戶爲一萬七千六百六十二戶, 以其民摠, 排計應分穀數, 則每戶所受, 當爲四石零. 今若以夏秋各穀五萬石, 名曰餔穀, 仍行二留一分之法, 則應分又爲一萬六千五百六十餘石, 每戶加受爲十四斗零, 而騐看分數, 稍似過多, 就同州還穀中, 盡分之數, 與他邑分留條換作, 則應分之數, 自可減縮. 不然則本倉作穀時, 或爲相換, 鄰邑請糶時, 或爲裒益, 則穀可以無濫, 民可以不病, 而船運時, 縮穀貽弊, 每由於捧糶麤劣, 嚴飭地方官, 擇精準捧. 濟州斛子, 比陸稍大, 較正鍰斛, 各爲鑄送, 相準與受, 而中間見縮, 監色船人處, 定式分徵, 移轉時, 三邑地土船十隻式, 前期出送, 其餘自地方官, 募船裝發, 如過二十隻, 則分定鄰邑, 而此後無論船隻多寡, 隨到裝載, 待風卽發, 差員則只自候風所, 申飭董發. 濟州船格, 素慣水路, 亦自該牧, 定送校吏, 專管領運, 成節目施行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蓋此儲穀發運之論, 非不知倉在邑之必有後弊, 而與其沿民之無不受病, 意或一邑受弊之爲愈也. 今此所論, 亦多可採, 而所謂五萬石儲留之穀, 當用餔倉餘穀, 與某衙門穀與否, 不爲擧論, 又不言移轉充儲與本邑穀簿中劃置與否. 縮穀矯救之策, 雖以擇精準捧爲言, 其流之弊, 必至於濫之又濫, 罷濟倉而更出一濟倉, 此又不可不念. 移轉時, 三邑地土船各十隻, 前期定送事, 實是分力之良方, 而如當島飢日急, 船隻不來之時, 則有難坐待此船, 虛送順風. 似此諸條, 皆合商量, 而外此縮穀分徵, 與濟州校吏領運等節, 恐亦不無多少掣礙之端, 而議者或曰, 合之則弊重, 分之則弊輕, 散劃各邑, 隨劃隨發, 一如年前之例, 最爲方便云. 爲今之計, 莫如深量弊之輕重, 爲之措處, 不必以廟堂遙度之言爲拘, 更令爛商登聞, 以爲指一稟處之地, 何如? 上曰, 曾經道伯, 亦陳所見, 可也. 民始曰, 濟州移轉之際, 爲弊多端, 使各邑分當, 猶不能堪. 今若都置一邑, 使之專當, 決是行不得之事, 且轉輸之節, 亦必有遲滯生事之患矣. 龍輔曰, 羅鋪穀之散在各邑, 其來已久, 今若專屬於羅州一邑, 則斂散之節, 轉運之

道, 事多難便矣. 秉模曰, 諸議如此, 可知散置之爲勝, 而道臣旣陳意見, 更爲關問後, 從違間, 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秉模曰, 濟州牧明月鎭, 漂到異國人三十一名, 旣以水路發送云矣. 令槐院撰出咨文, 別定禁軍騎撥, 下送于灣府, 傳給鳳城將處, 以爲轉致北京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孝秀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15일(경진)

▢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등이 입시하여 나리포창(羅里舖倉) 곡물을 나주(羅州) 한 곳에서 전담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함

○ 무오년 1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약방제조 심환지(沈煥之), 부제조 한만유(韓晩裕),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기사관 조석중(曺錫中)·홍석주(洪奭周), 사변가주서 이운항(李運恒), 기주관 김양척(金良儔),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겸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상호군 정민시(鄭民始)·김지묵(金持默),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병조판서 이조원(李祖源), 개성유수 황승원(黃昇源), 형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서유대(徐有大), 좌윤 이한풍(李漢豐), 행호군 서용보(徐龍輔)·이서구(李書九)·이익운(李益運), 지평 권준(權晙), 헌납 김효수(金孝秀), 부교리 이희갑(李羲甲), 정언 이덕현(李德鉉)·김희화(金熙華), 부수찬 한치응(韓致應),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백성일(白成一)·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인풍(吳仁豐)·박종윤(朴宗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나리포(羅里舖)의 곡물로써 쌓여 있는 수만여 섬을 그대로 3분의 2는 남겨두고 3분의 1을 분급(分給)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이치를 논하여 장계로 보고하라는 뜻을 연품(筵稟)[318]하여 행회(行會)[319]하였습니다. 지금 전라감사 이득신(李得臣)의 장계를 보니, '나주(羅州)에

318) 연품(筵稟): 왕의 면전(面前)에서 아뢰던 일.

319) 행회(行會): 각 관아의 관장(官長)이 조정의 새로운 명령 내용을 관아에 속한 아랫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를 말함.

현재 남아있는 각 곡물 123,486섬 가운데 응분(應分)은 79,360섬이고, 민호(民戶)는 17,662호가 되어 그 백성의 전체 숫자로 응분의 곡물 수량을 계산하면, 매호가 받는 것은 4섬 남짓이 됩니다. 지금 만약 여름과 가을 각 곡물 50,000섬을 포곡(餔穀)이라고 이름하여 예전처럼 그대로 3분의 2를 남겨두고 3분의 1을 분급하는 법을 시행한다면, 응분이 또 16,560여 섬이 되고 매호가 14말 남짓을 더 받게 됩니다. 분급하는 수량을 얼핏 보니 조금은 과다한 듯합니다. 같은 주(州)의 환곡 가운데 진분(盡分)하는 수량을 다른 읍의 분류조(分留條)와 환작(換作)하면 응분의 수량이 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창(本倉)에서 작곡(作穀)할 때 혹 상환(相換)하거나 이웃 읍에서 조곡(糶穀)을 요청할 때 혹 많은 곳에서 덜어내어 부족한 곳을 보태주거나 한다면 곡물을 지나치게 거두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은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로 운반할 때 곡물이 축나서 폐를 끼치는 것은 매번 품질이 나쁜 적곡(糴穀)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원인이 있으니, 지방관을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품질이 좋은 것을 가려서 기준에 따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濟州)의 곡자(斛子)[320]는 육지와 비교하면 조금 큽니다. 유곡(鍮斛)[321]으로 바로잡아 각각 주조하여 보내어 서로 맞추어 주고받도록 하고, 중간에 축난 것은 감관(監官)·색리(色吏)·선인(船人)에게 정식(定式)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곡물을 이전(移轉)할 때는 3읍에서 지토선(地土船)[322] 10척씩을 기한에 앞서 내보내고, 그 나머지는 지방관이 배를 모집하여 실어 보내어 만약에 20척이 넘으면 이웃 읍에 분정(分定)하며, 이후로는 배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도착하는 대로 실어두었다가 바람을 기다려 즉시 출발하되, 차사원(差使員)은 다만 후풍소(候風所)에서 출발을 감독하라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선격(船格)은 평소 수로(水路)에 익숙하니, 또한 해당 목(牧)에서 교리(校吏)를 차정(差定)하여 보내어 운송을 전담하도록 절목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저축했던 곡물을 운반하는 논의는 창고가 소재한 읍이 반드시 후폐(後弊)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연해(沿海)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받지 않음이 없는 것보다 의미하는 것이 혹 1읍이 폐단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한 바가 또한 채택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른바 50,000섬의 저장해 둔 곡물이 당장의 소용(所用)에 쓸 포창(餔倉)의 나머지 곡물인지와 모 아문의 곡물인지의 여부를

320) 곡자(斛子): 10말의 곡식을 되는 데 사용하는 용기.
321) 유곡(鍮斛): 호조에서 표준으로 삼기 위해 놋쇠로 제작한 10말 용량의 용기.
322) 지토선(地土船): 그 지방 토민(土民)이 가지고 있는 배.

거론하지 않고, 또 이전하여 충저(充儲)한 것인지와 본읍 곡부(穀簿) 중에 떼어 둔 것인지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축난 곡물을 바로 잡는 계책으로 비록 품질이 좋은 것을 가려서 기준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였지만, 그 유폐(流弊)가 반드시 지나치게 거두고 또 지나치게 거두는 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창(濟倉)을 파하고 다시 하나의 제창을 내는 이것 또한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곡물을 이전할 때 3읍에서 지토선을 각각 10척씩 기한에 앞서 정하여 보내는 일은 실로 공력(功力)을 나누는 좋은 계책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섬의 기근이 날로 위급한데 배가 오지 않은 때에는 이 배를 앉아서 기다리며 순풍을 헛되이 보낼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모두 헤아려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축난 곡물을 나누어 징수하는 것과 제주의 교리가 운송을 전담하는 것 등의 조항은 또한 다소 구애(拘礙)가 되는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의논하는 사람 중에 혹자는, '합하면 폐단이 중하고 나누면 폐단이 가벼우니, 각 읍에 나누어 획급(劃給)하여 획급하는 대로 발송하는 것을 한결같이 연전(年前)의 관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책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폐단의 경중을 깊이 헤아려 조처하는 것보다 좋은 계책은 없습니다. 묘당이 먼 곳을 헤아려 달라는 말에 구애될 필요는 없으니, 다시 충분히 헤아려 보고하도록 하여 하나를 가리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관찰사를 지낸 사람이 또한 소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제주로 이전할 때의 폐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각 읍으로 하여금 나누어 담당하게 하여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데, 만약에 모두를 한 개 읍에 두고 전담하게 하는 것은 결코 시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운반하는 일 또한 반드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할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서용보가 아뢰기를, "나리포의 곡물이 각 읍에 산재하여 온 것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나주 한 읍에 전적으로 속하게 한다면 거두어 나누어 주는 절차와 운반하는 방도에 있어 일이 많아져 편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여러 의논이 이와 같으니 흩어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사가 이미 의견을 진술하였으니 다시 관문(關文)으로 물은 뒤 따르든 따르지 않든 간에 품처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 명월진(明月鎭)에 표도(漂到)한 이국인(異國人) 31명을 이미 수로로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지어내고, 별도로 금군 기발(騎撥)을 정하여 의주부에 내려보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여 북경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323] 【거조(擧條)를 냄】〈중략〉 김효수[324]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나리포, 나주, 명월진, 표도, 이국인, 강이천.

323)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2년 1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324) 김효수(1742~?): 본관 광산(光山).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二十二日 丁亥

○ 以濟州防禦使曺命楫狀啓, 唐柚子所結, 只爲二十五箇, 肇慶廟五箇, 依例封進, 而二十箇上送禮曹, 以爲稟旨進獻, 莫重貢果, 每致不足, 惶隕待罪事, 傳于洪義榮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22일(정해)

▢ 당유자(唐柚子)를 부족한 수량으로 봉진(封進)하여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명집(曺命楫)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당유자(唐柚子)의 결과(結果)가 단지 25개인데, 조경묘(肇慶廟)[325]에 천신(薦新)하는 5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고, 20개를 예조로 올려보내니,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하십시오. 막중한 공과(貢果)가 매번 부족하게 되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합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홍의영(洪義榮)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명집, 당유자, 조경묘, 봉진, 대죄.

325) 조경묘(肇慶廟): 조선 왕조의 시조인 신라의 사공공(司空公) 이한(李翰)과 시조비(始祖妣) 경주 김씨(慶州金氏)의 신판(神版)을 봉안한 사당으로, 전주에 있음.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二十二日 丁亥

○ 洪義榮,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曺命楫狀啓謄報, 則去十一月令, 宗廟·景慕宮薦新唐柚子所結, 只爲二十五箇故, 肇慶廟薦新五箇, 依例封進, 而謹援已例, 二十箇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事, 爲辭矣. 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進之例, 今亦依此例, 當日推移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22일(정해)

▢ 천신(薦新)하는 당유자(唐柚子)의 부족으로 인해 숫자를 감하여 천진(薦進)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 등보(謄報)를 보니, 지난 11월령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당유자(唐柚子)의 결과(結果)가 단지 25개인 까닭에 조경묘(肇慶廟)에 천신하는 5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면서 삼가 이전의 사례를 원용(援用)하여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하는 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숫자를 감하여 천진(薦進)한 사례가 있으니, 당일에 변통(變通)하여 천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당유자, 변통, 천진.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二十五日 庚寅

○ 獻納金孝秀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25일(경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김효수(金孝秀)의 계

○ 헌납 김효수(金孝秀)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一月 二十六日 辛卯

○ 戊午正月二十六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右承旨李益運, 記事官洪奭周, 事變假注書李致祜, 記事官承膺祚·金履永, 右議政李秉模, 兼戶曹判書金華鎭, 行上護軍鄭民始·金持默, 行吏曹判書閔鍾顯, 行大護軍李敬懋, 兵曹判書李時秀, 右參贊沈煥之, 行大護軍趙心泰, 開城留守黃昇源, 禮曹判書趙尙鎭, 刑曹判書趙鎭寬, 行護軍徐有大·李漢豐·徐龍輔, 執義柳畊, 應敎李翊模, 持平李弘達, 獻納金孝秀, 校理尹益烈, 副校理李羲甲, 正言李德鉉·金和鍾, 修撰尹悌東, 副修撰韓致應, 以次進伏訖. …… 鍾顯曰, 昨冬大政, 大靜縣監洪三弼, 以耽羅人除拜矣. 上來辭陛, 而下去赴任, 則越海往返之際, 恐致許久遲滯, 該邑民事, 殊甚可悶故, 敢此, 仰達矣. 上曰, 使之除朝辭赴任, 可也. 【出擧條】 …… 孝秀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월 26일(신묘)

▢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임명된 탐라인(耽羅人) 홍삼필(洪三弼)에 대해 하직인사를 생략하여 부임하게 하라는 전교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의 국청(鞫廳)을 청하는 헌납 김효수(金孝秀) 등의 계

○ 무오년 1월 2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사변가주서 이치호(李致祜), 기사관 승응조(承膺祚)·김이영(金履永),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겸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상호군 정민시(鄭民始)·김지묵(金持默), 행이조판서 민종현(閔鍾顯),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우참찬 심환지(沈煥之),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개성유수 황승원(黃昇源), 예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형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서용보(徐龍輔), 집의 유경(柳畊), 응교 이익모(李翊模), 지평 이홍달(李弘達), 헌납 김효수(金孝秀), 교리 윤익렬(尹益烈), 부교리 이희갑(李羲甲), 정언 이덕현(李德鉉)·김화종(金和鍾), 수찬 윤제동(尹悌東), 부수찬 한치응(韓致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민종현이 아뢰기를, "지난 겨울 대정(大政) 때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홍삼필(洪三弼)이 탐라인(耽羅人)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올라와 하

직인사를 하고 내려가 부임한다면, 바다를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오랫동안 지체되어 해당 읍의 민사(民事)가 자못 염려가 됩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하직인사를 생략하여 부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김효수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탐라인, 홍삼필, 대정현감, 강이천,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二月 十七日 辛亥

○ 以濟州牧使曹命楫狀啓, 二月朔進上靑橘, 全數闕封, 惶恐待罪事, 傳于洪仁浩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2년(1798) 무오년 2월 17일(신해)

▢ 청귤(靑橘)의 전수(全數)를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曹命楫)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曹命楫)의 장계에, 2월에 진상하는 청귤(靑橘)의 전수(全數)를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홍인호(洪仁浩)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조명집, 청귤, 봉진, 대죄, 회유.

❖ 嘉慶 三年 戊午 二月 十八日 壬子

○ 戊午二月十八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李晩秀, 行左承旨洪仁浩, 行右承旨李益運, 左副承旨李相璜, 右副承旨李海愚, 假注書李毅采·呂東植, 記注官金良儁, 記事官承膺祚, 檢校待敎李存秀, 以次進伏訖. …… 海愚讀奏濟州防禦使曺命楫狀啓, 山馬監牧官金命喆職牒下送事, 令該寺稟處事,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2월 18일(임자)

▢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가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명철(金命喆)의 직첩(職牒)을 내려 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해당 시(寺)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한 일을 읽어 아룀

○ 무오년 2월 18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좌부승지 이상황(李相璜), 우부승지 이해우(李海愚), 가주서 이의채(李毅采)·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승응조(承膺祚),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해우가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명철(金命喆)의 직첩(職牒)을 내려 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해당 시(寺)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명철, 직첩.

❖ 嘉慶 三年 戊午 二月 二十五日 己未

○ 正言金和鍾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荒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殆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2월 25일(기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326]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27]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326) 김화종(1741~?): 본관 안산(安山). 자 성원(聖元). 1787년(정조 11) 문과 급제.

327)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28]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28)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二月 二十七日 辛酉

○ 應敎韓用鐸, 持平李弘達, 校理金近淳·金銑, 正言金和鍾, 修撰嚴耆, 副修撰朴吉源啓曰, 鄭致達妻之凶逆, 前後聲討, 已盡其千妖萬惡之罪, 凡在血氣之倫者, 莫不切齒痛心.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2월 27일(신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응교 한용탁(韓用鐸), 지평 이홍달(李弘達), 교리 김근순(金近淳)·김선(金銑), 정언 김화종(金和鍾), 수찬 엄기(嚴耆), 부수찬 박길원(朴吉源)이 아뢰기를, “정치달(鄭致達) 처의 흉역(凶逆)은 앞뒤로 성토(聲討)하여 이미 그 천요만악(千妖萬惡)의 죄를 다하였으니, 무릇 혈기(血氣)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갈며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정언 김화종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二月 二十八日 壬戌

○ 執義柳畊, 應敎韓用鐸, 校理金近淳·金銑, 正言金和鍾, 修撰嚴耆, 副修撰朴吉源啓曰, 請寢罪人鄭致達妻出置城外之命, 依前還發配所, 亟令王府, 快正典刑. 【措辭見上】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2월 28일(임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집의 유경(柳畊), 응교 한용탁(韓用鐸), 교리 김근순(金近淳)·김선(金銑), 정언 김화종(金和鍾), 수찬 엄기(嚴耆), 부수찬 박길원(朴吉源)이 아뢰기를, “청컨대 죄인 정치달(鄭致達)의 처를 성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을 중지하여 이전대로 도로 배소(配所)로 보내고,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정언 김화종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七日 辛未

○ 正言金和鍾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 渠去來和應, 互相連肚者, 渠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爾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7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29]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

329)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30]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30)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九日 癸酉

○ 李書九, 以禮曹言啓曰, 卽接四館所所報, 則甲寅年濟州道科入格幼學鄭泰彦, 遭故未赴殿試, 而今始上來云矣. 幼學鄭泰彦, 依例許赴於今式年殿試, 何如? 傳曰, 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9일(계유)

▢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전시(殿試)에 응시(應試)하지 못했던 제주(濟州)의 유학 정태언(鄭泰彦)의 전시(殿試) 응시 허락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이서구(李書九)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사관소(四館所)[331]에서 보고한 것을 방금 보니, 갑인년 제주도과(濟州道科)에 입격한 유학 정태언(鄭泰彦)[332]이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전시(殿試)에 응시하지 못했다가 지금 비로소 올라왔다고 합니다. 유학 정태언을 규례대로 금번 식년전시(式年殿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도과, 정태언, 전시, 응시.

---

331) 사관소(四館所): 성균관 · 예문관 · 승문원 · 교서관을 통칭하여 사관(四館)이라 하는데, 이 사관의 관원이 모여서 과거를 시행하던 임시 직소를 말함.

332) 정태언(1744~?): 본관 동래(東萊). 제주목 좌면(左面) 도려(道廬)[현 상도리] 출생. 1798년(정조 22) 문과 급제. 성균관전적, 병조좌랑 역임.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十一日 乙亥

○ 執義柳畊, 掌令鄭宖成, 持平申溆, 校理李貞運·金銑, 副校理鄭來百, 正言尹涵, 副修撰朴吉源·金近淳啓曰, 請寢罪人鄭致達妻出置城外之命, 依前還發配所, 亟令王府, 快正典刑. 【措辭見上】……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夬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11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집의 유경(柳畊), 장령 정최성(鄭宖成), 지평 신서(申溆), 교리 이정운(李貞運)·김선(金銑), 부교리 정래백(鄭來百), 정언 윤함(尹涵), 부수찬 박길원(朴吉源)·김근순(金近淳)이 아뢰기를, "청컨대 죄인 정치달(鄭致達)의 처를 성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을 중지하여 이전대로 도로 배소(配所)로 보내고,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정언 윤함[333]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가 위에 보임】〈하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33) 윤함(1744~?): 본관 파평(坡平).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十一日 乙亥

○ 戊午三月十一日卯時, 上御熙政堂. 輪對官, 前咸鏡監司, 前平安兵使, 同爲入侍時, 行右承旨李益運, 左副承旨尹致性, 同副承旨兪漢謨,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珍恪, 記事官承膺祚, 前咸鏡監司李鼎運, 前平安兵使任徠, 奉常寺判官李東埴, 敦寧府參奉李鼎圭, 軍資監正李心傳, 禮曹正郎夫宗仁, 校書館副正字洪儀泳, 戶曹佐郎趙學敏, 內資寺直長李是釬, 司圃署直長韓啓重, 尙瑞院副直長李厚延, 典設司別檢李運復, 通禮院假引儀金愿, 刑曹正郎李觀秀, 濟用監判官柳詢, 廣興倉守趙鎭完, 奉事吳琰, 成均館學諭朴昌擧, 司導寺主簿黃井彦, 禮賓寺參奉張顯孫, 以次進伏訖. …… 宗仁, 掌使臣·倭人迎接·外方朝貢·宴設賜與, 無所懷. 命擧顔, 敎曰, 爾是濟州人耶? 宗仁曰, 然矣. 上曰, 今番式年, 亦有直赴者乎? 宗仁曰, 有一人矣. 上曰, 文武中在京者, 亦爲幾人, 而誰是某耶? 宗仁曰, 文則高鳴鶴·李台祥及臣三人, 而武亦一人矣.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11일(을해)

▢ 예조정랑 부종인(夫宗仁)에게 제주인(濟州人) 중 이번 식년에 직부(直赴)한 자와 현재 서울에 있는 문무관에 대해 묻는 임금의 하교

○ 무오년 3월 11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윤대관, 전 함경감사, 전 평안병사가 함께 입시할 때, 행 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좌부승지 윤치성(尹致性), 동부승지 유한모(兪漢謨),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진각(金珍恪), 기사관 승응조(承膺祚), 전 함경감사 이정운(李鼎運), 전 평안병사 임률(任徠), 봉상시판관 이동식(李東埴), 돈녕부참봉 이정규(李鼎圭), 군자감정 이심전(李心傳), 예조정랑 부종인(夫宗仁), 교서관부정자 홍의영(洪儀泳), 호조좌랑 조학민(趙學敏), 내자시직장 이시한(李是釬), 사포서직장 한계중(韓啓重), 상서원부직장 이후연(李厚延), 전설사별검 이운복(李運復), 통례원가인의 김원(金愿), 형조정랑 이관수(李觀秀), 제용감판관 유순(柳詢), 광흥창수 조진완(趙鎭完), 봉사 오염(吳琰), 성균관학유 박창거(朴昌擧), 사도시주부 황정언(黃井彦), 예빈시참봉 장현손(張顯孫)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부종인은 사신과 왜인의 영접, 외방조공(外方朝貢), 연설(宴設)·사여(賜與) 등의 일을 맡고 있는데, 소회(所懷)가 없었다. 임금이 얼굴을 들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그대는 제주인(濟州人)인가?"라고 하였다. 부종인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식년에 또한 직부(直赴)한 자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부종인이 아뢰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관 중에 서울에 있는 자는 또한 몇 명이고, 누구인가?"라고 하였다. 부종인이 아뢰기를, "문관은 고명학(高鳴鶴)·이태상(李台祥)과 신 등 3인이고, 무관 또한 1인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인, 부종인, 고명학, 이태상.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十四日 戊寅

○ 尹致性, 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李得臣狀啓內, 大靜前縣監高漢祿, 昌樂察訪邊景鵬等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高漢祿, 下去全羅道濟州地, 邊景鵬, 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竝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14일(무인)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과 창락찰방 변경붕(邊景鵬)을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윤치성(尹致性)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이득신(李得臣)의 장계 내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과 창락찰방 변경붕(邊景鵬) 등의 죄상(罪狀)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고한록은 전라도 제주(濟州)에 내려갔고, 변경붕은 현재 임소에 있다고 합니다. 규례대로 본부(本府) 나장을 보내어 모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고한록, 변경붕, 죄상.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十八日 壬午

○ 以濟州牧使曺命楫啓本, 乙卯闕點馬狀請退徵, 惶恐待罪事, 傳于李海愚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18일(임오)

▢ 궐점(闕點) 한 말에 대해 기한을 물려서 징수할 것을 청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에게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계본(啓本)에, 을묘년에 궐점(闕點) 한 말을 기한을 물려서 징수할 것을 장계로 요청한 것에 대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해우(李海愚)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궐점, 징수, 대죄, 회유.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十八日 壬午

○ 獻納朴吉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18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박길원(朴吉源)의 계

○ 헌납 박길원(朴吉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十九日 癸未

○ 掌令李益洙·玄重祚, 持平趙秀民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19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장령 이익수(李益洙) 등의 계

○ 장령 이익수(李益洙)·현중조(玄重祚)[334], 지평 조수민(趙秀民)[335]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34) 현중조(1753~?): 본관 순천(順天).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장령, 지평 역임.
335) 조수민(1742~?): 본관 한양(漢陽). 자 이중(彝仲).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二十日 甲申

○ 獻納朴吉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20일(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박길원(朴吉源)의 계

○ 헌납 박길원(朴吉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二十二日 丙戌

○ 戊午三月二十二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左承旨洪仁浩, 行右承旨李泰永, 左副承旨李相璜, 同副承旨李尙度, 假注書李泳夏, 事變假注書趙璜鎭, 記事官金景煥·承膺祚, 右議政李秉模, 行上護軍金持默, 行大護軍李敬懋, 兵曹判書李時秀, 右參贊沈煥之, 行大護軍趙心泰, 工曹判書趙鎭寬, 行護軍徐有大·李漢豊·徐龍輔, 掌令玄重祚, 持平趙秀民, 獻納朴吉源, 校理李貞運, 副校理鄭來百, 以次進伏訖. …… 上曰, 文武新恩, 使之整齊行禮, 而殿庭分東西成班後, 武科丙科以下, 自熙仁門外至協陽門內, 重行行禮, 而左承旨與左副承旨出去, 檢飭宣醞等節, 可也. 文榜李敬參, 武榜姜利八等, 入就拜位, 行四拜禮訖. 命宣醞. …… 上敎鄭泰彦曰, 今番濟州人之登科者, 獨汝一人乎? 泰彦曰, 然矣. 命書傳敎曰, 文榜直赴鄭泰彦, 年近六十, 來自絶海之外, 科前五十, 雖付司果, 豈令以此還鄕? 今日政, 先付典籍, 待郎署有窠, 卽爲擬入事, 分付銓曹. …… 吉源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絶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22일(병술)

▢ 문방(文榜)에 직부(直赴)한 정태언(鄭泰彦)에 대해 낭서(郎署)에 자리가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즉시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라는 전교

○ 무오년 3월 22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행우승지 이태영(李泰永), 좌부승지 이상황(李相璜), 동부승지 이상도(李尙度), 가주서 이영하(李泳夏), 사변가주서 조황진(趙璜鎭), 기사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우참찬 심환지(沈煥之),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공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豊)·서용보(徐龍輔), 장령 현중조(玄重祚), 지평 조수민(趙秀民), 헌납 박길원(朴吉源), 교리 이정운(李貞運), 부교리 정래백(鄭來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문과와 무과의 신은(新恩)[336]을 정돈하여 가지런히 행례(行禮)하되, 전정(殿庭)에 동서로 나누어 반열

336) 신은(新恩): 새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

(班列)을 이루게 한 뒤, 무과 병과 이하는 희인문(熙仁門) 밖에서부터 협양문(協陽門) 안에 이르기까지 겹줄로 행례하고, 좌승지와 좌부승지는 나가서 선온(宣醞)[337] 등의 절차를 검칙(檢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문방(文榜)에 이경참(李敬參), 무방(武榜)에 강이팔(姜利八) 등이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행했다. 명하여 술을 하사하게 했다. 〈중략〉 임금이 정태언(鄭泰彦)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제주인(濟州人)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는 오직 너 하나 뿐인가?"라고 하였다. 정태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문방에 직부(直赴)한 정태언은 나이가 근 60세로 절해(絶海) 밖에서 왔다. 녹(祿)을 주는 시기가 50일이 못되어 비록 사과(司果)에 부친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정사(政事)에서 우선 전적(典籍)에 부치고, 낭서(郎署)에 자리가 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즉시 의망(擬望)하여 들이도록 전조(銓曹)에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박길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문방, 정태언, 낭서, 강이천, 국청.

337) 선온(宣醞): 임금이 술을 내리는 것.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二十七日 辛卯

○ 戊午三月二十七日午時, 上御誠正閣. 左承旨·右副承旨·下直守令入侍時, 行左承旨洪仁浩, 右副承旨李尙度, 記事官曺錫中·金景煥·金履永, 伊川府使林道浩, 安岳郡守朴載淳, 報恩縣監尹悌東, 以次進伏. …… 上命仁浩書判義禁邊得讓等疏批. 仁浩書訖, 奏曰, 邊景鵬, 以濟州人而放濟州地, 何足爲罪勘耶? 渠旣名以朝官, 交通泰淵之子, 有此罪犯者, 可謂窮凶極惡. 如此之類, 決不可假貸矣. 尙度曰, 臣於秋曹待罪時, 詳知此事矣. 今若卽其地放送, 則必無一分懲畏之心矣. 上曰, 渠在昌樂, 何以知其家人之相通耶? 且遠人有異, 如是勘處足矣.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27일(신묘)

▢ 변경붕(邊景鵬)을 제주(濟州)로 방송(放送)하라는 전교

○ 무오년 3월 27일 오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좌승지·우부승지·하직수령이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우부승지 이상도(李尙度), 기사관 조석중(曺錫中)·김경환(金景煥)·김이영(金履永), 이천부사 임도호(林道浩), 안악군수 박재순(朴載淳), 보은현감 윤제동(尹悌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홍인호에게 명하여 판의금 변득양(邊得讓)[338]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쓰게 했다. 홍인호가 쓰기를 마치고 아뢰기를, "변경붕(邊景鵬)은 제주인(濟州人)으로 제주(濟州)에 방송(放送)하니, 어찌 족히 죄를 심문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명색이 조관(朝官)으로서 태연(泰淵)의 자식과 서로 통하여 이러한 죄를 범하였으니, 지극히 흉악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이와 같은 부류는 결코 너그럽게 용서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상도가 아뢰기를, "신이 형조에 근무할 때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그곳으로 방송한다면 반드시 조금도 징계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가 창락(昌樂)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집안 사람이 서로 통하는 것을 알았겠는가? 또한 먼 지방의 사람에게는 다름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죄를 심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변경붕, 제주, 방송.

---

338) 변득양(1723~1801): 본관 황주(黃州). 자 사겸(士謙). 1756년(영조 32)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三月 二十八日 壬辰

○ 戊午三月二十八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左承旨洪仁浩, 記事官洪奭周, 事變假注書李聖淵, 記事官承膺祚·金履永, 右議政李秉模, 兼戶曹判書金華鎭, 行工曹判書鄭民始, 行上護軍金持默, 行大護軍李敬懋, 吏曹判書金載瓚, 兵曹判書李時秀, 右參贊沈煥之, 行大護軍趙心泰, 禮曹判書李祖源, 刑曹判書趙鎭寬, 行護軍徐有大·李漢豐·徐龍輔, 副修撰鄭來百, 以次進伏訖. …… 鎭寬曰, 景鵬之口招, 臣果捧之矣. 渠若是遐鄕無知之類, 則猶可付之不足責之科, 今乃以名登朝籍之人, 平日亦自謂嚴於言議, 而有此罪犯, 今反如是處分, 則此後弊端, 將不可勝言矣. 執法之地, 豈可無爭難之論? 通書之狀, 初雖抵賴, 末乃承款, 本事發覺時, 渠雖在昌樂, 而往復書札, 則乃渠在京之時矣. 秉模曰, 卽其地放逐, 太屬輕典, 非但一景鵬之失刑, 遐土之人, 將不知此箇法禁之可畏, 反啓日後無窮之慮矣. 上曰, 此果難處矣. 渠是功令賜科之人, 而顔貌亦好, 又能文筆, 在耽羅人中, 最不草草, 因此永棄, 亦豈不可惜? 秉模曰, 旣犯此罪之後, 安得不永棄乎?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3월 28일(임진)

▢ 형조판서 조진관(趙鎭寬) 등이 입시하여 변경붕(邊景鵬)의 형전(刑典)에 대해 논의함

○ 무오년 3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사변가주서 이성연(李聖淵), 기사관 승응조(承膺祚)·김이영(金履永),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겸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鎭), 행공조판서 정민시(鄭民始),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행대호군 이경무(李敬懋),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우참찬 심환지(沈煥之),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예조판서 이조원(李祖源), 형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서용보(徐龍輔), 부수찬 정래백(鄭來百)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조진관이 아뢰기를, "변경붕(邊景鵬)의 구초(口招)[339]를 신이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먼 시골의 무지한 부류라고 한다면 오히려 족히 책하지 않을 죄과에 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이 조적(朝籍)[340]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에

339) 구초(口招): 죄인이 자백하는 공술(供述).
340) 조적(朝籍): 관원의 명부.

또한 스스로 언의(言議)에 엄격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도리어 이와 같이 처분한다면 이후의 폐단을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지위에서 어찌 난점을 간쟁하는 의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서찰을 주고받은 정상은 처음에는 비록 승복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승복하였으니, 본사(本事)가 발각되었을 때 그가 창락(昌樂)에 있었다 하더라도 서찰을 주고받은 것은 바로 그가 서울에 있었던 때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그 지방으로 방축(放逐)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형전(刑典)에 속합니다. 변경붕에 대한 하나의 실형(失刑)[341]일 뿐만 아니라 먼 지방 사람들이 장차 이 법금(法禁)이 두려워 할 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도리어 훗날의 무궁한 근심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과연 난처한 것이다. 그는 공령(功令)[342]으로 사과(賜科)한 사람으로 얼굴이 좋고 또한 문필에 능하니, 탐라인(耽羅人) 가운데 가장 초라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영구히 버린다면 또한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이미 이러한 죄를 범한 후인데, 어찌 영구히 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변경붕, 죄, 형전.

341) 실형(失刑): 형벌의 적용이 마땅함을 잃음.
342) 공령(功令): 과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체를 이르는 말인데, 직접 과거를 이르기도 함.

❖ 嘉慶 三年 戊午 四月 三日 丁酉

○ 獻納徐有聞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徑付秋曹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4월 3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서유문(徐有聞)의 계

○ 헌납 서유문(徐有聞)[343]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44]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343) 서유문(1762~1822): 본관 달성(達城). 자 학수(鶴叟). 1787년(정조 11) 문과 급제. 평안감사, 사옹원감선제조, 이조참판 역임.

344)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45]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45)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四月 五日 己亥

○ 正言申緝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4월 5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신서(申緝)의 계

○ 정언 신서(申緝)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四月 八日 壬寅

○ 金達淳, 以義禁府言啓曰, 邊景鵬之尙不擧行, 極爲駭然, 無所皁白, 公然仍囚, 似此謬習, 豈敢效嚬乎? 今日內擧行後, 草記事, 命下矣. 罪人邊景鵬, 依前下承傳, 卽其地濟州牧大靜縣放逐, 而此囚之干犯, 非比尋常, 若依他例擧行, 則任其行止, 全無管束, 其在懲勵之道, 極涉疎忽, 以狀啓及本府跋語內辭意, 具罪目發遣府羅將, 押付本縣後, 嚴加防守事, 分付該道道臣及該牧使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2년(1798) 무오년 4월 8일(임인)

▢ 죄인 변경붕(邊景鵬)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으로 방축(放逐)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김달순(金達淳)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변경붕(邊景鵬)을 아직도 거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극히 놀라운데, 검다 희다 소리도 없이 공연(公然)히 그대로 가두고 있으니, 이와 같이 잘못된 습속을 어찌 감히 본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내로 거행한 뒤 초기(草記)하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변경붕을 전하의 승전(承傳)에 의거해서 즉시 그곳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으로 방축(放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범한 죄는 예사로운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사례에 따라 거행한다면 그 행동거지를 멋대로 해도 전혀 단속할 수 없습니다. 징계하는 도리에 있어 매우 소홀하니, 장계 및 본부(本府) 발어(跋語) 내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본부 나장을 보내어 본현으로 압송한 뒤 엄히 방수(防守)하도록 해당 도의 관찰사와 해당 목사에게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변경붕, 대정현, 방축.

❖ 嘉慶 三年 戊午 四月 十九日 癸丑

○ 戊午四月十九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右承旨姜彝正, 假注書李弘謙, 事變假注書李晻, 記事官金景煥·承膺祚, 右議政李秉模, 行上護軍金持默, 兵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沈煥之, 漢城判尹趙心泰, 禮曹判書趙尙鎭, 刑曹判書趙鎭寬, 漢城左尹徐有大, 右尹李漢豊, 行左承旨李益運, 司諫李貞運, 以次進伏訖. …… 貞運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4월 19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정운(李貞運)의 계

○ 무오년 4월 19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우승지 강이정(姜彝正), 가주서 이홍겸(李弘謙), 사변가주서 이계(李晻), 기사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심환지(沈煥之), 한성판윤 조심태(趙心泰), 예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형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한성좌윤 서유대(徐有大), 우윤 이한풍(李漢豊), 행좌승지 이익운(李益運), 사간 이정운(李貞運)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정운(李貞運)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四月 二十五日 己未

○ 魚用謙,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高漢祿遞任進上馬二匹, 旌義前縣監洪相五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其中一匹, 可合內廐上駟, 封進官問名論賞次草記, 群頭考例, 各別施賞後, 亦爲草記, 可也.

❖ 정조 22년(1798) 무오년 4월 25일(기미)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등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어용겸(魚用謙)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홍상오(洪相五)의 체임진상마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그 가운데 1필은 내구의 상사(上駟)[346]에 합당할 만하다. 봉진관(封進官)의 이름을 물어 논상차 초기(草記)하고, 군두(群頭)는 전례를 살펴 각별히 논상한 후 또한 초기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고한록, 정의현감, 홍상오, 진상마.

346) 상사(上駟): 좋은 말.

❖ 嘉慶 三年 戊午 四月 二十六日 庚申

○ 尹致性,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其中一匹, 可合內廐上駟, 封進官問名論賞次草記, 群頭考例, 各別施賞後, 亦爲草記可也事, 命下矣. 今此封進官, 卽大靜前縣監高漢祿, 而旣有論賞次草記之命, 有不敢自本寺論列, 至於群頭, 考之近例, 濟州前牧使柳師模遞任馬封進後, 因傳敎都習馬一名賞加, 習馬三名, 令該牧, 米木從厚題給後, 後錄狀聞矣. 賞加之典, 有難輕施, 以米木分等, 優厚施賞, 形止登聞之意, 分付該牧, 而邑各異例, 該縣頭目之亦如濟州名色, 有未可知, 毋論習馬或群頭, 專管其抄擇看養者, 使之從實題給, 以爲激勸之地, 何如? 傳曰, 允. 前縣監高漢祿, 令該曹, 復職陞敍, 可也.

❖ 정조 22년(1798) 무오년 4월 26일(경신)

▢ 내구(內廐)의 상사(上駟)에 합당한 진상마를 봉진(封進)한 것과 관련하여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 등에게 쌀과 무명을 등급을 나누어 넉넉하게 시상(施賞)하고, 그 전말을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윤치성(尹致性)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그 가운데 1필은 내구(內廐)의 상사(上駟)에 합당할 만하니, 봉진관(封進官)의 이름을 물어 논상차 초기(草記)하고, 군두(群頭)는 전례를 살펴 각별히 논상한 후 또한 초기하도록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금번 이 봉진관은 곧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입니다. 이미 논상차 초기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감히 본시(本寺)에서는 논열(論列)할 수가 없습니다. 군두의 경우는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면,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유사모(柳師模)가 체임마를 봉진한 뒤 전교에 따라서 도습마(都習馬) 1명에 대해 상으로 자급(資級)을 올려 주었고, 습마(習馬) 3명에 대해서는 해당 목으로 하여금 쌀과 무명을 후하게 제급(題給)한 뒤에 후록(後錄)하여 장계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상으로 자급을 올려주는 은전은 가볍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쌀과 무명을 등급을 나누어 넉넉하게 시상(施賞)하고, 그 전말을 장계로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목에 분부하되, 읍마다 각기 규례가 다르고, 해당 현의 두목은 또한 제주(濟州)의 명색(名色)과 같아서 알 수가 없으니, 습마 혹은 군두를 막론하고 가려뽑아 돌보아 기르기를 전담한 자를 사실에 따라 제급하여 격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전 현감 고한록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복직시켜 승진하여 서용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고한록, 습마, 군두, 시상.

❖ 嘉慶 三年 戊午 五月 二日 乙丑

○ 禁府啓目, 大靜前縣監高漢祿原情云云, 以問目內辭意嚴問, 則惟事漫漶, 終不直陳, 究厥情狀, 萬萬痛駭,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事勢似然, 分揀放送爲良如敎.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5월 2일(을축)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원정(原情)과 관련하여 용서하여 풀어주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의 원정(原情) 운운에 대하여 문목(問目) 내의 내용으로 엄히 신문하였더니, 흐릿한 것만을 일삼으며 끝내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을 캐어 보면 너무나도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기를, "일의 형세가 그럴 듯하니 분간(分揀)[347]하여 풀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고한록, 원정, 분간.

347) 분간(分揀): 죄상(罪狀)을 보아서 용서하는 쪽으로 처결하는 일로, 지금의 집행유예(執行猶豫)와 같음.

❖ 嘉慶 三年 戊午 五月 二日 乙丑

○ 戊午五月初二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左承旨李泰永, 右承旨尹致性, 左副承旨宋銓, 右副承旨魚用謙, 同副承旨柳相祚, 記事官洪奭周, 假注書李弘謙,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檢校待教李存秀, 以次進伏訖. …… 用謙讀奏濟州牧使曺命楫狀啓, 大靜縣前縣監高漢祿, 執捉上送事.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5월 2일(을축)

▢ 우부승지 어용겸(魚用謙)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서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을 붙잡아 올려 보낸 일을 읽어 아룀

○ 무오년 5월 2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좌승지 이태영(李泰永), 우승지 윤치성(尹致性), 좌부승지 송전(宋銓), 우부승지 어용겸(魚用謙), 동부승지 유상조(柳相祚),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가주서 이홍겸(李弘謙),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어용겸이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서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고한록(高漢祿)을 붙잡아 올려 보낸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고한록.

❖ 嘉慶 三年 戊午 五月 二十二日 乙酉

○ 戊午五月二十二日寅時, 上御熙政堂. 諸承旨持公事入侍, 藥房·時原任大臣·閣臣·承候大臣·備局堂上引見, 禮曹判書·奉常提調同爲入侍時, 行都承旨李晩秀, 行左承旨洪仁浩, 行右承旨李益運, 右副承旨魚用謙, 同副承旨李始源, 記事官洪奭周, 假注書呂東植, 記事官金景煥, 記注官金良儁, 檢校待教李存秀, 以次進伏訖. …… 奎魯曰, 請承款後物故罪人未畢而覺. 仍奏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墨山定配罪人金鑢, 慶源府定配罪人金履白,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2년(1798) 무오년 5월 22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심규로(沈奎魯)의 계

○ 무오년 5월 22일 인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약방, 시·원임 대신, 각신, 승후대신, 비국당상이 인견하고, 예조판서와 봉상제조가 함께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좌승지 홍인호(洪仁浩),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우부승지 어용겸(魚用謙), 동부승지 이시원(李始源),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사관 김경환(金景煥),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규로(沈奎魯)[348]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48) 심규로(1761~?): 본관 청송(靑松). 자 화오(華五).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교리, 사간 역임.

❖ 嘉慶 三年 戊午 六月 三日 乙未

○ 戊午六月初三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副承旨尹光顔, 同副承旨姜忱, 假注書呂東植, 事變假注書李弘源, 記注官金良儁, 記事官金履永, 右議政李秉模, 行右參贊金文淳, 吏曹判書金載瓚, 兵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沈煥之·趙心泰, 行護軍徐有大·李漢豐·李書九·李益運, 開城留守韓用龜, 副校理嚴耆, 以次進伏訖. …… 上曰, 今年民事, 將何以爲之乎? 秉模曰, 臣等亦不知何以則爲好, 而籌司會坐時, 無論言之好否, 用與不用, 人人各陳一二所見, 共加商確於備預之政, 冀或有裨於實政實效之萬一矣. 上曰, 今則雖霈然, 將無及乎? 秉模曰, 未可必者, 上天之造化也. 初伏前若得移秧, 則今年之節候雖早, 寒露尙遠, 臣意則猶有餘望矣. 文淳曰, 耽羅則通一道大登, 臣於日前, 適因所知之人聞之, 則四十斗麥直, 木一匹云矣. 秉模曰, 臣則竊以耽羅爲慮矣. 今若農登, 則誠爲萬幸矣. 上曰, 湖南則非但耽羅, 蘆嶺以南, 俱爲無慮, 而全州以上臨·萬·金·沃等昨年失稔處, 又爲被災云. …… 溆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6월 3일(을미)

▢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등이 입시하여 금년 농사에 대해 논의하고, 신서(申溆)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요청함

○ 무오년 6월 3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우부승지 윤광안(尹光顔), 동부승지 강침(姜忱),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사변가주서 이홍원(李弘源), 기주관 김양척(金良儁),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우참찬 김문순(金文淳),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심환지(沈煥之)·조심태(趙心泰),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이서구(李書九)·이익운(李益運), 개성유수 한용구(韓用龜), 부교리 엄기(嚴耆)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 농사를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신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변사에서 회좌(會坐)할 때 말의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쓰이든 쓰이지 않는 간에 사람마다 각자 한두

가지 소견을 진술하여 미리 대비하는 정사에 대해 함께 상의해서 혹 실정(實政)과 실효(實效)에 만에 하나라도 보탬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비록 비가 흠뻑 내리고 있지만, 장차 미칠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기필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조화입니다. 초복 전에 이앙을 한다면 금년의 절후가 비록 이르지만 한로(寒露)[349]가 아직 멀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아직 남은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김문순이 아뢰기를, “탐라(耽羅)는 1도(道)를 통틀어 크게 풍년이 들었는데, 신이 일전에 마침 아는 사람으로 인하여 들으니, 40말 보리값이 무명 1필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신은 적이 탐라가 염려가 됩니다. 지금 만약 농사가 풍년이 든다면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호남은 탐라뿐만 아니라 노령(蘆嶺) 이남은 모두 염려할 것이 없다. 하지만 전주(全州) 이상 임피(臨陂)·만경(萬頃)·금구(金溝)·옥구(沃溝) 등 작년에 흉년이 든 곳이 또 재해를 입었다고 한다.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신서(申溆)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농사,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49) 한로(寒露):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인 한로절(寒露節). 추분(秋分)과 상강(霜降) 사이에 들며, 양력으로 10월 8일 경임.

❖ 嘉慶 三年 戊午 六月 四日 丙申

○ 獻納丁志元, 正言申溆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6월 4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정지원(丁志元) 등의 계

○ 헌납 정지원(丁志元)[350], 정언 신서(申溆)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51]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

350) 정지원(1738~?): 본관 나주(羅州). 1765년(영조 41) 문과 급제.

351)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52]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52)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六月 五日 丁酉

○ 正言申緝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22년(1798) 무오년 6월 5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신서(申緝)의 계

○ 정언 신서(申緝)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六月 六日 戊戌

○ 戊午六月初六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都承旨洪明浩, 左副承旨李勉兢, 假注書李毅采, 事變假注書金啓河, 記注官金良偶, 記事官金履永, 右議政李秉模, 行右參贊金文淳, 吏曹判書金載瓚, 兵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趙心泰, 戶曹判書趙鎭寬, 行護軍徐有大, 訓鍊院都正申大顯, 漢城左尹李漢豐, 行護軍徐龍輔·李益運, 開城府留守韓用龜, 掌令鄭晫成, 獻納丁志元, 校理金銑, 修撰洪秀晩, 以次進伏訖. …… 秉模曰, 卽見濟州牧使曺命楫報備局辭緣, 則以爲本島土品, 自來瘠薄, 甲乙荐饑, 三邑無依之類, 姑許出送,(비변사등록은 始) 使之惟意就食, 待年豐還鄕, 昨今年來, 島農稍稔, 前後出陸者, 宜可相率入來, 而一不肯還, 其爲父母妻子之倚門望石, 誠一傷和之端. 且三邑原居民之逃移他境, 旣有法禁, 今年內出去持物件丁寧行商者外, 其他年久逗遛不肯還者, 一一摘發, 定官使次次押付都會官, 以爲盡數入送事, 發關諸道爲辭矣. 三邑民人之移居他邑者, 飭令刷還, 旣是法典所載, 且今島農連豐, 渠輩父母妻子, 如彼其望還, 客土何樂, 而不思家人之情理乎? 關飭三南道臣, 三邑民之寄接道內者, 自各其邑飭諭, 待農歇次次押付隣邑, 以爲各歸於原籍官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志元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上曰, 不允.【出擧條】…….

❖ 정조 22년(1798) 무오년 6월 6일(무술)

▢ 삼남(三南)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갑인년과 을묘년에 거듭된 기근으로 육지로 나가 취식(就食)하던 제주인(濟州人)을 원적관(原籍官)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을 청하는 우의정 이병모(李秉模)의 계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정지원(丁志元)의 계

○ 무오년 6월 6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도승지 홍명호(洪明浩), 좌부승지 이면긍(李勉兢), 가주서 이의채(李毅采), 사변가주서 김계하(金啓河), 기주관 김양척(金良偶),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우참찬 김문순(金文淳), 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행호군 서유대(徐有大), 훈련원도정 신대현(申大顯), 한성좌윤 이한

풍(李漢豐), 행호군 서용보(徐龍輔)·이익운(李益運), 개성부유수 한용구(韓用龜), 장령 정최성(鄭崔成), 헌납 정지원(丁志元), 교리 김선(金銑), 수찬 홍수만(洪秀晩)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비변사에 보고한 사연(辭緣)을 보니, '본도(本島)의 토질이 본래 척박한데다 갑인년과 을묘년에 거듭된 기근으로 3읍의 의지할 데 없는 부류들을 일단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여 마음대로 취식(就食)하게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섬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습니다. 앞뒤로 육지에 나간 자가 마땅히 잇달아 들어와야 하는데 한 사람도 돌아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모와 처자가 문에 기대어 망주석(望柱石)이 되어 버렸으니, 참으로 화기(和氣)를 손상시키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한 3읍의 원거민(原居民)이 다른 경내로 도망가거나 이주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나간 자와 물건을 가지고 분명히 장사를 하는 사람 외에 그밖에 여러 해가 되었어도 머뭇거리며 돌아오려 하지 않는 자를 일일이 적발하고, 관사(官使)를 정하여 차례차례 도회관(都會官)으로 압송하여 넘겨서 모두를 들여보내도록 제도(諸道)에 관문(關文)을 발송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3읍의 백성이 다른 읍에 옮겨 거주하는 자는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쇄환(刷還)하도록 이미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섬의 농사가 연이어 풍년이 들었고, 저들의 부모와 처자가 저와 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객지가 무엇이 좋다고 집안사람의 정리(情理)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관문으로 삼남(三南)의 관찰사를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3읍의 백성으로 도내(道內)에 붙어 사는 자를 각기 그 읍에서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고 효유(曉諭)하여 농사일이 한가하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이웃 읍으로 압송하여 넘겨서 각기 원적관(原籍官)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353] 【거조(擧條)를 냄】〈중략〉 정지원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원적관, 쇄환, 강이천, 국청.

353)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2년 6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四日 丙寅

○ 行大司諫韓用龜, 司諫柳畊, 獻納徐有聞, 正言宋知濂·洪受浩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義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詘,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4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354], 사간 유경(柳畊)[355], 헌납 서유문(徐有聞), 정언 송지렴(宋知濂)[356]·홍수호(洪受浩)[357]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354) 한용구(1747~1828): 본관 청주(淸州). 자 계형(季亨). 호 만오(晩悟). 시호 익정(翼貞).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예조좌랑, 예조판서, 영의정 역임.

355) 유경(1756~?): 본관 진주(晉州). 자 경수(耕叟).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356) 송지렴(1764~?): 본관 은진(恩津). 자 주경(周卿).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광주목사, 좌부승지 역임.

357) 홍수호(1749~?): 본관 풍산(豊山). 자 자현(子賢).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부교리, 사헌부 집의, 사간 역임.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58]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59]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

358)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359)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五日 丁卯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5일(정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六日 戊辰

○ 獻納徐有聞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6일(무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서유문(徐有聞)의 계

○ 헌납 서유문(徐有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七日 己巳

○ 行大司諫韓用龜, 獻納徐有聞,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7일(기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헌납 서유문(徐有聞),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八日 庚午

○ 行大司諫韓用龜, 獻納徐有聞,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8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헌납 서유문(徐有聞),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一日 癸酉

○ 行大司諫韓用龜,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1일(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三日 乙亥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進上靑皮等三種, 未能如例封進事判付內, 啓下備邊司爲旀, 雖非本司所關, 本司豈有不管攝之事乎? 靑皮之爲物, 緊於藥用, 而聞大小藥局所需絶罕, 甚至內局濟衆丹合製間有微稟之擧, 民間日用, 未免苟且, 可以推知, 此豈成說乎? 近來之人, 氣品無非痰積之類, 則靑皮之爲緊可知, 另飭該倅, 使之各別摘聚, 以爲販貿之用, 如或枯損而然, 則嚴飭多植事, 分付爲良如敎.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3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식재 등을 통해 청피(靑皮) 관리를 각별히 하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서 진상(進上)하는 청피(靑皮)[360] 등 3종류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한 일과 관련하여 판부(判付)한 내용에, "비변사에 계하(啓下)한다. 비록 본사(本司)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본사가 어찌 관섭(管攝)[361]하지 않는 일이 있겠는가? 청피라는 물건은 약용으로 긴요하다. 그런데 들으니 크고 작은 약국에서 구하는 것이 아주 드물고, 심지어 내국(內局)[362]에서 제중단(濟衆丹)[363]을 지을 때면 미품(微稟)[364]하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 민간에서의 일용(日用)이 구차함을 면치 못하는 것을 이로 미루어 알만 하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가? 근래 사람들의 기품(氣品)이 담(痰)이 쌓이는 부류가 아닌 사람이 없으니, 청피의 긴요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해당 수령을 타일러 경계하여 각별히 따서 모아 팔고 사는 용도로 삼게 하라. 만약에 혹 고사(枯死)로 인한 손해로써 그러한 것이라면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많이 식재하도록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365]

△ 주제어: 진상, 청피, 약용, 식재.

---

360) 청피(靑皮): 귤이 완전히 익지 않은 미숙과의 껍질로 청귤피(靑橘皮)라고 함.
361) 관섭(管攝): 겸하여 주관함.
362) 내국(內局): 궁중의 의약을 맡은 내의원(內醫院)의 약칭
363) 제중단(濟衆丹): 위급할 때 복용하는 환약의 한 가지.
364) 미품(微稟):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임금에게 넌지시 여쭈는 일을 말함.
365)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2년 7월 1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三日 乙亥

○ 鄭尙愚,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別御乘馬二十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供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三百八十匹內, 一百匹箭串牧場放養代, 八匹華城府親軍衛分給, 三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五匹到始興逃逸除, 實納馬二百六十三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3일(을해)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별어승마(先運別御乘馬) 등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별어승마(先運別御乘馬) 20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세공마(歲供馬) 20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380필 가운데 100필은 전곶(箭串)[366] 목장에 놓아 기르는 것으로, 8필은 화성부(華城府) 친군위(親軍衛)에 분급(分給)하고, 3필은 배 안에서 죽었고, 1필은 중로(中路)에서 죽었고, 5필은 시흥(始興)에 도착해서 도망간 것을 제외하여 실제로 바치는 말 263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별어승마, 진상마, 세공마, 노태마, 별단.

366) 전곶(箭串): 도성의 동교(東郊)인 전곶(箭串)으로 살곶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뚝섬에 해당함. 《홍재전서(弘齋全書)》〈일득록(日得錄) 8〉에 따르면, 전곶의 목장은 샘이 달고 풀이 풍성하여 말을 기르기에 가장 알맞다는 이유로 정조가 사복시에서 말을 번식시켜 나라를 부유하게 할 방책으로 삼도록 하였음.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三日 乙亥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3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四日 丙子

○ 獻納徐有聞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4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서유문(徐有聞)의 계

○ 헌납 서유문(徐有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五日 丁丑

○ 尹光顔,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屯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實納馬二百六匹及先運上來時到始興逃逸馬五匹, 竝捧合馬二百十一匹, 禾毛色別單書入, 而年例馬則乃八駿名色, 今此所納, 俱爲體小玄黃, 無一可用, 事之可駭, 莫此爲甚, 當該封進官濟州牧使曺命楫, 爲先從重推考, 以懲日後, 何如? 傳曰, 武倅反不若文倅乎? 越俸一等, 可也.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5일(정축)

▢ 체구가 작고 병이 든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를 바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윤광안(尹光顔)[367]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둔마(屯馬) 200필 내에 1필은 배에서 죽고, 1필은 중로(中路)에 도착해서 죽어서 실제로 바치는 말 206필과 선운(先運)이 올라올 때 시흥(始興)에서 도망갔던 5필을 아울러 거두어 합 211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그런데 연례마는 곧 팔준(八駿)의 명색(名色)인데, 지금 바치는 것은 모두 체구가 작고 병이 들어 하나도 쓸만 한 것이 없으니, 일의 놀라움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봉진관(封進官)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관 수령이 도리어 문관 수령만 못하는가? 월봉(越俸) 1등[368]에 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연례진상마, 제주목사, 조명집, 종중추고, 월봉.

---

367) 윤광안(1757~1815): 본관 파평(坡平). 자 복초(復初). 호 반호(盤湖). 1786년(정조 10) 문과 급제. 충청도관찰사, 이조참의, 부호군 역임.

368) 월봉(越俸) 1등: 등(等)은 1개월로, 녹봉 1개월분을 건너뛰고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벌임.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五日 丁丑

○ 尹光顔,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景喆, 丁巳·戊午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5일(정축)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경철(金景喆)의 봉진마(封進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윤광안(尹光顔)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경철(金景喆)이 정사년과 무오년 2년조(年條) 봉진마(封進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경철, 봉진마, 별단.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五日 丁丑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從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5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六日 戊寅

○ 獻納徐有聞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荒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6일(무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서유문(徐有聞)의 계

○ 헌납 서유문(徐有聞)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69]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369)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70]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70)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七日 己卯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7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八日 庚辰

○ 司諫李翊模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8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익모(李翊模)의 계

○ 사간 이익모(李翊模)[371]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71) 이익모(1747~1812): 본관 덕수(德水). 자 여간(汝幹).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이조참판, 홍문관부제학, 한성부판윤 역임.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十九日 辛巳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19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日 壬午

○ 戊午七月二十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左承旨沈晉賢, 假注書李弘謙, 事變假注書黃萬齡, 記注官金景煥·承膺祚, 右議政李秉模, 行左參贊鄭民始, 兵曹判書李時秀, 禮曹判書沈煥之, 行護軍徐有大, 訓鍊都正申大顯, 漢城府左尹李漢豊, 行護軍李書九, 行大司諫韓用龜, 司諫李翊模, 掌令朴崙壽, 正言洪受浩, 副校理朴吉源, 修撰鄭東幹, 以次進伏訖. …… 秉模曰, 濟州儲穀之論, 實是島陸莫大之利, 而因循至今, 少遇歉荒, 輒致沿民切骨之弊, 不可不一番變通, 而近聞島中連豊, 穀賤如土云, 及此收聚, 儲之官庫, 以作不虞之備, 則來頭效益, 當如何哉? 雖以羅舖所納換貿價言之, 不以涼藿, 而以穀收儲於三邑各倉, 則當其運穀之時, 與其運去陸穀, 曷若取諸島中庫儲之爲便乎? 無論如此如彼, 亟思方便之策, 俾爲日後省力之道, 如是之後, 若無實效, 則當自時牧使, 難免譴責, 竝以此意嚴飭, 儲穀數爻, 擧行形止, 亦令論報備局, 以爲轉稟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嚴飭牧使, 卽爲拮据貿置, 以其石數, 使之狀聞可也. 【出擧條】 …… 用龜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0일(임오)

▢ 제주(濟州) 3읍 관고(官庫)에 흉년을 대비하여 곡물(穀物)을 저축하게 할 것을 청하는 우의정 이병모(李秉模)의 계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의 국청(鞫廳)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의 계

○ 무오년 7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심진현(沈晉賢), 가주서 이홍겸(李弘謙), 사변가주서 황만령(黃萬齡),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좌참찬 정민시(鄭民始),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예조판서 심환지(沈煥之), 행호군 서유대(徐有大), 훈련도정 신대현(申大顯), 한성부좌윤 이한풍(李漢豊), 행호군 이서구(李書九),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사간 이익모(李翊模), 장령 박윤수(朴崙壽), 정언 홍수호(洪受浩), 부교리 박길원(朴吉源), 수찬 정동간(鄭東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에 곡물(穀物)을 저축하자는 논의는 실로 섬과 육지의 막대한 이익입

니다. 그런데도 전례만 답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흉년을 만나면 문득 연해(沿海) 백성들이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한 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래 들으니, 섬이 계속된 풍년으로 곡물이 천하기가 흙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거두어 모아 관고(官庫)에 쌓아두어 뜻밖의 대비를 한다면 앞으로의 효과와 이익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 비록 나리포(羅里鋪)에 납부하는 바 환무(換貿)하는 값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양태와 미역으로써가 아니라 곡물로써 거두어 3읍 각 창고에 쌓아둔다면, 곡물을 운반하는 때를 당하여 육지의 곡물을 운반해 가는 것보다 어찌 섬 안의 창고에 쌓아둔 것을 취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막론하고 속히 편한 방책을 생각하여 앞으로 수고를 더는 방도를 삼게 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뒤에 만약 실효가 없다면 마땅히 당시 목사부터 견책(譴責)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아울러 이 뜻으로 엄히 타일러 경계하고, 쌓아둔 곡물의 수효와 거행의 전말을 또한 비국에 논보(論報)하게 하여 전품(轉稟)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엄히 목사를 타일러 경계하여 즉시 무치(貿置)하여 그 섬수[石數]를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라고 하였다.372) 【거조(擧條)를 냄】〈중략〉 한용구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3읍, 곡물, 저축, 강이천, 국청.

372)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2년 7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정조실록》 정조 22년 7월 20일자 기사에는 이상의 내용이 아주 간략히 기술되어 있음.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一日 癸未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1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二日 甲申

○ 獻納徐有聞,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2일(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서유문(徐有聞) 등의 계

○ 헌납 서유문(徐有聞)과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三日 乙酉

○ 洪明浩, 以禮曹言啓曰, 今七月二十一日左承旨入侍時, 行左承旨沈晉賢所啓, 臣有區區所懷, 適當是日, 倍切激感, 敢此仰達矣. …… 傳曰, 皇朝崇禎丙子以往, 山河包羞, 草木帶腥, 而尙今爲志士之所扼腕而裂眦者, …… 丁未之林寅觀·陳得事也, …… 若林寅觀等九十五人之事, 固出於迫不得已之意, 而故副學李端相之詩, 故洗馬尹以健之疏, 可以無愧於千秋. 彼九十五人之一時竝戮, 慘傷錯愕, 何嗟及之? 其來泊雖在耽羅, 其回程必由灣上, 而于今一百三十有二年之間, 尙未有宣鬱疏冤之擧, 其爲闕典欠事, 莫有過此, 適當二十義士竝享之時, 九十五人, 一體造牌同祭, 題曰皇朝遺民林寅觀等九十五人, 若是則禮似有據, 義似有辭, 竝以此意分付, 可也.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3일(을유)

▢ 1667년(현종 8)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했던 중국인 임인관(林寅觀)·진득(陳得) 등 95인을 제사지내게 하라는 전교

○ 홍명호(洪明浩)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금번 7월 21일 좌승지가 입시했을 때, 행좌승지 심진현(沈晉賢)이 아뢰기를, ‘신이 구구(區區)한 소회(所懷)가 있는데, 마침 이날이 되니 감격이 북받쳐 올라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략〉.’”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황조(皇朝) 숭정(崇禎) 병자년 이후로 산하(山河)가 부끄러움을 머금고 초목에 비린내가 풍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의로운 선비가 팔을 걷어붙이고 눈초리가 찢어지게 몹시 분해하는 것은 〈중략〉 정미년 임인관(林寅觀)·진득(陳得)의 일[373]이다. 〈중략〉 임인관 등 95인과 같은 일은 진실로 급박하여 어쩔 수 없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고(故) 부제학 이단상(李端相)[374]의 시와 고 세마 윤이건(尹以健)[375]의 상소는 천추(千秋)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

373) 정미년의 임인관(林寅觀)·진득(陳得)의 일: 1667년(현종 8) 중국 복건(福建) 열서도(烈嶼島) 출신인 진득 등 95인이 일본에 무역하러 갔다가 제주도 대정현(大靜縣)에 표류해 왔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명나라가 망한 갑신년 이후 바다로 나온 지 10여 년이나 되는데 이제 연해(沿海)가 평온하다 하기에 부모 처자를 찾아 돌아간다." 하였음. 그런데 조정에서 이들을 압송해 청나라 예부(禮部)로 이첩함으로써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였음.

374) 이단상(1628~1669): 본관 연안(延安). 자 유능(幼能). 호 정관재(靜觀齋)·서호(西湖). 시호 문정(文貞). 1649년(인조 27) 문과 급제. 저서《정관재집》.

375) 윤이건(1640~1694): 본관 남원(南原). 자 체원(體元). 호 일소재(一笑齋). 금성현령, 공조좌랑, 진산군수 역임.

저 95인이 일시에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니, 비통해 하고 놀라워 하며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이 와서 정박한 곳이 비록 탐라(耽羅)였지만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필시 의주(義州)를 거쳤다. 지금까지 132년 사이 아직도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궐전(闕典)[376]하여 흠이 되는 일이 이것보다 지나친 것이 없다. 마침 20인의 의사[377]를 모두 제향하는 때를 만났으니, 95인에 대해 모두 위패를 만들어 같이 제사(祭祀)를 올리되, '황조 유민(遺民) 임인관 등 95인'이라고 써넣게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예(禮)에 의거함이 있게 될 듯하고, 의리에도 말이 있게 될 듯하다. 아울러 이러한 뜻으로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378]

△ 주제어: 유민, 임인관, 진득, 표도, 제사.

376) 궐전(闕典): 결여된 의식. 빠뜨려진 예법.

377) 20인의 의사: 병자호란 때 절개를 세웠던 백대호(白大豪) 등을 일컬음. 《정조실록》 정조 22년 7월 23일자 기사 참조.

378) 이상은 《정조실록》 정조 22년 7월 23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三日 乙酉

○ 獻納徐有聞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3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서유문(徐有聞)의 계

○ 헌납 서유문(徐有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四日 丙戌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4일(병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七日 己丑

○ 行大司諫韓用龜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措辭見上】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7일(기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조사(措辭)가 위에 보임】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八日 庚寅

○ 行大司諫韓用龜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8일(경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七月 二十九日 辛卯

○ 行大司諫韓用龜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夬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7월 29일(신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一日 壬辰

○ 行大司諫韓用龜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荒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 渠去來和應, 互相連肚者. 渠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1일(임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79]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379)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80]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80)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二日 癸巳

○ 行大司諫韓用龜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2일(계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三日 甲午

○ 正言申若樞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夬正典刑, 其餘從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3일(갑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신약추(申若樞)의 계

○ 정언 신약추(申若樞)[381]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81) 신약추(1733~?): 본관 고령(高靈). 자 사흠(士欽). 1787년(정조 11)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四日 乙未

○ 獻納任長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原府[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從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4일(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장원(任長源)의 계

○ 헌납 임장원(任長源)[382]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82) 임장원(1734~1804): 본관 장흥(長興). 자 회일(會一). 호 규암(葵菴). 1773년(영조 49)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七日 戊戌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原府[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7일(무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八日 己亥

○ 戊午八月初八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李晩秀, 左承旨洪義浩, 右承旨李肇源, 左副承旨李翼晉, 右副承旨兪漢寧, 同副承旨李文會, 假注書李弘謙·李允謙, 記注官承膺祚, 記事官金履永, 檢校待敎李存秀, 以次進伏訖. …… 用龜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8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한용구(韓用龜)의 계

○ 무오년 8월 8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만수(李晩秀), 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우승지 이조원(李肇源), 좌부승지 이익진(李翼晉), 우부승지 유한녕(兪漢寧), 동부승지 이문회(李文會), 가주서 이홍겸(李弘謙)·이윤겸(李允謙),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한용구(韓用龜)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九日 庚子

○ 獻納任長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9일(경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장원(任長源)의 계

○ 헌납 임장원(任長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十日 辛丑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10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十一日 壬寅

○ 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11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홍수호(洪受浩)의 계

○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十六日 丁未

○ 獻納任長源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 渠去來和應, 互相連肚者. 渠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新除授正言尹涵, 時在京畿楊州地, 請斯速乘馹上來事下諭. 答院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16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장원(任長源)의 계

○ 헌납 임장원(任長源)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83]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383)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84]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84)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十九日 庚戌

○ 正言洪受浩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19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홍수호(洪受浩)의 계

○ 정언 홍수호(洪受浩)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二十日 辛亥

○ 獻納任長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原府[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20일(신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장원(任長源)의 계

○ 헌납 임장원(任長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二十二日 癸丑

○ 戊午八月二十二日辰時, 上御春塘臺. 瑞蔥臺秋到記儒生, 日次儒生殿講, 專經文武臣殿講入侍時, 行都承旨李晩秀, 行左承旨李益運, 行右承旨申耆, 左副承旨洪義浩, 右副承旨李肇源, 同副承旨李溏, 假注書洪奭周, 假注書李允謙, 記注官金景煥, 記事官金履永, 檢校待教李存秀, 以次侍立. …… 肇源曰, 今此殿講時, 東齋掌議李復秀, 西齋掌色沈應奎·李羲斗·金學淳, 或有情勢或在外, 不爲進參. 故方自本館, 草記請罰矣. 上曰, 前此申飭之下, 焉敢若此. 而況渠輩多是卿相·閣臣家人, 尤豈敢肆然懸頃乎? 其中沈應奎, 則渠兄象奎, 曾以此事, 至於被謫, 今番罪犯, 又止薄勘, 則使其弟, 不參殿講, 尤萬萬痛駭. 沈象奎濟州牧定配, 榻教書出, 招致當直都事分付. 少頃, 敎曰, 定配榻教, 姑置之. 以渠罪犯, 決不敢晏然偃處, 此意令當直都事分付. 而李復秀·李羲斗聞方在外, 沈應奎·金學淳使之卽刻來待. 今番稱頃之齋任, 令泮長永勿許其圖免也.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22일(계축)

▢ 전강(殿講)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서재장의 심응규(沈應奎)의 형 심상규(沈象奎)를 제주목(濟州牧)에 정배(定配)하라고 전교를 내렸다가 도로 명을 거둠

○ 무오년 8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로 나아갔다. 서총대(瑞蔥臺)에서 추도기유생(秋到記儒生)[385], 일차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386], 전경문신(專經文臣)의 전강[387]과 전경무신(專經武臣)의 전강[388]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좌승지 이익운(李益運), 행우승지 신기(申耆), 좌부승지 홍의호(洪義

---

385) 추도기유생(秋到記儒生): 성균관 유생들이 출근하여 식당에 출입한 회수를 적는 부책(簿冊)을 도기(到記)라 하며, 아침·저녁 두 끼를 1도(到)로 하여 50도가 되면 과거 볼 자격을 줌. 따라서 가을에 보이는 과거를 추도기(秋到記)라 하고, 여기에 응시할 유생을 추도기 유생이라 함.

386) 일차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중에 식당 도기(食堂到記 아침과 저녁을 합쳐 1점을 부여함)가 50점 이상 되는 자를 가려 임금이 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의 16일마다 궁중에 모아서 삼경(三經)을 강하는 것.

387) 전경문신(專經文臣)의 전강: 예조에서 당하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의 문신으로 37세 이하를 뽑아 정월·4월·7월·10월의 11일에 전강(殿講)을 시험 보이는 것.

388) 전경무신(專經武臣)의 전강: 무경(武經)으로 무신에게 궁중에서 보이는 강독 시험(講讀試驗). 정월·4월·7월·10월에 40세 이하의 무신으로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정직(正職)에 있거나 현재 군문(軍門)의 직(職)에 있는 자 중에서 경중(京中)에 있고 무고(無故)한 자를 병조(兵曹)에서 열서(列書)해 올려서 20원(員)을 수점(受點)하여 실시하며, 강서(講書)는 임문(臨文)으로 무경 칠서(武經七書) 중 오자(吳子)를 제외한 육서 중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것으로 함.

浩), 우부승지 이조원(李肇源), 동부승지 이당(李溏), 가주서 홍석주(洪奭周),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시립하였다. 〈중략〉 이조원이 아뢰기를, "이번 전강 때 동재장의 이복수, 서재장의 심응규(沈應奎)[389]·이희두·김학순이 혹은 사정이 있거나 혹은 지방에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본관(本館)에서 초기(草記)하여 벌을 청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한 상황에서 어찌 감히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저들 대부분은 경상(卿相)·각신(閣臣)의 집안사람이다. 더욱이 어떻게 감히 방자하게 현탈(懸頉)[390]한 것인가? 그 가운데 심응규는 그의 형 심상규(沈象奎)[391]가 일찍이 이러한 일로 유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범죄를 또 가볍게 처리하는데 그쳤기에 그 아우로 하여금 전강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더더욱 통탄스럽고 놀랍다. 심상규를 제주목(濟州牧)에 정배(定配)하고, 어전에서 하교를 써내어 당직도사(當直都事)를 불러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잠시 후에 전교하기를, "정배하라고 어전에서 하교한 것을 일단 그대로 두어라. 그의 범죄는 결코 감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처리할 수는 없다. 이러한 뜻을 당직도사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라. 이복수·이희두는 현재 지방에 있다고 들었다. 심응규·김학순은 즉시 와서 대령하게 하라. 이번에 탈이 있다고 핑계 댄 재임(齋任)에 대해서는 반장(泮長)[392]으로 하여금 영구히 그 도면(圖免)[393]을 허락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전강, 심상규, 제주목, 정배.

389) 심응규(1770~?): 본관 청송(靑松). 자 숙도(叔度).
390) 현탈(懸頉): 사고로 출석 못하게 된 것을 기록하는 것.
391) 심상규(1766~1838): 본관 청송(靑松). 자 치교(穉敎)·가권(可權). 호 두실(斗室)·이하(彝下).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우의정, 영의정 역임. 저서《두실존고(斗室存稿)》.
392) 반장(泮長): 성균관 대사성.
393) 도면(圖免): 책임이나 맡은 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씀.

❖ 嘉慶 三年 戊午 八月 二十三日 甲寅

○ 獻納任長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8월 23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임장원(任長源)의 계

○ 헌납 임장원(任長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日 壬戌

○ 持平朴孝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일(임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지평 박효성(朴孝成)의 계

○ 지평 박효성(朴孝成)[394]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94) 박효성(1748~?): 본관 밀양(密陽). 자 백능(伯能). 호 미초(眉樵). 1785년(정조 9)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三日 癸亥

○ 獻納玄重祚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3일(계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현중조(玄重祚)의 계

○ 헌납 현중조(玄重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四日 甲子

○ 行大司諫韓用龜, 獻納玄重祚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4일(갑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헌납 현중조(玄重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五日 乙丑

○ 獻納玄重祚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5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현중조(玄重祚)의 계

○ 헌납 현중조(玄重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六日 丙寅

○ 獻納玄重祚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6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현중조(玄重祚)의 계

○ 헌납 현중조(玄重祚)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九日 己巳

○ 行大司諫韓用龜, 司諫柳畊,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9일(기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사간 유경(柳畊),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日 庚午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0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一日 辛未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1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三日 癸酉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3일(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四日 甲戌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4일(갑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五日 乙亥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5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六日 丙子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6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七日 丁丑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7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八日 戊寅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8일(무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十九日 己卯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19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十日 庚辰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爲奴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0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十四日 甲申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4일(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十五日 乙酉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5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十六日 丙戌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6일(병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十七日 丁亥

○ 戊午九月二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輪對官同爲入侍時, 右副承旨李肇源, 同副承旨鄭東觀, 假注書李弘謙, 事變假注書金就强, 記注官金景煥, 記事官金履永, 左議政李秉模, 行左參贊鄭民始, 行吏曹判書金文淳, 行上護軍金持默, 兵曹判書李時秀, 行大護軍趙心泰, 禮曹判書趙尙鎭, 戶曹判書趙鎭寬, 刑曹判書朴宗甲, 行護軍申大顯·徐龍輔·李書九, 行大司諫韓用龜, 司諫柳畊, …… 以次進伏訖. …… 用龜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7일(정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무오년 9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윤대관이 함께 입시할 때, 우부승지 이조원(李肇源), 동부승지 정동관(鄭東觀), 가주서 이홍겸(李弘謙), 사변가주서 김취강(金就强),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기사관 김이영(金履永), 좌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좌참찬 정민시(鄭民始), 행이조판서 김문순(金文淳), 행상호군 김지묵(金持默), 병조판서 이시수(李時秀), 행대호군 조심태(趙心泰), 예조판서 조상진(趙尙鎭),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형조판서 박종갑(朴宗甲), 행호군 신대현(申大顯)·서용보(徐龍輔)·이서구(李書九),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사간 유경(柳畊), 〈중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한용구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十八日 戊子

○ 正言李東萬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8일(무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이동만(李東萬)의 계

○ 정언 이동만(李東萬)[395]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95) 이동만(1760~?): 본관 전주(全州). 자 치조(稚朝).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二十九日 己丑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29일(기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九月 三十日 庚寅

○ 掌令尹寅基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9월 30일(경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장령 윤인기(尹寅基)의 계

○ 장령 윤인기(尹寅基)[396]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396) 윤인기(1768~1848): 본관 파평(坡平). 자 순화(舜和). 1787년(정조 11)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二日 壬辰

○ 司諫柳畊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陷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巧惡,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 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以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揑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爾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2일(임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397]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397)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398]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398)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四日 甲午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4일(갑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五日 乙未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5일(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六日 丙申

○ 行大司諫韓用龜, 司諫柳畊, 正言金和鍾·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6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행대사간 한용구(韓用龜), 사간 유경(柳畊), 정언 김화종(金和鍾)·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七日 丁酉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7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八日 戊戌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8일(무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九日 己亥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9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日 庚子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0일(경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一日 辛丑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1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三日 癸卯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3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三日 癸卯

○ 延日縣監鄭晩錫疏曰, …… 臣竊伏惟念, 君依於國, 國依於民, 民是有國之根本也. 若其生也困悴, 而無奠業之樂, 其俗也頹敗, 而昧事上之義, 則雖有衽帷汗雨之衆庶, 而與無民奚異哉? 顧玆嶺南一道, 素稱衣食之鄕, 淳樸之風, 而近歲屢經饑饉, 長吏不念撫綏, 日削月朘而如陷水火, 朝遷暮徙而殆同草茸. …… 夫土宜有遷移, 物産有盛衰, 昔之有者或無, 無者或有. 以迎日縣言之, 所封物膳, 有乾廣魚·乾大口·半乾大口·全鰒·乾文魚·貫目靑魚·粉藿等種, 而惟全鰒, 本縣所産, 體小色麤, 故必貿濟州所産, 而計其本價與路費, 每貼所入爲三十三兩, 頭會箕斂, 民情甚苦. 左沿諸邑, 莫不皆然, 若就左右沿各邑封進之物種, 隨其所産, 互相換定, 則實爲任土作貢之義, 而如又有窒礙之端, 左沿之邑, 以蔚山所産, 擇其品好者封進, 則其高價遠費, 可以少省矣. …… 伏願聖明澄省焉. 臣無任云云.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3일(계묘)

▢ 현(縣)에서 봉진(封進)하는 전복(全鰒)이 품질이 나빠 제주(濟州)에서 생산되는 것을 고가로 무역하여 바치고 있는 폐단의 시정 등을 청하는 연일현감(延日縣監) 정만석(鄭晩錫)의 상소(上疏)

○ 연일현감(延日縣監) 정만석(鄭晩錫)이 상소(上疏)하기를, "〈상략〉 신이 삼가 생각건대,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니,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만약에 그 삶이 곤궁하고 고달파서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는 즐거움이 없고, 그 풍속이 퇴패하여 윗사람을 섬기는 의리에 어두우면, 비록 옷깃이 잇대어 장막이 되고 흐르는 땀이 비를 이룰 지경으로 많은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백성이 없는 것과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영남(嶺南) 한 도(道)는 평소 생활이 넉넉한 지방으로 풍속이 순박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여러 차례 기근을 겪으면서 장리(長吏)들이 어루만져 편안하게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날로 빼앗고 달로 빼앗아서 (백성들은) 마치 물과 불에 빠진 것과 같으며, 아침에 자리를 옮겼다가 저녁에 다시 다른 데로 옮기기에 (백성들의 거처는) 거의 초저(草苴)와 같이 되었습니다. 〈중략〉 대저 토의(土宜)[399]에는 천이(遷移)가 있고, 물산(物産)에는 성쇠(盛衰)가 있으니, 옛날에 있던 것이 혹은 없고,

399) 토의(土宜): 토질이 곡식, 과일, 채소 등을 심는 데 알맞음을 말함.

없던 것이 혹은 있게 됩니다. 영일현(迎日縣)으로 말을 하자면, 봉진(封進)하는 물선(物膳)으로 건광어(乾廣魚)·건대구(乾大口)·반건대구(半乾大口)·전복(全鰒)·건문어(乾文魚)·관목청어(貫目靑魚)·분곽(粉藿) 등의 물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전복은 본현에서 생산되는 것이 몸집이 작고 색깔이 나쁘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濟州)에서 생산되는 것과 무역하는데, 그 본값과 노비(路費)를 계산하여 매 첩(貼)당 들어가는 것이 33냥이나 될 정도로 과중하니 백성들의 사정이 심히 괴롭습니다. 좌도(左道) 연해(沿海) 제읍(諸邑)이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좌도와 우도의 연해 각 읍에서 봉진하는 물종에 대해 그것이 생산되는 것에 따라서 서로 바꾸어 정한다면, 실로 임토작공(任土作貢)[400]하는 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장애가 되는 단서가 있다면 좌도 연해의 읍이 울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하여 봉진한다면 그 고가(高價)와 원비(遠費)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밝게 살펴 주십시오.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연일현감, 정만석, 상소, 전복, 봉진.

400) 임토작공(任土作貢): 각 지방의 토질에 의거하여 공부(貢賦)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말함. 《서경》 〈서(序)〉에, "우 임금은 구주를 구획하여 산을 따라 냇물을 깊이 파고 토질에 맞추어 공물을 내게 하였다[禹別九州 隨山濬川 任土作貢]."라고 하였음.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四日 甲辰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4일(갑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七日 丁未

○ 正言金和鍾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陷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7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01]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401)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402]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02)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八日 戊申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8일(무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十九日 己酉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竝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19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二十日 庚戌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20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二十一日 辛亥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21일(신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二十二日 壬子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從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22일(임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二十三日 癸丑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23일(계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二十四日 甲寅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24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月 二十七日 丁巳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0월 27일(정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日 辛酉

○ 正言尹涵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 浮淫之辭, 幻出市徒, 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 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 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節之難掩, 與彝天, 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 嚴問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일(신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03]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403)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404]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04)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七日 丙寅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7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八日 丁卯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8일(정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九日 戊辰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9일(무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一日 庚午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1일(경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六日 乙亥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區別災實諸般事務, 可以措處者, 開錄馳啓事, 判付內, 啓下備邊司爲旀, 近爲三南民事, 用心之餘, 島農能得食, 實爲島民萬幸. 稟請諸條, 不過年例擧行, 竝依狀請施行事, 分付守臣爲良如敎.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6일(을해)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제반 사무로써 조처할 수 있는 것을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한 일과 관련하여 장계(狀啓)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狀啓)에, 재실(災實)을 구별하고 제반 사무로써 조처할 수 있는 것을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한 일과 관련하여 판부(判付)한 내용에, “비변사에 계하(啓下)한다. 근래 삼남(三南)의 민사(民事)에 마음을 쓴 나머지 섬의 농사가 능히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실로 섬 백성을 위해서 아주 다행이다. 아뢰어 청한 여러 조항은 연례로 거행하는 것에 불과하니, 모두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수신(守臣)에게 분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405]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장계, 농사.

405)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2년 11월 1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六日 乙亥

○ 戊午十一月十六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承候入侍時, 藥房提調李秉鼎, 副提調韓晩裕, 記事官金啓溫, 記注官承膺祚, 編修官洪樂游, 檢校直閣沈象奎, 以次進伏訖. …… 上曰, 濟州民人, 果爲招問其農形, 而招問於何處耶? 翼晉曰, 兵房承旨, 俄於院中招問矣. 上曰, 此是因傳敎招問之事, 則承旨, 豈可以便服擧行乎? 事極可駭矣. 命書傳敎曰, 貢果領來耽羅子弟, 令該房承宣, 招問島農與民弊, 當依例往至敦化門宣問, 雖欲取便, 出坐延英門擧行, 事體當然, 何敢偃處直所, 有若私自酬酢之爲者, 寧有如許道理? 其所入稟, 尤爲煩屑. 當該承旨, 爲先遞差, 在院承旨, 一併推考, 待追到人齊到, 竝令該房, 給回糧於闕外後, 回奏.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6일(을해)

▢ 공과(貢果)를 가지고 온 탐라(耽羅) 자제에게 돌아갈 양식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전교

○ 무오년 11월 16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승후(承候)[406]를 위해 입시할 때, 약방제조 이병정(李秉鼎), 부제조 한만유(韓晩裕), 기사관 김계온(金啓溫),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편수관 홍락유(洪樂游), 검교직각 심상규(沈象奎)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민(濟州民)에게 과연 그곳의 농사 형편을 불러 물어보았는가? 그렇다면 어디에서 불러 물어보았는가?"라고 하였다. 이익진(李翼晉)이 아뢰기를, "병방 승지가 조금 전에 원중(院中)에서 불러 물어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전교로 인하여 불러 물어보는 일인즉 승지는 어찌 편복(便服)[407]으로 거행할 수 있는가? 일이 매우 놀랍다."라고 하였다.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공과(貢果)를 가지고 온 탐라(耽羅) 자제에 대해 해방(該房) 승지로 하여금 불러서 섬의 농사와 민폐(民弊)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으면 당연히 규례대로 돈화문(敦化門)에 이르러서 선문(宣問)하고, 비록 편리함을 취하고자 하더라도 연영문(延英門)에 나가 앉아 거행하는 것이 사체(事體)에 합당할 것이다. 어찌 감히 직소(直所)에 태연히 있으면서 마치 사사로이 응대하는 것처럼 한단 말인가? 어찌 이와 같은 도

406) 승후(承候): 임금의 기거와 안부를 물음.
407) 편복(便服): 평상시에 입는 옷.

리가 있는 것인가? 그 들어와 아뢰는 바가 더욱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다. 해당 승지를 우선 체차(遞差)하고, 승정원에 있는 승지를 모두 추고(推考)하라. 추후에 도착하는 사람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아울러 해방으로 하여금 궐 밖에서 돌아갈 양식을 지급한 후에 회주(回奏)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공과, 제주민, 농사, 민폐, 양식.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七日 丙子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薦新及進上唐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洪義榮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7일(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당금귤(唐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천신(薦新) 및 진상(進上)하는 당금귤(唐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홍의영(洪義榮)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천신, 진상, 당금귤.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七日 丙子

○ 洪義榮,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曺命楫狀啓,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唐金橘, 所結只爲十九箇, 而薦獻事體, 至爲尊嚴, 不敢以他橘, 擅便付封. 故以十九箇, 謹援已例, 都封上送于禮曹,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謹稽本曹謄錄, 則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所封進, 數雖些少, 依例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7일(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봉진한 부족한 수량의 당금귤(唐金橘)을 규례대로 당일 천진(薦進)하기를 청하는 예조의 계

○ 홍의영(洪義榮)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를 보니, ‘지난 10월령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당금귤(唐金橘)이 열매를 맺은 것이 단지 19개에 불과한데, 천헌(薦獻)의 사체(事體)가 지극히 존엄하여 감히 다른 귤로 마음대로 대신 봉진(封進)하지 못하니, 19개를 삼가 전례를 인용하여 모두 봉하여 예조에 올려 보냅니다.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본조(本曹)의 등록을 살펴보니,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숫자를 감하여 천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봉진한 것이 수량이 비록 적지만 규례대로 당일 천진(薦進)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천신, 당금귤.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七日 丙子

○ 鄭尙愚, 以賑恤廳言啓曰. 傳曰, 貢果領來耽羅子弟, 令該房承宣, 招問島農與民弊, 當依例往至敦化門宣問, 雖欲取便, 出坐延英門擧行, 事體當然, 何敢偃處直所, 有若私自酬酢之爲者, 寧有如許道理? 其所入稟, 尤爲煩屑, 當該承旨, 爲先遞差, 在院承旨, 一併推考, 待追到人齊到, 竝令該房, 給回糧於闕外後, 回奏事, 命下矣. 濟州進上領來人三十四名, 各米二斗式, 合米六石十二斗, 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7일(병자)

▢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34명에게 각각 쌀 2말씩을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공과(貢果)를 가지고 온 탐라(耽羅) 자제에 대해 해방(該房) 승지로 하여금 불러서 섬의 농사와 민폐(民弊)에 대해 물어보라고 했으면 당연히 규례대로 돈화문(敦化門)에 이르러서 선문(宣問)하고, 비록 편리함을 취하고자 하더라도 연영문(延英門)에 나가 앉아 거행하는 것이 사체(事體)에 합당할 것이다. 어찌 감히 직소(直所)에 태연히 있으면서 마치 사사로이 응대하는 것처럼 한단 말인가?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는 것인가? 그 들어와 아뢰는 바가 더욱 번거롭고 자질구레하다. 해당 승지를 우선 체차(遞差)하고, 승정원에 있는 승지를 모두 추고(推考)하라. 추후에 도착하는 사람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아울러 해방으로 하여금 궐 밖에서 돌아갈 양식을 지급한 후에 회주(回奏)하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34명에게 각각 쌀 2말씩 합 6섬 12말의 쌀을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공과, 제주민, 쌀, 분급.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七日 丙子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7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八日 丁丑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8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十九日 戊寅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19일(무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二日 辛巳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2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三日 壬午

○ 戊午十一月二十三日辰時. 上御誠正閣. 右承旨·同副承旨入侍, 抄啓文臣親試, 大臣·備局堂上引見, 入格儒生同爲入侍時, 行右承旨沈晉賢, 同副承旨鄭東觀,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景煥·承膺祚, 以次進伏訖. …… 用龜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3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한용구(韓用龜) 등의 계

○ 무오년 11월 23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우승지·동부승지가 입시하고, 초계문신 친시(抄啓文臣親試)에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하고, 입격 유생이 함께 입시할 때, 행우승지 심진현(沈晉賢), 동부승지 정동관(鄭東觀),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한용구(韓用龜)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四日 癸未

○ 獻納金熙周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4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김희주(金熙周)의 계

○ 헌납 김희주(金熙周)[408]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408) 김희주(1760~1830): 본관 의성(義城). 자 공목(公穆)·성사(聖思). 호 갈천(葛川).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한성좌윤, 대사간, 함길도관찰사 역임. 저서《갈천집》.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五日 甲申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5일(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六日 乙酉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6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七日 丙戌

○ 獻納金熙周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7일(병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김희주(金熙周)의 계

○ 헌납 김희주(金熙周)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八日 丁亥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8일(정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一月 二十九日 戊子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1월 29일(무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三日 壬辰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3일(임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日 己亥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0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一日 庚子

○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1일(경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二日 辛丑

○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2일(신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김화종(金和鍾)의 계

○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四日 癸卯

○ 司諫柳畊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4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경(柳畊)의 계

○ 사간 유경(柳畊)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六日 乙巳

○ 正言尹涵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險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6일(을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함(尹涵)의 계

○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09]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409)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10]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10)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八日 丁未

○ 都政. 吏批, 以黃基天爲吏曹佐郎, …… 夫宗仁爲大靜縣監,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8일(정미)

▢ 부종인(夫宗仁)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이비(吏批)에 황기천을 이조좌랑으로 삼았다. 〈중략〉 부종인(夫宗仁)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부종인, 대정현감.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八日 丁未

○ 掌令朴吉源, 正言金和鍾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8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장령 박길원(朴吉源) 등의 계

○ 장령 박길원(朴吉源), 정언 김화종(金和鍾)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十九日 戊申

○ 掌令朴吉源啓曰, …… 新除授大司憲李城輔, 時在京畿驪州地, …… 持平康聖翊, 時在全羅道濟州地, ……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 答曰, …… 在外臺諫, 山林外許遞,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19일(무신)

▢ 지평(持平)에 제수된 강성익(康聖翊)을 속히 제주(濟州)에서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장령 박길원(朴吉源)의 계

○ 장령 박길원(朴吉源)이 아뢰기를, "〈상략〉 새로 대사헌에 제수된 대사헌 이성보가 현재 경기 여주에 있고, 〈중략〉 지평(持平) 강성익(康聖翊)[411]이 현재 전라도 제주(濟州)에 있으니, 〈중략〉 청컨대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下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략〉 지방에 있는 대간(臺諫)은 산림(山林) 외에 체차(遞差)를 허락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지평, 강성익.

411) 강성익(1747~1819): 본관 신천(信川). 자 오응(五應), 호 명재(明齋). 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태생.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이조정랑, 정언, 사천현감 역임.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二十日 己酉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薦新乳柑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韓晩裕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20일(기유)

▢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한만유(韓晩裕)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봉진, 유감, 대죄.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二十日 己酉

○ 李海愚, 以禮曹言啓曰, 卽伏見濟州牧使曺命楫狀啓, 則今十二月令宗廟薦新洞庭橘, 依例封進, 而乳柑則僅爲三十四箇, 故謹依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事爲辭矣. 宗廟薦新洞庭橘, 當日薦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則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一體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20일(기유)

▢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을 전례대로 일체 천진(薦進)하겠다는 예조의 계

○ 이해우(李海愚)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를 보니, ‘금번 12월령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동정귤(洞庭橘)은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였는데, 유감(乳柑)은 겨우 34개가 되기에 삼가 전례에 의거하여 모두 봉(封)하여 올려보내니 품지(稟旨)하여 진헌(進獻)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묘에 천신하는 동정귤은 당일 천진(薦進)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하는 유감은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숫자를 감하여 천헌(薦獻)한 사례가 있으니, 또한 전례대로 일체 천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동정귤, 유감, 종묘, 경모궁, 천신.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二十日 己酉

○ 司諫柳雲羽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20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유운우(柳雲羽)의 계

○ 사간 유운우[412]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412) 유운우(1730~?): 본관 진주(晉州). 자 봉지(鳳之).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二十一日 庚戌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唐柚子初不結實, 薦新進上, 俱未免全數闕封, 惶隕待罪事, 傳于閔昌爀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21일(경술)

▢ 당유자(唐柚子)를 궐봉(闕封)하게 되어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장계에, 당유자(唐柚子)가 애초에 결실(結實)하지 않아서 천신(薦新)과 진상(進上) 모두에 대해 전수를 궐봉(闕封)하게 됨을 면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민창혁(閔昌爀)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당유자, 궐봉, 대죄.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二十二日 辛亥

○ 李海愚,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進上領來人四十二名處, 各米三斗式合米八石六斗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22일(신해)

▢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쌀을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賑恤廳)의 계

○ 이해우(李海愚)가 진휼청(賑恤廳)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대로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42명에게 각각 쌀 3말씩 합 8섬 6말을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휼청, 진상물, 쌀, 분급.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二十二日 辛亥

○ 執義柳畊, 正言尹涵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22일(신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집의 유경(柳畊) 등의 계

○ 집의 유경(柳畊), 정언 윤함(尹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三年 戊午 十二月 二十七日 丙辰

○ 金啓洛,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進上領來人十八名處, 各米三斗式合米三石九斗, 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2년(1798) 무오년 12월 27일(병진)

▢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쌀을 분급(分給)하겠다는 진휼청(賑恤廳)의 계

○ 김계락(金啓洛)이 진휼청(賑恤廳)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대로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18명에게 각각 쌀 3말씩 합 3섬 9말을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휼청, 진상물, 쌀, 분급.

1799年

(정조 23)



❖ 嘉慶 四年 己未 一月 十五日 甲戌

○ 沈象奎, 以備邊司言啓曰, 傳曰, 近稽故事, 雖非癘氣, 凡屬無名之疾, 輒皆別設癘祭於城隍山川, 而設壇郊場, 慰祭死傷, 昉於成周瓕磔遺制, 以今爲民靡不用極之義, 無於禮而近於禮者, 猶可義起而行之, 況周公載之周禮, 至于我列聖, 亦嘗行之, 則不卽修而擧之, 非所以和神人之道, 問于大臣, 僉議亦然, 京中則北郊, 遣重臣行別癘祭, 東西南三郊, 遣經幄之臣, 行慰祭, 兩西則癘祭·慰祭, 倂設, 而其外諸道, 皆擧瓕辜之禮, 合行條件, 廟堂與禮曹, 考據前例, 草記施行, 祭文, 卽令文衡撰進事, 命下矣. 取考該曹可據前例及合行條件, 則列聖朝已行之例, 就各該道中央之地設行而近例, 則或分送香祝, 已熾盛處, 卽爲卜日設行, 不熾盛處, 觀勢設行矣. 見今輪行之症, 姑不遍及於諸路, 則近例最宜倣行, 香祝, 預爲分送, 熾盛處, 卽爲卜日設行, 不熾盛處, 觀勢設行, 而諸道癘祭, 則設行於道內熾盛處, 兩西慰祭, 則設行於中央之地, 城隍發告祭, 則竝前期三日依例設行, 慰祭祭物, 依別癘祭擧行, 各別精備, 祭官則熾盛處, 若在營下, 道臣行祀, 若非營下, 以秩高文臣守令差定, 恐合事宜, 以此分付該曹, 卽速知委, 何如? 傳曰, 依草記施行, 而考見各年前例, 未必皆於中央邑爲之, 只從熾盛邑近處設行, 瑞興一邑, 濟州一府, 或以難名之疾, 仍特敎單擧別設, 今亦遵故事, 兩西, 則別癘祭·慰祭, 熾盛附近一處, 道臣設行, 各邑最甚處, 使各該倅設壇, 操文侑之, 香祝, 只於道臣設行處, 下送, 可也.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월 15일(갑술)

▢ 전염병이 치성(熾盛)함에 따라 제도(諸道)에 여제(厲祭)를 설행(設行)함에 있어 제주(濟州)는 단거(單擧)로 별설(別設)하여 거행하게 하라는 등의 전교

○ 심상규(沈象奎)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근래 고사(故事)를 상고해 보니, 비록 여기(癘氣)가 아니어도 무릇 이름 없는 질병에 속하면 문득 모두 성황(城隍)과 산천(山川)에 여제(癘祭)를 별설(別設)하고, 교장(郊場)에 단(壇)을 설치하여 사상자에게 위제(慰祭)를 지냈는데, 이러한 것은 성주(成周) 시대 벽책(瓕磔)[413]의 유제(遺制)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백성들을 위해 마음과 힘을 다하는 의리로써 예(禮)에는 없지만 예에 가까운 것을 오히려 의리에 비추어 새로

413) 벽책(瓕磔): 희생(犧牲)의 가슴을 갈라 찢는 것을 이름.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희생의 가슴을 갈라서 제물로 삼아 사방 백물(四方百物)에게 제사지낸다." 한 데서 온 말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주공(周公)이 주례(周禮)에 기록하였고, 우리 열성조(列聖朝)의 경우 또한 일찍이 이를 시행하였으니, 즉시 닦아서 거행하지 않는다면 귀신과 사람을 조화롭게 하는 도리가 아닐 것이다. 대신(大臣)에게 물으니 모두의 의론이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경중(京中)은 북교(北郊)에 중신(重臣)을 보내어 별여제(別癘祭)를 거행하고, 동·서·남 3교에는 경악(經幄)의 신하를 보내어 위제를 거행하며, 양서(兩西)[414]는 여제와 위제를 모두 설행하되, 그밖의 제도(諸道)는 모두 벽고(甽辜)의 예를 거행하게 하되, 합행조건(合行條件)을 묘당과 예조는 전례를 살펴 의거하여 초기(草記)하여 시행하라. 제문은 즉시 대제학으로 하여금 지어서 바치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415] 해당 조(曹)가 의거할 만한 이전 사례와 합행조건을 가져다 살펴보니, 열성조가 이미 거행한 예는 각 해당 도(道)의 중앙 지역에 나아가 설행(設行)하였습니다.[416] 그런데 가까운 사례로는 혹 향축(香祝)을 나누어 보내면서 이미 치성(熾盛)한 곳은 즉시 날을 정해서 설행하고, 치성하지 않은 곳은 형세를 보아가며 설행하였습니다. 현재 윤행(輪行)하고 있는 질병은 일단 제로(諸路)에 두루 미치지 않았으니, 가까운 사례에서 본떠서 시행하기 가장 마땅한 것은 향축을 미리 나누어 보내어 치성한 곳은 즉시 날을 정하여 설행하고, 치성하지 않은 곳은 형세를 보아서 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여제는 도내(道內) 치성한 곳에서 설행하고, 양서의 위제는 중앙 지역에서 설행하며,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는 모두 기일 3일 전에 설행하되, 위제의 제물은 별여제에 의거하여 거행하여 각별히 정비(精備)하고, 제관은 치성한 곳이 만약 영하(營下)[417]에 있으면 관찰사가 제사를 거행하고, 영하가 아니면 작질(爵秩)이 높은 문신 수령으로 차정(差定)하는 것이 일에 마땅할 듯합니다. 이로써 해당 조에 분부하여 속히 통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초기한 대로 시행하라. 그런데 각년(各年)의 전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모두가 중앙 읍에서 설행하지 않았으니, 단지 치성한 읍의 근처를 좇아 설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서흥(瑞興) 1읍과 제주(濟州) 1부(府)는 혹 이름 붙여 이르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특교(特敎)에 따라 단거(單擧)로 별설하기도 하였으니, 지금 또한 고사를 따르도록 하라. 양서의 경우는 별여제와 위제를 치성한 부근 한 곳에 관찰사가 설행하고, 각 읍에서 가장 심한 곳

414) 양서(兩西): 황해도와 평안도.
415) 이상 전교의 내용은《정조실록》정조 23년 1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416) 이하는《정조실록》정조 23년 1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417) 영하(營下): 영하읍(營下邑).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이 있는 읍.

에 각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설단(設壇)하여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향축은 다만 관찰사가 설행하는 곳에 내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전염병, 치성, 여제, 별설.

❖ 嘉慶 四年 己未 一月 十九日 戊寅

○ 昌原府使李尙度疏曰, …… 大抵任土之制, 始自禹貢, 我朝近世, 土貢變而大同行, 以其大同結收之穀, 貿用前日土貢之物, 京貢責納之外, 又分之諸路, 授價而貿上該路之物産, 今之進上是也. 此雖與古之貢法, 差有所間, 而自下獻上, 是亦爲貢, 其不可不任土則一也, 本道東南二沿, 據海爲疆, 魚産之賦於海沿, 豈可曰非土宜, 而第其同是沿邑, 而物産之有無不齊, 同一物産, 而色品之優劣自異, 列邑分排之式, 或違於所産之實, 則轉貿之擧, 勢所不免, 而其或轉貿益遠, 至用他道之物産, 則豈不大違於任土之本義, 而添價之漸致繁重, 無足怪矣. 彼轉貿之物, 各有所出之地, 自他處求之, 則爲轉貿, 自本處得之, 則爲土宜, 盍亦各就所出之地而賦之, 以存任土之規, 以除轉貿之費也. 試以臣邑言之, 海錯九種之中, 四則土採, 五則轉貿, 土採者但用元價, 轉貿者皆有添價, 轉貿五種, 卽全鰒·引鰒·海蔘·紅蛤·文魚也. 境內旣無所採, 往貿右沿之泗川地, 而同道沿邊諸邑, 雖有此五種土産處, 皆以品劣不合於進獻, 亦皆來貿於泗川, 故泗川海浦, 有所謂進上都家者, 道內貿易, 咸聚於此, 蓋以蔘蛤諸種之産於泗川近處者, 爲最勝也. 然而大鰒, 則泗川亦無之, 都家魚商, 本與濟州, 通船和市而轉賣焉. 列邑之貿進於巡營者, 卽此鰒, 故嶺營所進全鰒, 除了蔚鰒若干之外, 蓋無一貼之出於本道者, 而皆濟州之産也. 全鰒一貼, 會減元價爲白米一石五斗, 未嘗不本自優厚, 而以其轉貿之故, 臣邑則一貼添價爲錢二十五兩, 而情債雜費, 不與焉. 左沿諸邑, 則轉貿愈遠, 而添價愈多, 所謂添價辦出之規, 邑各不同, 或出於放債之殖, 或出於收斂之庫, 要之皆民也. 朝家旣於進上諸種, 降以優厚之價, 至於長路馱運之節, 亦自大同計數會減, 本欲不煩於民, 而特因封進之一違土宜, 中間無名之浪費, 乃至於此, 而斯民爲之受病, 豈不深可歎惜哉? 全鰒如此, 他種可以類推, 本道如此, 諸路亦足反隅, 致弊之由, 本自如許, 朝廷雖有釐革之令, 以其事關進獻, 按道之臣, 有不敢擅自變易, 其所奉行, 不過關飭列邑, 使浦民無弊, 而列邑之所以使浦民無弊者, 又不過添價一策, 浦民免害, 害歸陸民, 便是補西而破東, 豈可謂釐革之盡其道耶? 今宜稍加變通, 使進上各種, 悉從佳品所産處而移換其例, 則元價無所增, 進獻無所損, 而添價之浪費於中間者, 可以減得幾千, 假如諸路所進全鰒之轉貿濟産者, 爲百貼, 則就其中略除土鰒封進之需, 而留之本道, 餘皆盡數卜定於濟州, 使依前日諸路所進大小品樣而進之, 會減之米, 從而移劃, 馱運之費, 轉付船路, 則此皆本是濟産, 貼數雖多, 不患難備, 島中一貼之直, 雖不可臆斷, 計以一石五斗之元價, 必不甚相懸, 若曰差有不足, 則一番略收於從前添價之諸邑, 轉運於島中, 留爲府儲, 永備本價, 豈無便宜之方? 且念濟州之俗, 薄於農功, 厚於漁利, 採鰒之民, 所以通船而和市者, 只爲貿歸陸邑之穀, 以資島人之食, 今因鰒價, 移劃米穀自饒, 則豈非島民

足食之一策耶? …… 臣幸値周諮之會, 猥陳狂瞽之言, 辭拙而未盡於物情, 議迂而不適於實用, 首尾論列, 皆不足以仰備採擇之萬一, 而徒以繁蕪之說, 自犯干冒之辜, 律以邦憲, 罪無所逃. 伏願殿下, 恕其妄而察其愚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 土宜之貢, 豈可轉貿? 轉貿之故, 百弊俱出, 爾言誠有意見, 令道臣通同釐正, 求其可行, 永久無弊之方, 別具冊子以進, 則諸道亦當視此爲例, 廟堂措辭嚴飭, 分付該道.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월 19일(무인)

□ 창원(昌原)의 진상물 중 제주(濟州)에서 사와서 바치는 전복(全鰒) 진상(進上)의 폐단 등을 바로잡아 주기를 청하는 창원부사 이상도(李尙度)의 상소(上疏)

○ 창원부사(昌原府使) 이상도(李尙度)가 상소(上疏)하기를, "〈상략〉 대저 임토(任土)[418]의 제도는 우공(禹貢)에서 비롯되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근세에 토공(土貢)이 변하여 대동(大同)이 시행되어, 그 대동결(大同結)로 거둔 곡물로 전일 토공하던 물건을 사서 쓰고 있으니, 경공(京貢)[419]으로 책납(責納)하는 것 외에 또 제로(諸路)에 분배하여 값을 주고 해로(該路)의 물산을 사서 올리는 것이 지금의 진상(進上)입니다. 이는 비록 옛날의 공법(貢法)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래에서 위로 바치는 것이 또한 공(貢)이 되니, 임토라는 점에서는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도(本道) 동·남 두 연변(沿邊)은 바다에 의거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 어산(魚産)을 해연(海沿)에 부과하는 것이 어찌 토산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똑같은 연읍(沿邑)이라도 물산의 유무가 가지런하지 않고, 동일한 물산이라 하더라도 색품(色品)의 우열이 절로 다릅니다. 열읍(列邑)에 분배한 식(式)이 혹 생산되는 실제와 다르다면 전무(轉貿)하는 일을 형세상 면하지 못하는 바인데, 혹 전무하는 것이 더욱 멀어서 타도(他道)의 물산을 쓰는 경우에 이른다면, 어찌 임토의 본뜻에 크게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첨가(添價)가 점점 번다하고 과중해 지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저 전무하는 물건은 각기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하게 되면 전무가 되고, 본래의 곳에서 얻으면 토산물이 되니, 어찌 또한 각기 나오는 곳에 나아가서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임토의 규정을 보존하여 전무하는 낭비를 없애지 않는 것입니까? 신의 읍

418) 임토(任土): 각 지방의 실제 형편에 의거하여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말함. 《서경》〈우공(禹貢)〉 서(序)에 "토지의 특성에 따라 공물을 정한다[任土作貢]."라고 하였음.

419) 경공(京貢): 서울의 중앙 관아에 공물을 바치는 일.

으로써 말을 하자면, 해산물 9종 가운데 4종은 이 지방에서 채취하는 것이고, 5종은 전무하는 것인데, 지방에서 채취하는 것은 단지 원가(元價)를 쓰는데, 전무하는 것은 모두 첨가가 있습니다. 전무하는 5종은 곧 전복(全鰒)·인복(引鰒)·해삼(海蔘)·홍합(紅蛤)·문어(文魚)입니다. 경내에 채취하는 것이 없기에 우연(右沿)의 사천(泗川) 지역에 가서 사는데, 동도(同道) 연변의 여러 읍에 비록 이 5종의 토산물이 나는 곳이 있지만, 모두가 품질이 나빠서 진헌(進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사천에 와서 사기 때문에 사천의 해포(海浦)에는 이른바 진상도가(進上都家)라고 부르는 자가 있고, 도내(道內) 무역이 모두 이곳에 모이니, 사천 근처에서 나는 해삼과 홍합 제종(諸種)의 생산물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복(大鰒)은 사천에도 없으니, 도가(都家)의 어상(魚商)이 본래 제주(濟州)와 배를 통하여 흥정하여 전매(轉賣)하고 있습니다. 열읍이 순영(巡營)에 사서 바치는 것이 곧 이 복(鰒)이니, 때문에 경상 감영이 바치는 전복은 울산 전복[蔚鰒] 약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개 1첩(貼)도 본도에서 나오는 것이 없고, 모두가 제주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전복 1첩은 원가를 회감(會減)[420]하여 백미(白米) 1섬 5말로, 일찍이 본래 넉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전무하는 까닭에 신의 읍에서는 1첩당 첨가하는 것이 25냥이 되는데, 정채(情債)와 잡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좌연(左沿)의 제읍(諸邑)의 경우는 전무하는 것이 더욱 멀어서 첨가가 더욱 많아지는데, 이른바 첨가를 마련해 내는 규정이 읍마다 각기 달라서 혹은 빚을 놓은 이자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수렴(收斂)하는 창고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요컨대 모두 백성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정이 이미 진상하는 여러 물종(物種)에 대해 넉넉한 값으로 내려주고, 먼 길을 짐을 싣고 운반하는 일의 경우에도 대동으로 수량을 헤아려 회감한 것은 본래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 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지 봉진(封進)이 한번 토산물을 어그러지게 함으로 인하여 중간에 명목이 없는 낭비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받는 병통을 어찌 심히 한탄하며 애석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전복이 이와 같다면 다른 물종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도가 이와 같다면 제로 또한 헤아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폐단을 초래한 이유가 본래 이와 같으니, 조정에서 비록 폐단을 바로잡으라는 명이 있더라도 그 일이 진헌에 관계되기 때문에 관찰사가 감히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에 그 받들어 행하는 바가 열읍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타일러 경계하여 포민(浦民)으로 하여금 폐단이 없도록 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열읍이 포민으로 하여금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은 또한 첨가하는 한

420) 회감(會減):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

방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포민이 피해를 면하면 피해가 육지 백성들[陸民]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곧 서쪽을 보태려고 동쪽을 파(破)하는 것이니, 어찌 폐단을 바로잡는 데에 그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조금 변통을 가해야 하니, 진상하는 각종 물종들로 하여금 모두가 가품(佳品)이 생산되는 곳을 따라서 그 예(例)를 이환(移換)하게 한다면, 원가가 더해지는 바가 없고, 진헌이 줄어드는 바가 없어서 그 사이에 첨가의 낭비되는 것을 몇 천이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제로가 진상하는 전복 중 전무하는 제주산[濟産]이 100첩이라면, 그 가운데 토복(土鰒)으로 봉진하는 수요를 약제(略除)하여 본도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든 수를 제주에 복정(卜定)[421]하여 전일 제로가 진상하던 크고 작은 품양(品樣)대로 진상하되, 회감한 쌀을 따라서 이획(移劃)하고 싣고 운반하는 비용을 선로(船路)에 전부(轉付)하게 한다면, 이것은 모두 본래 제주산으로, 첩수가 비록 많지만 갖추기 곤란함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섬 안 1첩의 값을 비록 억측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1섬 5말의 원가로 계산해도 반드시 심히 서로 현격(懸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한차례 종전에 첨가하던 여러 읍에서 조금씩 거두어서 섬으로 실어서 보내어 부저(府儲)로 삼아 영구히 본가(本價)를 준비하게 하면 될 것이니, 어찌 편리한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한 생각건대, 제주의 풍속은 농공(農功)에 박하고 어리(漁利)에 후하여 전복을 캐는 백성이 배를 통하여 흥정하는 까닭은 단지 육지 읍의 곡물을 사서 돌아가 섬 백성들의 식량을 삼고자 해서이니, 지금 전복의 값으로 인하여 이획하는 미곡(米穀)이 절로 넉넉해지면 어찌 섬 백성을 풍족히 먹이는 하나의 방책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신이 다행히 두루 자문(諮問)하는 기회를 만나 외람되게 광고(狂瞽)한 말[422]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말이 졸렬하여 물정(物情)에 미진하고, 의론(議論)이 우원(迂遠)하여 실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열(論列)한 것이 모두 만분의 일도 우러러 채택하기에 부족한데, 한갓 번잡한 말로 스스로 죄를 범하였으니, 국법으로 조율(照律)할 경우 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망령됨을 용서하고 그 어리석음을 살펴주십시오.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중략〉 토산물의 공헌(貢獻)을 어찌 전무하게 할 수 있겠는가? 전무하기 때문에 온갖 폐단이 나오는 것이니, 너의 말이 참으로 일리가 있다. 관찰사로 하여금 통틀어서 같이 폐단을 바로잡게 하여, 시행할 만한 것을 찾고 영구히 폐

421) 복정(卜定): 필요한 물품 등을 책임 지워 납입하도록 하는 것.
422) 광고(狂瞽)한 말: 미친 사람과 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

단이 없을 방도를 별도로 책자를 갖추어 올리면, 제도(諸道) 또한 마땅히 이것을 보아 규례로 삼을 것이니, 묘당이 말을 만들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해당 도(道)에 분부할 것이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창원, 진상, 전복, 이상도, 상소.

❖ 嘉慶 四年 己未 二月 二十三日 辛亥

○ 以濟州牧使曺命楫狀啓, 進上靑橘, 未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李書九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3년(1799) 기미년 2월 23일(신해)

▢ 청귤(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진상하는 청귤(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서구(李書九)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청귤, 봉진, 대죄, 제주목사, 조명집.

❖ 嘉慶 四年 己未 二月 二十五日 癸丑

○ 己未二月二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諸承旨持公事入侍, 京畿監司·書狀官, 同爲入侍時, 藥房提調金文淳, 副提調李書九, 左副承旨金啓洛, 右副承旨鄭尙愚, 同副承旨兪漢寧, 假注書李允謙·李弘謙, 記注官承膺祚, 編修官洪樂游, 檢校直閣沈象奎, 京畿監司李在學, 書狀官曺錫中,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李周憲·李惟鑑·玄必采·安昌禧, 以次進伏訖. …… 上命畿伯進前, 敎曰, 爲詢民事, 每欲召見而未果矣. 向者輪症, 雖屬過去境, 而至今思惟, 如經一劫, 大抵畿內則歇於京中, 而兩南又歇於畿內云乎? 在學曰, 自西而京, 自京而南, 果是次次減歇云矣. 文淳曰, 臣見濟州上來人則以爲, 濟州, 亦有此症云矣.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2월 25일(계축)

▢임금이 경기감사 이재학(李在學)에게 지나간 돌림병의 상황을 묻는 자리에서 제주인(濟州人)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뢰는 약방제조 김문순(金文淳)의 계

○ 기미년 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경기감사와 서장관이 함께 입시할 때, 약방제조 김문순(金文淳), 부제조 이서구(李書九), 좌부승지 김계락(金啓洛), 우부승지 정상우(鄭尙愚), 동부승지 유한녕(兪漢寧), 가주서 이윤겸(李允謙)·이홍겸(李弘謙),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편수관 홍낙유(洪樂游), 검교직각 심상규(沈象奎), 경기감사 이재학, 서장관 조석중(曺錫中),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안창희(安昌禧)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경기감사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백성들의 일을 물어보기 위해서 매번 불러보고자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난번 돌림병은 비록 과거의 경우에 속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일겁(一劫)의 시간을 겪은 듯하다. 대체로 기내(畿內)는 경중(京中)보다 헐(歇)하였는데, 양남(兩南)은 또 기내보다 헐하였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재학[423]이 아뢰기를, "서쪽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남쪽으로 과연 차차 증세가 가벼웠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김문순[424]이 아뢰기를, "신이 제주(濟州)

423) 이재학(1745~1806): 본관 용인(龍仁). 자 성중(聖中). 호 지포(芝浦). 1770년(영조 46) 문과 급제. 대사간,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역임.

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들으니, '제주에도 이러한 증세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돌림병.

424) 김문순(1744~1811): 본관 안동(安東). 자 재인(在人). 1767년(영조 43) 문과 급제. 이조판서, 선혜청당상, 우참찬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三月 十九日 丁丑

○ 兪漢寧, 以備邊司言啓曰, 濟州近因連豐, 穀賤如土云, 故及此收聚, 儲之官庫, 以作不虞之備, 而儲穀數爻, 使之狀聞之意, 筵稟行會矣. 卽見該牧使曺命楫狀啓, 則以爲本島以關防重地, 初無軍糧之留意者, 已是邊情之疎虞, 本州各庫, 有五十同及利木逐年取殖者, 誠一痼弊, 甲寅, 牧使臣沈樂洙, 待豐作穀之意, 狀請蒙允矣. 今則年事稍稔, 民力少紓, 其中三十同, 輕價折定, 先備皮穀二千五百石, 戶庫·工庫留在之物, 換取皮穀六百四十六石, 又以他條拮据者皮穀四百八十四石零, 甲寅舊還中隨便許納者皮穀二千三石零, 米九百九十五石零, 爲先儲留, 次次加備, 三邑賑庫司倉會付原還折米, 爲一萬七千六百二十三石零, 補民庫會外米五千四百八十(十)二石零, 堅守半留之法, 而但以瘴濕之地, 穀有腐傷之慮, 次第改色, 用舊蓄新, 補民司倉穀折米九千七百三十五石零, 以盡分取耗, 賑倉折米一萬三千三百七十石零, 半留半分, 則巡還種糧, 綽綽有裕, 餘在半留折米及向所儲留之穀, 竝爲計之, 合米皮穀爲一萬三千四百三十二石零, 今方鳩聚材瓦, 內外倉舍, 亟期造成, 堅束藏置, 民無勒受之弊, 庫有恒留之穀, 請令廟堂稟旨分付矣. 今以時在穀數, 通計分留, 留爲一萬三千四百餘石, 分爲一萬六千四百餘石, 若能嚴其典守, 完其倉舍, 俾無腐傷與虛留之弊, 則雖値如干歉荒之歲, 可以有恃, 依此施行之意分付. 嗣後勤慢, 重溟雖曰杳邈, 觀於來頭, 其所立判, 反有易於陸邑, 以此意一體嚴飭,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3월 19일(정축)

▢ 제주(濟州) 3읍 내 진고(賑庫) 등의 창고를 완비(完備)하여 곡물(穀物)을 비축하게 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유한녕(兪漢寧)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가 근래 연속된 풍년으로 곡물(穀物)이 천하기가 흙과 같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때에 이르러 거두어 모아 관고(官庫)에 저축하여 뜻밖의 대비를 하고, 저축한 곡물의 수효를 장계로 보고하라는 뜻으로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 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목사 조명집(曺命楫)의 장계를 보니, '본도(本島)가 관방(關防)의 중요한 지역이면서 애초에 군량에 유의(留意)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변방의 사정에 대해 소홀히 한 것이니, 본주(本州) 각 창고에서 50동(同) 및 이목(利木)[425]을 가지고 해마다 취

425) 이목(利木): 이자로 주거나 받는 무명.

식(取殖)하는 것이 실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기에, 갑인년(1794)에 목사 심낙수(沈樂洙)가 풍년이 되기를 기다려 곡식을 마련하는 뜻으로 장계로 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어 민력(民力)이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 그 가운데 30동은 경가(輕價)로 절정(折定)[426]하여 먼저 피곡(皮穀) 2,500섬을 마련하고, 호고(戶庫)·공고(工庫)에 남아 있는 것은 피곡 646섬으로 환취(換取)하고, 또 다른 조목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곡 484섬 남짓, 갑인년 구환(舊還) 중 편의에 따라 납부하도록 한 피곡 2,003섬 남짓, 쌀 995섬 남짓을 우선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차차 더 마련하면 3읍의 진고(賑庫)와 사창(司倉)에 회부(會付)한 원환곡(原還穀)의 절미(折米)는 17,623섬 남짓이 되고, 보민고(補民庫)의 회외미(會外米)[427]는 5,482섬 남짓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절반을 유고(留庫)하는 법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瘴氣)와 습기가 있는 지역이기에 곡물이 썩거나 상할 염려가 있으니, 차례대로 개색(改色)[428]하여 묵은 것을 쓰고 새것을 비축하되, 보민고와 사창의 곡물 절미 9,735섬 남짓을 모두 분급(分給)하여 취모(取耗)하고, 진창(賑倉)의 절미 13,370섬 남짓을 절반은 유고하고 절반은 분급하면, 순환(巡還)[429]하는 종곡(種穀)과 양곡(糧穀)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절반의 유고 절미와 지난번 저축해둔 곡물을 아울러 계산하면, 쌀과 피곡의 합이 13,432섬 남짓이 되는데, 지금 당장 재목과 기와를 모아서 내외 창사(倉舍)를 속히 조성하여 단단히 단속하여 보관하게 한다면, 백성들에게는 강제로 받아내는 폐단이 없을 것이고, 창고에는 항상 보관하는 곡물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곡물의 수량으로 분급한 것과 유고한 것을 통계하면, 유고한 것은 13,400여 섬이 되고, 분급한 것은 16,400여 섬이 됩니다. 만약에 능히 그 전수(典守)[430]를 엄히 하고 그 창사를 완비(完備)하여 썩어 상하거나 허류(虛留)[431]하는 폐단을 없게 한다면, 비록 약간의 흉년이 든 해를 당하더라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니, 이대로 시행할 뜻을 분부하십시오. 이후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먼 바다여서 비록 아득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에서 본다면 판가름 나는 것이 도리어 육지 읍보

426) 절정(折定): 환산하여 정함.
427) 회외미(會外米): 회계 장부에 회록(會錄)하고 남은 쌀.
428) 개색(改色): 조운(漕運)하는 과정에서 침수된 미곡 또는 오래된 군량미, 진휼청(賑恤廳)이나 관창(官倉)의 묵은 곡식 등을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수량만큼 새로운 미곡으로 보충하게 하는 것.
429) 순환(巡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환자(還上).
430) 전수(典守): 맡아서 관리함. 주관(主管)하여 지키는 것.
431) 허류(虛留): 실제로 창고에 없으나 장부상의 거짓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곡물을 말함.

다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일체 엄히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3읍, 진고, 사창, 곡물, 유고, 분급.

❖ 嘉慶 四年 己未 三月 二十八日 丙戌

○ 行大司諫閔台爀, 司諫曺允遂, 正言尹涵·李敬參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而, 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憸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爾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3월 28일(병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민태혁(閔台爀) 등의 계

○ 행대사간 민태혁(閔台爀)[432], 사간 조윤수(曺允遂)[433], 정언 윤함(尹涵)·이경참(李敬參)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34]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

432) 민태혁(1746~1806): 본관 여흥(驪興). 자 자삼(子三). 1779년(정조 3) 문과 급제. 함경도관찰사, 예조판서, 우참찬 역임.

433) 조윤수(1753~?): 본관 창녕(昌寧). 1785년(정조 9) 문과 급제. 남포현감, 집의, 대사간 역임.

434)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35]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

435)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三月 三十日 戊子

○ 咸悅縣監李寅采疏曰, …… 臣又伏念, 本縣以內浦界首孔路, 使星之南下者, 半由此過, 而北自林川郡境, 越津抵邑治, 爲二十五里, 自邑治南距臨陂縣界, 又爲十五里. 前後四十里之間, 道路之修治, 馬軍之陪把, 以至於船隻之捉待, 無不用民之力, 而使星入縣, 則例不免下屬徵求之弊, 故所謂情債浮費, 皆取辦於民庫. 濟州歲貢馬及黑牛上來時, 每間年一次, 取路於本縣, 故牛馬牽軍價, 亦出於民庫, …… 民庫旣竭, 則輒收斂於民結, 而自此以後, 邑民之貽弊, 必將逐年而增加矣. 若此不已, 不出十年, 民將盡散, 邑不爲邑, 而目今救弊之道, 唯有一策. 使星之往來也, 自林川歷韓山, 越津而抵臨陂, 則路不甚迂, 濟州貢馬·黑牛之上來也, 自臨陂越津, 由韓山而向林川, 則其路亦然. 從今以後, 皆由此作路, 而本縣界首邑之役, 特爲革罷, 則一年之內, 民庫所費, 蠲除不少, 而科外結斂之弊, 自可以永祛矣. …… 伏願以此分付於湖西南兩道臣, 使之往復, 從便改路, 則本縣之民, 庶可以少蘇, 而不至於難保矣. …… 凡臣所陳, 淺陋猥瑣, 無足採擇, 而適叨近民之官, 目見切時之弊, 方當可言之會, 不敢不以聞, 惟聖明恕其僭而察其愚, 幸甚.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 勿定內浦界首邑事, 令廟堂分付兩湖伯, 其便否, 同議狀聞事, 分付.

❖ 정조 23년(1799) 기미년 3월 30일(무자)

▢ 제주(濟州)에서 공마(貢馬)와 흑우(黑牛)가 올라올 때 함열현(咸悅縣)을 경유하지 말게 할 것 등을 청하는 함열현감 이인채(李寅采)의 상소(上疏)

○ 함열현감(咸悅縣監) 이인채(李寅采)가 상소(上疏)하기를, "〈상략〉 신이 또 삼가 생각건대, 본현(本縣)은 내포(內浦)[436]와 경계에 있는 계수읍(界首邑)[437]으로 큰 길가에 있기에 사신(使臣)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자는 절반이 이곳을 경유하여 지나가는데, 북쪽으로는 임천군(林川郡)의 경계에서 나루를 건너 읍치(邑治)에 이르기까지 25리가 되고, 읍치에서 남쪽으로 임피현(臨陂縣)까지의 거리가 또 15리가 됩니다. 앞뒤로 40리 사이에 도로의 수치(修治)와 마군(馬軍)의 배파(陪把)

436) 내포(內浦):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이 수로를 따라 포구가 발달된 지역'을 뜻하는데, 산이 별로 없이 구릉이 많고, 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음.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현재 충청남도의 홍성,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아산의 일부 지역이 여기에 속함. 여기서는 충청도를 일컬음.

437) 계수읍(界首邑): 도계(道界)의 첫머리에 위치한 고을이라는 뜻으로, 도(道)와 관찰사제(觀察使制)가 확립되기 이전 지방의 중심적 행정단위로 기능했던 계수관(界首官)과는 다름.

에서 선척을 잡아다 대령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백성의 힘을 쓰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현에 들어오면 으레 하속(下屬)이 돈이나 곡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폐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정채(情債)와 부비(浮費)[438]를 모두 민고(民庫)에서 취판(取辦)하고 있습니다. 제주(濟州)에서 세공마(歲貢馬)와 흑우(黑牛)가 올라올 때 매양 격년으로 한 차례씩 본현으로 경로를 취합니다. 때문에 우마 견군가(牽軍價) 또한 민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민고가 고갈되면 번번이 민결(民結)에서 거두는데, 이후로는 읍민(邑民)에 끼치는 폐단이 반드시 해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10년을 넘기지 못해서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읍은 읍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폐단을 구제할 방도는 오직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사신이 오고 갈 때 임천(林川)에서 한산(韓山)을 거쳐 나루를 건너 임피(臨陂)에 이른다면 길이 심히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주에서 공마(貢馬)와 흑우가 올라올 때는 임피에서 나루를 건너 한산을 경유하여 임천으로 향한다면 그 길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모두 이로 말미암아 길을 정하여 본현의 계수읍의 역(役)을 특별히 혁파한다면 1년 안에 민고의 비용을 견감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고, 과외(科外)로 결렴(結斂)[439]하는 폐단을 절로 영구히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삼가 바라건대, 이것으로 호서와 호남 두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서로 소통하여 편리한 대로 길을 고치게 한다면 본현의 백성은 조금 소생하게 되어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략〉 신이 아뢴 바는 천박하고 자질구레하여 채택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지만 마침 백성을 가까이 하는 관직을 맡아 눈으로 시절의 절실한 폐단을 목격하고, 바야흐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당하였기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명(聖明)께서는 그 참람함을 용서하고 신의 어리석음을 살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중략〉 내포의 계수읍으로 정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묘당으로 하여금 호서와 호남 두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그 편리함의 여부를 함께 의논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인채, 상소, 함열, 공마, 흑우.

---

438) 부비(浮費):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소요되는 비용. 물건이나 우마(牛馬)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일컬음.

439) 결렴(結斂): 토지에서 결(結)을 단위로 거두는 정규세에 덧붙여 각종 명목으로 돈이나 곡식 및 현물을 거두어들이던 일.

❖ 嘉慶 四年 己未 四月 九日 丁酉

○ 以濟州防禦使曺命楫狀啓, 所管三邑倅農務冊子上送事, 傳于李翊模曰, 遠如濟州, 已上來, 而一二道外, 尙無皁白, 此亦紀綱所在, 諸道道臣推考, 其中京畿道臣, 越俸一等.

❖ 정조 23년(1799) 기미년 4월 9일(정유)

▢ 농무책자(農務冊子)를 올려보내는 일과 관련하여 제주(濟州)3읍의 사례를 들어 제도(諸道) 관찰사의 추고(推考) 등을 명하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狀啓)에, 관할하는 3읍 수령의 농무책자(農務冊子)를 올려보낸 일과 관련하여 이익모(李翊模)에게 전교하기를, "제주(濟州) 같이 먼 곳에서도 이미 올라왔는데, 한두 도(道) 외에는 아직도 보고가 없으니, 이 또한 기강이 달린 문제이다. 제도(諸道)의 관찰사를 추고(推考)하고, 그 가운데 경기도관찰사는 월봉(越俸) 1등(等)에 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3읍, 농무책자, 조명집, 장계.

❖ 嘉慶 四年 己未 四月 二十三日 辛亥

○ 司諫曺允遂啓曰, …… 噫嘻,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4월 23일(신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조윤수(曺允遂)의 계

○ 사간 조윤수(曺允遂)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40]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440)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41]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441)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四月 二十四日 壬子

○ 司諫曺允遂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4월 24일(임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조윤수(曺允遂)의 계

○ 사간 조윤수(曺允遂)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五月 二日 己未

○ 己未五月初二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 下直守令同爲入侍時, 行都承旨李晩秀, 行左承旨金熙朝, 右承旨洪義浩, 左副承旨金載翼, 右副承旨金翰東, 記事官柳台佐·金啓溫·李存秀·洪奭周, 驪州牧使李潤慶, 以次進伏訖. …… 上曰, 公事讀奏, 可也. 熙朝讀奏 …… 濟州牧使曺命楫狀啓, 勿待罪有旨祗受事.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5월 2일(기미)

▢ 행좌승지 김희조(金熙朝)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대죄(待罪)하지 말라는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았다는 일을 읽어 아룀

○ 기미년 5월 2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하직수령이 함께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만수(李晩秀), 행좌승지 김희조(金熙朝), 우승지 홍의호(洪義浩), 좌부승지 김재익(金載翼), 우부승지 김한동(金翰東), 기사관 유태좌(柳台佐)·김계온(金啓溫)·이존수(李存秀)·홍석주(洪奭周), 여주목사 이윤경(李潤慶)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公事)를 읽어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김희조[442]가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대죄(待罪)하지 말라는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았다는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대죄.

442) 김희조(1750~?): 본관 청풍(淸風).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五月 五日 壬戌

○ 己未五月初五日卯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藥房都提調李秉模, 副提調李集斗, 左副承旨金祖淳, 同副承旨沈象奎, 記事官金啓溫, 假注書李游夏, 事變假注書弼聖賚, 記事官李存秀·洪奭周, 右議政李時秀, 行上護軍鄭民始, 行大護軍李邦一, 戶曹判書趙鎭寬, 禮曹判書徐龍輔, 行護軍徐有大·申大顯·李漢豐, 行左承旨李書九, 大司諫申獻朝,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李周憲·朴春源·李惟鑑·玄必采·丁希泰·吳天根, 以次進伏訖. …… 秉模曰, 卽見濟州牧使曺命楫報本司辭緣, 則以爲, 本營各庫反利木三十同, 雖已推移換穀, 此是公私補用之物, 如無給代之資, 則薄邑殘況, 恐難成樣, 以其還分耗條中折米, 限百石除給爲辭矣. 所謂反利木, 旣是公私需用之資, 而今旣作穀, 則百石耗條之請得, 事勢似然, 依所報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獻朝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5월 5일(임술)

▢ 변통하여 곡물로 바꾼 반리목(反利木) 대신 환분(還分)에 대한 모조(耗條)를 제급(除給)해 주기를 청하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대해 보고한 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이병모(李秉模)의 계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신헌조(申獻朝)의 계

○ 기미년 5월 5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약방도제조 이병모(李秉模), 부제조 이집두(李集斗), 좌부승지 김조순(金祖淳), 동부승지 심상규(沈象奎), 기사관 김계온(金啓溫), 가주서 이유하(李游夏), 사변가주서 필성래(弼聖賚), 기사관 이존수(李存秀)·홍석주(洪奭周),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행상호군 정민시(鄭民始), 행대호군 이방일(李邦一),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예조판서 서용보(徐龍輔),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신대현(申大顯)·이한풍(李漢豐), 행좌승지 이서구(李書九), 대사간 신헌조(申獻朝),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이주헌(李周憲)·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정희태(丁希泰)·오천근(吳天

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이 본사(本司)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본영(本營) 각고(各庫)의 반리목(反利木) 30동(同)을 비록 이미 변통하여 곡물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사(公私)의 수용(需用)을 보충하는 물건이니, 만약 급대(給代)할 밑천이 없다면 쇠잔한 고을의 잔황(殘況)이 모양새를 이루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환분(還分)에 대한 모조(耗條) 가운데 절미(折米)로 100섬에 한하여 제급(除給)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반리목은 곧 공사 수용의 밑천인데 지금 이미 곡물로 만들었다면 100섬의 모조를 얻기를 청한 것은 일의 형세상 그럴 듯합니다.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중략〉 신헌조[443]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반리목,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443) 신헌조(1752~?): 본관 평산(平山). 자 여가(汝可).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五月 七日 甲子

○ 沈象奎, 以司僕寺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洪三弼, 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3년(1799) 기미년 5월 7일(갑자)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홍삼필(洪三弼)의 체임진상마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심상규(沈象奎)가 사복시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홍삼필(洪三弼)의 체임진상마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홍삼필, 진상마.

❖ 嘉慶 四年 己未 五月 十二日 己巳

○ 正言李瑞朝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 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幽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5월 12일(기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이서조(李瑞朝)의 계

○ 정언 이서조(李瑞朝)[444]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45]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444) 이서조(1730~?): 본관 전주(全州).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445)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46]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46)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五月 二十二日 己卯

○ 己未五月二十二日卯時, 上御熙政堂. 諸承旨持公事入侍, 藥房三提調, 時原任大臣·閣臣·承候大臣·備局堂上追後引見入侍時, 行都承旨李集斗, 左承旨洪義浩, 左副承旨鄭尙愚, 右副承旨沈象奎, 同副承旨徐英輔, 記事官柳台佐·金啓溫·李存秀·洪奭周, 有司堂上李書九, 以次進伏訖. …… 獻朝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夬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5월 22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신헌조(申獻朝) 등의 계

○ 기미년 5월 22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약방의 세 제조, 시원임대신·각신·승후대신·비국당상이 추후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집두(李集斗), 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좌부승지 정상우(鄭尙愚), 우부승지 심상규(沈象奎), 동부승지 서영보(徐英輔), 기사관 유태좌(柳台佐)·김계온(金啓溫)·이존수(李存秀)·홍석주(洪奭周), 유사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신헌조(申獻朝)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五月 二十五日 壬午

○ 己未五月二十五日卯時, 上御熙政堂. 常參兼行次對入侍時, 行都承旨李集斗, 左承旨洪義浩, 右承旨鄭尙愚, 左副承旨沈象奎, 右副承旨徐英輔, 同副承旨申大尹. …… 以次就位. …… 獻朝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5월 25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신헌조(申獻朝) 등의 계

○ 기미년 5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상참(常參)에 차대를 겸해서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집두(李集斗), 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우승지 정상우(鄭尙愚), 좌부승지 심상규(沈象奎), 우부승지 서영보(徐英輔), 동부승지 신대윤(申大尹)이 〈중략〉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갔다. 〈중략〉 신헌조(申獻朝)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六月 三日 庚寅

○ 司諫李貞運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而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險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詘,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揑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6월 3일(경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정운(李貞運)의 계

○ 사간 이정운(李貞運)[447]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48]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447) 이정운(1747~1812): 본관 함평(咸平). 자 중희(仲熙). 1786년(정조 10) 문과 급제.

448)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49]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49)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六月 九日 丙申

○ 己未六月初九日卯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副承旨鄭尙愚, 假注書李允謙, 事變假注書弼聖賚, 記注官金景煥·承膺祚, 左議政李秉模, 行左參贊鄭民始, 行吏曹判書金文淳, 刑曹判書李祖源, 兵曹判書李在學, 行大護軍李邦一, 戶曹判書趙鎭寬, 禮曹判書徐龍輔, 行護軍徐有大·申大顯, 行大司諫李集斗, 行護軍李書九, 掌令洪樂游·徐有聞, 修撰曺允遂, 以次進伏訖. …… 集斗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6월 9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이집두(李集斗)의 계

○ 기미년 6월 9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부승지 정상우(鄭尙愚),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필성래(弼聖賚),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좌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좌참찬 정민시(鄭民始), 행이조판서 김문순(金文淳), 형조판서 이조원(李祖源), 병조판서 이재학(李在學), 행대호군 이방일(李邦一),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예조판서 서용보(徐龍輔),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신대현(申大顯), 행대사간 이집두(李集斗), 행호군 이서구(李書九), 장령 홍낙유(洪樂游)·서유문(徐有聞), 수찬 조윤수(曺允遂)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집두[450]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50) 이집두(1744~1820): 본관 경주(慶州). 자 중휘(仲輝). 호 파서(琶西)·구학(臞鶴).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한성판윤, 공조판서, 예조판서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六月 二十二日 己酉

○ 己未六月二十二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承旨鄭尙愚, 右承旨尹光顔, 同副承旨兪岳柱, 假注書李允謙, 事變假注書弼聖賚, 左議政李秉模, 行左參贊鄭民始, 行大護軍李邦一, 戶曹判書趙鎭寬, 禮曹判書徐龍輔, 行護軍徐有大·李漢豐, 吏曹參判李書九, 校理金熙周, 以次進伏訖. …… 光顔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6월 22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우승지 윤광안(尹光顔)의 계

○ 기미년 6월 22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승지 정상우(鄭尙愚), 우승지 윤광안(尹光顔), 동부승지 유악주(兪岳柱),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필성래(弼聖賚), 좌의정 이병모(李秉模), 행좌참찬 정민시(鄭民始), 행대호군 이방일(李邦一),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예조판서 서용보(徐龍輔), 행호군 서유대(徐有大)·이한풍(李漢豐), 이조참판 이서구(李書九), 교리 김희주(金熙周)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윤광안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六月 二十三日 庚戌

○ 司諫李萬榮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院曰, 不允.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6월 23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만영(李萬榮)의 계

○ 사간 이만영(李萬榮)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一日 丁巳

○ 司諫李萬榮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揑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1일(정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만영(李萬榮)의 계

○ 사간 이만영(李萬榮)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51]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451)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52]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52)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三日 己未

○ 司諫李萬榮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3일(기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만영(李萬榮)의 계

○ 사간 이만영(李萬榮)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五日 辛丑[辛酉]

○ 尹光普,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一匹到始興逃逸, 二匹到津頭病留, 五十四匹華城親軍衛分給, 實納馬一百四十一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5일(신축[신유])

▢ 제주(濟州) 선운 세공마(先運歲貢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윤광보(尹光普)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세공마(先運歲貢馬) 200필 안에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1필은 중로(中路)에 이르러서 죽고, 1필은 시흥(始興)에 이르러서 도망가고, 2필은 진두(津頭)에 이르러서 병이 나서 묵고 있고, 54필은 화성(華城) 친군위(親軍衛)에 나누어 주어서 실제로 바치는 말 141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별단.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五日 辛丑[辛酉]

○ 己未七月初五日午時, 上御便殿. 右承旨入侍時, 右承旨洪義浩, 記事官柳台佐, 記注官金景煥·承膺祚, 以次進伏訖. …… 又下敎曰, 承史出去, 濟州歲貢馬頒賜, 依例祗受, 可也. 命退, 承史以次退出.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5일(신축[신유])

▢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에게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의 반사(頒賜)를 공경히 받도록 하라는 전교

○ 기미년 7월 5일 오시에 임금이 편전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홍의호(洪義浩), 기사관 유태좌(柳台佐),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또 하교하기를,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은 나가서 제주(濟州) 세공마(歲貢馬)의 반사(頒賜)[453]를 규례대로 공경히 받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 주제어: 승지, 사관, 세공마, 반사.

453) 반사(頒賜): 나누어 주는 것.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八日 甲辰[甲子]

○ 洪義浩,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一匹船中故失, 一匹到中路故失, 實納馬八十六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8일(갑진[갑자])

▢ 제주(濟州) 후운 연례진상마 등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홍의호(洪義浩)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연례진상마 8필, 삼명일 진상마 60필, 흉구노태마 20필, 합 88필 안에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1필은 중로(中路)에 이르러 죽어서 실제로 바치는 말 86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노태마, 별단.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十三日 己巳

○ 己未七月十三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李冕膺, 左承旨洪義浩, 左副承旨兪漢寧, 右副承旨徐英輔, 同副承旨金羲淳, 記事官柳台佐,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景煥·承膺祚, 檢校待敎李存秀, 以次進伏訖. …… 冕膺讀奏水原留守徐有隣狀啓頒敎文祗受事, …… 濟州防禦使曺命楫狀啓農形事.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13일(기사)

▢ 행도승지 이면응(李冕膺)이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狀啓)에 농사 형편에 관한 일을 읽어 아룀

○ 기미년 7월 13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면응(李冕膺), 좌승지 홍의호(洪義浩), 좌부승지 유한녕(兪漢寧), 우부승지 서영보(徐英輔), 동부승지 김희순(金羲淳), 기사관 유태좌(柳台佐),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면응이 수원유수 서유린의 장계(狀啓)에 반교문(頒敎文)을 공경히 받은 일과 〈중략〉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에 농사 형편에 관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제주방어사, 조명집, 장계, 농사형편.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十九日 乙亥

○ 金羲淳, 以內醫院都提調意啓曰, 濟州牧年例封進藥材十三種內, 靑皮·枳殼·枳實等三種, 全數闕封, 三種之材, 初非稀貴之物, 商舶私貿, 依舊絡續, 而莫重御藥所用, 連年闕封者, 事體道理, 俱極可駭, 該牧使曺命楫, 爲先罷職, 其罪狀, 令該府拿問重勘, 三種藥材, 各別極擇, 從速準數封進之意, 嚴飭分付,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19일(을해)

▢ 연례로 봉진(封進)하는 약재(藥材)를 궐봉(闕封)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파직과 중벌을 청하는 내의원의 계

○ 김희순(金羲淳)[454]이 내의원 도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濟州牧)에서 연례로 봉진(封進)하는 약재(藥材) 13종 가운데 청피(靑皮)·지각(枳殼)·지실(枳實) 등 3종류에 대해 전수 궐봉(闕封)하였습니다. 3종의 약재는 애초에 희귀한 물건이 아니고, 상선의 사사로운 무역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약(御藥)에 쓰이는 막중한 것을 여러 해를 계속해서 궐봉하는 것은 일의 체통이나 도리에 있어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목사 조명집(曺命楫)을 우선 파직하고, 그 죄상을 해당 부로 하여금 잡아다가 신문하여 중벌에 처하되, 3종의 약재는 각별히 가려서 신속하게 수에 맞추어 봉진할 뜻을 엄히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455]

△ 주제어: 봉진, 약재, 궐봉, 조명집, 파직.

---

454) 김희순(1757~1821): 본관 안동(安東). 자 태초(太初). 호 산목(山木)·경원(景源). 시호 문간(文簡).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광주유수, 이조판서, 경기도관찰사 역임.

455)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3년 7월 1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十九日 乙亥

○ 己未七月十九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李冕膺, 行左承旨金履翼, 右承旨洪義浩, 右副承旨徐英輔, 同副承旨金羲淳, 假注書洪命周·呂東植, 記注官金景煥·承膺祚, 檢校直閣沈象奎, 以次進伏訖. …… 英輔曰, 卽伏見濟州牧使曺命楫狀啓, 則以進上所封靑皮·枳殼·枳實, 不得封進爲辭矣. 三種藥料, 自是緊需, 商舶私賣, 聞亦如前, 而守臣則每以稀結闕封之意, 無難登聞, 揆以事體, 萬萬駭然. 原狀啓今方還下送, 自本院亦當草記請勘, 而該牧使曺命楫, 爲先從重推考,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19일(을해)

▢ 봉진(封進)하는 약재(藥材)를 궐봉(闕封)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에 대한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우부승지 서영보(徐英輔)의 계

○ 기미년 7월 19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면응(李冕膺), 행좌승지 김이익(金履翼), 우승지 홍의호(洪義浩), 우부승지 서영보(徐英輔), 동부승지 김희순(金羲淳), 가주서 홍명주(洪命周)·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검교직각 심상규(沈象奎)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영보[456]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계를 보니, '진상으로 봉진(封進)해야 할 청피(靑皮)·지각(枳殼)·지실(枳實)을 봉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종의 약료는 본래 긴요하게 쓰여서 상선이 사사로이 판매하는 것이 듣자니 또한 여전과 같다고는 하지만, 수신(守臣)이 매번 결실이 드물다고 하여 궐봉(闕封)하기를 어렵지 않게 장계로 보고하고 있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원래의 장계를 지금 막 도로 내려보냈고, 본원(本院)에서 또한 당연히 초기(草記)를 올려 죄를 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 조명집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봉진, 약재, 궐봉, 조명집, 추고.

---

456) 서영보(1757~1821): 본관 대구(大丘). 자 여방(汝芳). 1782년(정조 6) 무과 급제. 황해도수군절도사, 전라도병마절도사, 훈련대장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二十日 丙子

○ 備邊司薦望, 以林著喆爲濟州牧使, 李羲甲爲義州府尹.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20일(병자)

▢ 임시철(林著喆)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제수함

○ 비변사가 천망(薦望)하여 임시철(林著喆)[457]을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이희갑(李羲甲)을 의주부윤으로 삼았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임시철, 천망.

457) 임시철(1740~1805): 본관 나주(羅州). 자 성중(聖仲). 시호 간헌(簡憲). 1771년(영조 47) 문과 급제. 제주목사(1799.12.체임)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二十日 丙子

○ 有政. 吏批, 行判書金文淳進, 參判閔台燁牌不進, 參義李翊模式暇, 右副承旨金羲淳進. …… 濟州牧使單林薈喆,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20일(병자)

▢ 임시철(林薈喆)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단망(單望)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행판서 김문순(金文淳)이 나왔고, 참판 민태혁(閔台爀)이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참의 이익모(李翊模)는 식가(式暇)[458]이고, 우부승지 김희순(金羲淳)이 나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임시철(林薈喆)을 단망(單望)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임시철, 단망.

458) 식가(式暇): 법으로 정해진 정규 휴가를 말함. 근친(覲親), 혼가(婚嫁), 친병(親病), 제사 등에 휴가를 주는 규정이 있었음.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二十日 丙子

○ 洪義浩, 以義禁府言啓曰, 濟州前牧使曺命楫, 令該府拿問重勘事, 傳旨啓下矣. 曺命楫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20일(병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을 본부 서리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홍의호(洪義浩)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을 해당 부(府)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訊問)하여 중죄에 처하는 일에 대해 전지(傳旨)를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조명집이 지금 임소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 서리를 보내어 교대한 후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신문, 중죄.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二十日 丙子

○ 己未七月二十日卯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入侍時, 藥房都提調李時秀, 提調李得臣, 副提調徐英輔, 假注書洪命周, 記注官金景煥·承膺祚,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李周憲·李惟鑑·玄必采·吳天根·朴春源, 以次進伏訖. …… 仍敎曰, 灣尹何至今不爲赴任乎? 時秀曰, 其間似已到任, 而未得詳聞矣. 上曰, 此事誠駭然矣. 近來紀綱, 雖曰解弛, 燥濕占便, 何敢乃爾? 辭狀之呈, 限以十度或二十度之說, 不無入聞者, 而向因承宣之提奏, 予果有責敎之及於上使, 使之往諭矣. 元來邊地守令, 不爲赴任, 則有卽其地充軍之法, 義州亦邊倅也. 如此之類, 決不可仍置, 方有見窠差送, 好矣. 秉模曰, 濟州乎? 上曰, 然矣. 濟州牧事, 亦甚駭然矣. 靑皮等藥料, 本非稀貴之物. 藉曰不足, 亦豈有不得一二斤之理乎? 雖一斤進之而曰不足, 猶或可也. 全數闕封, 豈成道理? 時秀曰, 近於外間, 亦未嘗無此等藥料, 則私貿之往來, 亦可知矣. 自本院已爲嚴飭, 而尙且如此, 誠萬萬駭然矣. 上曰, 非特灣尹而已. 向有侍從守令, 以墮馬頓遞者, 而其後京職, 依舊行公, 寧有如許道理乎? 今雖稍久, 不可仍置, 濟州瓜近邊將, 作窠差送, 下敎前勿許遞免, 可也.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20일(병자)

▢ 의주부윤(義州府尹)에 부임하지 않은 자와 시종신(侍從臣)으로 수령에 제수되었지만 부임하지 않은 자를 제주(濟州)에 자리가 비어있거나 임기가 거의 찬 변장(邊將)으로 자리를 비워 차송(差送)하라는 전교

○ 기미년 7월 20일 묘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기 위해 입시할 때, 약방도제조 이시수(李時秀), 제조 이득신(李得臣), 부제조 서영보(徐英輔), 가주서 홍명주(洪命周),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천근(吳天根)·박춘원(朴春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하교하기를, "의주부윤(義州府尹)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부임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그 사이에 이미 임지에 도착한 듯한데, 아직 자세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실로 놀랍다. 근래 기강이 비록 해이해졌다고 하지만 마른자리 진자리를 편리한 대로 차지하는 것을 어찌 감히 이와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사장(辭狀)을 올리는 것

을 10번 혹은 20번까지 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번 승선(承宣)의 제주(提奏)로 인하여 내가 마침내 책망하는 교지(敎旨)를 상사(上使)에게 내려 가서 효유(曉諭)하도록 하였다. 본래 변방의 수령은 부임하지 않으면 곧 그곳에 충군(充軍)하는 법이 있다. 의주부윤 또한 변방의 수령이다. 이와 같은 부류는 결코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지금 비어있는 자리로 차송(差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제주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제주목(濟州牧)의 일 또한 심히 놀랍다. 청피(靑皮) 등의 약료는 본래 희귀한 물건이 아니다. 가령 말하기를,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1, 2근을 얻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비록 1근이라도 올리면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전수를 궐봉(闕封)하는 것이 어찌 도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시수가 아뢰기를, "근래 외간(外間)에도 또한 일찍이 이러한 약재가 없지 않으니, 사무(私貿)의 왕래를 또한 알만 합니다. 본원(本院)에서 이미 엄히 타일러 경계하였는데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으니 실로 매우 놀랍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단 의주부윤 뿐만이 아니다. 지난번 시종신(侍從臣)으로 수령에 제수된 자가 있었는데, 말에서 떨어진 탈(頉)로써 체임한 자가 있었는데, 그 후 경직(京職)에서 예전처럼 공무를 보았으니,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단 말인가? 지금 비록 조금 오래되었지만 그대로 둘 수 없다. 제주에 임기가 거의 찬 변장(邊將)에 자리를 비워 차송하고, 하교 전에 체면(遞免)[459]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460] 〈하략〉.

△ 주제어: 의주부윤, 부임, 사장, 변장, 차송.

459) 체면(遞免): 벼슬을 갈아 바꾸어 물러나게 함.
460) 이상은 《정조실록》 정조 23년 7월 2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二十二日 戊寅

○ 獻納南履翼, 正言鄭澣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22일(무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남이익(南履翼) 등의 계

○ 헌납 남이익(南履翼)[461], 정언 정한(鄭澣)[462]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461) 남이익(1757~?): 본관 의령(宜寧). 자 공려(公勵).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462) 정한(1742~1806): 본관 동래(東萊). 자 여해(汝海).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七月 二十八日 乙卯[甲申]

○ 己未七月二十八日午時, 上御便殿. 右承旨入侍時, 右承旨洪義浩,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景煥·承膺祚, 以次進伏訖. …… 命書傳敎曰, 耽羅漂倭, 雖有由陸順付之乙未前例云, 而從水道旣有其路, 依狀請星火發送事, 分付. 嚴飭沿邑厚饋, 俾知柔遠之意.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3년(1799) 기미년 7월 28일(을묘[갑신])

▢ 탐라(耽羅)에 표류(漂流)해 온 왜인(倭人)을 뱃길로 속히 떠나보내도록 분부하라는 전교

○ 기미년 7월 28일 오시에 임금이 편전으로 나아갔다. 우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홍의호(洪義浩),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탐라(耽羅)에 표류(漂流)해 온 왜인(倭人)에 대해 비록 육지를 경유하여 돌아가는 인편(人便)에 부친 을미년의 전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뱃길을 따라 이미 그 길이 있으니,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속히 떠나보내도록 분부하고, 연읍(沿邑)을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후하게 접대하여 먼 지방 사람을 어루만지는 뜻을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463]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 주제어: 표류, 왜인, 접대.

463)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3년 7월 2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四年 己未 八月 九日 乙未

○ 正言權心彦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財,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 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引誘徒黨而慫慂邪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淫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訾, 視若同胞者. 渠去來和應, 互相連肚者, 渠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將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8월 9일(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권심언(權心彦)의 계

○ 정언 권심언(權心彦)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64]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464)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65]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65)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八月 二十二日 戊申

○ 以水原留守徐有隣別單, 司僕書吏盧鼎曄等嚴囚事, 傳于李貞運曰, 盧鼎曄曖昧, 雖已卽放, 而替囚之吏, 決棍放送, 理馬·養馬, 亦爲嚴棍放送, 巨達, 刑推一次, 濟州牧永定浦作漢. 此後若此, 則出付先廂陣, 卽其地當用軍律, 書付內寺壁上事, 分付, 亦卽回諭.

❖ 정조 23년(1799) 기미년 8월 22일(무신)

▢ 옥에 가둔 사복시(司僕寺)의 거달(巨達)을 제주목(濟州牧)에 포작한(浦作漢)으로 영구히 정하라는 전교

○ 수원유수 서유린(徐有隣)의 별단에, 사복시(司僕寺) 서리 노정엽(盧鼎曄) 등을 엄히 가둔 일과 관련하여 이정운(李貞運)에게 전교하기를, "노정엽은 애매하여 비록 즉시 풀어주었지만 대신 가둔 서리는 곤장을 쳐서 풀어주어라. 이마(理馬)[466]·양마(養馬)[467] 또한 엄히 곤장을 쳐서 풀어주어라. 거달(巨達)[468]은 한 차례 형추(刑推)하여 제주목(濟州牧)에 영구히 포작한(浦作漢)으로 정하도록 하라. 이후로 이와 같이 한다면 선상진(先廂陣)[469]에 내어부쳐 곧 그곳에서 군율(軍律)로 다스릴 것이니, 내시(內寺)[470]의 벽에 써붙이도록 분부하고, 또한 즉시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사복시, 거달, 형추, 포작.

---

466) 이마(理馬): 사복시에 속한 정6품의 잡직. 말을 기르는 업무를 담당하였음.
467) 양마(養馬): 사복시에 소속된 종6품 관직. 말을 거세하는 일과 생산하는 일을 관장하였음.
468) 거달(巨達): 사복시에 소속되어 말을 돌보는 일을 하는 종을 말함.
469) 선상진(先廂陣): 임금이 나들이할 때에 앞장을 서던 전위대(前衛隊).
470) 내시(內寺): 임금의 수레와 말을 관장하던 관아.

❖ 嘉慶 四年 己未 八月 二十五日 辛亥

○ 己未八月二十五日卯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藥房都提調李秉模, 提調金文淳, 副提調李晸膺, 記事官柳台佐, 記注官金景煥·承膺祚, 檢校待敎李存秀, 左副承旨李魯春, 假注書洪奭周, 事變假注書弼聖賚, 右議政李時秀, 行知敦寧李秉鼎, 刑曹判書李得臣, 兵曹判書李在學, 行大護軍李邦一, 戶曹判書趙鎭寬, 知事徐有大, 漢城左尹申大顯, 吏曹參判李書九, 行護軍李益運, 開城留守金勉柱, 行大司諫宋銓, 掌令南惠寬, 校理洪樂安, 修撰金熙周, 醫官金孝儉·白成一·李敬培·李周憲·李惟鑑·玄必采·吳千根, 以次進伏訖. …… 銓曰, 臣謂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宜矣.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8월 25일(신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송전(宋銓)의 계

○ 기미년 8월 25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약방도제조 이병모(李秉模), 제조 김문순(金文淳), 부제조 이면응(李晸膺), 기사관 유태좌(柳台佐),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 좌부승지 이노춘(李魯春), 가주서 홍석주(洪奭周), 사변가주서 필성래(弼聖賚),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행지돈녕 이병정(李秉鼎), 형조판서 이득신(李得臣), 병조판서 이재학(李在學), 행대호군 이방일(李邦一),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지사 서유대(徐有大), 한성좌윤 신대현(申大顯), 이조참판 이서구(李書九), 행호군 이익운(李益運), 개성유수 김면주(金勉柱), 행대사간 송전(宋銓), 장령 남혜관(南惠寬), 교리 홍낙안(洪樂安), 수찬 김희주(金熙周), 의관 김효검(金孝儉)·백성일(白成一)·이경배(李敬培)·이주헌(李周憲)·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천근(吳千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송전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건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심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十日 甲子[乙丑]

○ 金羲淳, 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趙宗鉉狀啓內, 旌義縣監文躍淵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文躍淵時在任所云, 依例發遣府羅將,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10일(갑자[을축])

▢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을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김희순(金羲淳)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조종현(趙宗鉉)[471]의 장계 내에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472]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계하하였습니다. 문약연이 현재 임소에 있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本府)의 나장을 보내어 교대한 뒤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문약연.

---

471) 조종현(1731~1800): 본관 양주(楊州). 자 원옥(元玉).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472) 문약연(1742~?): 본관 남평(南平). 자 약천(躍天). 1774년(영조 50) 문과 급제. 정의현감(1798.1.도임~1799.10.체임)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十一日 丙寅

○ 有政. 吏批, 判書徐龍輔進, 參判未差, 參議尹行元, 牌不進, 左副承旨李魯春進. …… 李偃爲旌義縣監,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11일(병인)

▢ 이언(李偃)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서용보(徐龍輔)가 나왔고, 참판은 아직 차정되지 않았고, 참의 윤행원(尹行元)은 패초에 나오지 않았고, 좌부승지 이노춘(李魯春)이 나왔다. 〈중략〉 이언(李偃)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이언.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十七日 壬申

○ 李益運啓曰, 奏御文字, 何等愼重, 而卽伏見濟州別進上誕日方物啓本, 則年月日下, 書以行牧使判官, 事未前有, 萬萬駭然. 原啓本, 雖不得不捧入, 當該判官趙章漢, 所當重勘,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 傳曰, 罷職, 可也.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17일(임신)

▢ 계본(啓本)에 직함을 잘못 쓴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장한(趙章漢)을 파직하라는 전교

○ 이익운(李益運)이 아뢰기를, "임금에게 아뢰는 문자는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방금 제주(濟州)에서 별도로 진상하는 탄일방물(誕日方物)의 계본을 보니, 연월일 아래에 행목사판관(行牧使判官)이라고 썼으니, 전에 없던 일로 매우 놀랍습니다. 원 계본을 비록 부득불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해당 판관 조장한(趙章漢)을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원(本院)이 추고(推考)를 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파직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장한, 파직.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十七日 壬申

○ 有政. 吏批, 判書徐龍輔進, 參判李祖承進, 參議尹光普進, 行右承旨金達淳進. …… 李宗蕃爲濟州判官,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17일(임신)

▢ 이종번(李宗蕃)을 제주판관(濟州判官)에 제수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서용보(徐龍輔)가 나왔고, 참판 이조승(李祖承)이 나왔고, 참의 윤광보(尹光普)가 나왔고, 행우승지 김달순(金達淳)이 나왔다. 〈중략〉 이종번(李宗蕃)[473]을 제주판관(濟州判官)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제주판관, 이종번.

473) 이종번(?~?): 제주판관(1799.10.도임~1802년 2.체임)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二十五日 庚辰

○ 司諫曺允遂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25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조윤수(曺允遂)의 계

○ 사간 조윤수(曺允遂)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74]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474)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75]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75)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二十六日 辛巳

○ 李書九, 以吏曹言啓曰, 新除授旌義縣監李偃呈狀內, 矣身老母, 年今七十, 素患貞疾, 當此換節之時, 日益添劇, 轉側須人, 目下情理, 萬無越海赴任之望, 斯速入啓遞改云. 親病旣如是沈篤, 則不可强令赴任, 改差, 何如? 傳曰, 允. 口傳差代, 可也.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26일(신사)

▢ 고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가 있는 정의현감(旌義縣監) 이언(李偃)의 개차(改差)를 청하는 이조의 계

○ 이서구(李書九)가 이조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된 이언(李偃)의 정장(呈狀)에, '저의 노모가 올해 70세인데 평소 앓고 있던 고질병이 환절기를 당하여 날로 더욱 심해져 돌아눕는 데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니, 지금의 정리(情理)로는 바다를 건너 부임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속히 입계(入啓)하여 개차(改差)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병이 이처럼 위독하다면 억지로 부임하게 할 수 없으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구전 정사(口傳政事)[476]로 후임을 차출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이언, 개차.

476) 구전 정사(口傳政事): 이조판서가 직접 임금의 구두 지시를 받아 관원을 임명하는 일.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二十六日 辛巳

○ 吏曹口傳政事, 以金思喆爲旌義縣監.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26일(신사)

▢ 김사철(金思喆)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제수함

○ 이조가 구전정사(口傳政事)를 하여 김사철(金思喆)[477]을 정의현감(旌義縣監)으로 삼았다.

△ 주제어: 정의현감, 김사철.

477) 김사철(?~?): 정의현감(1799.10.도임~1802.2.체임)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二十六日 辛巳

○ 正言李東冕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姦萌.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26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이동면(李東冕)의 계

○ 정언 이동면(李東冕)[478]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478) 이동면(1755~?): 본관 전주(全州). 자 단경(端卿).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二十七日 壬午

○ 徐有聞, 以吏批言啓曰, 未下直守令, 當日辭朝, 上京守令中文武及不爲赴擧蔭官守令, 今日下送後, 草記, 赴擧守令, 過科後卽爲下送事, 命下矣. 自臣曹催促, 則新除授守令中濟州判官李宗蕃, 纔已辭朝下去,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27일(임오)

▢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종번(李宗蕃)이 이제 막 하직(下直)인사를 하고 내려갔다는 이비(吏批)의 계

○ 서유문(徐有聞)이 이비(吏批)의 말로 아뢰기를, "아직 하직(下直)하지 않은 수령은 당일 하직인사를 하고, 상경한 수령 중 문무(文武) 및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음관(蔭官) 수령은 오늘 내려보낸 뒤에 초기(草記)하고, 과거에 응시한 수령은 과거가 지난 뒤에 즉시 내려보내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신의 조(曹)에서 재촉하였더니, 새로 제수된 수령 중에 제주판관(濟州判官) 이종번(李宗蕃)이 이제 막 하직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이종번, 하직.

❖ 嘉慶 四年 己未 九月 二十七日 壬午

○ 己未九月二十七日酉時, 上御便殿. 科次入侍時, 行左承旨李書九, 左副承旨沈象奎, 同副承旨徐有聞, 假注書尹致永, 記注官金景煥·承膺祚, 試官藝文提學李秉鼎, 原任直提學徐龍輔, 大司成李晩秀, 原任直提學鄭大容, 原任直閣金祖淳, 直閣金近淳, 修撰閔命爀, 校理南履翼, 副校理曺錫中, 兵曹佐郎金秀臣, 檢校待敎李存秀, 以次進伏訖. 上命試官分考, 各道試券考訖. 上命書九傳敎曰, 七夕製賦居首三中一慶尙道幼學申應堯, 直赴會試, …… 草三下京幼學尹慶曾, …… 濟州幼學金仁文等十七人, 給一分. ……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3년(1799) 기미년 9월 27일(임오)

▢ 칠석제부시(七夕製賦試)에서 초삼하(草三下)를 차지한 제주(濟州) 유학 김인문(金仁文) 등에게 1분(分)을 주라는 전교

○ 기미년 9월 27일 유시에 임금이 편전으로 나아갔다. 과차(科次)에 입시할 때, 행좌승지 이서구(李書九), 좌부승지 심상규(沈象奎), 동부승지 서유문(徐有聞), 가주서 윤치영(尹致永),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시관 예문제학 이병정(李秉鼎), 원임직제학 서용보(徐龍輔), 대사성 이만수(李晩秀), 원임직제학 정대용(鄭大容), 원임직각 김조순(金祖淳), 직각 김근순(金近淳), 수찬 민명혁(閔命爀), 교리 남이익(南履翼), 부교리 조석중(曺錫中), 병조좌랑 김수신(金秀臣), 검교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시관에게 분고(分考)[479]를 명하니, 각도(各道)의 시권(試券)에 대한 고과(考科)를 마쳤다. 임금이 이서구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칠석제부시(七夕製賦試)에서 거수(居首)를 차지한 삼중일(三中一) 경상도 유학 신응요를 회시에 직부하도록 하라. 〈중략〉 초삼하(草三下)[480]인 경유학 윤경증, 〈중략〉 제주(濟州) 유학 김인문(金仁文) 등 17인에게 1분(分)을

479) 분고(分考): 여러 시관이 각각 일정한 분량의 시권(試券)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480) 초삼하(草三下): 조정에서 주관하여 보이는 각종 과시(科試)의 채점을 매길 때 통상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 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까지의 9개 등급이 있었고, 각 등급은 다시 여러 단계로 세분하였음. 예를 들면 삼하는 삼하일(三下一)·삼하이(三下二)·삼하삼(三下三)·삼하사(三下四)·삼하오(三下五)·삼하(三下)·초삼하(草三下)로 나뉘는데, 삼하일이 가장 높고 초삼하가 가장 낮은 단계임.

주어라.[481] 〈하략〉."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주제어: 칠석제부, 제주 유학, 김인문.

481) 1분(分)을 주어라[給一分]: 문과 초시(文科初試)에서 시험 성적이 합격 점수에는 미달하였으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적당한 분수(分數)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 점수에 달하면 초시 합격자와 같은 자격으로 복시(覆試)에 응하게 하였음.

❖ 嘉慶 四年 己未 十月 二日 丁亥

○ 鄭尙愚, 以備邊司言啓曰, 慶尙監司申耆狀啓, 有草記回啓之命矣. 取見其狀本, 則枚擧左兵使李普漢牒呈, 以爲蔚山居沙工兩漢, 潛入鬱陵島, 採鰒發賣. 故捉來查問, 則渠輩呈公文受掌標, 擬往濟州採鰒, 逢風漂到鬱陵島,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0월 2일(정해)

▢ 울릉도(鬱陵島)에서 전복(全鰒)을 몰래 캐어다 판 사공에 대한 조사 보고내용에서 장표(掌標)를 받고 제주(濟州)에 가서 전복을 캐려했는데, 울릉도에 표도했다는 사공의 진술

○ 정상우(鄭尙愚)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경상감사 신기(申耆)의 장계에 초기(草記)하여 회계(回啓)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장본(狀本)을 가져다 보니, 좌병사 이보한(李普漢)이 서면으로 보고한 것을 일일이 들어서 말하기를, '울산(蔚山)에 거주하는 사공 두 놈이 울릉도(鬱陵島)에 몰래 들어가서 전복(全鰒)을 캐어 팔았습니다. 때문에 잡아와서 조사하여 캐물으니, 저들이 공문을 올려서 장표(掌標)[482]를 받고 제주(濟州)에 가서 전복을 캐려고 하였는데, 바람을 만나 울릉도에 표도(漂到)하였다고 합니다.' 〈하략〉."라고 하였다. 〈하략〉.[483]

△ 주제어: 울릉도, 전복, 장표.

---

482) 장표(掌標): 바다에서의 각종 영리 활동에 대해 1년을 기한으로 세금을 받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로 균역청에서 발행하였음.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 등의 세금을 거두는 기준으로서 매년 연말에 균역청에서 이듬해의 각 색(色) 장표를 반포하면 각 도에서는 당년(當年)의 세금을 징수한 뒤에 신표(新標)를 내주고 구표(舊標)를 도로 거두어들였음.

483)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3년 10월 2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四年 己未 十月 十一日 丙申

○ 禁府啓目, 原州前判官喪人趙鉉原情云云. …… 又啓目, 濟州前牧使曺命楫原情云云. 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閫帥, 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議處, 何如? 判付啓, 依允.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0월 11일(병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가형(加刑)에 대해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전 원주판관 상인 조현(趙鉉)의 원정 운운에 대하여 〈하략〉."라고 하였다. 또 계목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원정 운운에 대하여 전지(傳旨) 안의 내용을 범연히 지만(遲晩)[484]하였으니 마땅히 형(刑)을 가하기를 청해야겠지만 일찍이 곤수(閫帥)[485]를 지낸 자는 형벌을 청하지 말라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조명집, 형벌.

484) 지만(遲晩): 죄인이 형장 신문을 받을 때 자복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죄스럽다.'는 뜻으로 쓰는 말로 자복을 말함.

485) 곤수(閫帥):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와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嘉慶 四年 己未 十月 十二日 丁酉

○ 正言李東冕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說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訾, 視若同胞者, 渠去來和應, 互相連肚者, 渠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0월 12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이동면(李東冕)의 계

○ 정언 이동면(李東冕)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86]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486)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87]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87)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十月 十四日 己亥

○ 正言李東冕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0월 14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이동면(李東冕)의 계

○ 정언 이동면(李東冕)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十月 二十三日 戊申

○ 司諫朴崙壽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新除授獻納金熙周, 時在慶尙道安東地, …… 持平康聖翊, 時在全羅道濟州地, 請竝斯速乘馹上來事下諭. 答曰, 不允. 末端事下諭事, 依啓.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0월 23일(무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과 새로 지평(持平)에 제수된 강성익(康聖翊) 등을 속히 올라오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윤수(朴崙壽)의 계

○ 사간 박윤수(朴崙壽)[488]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새로 헌납에 제수된 김희주가 지금 경상도 안동에 있고, 〈중략〉 지평(持平) 강성익(康聖翊)이 지금 전라도 제주(濟州)에 있으니, 청컨대 모두 속히 역말을 타고 올라오라고 하유(下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말단에 하유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지평, 강성익.

488) 박윤수(1753~1824): 본관 반남(潘南). 자 덕여(德汝). 시호 충헌(忠獻).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좌참찬, 판의금부사, 호조판서 역임.

❖ 嘉慶 四年 己未 十月 二十九日 甲寅

○ 司諫朴崙壽, 正言趙恒鎭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0월 29일(갑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윤수(朴崙壽) 등의 계

○ 사간 박윤수(朴崙壽), 정언 조항진(趙恒鎭)[489]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489) 조항진(1738~?): 본관 풍양(豊壤). 자 인백(仁伯).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五日 己未

○ 司諫朴崙壽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說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5일(기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윤수(朴崙壽)의 계

○ 사간 박윤수(朴崙壽)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490]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490)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491]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491)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六日 庚申

○ 徐有聞啓曰, 有司堂上李書九, 以嶺·湖南及濟州分等狀啓, 就議左議政沈煥之後, 依下敎來待矣. 傳曰, 入侍.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6일(경신)

▢ 유사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제주(濟州) 등의 분등장계(分等狀啓)를 가지고 와서 대령하고 있다는 서유문(徐有聞)의 계

○ 서유문(徐有聞)이 아뢰기를, “유사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영·호남 및 제주(濟州)의 분등장계(分等狀啓)를 가지고 좌의정 심환지(沈煥之)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하교대로 와서 대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입시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분등장계.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六日 庚申

○ 己未十一月初六日午時, 上御重熙堂. 推考房承旨入侍, 行副護軍洪義浩, 持審理錄校正本, 洗冤錄·平冤錄謄本, 同爲入侍時, 同副承旨沈象奎, 記事官洪奭周, 記注官承膺祚, 記書官李存秀, 行副護軍洪義浩, 以次進伏訖. …… 書九曰, 此濟州牧使林薯喆分等狀啓也. 濟州四十一洞里, 置之稍實, 三十九洞里, 置之之次, 大靜九洞里, 置之稍實, 十三洞里, 置之之次, 旌義三十洞里, 置之稍實, 六洞里, 置之之次. 仍以爲舊還督捧, 恐傷民力, 仍舊停退, 外此可以從便措處者, 開錄于左, 而候風海路, 遲速無期, 謹依已例, 一邊馳啓, 一邊擧行, 請令廟堂, 稟旨分付矣. 其一, 各寺奴婢貢, 每口減給一斗事也. 其一, 男丁大同米, 各減一升事也. 其一, 軍兵操鍊, 姑爲停止, 待明春從附近哨司鍊事也. 臣亦爲就議大臣, 則以爲本島年事, 幸得稍稔, 分等與後錄諸條, 便屬已擧行之事, 竝爲依施似好云.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6일(경신)

▢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蓍喆)의 분등장계(分等狀啓)에 후록(後錄)한 조항들을 시행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이서구(李書九)의 계

○ 기미년 11월 6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추고방(推考房)의 승지가 입시할 때, 행부호군 홍의호(洪義浩)가 심리록(審理錄) 교정본과 세원록(洗冤錄)·평원록(平冤錄) 등본을 가지고 함께 입시할 때, 동부승지 심상규(沈象奎),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서관 이존수(李存秀), 행부호군 홍의호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이것은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蓍喆)의 분등장계(分等狀啓)입니다. 제주목(濟州牧) 41개 동리는 초실(稍實)에 두었고, 39개 동리는 지차(之次)에 두었으며, 대정현(大靜縣) 9개 동리는 초실에 두었고, 13개 동리는 지차에 두었으며, 정의현(旌義縣) 30개 동리는 초실에 두었고, 6개 동리는 지차에 두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구환(舊還)을 독촉해서 받는 것은 민력(民力)을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대로 정퇴(停退)[492]하고, 이외에 편의에 따라 조처할 만한 것을 다음에 개록(開錄)하였습니다만 후풍(候風)해야 하는 해로(海路)가 빠를 지 더딜 지 기약할 수 없으니, 삼가 전례대로 한편으로는 치계(馳啓)하고, 한편으로는 거행(擧行)하니,

492) 정퇴(停退): 그해 거두어야 하는 환곡을 거두지 않고 다음 해에 거두게 하는 것.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각시(各寺)의 노비공(奴婢貢)을 매구(每口)에 1말씩 감해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남정의 대동미(大同米)를 각 1되씩 감해주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군병(軍兵)의 조련을 일단 정지하여 내년 봄을 기다려 부근의 초사(哨司)를 따라서 조련하는 일입니다. 신 또한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니, '본도(本島) 농사가 다행히 조금 풍년이 들었는데, 분등(分等)과 후록(後錄)한 조항들은 곧 이미 거행한 일에 속하니 아울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493] 【거조(擧條)를 냄】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갔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임시철, 분등장계.

493)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3년 11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十七日 辛未

○ 以濟州牧使薦望, 傳于鄭尙愚曰, 明月萬戶鄭觀輝陞授, 六年前, 勿擬京職, 以爲蘇弊之地, 萬一更以許遞等語, 出於筵上, 當該筵臣, 施以違制之律, 官案書付事, 分付.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17일(신미)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천망(薦望)된 명월만호(明月萬戶) 정관휘(鄭觀輝)의 허체(許遞)를 거론하면 위제지율(違制之律)로 처벌하겠다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천망(薦望)으로 정상우(鄭尙愚)에게 전교하기를, "명월만호(明月萬戶) 정관휘(鄭觀輝)[494]를 승수(陞授)하고, 6년이 되기 전에는 경직(京職)에 의망(擬望)하지 말게 하여 폐단을 소복(蘇復)[495]하게 하라. 만일 다시 허체(許遞) 등의 말이 연석(筵席)에서 나오는 경우 해당 연신(筵臣)을 위제지율(違制之律)[496]로 시행하여 관안(官案)[497]에 써붙이도록 분부하라."라고 하였다.[498]

△ 주제어: 제주목사, 천망, 명월만호, 정관휘.

494) 정관휘(1744~?): 본관 광주(光州).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만경현감, 제주목사(1799.11.~1802.3.체임) 역임.

495) 소복(蘇復): 회복되게 함.

496) 위제지율(違制之律): 《대명률(大明律)》의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말함. 제서유위율의 내용은,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함이 있는 자는 장(杖) 1백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도 죄가 같고, 친왕(親王)의 영지를 위반한 자는 장 90에 처하고, 왕지(王旨)의 취지를 잘못 착오한 자는 각기 3등을 감한다."는 것임.

497) 관안(官案): 관원 명부.

498)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3년 11월 1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十七日 辛未

○ 有政. 吏批, 判書徐龍輔進, 參判李書九進, 參議未差, 左承旨韓用鐸進. …… 濟州牧使單鄭觀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17일(신미)

▢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정관휘(鄭觀輝)를 단망(單望)함

○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 판서 서용보(徐龍輔)가 나왔고, 참판 이서구(李書九)가 나왔고, 참의는 아직 차정되지 않았고, 좌승지 한용탁(韓用鐸)이 나왔다.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에 정관휘(鄭觀輝)를 단망(單望)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단망.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十七日 辛未

○ 鄭尙愚, 以義禁府言啓曰, 因平安監司韓用龜查啓, 刑曹覆啓內, 初檢官寧邊前府使林蓍喆, 覆檢官熙川前郡守金儀祥, 竝令該府拿處事, 判付內, 檢官罷拿事, 依曹啓施行事, 命下矣. 林蓍喆, 以濟州牧使, 時在任所,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金儀祥, 自任所未及上來云, 發遣府羅將, 拿來,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17일(신미)

▢ 영변부사(寧邊府使) 당시 초검(初檢)한 일과 관련하여 파직된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蓍喆)을 잡아오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평안감사 한용구(韓用龜)의 사계(査啓)[499]로 인한 형조의 복계(覆啓) 내에, 초검관(初檢官) 전 영변부사(寧邊府使) 임시철(林蓍喆)과 복검관 전 희천군수 김의상을 모두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처단하는 일을 판부(判付)한 내용에, 검관을 파직하고 잡아다 심문하는 일을 조(曹)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임시철은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지금 임소에 있으니, 규례대로 본부(本府) 서리를 보내어 교대한 후에 잡아오게 하고, 김의상은 임소에서 미처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 본부 나장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임시철, 파직, 영변부사, 초검관.

499) 사계(査啓): 사핵계본(査覈啓本)의 준말로, 어떤 사건이나 사안(事案)에 대해 조사하여 그 내용을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 또는 그 보고서를 말함.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十七日 辛未

○ 己未十一月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 三使臣同爲入侍,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承旨鄭尙愚, 右承旨李庚運, 左副承旨徐有聞, 右副承旨李魯春, 同副承旨韓用鐸, 假注書尹致永, 事變假注書南吉寬, 記注官金景煥·承膺祚, 直閣金近淳, 回還正使趙尙鎭, 副使徐瀅修, 書狀沈奎魯, 左議政沈煥之, 右議政李時秀, 判敦寧鄭民始, 上護軍金文淳, 兵曹判書李在學, 禮曹判書黃昇源, 戶曹判書趙鎭寬, 吏曹判書徐龍輔, 知訓鍊院事徐有大, 刑曹判書李義弼, 行護軍申大顯·李得濟·申大謙·李漢豐, 吏曹參判李書九, 開城留守金勉柱, 執義曺允遂, 掌令金銑, 正言沈普永, 副修撰尹悌東, 諸臣以次進伏訖. …… 普永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17일(신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심보영(沈普永)의 계

○ 기미년 11월 1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삼사신(三使臣)이 함께 입시할 때,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승지 정상우(鄭尙愚), 우승지 이경운(李庚運), 좌부승지 서유문(徐有聞), 우부승지 이노춘(李魯春), 동부승지 한용탁(韓用鐸), 가주서 윤치영(尹致永), 사변가주서 남길관(南吉寬),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직각 김근순(金近淳), 회환정사 조상진(趙尙鎭), 부사 서형수(徐瀅修), 서장관 심규로(沈奎魯),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판돈녕 정민시(鄭民始), 상호군 김문순(金文淳), 병조판서 이재학(李在學), 예조판서 황승원(黃昇源),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이조판서 서용보(徐龍輔), 지훈련원사 서유대(徐有大), 형조판서 이의필(李義弼), 행호군 신대현(申大顯)·이득제(李得濟)·신대겸(申大謙)·이한풍(李漢豐), 이조참판 이서구(李書九), 개성유수 김면주(金勉柱), 집의 조윤수(曺允遂), 장령 김선(金銑), 정언 심보영(沈普永), 부수찬 윤제동(尹悌東) 등 신하들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보영[500]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

500) 심보영(1743~?): 본관 삼척(三陟).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十九日 癸酉

○ 李集斗啓曰, 明月萬戶鄭觀輝, 陞授濟州牧使, 除朝辭赴任事, 命下矣. 密符以前牧使所佩, 仍授, 諭書則安寶, 使院吏齎傳,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19일(계유)

▢ 하직인사를 생략하여 부임하도록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게 승정원의 하리를 보내어 유서(諭書)를 전달하게 하겠다는 이집두(李集斗)의 계

○ 이집두(李集斗)가 아뢰기를, "명월만호(明月萬戶) 정관휘(鄭觀輝)를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승수(陞授)하면서 하직인사를 생략하여 부임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밀부(密符)[501]는 이전 목사가 차던 것을 그대로 주고, 유서(諭書)는 옥새를 찍어서 원리(院吏)[502]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명월만호, 정관휘, 제주목사, 승수, 밀부, 유서.

---

501) 밀부(密符): 조선시대 감사(監司)·유수(留守)·총융사(摠戎使)·진무사(鎭撫使)·통제사(統制使)·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 등이 부임할 때 유서(諭書)와 함께 가지고 가게 한 부신(符信).

502) 원리(院吏): 승정원의 하리(下吏).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二十一日 乙亥

○ 獻納南惠寬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21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남혜관(南惠寬)의 계

○ 헌납 남혜관(南惠寬)[503]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503) 남혜관(南惠寬): 본관 의령(宜寧).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二十二日 丙子

○ 司諫朴崙壽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22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윤수(朴崙壽)의 계

○ 사간 박윤수(朴崙壽)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二十四日 戊寅

○ 以濟州防禦使林蓍喆狀啓, 薦新金橘, 以山橘代封, 惶恐待罪事, 傳于兪岳柱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24일(무인)

▢ 금귤(金橘)을 산귤(山橘)로 대신 봉진(封進)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임시철(林蓍喆)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임시철(林蓍喆)이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금귤(金橘)을 산귤(山橘)로 대신 봉진(封進)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유악주(兪岳柱)[504]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임시철, 금귤, 산귤, 봉진, 대죄.

504) 유악주(1737~?): 본관 기계(杞溪). 자 중진(仲鎭). 1767년(영조 43)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十一月 二十七日 辛巳

○ 己未十一月二十七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都承旨李集斗, 行左承旨曺允大, 右承旨鄭尙愚, 左副承旨徐有聞, 右副承旨韓用鐸, 同副承旨兪岳柱, 記事官洪奭周·金啓溫, 記注官金景煥, 記事官李存秀, 直閣金近淳, 以次進伏訖. 岳柱讀奏 …… 濟州牧使林薯喆狀啓, 旌義縣監金思喆到任事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1월 27일(신사)

▢ 동부승지 유악주(兪岳柱)가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薯喆)의 장계에,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사철(金思喆)이 도임(到任)한 일을 읽어 아룀

○ 기미년 11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집두(李集斗), 행좌승지 조윤대(曺允大), 우승지 정상우(鄭尙愚), 좌부승지 서유문(徐有聞), 우부승지 한용탁(韓用鐸), 동부승지 유악주(兪岳柱), 기사관 홍석주(洪奭周)·김계온(金啓溫),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기사관 이존수(李存秀), 직각 김근순(金近淳)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유악주가 〈중략〉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薯喆)의 장계에, 정의현감(旌義縣監) 김사철(金思喆)이 도임(到任)한 일을 읽어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정의현감, 김사철, 도임.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二日 乙酉

○ 司諫朴崙壽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諭詘,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2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윤수(朴崙壽)의 계

○ 사간 박윤수(朴崙壽)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505]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505)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창귀(倀鬼)[506]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506) 창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日 癸巳

○ 禁府啓目, 覆檢官熙川前郡守金儀祥原情云云. …… 又啓目, 旌義前縣監文躍淵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曾經侍從, 勿爲請刑, 載在大典通編, 議處, 何如? 判付啓, 罷拿足矣, 放送爲良如敎.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0일(계사)

▢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을 풀어주라는 전교

○ 의금부의 계목(啓目)에, "복검관 전 희천군수 김의상(金儀祥)의 원정 운운에 대하여 〈하략〉."라고 하였다. 또 계목에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의 원정 운운에 대하여 문목(問目) 안의 내용을 범연히 지만(遲晩)[507]하였으니 마땅히 형(刑)을 가하기를 청해야겠지만 일찍이 시종신(侍從臣)을 지낸 자는 형벌을 청하지 말라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하기를, "파직하고 잡아와서 신문한 것으로 족하다. 풀어주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문약연, 파직.

507) 지만(遲晩): 죄인이 형장 신문을 받을 때 자복하면서 '너무 오래 속여서 죄스럽다.'는 뜻으로 쓰는 말로 자복을 말함.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日 癸巳

○ 己未十二月初十日辰時, 上御春塘臺.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 抄啓文臣親試, 兼行試射入侍時, 左承旨徐有聞, 右承旨洪樂游,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景煥·承膺祚, 以次進伏訖. …… 崙壽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0일(계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박윤수(朴崙壽)의 계

○ 기미년 12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초계문신 친시(親試)에 시사(試射)를 겸행하러 입시할 때, 좌승지 서유문(徐有聞), 우승지 홍낙유(洪樂游),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박윤수(朴崙壽)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一日 甲午

○ 己未十二月十一日辰時, 上御誠正閣. 輪對官入侍時, 左承旨徐有聞, 假注書呂東植, 記注官金景煥·承膺祚, 造紙別提李鎭忠·金最行·金復淳, 內贍直長金應一, 奉事尹彝鉉, 忠勳都事權彝性, 軍器判官李運祥·姜申岳, 工曹正郎徐重修, 儀賓都事李得養, 南學訓導李學淵, 西氷庫別檢徐有敎, 義盈直長鄭信民, 掌樂僉正李昌杰, 主簿林周喆·沈周賢, 司宰奉事李顯綏, 禁府都事張趾元, 司饔奉事奇祥益, 繕工假監役鄭烈·李光顯, 西學訓導金就强, 東學訓導金履垕, 宗簿主簿柳鎭澤, 漢城庶尹吳在鎭, 長興奉事申潡, 以次進伏訖. 上曰, 諸官以次奏職姓名, 可也. …… 應一進奏職姓名. 命擧顔, 命奏所懷. 應一曰, 本寺牛毛供上, 自濟州年貢四百餘斤, 戶曹捧上, 出付本寺, 而夏三朔供上, 每患不足, 自本寺添價辦備者, 每年幾至二百兩, 而寺中官用, 亦至四百餘兩. 員役元貢及官衿貢物, 放賣繼用, 故己酉年故判書臣鄭昌順提擧本寺時, 均廳錢四千兩, 以無邊限十年請貸事, 筵稟蒙允, 出給貢人, 逐年取殖, 利則報均廳, 本則繼官用. 至于今春, 而年限已滿, 均錢盡數還償, 本錢則已皆用盡, 來頭牛毛供上加入物力及許多官用, 措手無地. 依己酉年例, 均廳無邊錢貸得, 然後來夏供上, 庶可無弊, 寺中形勢, 亦可支存, 故敢此仰達矣.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1일(갑오)

▢ 호조(戶曹)가 제주(濟州)에서 봉상(捧上)하여 내섬시(內贍寺)에 출부(出付)하는 우모(牛毛)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균역청에서 무변리(無邊利)로 돈을 빌려주게 할 것을 청하는 내섬직장 김응일(金應一)의 계

○ 기미년 12월 11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윤대관이 입시할 때, 좌승지 서유문(徐有聞),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조지별제 이진충(李鎭忠)·김최행(金最行)·김복순(金復淳), 내섬직장 김응일(金應一), 봉사 윤이현(尹彝鉉), 충훈도사 권이성(權彝性), 군기판관 이운상(李運祥)·강신악(姜申岳), 공조정랑 서중수(徐重修), 의빈도사 이득양(李得養), 남학훈도 이학연(李學淵), 서빙고별검 서유교(徐有敎), 의영직장 정신민(鄭信民), 장락첨정 이창걸(李昌杰), 주부 임주철(林周喆)·심주현(沈周賢), 사재봉사 이현수(李顯綏), 금부도사 장지원(張趾元), 사옹봉사 기상익(奇祥益), 선공가감역 정열(鄭烈)·이광현(李光顯), 서학훈도 김취강(金就强), 동학훈도 김이후(金履垕), 종부주부 유

진택(柳鎭澤), 한성서윤 오재진(吳在鎭), 장흥봉사 신옹(申瀜)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리들은 차례로 관직과 성명을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김응일이 앞으로 나와 관직과 성명을 아뢰었다. 임금이 얼굴을 들라고 명했다. 임금이 생각하는 바를 아뢰도록 명했다. 김응일이 아뢰기를, "본시(本寺) 우모(牛毛)의 공상(供上)[508]은 제주(濟州)에서 연공(年貢)으로 400여 근(斤)을 호조(戶曹)에서 봉상(捧上)[509]하여 본시에 출부(出付)하는데, 여름 3개월의 공상은 매양 부족을 근심하여 본시에서 값을 더하여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이 매년 거의 200냥에 이르고, 시중(寺中)의 관용(官用) 또한 400여 냥에 이르기에 원역(員役)의 원공(元貢) 및 관금(官衿)의 공물(貢物)을 팔아 잇대어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유년에 고(故) 판서 정창순(鄭昌順)이 본시 제거(提擧)일 때 균역청의 돈 4,000냥을 변리(邊利) 없이 10년을 한정하여 빌려줄 것을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고, 공인(貢人)에게 내어주어 해마다 이자를 취하여 이자로는 균역청에 갚고, 본전으로는 관용을 이었습니다. 금년 봄에 이르러 연한이 이미 찼고, 균역청의 돈은 모두 갚았지만 본전을 이미 모두 다 썼기에 앞으로 우모의 공상에 더 들어갈 물력(物力)과 허다한 관용을 손쓸 데가 없습니다. 기유년의 전례에 따라 균역청에서 변리가 없는 돈을 얻은 후에야 다가올 여름의 공상에 폐단이 없을 것이고, 시중의 형세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호조, 내섬시, 우모, 공상.

508) 공상(供上): 지방의 토산물을 상급 관청이나 고관에게 바치던 것. 진공(進供).
509) 봉상(捧上): 관가에서 백성들로부터 공물(貢物)·조세(租稅)·환곡(還穀) 등을 받아들이는 것.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三日 丙申

○ 以濟州牧使林薈喆狀啓, 薦新與進上,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閔台爀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3일(병신)

▢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薈喆)에 대해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薈喆)의 장계에,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민태혁(閔台爀)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임시철, 천신, 진상, 봉진, 대죄.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三日 丙申

○ 兪岳柱,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前牧使林薈喆狀啓謄報, 則今十二月令宗廟薦新洞庭橘, 依例封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則所結, 僅爲二十四箇, 故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事爲辭矣. 宗廟薦新洞庭橘, 當日薦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則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一體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3일(병신)

▢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을 전례대로 일체 천진(薦進)하겠다는 예조의 계

○ 유악주(兪岳柱)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지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薈喆)의 장계등보(狀啓謄報)를 보니, '금번 12월령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하는 동정귤(洞庭橘)은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였는데,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하는 유감(乳柑)은 결실(結實)한 것이 겨우 24개가 되기에 삼가 전례에 의거하여 모두 봉(封)하여 올려보내니 품지(稟旨)하여 천헌(薦獻)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묘에 천신하는 동정귤은 당일 천진(薦進)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와 경모궁에 천신하는 유감은 전에 이와 같은 때에는 숫자를 감하여 천헌한 사례가 있으니, 지금 또한 전례대로 일체 천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동정귤, 유감, 종묘, 경모궁, 천신.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三日 丙申

○ 行大司諫金達淳, 司諫朴崙壽, 獻納南惠寬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荒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憸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訛[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迹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院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3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등의 계

○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510], 사간 박윤수(朴崙壽), 헌납 남혜관(南惠寬)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511]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

---

510) 김달순(1760~1806): 본관 안동(安東). 자 도이(道以). 호 일청(一靑). 시호 익헌(翼憲).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전라도관찰사, 병조판서, 우의정 역임.

511)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512]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512)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四日 丁酉

○ 己未十二月十四日辰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 詣臺臺臣同爲入侍時, 行都承旨閔台爀, 右承旨洪樂游, 右副承旨崔獻重, 同副承旨沈象奎, 假注書申緯·呂東植, 記注官金景煥·承膺祚, 直閣金近淳, 行大司諫金達淳, 執義曺允遂, 司諫朴崙壽, 副應敎李龜雲, 掌令金銑, 獻納南惠寬, 修撰南履翼, 以次進伏訖. …… 達淳等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慶源府定配罪人金鑢,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4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등의 계

○ 기미년 12월 14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이 함께 입시할 때, 행도승지 민태혁(閔台爀), 우승지 홍낙유(洪樂游), 우부승지 최헌중(崔獻重), 동부승지 심상규(沈象奎), 가주서 신위(申緯)·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직각 김근순(金近淳),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집의 조윤수(曺允遂), 사간 박윤수(朴崙壽), 부응교 이귀운(李龜雲), 장령 김선(金銑), 헌납 남혜관(南惠寬), 수찬 남이익(南履翼)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달순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六日 戊戌[己亥]

○ 金載翼, 以禮曹言啓曰, 來庚申正月初一日正朝朝賀方物, 濟州前牧使林薔喆, 雖在拿命中, 以越海之地, 前期封進上來矣, 依例看品, 具別單捧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6일(무술[기해])

▢ 경신년 정월초하루 정조(正朝)에 조하(朝賀)할 방물(方物) 별단(別單)을 갖추어 봉입(捧入)하겠다는 예조의 계

○ 김재익(金載翼)[513]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오는 경신년 정월초하루 정조(正朝)에 조하(朝賀)할 방물(方物)이,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薔喆)을 잡아오라는 명이 있는 와중에도 바다를 건너는 곳이기에, 기일에 앞서 봉진(封進)하여 올라왔습니다. 규례대로 간품(看品)하여 별단(別單)을 갖추어 봉입(捧入)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조, 조하, 방물, 별단, 봉입.

513) 김재익(金載翼): 본관 연안(延安). 자 운거(雲擧).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六日 戊戌[己亥]

○ 行大司諫金達淳, 獻納南惠寬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 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說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詖[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6일(무술[기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등의 계

○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헌납 남혜관(南惠寬)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514]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

514)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515]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김이백, 김려, 제주목, 국청.

515)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十九日 壬寅

○ 行大司諫金達淳, 獻納南惠寬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19일(임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등의 계

○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헌납 남혜관(南惠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二十一日 甲辰

○ 己未十二月二十一日辰時, 上御熙政堂. 吏·兵房承旨入侍, 大臣·備局堂上引見, 守令·邊將初仕人同爲入侍時, 右承旨金載翼, 左副承旨鄭尙愚, 記事官洪奭周·金啓溫, 記注官金景煥, 記事官李存秀, 左議政沈煥之, 右議政李時秀, 漢城判尹金文淳, 戶曹判書趙鎭寬, 禮曹判書徐邁修, 知中樞府事徐有大, 行護軍申大顯, 漢城左尹李得濟, 行護軍申大謙, 行大司諫金達淳, 校理趙得永, 寧邊府使安㮨, …… 以次進伏. …… 達淳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21일(갑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의 계

○ 기미년 12월 21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이·병방승지가 입시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수령·변장으로 나가는 초사인(初仕人)이 함께 입시할 때, 우승지 김재익(金載翼), 좌부승지 정상우(鄭尙愚), 기사관 홍석주(洪奭周)·김계온(金啓溫),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기사관 이존수(李存秀),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한성판윤 김문순(金文淳),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예조판서 서매수(徐邁修), 지중추부사 서유대(徐有大), 행호군 신대현(申大顯), 한성좌윤 이득제(李得濟), 행호군 신대겸(申大謙),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교리 조득영(趙得永), 영변부사 안숙(安㮨) 〈중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달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二十二日 乙巳

○ 鄭尙愚, 以司僕一二提調意啓曰, 旌義前縣監文躍淵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進獻事體, 何等嚴重, 則二匹俱爲瘦劣無才, 事極可駭, 當該封進官文躍淵, 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22일(을사)

▢ 수척하고 재주가 없는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진헌(進獻)한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정상우(鄭尙愚)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문약연(文躍淵)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진헌(進獻)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막중한 것입니까? 2필이 모두 수척하고 재주가 없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관 문약연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의현감, 문약연, 진상마, 종중추고.

❖ 嘉慶 四年 己未 十二月 二十五日 戊申

○ 己未十二月二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藥房都提調李時秀, 提調金文淳, 副提調徐有聞, 記事官洪奭周, 記注官承膺祚, 記事官李存秀, 右承旨鄭尙愚, 記事官金啓溫, 事變假注書李弘謙, 判府事李秉模, 左議政沈煥之, 戶曹判書趙鎭寬, 禮曹判書徐邁修, 吏曹判書徐龍輔, 行護軍申大顯·申大謙·李漢豐, 吏曹參判李書九, 行大司諫金達淳, 校理趙得永,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李惟鑑·安昌禧, 以次進伏訖. …… 達淳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3년(1799) 기미년 12월 25일(무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의 계

○ 기미년 12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약방도제조 이시수(李時秀), 제조 김문순(金文淳), 부제조 서유문(徐有聞),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이존수(李存秀), 우승지 정상우(鄭尙愚), 기사관 김계온(金啓溫), 사변가주서 이홍겸(李弘謙), 판부사 이병모(李秉模),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호조판서 조진관(趙鎭寬), 예조판서 서매수(徐邁修), 이조판서 서용보(徐龍輔), 행호군 신대현(申大顯)·신대겸(申大謙)·이한풍(李漢豐), 이조참판 이서구(李書九), 행대사간 김달순(金達淳), 교리 조득영(趙得永),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이유감(李惟鑑)·안창희(安昌禧)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달순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1800年

(정조 24)



❖ 嘉慶 五年 庚申 一月 二十四日 丁丑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薦新唐柚子, 不得排數封進, 惶隕待罪事, 傳于徐有聞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4년(1800) 경신년 1월 24일(정축)

▢ 천신(薦新)할 당유자(唐柚子)를 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봉진(封進)해서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장계에, 천신(薦新)할 당유자(唐柚子)에 대해 진상(進上)해야 할 수량을 봉진(封進)하지 못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유문(徐有聞)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당유자, 진상, 정관휘, 대죄.

❖ 嘉慶 五年 庚申 一月 二十四日 丁丑

○ 徐有聞,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前牧使林薈喆狀啓謄報, 則去十一月令, 宗廟·景慕宮薦新唐柚子, 所結只爲七十五箇, 故肇慶廟薦新五箇, 依例封進, 而七十箇,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事爲辭矣. 在前如此之時, 有減數薦獻之例, 今亦依前例, 當日薦進, 何如? 傳曰, 允.

❖ 정조 24년(1800) 경신년 1월 24일(정축)

▢ 제주(濟州)에서 봉진(封進)한 당유자(唐柚子)를 전례대로 당일 천진(薦進)하겠다는 예조의 계

○ 서유문(徐有聞)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임시철(林薈喆)의 장계등보(狀啓謄報)를 보니, '지난 11월령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당유자(唐柚子)의 결실이 단지 75개 뿐입니다. 때문에 조경묘(肇慶廟)에 천신하는 5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고, 70개는 삼가 전례에 따라 모두 봉(封)하여 올려보내니 품지(稟旨)하여 천헌(薦獻)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전에 이와같은 때에는 수량을 감하여 천헌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전례대로 당일 천진(薦進)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임시철, 천신, 당유자, 봉진.

❖ 嘉慶 五年 庚申 一月 二十八日 辛巳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十二月令封進靑皮枳殼數未滿, 惶恐待罪事, 傳于徐有聞曰, 勿待罪事, 回諭.

❖ 정조 24년(1800) 경신년 1월 28일(신사)

▢ 봉진(封進)하는 청피(靑皮)와 지각(枳殼)의 수량을 채우지 못해서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장계에, 12월령으로 봉진(封進)하는 청피(靑皮)와 지각(枳殼)의 수량을 채우지 못하여 황송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유문(徐有聞)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청피, 지각, 봉진, 제주목사, 정관휘, 대죄.

❖ 嘉慶 五年 庚申 二月 八日 辛卯

○ 李集斗, 以賑恤廳言啓曰, 依下敎, 濟州進上領來人十三名處, 各米三斗式, 合米三石九斗, 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4년(1800) 경신년 2월 8일(신묘)

▢ 진상물을 가지고 온 제주인(濟州人)에게 쌀을 나누어 주겠다는 진휼청(賑恤廳)의 계

○ 이집두(李集斗)가 진휼청(賑恤廳)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대로 제주(濟州)에서 진상물을 가지고 온 13명에게 각각 쌀 3말씩 합 쌀 3섬 9말을 나누어 줄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물, 제주인, 쌀, 진휼청.

❖ 嘉慶 五年 庚申 二月 九日 壬辰

○ 行大司諫兪漢謨, 司諫沈奎魯, 獻納李東壎, 正言沈鎜·姜浚欽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辭,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赴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 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 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答曰, 不允.

❖ 정조 24년(1800) 경신년 2월 9일(임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행대사간 유한모(兪漢謨) 등의 계

○ 행대사간 유한모(兪漢謨), 사간 심규로(沈奎魯), 헌납 이동식(李東埴)[516], 정언 심반(沈鎜)[517]·강준흠(姜浚欽)[518]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516) 이동식(1745~1807): 본관 함평(咸平). 자 춘여(春如). 호 석애(石崖).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517) 심반(1757~?): 본관 청송(靑松). 자 안여(安如).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518) 강준흠(1768~1833): 본관 진주(晉州). 자 백원(百源). 호 삼명(三溟).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지평, 부수찬, 수안현감 역임. 저서 《삼명집》.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519]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520]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519)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520)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十五日 丁卯

○ 庚申三月十五日辰時, 上詣景慕宮. 展拜入侍時, 行都承旨李集斗, 行左承旨曺允大, 行右承旨李基讓, 右副承旨曺錫中, 記事官洪奭周, 假注書呂東植, 記注官承膺祚, 記事官李存秀, 檢校直提學徐龍輔·李晩秀, 檢校直閣徐榮輔·金近淳, 以次侍立訖. …… 秉模曰, 前以濟州儲穀事, 筵稟行會矣. 連接前牧使曺命楫狀本及報本司辭緣, 則以精實穀萬石儲留, 別建庫舍, 俾無瘴濕浮傷之弊云, 此而遵守, 則設有來頭被歉之時, 陸穀未及入去之前, 自可以留穀, 先爲接濟, 可無顚連之患, 其有關於一島民命, 誠大矣. 第聞島民, 不知本意, 謂以惟此萬石穀, 旣儲島中, 則雖値災年, 廟堂必不以陸穀, 更爲區劃, 吾屬休戚, 係於此穀之儲不儲, 衆口胥動, 必欲毁壞, 官長又從以姑息, 漸致穀品之麤荒云, 儲以麤穀, 雖多, 何補哉? 朝家之軫念島民, 倍於陸民, 凡遇災荒, 竭沿邑之穀, 而如救水火, 則豈有但恃島穀, 不劃陸穀之理乎? 恒儲萬石之策, 專出於近懲甲寅, 以爲首尾不絶島陸相續之地也. 若使島民, 明知此意, 則浮言自息, 庫儲可完, 以此關飭該牧, 詳細曉諭, 一依初年設施, 必以精實穀, 捧留庫舍, 亦令這這修補. 如是之後, 若或一任麤荒, 不謹典守, 致有陸穀入送之歲, 民先溝壑, 未及待哺之弊, 則該牧使, 論以重典, 以謝一島民命之意, 各別嚴飭,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15일(정묘)

□ 제주(濟州)에 정실(精實)한 곡물(穀物)로 10,000섬을 항상 저축하게 하여 흉년 접제(接濟)에 대비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영의정 이병모(李秉模)의 계

○ 경신년 3월 15일 진시에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으로 나아갔다. 전배(展拜)[521]하기 위해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집두(李集斗), 행좌승지 조윤대(曺允大), 행우승지 이기양(李基讓), 우부승지 조석중(曺錫中),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이존수(李存秀), 검교직제학 서용보(徐龍輔)·이만수(李晩秀), 검교직각 서영보(徐榮輔)·김근순(金近淳)이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중략〉 이병모가 아뢰기를, "전에 제주(濟州)에 곡물(穀物)을 저축하는 일로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행회(行會)하였습니다. 전 제주목사(濟州牧使) 조명집(曺命楫)의 장본(狀本)과 본사(本司)에 보고한 사연을 연달아 접해보니, '정

521) 전배(展拜):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궁(宮), 황단(皇壇), 문묘(文廟), 각 능침(陵寢) 등에 왕이 직접 나아가 배알(拜謁)하는 일. 정조는 특히 거의 매달 생부(生父)를 모신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배알하였음.

실(精實)한 곡물 10,000섬을 저류(儲留)하기 위해서는 창고(倉庫)를 별도로 건립해서 장습(瘴濕)으로 인해 부상(浮傷)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준수하면 설령 앞으로 흉년을 당할 때가 있더라도 육지의 곡물이 미처 들어가기 전에 유곡(留穀)으로 먼저 접제(接濟)하게 되어 전련(顚連)[522]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니, 온 섬 백성의 목숨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실로 큰일입니다. 다만 듣건대, 섬 백성들이 본뜻을 알지 못하고 '이 10,000섬의 곡물을 저축하면 비록 재년(災年)을 당하더라도 묘당에서 필시 육지 곡물을 다시 구획(區劃)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안락과 걱정근심이 이 곡물을 저축하느냐 저축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뭇사람들이 서로 선동하여 반드시 헐어버리려 할 것이고, 관장(官長) 또한 임시적 변통을 따르게 되어 점차 곡물의 품질이 거칠어 질 것이다.'라고 하니, 저축하는 것을 거친 곡물로 한다면 비록 많더라도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조정이 섬 백성들을 걱정하여 생각하는 것은 육지 백성들에 비해 배가 됩니다. 따라서 무릇 재황(災荒)을 만나면 연읍(沿邑)의 곡물을 다하여 물과 불에서 구하는 것처럼 하니, 어찌 단지 섬의 곡물만을 믿고 육지 곡물을 획급(劃給)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항시 10,000섬을 저축하자는 계책은 전적으로 가까이 갑인년을 징계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 머리와 꼬리가 끊어지지 않고, 섬과 육지가 서로 이어지는 바탕을 삼은 것입니다. 섬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뜻을 명백히 알게 한다면 뜬 소문은 절로 그칠 것이고, 창고에 저축하는 것은 완비될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관문(關文)을 띄워 해당 목(牧)을 타일러 경계하고, 상세히 효유(曉諭)하여 한결같이 초년의 설시(設施)대로 반드시 정실한 곡물로 거둬 창고에 쌓아두고, 또한 낱낱이 보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후에도 만약 혹여 거친 곡물에 일임(一任)하여 전수(典守)[523]를 삼가지 않아 육지 곡물을 들여보내야 하는 해에 백성들이 구학(溝壑)에 먼저 들어가서 미처 먹여주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폐단이 있기에 이르게 된다면 해당 목사를 무거운 형벌로 논하여 온 섬 백성의 목숨에 사죄하게 할 것이라는 뜻으로 각별히 엄히 타일러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524]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흉년, 곡물, 저축, 창고.

---

522) 전련(顚連):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음.

523) 전수(典守): 곡식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524) 이상은《비변사등록》정조 24년 3월 15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二日 甲戌

○ 庚申三月二十二日酉時, 上御便殿. 人日製科次入侍時, 行左承旨金履翼, 右承旨徐有聞, 左副承旨崔獻重, 右副承旨南履翼, 假注書李允謙, 記注官金景煥·承膺祚, 讀券官領議政李秉模, 左議政沈煥之, 右議政李時秀, 弘文提學黃昇源, 藝文提學李秉鼎, 吏曹判書徐龍輔, 禮曹判書李晩秀, 參判曺允大, 對讀官行副護軍沈象奎·李東稷·李貞運, 直閣金近淳, 校理金履載, 兵曹正郎宋知濂, 以次進伏訖. 上命秉模等考券. 仍敎曰, 勿以夜深, 草率考出, 卿等各自留意, 俾無遺珠之嘆, 可也. 考券訖, 命近淳等, 書草榜目. 命書傳敎曰, 親臨人日製京居首賦三中幼學金秀鍾, 鄕居首湖西三中幼學李南翼, 竝直赴殿試. …… 濟州三下幼學玄日皓, 生員吳霈等, 各給二分, 除較等, 特望付之今庭試初試之榜尾, 京次上生員趙宅謙等十人, …… 濟州次上幼學金仁文等, 各給紙一卷. 命書傳敎曰, 入格儒生, 明日待令. …….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2일(갑술)

▢ 제주(濟州) 삼하(三下) 유학 현일호(玄日皓) 등에게 정시(庭試) 초시 합격자 명단에 특별히 이름을 올려주라는 등의 전교

○ 경신년 3월 22일 유시에 임금이 편전(便殿)으로 나아갔다. 인일제(人日製) 과차(科次)[525]에 입시할 때, 행좌승지 김이익(金履翼), 우승지 서유문(徐有聞), 좌부승지 최헌중(崔獻重), 우부승지 남이익(南履翼),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독권관 영의정 이병모(李秉模),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홍문제학 황승원(黃昇源), 예문제학 이병정(李秉鼎), 이조판서 서용보(徐龍輔), 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참판 조윤대(曺允大), 대독관 행부호군 심상규(沈象奎)·이동직(李東稷)·이정운(李貞運), 직각 김근순(金近淳), 교리 김이재(金履載), 병조정랑 송지렴(宋知濂)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이병모 등에게 명하여 고권(考券)[526]하게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밤이 깊었다고 해서 경솔하게 고출(考出)하지 말라. 경들은 각자 유의해서 인재를 빠뜨렸다는 탄식이 없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권이 끝나자 김근순[527] 등에게

525) 과차(科次): 과거 급제자의 순위 결정. 성적을 9등(等)으로 나누어,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 및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로 규정, 이로써 우열을 평가하고,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음.

526) 고권(考券): 시권(試券)을 채점함.

명하여 초방목(草榜目)을 쓰게 하였다.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친림한 인일제에 서울의 수석을 차지한 부(賦) 삼중 유학 김수종(金秀鍾), 시골의 수석을 차지한 호서 삼중 유학 이남익(李南翼)을 모두 직부전시하게 하라. 〈중략〉 제주(濟州) 삼하(三下) 유학 현일호(玄日皓)와 생원 오점(吳霑)에게는 각각 2분(分)씩을 주고 등수는 매기지 않고, 금번 정시(庭試) 초시 합격자 명단 끄트머리에다 특별히 이름을 올려주어라. 서울 차상 생원 조택겸 등 10인과 〈중략〉 제주 차상(次上) 유학 김인문(金仁文) 등에게는 각각 종이 1권을 주어라.”라고 하였다.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입격 유생은 내일 대령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정시, 과차, 현일호, 오점, 김인문.

527) 김근순(1772~?): 본관 안동(安東). 자 여인(汝仁). 호 십청(十靑)·귀연(歸淵).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부제학, 대사성, 직제학 역임.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四日 丙子

○ 金履翼, 以庭試武一所試官意啓曰, 傳曰, 人製入格給分諸生, 付之一所榜尾之意, 下敎, 一所則元榜初試中, 雖有人製初試人入格者, 自當於預差中, 充其數, 而二三所則須有知委, 可以依此擧行. 人製初試人姓名, 與今下傳敎, 依例踏印, 送于試所, 而今聞承宣言, 耽羅武擧赴科者, 遠涉重溟, 未及於捧單之限云, 此類十八人, 除初試, 別具試記, 殿試日, 待令於帳殿, 而限內上來者, 亦果有之乎 問于諸試所, 無論已試未試, 竝除初試, 同修試記待令, 以示朝家特軫渠輩之意事, 命下矣. 濟州係是全羅右道, 例赴武二所, 而收單之時, 有一人誤呈單子, 故已爲移送二所, 而此外, 更無來呈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4일(병자)

▢ 기한 내에 이르지 못한 제주(濟州) 무과(武科) 응시자들에 대해 초시(初試)를 면제하고 별도로 시기(試記)를 갖추어 전시일(殿試日)에 장전(帳殿)에 대령하도록 하라고 한 전교에 대해 제주 무과 응시자가 다시는 청원(請願)할 것이 없음을 아뢰는 정시무과(庭試武科) 일소시관(一所試官)의 계

○ 김이익(金履翼)[528]이 정시무과(庭試武科) 일소시관(一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교하기를, '인일제(人日製)에 입격하여 급분(給分)[529]한 제생(諸生)을 일소(一所)[530]의 합격자 명단 끄트머리에 붙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하였다. 일소는 원방(元榜)[531] 초시(初試) 중에 비록 인일제의 초시인(初試人)으로 합격한 자가 있다고는 하나 마땅히 예차(預差) 중에서 그 숫자를 충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소(二所)와 삼소(三所)는 모름지기 통지를 하면 이대로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일제 초시인의 성명과 지금 내린 전교를 규례대로 답인(踏印)하여 시소(試所)

528) 김이익(1743~1830): 본관 안동(安東). 자 보숙(輔叔). 호 유와(牖窩). 1785년(정조 9) 문과 급제.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대호군 역임.

529) 급분(給分): 점수를 준다는 뜻. 문과 초시(初試)에 불합격한 자 가운데서 성적이 비교적 좋은 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주었다가 다음 시험의 성적과 합산하여 합격 점수가 되면 초시합격자와 같은 자격을 주어 복시(覆試)에 응시하도록 하였음.

530) 일소(一所): 과장(科場)의 첫째 분소(分所)를 말함. 과거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서 응시자를 두어 군데의 시소(試所)에 나누어 보이는데 이를 각각 일소(一所)와 이소(二所) 등으로 칭함.

531) 원방(元榜): 직부(直赴)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해당 과시(科試)의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 입격하여 전시(殿試)에 응시하게 된 사람을 말함.

로 보냈다. 그런데 지금 승지(承旨)의 말을 들으니, 탐라(耽羅)의 무과 응시자들이 멀리 바다를 건넜지만 단자(單子)를 바치는 기한 내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18인에 대해 초시를 면제하고 별도로 시기(試記)[532]를 갖추어 전시일(殿試日)에 장전(帳殿)[533]에 대령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올라온 자가 또한 과연 있는지 제시소(諸試所)에 물어서 시험을 마쳤거나 마치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초시를 면제하고 시기에 함께 편수(編修)하여 대령하여 조정이 저들을 특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제주(濟州)는 곧 전라우도(全羅右道)이기에 관례적으로 무이소(武二所)에 응시합니다. 그런데 단자를 거둘 때 한 사람이 단자를 잘못 올렸기 때문에 이미 이소로 이송(移送)하였고, 이외에 다시 와서 청원(請願)할 것이 없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무과, 초시, 면제, 전시, 이소.

532) 시기(試記): 시험 성적을 적어 놓은 기록.
533) 장전(帳殿): 임금이 임시로 머물기 위하여 만든 장막(帳幕).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四日 丙子

○ 金履翼, 以武二所試官意啓曰, 依傳教, 武擧濟州追到人通德郎李邦潤, 閑良李東燁·高宅信·李光訥·夫士簡·朴師殷·金大集·朴根秀·李東普·李東彰·韓時琦·河南澄·李光華·李光栢·梁處仁·李光集·金麗玉·李光玉十八人, 今日追到閑良金尙彬·金尙協二人, 已呈單未試人通德郎洪泰漢·高昌彬·金鍾輯, 閑良文煥宅·尹重相·申景周·金錫龜·許興八人, 合二十八人, 招致試所, 聖敎內辭意, 布諭後, 同修試記, 使之殿試日待令, 而如有追到者, 亦爲依此擧行後, 草記之意, 敢啓. 傳曰, 知道. 今番事事, 皆欲闊略, 雖不致責, 試所擧行則試官等, 太不識體貌, 而監臺, 從以袖手, 近來朝體, 皆如此, 此非但二所之謂也. …… 此後, 少加小心, 可也.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4일(병자)

▢ 기한 내에 이르지 못한 제주(濟州) 무과(武科) 응시자 28인을 시소(試所)로 불러 전교의 내용으로 포유(布諭)한 후에 시기(試記)에 함께 편수(編修)하여 전시일(殿試日)에 대령하게 하였다는 정시무과(庭試武科) 이소시관(二所試官)의 계

○ 김이익(金履翼)이 무이소시관(武二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교대로 나중에 도착한 제주인(濟州人) 무학 통덕랑 이방윤(李邦潤), 한량 이동엽(李東燁)·고택신(高宅信)·이광눌(李光訥)·부사간(夫士簡)·박사은(朴師殷)·김대집(金大集)·박근수(朴根秀)·이동보(李東普)·이동창(李東彰)·한시기(韓時琦)·하남징(河南澄)·이광화(李光華)·이광백(李光栢)·양처인(梁處仁)·이광집(李光集)·김여옥(金麗玉)·이광옥(李光玉) 등 18인과 오늘 도착한 한량 김상빈(金尙彬)·김상협(金尙協) 등 2인, 단자(單子)를 올렸지만 시험을 마치지 않은 통덕랑 홍태한(洪泰漢)·고창빈(高昌彬)·김종집(金鍾輯), 한량 문환택(文煥宅)·윤중상(尹重相)·신경주(申景周)·김석구(金錫龜)·허흥(許興) 등 8인, 합 28인을 시소(試所)로 불러 이르게 하여 전교의 내용으로 포유(布諭)한 후에 시기(試記)에 함께 편수(編修)하여 전시일(殿試日)에 대령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나중에 도착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이대로 거행한 후에 초기(草記)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이번에는 일들을 모두 눈감아 주고자 하여 비록 문책하지는 않았지만 시소의 거행은 시관들이 체모를 너무 알지 못했고, 사헌부 감찰이 따라서 수수방관하였다. 근래 조정의 체면과 위신

이 모두 이와 같으니, 이는 비단 이소(二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중략〉 이후로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무과, 이소.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四日 丙子

○ 金履翼, 以武三所試官意啓曰, 臣等伏見夜下傳敎, 以耽羅武擧赴科者, 別具試記, 殿試日待令事命下, 而本所則耽羅人, 初無呈單, 又無來赴者, 不得擧行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4일(병자)

▢ 제주인(濟州人)이 애초에 단자(單子)를 올리지 않고, 또 와서 응시하는 자도 없기에 전교의 내용을 거행할 수 없다는 정시무과(庭試武科) 삼소시관(三所試官)의 계

○ 김이익(金履翼)이 무삼소시관(武三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밤에 내린 전교를 보니, 탐라(耽羅)의 무과(武科) 응시자를 별도로 시기(試記)를 갖추어 전시일(殿試日)에 대령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본소(本所)는 탐라인(耽羅人)이 애초에 단자(單子)를 올리지 않고, 또 와서 응시하는 자도 없기에 거행할 수 없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무과, 삼소.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五日 丁未[丁丑]

○ 韓用鐸, 以武二所試官意啓曰, 臣所, 今日濟州擧子閑良李爀·安寶恒·康泰福·金明三·金得才·李廷春等六人追到, 以爲或以陪持上來, 或因公事上來, 未及於開場前云矣. 謹以傳敎內辭意, 一一布諭後, 一體修試記, 使之殿試日, 待令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5일(정미[정축])

▢ 무과(武科) 응시에 추도(追到)한 제주인(濟州人)을 시기(試記)에 편수(編修)하여 전시일(殿試日)에 대령하겠다는 정시 무과(庭試武科) 이소시관(二所試官)의 계

○ 한용탁(韓用鐸)[534]이 무이소시관(武二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의 소(所)에 오늘 제주(濟州)에서 과거 응시자 한량 이혁(李爀)·안보항(安寶恒)·강태복(康泰福)·김명삼(金明三)·김득재(金得才)·이정춘(李廷春) 등 6인이 추도(追到)하여 '혹자는 배지(陪持)[535]로 올라왔고 혹자는 공사(公事)로 인하여 올라왔는데, 개장(開場) 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전교의 내용대로 일일이 포유(布諭)한 후에 일체를 시기(試記)에 편수(編修)하여 전시일(殿試日)에 대령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인, 무과, 이소.

534) 한용탁(1759~1817): 본관 청주(淸州). 자 여로(汝魯). 시호 정헌(靖獻).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대사헌, 이조판서, 함경도관찰사 역임.

535) 배지(陪持): 지방 관아의 진상(進上)·장계(狀啓) 등을 가지고 서울에 가는 사람. 배지군(陪持軍).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六日 戊寅

○ 崔獻重, 以壯勇營言啓曰, 謹依下敎, 今此慶科庭試時, 北道摩嶺以北擧子, 未及掛單人及未入格之類試取, 小布一巡一中以上入格人別單, 武三所試取柳葉箭邊二中, 講粗以上, 兩技入格人, 與柳葉箭邊二中以上, 單技入格之人, 竝爲別單, 修正以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濟州武士, 留待殿試者, 亦令兵曹, 一體待令, 可也.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6일(무인)

▢ 제주(濟州) 무사(武士)로 머물며 전시(殿試)를 기다리고 있는 자를 병조로 하여금 일체 대령(待令)하게 하라는 전교

○ 최헌중(崔獻重)이 장용영(壯勇營)의 말로 아뢰기를, “삼가 하교대로 이번 경과정시(慶科庭試) 때 북도(北道)의 마령(摩嶺) 이북 거자(擧子)로 미처 단자(單子)를 걸지 못한 사람 및 입격하지 못한 부류를 시취(試取)하여 소포(小布)[536]에 1순(巡)에 1발 이상을 맞춰 입격한 사람의 별단(別單)과 무삼소(武三所) 시취에서 유엽전(柳葉箭) 변이중(邊二中)[537]을 하고 강(講)이 조(粗) 이상으로 두 가지 재주로 입격한 사람과 유엽전 변이중 이상으로 한 가지 재주로 입격한 사람을 모두 별단으로 작성하여 수정하여 들인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중략〉 제주(濟州) 무사(武士)로 머물며 전시(殿試)를 기다리고 있는 자를 또한 병조로 하여금 일체 대령(待令)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사, 전시, 대령.

---

536) 소포(小布): 유엽전(柳葉箭)을 시험할 때 관혁(貫革)과 대비되는 과목으로, 보통보다 작은 과녁을 사용하였음.

537) 변이중(邊二中): 변폭(邊幅)에 2회 명중함.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六日 戊寅

○ 庚申三月二十六日辰時, 上御重熙堂. 同副承旨入侍時, 同副承旨曺錫中, 假注書李允謙, 記注官金景煥·承膺祚, 以次進伏訖. 上命書傳敎曰, 再明日兩本宮衣幣香燭親傳後, 摛文院門外祗迎, 仍爲開場, 試取處所, 則春到記製述, 新舊選抄啓文臣, 三月朔親試朔試射, 一番內禁衛, 春孟朔試射, 西北別付料軍官, 每年三月親臨試射, 及濟州武士, 磨嶺以北武士, 三·甲·江界武士, 別爲試記待令之類, 試射皆於春塘臺爲之, 以此, 分付. …….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6일(무인)

▢ 제주(濟州) 무사(武士) 등의 시사(試射)를 춘당대(春塘臺)에서 하겠다는 전교

○ 경신년 3월 26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동부승지가 입시할 때, 동부승지 조석중(曺錫中),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모레 두 본궁(本宮)에 옷과 폐백, 향촉(香燭)을 직접 내준 후에 이문원(摛文院) 문밖에서 지영(祗迎)[538]하고, 이어서 시장(試場)을 열겠다. 시취할 처소는 춘도기(春到記)[539] 제술(製述)과 신구(新舊) 초계문신(抄啓文臣)[540]의 삼월삭친시삭시사(三月朔親試朔試射), 일번내금위(一番內禁衛)의 춘맹삭시사(春孟朔試射), 서북 별부료 군관(西北別付料軍官)의 매년삼월친림시사(每年三月親臨試射) 및 제주(濟州) 무사(武士), 마령 이북 무사, 삼수·갑산·강계의 무사로 별도로 시기(試記)를 만들어 대령하는 부류는 시사(試射)를 모두 춘당대(春塘臺)에서 할 것이다. 이것으로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무사, 시사, 춘당대.

---

538) 지영(祗迎): 백관들이 임금의 행차를 공경스럽게 맞이하는 것을 가리킴.

539) 춘도기(春到記): 봄에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으로 도기(到記)의 원점(圓點)이 50점 이상 되는 사람에게 보이던 과거 시험을 말함.

540) 초계문신(抄啓文臣): 정조 때 문풍(文風)의 진작을 목적으로 37세 이하의 참상(參上)·참외(參外)의 관원 중에서 문명(文名)이 높은 자를 뽑아 다달이 강경(講經)·제술(製述)의 시험을 보이던 제도. 실직(實職)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본사(本仕)를 면제하고 실직이 없는 경우에는 군함(軍銜)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온갖 편의를 제공하였음.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八日 庚午[庚辰]

○ 韓致應, 以賑恤廳言啓曰, 濟州武士三十三人下去來回糧, 令該廳, 題給事, 命下矣. 濟州武士三十三人回糧米, 各三斗式, 合米六石九斗分給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8일(경오[경진])

▢ 제주(濟州) 무사(武士) 33인에게 회량미(回糧米)를 지급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한치응(韓致應)[541]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무사(武士) 33인이 내려갈 때 회량미(回糧米)를 해당 청(廳)으로 하여금 제급(題給)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제주 무사 33인에게 회량미로 각 3말씩 합 6섬 9말을 분급(分給)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 무사, 회량미, 분급.

541) 한치응(1760~1824): 본관 청주(淸州). 자 혜보(徯甫). 호 병산(甁山).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우참찬, 한성판윤, 함경도관찰사 역임. 저서 《병산집》.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八日 庚午[庚辰]

○ 庚申三月二十八日辰時, 上御春塘臺. 抄啓文臣親試, 春到記儒生製述殿講, 內禁衛·西北別付料軍官·濟州武士·摩嶺以北武士·三·甲·江界武士, 試射入侍時, 行都承旨李集斗, 行左承旨曺允大, 右承旨南履翼, 左副承旨尹序東, 右副承旨韓致應, 同副承旨曺錫中, 假注書呂東植·李泳夏, 記注官金景煥·承膺祚, 原任直閣沈象奎, 以次侍立. 集斗奏儒生入門爲七百五十七人, 抄啓文臣入門爲二十人矣. …… 命濟州武士入格人高昌贇, …… 等, 呼新來. 命書榻敎曰, 濟州武士三十三人下去時, 回糧, 令該廳題給. …….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8일(경오[경진])

▢ 제주(濟州) 무사(武士) 33인에게 회량미(回糧米)를 지급하겠다는 진휼청의 계

○ 경신년 3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로 나아갔다. 초계문신친시(抄啓文臣親試), 춘도기 유생제술전강(春到記儒生製述殿講), 내금위·서북별부료군관·제주(濟州) 무사(武士)·마령 이북 무사·삼수·갑산·강계 무사의 시사(試射)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집두(李集斗), 행좌승지 조윤대(曺允大), 우승지 남이익(南履翼), 좌부승지 윤서동(尹序東), 우부승지 한치응(韓致應), 동부승지 조석중(曺錫中), 가주서 여동식(呂東植)·이영하(李泳夏), 기주관 김경환(金景煥)·승응조(承膺祚), 원임 직각 심상규(沈象奎)가 차례로 시립(侍立)하였다. 이집두가 유생으로 입문(入門)한 자가 757인이고, 초계문신으로 입문한 자가 20인이라고 아뢰었다. 〈중략〉 제주 무사로 입격한 고창윤(高昌贇), 〈중략〉 등으로 하여금 호신래(呼新來)[542]를 하게 했다. 쓰라고 명하여 어전에서 하교하기를, "제주 무사 33인이 내려갈 때 회량미(回糧米)를 해당 청(廳)에서 제급(題給)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무사, 고창윤, 호신래, 회량미, 제급.

542) 호신래(呼新來): 과거 급제자에게 선임 급제자들이 그의 집에 가서 행하는 축하행사의 일종임. 이때 신입 급제자는 얼굴에 검정칠을 당하는 등 선임 급제자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해야 했음.

❖ 嘉慶 五年 庚申 三月 二十九日 辛巳

○ 曺錫中, 以刑曹言啓曰, 依下敎, 濟州定配罪人中, 應坐外, 遺漏者, 詳考曹在配案, 別單書入. …… 敢啓. 傳曰, 知道. 依判下施行, 可也.

❖ 정조 24년(1800) 경신년 3월 29일(신사)

▢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한 죄인(罪人) 중 응당 죄를 받을 사람 외에 누락된 자를 죄안(罪案)을 자세히 살펴 별단(別單)에 써서 들인다는 형조의 계

○ 조석중(曺錫中)[543]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하교대로 제주(濟州)에 정배(定配)한 죄인(罪人) 중에 응당 죄를 받을 사람 외에 누락된 자를 본조(本曹)에 있는 죄안(罪案)을 자세히 살펴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 〈중략〉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 판하(判下)[544]대로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정배, 죄인, 죄안, 방미방.

543) 조석중(?~?): 본관 창녕(昌寧). 자 숙정(叔正).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승정원주서, 춘천부사, 충청도관찰사 역임.

544) 판하(判下): 임금의 재가. 판부(判付).

❖ 嘉慶 五年 庚申 四月 一日 癸未

○ 曺錫中, 以兵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鄭觀輝牒呈本曹辭意, 則以壬子式年武科初試陳試人李邦潤等許赴今番會試事, 報來矣. 其中李邦輔·李邦潤, 初無陳試公文, 則到今年久之後, 無以憑考, 科法至嚴, 不可許赴. 至於李東燁, 則其後乙卯庭試時, 已爲許赴, 本曹有置簿書蹟, 旣經一番會試, 則渠雖海外無識之類, 其習極爲駭痛. 今方移關, 以爲嚴處之地, 而該牧使之未能照察. 有此謬報者, 不察莫甚, 當該濟州牧使鄭觀輝, 從重推考, 何如? 傳曰, 本曹若能別白知委, 則李東燁, 何以更來乎? 其外兩人, 旣無文蹟, 則尤非渠罪, 各年當該堂上推考, 科場至嚴, 三人所謂會試竝勿施. 此後濟州人, 過會試或殿試後, 帖文爻周之意, 自本曹文移牧使處, 以爲憑考之地, 可也. 口傳分付上來三人, 明日判堂招致, 待令月覲門外微稟.

❖ 정조 24년(1800) 경신년 4월 1일(계미)

▢ 무과 초시 진시인(陳試人)의 여부를 잘 살피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병조의 계

○ 조석중(曺錫中)이 병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첩정(牒呈)으로 본조(本曹)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임자년 식년 무과 초시 진시인(陳試人)[545] 이방윤(李邦潤) 등을 금번 회시(會試)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보(李邦輔)와 이방윤은 애초에 진시공문(陳試公文)이 없은즉, 지금에 이르러 햇수가 오래된 후여서 빙고(憑考)할 수 없습니다. 과법(科法)이 지극히 엄하니, 응시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동엽(李東燁)의 경우는 그 후 을묘년 정시(庭試) 때 이미 응시를 허락하였고, 본조에 치부(置簿)해 둔 서적(書蹟)이 있으니, 이미 한 번의 회시를 치렀습니다. 그가 비록 바다 밖의 무식한 부류라 하더라도 그 버릇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방금 관문(關文)을 보내어 엄히 처벌하게 하였습니다. 해당 목사가 능히 잘 살피지 못하여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하였으니, 불찰이 아주 심합니다. 해당 제주목사 정관휘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본조

545) 진시인(陳試人):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회시(會試)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예조나 병조에 보고하고 다른 해의 회시에 응시하는 것을 진시(陳試)라고 하고, '진시인'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능히 분명하게 통보하였다면 이동엽이 어찌 다시 왔겠는가? 그밖에 두 사람은 이미 문적(文蹟)이 없으니 더욱 그들의 죄가 아니다. 각년 해당 당상을 추고하고, 과장(科場)이 지극히 엄하니, 세 사람의 회시는 모두 시행하지 말도록 하라. 이후로는 제주인(濟州人)은 회시나 전시(殿試)가 지난 후에 첩문(帖文)을 말소하도록 본조에서 목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빙고할 수 있도록 하라. 구전(口傳)으로 분부하여 올라온 세 사람을 내일 판당(判堂)이 불러들여 월근문(月覲門) 밖에 대령하였다가 미품(微稟)[546]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종중추고, 진시, 회시.

546) 미품(微稟): 격식을 갖추지 않고 임금에게 넌지시 여쭈는 일을 말함.

❖ 嘉慶 五年 庚申 四月 二日 甲申

○ 尹序東, 以禮曹言啓曰, 無論大小科, 陳試許赴人, 具由草記事, 曾有定式矣. …… 濟州幼學梁之薀, 辛亥九月本牧式年文科初試入格, 以海外之人受公文, 今始上來, 一體許赴, 何如? 傳曰, 允.

❖ 정조 24년(1800) 경신년 4월 2일(갑신)

▢ 진시인(陳試人) 제주(濟州) 유학 양지온(梁之薀)의 과거 응시 허락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윤서동(尹序東)[547]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를 막론하고 초시 합격자로 다른 해 회시(會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진시인(陳試人)에 대해 사유를 갖추어 초기(草記)하도록 일찍이 정식(定式) 하였습니다. 〈중략〉 제주(濟州) 유학 양지온(梁之薀)은 신해년 9월 본목(本牧) 식년 문과 초시 입격자입니다. 바다 밖의 사람으로 공문을 받고 지금 비로소 올라왔습니다.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시, 양지온, 회시.

547) 윤서동(?~?): 본관 해평(海平). 자 치구(穉球). 1782년(정조 6) 문과 급제.

❖ 嘉慶 五年 庚申 四月 二日 甲申

○ 庚申四月初二日辰時, 上詣春塘臺. 殿座入侍時, 行都承旨李集斗, 行左承旨李書九, 行右承旨李益運, 左副承旨徐有聞, 右副承旨南履翼, 同副承旨曺錫中, 假承旨曺允大·金履翼·李尙度·金載翼·徐英輔·趙弘鎭, 記事官洪奭周, 假注書李泳夏, 記注官承膺祚, 記事官李存秀, 以次侍立. …… 上曰, 帳殿武所, 假承旨徐英輔擧行, 武講一所, 右副承旨擧行, 三所假承旨趙弘鎭進去, 二所假承旨金載翼進去, 仍命濟州武士三人等應射. …….

❖ 정조 24년(1800) 경신년 4월 2일(갑신)

▢ 임금이 제주(濟州) 무사(武士) 3인 등에게 활쏘기에 응시(應試)하도록 명함

○ 경신년 4월 2일 진시에 임금이 춘당대(春塘臺)로 나아갔다. 전좌(殿座)에 입시할 때, 행도승지 이집두(李集斗), 행좌승지 이서구(李書九), 행우승지 이익운(李益運), 좌부승지 서유문(徐有聞), 우부승지 남이익(南履翼), 동부승지 조석중(曺錫中), 가승지 조윤대(曺允大)·김이익(金履翼)·이상도(李尙度)·김재익(金載翼)·서영보(徐英輔)·조홍진(趙弘鎭), 기사관 홍석주(洪奭周), 가주서 이영하(李泳夏), 기주관 승응조(承膺祚), 기사관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시립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장전(帳殿) 무소(武所)는 가승지 서영보가 거행하고, 무강(武講) 일소(一所)는 우부승지가 거행하며, 삼소(三所)는 가승지 조홍진이 나아가고 이소(二所)는 가승지 김재익이 나아가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제주(濟州) 무사(武士) 3인 등에게 활쏘기에 응시(應試)하도록 명했다. 〈하략〉.

△ 주제어: 제주 무사, 활쏘기, 응시.

❖ 嘉慶 五年 庚申 四月 五日 丁亥

○ 李益運, 以刑曹言啓曰, 因本曹別單, 濟州牧金鼎弘·安處宅·金光益, 移配他島事, 書下矣. 金鼎弘, 全羅道興陽縣鹿島, 安處宅, 靈光郡荏子島, 金光益, 興陽縣呂島, 移定配所, 仍前罪目押送之意, 分付道臣, 何如? 傳曰, 允.

❖ 정조 24년(1800) 경신년 4월 5일(정해)

▢ 제주목(濟州牧)의 김정홍(金鼎弘) 등 3인을 다른 섬으로 이배(移配)하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이익운(李益運)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본조(本曹) 별단(別單)으로 인하여 제주목(濟州牧)의 김정홍(金鼎弘)·안처택(安處宅)·김광익(金光益)을 다른 섬으로 이배(移配) 하도록 서하(書下) 하였습니다. 김정홍을 전라도 흥양현 녹도(鹿島), 안처택을 영광군 임자도(荏子島), 김광익을 흥양현 여도(呂島)로 배소를 이정(移定)하고, 이어서 전의 죄목으로 압송할 뜻을 관찰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김정홍, 안처택, 김광익, 이배.

❖ 嘉慶 五年 庚申 四月 七日 己丑

○ 以江原道三陟·杆城等暗行兼慰諭御史權晙狀啓, 慰諭燒戶後, 潛蹤時聞見開錄馳啓事, 傳于徐有聞曰, 觀此狀本, 杆民亦有就次奠居之望, 甚可幸也. …… 嘗聞襄·杆銀口魚捉納之弊, 爲小民切苦, 而爾於今行, 何乃不爲擧論於狀本乎? 以無用之物, 爲難矯之端者, 已無意味, 且以任土之義言之, 襄猶該邑, 杆尤不當. 此一款, 每欲定式而未果, 爾適銜命嶺東矣. 先從兩邑銀口魚, 無論供御與營用, 依濟州折大全鰒勿捉之例, 更勿擧論, 而不但不爲封進與卜定而已. 雖自該邑, 若有一尾貿用之弊, 該守令, 施以均廳隱結之律, 此意亦爲回諭 …….

❖ 정조 24년(1800) 경신년 4월 7일(기축)

▢ 강원도 양양(襄陽)과 간성(杆城)에서 은어(銀魚)를 잡아 바치는 폐단에 대해 제주(濟州)에서 절대전복(折大全鰒)을 잡지 말라고 한 사례에 따라 다시 거론하지 말도록 어사 권준(權晙)에게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강원도 삼척(三陟)과 간성(杆城) 등에 암행겸위유어사(暗行兼慰諭御史)로 간 권준(權晙)[548]의 장계에, 불에 탄 집을 위유한 후 자취를 감추고 암행했을 때 보고 들었던 것을 개록(開錄)하여 치계(馳啓)한 일과 관련하여 서유문(徐有聞)에게 전교하기를, "이 장본(狀本)을 보니 간성의 백성 또한 차례대로 거처를 정할 희망이 있으니 매우 다행이다. 〈중략〉 일찍이 들으니 양양(襄陽)과 간성에서 은어(銀魚)를 잡아 바치는 폐단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대는 이번 행차에서 어찌 장본에 거론하지 않았는가? 무용지물 때문에 바로잡아 고치기 어려운 폐단을 만드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임토(任土)[549]의 뜻으로 말을 하자면, 양양(襄陽)이 해당하는 읍이라 해도 간성은 오히려 부당하다. 이 한 가지 조항은 매번 정식(定式)하고자 하였지만 이루지 못했다. 네가 마침 명을 받들어 영동(嶺東)으로 나가있으니, 먼저 두 읍의 은구어부터 임금의 공어(供御)와 감영의 용도를 막론하고 제주(濟州)에서 절대전복(折大全鰒)[550]을 잡

548) 권준(?~?): 본관 안동(安東). 자 양중(陽仲). 1794년(정조 18) 문과 급제.

549) 임토(任土): 각 지방의 실제 형편에 의거하여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말함. 《서경》 〈우공(禹貢)〉 서(序)에 "토지의 특성에 따라 공물을 정한다[任土作貢]."라고 하였음.

550) 절대전복(折大全鰒): 매우 큰 전복을 가리키는 절대전복(絶大全鰒)과 동일한 말인 듯함. 절대전복은 회전복(灰全鰒)이라고도 함. 정조는 제주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여 제주에서 연례적으로 바치던 회전복 5,508첩(貼) 17관(串) 중에서 임시 감한 것과 아직 감하지 않은 것을 영구히 감해

지 말라고 한 사례에 따라 다시 거론하지 말도록 하라. 봉진(封進)과 복정(卜定)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다. 비록 해읍(該邑)으로부터 만약에 한 마리라도 사다가 쓰는 폐단이 있다면 해당 수령을 균청은결지율(均廳隱結之律)로 시행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또한 회유(回諭)하도록 하라. 〈하략〉."라고 하였다.[551]

△ 주제어: 양양, 간성, 은어, 폐단, 전복.

주도록 하였음(《승정원일기》 정조 2년 5월 29일).

551)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4년 4월 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五年 庚申 閏四月 二十四日 丙子

○ 徐英輔,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前判官趙章漢遞任進上馬三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封進事體, 何等重大, 三匹俱爲疲劣, 無一可用, 事極駭然. 當該封進前判官趙章漢, 姑先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정조 24년(1800) 경신년 윤4월 24일(병자)

▢ 피열(疲劣)한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봉진한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장한(趙章漢)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서영보(徐英輔)가 사복시 일·이 제조의 말로 아뢰기를,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조장한(趙章漢)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3필이 방금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진(封進)의 사체(事體)가 얼마나 막중한 것입니까? 3필이 모두 피열(疲劣)하여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 전 제주판관 조장한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후일을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판관, 조장한, 진상마, 종중추고.

❖ 嘉慶 五年 庚申 閏四月 二十五日 丁丑

○ 庚申閏四月二十五日辰時, 上御誠正閣. 藥房入診, 諸承旨持公事入侍, 詣臺臺臣, 同爲入侍時, 藥房都提調李時秀, 提調徐邁修, 副提調李集斗, 假注書申在明, 記注官承膺祚·金啓濂, 檢校直閣沈象奎, 左副承旨徐英輔, 右副承旨尹光顔, 同副承旨朴奎淳, 假注書呂東植, 持平申龜朝,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李惟鑑·玄必采·安昌禧, 以次進伏訖. …… 履度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4년(1800) 경신년 윤4월 25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김이도(金履度)의 계

○ 경신년 윤4월 25일 진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승지들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대각(臺閣)에 나온 대신이 함께 입시할 때, 약방 도제조 이시수(李時秀), 제조 서매수(徐邁修), 부제조 이집두(李集斗), 가주서 신재명(申在明), 기주관 승응조(承膺祚)·김계렴(金啓濂), 검교직각 심상규(沈象奎), 좌부승지 서영보(徐英輔), 우부승지 윤광안(尹光顔), 동부승지 박규순(朴奎淳),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지평 신귀조(申龜朝),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안창희(安昌禧)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이도(金履度)[552]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552) 김이도(?~?): 본관 안동(安東). 자 계근(季謹). 1800년(정조 24) 문과 급제. 호조판서, 대사성, 경기도관찰사 역임.

❖ 嘉慶 五年 庚申 閏四月 二十六日 戊寅

○ 前持平康聖翊疏曰, 伏以, 臣以至寒微之蹤, 無一可取之資, 絶海之外, 貿貿生長, 意外科名, 已溢涯分, 而雨露不擇, 淸顯縻身, 數年以來, 除旨聯翩, 光生海島, 榮動蓬蓽, 感激惶懍, 罔知攸措. 惟當竭蹶趨膺, 粗伸義分, 而狗馬之疾, 經年彌留, 藥餌爲命, 末由蠢動, 罪積逋慢, 無地自容矣. 及夫病勢稍間, 伏聞冊禮順成, 候風駕海, 雖未及蹈舞於嵩呼之列, 何敢偃然私次, 不思所以瞻仰象魏, 庶慰愚忱乎? 仍伏念, 臣旣造輦轂之下, 濟州民事之一二最可憫者, 不敢不仰聞也. 本州, 當甲乙大無之年, 若未蒙船粟往哺之澤, 則一島生靈, 今無孑遺矣. 聖朝軫恤之德, 慈宮特給之恩, 再造島民, 萬世不忘, 而又念本州之頻値歉荒, 且軫沿邑之貽弊移轉, 自備局關飭本州, 設庫收穀, 豫備飢歲故, 其時牧使辦備數千石穀, 新設別庫, 分置三邑, 其爲島民救荒之策, 爲沿邑除弊之意, 至矣盡矣. 然而第念本州, 自春至秋, 蜒風瘴雨, 無日不作, 雖村閭房室之內, 瓮罌包橐之儲, 未及數年, 腐敗生綠, 隨手糜粉, 竟爲不可食之物, 自古島中, 無儲穀之富, 每値歉歲, 無貿米之處, 氓戶艱食, 良由於此. 又況土築之庫, 委積之穀, 安保其經霾而不敗, 歷歲而不腐乎? 島民之無知, 皆以爲, 此後賑政, 惟靠於是, 而移粟一節, 其路永塞, 數萬民口, 將何所恃乎? 衆口一談, 爭言不便, 此則不可與謀始, 而臣愚淺見, 竊以爲, 新庫所儲, 量宜變通, 則日後荒年, 可爲救急之一助, 若尋常委置, 則有名無實, 不利於公私矣. 臣所謂量宜變通者, 以其他逐年糶糴之穀, 擇取其精實者, 換置新庫, 歲一改色, 則於此於彼, 兩全而無害. 伏乞更令廟堂稟處, 俾有實效焉. 且以本州國馬欠縮言之, 甲乙之歉, 前古未有, 田無收穀, 野無靑草, 人命之重, 未遑相保, 牛馬之賤, 尤無可論, 國屯之故斃, 至於一千五百零. 其時牧使, 以其荒年之餘, 勢難代徵之由, 前已狀聞, 則備局許以寬五年之限, 準數徵捧事, 有所關下. 今年, 卽當捧之年, 而數年之間, 牧卒之飢故, 其數夥然, 白骨徵出, 已無可言, 而徵族徵隣, 勢所必至. 所謂私畜, 十空七八, 官令雖嚴, 何處貿納乎? 邇來國畜, 漸就蕃息, 計今見在之數, 比諸甲乙以前之摠, 猶爲剩餘矣. 有國馬政, 亦爲至重, 臣不敢質言其便否, 而第臣出海之時, 殘氓疲卒之呼訴於船頭者, 數日不絶, 此實一島之民情, 非臣一人之私言. 臣之頂踵毛髮, 莫非聖恩, 耿耿一念, 惟在於報圖萬一, 而我聖上視民如傷之盛德, 匹美周文, 臣何敢有聞不達, 孤負天地父母之至仁大德也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爾是侍從中, 在遐外之人, 而有此民弊之指陳, 甚可嘉也. 穀品之設庫備置, 其時大臣筵奏, 出於爲島民, 俾免坐待海外之輸致, 意固美矣. 爾言亦有意見, 許令廟堂, 草記稟處, 以爲兩便之地. 馬政事, 公畜旣蕃, 剩於前摠, 則何必更徵於牧屬乎? 徵族徵隣, 其弊當自歸於牧屬外平民, 寧不矜甚? 新倅之尙無一言, 可謂溺職. 卽令廟堂, 關問其剩摠, 不卽報司之委折, 使之論理

狀聞, 而回下前, 切勿更徵. 引避憲臺許遞, 以爾爲掌令, 此後登筵, 更以島中民事, 詳陳之.

❖ 정조 24년(1800) 경신년 윤4월 26일(무인)

▢ 제주(濟州) 3읍에 설치된 곡창(穀倉)과 마정(馬政)의 폐단을 아뢰는 전 지평 강성익(康聖翊)의 상소(上疏)

○ 전 지평 강성익(康聖翊)이 상소(上疏)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지극히 한미한 자취로 한 가지도 취할 만한 자질이 없으니, 절해(絶海) 밖에서 무무(貿貿)[553]하게 생장하였습니다. 뜻밖의 과명(科名)[554]이 이미 분수에 넘치는데, 우로(雨露)가 땅을 가리지 않고 내려 청현직(淸顯職)이 몸을 얽어 수년 이래로 제지(除旨)[555]가 그치지 않아 광영이 해도(海島)에 빛나고 영광이 누추한 집을 진동하였으니, 감격스럽고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다 중도에 쓰러지더라도 달려가 명령에 응하여 의분(義分)[556]을 조금이나마 폈어야 했지만 미천한 몸의 병이 해가 지나도록 낫지 않아 약으로 연명하고 있어 움직일 길이 없으니, 책임을 회피하고 게을리 하는 죄가 쌓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병세가 조금 나아질 때에 이르러 삼가 책례(冊禮)[557]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람을 기다렸다가 바다를 건너야 하기에 비록 숭호(嵩呼)[558]의 대열에서 미처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어찌 감히 사차(私次)[559]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거만하게, 대궐을 우러러 보며 어리석은 소견이 위로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하여 삼가 생각건대, 신이 이미 왕도(王都)에 나아갔었기에 제주(濟州) 백성의 일 가운데 한두 가지 가장 가련한 것을 감히 우러러 아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주(本州)는 갑인년(1794)과 을묘년(1795)의 큰 흉년에 만약 배로 곡물(穀物)을 싣고 와서 먹여주

553) 무무(貿貿):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함.
554) 과명(科名):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사람을 말함. 과목(科目)이라고도 하고, 과거의 시험 종목 또는 시험을 가리키기도 함.
555) 제지(除旨): 벼슬을 내리는 임금의 교지(敎旨).
556) 의분(義分): 도의(道義)에 합당한 분수.
557) 책례(冊禮): 왕세자를 책봉(冊封)하는 예식.
558) 숭호(嵩呼): 백성들이 임금의 만세를 송축하는 말로, 한나라 무제(武帝)가 숭산(嵩山)에 올랐을 때 어디선가 만세 소리가 세 번 들려왔다는 고사에서 유래함.
559) 사차(私次): 사사로이 머물러 있는 곳. 민간의 집.

는 은택을 입지 못했다면 온 섬의 백성들은 지금 단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조(聖朝)의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덕과 자궁(慈宮)이 특별히 내린 은혜가 다시 섬 백성들을 만들어 주었으니, 만세(萬世)에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560] 또 본주가 자주 흉년을 만나고, 또한 연읍(沿邑)에 폐를 끼치며 곡물을 옮기는 것을 가엽게 여겨 비국(備局)에서 본주에 공문을 보내어 창고(倉庫)를 설치하고 곡물을 거두어 기근이 드는 해를 미리 대비하게 하였는데, 그 당시 목사가 힘써 수천 섬의 곡물을 갖추고 별고(別庫)를 신설하여 3읍에 분치(分置)하였으니, 섬 백성을 위해 구황(救荒)하는 계책과 연읍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하지만 다만 생각건대, 본주는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연풍(蜒風)[561]과 장기(瘴氣)[562]를 품은 비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시골 작은 마을의 방 안 항아리와 자루에 쌓아 둔 것은 몇 년이 못 가서 부패하여 곰팡이가 피고, 손이 가는대로 문드러져 가루가 되어 마침내는 먹지 못하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예부터 섬 안에 곡물을 쌓아둔 부자가 없고, 매번 흉년을 만나면 쌀을 살 곳이 없어 백성들이 먹을 것에 괴로워하는 것은 실로 이에 말미암은 까닭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흙을 쌓아 만든 창고에 비축하는 곡물이라서 그것이 흙비를 겪으면서 상하지 않고, 여러 해가 지나도 썩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무지한 섬 백성들은 모두가 생각하기를, '이후의 진정(賑政)이 오직 이것에 의지할 것인데, 곡물을 옮기는 한 절목은 그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되었으니, 수만 백성들은 장차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다투어 불편함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시작을 함께 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고 얕은 식견으로 적이 생각건대, 새로 설치한 창고에 쌓아둔 것을 적당히 헤아려 변통한다면 구급(救急)의 일조(一助)가 될 것이지만, 만약 대수롭지 않게 방치한다면 유명무실해져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적당히 헤아려 변통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밖에 해마다 조적(糶糴)하는 곡물을 가지고 정실(精實)한 것을 택하여 새로 설치한 창고에 바꾸어 놓는 것을 해마다 한번씩 개색(改色)[563]한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다 온전하여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여 실효가 있게 하십시오. 또한 본주 국마(國馬)의 흠축(欠縮)으로 말하자면, 갑인년과 을묘년의 흉년은 예전에 없던 일로, 밭에

560) 이상은《정조실록》정조 24년 윤4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561) 연풍(蜒風):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562) 장기(瘴氣):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毒)한 기운.
563) 개색(改色): 묵은 곡식을 지방민에게 나누어 주고 그 수량만큼 새로운 미곡으로 보충하게 하는 것.

는 거둬들일 곡식이 없고 들에는 푸른 풀도 없어서 중(重)한 사람의 목숨도 서로 보존할 겨를이 없었으니, 천한 소와 말은 더욱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둔마(國屯馬) 중 죽은 것이 1,500필 남짓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목사가 흉년의 끝이라 형세상 대징(代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계로 보고하니, 비국에서는 기한을 5년으로 넉넉히 주어 숫자에 맞추어 징수하도록 관문(關文)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년은 곧 받아들여야 하는 해입니다. 하지만 수년 사이에 굶어 죽은 목졸(牧卒)의 수가 많아서 백골(白骨) 징출(徵出)은 말할 것도 없고, 징족(徵族) 징린(徵隣)이 형세상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사축(私畜)이라고 하는 것도 열에 칠팔이 비었으니, 관령(官令)이 비록 엄하다고는 하지만 어느 곳에서 사다가 바치겠습니까? 근래 들어 국축(國畜)이 점차 번식하여 지금 있는 숫자를 계산해 보면, 갑인년과 을묘년 이전의 총수에 비해 오히려 남음이 있습니다. 나라에 있어 마정(馬政)이 또한 지극히 중하기에 신이 감히 그 편리함과 불편함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이 바다로 나갈 때 잔약한 백성으로서 초췌한 목졸들이 뱃머리에서 호소하는 것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온 섬의 민정(民情)으로, 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터럭 하나도 성상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잊지 못하는 일념은 오직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상이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과 같이 여기는 성덕(盛德)은 아름다운 주(周) 문왕(文王)과 짝하시니, 신이 어찌 감히 듣고도 아뢰지 않아서 천지 부모의 지극히 인자하고 큰 덕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564])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너는 시종신(侍從臣) 중에서 먼 지방 사람으로 이처럼 백성들의 폐단을 지적하여 아뢰었으니 심히 가상하다. 곡물을 창고를 설치하여 비치하자고 한 것은 그 당시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으로, 섬 백성을 위하여 바다 밖에서 수송해 주는 것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면하게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뜻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너의 말 또한 의견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품처하게 하여 양쪽이 다 편리하게 하겠다. 마정의 일은 공축(公畜)이 이미 늘어나서 전의 총수보다 남는다면 어찌 다시 목속(牧屬)에서 징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징족 징린은 그 폐단이 마땅히 목속 외에 평민에게 돌아갈 것이니 어찌 불쌍함이 심하지 않은가? 새로운 수령이 아직 한 마디 말이 없으니 익직(溺職)[565]이라 이를 만하다.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관문을

564)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4년 윤4월 2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565) 익직(溺職): 맡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

띄워 그 남은 총수를 즉시 사(司)에 보고하지 않은 곡절을 물어 논리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회하(回下)[566] 전에는 절대 다시 징수하지 말게 할 것이다. 인피(引避)[567]하는 헌대(憲臺)[568]를 체직시키고 너를 장령으로 삼으니, 이후 등연(登筵)[569]할 때 다시 섬 백성의 일로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성익, 상소, 곡물, 창고, 마정.

566) 회하(回下): 임금이 신하가 올린 안건에 대하여 다시 살펴서 답변을 내리는 일임.
567) 인피(引避): 물러가 회피(回避)함. 특히 벼슬아치가 직무상 거북한 처지에 있어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나는 것. 또 그러기 위하여 청원(請願)하는 것.
568) 헌대(憲臺): 사헌부(司憲府)의 별칭.
569) 등연(登筵): 관원이 일을 위해 임금에게 나가 뵙는 것을 말함.

❖ 嘉慶 五年 庚申 閏四月 二十七日 己卯

○ 庚申閏四月二十七日辰時, 上御重熙堂. 推考房承旨入侍時, 右承旨徐英輔, 假注書呂東植, 記事官金珍恪, 記注官承膺祚, 以次進伏訖. …… 上曰, 日前濟州臺臣疏語中, 該牧穀簿事云云. 果爲何如? 而亦已發關耶? 書九曰, 已爲關問矣. 蓋其儲穀, 別無弊端, 而島民輩, 不知本意, 以爲旣有此穀, 則來頭雖値歉歲, 更不以陸穀, 救濟渠輩之飢荒云云者, 蓋由於該牧捧糴, 自來麤劣, 而此穀儲置之後, 渠輩憚於精捧, 致有此言. 臺疏之以精實換置云者, 該臺似於上京後, 略聞物論而然矣. 島民輩, 雖以穀儲之易致腐傷爲言, 而聞前牧使言, 則以爲昨年所捧, 今年分給, 則二年之內, 別無致損之端云矣. 上曰, 島民輩, 不知設施之本意, 雖言其不便, 而此穀儲積, 誠爲豫備之政, 旣始之事, 豈可以無端中撤乎? 仍命退, 諸臣以次退出.

❖ 정조 24년(1800) 경신년 윤4월 27일(기묘)

▢ 제주(濟州) 출신 대신(臺臣)이 상소(上疏)에서 말한 곡창(穀倉) 설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폐단이 없음을 아뢰는 이서구(李書九)의 계

○ 경신년 윤4월 27일 진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추고방(推考房)의 승지가 입시할 때, 우승지 서영보(徐英輔),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기사관 김진각(金珍恪), 기주관 승응조(承膺祚)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일전에 제주(濟州) 출신 대신(臺臣)이 상소(上疏)에서 말한 내용 중에 해당 목(牧)의 곡부(穀簿)의 일을 운운하였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관문(關文)은 보냈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이미 관문으로 물어보았는데, 별다른 폐단은 없었습니다. 섬 백성들이 본뜻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곡식이 있으면 비록 흉년을 당하더라도 다시는 육지 곡물로 저들의 기황(飢荒)을 구제하지 못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대개 해당 목이 환곡을 받아들이는 것이 본래 거칠고 형편이 없었는데, 이처럼 곡물을 비치해 둔 후에는 저들이 정확하게 거두는 것을 꺼리게 되어 이러한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간이 상소에서 정실(精實)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말한 것은 해당 대간이 서울에 올라온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논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들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비록 비축한 곡물이 쉽게 썩어서 상한다고 말하였지만, 전 목사의 말을 들으니, '작년에 받아들인 것을 금년에 나누어 준다면 2년

내에 달리 손상되는 단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섬 백성들이 곡창(穀倉) 설치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 비록 그 불편함을 말하지만, 이 곡물을 저축하여 쌓아두는 것은 참으로 미리 대비하는 정사(政事)이다. 이미 시작한 일을 어찌 아무런 이유 없이 중간에 그만 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어서 물러나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대로 물러 나갔다.

△ 주제어: 대신, 상소, 곡창, 폐단.

❖ 嘉慶 五年 庚申 閏四月 二十九日 辛巳

○ 庚申閏四月二十九日卯時, 上御誠正閣. 諸承旨持公事入侍時, 行左承旨金履翼, 右承旨徐英輔, 左副承旨崔獻重, 右副承旨朴奎淳, 同副承旨嚴耆, 假注書申在明·呂東植, 記注官金啓濂, 記事官李存秀, 以次進伏訖. …… 煥之曰, 前持平康聖翊上疏批旨內, 穀品之設庫備置, 其時大臣筵奏, 出於爲島民, 俾免坐待海外之輸致, 意固美矣. 爾言亦有意見, 許令廟堂, 草記稟處, 以爲兩便之地事, 命下矣. 取見其疏本, 則以爲濟州頻値歉荒故, 軫沿邑之貽弊移轉, 自備局關飭本州, 收穀豫備, 其時牧使, 辦備數千石穀, 新設別庫, 分置三邑, 其爲島民救荒之策, 爲沿邑除弊之意, 至矣盡矣. 然本州自春至秋, 蜒風瘴雨, 無日不作, 雖村閭房屋之內, 甕罌包橐之儲, 未及數年, 腐敗生綠, 竟爲不可食之物, 而況土築之庫, 委積之穀, 安保其經霾而不敗, 歷歲而不腐乎? 臣意則逐年糶糴之穀, 擇取其精實者, 換置新庫, 歲一改色, 則兩全而無害, 令廟堂稟處爲辭矣. 島中儲穀, 實爲有備無患之道, 近聞穀品精實, 倉廒堅牢, 足可經久, 而來頭收效, 專在於典守之有方, 措置之得宜, 糴新糶舊, 量宜改色, 常使精穀留儲者, 乃是第一要務. 向自本司, 已爲關飭, 而今此疏辭, 亦以爲然, 更爲申飭該牧, 使之依此擧行. 且聞牟米, 雖經瘴濕, 最不腐傷云. 當此牟還收捧之時, 留庫中, 皮穀之不能耐久者, 亦以牟米準折, 隨宜換色, 尤爲便好, 以此意, 一體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煥之曰, 原疏又以牧馬事, 有所論列, 而昨年因該牧使狀請, 甲乙耗縮之數, 旣令限五年漸次充補, 則年限未滿之前, 遽以孳長之新籍, 移充減損之舊摠, 殊非重馬政杜後弊之道. 然而旣奉關問之命, 待其登聞, 從後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出擧條】 …… 翰源等曰, 臣謂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宜矣. 上曰, 不允. 【出擧條】 …….

❖ 정조 24년(1800) 경신년 윤4월 29일(신사)

▢ 전 지평 강성익(康聖翊)이 상소(上疏)에서 아뢴 제주(濟州) 3읍의 곡창(穀倉)과 마정(馬政)의 폐단에 대해 의견을 아뢰는 심환지(沈煥之)의 계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오한원(吳翰源) 등의 계

○ 경신년 윤4월 29일 묘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승지들이 공문

서를 가지고 입시할 때, 행좌승지 김이익(金履翼), 우승지 서영보(徐英輔), 좌부승지 최헌중(崔獻重), 우부승지 박규순(朴奎淳), 동부승지 엄기(嚴耆), 가주서 신재명(申在明)·여동식(呂東植), 기주관 김계렴(金啓濂), 기사관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전 지평 강성익(康聖翊)의 상소(上疏)에 대한 비지(批旨) 내에, '곡물을 창고를 설치하여 비치하자고 한 것은 그 당시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것으로, 섬 백성을 위하여 바다 밖에서 수송해 주는 것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면하게 하는 데서 나온 것이니, 뜻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너의 말 또한 의견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草記)로 품처하게 하여 양쪽이 다 편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제주(濟州)가 자주 흉년을 만나는 까닭에 연읍(沿邑)에 폐를 끼치며 곡물을 옮기는 것을 가엽게 여겨 비국(備局)에서 본주에 공문을 보내어 곡물을 거두어 미리 대비하게 하였는데, 그 당시 목사가 힘써 수천 섬의 곡물을 갖추고 별고(別庫)를 신설하여 3읍에 분치(分置)하였으니, 섬 백성을 위해 구황(救荒)하는 계책과 연읍을 위해 폐단을 제거하는 뜻이 지극합니다. 하지만 본주는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연풍(蜒風)과 장기(瘴氣)를 품은 비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시골 작은 마을의 방 안 항아리와 자루에 쌓아 둔 것은 몇 년이 못 가서 부패하여 곰팡이가 피어서 마침내는 먹지 못하는 물건이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흙을 쌓아 만든 창고에 비축하는 곡물이라서 그것이 흙비를 겪으면서 상하지 않고, 여러 해가 지나도 썩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은, 해마다 조적(糶糴)하는 곡물을 가지고 정실(精實)한 것을 택하여 새로 설치한 창고에 바꾸어 놓는 것을 해마다 한번씩 개색(改色)한다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다 온전하여 해로움이 없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섬 안에 곡물을 저축하는 것은 실로 유비무환(有備無患)하는 방도입니다. 근래 들으니 곡물의 품질이 정실하고, 창고가 단단하여 쉽게 부서지지 않아 족히 오래갈 만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함에 방법이 있는 지, 조치가 적절한 지에 달려 있으니, 새 것을 들이고 묵은 것을 내침에 잘 헤아려 개색하여 항상 정곡(精穀)을 비축하게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본사(本司)에서 공문을 보냈고, 지금 이 상소의 내용이 또한 그러하니, 다시 해당 목(牧)을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하십시오. 또한 들으니, 보리쌀은 장습(瘴濕)에도 가장 썩어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환(牟還)[570]을 거둬

570) 모환(牟還): 관아에서 백성에게 보리쌀을 꾸어 주었다가 이자를 붙여 받는 일을 말함.

들일 때 창고에 쌓아둔 것 중 피곡(皮穀)이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을 또한 보리쌀로 준절(準折)[571]하여 적절하게 환색(換色)[572]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좋을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심환지가 아뢰기를, "원상소에 또 목마(牧馬)의 일로 논열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해당 목사가 장계로 요청한 것으로 인하여 갑인년과 을묘년에 줄어든 수를 이미 5년을 기한으로 점차 보충하도록 하였다면, 연한이 아직 차기 전에 갑자기 불어난 신적(新籍)을 가지고 감손(減損)된 옛 총수(摠數)를 옮겨 채우는 것은 마정(馬政)을 중시하고 후일의 폐단을 막는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관문을 보내어 물어보라는 명을 받들었으니, 상황이 보고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뒤따라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중략〉 오한원(吳翰源)[573] 등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건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성익, 상소, 곡창, 마정, 강이천, 국청.

---

571) 준절(準折): 일정한 물품 대신에 다른 물품을 받을 때 그 값에 따라 환산하여 받을 물품의 수량을 정함.

572) 환색(換色):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꿈.

573) 오한원(?~?): 본관 나주(羅州). 자 공예(公藝).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 嘉慶 五年 庚申 五月 二日 癸未

○ 庚申五月初二日寅時, 上御熙政堂. 常參兼行次對入侍時, 行左承旨鄭尙愚, 右承旨兪漢寧, 左副承旨徐有聞, 右副承旨朴崙壽, 同副承旨韓致應, 東班, 左議政沈煥之, 吏曹判書徐龍輔, 禮曹判書李晩秀, 漢城右尹申大謙, 戶曹參議洪樂恒, 司諫沈奎魯, 掌令康聖翊, 持平鄭時善, 校理金熙采, 副校理閔耆顯, 吏曹正郎閔榮祖, 戶曹正郎洪章煥, 監察鄭基煥, 司錄李晹, 西班, 西春君㷜, …… 以次就位. …… 奎魯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府)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4년(1800) 경신년 5월 2일(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심규로(沈奎魯)의 계

○ 경신년 5월 2일 인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상참(常參)에 차대를 겸행하여 입시할 때, 행좌승지 정상우(鄭尙愚), 우승지 유한녕(兪漢寧), 좌부승지 서유문(徐有聞), 우부승지 박윤수(朴崙壽), 동부승지 한치응(韓致應), 동반(東班)에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이조판서 서용보(徐龍輔), 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한성우윤 신대겸(申大謙), 호조참의 홍낙항(洪樂恒), 사간 심규로(沈奎魯), 장령 강성익(康聖翊), 지평 정시선(鄭時善), 교리 김희채(金熙采), 부교리 민기현(閔耆顯), 이조정랑 민영조(閔榮祖), 호조정랑 홍장환(洪章煥), 감찰 정기환(鄭基煥), 사록 이계(李晹), 서반(西班)에 서춘군 이엽(李爗), 〈중략〉 차례로 자리에 나아갔다. 〈중략〉 심규로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五月 十日 辛卯

○ 庚申五月初十日辰時, 上御暎花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左承旨林薈喆, 右承旨徐有聞, 假注書尹鼎烈, 事變假注書申在明, 記事官李存秀·洪奭周, 左議政沈煥之, 右議政李時秀, 行兵曹判書金載瓚, 知敦寧趙尙鎭, 刑曹判書李得臣, 知訓鍊徐有大, 禮曹判書李晩秀, 行護軍申大顯·李得濟, 漢城左尹申大謙, 刑曹參判李漢豊, 禮曹參判李書九, 兵曹參判李益運, 司諫沈奎魯, 掌令康聖翊, 校理金熙采, 修撰閔耆顯, 以次進伏訖. …… 奎魯曰, 臣謂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宜矣. 上曰, 不允. 【出擧條】…….

❖ 정조 24년(1800) 경신년 5월 10일(신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심규로(沈奎魯)의 계

○ 경신년 5월 10일 진시에 임금이 영화당(暎花堂)으로 나아갔다.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좌승지 임시철(林薈喆), 우승지 서유문(徐有聞), 가주서 윤정열(尹鼎烈), 사변가주서 신재명(申在明), 기사관 이존수(李存秀)·홍석주(洪奭周), 좌의정 심환지(沈煥之), 우의정 이시수(李時秀), 행병조판서 김재찬(金載瓚), 지돈녕 조상진(趙尙鎭), 형조판서 이득신(李得臣), 지훈련 서유대(徐有大), 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행호군 신대현(申大顯)·이득제(李得濟), 한성좌윤 신대겸(申大謙), 형조참판 이한풍(李漢豊), 예조참판 이서구(李書九), 병조참판 이익운(李益運), 사간 심규로(沈奎魯), 장령 강성익(康聖翊), 교리 김희채(金熙采), 수찬 민기현(閔耆顯)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심규로가 아뢰기를, "신은 생각건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五月 二十二日 癸卯

○ 獻納金孝秀, 正言李東宇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訛[滃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人心之所陷溺, 殆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爾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정조 24년(1800) 경신년 5월 22일(계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김효수(金孝秀) 등의 계

○ 헌납 김효수(金孝秀), 정언 이동우(李東宇)[574]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575]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

574) 이동우(1740~?): 본관 한산(韓山).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575)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576]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576)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五年 庚申 五月 二十五日 丙午

○ 掌令權漢緯, 校理金履度, 正言李東宇, 副修撰閔師宣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措辭見上】

❖ 정조 24년(1800) 경신년 5월 25일(병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장령 권한위(權漢緯) 등의 계

○ 장령 권한위(權漢緯)[577], 교리 김이도(金履度), 정언 이동우(李東宇), 부수찬 민사선(閔師宣)[578]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577) 권한위(1743~?): 본관 안동(安東). 자 장오(章五). 1768년(영조 44) 문과 급제. 장령, 집의 역임.
578) 민사선(1746~?): 본관 여흥(驪興). 자 희문(希文). 1778년(정조 2) 문과 급제. 지평, 정언, 헌납 역임.

❖ 嘉慶 五年 庚申 五月 二十六日 丁未

○ 掌令權漢緯, 獻納金孝秀, 校理金履度, 副修撰閔師宣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4년(1800) 경신년 5월 26일(정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장령 권한위(權漢緯) 등의 계

○ 장령 권한위(權漢緯), 헌납 김효수(金孝秀), 교리 김이도(金履度), 부수찬 민사선(閔師宣)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五月 二十八日 己酉

○ 掌令權漢緯, 獻納金孝秀, 校理金熙采, 修撰閔耆顯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정조 24년(1800) 경신년 5월 28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장령 권한위(權漢緯) 등의 계

○ 장령 권한위(權漢緯), 헌납 김효수(金孝秀), 교리 김희채(金熙采)[579], 수찬 민기현(閔耆顯)[580]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579) 김희채(1744~1802): 본관 청풍(淸風). 자 혜중(惠仲).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교리, 수찬, 평택안핵어사 역임.

580) 민기현(1751~1811): 본관 여흥(驪興). 자 자경(子慶). 호 이송(二松). 1800년(정조 24) 문과 급제. 도승지, 예조참판, 개성유수 역임.

❖ 嘉慶 五年 庚申 六月 三日 甲寅

○ 庚申六月初三日午時，上御重熙堂．來待諸臣入侍時，同副承旨曺錫中，假注書吳淵常，記注官金景煥，記事官金啓濂，吏曹參判曺允大，有司堂上李書九諸臣，以次進伏訖．吏曹參判曺允大所啓，頃伏承下敎，以濟州進上引鰒之代捧搥鰒當否及其他弊端有無，條列詳報之意，有所往復於該牧使鄭觀輝處矣．卽見其所報，則以爲引鰒造成，比之搥鰒，別無難易之可言，論其價本，亦不懸殊，今雖換作價米，當減者不過爲十餘石云．外此島弊，則甲寅牛·馬闕點者，馬爲八百五十七匹，牛爲六百八十一匹，此是元額之見縮者，則固當如法準充，而私畜姑未孳長，牧子擧皆貧窮，猝難責徵，故昨年因前牧使狀啓，以限五年準充之意，自該寺覆啓行會，而目下民情，雖至五年，若非侵及隣族，實無充數之勢，最爲可悶．本邑又有所謂故失馬肉價名色，每匹徵布三尺五寸，舊例雖似出於防奸之意，而以此屬諸公用，有傷事面，交子弓一百張，每年造納於江都，而品旣無用，所入魚膠樺皮等物，貿取陸邑，爲弊亦多云．上項諸條，合有從長矯救之道，令廟堂稟處，何如？上曰，有司堂上，今旣登筵，亦陳所見，可也．備局有司堂上李書九曰，引鰒搥鰒，物非難辦，價又略同，則莫重貢獻，不必換作，使之依前封進，甲寅年牛·馬闕額，向日臺疏，請以新産，移充舊籍，雖乖立法之本意，甲乙大歉，在島中，便一滄桑，無論其緣何耗失，此時見縮者，固難强令準充，而牧場牛·馬，事體至重，全數免徵，有不敢輕議，姑依闔失馬例，每二匹徵一匹，牛亦如之，則實爲島民之大惠，所謂故失馬肉價，名色瑣屑，江都所納弓子，旣云有弊無用，竝許蠲罷，恐合事宜矣．上曰，進上事，搥鰒引鰒，雖無難易之可論，旣聞之後，何可無處分？因此適閱貢膳定例，各朔封進之數爻，多寡不一，較各朔之中，一例磨鍊，則在島民，得寸亦寸，筵退後指一磨鍊草記，仍卽釐正於定例，牛·馬闕額事，向因臺疏關問，而今旣知其切痼之弊，勿論馬與牛，未充之數，特竝蕩減，馬價之弊，問于該寺，斯速釐正，江都納弓事，此後除之，可也．【出擧條】…… 上曰，濟州所貢織毛馬鞍，爲幾件乎？書九曰，原定例，則未能詳知，而近來閣臣所騎，爲七八件云矣．上曰，設閣之前，每歲原定所貢，藏在內寺，用於賜與，而有餘則蟲耗塵渝，爲無用之物矣．閣臣陪扈時，許騎內廐馬，倣用宋朝龍圖閣故事，而至於織毛鞍具，則時任閣臣，以金牌導前者騎之，故提擧則雖時任，不得騎之，若是原定例外加貢，則亦甚不緊矣．…….

❖ 정조 24년(1800) 경신년 6월 3일(갑인)

▢ 이조참판 조윤대(曺允大)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하는 인복(引鰒)을 대신하여 추복(搥鰒)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밖의 폐단을 개선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 경신년 6월 3일 오시에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으로 나아갔다. 와서 대령한 신하들이 입시할 때, 동부승지 조석중(曺錫中), 가주서 오연상(吳淵常),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기사관 김계렴(金啓濂), 이조참판 조윤대(曺允大), 유사당상 이서구(李書九) 등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이조참판 조윤대가 아뢰기를, "지난번 삼가 하교를 받들고,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하는 인복(引鰒)[581]을 대신하여 추복(搥鰒)[582]으로 받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밖의 폐단의 유무를 조목조목 나열해서 상세히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당 목사인 정관휘(鄭觀輝)에게 왕복(往復)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보고한 것을 보니, '인복을 만드는 것이 추복과 비교하여 달리 어렵거나 쉽다고 말할 수 없고, 그 값을 논해도 또한 현격한 차이가 없으며, 지금 비록 그 값을 쌀로 바꾼다 하더라도 감해지는 것이 10여 섬에 불과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 섬의 폐단으로는, '갑인년 소와 말이 점고(點考)에서 빠진 것이 말은 857필, 소는 681필인데, 이것은 바로 원액(元額)에서 줄어든 것인즉, 실로 마땅히 법대로 수에 맞춰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축(私畜)이 아직 불어나지 않았고, 목자(牧子)들 대부분이 가난하여 갑작스럽게 책임을 지워 징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때문에 작년에 전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장계로 인하여 5년을 기한으로 숫자에 맞게 채우라는 뜻으로 해시(該寺)에서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백성들의 사정은 비록 5년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웃이나 친족에게 침징(侵徵)[583]하지 않는다면 실로 숫자를 채울 수가 없는 형세이니 매우 가련합니다. 본읍(本邑)에는 또 이른바 고실마(故失馬)[584]에 대해 고기값이라는 명색(名色)이 있어 매필(每匹)에 베[布] 3척 5촌을 징수합니다. 구례(舊例)가 비록 간사한 짓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듯하지만 이것을 공용(公用)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면(事面)를 손상시킴이 있습니다. 교자궁(交子弓) 100장(張)을 매년 만들어 강도(江都)에 납부하는데, 이미 쓸

581) 인복(引鰒): 납작하게 펴 말린 전복.
582) 추복(搥鰒): 살짝 두드려 말린 전복.
583) 침징(侵徵): 벌금, 조세 등을 부과할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지극히 가난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에게 대신 물리는 일을 말함.
584) 고실마(故失馬): 목장에서 실수로 잃어버리거나 죽게 만든 관마(官馬).

모없는 물품이고, 들어가는 어교(魚膠)[585]와 화피(樺皮)[586] 등의 물건을 육지 읍에서 사오기에 폐단이 되는 바가 또한 많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여러 조목에 대해 모두 좋은 계책을 좇아서 바로잡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사당상이 지금 등연(登筵)하였으니, 또한 소견을 진술해 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비국 유사당상 이서구가 아뢰기를, "인복과 추복은 갖추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값 또한 대략 같으니, 막중한 공헌(貢獻)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대로 봉진(封進)하게 하십시오. 갑인년 소와 말의 궐액(闕額)은 지난번 대간(臺諫)의 상소에서 새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구적(舊籍)으로 옮겨 충당하자고 청했습니다. 비록 법을 만든 본래 취지에 어그러지기는 합니다만 갑인년과 을묘년의 큰 흉년은 섬에 있어 곧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었으니, 무슨 때문에 모실(耗失)했는지를 막론하고 이때 줄어든 것을 실로 억지로 숫자에 맞추어 충당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장의 소와 말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하기에 전수(全數)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감히 가볍게 논의할 수 없으니, 우선 서실마(闍失馬)의 사례에 의거하여 2필에 1필을 징수하고, 소 또한 이와같이 한다면 실로 섬 백성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른바 고실마의 고기값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이 자질구레하고, 강도에 납부하는 활은 이미 폐단이 있고 쓸모가 없다고 하니, 모두 면제를 허락하는 것이 일에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진상하는 일은 추복이든 인복이든 비록 어렵고 쉬움을 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들은 후에 어떤 처분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하여 공선(貢膳)의 정례(定例)를 열람했는데, 각 달마다 봉진한 수효의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으니, 각 달을 비교하여 일례(一例)를 마련하면 섬 백성들에게는 얻은 만큼 자기 것이 되니[587] 연석(筵席)에서 물러난 뒤에 한 가지 결론을 마련하고 초기(草記)하여 이어서 즉시 정례를 바로잡도록 하라. 소와 말의 궐액에 관한 일은 지난번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관문(關文)을 보내 물어보아서 지금은 그것이 아주 고질적인 폐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소와 말을 막론하고 아직

585) 어교(魚膠): 민어(民魚)의 부레를 끓여서 만든 풀.

586) 화피(樺皮): 벚나무 껍질. 활을 만드는 데와 그 밖의 여러 곳에 쓰임.

587) 얻은 만큼 자기 것이 되니[得寸亦寸]: 전국 시대 때 범수(范雎)가 진왕(秦王)을 설득하는 말 중에, "왕께서는 멀리 있는 나라와 사귀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한 치를 얻으면 그 한 치가 왕의 땅이 되고 한 자를 얻으면 그 한 자도 왕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王不如遠交而近攻 得寸則王之寸 得尺亦王之尺也]."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임. 여기에서는 인복(引鍑) 진상의 불편을 없애는 조치가 진상 전체에서는 극히 작은 일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으나마 실효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임.

충당되지 않은 수는 특별히 모두 탕감하라. 말값의 폐단은 해시에 물어서 속히 바로잡도록 하라. 강도에 활을 납부하는 일은 이후로는 없애도록 하라."라고 하였다.[588] 【거조(擧條)를 냄】〈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제주에서 공물로 바치는 털로 짠 말안장[織毛馬鞍]은 몇 건(件)이 되는가?"라고 하였다. 이서구가 아뢰기를, "원래의 정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근래 각신(閣臣)[589]이 타는 것이 7,8건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규장각을 설치하기 전에는 해마다 원래 정해진 공물을 내시(內寺)에 보관했다가 사여(賜與)에 쓰고, 남는 것은 벌레에 상하고 먼지에 바뀌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각신이 배호(陪扈)할 때 내구마(內廐馬)를 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송조(宋朝) 용도각(龍圖閣)[590]의 고사를 모방한 것으로, 털로 짠 안구(鞍具)의 경우는 시임 각신(時任閣臣)이 금패(金牌)를 전도(前導)하는 자로써 타는 것이다. 때문에 제학(提學)은 비록 시임이라 하더라도 탈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이 원래의 정례 외에 공물을 더하는 것은 또한 그다지 긴요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인복, 진상, 폐단, 고실마, 교자궁, 말안장.

588) 이상은 《비변사등록》 정조 24년 6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589) 각신(閣臣): 규장각의 제학(提學), 직제학(直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등의 벼슬을 가진 신하를 말함.

590) 용도각(龍圖閣): 송(宋)나라 진종(眞宗) 함평(咸平) 4년(1001)에 건립하여 태종(太宗)의 어서(御書), 어제 문집(御製文集), 전적(典籍), 도화(圖畫) 및 종정시(宗正寺)에서 올린 종실(宗室)의 명부, 보첩(譜牒) 등을 보관하던 곳.

1800年

(순조 즉위년)



❖ 嘉慶 五年 庚申 七月 七日 丁亥

○ 李基讓,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運歲貢馬二百匹內, 二匹船中故失, 二匹到中路故失, 十九匹華城親軍衛分給, 實納馬一百七十七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7월 7일(정해)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 세공마(歲貢馬)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기양(李基讓)[591]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운(先運) 세공마(歲貢馬) 200필 내에 2필은 배 안에서 죽고, 2필은 중로(中路)에 이르러서 죽고, 19필은 화성(華城) 친군위(親軍衛)에 분급(分給)하여 실제로 바치는 177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세공마, 별단.

591) 이기양(1744~1802): 본관 광주(廣州). 자 사흥(士興). 호 복암(伏菴).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한성부우윤, 대사간, 예조참판 역임. 저서《복암유고》.

❖ 嘉慶 五年 庚申 七月 十一日 辛卯

○ 韓用鐸,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出來後運年例進上馬八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八十八匹內, 一匹船中故失, 三匹到中路故失, 一匹到果川病留, 實納馬八十三匹禾毛色,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7월 11일(신묘)

▢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 연례 진상마(進上馬) 등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한용탁(韓用鐸)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후운(後運)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88필 내에 1필은 배 안에서 죽고, 3필은 중로(中路)에 이르러서 죽고, 1필은 과천에 이르러서 병이 들어 머물고 있어서 실제로 바치는 83필에 대해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노태마, 별단.

❖ 嘉慶 五年 庚申 七月 十九日 己亥

○ 韓用鐸啓曰, 命召·虎符·密符·左右捕將大將牌·傳令牌, 今已畢造封入矣. 應授之員, 宜卽牌招分授, 而 …… 濟州則乃是候風之地, 亦依例別定他宣傳官下送, 而傳授新符, 收來舊符, 事係至重, 各處不可不成送有旨. …… 敢稟. 傳曰, 依例爲之.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7월 19일(기해)

▢ 제주(濟州)에 새로 만들어진 신부(新符)를 규례대로 별도 선전관(宣傳官)을 정하여 내려보내야 할 것을 청하는 한용탁(韓用鐸)의 계

○ 한용탁(韓用鐸)이 아뢰기를, "명소패(命召牌)[592]·호부(虎符)[593]·밀부(密符)[594]·좌우포도대장패(左右捕將大將牌)·전령패(傳令牌)가 다 만들어져서 봉입(封入) 되었습니다. 주어야 할 인원을 즉시 패초(牌招)하여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중략〉 제주(濟州)는 곧 후풍(候風)하는 곳으로, 또한 규례대로 별도로 다른 선전관(宣傳官)을 정하여 내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新符)를 전해 주고, 구부(舊符)를 거두어 오는 것은 일이 지극히 중요하므로 각처에 유지(有旨)를 만들어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규례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호부, 밀부, 신부, 선전관.

---

592) 명소패(命召牌): 임금의 명령을 받고 비밀히 대궐에 들어가는 의정 대신(議政大臣)·포도대장(捕盜大將)·삼군부(三軍府)의 대장·병조판서 등의 관원이 차는 표.

593) 호부(虎符): 각 도의 군병을 동원하는 병부(兵符)로, 1397년(태조6)에 제정하고 1403년(태종3)에 시행하였음. 마패보다 약간 크게 나무로 만들어 중앙에 호랑이를 새기고 좌우에 음(陰)과 양(陽) 두 글자를 새겼으며 육십갑자를 표시하였음.

594) 밀부(密符): 감사(監司)·유수(留守)·총융사(摠戎使)·진무사(鎭撫使)·통제사(統制使)·병사(兵使)·수사(水使)·방어사(防禦使) 등이 부임할 때 유서(諭書)와 함께 가지고 가게 한 부신(符信)임. 한 방면의 군사권을 가진 사람이 왕명이 없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급하였음.

❖ 嘉慶 五年 庚申 七月 二十一日 辛丑

○ 李基讓, 以司僕寺提調意啓曰, 濟州山馬監牧官金命喆己未庚申兩年條封進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7월 21일(신축)

▢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명철(金命喆)의 봉진마(封進馬)에 대한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이기양(李基讓)이 사복시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명철(金命喆)의 기미년과 경신년 두 해의 봉진마(封進馬) 2필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면서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명철, 봉진마, 별단.

❖ 嘉慶 五年 庚申 八月 一日 辛亥

○ 以濟州防禦使鄭觀輝狀啓, 今七月朔膳進上中, 烏賊魚, 品旣薄劣, 莫重進上, 未免苟充, 惶恐待罪事, 傳于李書九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8월 1일(신해)

▢ 삭선(朔膳) 진상물 중 오징어의 품질이 박열(薄劣)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정관휘(鄭觀輝)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방어사(濟州防禦使) 정관휘(鄭觀輝)가 장계에, 금번 7월 삭선(朔膳) 진상물 중에 오징어의 품질이 박열(薄劣)한데, 막중한 진상(進上)에 대해 겨우 숫자만 채우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이서구(李書九)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방어사, 정관휘, 진상, 삭선, 오징어.

❖ 嘉慶 五年 庚申 八月 一日 辛亥

○ 大司諫兪漢寧, 司諫朴瑞源, 獻納南惠寬, 正言姜浚欽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而騙取貨物, 旨意閃忽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 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 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滃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 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么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8월 1일(신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유한녕(兪漢寧) 등의 계

○ 대사간 유한녕(兪漢寧), 사간 박서원(朴瑞源)[595], 헌납 남혜관(南惠寬), 정언 강준흠(姜浚欽)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596]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

595) 박서원(1750~?): 1786년(정조 10) 문과 급제. 대사간 역임.

596)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597]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

597)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八月 四日 甲寅

○ 庚申八月初四日巳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行都承旨尹行恁, 左副承旨崔獻重, 假注書呂東植, 事變假注書李允謙, 記事官李存秀·洪奭周,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行吏曹判書金載瓚, 行知敦寧府事趙尙鎭, 戶曹判書李在學, 廣州府留守金思穆, 行大護軍趙鎭寬·徐有大, 禮曹判書李晩秀, 刑曹判書韓用龜, 工曹判書朴準源, 行護軍申大顯·李漢豐·李書九, 禮曹參判李益運, 開城府留守金勉柱, 掌令李泰賢, 校理金熙采, 以次進伏訖. …… 書九曰, 濟州民人, 在前則或赴於陵役, 而丙申陵役時, 役民渡海, 多有致傷者, 先大王深軫此弊, 有此後陵役勿爲起送之下敎矣. 今當此時, 島民久蒙淪肌之澤, 必當有涉險爭赴之擧, 更令廟堂, 預飭於該道該牧, 申飭島民, 俾除越海赴役之勞, 仰體我先大王軫恤之德意, 恐爲合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竝出擧條】…….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8월 4일(갑인)

▢ 제주(濟州)의 백성들이 능역(陵役)에 나오지 않도록 해당 도(道)와 해당 목(牧)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기를 청하는 행호군 이서구(李書九)의 계

○ 경신년 8월 4일 사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행도승지 윤행임(尹行恁), 좌부승지 최헌중(崔獻重), 가주서 여동식(呂東植), 사변가주서 이윤겸(李允謙), 기사관 이존수(李存秀)·홍석주(洪奭周),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행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행지돈녕부사 조상진(趙尙鎭), 호조판서 이재학(李在學), 광주부유수 김사목(金思穆), 행대호군 조진관(趙鎭寬)·서유대(徐有大), 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형조판서 한용구(韓用龜), 공조판서 박준원(朴準源), 행호군 신대현(申大顯)·이한풍(李漢豐)·이서구(李書九), 예조참판 이익운(李益運), 개성부유수 김면주(金勉柱), 장령 이태현(李泰賢), 교리 김희채(金熙采)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이서구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백성들이 전에는 혹 능역(陵役)에 나오기도 했는데, 병신년 능역 때 역민(役民)이 바다를 건너다 상해를 입은 사람이 많았기에 선대왕(先大王)이 이러한 폐단을 심히 걱정하여, 이후로는 능역에 백성을 보내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를 당하였는데, 섬 백성들이 오랫동안 넉넉한 은택을 입었기

에 필히 험한 바다를 건너서 다투어 오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묘당으로 하여금 미리 해당 도(道)와 해당 목(牧)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바다를 건너 부역(赴役)하는 수고를 없애 우리 선대왕이 불쌍하고 가엽게 여긴 덕의(德意)을 우러러 본받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합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598] 【아울러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능역, 선대왕.

598)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즉위년 8월 4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五年 庚申 八月 二十五日 乙亥

○ 庚申八月二十五日未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藥房入診, 領府事入侍, 大臣·備局堂上引見, 下直守令同爲入侍時, 都提調徐龍輔, 副提調閔台爀, 記事官金啓溫·李存秀·洪奭周, 行左承旨李儒慶, 假注書李允謙, 事變假注書崔漢翼, 領府事李秉模,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行吏曹判書金載瓚, 戶曹判書李在學, 行大護軍趙鎭寬·徐有大, 禮曹判書李晩秀, 右參贊韓用龜, 刑曹判書李書九, 行大護軍李益運, 行護軍申大顯, 漢城右尹申大謙, 行護軍李漢豊, 工曹參判尹行恁, 大司諫申獻朝, 校理金熙周, 黃澗縣監宋欽天, 醫官柳光翼·金孝儉·朴春源·李惟鑑·玄必采, 以次進伏訖. …… 獻朝曰, 臣謂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絶奸萌, 宜矣.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8월 25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신헌조(申獻朝)의 계

○ 경신년 8월 25일 미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영부사가 입시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하직수령이 함께 입시할 때, 도제조 서용보(徐龍輔), 부제조 민태혁(閔台爀), 기사관 김계온(金啓溫)·이존수(李存秀)·홍석주(洪奭周), 행좌승지 이유경(李儒慶),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최한익(崔漢翼), 영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행이조판서 김재찬(金載瓚), 호조판서 이재학(李在學), 행대호군 조진관(趙鎭寬)·서유대(徐有大), 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우참찬 한용구(韓用龜), 형조판서 이서구(李書九), 행대호군 이익운(李益運), 행호군 신대현(申大顯), 한성우윤 신대겸(申大謙), 행호군 이한풍(李漢豊), 공조참판 윤행임(尹行恁), 대사간 신헌조(申獻朝), 교리 김희주(金熙周), 황간현감 송흠천(宋欽天),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신헌조[599]가 아

599) 신헌조(?~?): 본관 평산(平山).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호조참의, 호조참판, 강원도관찰사 역임.

뢰기를, “신은 생각건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八月 二十八日 戊寅

○ 司諫徐有沂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8월 28일(무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서유기(徐有沂)의 계

○ 사간 서유기(徐有沂)[600]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600) 서유기(1751~1820): 본관 대구(大丘). 자 성유(聖遊).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이조정랑, 사간원사간, 통례원통례 역임.

❖ 嘉慶 五年 庚申 八月 二十九日 己卯

○ 庚申八月二十九日辰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 左承旨追後入侍時, 都提調徐龍輔, 提調金祖淳, 副提調南公轍, 記事官金啓溫·李存秀·洪奭周, 行右承旨徐英輔, 假注書李允謙, 事變假注書崔漢翼,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戶曹判書李在學, 行大護軍趙鎭寬·徐有大, 禮曹判書李晩秀, 右參贊韓用龜, 行大護軍李益運, 行護軍申大顯, 漢城右尹申大謙, 行護軍李漢豊, 吏曹參判尹行恁, 行左承旨鄭尙愚, 司諫徐有沂, 校理金熙周, 醫官柳光翼·金孝儉·朴春源·李惟鑑·玄必采·吳千根, 以次進伏訖. …… 有沂曰,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上曰, 不允. 【出擧條】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8월 29일(기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서유기(徐有沂)의 계

○ 경신년 8월 29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하고, 좌승지가 추후에 입시할 때, 도제조 서용보(徐龍輔), 제조 김조순(金祖淳), 부제조 남공철(南公轍), 기사관 김계온(金啓溫)·이존수(李存秀)·홍석주(洪奭周), 행우승지 서영보(徐英輔), 가주서 이윤겸(李允謙), 사변가주서 최한익(崔漢翼),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호조판서 이재학(李在學), 행대호군 조진관(趙鎭寬)·서유대(徐有大), 예조판서 이만수(李晩秀), 우참찬 한용구(韓用龜), 행대호군 이익운(李益運), 행호군 신대현(申大顯), 한성우윤 신대겸(申大謙), 행호군 이한풍(李漢豊), 이조참판 윤행임(尹行恁), 행좌승지 정상우(鄭尙愚), 사간 서유기(徐有沂), 교리 김희주(金熙周),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천근(吳千根)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유기가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

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一日 庚辰

○ 持平鄭魯榮, 獻納金孝秀, 校理金熙周, 副修撰朴鍾淳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 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 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詘,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么麽白徒, 而亦簪纓之餘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轉至捏妖而煽詘,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道,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 設鞫[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鞫]處斷, 以折奸萌. …… 答院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1일(경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지평 정노영(鄭魯榮) 등의 계

○ 지평 정노영(鄭魯榮)[601], 헌납 김효수(金孝秀), 교리 김희주(金熙周), 부수찬 박종순(朴鍾淳)[602]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

601) 정노영(1761~?): 본관 영일(迎日). 자 성방(聖邦).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수찬, 사간, 집의 역임.

602) 박종순(1762~?): 본관 고령(高靈). 자 희세(羲世).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부교리, 승지, 예조참의 역임.

어 패관(稗官)[603]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04]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

603)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604)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三日 壬午

○ 司諫金孝眞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3일(임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효진(金孝眞)의 계

○ 사간 김효진(金孝眞)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五日 甲申

○ 掌令南渜, 金垓, 持平李東冕, 校理金熙周, 正言李象謙, 副修撰閔耆顯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請亟下四啓傳旨, 令攸司, 卽速擧行焉. 【措辭見上】 請正法罪人鎭, 亟施孥戮之典. 【措辭見上】 請命吉諸子, 依前下敎, 施以散配之典.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末端兩件事, 亟停勿煩.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5일(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장령 남속(南渜) 등의 계

○ 장령 남속(南渜), 김굉(金垓)[605], 지평 이동면(李東冕), 교리 김희주(金熙周), 정언 이상겸(李象謙)[606], 부수찬 민기현(閔耆顯)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605) 김굉(1739~1816): 본관 의성(義城). 자 자야(子野). 호 귀와(龜窩).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단양군수, 세자시강원문학, 예조참판 역임.

606) 이상겸(1763~?): 본관 전주(全州). 자 의중(毅仲). 1796년(정조 20) 문과 급제. 승정원주서 역임.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六日 乙酉

○ 司諫金孝眞, 掌令南浚, 校理金熙周, 副修撰閔耆顯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院曰, 不允. 末端兩件事, 亟停勿煩.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6일(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효진(金孝眞) 등의 계

○ 사간 김효진(金孝眞), 장령 남속(南浚), 교리 김희주(金熙周), 부수찬 민기현(閔耆顯)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九日 戊子

○ 掌令金坽, 獻納金孝秀, 校理金熙周, 修撰尹益烈啓曰, 請鄭致達妻, 亟令王府, 快正典刑. …… 獻納金孝秀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院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9일(무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김효수(金孝秀)의 계

○ 장령 김굉, 헌납 김효수, 교리 김희주, 수찬 윤익렬이 아뢰기를, “청컨대 정치달의 처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헌납 김효수(金孝秀)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十五日 甲午

○ 正言李東萬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竝令王府, 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15일(갑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이동만(李東萬)의 계

○ 정언 이동만(李東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十六日 乙未

○ 司諫金銑, 正言李東萬·鄭寔成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恿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滃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迹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揑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16일(을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선(金銑) 등의 계

○ 사간 김선(金銑), 정언 이동만(李東萬)·정최성(鄭寔成)[607]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608]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

607) 정최성(1745~?): 본관 하동(河東). 자 치장(穉章).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608)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09]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

609)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十七日 丙申

○ 司諫金銑, 正言鄭耉成·李東萬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竝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17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선(金銑) 등의 계

○ 사간 김선(金銑), 정언 정최성(鄭耉成)·이동만(李東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十八日 丁酉

○ 司諫金銑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18일(정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선(金銑)의 계

○ 사간 김선(金銑)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 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十九日 戊戌

○ 正言鄭宖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竝令王府, 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19일(무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정최성(鄭宖成)의 계

○ 정언 정최성(鄭宖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二十日 己亥

○ 正言李東萬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竝令王府拿來, 設鞫嚴問夬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20일(기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이동만(李東萬)의 계

○ 정언 이동만(李東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二十四日 癸丑[癸卯]

○ 司諫金銑, 正言鄭耉成·李東萬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竝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抑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24일(계축[계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선(金銑) 등의 계

○ 사간 김선(金銑), 정언 정최성(鄭耉成)·이동만(李東萬)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九月 三十日 己酉

○ 司諫金熙采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9월 30일(기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희채(金熙采)의 계

○ 사간 김희채(金熙采)가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一日 庚戌

○ 司諫金熙采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譎,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險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訾, 視若同胞者, 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 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1일(경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김희채(金熙采)의 계

○ 사간 김희채(金熙采)가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610]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

610)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11]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611)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十日 己未

○ 柳相祚,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慶尙監司金履永牒報, 則謀逆同參罪人時皡應坐諸人, 査出以來矣. 時皡父胤赫, 所當發遣府都事, 依律處絞, 臺啓旣請設鞫嚴覈, 姑不得擧行, 而時皡子鶴慶年四, 次子今年生, 俱以年未滿, 依律免絞, 鶴慶, 全羅道濟州牧大靜縣, 今年生, 羅州牧黑山島, 竝緣坐爲奴, 母心愛年七十, 依律免坐, 妻仁幸, 靈巖郡楸子島緣坐爲婢, …… 而右罪人等, 方囚仁同獄云, 分付道臣,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鶴慶及今年生, 與仁幸, 同配薪智島, 可也.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10일(기미)

▢ 모역(謀逆)에 동참했던 시호(時皡)의 연좌죄인(緣坐罪人)으로 아들과 처를 대정현(大靜縣)과 추자도(楸子島)로 정배(定配)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유상조(柳相祚)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경상감사 김이영(金履永)의 첩보(牒報)를 보니, 모역(謀逆)에 동참했던 죄인 시호(時皡)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시호의 부 윤혁(胤赫)은 마땅히 본부 도사를 보내어 형률대로 교형(絞刑)에 처해야 하는데, 대계(臺啓)에 국청을 열어 엄히 조사하기를 청하였기에 일단은 거행할 수 없고, 시호의 아들 학경(鶴慶)은 4세이고, 차자는 올해 태어나서 모두 나이가 차지 않으니, 형률대로 교형을 면하여 학경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올해 태어난 아들은 나주목 흑산도로 아울러 연좌(緣坐)하여 노(奴)로 삼고, 어미 심애(心愛)는 70세이니 연좌를 면하고, 처 인행(仁幸)은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연좌하여 비(婢)로 삼겠습니다. 〈중략〉 그런데 위의 죄인들이 현재 인동(仁同)의 옥사에 있다고 하니, 관찰사에게 분부하여 각기 배소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학경 및 올해 태어난 아들과 인행은 함께 신지도(薪智島)로 정배(定配)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모역, 시호, 연좌, 정배.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十六日 乙丑

○ 正言崔履亨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憑,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迹之莫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 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16일(을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최이형(崔履亨)의 계

○ 정언 최이형(崔履亨)[612]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613]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612) 최이형(1737~?): 본관 전주(全州).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함평현감, 헌납, 집의 역임.

613)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14]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614)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十九日 戊辰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八月令朔膳進上中烏賊魚色麤品劣, 莫重進上, 如是苟充, 惶恐待罪事, 傳于申獻朝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19일(무진)

▢ 삭선(朔膳) 진상(進上) 중 빛깔이 거칠고 품질이 나쁜 오징어를 진상한 것에 대해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에, 8월령 삭선(朔膳) 진상(進上) 중 오징어가 빛깔이 거칠고 품질이 나쁜데, 막중한 진상을 이와 같이 구차하게 수량만을 겨우 채웠으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신헌조(申獻朝)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오징어, 진상, 대죄.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二十二日 辛未

○ 以濟州防禦使鄭觀輝狀啓, 進上烏賊魚體小品劣, 惶恐待罪事, 傳于申獻朝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22일(신미)

▢ 작고 품질이 나쁜 오징어를 진상(進上)한 것에 대해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에, 진상(進上)한 오징어가 작고 품질이 나쁘니,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신헌조(申獻朝)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오징어, 진상, 대죄.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二十三日 壬申

○ 正言尹之鉉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23일(임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지현(尹之鉉)의 계

○ 정언 윤지현(尹之鉉)[615]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615) 윤지현(1749~?): 본관 파평(坡平). 1784년(정조 8) 문과 급제.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二十四日 癸酉

○ 正言尹之鉉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24일(계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지현(尹之鉉)의 계

○ 정언 윤지현(尹之鉉)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 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二十七日 庚戌[丙子]

○ 獻納李東埴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27일(경술[병자])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이동식(李東埴)의 계

○ 헌납 이동식(李東埴)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十月 二十八日 丁丑

○ 正言尹之鉉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問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0월 28일(정축)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윤지현(尹之鉉)의 계

○ 정언 윤지현(尹之鉉)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十一月 十日 戊子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薦新與進上柑子·唐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徐英輔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1월 10일(무자)

▢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의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 없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는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에,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의 천신(薦新)과 진상(進上)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 없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서영보(徐英輔)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감자, 당금귤, 천신, 진상, 대죄.

❖ 嘉慶 五年 庚申 十一月 十日 戊子

○ 徐英輔,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鄭觀輝狀啓謄報, 則去十月令宗廟·景慕宮薦新唐金橘, 依例封進, 而柑子則所結, 只爲二百十二箇,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事, 爲辭矣. 宗廟·景慕宮薦新, 唐金橘, 當日薦進, 柑子則依年前乳柑減數薦獻之例, 同爲薦進, 而孝元殿·山陵薦新, 則不爲封進. 莫重薦獻, 不可後時, 唐金橘則以宗廟·景慕宮薦新加封薦進, 柑子則廟宮薦新封來二百十二箇中, 分封, 一體當日薦進. 山陵薦新, 則魂殿內官, 依例陪進陵所, 隨時薦進, 而宗廟薦新之物, 魂殿·山陵一體封進事, 前已知委矣. 今此薦獻唐金橘·柑子, 數旣不足, 雖不如例封進, 該牧使狀啓中, 不爲措辭者, 揆以事體, 誠極未安, 爲先從重推考, 闕封委折, 令本道道臣, 詳査論理狀聞, 何如? 傳曰, 允.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1월 10일(무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효원전(孝元殿)과 산릉(山陵)의 천신(薦新)에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을 봉진(封進)하지 않은 곡절을 전라도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서영보(徐英輔)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 등보(謄報)를 보니, 지난 10월령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薦新)하는 당금귤(唐金橘)은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였지만, 감자(柑子)는 열매를 맺은 것이 단지 212개여서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封)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진헌(進獻)하라고 하였습니다. 종묘와 경모궁에 천신하는 당금귤은 당일 천진(薦進)하고, 감자는 몇 해 전에 유감(乳柑)을 수량을 감해서 천헌(薦獻)한 사례에 의거하여 함께 천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효원전(孝元殿)[616]과 산릉(山陵)의 천신은 봉진하지 않았습니다. 막중한 천헌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당금귤은 종묘와 경모궁 천신에 가봉(加封)한 것으로 천진하고, 감자는 종묘와 경모궁 천신으로 봉진해 온 212개 중에서 분봉(分封)하여 일체를 당일 천진하겠습니다. 산릉의 천신은 혼전 내관(魂殿內官)이 규례대로 능소(陵所)로 가지고 가서 수시로 천진하는데, 종묘에 천신하는 물종과 혼전·산릉에 일체 봉진하는 일은 전에 이미 통지하였습니다. 이번에 천헌하는 당금귤과 감자가 수량이 이미

616) 효원전(孝元殿): 정조의 혼전(魂殿).

부족하니, 비록 규례와 같이 봉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목사의 장계 가운데 내용을 만들어 넣지 않은 것[617]은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온당치 못합니다.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궐봉(闕封)한 곡절을 본도(本道)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고 사리대로 논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효원전, 산릉, 천신, 궐봉, 당금귤, 감자.

617) 내용을 만들어 넣지 않은 것[不爲措辭]: 여기에서 내용은 효원전과 산릉에 천신하는 당금귤과 감자를 봉진하지 않은 이유를 뜻함.

❖ 嘉慶 五年 庚申 十一月 十日 戊子

○ 金履翼,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鄭觀輝, 分等狀啓, 則以爲三邑穡事, 幾皆成實, 大靜·旌義, 爲稍實, 本州, 爲之次, 諸般之役, 參量民勢, 從便磨鍊, 開錄于左, 而候風涉海, 遲速無期, 謹作已例, 一邊馳啓, 一邊擧行, 特令廟堂, 稟處爲辭矣. 其一, 舊還督捧, 恐傷民力, 姑爲仍停事也. 其一, 各寺奴婢身貢米, 每口減給一斗也. 其一, 男丁大同米, 每口減給一升事也. 其一, 逃老故病頉之類, 嚴飭各該邑, 塡充事也. 舊還仍停, 身貢米減捧, 大同蠲減, 逃老故塡充等事, 自前先擧行後狀聞例也. 今無稟處之事, 三邑分等, 依狀請施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1월 10일(무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분등장계(分等狀啓)에 대해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김이익(金履翼)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분등(分等)[618]에 관한 장계를 보니, '3읍의 농사가 거의 모두 결실을 맺어 대정(大靜)과 정의(旌義)를 초실(稍實)로 하였고, 본주(本州)는 지차(之次)로 하였으며, 각종의 역(役)은 백성의 형세를 헤아려 편할 대로 마련하여 왼쪽에 기록하였는데, 후풍(候風)하여 바다를 건너다보면 빠를지 늦을지 기약할 수 없으니 삼가 전례 대로 한편으로는 장계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거행하니 특별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구환(舊還)을 독촉하여 거두는 것은 민력(民力)을 손상시킬까 걱정되니 우선은 그대로 정지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각 시노비(寺奴婢)의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쌀을 매구(每口) 1말씩 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를 매구 1되씩 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도망갔거나 늙었거나 사고가 있거나 병으로 탈이 있는 무리에 대해 각 해당 읍에 엄히 타일러 경계하여 채워 넣는 일입니다. 구환을 그대로 정지하고, 신공으로 바치는 쌀을 감하여 받고, 대동미를 견감하고, 도망갔거나 늙었거나 사고가 있는 무리를 채워 넣는 일은 예로부터 먼저 거행한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예(例)이니, 지금 품처할 일이 아닙니다.

618) 분등(分等): 연분등제(年分等第)의 준말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보아서 등급을 정하는 일을 말함.

3읍의 분등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619)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분등장계.

619) 이상은《비변사등록》11월 1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五年 庚申 十一月 二十三日 辛壬[辛丑]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莫重貢果,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曺錫中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1월 23일(신임[신축])

▢ 막중한 공과(貢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에, 막중한 공과(貢果)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조석중(曺錫中)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공과, 봉진, 대죄.

❖ 嘉慶 五年 庚申 十一月 二十三日 辛壬[辛丑]

○ 曺錫中,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鄭觀輝狀啓謄報, 則來十二月令宗廟薦新洞庭橘, 則依例封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則所結只是一百九十六箇,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進獻事, 爲辭矣, 宗廟薦新洞庭橘, 當日薦進, 而宗廟·景慕宮薦新乳柑, 則依年前減數薦獻之例, 當日同爲薦進, 而孝元殿山陵薦新, 今番亦不封進矣, 莫重薦獻, 不可後時, 洞庭橘則以宗廟薦新, 加封薦進, 乳柑則亦以宗廟·景慕宮薦新封來一百九十六箇中分封, 當日一體薦進, 山陵薦新, 則魂殿內官, 依例陪進陵所, 隨時薦進, 而今此薦新封進乳柑, 則數旣不足, 雖不得如例各爲封進, 而洞庭橘則數亦有裕, 而孝元殿山陵, 不爲封進, 莫重薦新, 每每以加封, 推移薦進者, 事體所在, 極爲未安. 該牧使鄭觀輝, 所當重勘, 而以柑子·唐金橘闕封事, 纔已請推, 方在道臣査實中矣. 今番闕封委折, 亦令道臣一體詳査, 論理狀聞後, 稟處, 何如? 傳曰, 允.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1월 23일(신임[신축])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효원전(孝元殿)과 산릉(山陵)의 천신(薦新)에 동정귤(洞庭橘)과 유감(乳柑)을 봉진(封進)하지 않은 곡절을 전라도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조석중(曺錫中)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 등보(謄報)를 보니, 오는 12월령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동정귤(洞庭橘)은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였지만, 종묘와 경모궁(景慕宮)에 천신하는 유감(乳柑)은 열매를 맺은 것이 단지 196개여서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封)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진헌(進獻)하라고 하였습니다. 종묘에 천신하는 동정귤은 당일 천진(薦進)하고, 종묘와 경모궁에 천신하는 유감은 몇 해 전에 수량을 감해서 천헌(薦獻)한 사례에 의거하여 당일 함께 천진하겠습니다. 하지만 효원전(孝元殿)과 산릉(山陵)의 천신은 이번에도 봉진하지 않았습니다. 막중한 천헌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동정귤은 종묘 천신에 가봉(加封)한 것으로 천진하고, 유감은 또한 종묘와 경모궁 천신으로 봉진해 온 196개 중에서 분봉(分封)하여 당일 일체 천진하겠습니다. 산릉의 천신은 혼전내관(魂殿內官)이 규례대로 능소(陵所)로 가지고 가서 수시로 천진하는데, 이번 천신에 봉진하는 유감은 수량이 이미 부족합니다. 비록 규례와 같이 각각 봉진하지 못한다 하더라

도, 동정귤은 수량에 또한 여유가 있지만 효원전과 산릉에는 봉진하지 않았습니다. 막중한 천신을 매번 가봉한 것을 가지고 변통하여 천진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있어서 참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해당목사 정관휘를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겠는데,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을 궐봉(闕封)한 일로 막 추고(推考)를 청하여 지금 관찰사가 사실을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궐봉한 곡절 또한 관찰사로 일체 상세히 조사하고 사리대로 논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한 후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효원전, 산릉, 천신, 궐봉, 동정귤, 유감.

❖ 嘉慶 五年 庚申 十一月 二十七日 乙巳

○ 執義高宅謙, 司諫朴瑞源, 副校理洪受浩, 修撰李鼎秉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 使令之不暇, 托爲師弟, 而傳播邪說, 誘引徒黨, 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 一而二, 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旋)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 拿來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院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1월 27일(을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집의 고택겸(高宅謙) 등의 계

○ 집의 고택겸(高宅謙)[620], 사간 박서원(朴瑞源), 부교리 홍수호(洪受浩), 수찬 이정병(李鼎秉)[621]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622]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620) 고택겸(1732~?): 본관 장흥(長興). 1780년(정조 4) 문과 급제.

621) 이정병(1759~1834): 본관 여주(驪州). 자 이집(彝執). 호 금파(琴坡). 1786년(정조 10) 문과 급제. 형조참판, 한성좌윤, 오위도총부부총관 역임. 저서《금파문집》.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23]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 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622)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623)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五年 庚申 十二月 二十五日 癸酉

○ 以全羅監司金達淳狀啓, 魂殿山陵薦新橘柑, 不爲封進, 濟州牧使鄭觀輝,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事, 傳于鄭尙愚曰, 限六年蘇弊前, 雖筵臣, 無得請遞, 先朝受敎截嚴, 至今書付官案, 則道臣豈可循例請罷乎? 道臣越俸一等, 該牧使勿罷, 越俸三等.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2월 25일(계유)

▢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 천신(薦新)하는 귤감(橘柑)을 봉진(封進)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등을 월봉(越俸)에 처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全羅監司) 김달순(金達淳)의 장계에,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 천신(薦新)하는 귤감(橘柑)을 봉진(封進)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를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정상우(鄭尙愚)에게 전교하기를, "6년을 기한으로 폐단을 소복(蘇復)시키기 전에는 비록 연신(筵臣)이라 하더라도 체직(遞職)을 청할 수 없다는 선조(先朝) 때의 수교(受敎)가 지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안(官案)에 써 붙여 있으니, 감사를 어찌 규례를 따라서 파직을 청할 수 있겠는가? 감사는 월봉(越俸) 1등에 처하고, 해당 목사는 파직하지 말고 월봉 3등에 처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귤감, 전라감사, 제주목사, 월봉.

❖ 嘉慶 五年 庚申 十二月 二十六日 甲戌

○ 司諫朴瑞源, 獻納金孝秀, 正言李象謙等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譎,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而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熳同歸, 往復滀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乃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즉위년(1800) 경신년 12월 26일(갑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서원(朴瑞源) 등의 계

○ 사간 박서원(朴瑞源), 헌납 김효수(金孝秀), 정언 이상겸(李象謙) 등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624]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

624)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25]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625)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01年

(순조 1)



❖ 嘉慶 六年 辛酉 一月 四日 辛巳

○ 正言嚴思彦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設荒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慂奸計,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妖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滀訾,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莫掩, 與彝天一而二二而一者也. 惟我先朝, 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乃有酌處之命, 而第念渠輩, 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不由王府, 徑付秋曹, 揆以獄體, 極涉疎虞, 且未及窮覈, 遽已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월 4일(신사)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정언 엄사언(嚴思彦)의 계

○ 정언 엄사언(嚴思彦)[626]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627]의 들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

626) 엄사언(?~?): 본관 영월(寧越).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627)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28]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628)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嘉慶 六年 辛酉 一月 十四日 辛卯

○ 司諫朴瑞源, 獻納李東萬, 正言蔡趾永·姜彙鈺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竝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夬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院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월 14일(신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서원(朴瑞源) 등의 계

○ 사간 박서원(朴瑞源), 헌납 이동만(李東萬), 정언 채지영(蔡趾永)[629]·강휘옥(姜彙鈺)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중략〉 사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629) 채지영(1753~1824): 본관 평강(平康). 호 노포재(老圃齋).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정언, 지평 역임.

❖ 嘉慶 六年 辛酉 一月 十五日 壬辰

○ 司諫朴瑞源, 獻納李東萬, 正言蔡趾永·姜彙鈺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월 15일(임진)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서원(朴瑞源) 등의 계

○ 사간 박서원(朴瑞源), 헌납 이동만(李東萬), 정언 채지영(蔡趾永)·강휘옥(姜彙鈺)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六年 辛酉 一月 十九日 丙申

○ 司諫朴瑞源, 正言蔡趾永·姜彙鈺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월 19일(병신)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사간 박서원(朴瑞源) 등의 계

○ 사간 박서원(朴瑞源), 정언 채지영(蔡趾永)·강휘옥(姜彙鈺)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六年 辛酉 二月 五日 辛亥

○ 大司諫吳鼎源, 獻納安廷善, 正言柳烇啓曰, …… 噫, 世道日下, 人心漸溺, 至於姜彝天輩出, 而亦一變怪也. 姜彝天則本以妖邪之性, 薄有啁啾之技, 剽取稗官浮淫之辭, 幻出市徒佻儇之態, 招誘遠近, 而或以術藝相衒, 糾結黨與, 而輒以標號相加, 騙取貨物, 旨意閃忽, 假說謊怪之事, 煽動妖誕之說, 而敢於顯露之餘, 反爲拔足之計, 前後情狀, 節節狡慝, 而如金履白誕妄陰邪之類, 又從以趨附使令之不暇, 托爲師弟而傳播邪說, 誘引徒黨而慫恿, 京鄕焉出沒而甘作倀鬼, 晝宵焉綢繆而聽其指嗾, 其他至妖至邪之情, 殆有浮於彝天. 至於金鑢, 本以儉邪之徒, 投入奸陰之藪, 招呼容接, 爛漫同歸, 往復諭訛, 視若同胞者渠, 去來和應, 互相連肚者渠. 及夫發告之共議, 益見情跡之難掩, 與彝天一而二, 二而一者也. 伏惟大明中天, 物無遁形, 而特推欲竝生之化, 俾躋咸與新之域, 有此酌處之命, 而第念渠輩雖是幺麽白徒, 而亦簪纓之裔也. 其詖淫之所漸染, 心術之所陷溺, 始若誘人而餂貨, 轉至捏妖而煽訛, 一此不止, 實有方來難言之慮. 在聖人辟以止辟之政, 決不可不嚴杜其漸, 以示生道殺人之義, 而不由王府, 徑付秋曹, 已是失刑之大者. 且未及窮覈, 遽爾發配, 妖黨何以知畏, 民志何以底定?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 答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2월 5일(신해)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오정원(吳鼎源) 등의 계

○ 대사간 오정원(吳鼎源)[630], 헌납 안정선(安廷善)[631], 정언 유전(柳烇)[632]이 아뢰기를, "〈상략〉 아, 세도(世道)가 날로 떨어지고, 인심(人心)이 점점 빠져들어 강이천(姜彝天)의 무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또한 하나의 변괴입니다. 강이천은 본래 요사한 성품으로 시문(詩文)의 기예가 조금 있어 패관(稗官)[633]의 들

630) 오정원(1741~?): 본관 나주(羅州). 자 공보(公甫). 1766년(영조 42) 문과 급제.
631) 안정선(1766~?): 본관 순흥(順興). 자 원장(元長). 1789년(정조 13) 문과 급제. 부수찬, 수찬, 대사간 역임.
632) 유전(1744~?): 본관 전주(全州). 1800년(정조 24) 문과 급제.
633) 패관(稗官): 민간에 전해지는 설화(說話)나 야담(野談), 가담 항설(街談巷說) 같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하는 관리.

뜨고 음탕한 말을 표절하고, 시장 무리의 경박한 태도를 지어내어 원근의 사람들을 불러 유혹하여 술법과 기예로 서로 자랑하고, 당여(黨與)를 규합하여 문득 표호(標號)를 서로 가하였습니다. 재물을 속여 빼앗고, 뜻이 섬홀(閃忽)하여 망령되고 괴이한 일을 가설(假設)하여 요탄(妖誕)한 말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도리어 발을 빼려는 계책을 하였으니, 전후의 정상(情狀)은 일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김이백(金履白)과 같이 탄망(誕妄)하고 음사(陰邪)한 무리가 또한 따라 빌붙어서 사령노릇 하기에 겨를이 없었고, 사제(師弟)를 칭탁하여 사악한 말을 전파하고, 도당(徒黨)을 유인하여 간악한 계책을 종용(慫慂)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출몰하면서 장귀(倀鬼)[634]가 달게 되어 밤낮으로 규합하여 그 사주(使嗾)를 들었습니다. 그밖에 지극히 요망하고 지극히 사악한 정상은 강이천보다 심함이 있습니다. 김려(金鑢)의 경우는 본래 간사한 무리로 요망하고 음사한 소굴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기거시키면서 온통 한덩어리가 되고, 오가며 주관없이 남의 말만 듣고 따라서 동기간처럼 보며, 오가며 서로 화답하고 호응하여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습니다. 고발하는 일을 같이 의논함에 미쳐서는 가리울 수 없는 정적(情迹)이 더욱 드러났으니 강이천과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밝은 해가 중천에 있어 모든 물체가 형체를 숨길 수 없는데, 특별히 함께 살게 하려는 덕화를 미루어 모두 새로워지는 영역에 오르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참작해서 처리하는 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저들 무리가 비록 급제도 못한 하찮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고관의 후예들입니다. 그 간사하고 음탕함의 물든 바와 심술(心術)의 빠진 바가 처음에는 사람을 꾀어서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점차 요망한 말을 날조하여 거짓말을 선동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고 그치지 않으면 실로 앞으로 말하기 어려운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벌하여 벌을 그치게 하는 성인의 정사에 있어서 결코 그 조짐을 엄히 막아 '살려주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금부를 거치게 하지 않고 지레 형조에 회부하였으니, 이것만도 형벌을 크게 잘못 시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끝까지 핵실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배소(配所)로 보내었으니 요망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할 줄을 알겠으며, 백성들의 뜻을 무엇으로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634) 장귀(倀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범을 인도한다는 나쁜 귀신. 남을 못된 짓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六年 辛酉 二月 七日 癸丑

○ 以全羅監司金達淳狀啓, 濟州牧使鄭觀輝薦新闕封之罪, 令攸司稟處事. 傳于李儒敬曰, 六年久任之窠, 不可徑遞, 從重推考.

❖ 순조 1년(1801) 신유년 2월 7일(계축)

▢ 천신(薦新)을 궐봉(闕封)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를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는 전교

○ 전라감사 김달순(金達淳)의 장계에,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천신(薦新)을 궐봉(闕封)한 죄를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이유경(李儒敬)에게 전교하기를, "6년 구임(久任)의 자리를 임기가 다 차기 전에 다른 벼슬로 갈릴 수는 없으니 종중추고(從重推考)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궐봉, 제주목사, 정관휘, 종중추고.

❖ 嘉慶 六年 辛酉 二月 九日 乙卯

○ 大司諫吳鼎源, 獻納安廷善, 正言柳烇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答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2월 9일(을묘)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오정원(吳鼎源) 등의 계

○ 대사간 오정원(吳鼎源), 헌납 안정선(安廷善), 정언 유전(柳烇)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六年 辛酉 二月 十二日 戊午

○ 大司諫吳鼎源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設鞫嚴問, 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嚴鞫處斷, 以折奸萌.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2월 12일(무오)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대사간 오정원(吳鼎源)의 계

○ 대사간 오정원(吳鼎源)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여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엄히 국문하여 처단해서 간사한 싹을 꺾어버리게 하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六年 辛酉 二月 二十日 丙寅

○ 獻納嚴思彦啓曰, …… 請濟州牧定配罪人姜彝天, 黑山島定配罪人金履白, 慶源府定配罪人金鑢, 亟令王府拿來, 嚴鞫得情, 【此四字改措語】快正典刑, 其餘徒黨, 亦令一一嚴鞫, 竝施當律.【此八字改措語】【措辭竝見上】…… 答曰, 不允. 姜彝天等事, 已允於鞫廳議啓. …….

❖ 순조 1년(1801) 신유년 2월 20일(병인)

▢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엄히 심문하게 할 것을 청하는 헌납 엄사언(嚴思彦)의 계

○ 헌납 엄사언(嚴思彦)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 정배죄인 강이천(姜彝天), 흑산도 정배죄인 김이백(金履白), 경원부 정배죄인 김려(金鑢)를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엄히 국문하여 사실을 알아내어【이 4자는 조어(措語)를 고침】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고 그 나머지 도당들도 또한 일일이 엄히 국문하여 아울러 해당되는 형률을 시행하십시오.【이 8자는 조어를 고침】【조사(措辭)가 위에 보임】〈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강이천 등의 일은 이미 국청(鞫廳)의 의계(議啟)를 윤허하였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강이천, 제주목, 정배, 국청.

❖ 嘉慶 六年 辛酉 二月 二十八日 甲戌

○ 金近淳,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全羅監司金達淳狀啓, 則以爲, 濟州牧漂到異國船六隻, 考其票文, 見其問情, 則乃是江南省蘇州府所屬地方商船之鱗次漂流者, 渠輩皆願從水路還歸, 而依願發送後狀聞, 且有年前特敎, 故漂船四隻, 則捧手標後先爲發送, 二隻則今方候風云矣. 四隻漂船, 旣先發送, 令槐院撰出咨文, 別定禁軍, 騎撥下送于灣府, 使之傳給鳳城將處, 以爲轉致北京之地, 未發送二隻, 待其發送狀聞之來, 亦令槐院, 一體撰送咨文,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2월 28일(갑술)

▢ 제주목(濟州牧)에 표도(漂到)한 이국선(異國船)을 떠나보내고 자문(咨文)을 짓는 일에 관한 비변사의 계

○ 김근순(金近淳)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전라감사 김달순(金達淳)의 장계를 보니, '제주목(濟州牧)에 표도(漂到)한 이국선(異國船) 6척에 대해 그 표문(票文)을 살피고, 그 문정(問情)한 것을 보니, 곧 강남성(江南省) 소주부(蘇州府) 소속 지방 상선이 차례로 잇닿아 표류한 것으로, 저들은 모두 뱃길을 따라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떠나보낸 후에 장계로 보고하는 것은 또한 몇해 전 특교(特敎)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표도한 선박 중 4척은 수표(手標)를 받은 후에 먼저 떠나보냈고, 2척은 지금 후풍(候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척의 표도한 배를 이미 먼저 떠나보냈으니,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자문(咨文)을 지어내고 금군(禁軍)을 별도로 정하여, 기발(騎撥)로 만부(灣府)로 내려보내어 봉성장(鳳城將)에게 전해 주도록 하여, 북경에 전달하도록 하고, 아직 떠나보내지 않은 2척은 떠나보냈다는 장계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또한 승문원으로 하여금 똑같이 자문을 지어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635]

△ 주제어: 제주목, 표도, 이국선, 자문.

---

635)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1년 2월 2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三月 五日 辛巳

○ 辛酉三月初五日辰時, 上御熙政堂. 藥房入診, 勸講入侍時, 都提調李秉模, 提調李祖承, 副提調南公轍, 假注書李泳夏, 記注官金景煥, 記事官李存秀, 右議政徐龍輔, 一提學李晩秀, 一直提學尹行恁, 以次進伏. …… 上讀前受音一遍, 讀新受音, 自淮海維楊, 止達于淮泗. 秉模解陳文義. 上讀十遍訖. …… 上曰, 此篇篇題, 以貢爲田賦之總名, 而篇內歷敍九州處, 則賦爲田賦, 貢爲土貢, 名色之不同, 何也? 龍輔曰, 總而言則皆可謂貢, 分而言則賦者, 田賦之出於民, 而諸侯之國, 亦有賦斂焉. 若貢則天子而後有之, 諸侯所以述職於天子者也, 此可見春秋大一統之義也. 上曰, 上錯之義, 謂何? 秉模曰, "田賦第七等, 而雜出第六等也. 九州之中, 惟冀·楊·豫·梁, 有錯出之例, 朱子亦以年分之高下, 民力之疾舒爲言, 而臣意則非但四州爲然, 他州亦當如此矣. 此蓋互見之文也. 橘柚之必曰錫貢者, 賢聖之君, 取於民有節, 非祭祀宴饗, 不可闕之需, 則不入於貢獻, 故楊州橘柚, 必待錫命而後貢也. 若西域葡萄, 江南荔枝之供, 可見漢唐之衰矣. 我國耽羅之貢橘, 其來已久, 聖祖柔遠之化, 克致島夷之來庭, 而列朝以來, 每於貢人之來, 賜衣顧恤, 皆是聖人厚往薄來之政也." …….

❖ 순조 1년(1801) 신유년 3월 5일(신사)

▢ 권강(勸講)에서 공(貢)과 부(賦)에 대해 담론하는 가운데 이병모(李秉模)가 탐라(耽羅)가 귤을 바치는 공인(貢人)이 올 때마다 열조(列朝) 이래로 임금이 옷을 하사하고 돌보아 주고 있음을 언급함

○ 신유년 3월 5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권강(勸講)[636]에 입시할 때, 도제조 이병모(李秉模), 제조 이조승(李祖承), 부제조 남공철(南公轍), 가주서 이영하(李泳夏),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기사관 이존수(李存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일제학 이만수(李晩秀), 일직제학 윤행임(尹行恁)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전에 배운 대목을 한번 읽고, 새로 배울 대목을 읽었는데, 회해유양(淮海維楊)에서 달우회사(達于淮泗)까지였다. 이병모가 글의 뜻을 풀이해서 아뢰었다. 임금이 10번 읽었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이 편의 편제(篇題)는 공(貢)을 전부(田賦)의 총명(總名)으로 삼았는데, 편 내에서 구주(九州)를 두루 서술한 곳에서는 부(賦)를 전부로 삼고, 공

636) 권강(勸講): 임금이나 세자를 모시고 경전을 강의하는 일이나 그 일을 맡은 사람.

을 토공(土貢)으로 삼았으니, 명색(名色)이 같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서용보가 아뢰기를, "총괄해서 말을 하면 모두가 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누어서 말을 하면 부라는 것은 전부가 백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제후의 나라도 또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 경우는 천자 이후에나 있는 것으로, 제후가 천자에게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직무를 보고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춘추(春秋) 대일통(大一統)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착(上錯)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전부는 제7등이지만 섞어서 제6등을 내기도 합니다. 9주 가운데 오직 기주(冀州)·양주(楊州)·예주(豫州)·양주(梁州)가 섞어서 내는 사례가 있으니, 주자(朱子) 또한 연분(年分)의 고하(高下)와 민력(民力)의 질서(疾舒)로 말을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4주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 역시 마땅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는 대개 상호적으로 드러낸 글입니다. 귤유(橘柚)를 반드시 석공(錫貢)[637]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질고 성스러운 임금이 백성들에게 취하는 것이 절도가 있으니, 제사와 연향(宴饗)에 빠뜨릴 수 없는 수용(需用)이 아니면 공헌(貢獻)에 들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양주의 귤유를 반드시 석명(錫命)[638]을 기다린 이후에 바치는 것입니다. 서역에서 포도를 바치고 강남에서 여지(荔枝)를 바치는 것과 같은 것에서 한나라와 당나라의 쇠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탐라(耽羅)가 귤을 바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성조(聖祖)가 먼 지방을 다독이는 교화가 능히 섬 백성들이 조정에 와서 임금을 뵐 수 있게 하였는데, 열조(列朝) 이래로 매번 공인(貢人)이 올 때 옷을 하사하고 돌보아 주었으니, 모두가 임금이 후하게 베풀고 박하게 받는 정사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귤, 공인, 옷, 하사.

637) 석공(錫貢): 천자가 특별히 명령한 뒤에 진공(進貢)하는 것. 때가 되면 일정하게 바치는 공물과는 다름.

638) 석명(錫命): 천자가 제후에게 내리는 고명(誥命).

❖ 嘉慶 六年 辛酉 三月 二十一日 丁酉

○ 兵批, 行判書徐鼎修進, 參判金羲淳病, 參議徐美修入直, 參知李始源未肅拜, 右承旨金近淳進. …… 濟州監牧官金瀛礎, …….

❖ 순조 1년(1801) 신유년 3월 21일(정유)

▢ 김영초(金瀛礎)를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에 제수함

○ 병비(兵批)에 행판서 서정수(徐鼎修)가 나왔고, 참판 김희순(金羲淳)은 병이 들었고, 참의 서미수(徐美修)는 입직이고, 참지 이시원(李始源)은 아직 숙배하지 않았고, 우승지 김근순(金近淳)이 나왔다. 〈중략〉 제주(濟州)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에 김영초(金瀛礎)[639]를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산마감목관, 김영초.

639) 김영초(1778~?): 본관 경주(慶州).

❖ 嘉慶 六年 辛酉 三月 二十四日 庚子

○ 辛酉三月二十四日申時, 上御熙政堂. 科次入侍時, 左承旨吳載紹, 假注書金鋼, 記事官金珍恪, 記注官金景煥, 讀券官大提學尹行恁, 對讀官校理李寅采, 修撰張錫胤, 待敎李存秀以次進伏訖. …… 上命書傳敎曰, 三日製賦居首三下一幼學朴宗琦, …… 濟州賦三下幼學玄日皓, 竝直赴會試. …….

❖ 순조 1년(1801) 신유년 3월 24일(경자)

▢ 제주(濟州) 부(賦)에서 삼하(三下)를 맞은 유학(幼學) 현일호(玄日皓) 등을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게 하라는 전교

○ 신유년 3월 24일 신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과차(科次)[640]에 입시할 때, 좌승지 오재소(吳載紹), 가주서 김후(金鋼), 기사관 김진각(金珍恪),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독권관 대제학 윤행임(尹行恁), 대독관 교리 이인채(李寅采), 수찬 장석윤(張錫胤), 대교 이존수(李存秀)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쓰라고 명하여 전교하기를, "삼일제(三日製) 부(賦)에서 수석으로 삼하일을 맞은 유학(幼學) 박종기(朴宗琦), 〈중략〉 제주(濟州) 부에서 삼하(三下)를 맞은 유학 현일호(玄日皓)를 아울러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유학, 현일호, 회시, 직부.

640) 과차(科次): 과거 급제자의 순위 결정. 성적을 9등(等)으로 나누어,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 및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로 규정, 이로써 우열을 평가하고, 삼하 이상을 급제로 하였음.

❖ 嘉慶 六年 辛酉 三月 二十七日 癸卯

○ 辛酉三月二十七日午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同副承旨尹益烈, 假注書金鎭厚, 事變注書柳聖儀, 記事官金珍恪, 記注官金景煥, 領中樞府事李秉模,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行兵曹判書徐鼎修, 刑曹判書趙鎭寬, 戶曹判書李書九, 吏曹判書尹行恁, 同知中樞府事李漢豊, 行都承旨南公轍, 校理李寅采, 持平尹之鉉, 以次進伏訖. …… 龍輔曰, 昨年濟州各樣弊瘼釐正時, 因有司堂上李書九所奏, 本州牧場故失馬價之弊, 有問于該寺釐正之命矣, 無論本牧與他牧, 故失馬之責捧肉價, 非爲經用, 蓋所以防奸而警後也, 他牧則每匹肉價一兩錢外, 又捧皮張, 而本牧則只捧麤布三尺五寸者, 本出綏遠之意, 而且本寺所用騎鞍紅鞍等屬, 皆自本州造來, 價本以肉價布會減, 今若罷捧布之規, 鞍價無他出處, 則勢將責徵於牧場之內, 非但防奸之疎虞, 必有祛弊生弊之慮, 肉價名色, 仍舊施行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出擧條】…….

❖ 순조 1년(1801) 신유년 3월 27일(계묘)

▢ 본주(本州) 목장의 고실마(故失馬)에 대해 받는 고기값 명색을 이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는 우의정 서용보(徐龍輔)의 계

○ 신유년 3월 27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동부승지 윤익렬(尹益烈), 가주서 김후(金鎭厚), 사변주서 유성의(柳聖儀), 기사관 김진각(金珍恪),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영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행병조판서 서정수(徐鼎修), 형조판서 조진관(趙鎭寬), 호조판서 이서구(李書九), 이조판서 윤행임(尹行恁), 동지중추부사 이한풍(李漢豊), 행도승지 남공철(南公轍), 교리 이인채(李寅采), 지평 윤지현(尹之鉉)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서용보가 아뢰기를, "작년 제주(濟州)의 각종 폐막을 바로잡을 때, 유사당상 이서구가 아뢴 바에 따라서 본주(本州) 목장의 고실마(故失馬)에 대해 고기값을 받는 폐단을 해사(該寺)에 물어 바로잡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본목(本牧)이든 타목(他牧)이든 막론하고 고실마에 대해 고기값을 책봉(責捧)하는 것은 경용(經用)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개 간사한 짓을 예방하여 후일을 경계하고자 해서입니다. 타목은 매필에 고기값 1냥 외에 또 죽은 말의

가죽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목은 단지 추포(麤布)[641] 3자 5치만을 받으니, 이는 본래 먼 지방을 안정시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사(本寺) 소용의 기안(騎鞍) 홍안(紅鞍) 등의 물건은 모두가 본주에서 만들어 오는 것인데, 그 값을 고기값의 포(布)로 회감(會減)합니다. 지금 만약에 포를 거두는 규정을 폐지하고, 안장 값이 달리 나올 곳이 없게 된다면, 형세상 장차 목장 안에서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니, 간사함을 예방함에 소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필시 폐단을 없애려다가 도로 폐단이 생기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고기값 명색을 이전 그대로 시행하는 뜻을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라고 하였다. 【거조(擧條)를 냄】〈하략〉.

△ 주제어: 고실마, 고기값, 추포, 기안, 홍안.

641) 추포(麤布): 발이 굵고 거칠게 짠 품질이 낮은 베.

❖ 嘉慶 六年 辛酉 五月 十二日 丁亥

○ 司諫朴瑞源, 掌令洪秉臣·趙台榮, 持平李允行·柳烓, 正言李晦祥·元在明啓曰, …… 噫嘻痛矣, 樂任之罪, 可勝誅哉? 渠以凶逆餘孽, 性本妖慝, 世濟凶論, 罪惡貫盈, 姓名屢出於鞫招, 干犯難逭於鐵案, 至今假息, 是誰之賜, 則罔念悛改之圖, 徒懷怨懟之心. 其家之自底凶逆, 而敢肆讐視, 渠身之久在廢棄, 而必欲掉脫, 偃處近郊, 出沒城闉, 譸張誑惑, 無非矯誣聖躬之凶言, 排布經營, 都是變亂典禮之慴計. 締結非類, 聲勢相連, 凡所以綢繆賊徒, 戕害善類, 背馳義理, 壞亂世道之陰謀祕計, 罔有紀極. 而雖以今番邪獄觀之, 其作爲窩主, 交通凶徒之狀, 屢發於諸招, 昭不可掩, 又添渠一斷案也. 此而一日容貸, 則人心轉益詿誤, 擧世轉益波盪, 不知何樣變怪, 伏於何處, 起於何時. 究厥所爲, 非但殿下之罪人, 卽宗社之罪人, 非但宗社之罪人, 亦實爲慈宮之罪人也. 當此一初淸明, 定國是嚴處分之日, 隣·翼等枝葉, 略施投竄, 而如此凶窩, 依舊自在, 古今天下, 寧有是耶? 三司伏閤, 百僚庭籲, 而乃者處分, 只止安置, 王章尙屈, 輿憤愈激. 請濟州牧圍籬安置罪人樂任, 設鞫得情, 亟正邦刑. …… 答曰, 不允. 金峙默事, 亟停勿煩, 李在學等事, 徐有防事, 勿煩.

❖ 순조 1년(1801) 신유년 5월 12일(정해)

▢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홍낙임(洪樂任)에 대한 국청(鞫廳) 설치를 청하는 사간 박서원(朴瑞源) 등의 계

○ 사간 박서원(朴瑞源), 장령 홍병신(洪秉臣)[642]·조태영(趙台榮)[643], 지평 이윤행(李允行)[644]·유전(柳烓), 정언 이회상(李晦祥)[645]·원재명(元在明)[646]이 아뢰기를, "〈상략〉 아, 애통합니다. 홍낙임(洪樂任)[647]의 죄를 이루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흉역(凶逆)의 여얼(餘孽)로서 성품이 본래 요사하고 간특하여 대대로 흉론(凶論)을 계승하였으니, 죄악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명이 국문(鞫問)하여 받은 공초(供招)에 여러 번 나왔으니, 관련된 범죄를 철안(鐵案)[648]에서 피하

642) 홍병신(?~?): 본관 남양(南陽). 정언, 지평, 장령 역임.
643) 조태영(1760~?): 본관 배천(白川). 자 경지(慶之). 1787년(정조 11) 문과 급제. 주서, 장령, 집의 역임.
644) 이윤행(1762~?): 본관 전주(全州). 자 성유(聖兪).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645) 이회상(?~?): 본관 전주(全州). 자 문약(文若). 1801년(순조 1) 문과 급제.
646) 원재명(1763~1817): 본관 원주(原州). 자 유량(孺良). 병조정랑, 정언, 호조참판 역임.
647) 홍낙임(1741~1801): 본관 풍산(豊山). 자 숙도(叔道). 1769년(영조 45) 문과 급제. 정언, 문학, 승지 역임.
648) 철안(鐵案): 확고한 단안(斷案)이라는 뜻임.

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차하게 남은 숨을 붙여두는 것은 누가 내려준 것입니까?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을 생각은 안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품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절로 흉역이면서도 감히 방자하게 원수처럼 보고, 그 몸은 오랫동안 폐기(廢棄)되어 있으면서도 반드시 벗어나고자 하였으니, 근교(近郊)에 태연히 거처하면서 성문에 출몰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 임금을 속이는 흉언(凶言)이 아님이 없고, 배포(排布)하고 경영하는 것이 모두가 전례(典禮)를 변란(變亂)하는 비통한 계책입니다. 그릇된 무리와 결탁하여 명성과 위세가 서로 이어져 무릇 적도(賊徒)를 주무(綢繆)[649]하여 선량한 무리를 해치고 의리에 배치되며 세도(世道)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음모와 비계(祕計)가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비록 금번 사옥(邪獄)[650]으로 보더라도 그가 소굴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흉악한 무리와 서로 통한 정상이 여러 사람의 공초에서 여러 차례 드러나서 분명하여 숨길 수 없는 것은 또 그에 대한 하나의 단안(斷案)이 첨가된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하루라도 목숨을 붙여둔다면 인심이 점점 더욱 어그러지고, 온 세상이 점차 더욱 파탕(波盪)될 것이니, 어떤 모양의 변괴가 어느 곳에 엎드렸다가 어느 때에 일어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행한 바를 궁구해 보면, 비단 전하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곧 종사(宗社)의 죄인입니다. 비단 종사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로 자궁(慈宮)의 죄인이 됩니다. 한결같이 초복(初服)[651]이 청명함에 국시(國是)를 정하고 엄히 처분하는 날을 당하여 인(隣)·익(翼) 등 지엽적인 자들을 대략 투찬(投竄)을 시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흉악한 소굴이 예전처럼 그대로 있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삼사(三司)에서 복합(伏閤)하고 백료(百僚)가 대궐 뜰에서 호소하였는데도, 지난번의 처분은 단지 안치(安置)에 그쳐서 국법을 오히려 굽히니, 여분(輿憤)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홍낙임을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나라의 형률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652]

△ 주제어: 제주목, 위리안치, 홍낙임, 국청.

649) 주무(綢繆):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말함.

650) 사옥(邪獄): 사교(邪敎)에 관한 옥사(獄事). 여기서는 신유년(1801)에 천주교에 관련된 자를 처벌한 신유사옥(辛酉邪獄)을 말함.

651) 초복(初服): 임금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고 교화를 베풂.

652) 이상은 《순조실록》 순조 1년 1월 6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五月 十四日 己丑

○ 司諫朴瑞源, 掌令洪秉臣·趙台榮, 持平柳烇, 正言李晦祥啓曰, …… 請濟州牧圍籬安置罪人樂任, 設鞫得情, 亟正邦刑. 【措辭見上】 …… 答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5월 14일(기축)

▢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홍낙임(洪樂任)에 대한 국청(鞫廳) 설치를 청하는 사간 박서원(朴瑞源) 등의 계

○ 사간 박서원(朴瑞源), 장령 홍병신(洪秉臣)·조태영(趙台榮), 지평 유전(柳烇), 정언 이회상(李晦祥)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홍낙임(洪樂任)을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나라의 형률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위리안치, 홍낙임, 국청.

❖ 嘉慶 六年 辛酉 五月 二十五日 庚子

○ 今五月二十五日午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都提調徐龍輔, 提調李書九, 副提調南公轍, 檢校直閣金近淳, 左副承旨曺錫中, 假注書鄭祖榮·徐有恂, 事變假注書李晳, 記事官金珍恪·吳淵常, 領府事李秉模,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開城留守金文淳, 禮曹判書金祖淳, 兵曹判書趙鎭寬, 工曹判書李敬一, 行護軍李得濟, 執義金熙采, 司諫柳畊, 掌令姜文會·洪光一, 持平宋應圭, 獻納金會淵, 副校理申溆, 正言李敬參, 副修撰鄭晩錫, 醫官柳光翼·金孝儉·李敬培·朴春源·李惟鑑·玄必采·吳仁豊·吳千根·朴烓·趙宗協, 以次進伏訖. …… 熙采等曰, 請濟州牧圍籬安置罪人樂任, 拿鞫得情, 亟正邦刑. 【措辭見上】 上曰, 不允. …… 熙采等齊聲奏曰, 大臣諸臣所奏, 臣等已聞之矣. 幺麽一行恝, 殿下何所顧惜, 而不賜處分乎? 其千罪萬惡, 彰盡無餘, 至於作福作威, 背馳義理, 揆以國家刑政, 渠安得一時戴頭於覆載之間哉? 今置島中, 南俗善於浮動, 易爲詿誤. 且邪學今頗狼藉於道內, 此實深長之慮, 而危急之機也. 大王大妃殿敎曰, 今此靳允於臺啓者, 非顧藉也, 非惜之也, 自有商量者, 日熱如此, 殿座已久, 姑置之, 可也. 晳曰, 慈敎雖以非顧藉爲敎, 而念渠罪犯, 雖嚴囚王府, 所以暗地綢繆, 釀出禍機, 不知至於何境, 今置島中, 假息自在, 則薪島之於耽羅, 不過一帆風可以直通, 豈非凜然處乎? 會淵·晩錫曰, 今此尹行恝之罪, 旣現露之後, 王法至嚴, 臺啓不可不亟賜允從矣. 大王大妃殿敎曰, 凡事有可以速賜處分者, 有可以商量處分者, 當此之時, 悠悠萬事, 無過於保護聖躬, 而當暑勞動, 豈不可悶乎? 姑爲退去, 可也. …… 上曰, 亟停勿煩. …….

❖ 순조 1년(1801) 신유년 5월 25일(경자)

▢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홍낙임(洪樂任)에 대한 국청(鞫廳) 설치 등을 청하는 집의 김희채(金熙采) 등의 계

○ 5월 25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도제조 서용보(徐龍輔), 제조 이서구(李書九), 부제조 남공철(南公轍), 검교직각 김근순(金近淳), 좌부승지 조석중(曺錫中), 가주서 정조영(鄭祖榮)·서유순(徐有恂), 사변가주서 이석(李晳), 기사관 김진각(金珍恪)·오연상(吳淵常), 영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개성유수 김문순(金文淳), 예조판

서 김조순(金祖淳), 병조판서 조진관(趙鎭寬), 공조판서 이경일(李敬一), 행호군 이득제(李得濟), 집의 김희채(金熙采), 사간 유경(柳畊), 장령 강문회(姜文會)·홍광일(洪光一), 지평 송응규(宋應圭), 헌납 김회연(金會淵), 부교리 신서(申溆), 정언 이경삼(李敬參), 부수찬 정만석(鄭晩錫),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검(金孝儉)·이경배(李敬培)·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인풍(吳仁豊)·오천근(吳千根)·박전(朴烇)·조종협(趙宗協)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김희채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홍낙임(洪樂任)을 국청(鞫廳)을 설치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나라의 형률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임금이 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중략〉 김희채 등이 일제히 아뢰기를, "대신(大臣)과 신하들이 아뢴 바를 신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하찮은 일개 윤행임(尹行恁)을 전하는 어찌 아끼며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 천만 가지 죄악이 남김없이 다 드러났고, 위복(威福)을 행함[653]에 이르러서는 의리(義理)에 배치되니, 국가의 형정(刑政)으로 헤아려 볼 때 그가 어찌 한시라도 천지 사이에서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섬에 안치(安置)하였는데, 남쪽 지방의 풍속이 부화뇌동을 잘하여 쉽게 잘못될 것입니다. 또한 사학(邪學)이 지금 자못 도내(道內)에 낭자하니 이것이 실로 깊은 염려이면서 위급한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이번에 대계(臺啓)에 대해 윤허를 아끼는 것은 돌보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끼는 것도 아니다. 절로 헤아리는 바가 있어서이다. 날이 덥기가 이와 같은데도 전좌(殿座)[654]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일단은 내버려 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유경이 아뢰기를, "자전(慈殿)께서는 비록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교하였지만 그가 범한 죄를 생각해보면, 비록 엄히 의금부에 갇혀 있지만 암암리에 치밀하게 꾸미고 화란의 기미를 빚어낸 것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는데, 지금 섬 안에 두어서 구차하게 남은 숨을 연장하며 절로 있게 한다면, 신도(薪島)가 탐라(耽羅)에 대하여 불과 일범풍(一帆風)이면 바로 통할 수 있으니, 어찌 두려운 바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김회연[655]과 정만석이 아뢰기를, "지금 이 윤행임의 죄는 이미 드러난 후로, 왕법(王法)이 지엄하니 대계에 대해 속

653) 위복(威福)을 행함: 권세를 부린다는 뜻임. 《서경》 〈홍범(洪範)〉에 "오직 군주만이 복을 짓고 오직 군주만이 위엄을 짓고 오직 군주만이 옥식을 할 수 있으니, 신하는 복을 짓고 위엄을 짓고 옥식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無有作福作威玉食]."라고 하였음.

654) 전좌(殿座): 임금 등이 정사(政事)를 보거나 조하(朝賀)를 받으려고 정전(正殿)이나 편전(便殿)에 나와 앉던 일. 또는 그 자리.

655) 김회연(1750~1817): 본관 청풍(淸風). 자 문통(文通). 호 효운루(曉雲樓). 1800년(정조 24) 문과 급제. 저서 《효운루집》·《청사유편(靑史類篇)》.

히 윤허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무릇 일에는 속히 처분할 것이 있고, 헤아려 처분할 것이 있다. 이러한 때에는 많고 많은 일들이 임금의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더위에 수고로이 거둥하니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는가? 일단 물러가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제주목, 위리안치, 홍낙임, 국청, 윤행임, 신도.

❖ 嘉慶 六年 辛酉 五月 二十六日 辛丑

○ 持平宋應圭, 獻納金會淵啓曰, …… 請濟州牧圍籬安置罪人樂任, 拿鞫得情, 亟正邦刑. 【措辭見上】…… 答兩司曰, 不允. …….

❖ 순조 1년(1801) 신유년 5월 26일(신축)

▢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홍낙임(洪樂任)에 대한 국청(鞫廳) 설치 등을 청하는 지평 송응규(宋應圭) 등의 계

○ 지평 송응규(宋應圭)[656], 헌납 김회연(金會淵)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홍낙임(洪樂任)을 잡아다 국문(鞫問)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속히 나라의 형률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양사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위리안치, 홍낙임, 국청.

656) 송응규(1765~1823): 본관 은진(恩津). 자 원직(元直). 호 지헌(遲軒).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홍문관교리, 시강원문학, 안변부사 역임. 저서 《지헌유고》.

❖ 嘉慶 六年 辛酉 五月 二十九日 甲辰

○ 李肇源, 以義禁府言啓曰, 全羅道濟州牧圍籬安置罪人樂任賜死事, 承傳啓下矣. 罪人樂任, 依例發遣府都事, 與地方官眼同賜死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년(1801) 신유년 5월 29일(갑진)

▢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홍낙임(洪樂任)을 사사(賜死)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이조원(李肇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한 죄인 홍낙임(洪樂任)을 사사(賜死)하도록 승전(承傳)하여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죄인 홍낙임을 규례대로 본부 도사를 보내어 지방관과 함께 입회하여 사사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위리안치, 홍낙임, 사사.

❖ 嘉慶 六年 辛酉 五月 二十九日 甲辰

○ 辛酉五月二十九日酉時, 上御誠正閣. 時原任大臣, 金吾堂上入侍時, 右副承旨曺錫中, 記事官金啓溫, 記注官金景煥, 記事官吳淵常, 領府事李秉模,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同義禁趙德潤, □□□李始源, 以次進伏訖. …… 錫中讀奏曰, 【十五行半刀割】濟州牧安置罪人樂任賜死.【十九行半刀割】…….

❖ 순조 1년(1801) 신유년 5월 29일(갑진)

▢우부승지 조석중(曺錫中)이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죄인 홍낙임(洪樂任)이 사사(賜死) 되었음을 아룀

○ 신유년 5월 29일 유시에 임금이 성정각(誠正閣)으로 나아갔다. 시원임대신, 금오당상이 입시할 때, 우부승지 조석중, 기사관 김계온(金啓溫), 기주관 김경환(金景煥), 기사관 오연상(吳淵常), 영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동의금 조덕윤(趙德潤), □□□ 이시원(李始源)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조석중이 읽어 아뢰기를, "【15행 반이 칼로 도려짐】 제주목(濟州牧) 위리안치 죄인 홍낙임이 사사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19행 반이 칼로 도려짐】〈하략〉.

△ 주제어: 제주목, 위리안치, 홍낙임, 사사.

❖ 嘉慶 六年 辛酉 七月 十五日 己丑

○ 大王大妃殿, 以承傳色口傳下敎曰, 濟州牧賜死罪人樂任屍體, 卽使返葬事, 分付道臣.

❖ 순조 1년(1801) 신유년 7월 15일(기축)

▢ 제주목(濟州牧) 사사(賜死) 죄인 홍낙임(洪樂任)의 시체를 반장(返葬)하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하라는 대왕대비전의 하교

○ 대왕대비전이 승전색(承傳色)의 구전(口傳)으로 하교하기를, “제주목(濟州牧) 사사(賜死) 죄인 홍낙임(洪樂任)의 시체를 즉시 반장(返葬)하도록 관찰사에게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 사사, 홍낙임, 반장.

❖ 嘉慶 六年 辛酉 七月 十八日 壬辰

○ 尹理相,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濟州出來先後運年例進上馬八匹, 別御乘馬二十匹, 三名日進上馬六十匹, 差備進上馬八十匹, 歲貢馬二百匹, 山屯馬二百匹, 凶咎駑駘馬二十匹, 合五百八十八匹內, 十八匹華城親軍衛分給, 二匹船中故失, 九匹到中路故失, 四匹到津頭逃逸, 七匹到本寺病留除, 實納馬五百四十八匹, 禾毛色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년(1801) 신유년 7월 18일(임진)

▢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후운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등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사복시의 계

○ 윤이상(尹理相)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 나온 선·후운 연례진상마(年例進上馬) 8필, 별어승마(別御乘馬) 20필, 삼명일진상마(三名日進上馬) 60필, 차비진상마(差備進上馬) 80필, 세공마(歲貢馬) 200필, 산둔마(山屯馬) 200필, 흉구노태마(凶咎駑駘馬) 20필, 합 588필 내에 18필은 화성(華城) 친군위(親軍衛)에 나누어 주었고, 2필은 배 안에서 죽었고, 9필은 중로(中路)에 도착해서 죽었고, 4필은 진두(津頭)에 도착해서 도망갔고, 7필은 본사(本寺)에 도착하여 병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제외하여 실제로 바치는 말 548필의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진상마, 어승마, 세공마, 별단.

❖ 嘉慶 六年 辛酉 七月 二十日 甲午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進上藥材,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申大羽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년(1801) 신유년 7월 20일(갑오)

▢ 약재(藥材)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 대해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에 진상하는 약재(藥材)를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신대우(申大羽)[657]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약재, 봉진, 대죄.

657) 신대우(1735~1809): 본관 평산(平山). 자 의부(儀夫). 호 완구(宛丘). 1784년(정조 8) 음보(蔭補)로 선공감역(繕工監役)에 기용. 동지중추부사, 동지돈녕부사, 호조참판 역임.

❖ 嘉慶 六年 辛酉 七月 二十二日 丙申

○ 都目. 吏批, 判書金祖淳進, 參判李翊模進, 參議朴宗來進, 行都承旨尹光普進. …… 李煽爲大靜縣監, …….

❖ 순조 1년(1801) 신유년 7월 22일(병신)

▢ 이흡(李煽)을 대정현감(大靜縣監)에 제수함

○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였다. 이비(吏批)에 판서 김조순(金祖淳)이 나오고, 참판 이익모(李翊模)가 나오고, 참의 박종래(朴宗來)가 나오고, 행도승지 윤광보(尹光普)가 나왔다. 〈중략〉 이흡(李煽)[658]을 대정현감(大靜縣監)으로 삼았다. 〈하략〉.

△ 주제어: 이흡, 대정현감.

658) 이흡(1721~1804): 본관 전주(全州). 자 휘중(輝仲). 대정현감(1801.8.도임~1804.2.재임 중 사망) 역임.

❖ 嘉慶 六年 辛酉 七月 二十三日 丁酉

○ 辛酉七月二十三日辰時, 上御熙政堂. 吏·兵房承旨與守令·邊將初仕人, 入侍時, 右承旨嚴耆, 左副承旨李海愚, 假注書韓用儀, 記事官呂東植·金邁淳, 義州府尹任熤 …… 大靜縣監李燏, …… 以次進伏. …… 上命以次奏職姓名, 熤等, 以次進前, 奏職姓名. …….

❖ 순조 1년(1801) 신유년 7월 23일(정유)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燏)이 수령·변장 초사인(初仕人)으로 함께 입시하여 임금에게 직책과 성명을 아룀

○ 신유년 7월 23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이·병방승지와 수령·변장 초사인(初仕人)이 입시할 때, 우승지 엄기(嚴耆), 좌부승지 이해우(李海愚), 가주서 한용의(韓用儀), 기사관 여동식(呂東植)·김매순(金邁淳), 의주부윤 임육(任熤)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燏), 〈중략〉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임금이 차례로 직책과 성명을 아뢰도록 명했다. 임육 등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이흡.

❖ 嘉慶 六年 辛酉 七月 二十七日 辛丑

○ 林漢浩啓曰, 未下直守令, 皆令明日辭朝事, 命下, 而鐵山府使柳相穆 …… 大靜縣監李煽, 報恩縣監沈來永, 憲府則已爲署經矣. 諫院當爲署經, 未署經外未肅拜人員, 竝卽牌招, 以爲署經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7월 27일(신축)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熻) 등 서경(署經)을 마친 인원 외에 아직 서경을 거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모두 서경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임한호(林漢浩)의 계

○ 임한호(林漢浩)[659]가 아뢰기를, “아직 하직하지 않은 수령은 모두 내일 하직 인사를 하도록 명을 내리셨는데, 철산부사 유상목(柳相穆)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熻), 보은현감 심내영(沈來永)은 사헌부에서는 이미 서경(署經)[660]을 하였습니다. 사간원에서 서경을 해야 하니 서경을 거치지 않았거나 아직 숙배하지 않은 인원을 모두 즉시 패초하여 서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이흡, 서경.

---

659) 임한호(1752~1827): 본관 나주(羅州). 자 경소(景昭). 시호 정간(貞簡).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우의정, 대사헌, 판의금부사 역임.

660) 서경(署經): 임금이 관원을 서임(敍任)할 때에 그 사람의 성명·문벌·이력을 갖추 써서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可否)를 구하던 일.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면, 이조나 병조에서 신임관의 내외 사조(內外四祖),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四祖)를 기록하여 대간에 회부하면, 대간은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신임관의 본인에게나 내외 사조 등에 결점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였음. 50일 이내에 서경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음.

❖ 嘉慶 六年 辛酉 七月 二十八日 壬寅

○ 辛酉七月二十八日辰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左承旨·右承旨·下直守令同爲入侍時, 左承旨李肇源, 右承旨嚴耆, 假注書韓用儀, 記事官呂東植·金邁淳, …… 大靜縣監李煓, 龍仁縣令李明翼, 以次進伏訖. 上曰, 守令進前, 各奏職姓名, 其中初除守令, 七事爲之, 侍從除之, 宣諭則退去政院後, 爲之. …….

❖ 순조 1년(1801) 신유년 7월 28일(임인)

▢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煓)이 하직(下直) 수령으로 입시할 때, 직책과 성명(姓名)을 아뢰라는 전교

○ 신유년 7월 28일 진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좌승지·우승지·하직(下直) 수령이 함께 입시할 때, 좌승지 이조원(李肇源), 우승지 엄기(嚴耆), 가주서 한용의(韓用儀), 기사관 여동식(呂東植)·김매순(金邁淳), 〈중략〉 대정현감(大靜縣監) 이흡(李煓), 용인현령 이명익(李明翼)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은 앞으로 나아와 각기 직책과 성명(姓名)을 아뢰어라. 그 가운데 처음 제수된 수령은 칠사(七事)[661]를 암송하되, 시종(侍從)은 제외하며, 선유(宣諭)는 승정원으로 물러간 뒤에 하라."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대정현감, 하직, 직책, 성명, 칠사.

661) 칠사(七事): 조선시대 지방 수령이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사항으로서 농상(農桑) 진흥, 호구(戶口) 증대, 학교 진흥, 군정(軍政) 정비, 부역(賦役) 균평, 소송의 간명함, 간사한 짓의 제거임. 새로 임명된 수령이 하직할 때 외우게 하였음.

❖ 嘉慶 六年 辛酉 八月 一日 乙巳

○ 禮曹啓目粘連, 濟州漢拏山祭風雲雷雨祭香祝及頒敎文, 竝爲漂失, 有此祀典之過期設行, 事未前有, 當該道臣, 不可無警〈責〉. 從重推考, 都會官康津縣監, 令該府拿問處之, 何如? 判付啓, 依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8월 1일(을사)

▢ 제주(濟州)의 한라산제(漢拏山祭)와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의 향축(香祝) 및 반교문(頒敎文) 표실(漂失)에 따른 책임을 물어 관찰사의 종중추고(從重推考) 등을 청하는 예조의 계

○ 예조가 계목(啓目)에 점련(粘連)[662]하기를, "제주(濟州)의 한라산제(漢拏山祭)와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의 향축(香祝) 및 반교문(頒敎文)이 모두 표실(漂失) 되었는데, 이렇게 사전(祀典)을 기한이 지나서 설행하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니 해당 관찰사를 경책(警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도회관(都會官)인 강진현감(康津縣監)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잡아다 심문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한라산제, 풍운뇌우제, 향축, 반교문, 표실.

662) 점련(粘連): 관아에 제출하는 서면에 관계되는 서류를 덧붙임.

❖ 嘉慶 六年 辛酉 九月 十四日 丁亥[戊子]

○ 朴吉源, 以義禁府言啓曰, 卽接忠淸道天安縣監李承默成冊及牒報, 則大逆不道罪人時發應坐諸人, 査出以來矣. …… 弟時連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 …… 姪成貴咸鏡道穩城府流三千里安置, …… 而右罪人等, 竝爲捉囚於縣獄云. 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9월 14일(정해[무자])

▢ 시발(時發)의 연좌죄인 시연(時連)을 배소(配所)인 추자도(楸子島)로 압송(押送)하게 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박길원(朴吉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충청도 천안현감 이승묵(李承默)의 성책(成冊)과 첩보(牒報)를 보니, 대역부도죄인 시발(時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중략〉 동생 시연(時連)을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로 삼고, 〈중략〉 조카 성귀는 함경도 온성부 로 유삼천리 안치하겠습니다. 위 죄인들이 모두 현옥(縣獄)에 잡혀 갇혀 있다고 합니다.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시연, 추자도, 배소, 압송.

❖ 嘉慶 六年 辛酉 九月 十四日 丁亥[戊子]

○ 朴吉源,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時發子龍鹿, 以年未滿免絞, 慶尙道巨濟府爲奴, 弟時連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 …… 事, 命下矣. 上項罪人等, 今方被囚於忠淸道天安縣獄, 押送各其配所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년(1801) 신유년 9월 14일(정해[무자])

▢ 시발(時發)의 연좌죄인 시연(時連) 등을 각기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할 것을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분부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박길원(朴吉源)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역부도죄인 시발(時發)의 아들 용록(龍鹿)은 나이가 차지 않아서 교형(絞刑)을 면하여 경상도 거제부에 노(奴)로 삼고, 동생 시연(時連)은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로 삼도록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위 죄인들은 지금 충청도 천안현 옥사에 갇혀 있습니다. 각기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도록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시연, 추자도, 배소, 압송.

❖ 嘉慶 六年 辛酉 九月 二十六日 庚子

○ 尹益烈, 以義禁府言啓曰, 全羅監司金達淳狀啓內, 大靜前縣監夫宗仁罪狀, 令攸司稟處事, 啓下矣. 夫宗仁自任所未及上來云, 依例發遣府羅將, 所到處拿來, 何如? 傳曰, 待(待)命拿囚.

❖ 순조 1년(1801) 신유년 9월 26일(경자)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을 명을 기다려 잡아다 가두라는 전교

○ 윤익렬(尹益烈)[663]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라감사 김달순(金達淳)의 장계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의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는 것에 대해 계하(啓下) 하였습니다. 부종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 규례대로 본부의 나장(羅將)을 보내어 도착하는 곳에서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명을 기다려 잡아다 가두어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부종인, 나장.

663) 윤익렬(1752~?): 본관 해평(海平). 자 가우(可友). 1792년(정조 16) 문과 급제. 회양부사, 개성유수, 예조참판 역임.

❖ 嘉慶 六年 辛酉 九月 二十九日 癸卯

○ 朴宗輔, 以備邊司言啓曰, 今此濟州牧漂到異國人, 以言語以文字, 皆無問情通志之路, 則欲加叩詰, 徒致留滯之弊, 依年前琉球國漂人已例, 卽從陸路, 入送北京爲宜. 所着衣袴, 朝夕供饋, 禁雜人, 護送等事, 令所經各道道臣別定差員, 申飭擧行, 以示朝家綏遠之意, 譯官一人, 令該院別定勤幹能通外國言者, 給馬下送于湖南都會官, 待漂人越海問情後, 仍與差員眼同領來, 咨文亦令槐院預爲撰出, 以領來譯官, 仍差齎咨官, 以爲入送北京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9월 29일(계묘)

▢ 제주목(濟州牧)에 표도(漂到)한 이국인(異國人)을 즉시 육로를 따라서 북경(北京)으로 들여보낼 것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박종보(朴宗輔)[664]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제주목(濟州牧)에 표도(漂到)한 이국인(異國人)은 언어로든 문자로든 모두 문정(問情)하여 뜻을 통할 길이 없으니, 더 물어보려 해도 단지 지체하는 폐단에 이를 뿐입니다. 몇 해 전 유구국(琉球國)에서 표도한 사람들의 사례에 의거하여 즉시 육로를 따라서 북경(北京)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입는 옷과 아침 저녁의 공궤(供饋), 잡인의 금지와 호송 등의 일은 경유하는 각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차원(差員)을 별도로 정하여 단단히 타일러 경계하여 거행하여 조정이 먼 나라의 사람을 편안케 하는 뜻을 보이십시오. 역관(譯官) 1인을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근실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로 별도로 정하여 말을 내어주어 호남의 도회관(都會官)으로 내려보내어 표도한 이국인이 바다를 건너오기를 기다려 문정한 후에 그대로 차원과 함께 영솔하여 오게 하십시오. 자문(咨文) 또한 괴원(槐院)으로 하여금 미리 지어 내어 영솔하고 온 역관을 그대로 재자관(齎咨官)으로 임명하여 북경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665]

△ 주제어: 표도, 이국인, 육로, 북경.

---

664) 박종보(1760~1808): 본관 반남(潘南). 자 여신(汝臣). 시호 충익(忠翼). 형조참판, 성천부사, 춘천부사 역임.

665)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1년 9월 29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十月 七日 庚戌

○ 禁府照目粘連, 咸平縣監崔履亨矣, 本府議啓內, …… 又照目, 大靜前縣監夫宗仁原情云云, 問目內辭緣, 泛稱遲晩, 刑推得情, 何如? 判付啓, 除刑推議處爲良如敎.

❖ 순조 1년(1801) 신유년 10월 7일(경술)

▢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에 대해 형추(刑推)하지 말고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전교

○ 의금부의 조목(照目)에 점련(粘連)하여, “함평현감 최이형에 대해 본부 의계 내에 〈하략〉.”라고 하였다. 또 조목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의 원정(原情) 운운에 대하여 문목(問目) 내 내용을 범연(泛然)히 지만(遲晩)하였으니,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판부(判付)하기를, “형추는 그만두고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부종인, 형추, 처리.

❖ 嘉慶 六年 辛酉 十月 十日 癸丑

○ 金近淳, 以東堂覆試武二所試官意啓曰, 臣所今日平明開場, 應射擧子自天字至地字半字, 當爲九十六人, 而入門捧單只爲七十四人, 其中無緣不赴者, 江原道五人, 全羅道一人, 慶尙道四人, 平安道八人, 忠淸道一人, 濟州三人, 合爲二十二人, 故只以元捧單, 先自木箭試取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년(1801) 신유년 10월 10일(계축)

▢ 동당복시(東堂覆試) 무과(武科)에서 처음 받은 단자를 가지고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하겠다는 이소시관(二所試官)의 계

○ 김근순(金近淳)이 동당복시(東堂覆試) 무과(武科) 이소시관(二所試官)의 뜻으로 아뢰기를, “신의 소(所)가 오늘 해가 뜰 무렵 개장(開場)하였습니다. 활쏘기에 응시한 거자(擧子)가 천자(天字)에서 지자(地字)의 반자(半字)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96인이 되어야 하는데, 입문(入門)하여 단자(單子)를 받아보니 단지 74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응시하지 않은 자가 강원도 5인, 전라도 1인, 경상도 4인, 평안도 8인, 충청도 1인, 제주(濟州) 3인 합 22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만 처음 받은 단자를 가지고 먼저 목전(木箭)부터 시취(試取)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동당복시, 무과, 시취.

❖ 嘉慶 六年 辛酉 十月 十一日 甲寅

○ 李翊模, 以義禁府言啓曰, 卽接高山縣監李在純牒報及成冊, 則謀逆同參罪人持憲應坐諸人, 査出以來矣. …… 子 …… 鍾遠, 全羅道濟州牧, 鍾近, 慶尙道巨濟府, 鍾得, 南海縣, 竝爲奴, …… 而右罪人等, 方囚於高山縣獄, 竝令刑曹,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0월 11일(갑인)

▢ 모역(謀逆)에 동참한 죄인 지헌(持憲)의 아들 종원(鍾遠) 등을 제주목(濟州牧) 등의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이익모(李翊模)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고산현감(高山縣監) 이재순(李在純)의 첩보(牒報) 및 성책(成冊)을 보니, 모역(謀逆)에 동참한 죄인 지헌(持憲)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중략〉 아들 〈중략〉 종원(鍾遠)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종근은 경상도 거제부에, 종득은 남해현에 모두 노(奴)로 삼되, 〈중략〉 위 죄인들이 지금 고산현 옥사에 갇혀 있으니, 아울러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모역, 지헌, 종원, 배소, 압송.

❖ 嘉慶 六年 辛酉 十月 十五日 戊午

○ 鄭東觀,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謀逆同參罪人持憲妻宗恒, 全羅道羅州牧黑山島爲婢, 子鍾遠年十五, 子鍾近年十三, 子鍾得年四, 俱以年未滿免絞, 鍾遠, 全羅道濟州牧, 鍾近, 慶尙道巨濟府, 鍾得, 南海縣竝爲奴, …… 事, 命下矣. 上項罪人等, 方囚高山縣獄, 押送各其配所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년(1801) 신유년 10월 15일(무오)

▢ 모역(謀逆)에 동참한 죄인 지헌(持憲)의 아들 종원(鍾遠) 등을 제주목(濟州牧) 등의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게 할 것을 청하는 형조의 계

○ 정동관(鄭東觀)[666]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모역(謀逆)에 동참한 죄인 지헌(持憲)의 처 종항을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에 비(婢)로 삼고, 아들 종원(鍾遠)은 15세, 종근(鍾近)은 13세, 종득(鍾得)은 4세로 모두 나이가 차지 않아서 교형(絞刑)을 면하여 종원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종근은 경상도 거제부에, 종득은 남해현에 아울러 노(奴)로 삼도록 〈중략〉 명을 내렸습니다. 위 죄인들이 지금 고산현 옥사에 갇혀 있으니, 각기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하도록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관문(關文)을 보내어 분부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모역, 지헌, 종원, 배소, 압송.

666) 정동관(1762~1809): 본관 동래(東萊). 자 문첨(文詹).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이조참의, 홍문관부제학, 경상도관찰사 역임.

❖ 嘉慶 六年 辛酉 十月 十六日 己未

○ 鄭東觀, 以司僕寺一二提調意啓曰, 大靜前縣監夫宗仁遞任進上馬二匹, 今纔上來, 禾毛色別單書入, 依例內廐立養, 而封進事體, 何等重大, 二匹俱爲孱劣, 無一可用, 事極駭然, 當該封進大靜前縣監夫宗仁, 姑先從重推考, 以警日後,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0월 16일(기미)

▢ 잔열(孱劣)한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를 봉진(封進)한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의 종중추고(從重推考)를 청하는 사복시의 계

○ 정동관(鄭東觀)이 사복시 일·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의 체임진상마(遞任進上馬) 2필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나이와 털색을 별단(別單)에 써서 들이고 규례대로 내구(內廐)에 입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봉진(封進)하는 일의 체모가 얼마나 막중한 것입니까? 2필이 모두 잔열(孱劣)하여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봉진관인 전 대정현감 부종인을 우선 종중추고(從重推考)하여 이후를 경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부종인, 체임진상마, 종중추고.

❖ 嘉慶 六年 辛酉 十月 十六日 己未

○ 禁府啓目, 驪州牧使金熙朝原情云云. …… 又啓目, 大靜前縣監夫宗仁矣, 本府議啓內, 漂船瞭望, 關係甚重, 而身爲地方官, 異樣船現形, 踰日之後, 晩始進去, 以致卸留多日, 徑自逃還, 揆以邊情, 萬萬稽忽, 以此照律, 罪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私罪, 奉敎依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0월 16일(기미)

▢ 표도(漂到)한 이양선(異樣船)에 대한 요망(瞭望)을 소홀히 한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에 대해 장(杖) 1백 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할 것을 청하는 의금부의 계

○ 의금부의 계목에, “여주목사 김희조의 원정 운운에 대하여 〈하략〉.”라고 하였다. 〈중략〉 또 계목에,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부종인(夫宗仁)에 대한 본부의 의계(議啓)에, 표도(漂到)한 선박을 요망(瞭望)[667]하는 것은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자신이 지방관이 되어서 이양선(異樣船)이 눈 앞에 형체를 드러냈는데도 날을 넘긴 뒤에야 늦게 나아가 짐을 풀고 여러 날 머물다가 제멋대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변방의 사정으로 헤아려 볼 때 너무나도 지체하고 소홀히 여긴 처사입니다. 이것으로 조율(照律)하니, 죄가 장(杖) 1백 대에 속전(贖錢)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하는 사죄(私罪)[668]입니다.”라고 하였다. 봉교의윤(奉敎依允)[669]하였다.

△ 주제어: 대정현감, 부종인, 이양선, 속전, 추탈.

---

667) 요망(瞭望): 높은 곳에서 살펴봄.
668) 사죄(私罪): 관리가 공무를 집행하다가 착오로 저지른 공죄(公罪)가 아닌 죄.
669) 봉교의윤(奉敎依允): 임금이 윤허한 것을 받드는 일.

❖ 嘉慶 六年 辛酉 十月 三十日 癸酉

○ 辛酉十月三十日午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都提調李秉模, 提調黃昇源, 記事官李允謙·呂東植·金邁淳, 檢校直閣金近淳, 右承旨鄭東觀, 記事官金鎭, 事變假注書權拚, 領議政沈煥之, 右議政徐龍輔, 上護軍李得臣, 行兵曹判書李晩秀, 知中樞府事趙鎭寬, 刑曹判書李敬一, 戶曹判書李書九, 行護軍李漢豐·南公轍, 掌令李基慶, 副校理任厚常, 醫官柳光翼·金孝德·李敬培·朴春源·李惟鑑·玄必采·吳仁豐·趙宗協, 以次進伏訖. …… 大王大妃殿敎曰, 濟州所泊漂人等, 今番使行, 付送爲好, 而果未及乎? 龍輔曰, 今當風高, 涉海未易, 故果未趁使行到京, 而從後齎咨官入去之時, 使之入送, 亦無妨矣. 大王大妃殿敎曰, 知其爲何國人乎? 煥之曰, 語不分明, 文亦詭異, 服裝又怪駭, 其爲何國之人, 無以詳知矣. 大王大妃殿敎曰, 予嘗知以四方同文矣, 文亦異云乎? 煥之曰, 以左手寫之, 而其字樣回曲, 不可知也. 大王大妃殿敎曰, 今番使行未及付送, 將無以卽知其爲何國人, 是可鬱也. 龍輔曰, 雖於日後齎咨官去時入送, 可以知來矣.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0월 30일(계유)

▢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등이 입시하여 제주(濟州)에 표착(漂着)한 이국인을 이번 사행(使行)에 부쳐 보내는 것에 대해 논의함

○ 신유년 10월 30일 오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약방이 들어와 진맥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도제조 이병모(李秉模), 제조 황승원(黃昇源), 기사관 이윤겸(李允謙)·여동식(呂東植)·김매순(金邁淳), 검교직각 김근순(金近淳), 우승지 정동관(鄭東觀), 기사관 김후(金鎭), 사변가주서 권변(權拚),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상호군 이득신(李得臣), 행병조판서 이만수(李晩秀), 지중추부사 조진관(趙鎭寬), 형조판서 이경일(李敬一), 호조판서 이서구(李書九), 행호군 이한풍(李漢豐)·남공철(南公轍), 장령 이기경(李基慶), 부교리 임후상(任厚常), 의관 유광익(柳光翼)·김효덕(金孝德)·이경배(李敬培)·박춘원(朴春源)·이유감(李惟鑑)·현필채(玄必采)·오인풍(吳仁豐)·조종협(趙宗協)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제주(濟州)에 배를 대어 표착(漂着)한 사람들을 이번 사행(使行)에 부쳐 보내는 것이 좋겠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서용보가 아뢰

기를, “지금은 바람이 높아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행을 좇아서 서울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재자관(齎咨官)이 들어갈 때 들여보내는 것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670],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가?”라고 하였다. 심환지가 아뢰기를, “말이 분명하지 않고 문자 또한 기이하며 복장 또한 해괴하니,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나는 일찍이 사방이 문자가 같다고 알았는데, 문자도 또한 다르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심환지가 아뢰기를,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데, 그 글자의 모양이 휘어 굽어서 어느 나라 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금번 사행에 미처 부쳐 보내지 못하고, 장차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이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하였다. 서용보가 아뢰기를, “비록 이후이기는 하지만 재자관이 갈 때 들여보내면 알아보고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표착, 사행, 재자관.

670) 이하는 《순조실록》 순조 1년 10월 30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二日 乙亥

○ 執義朴瑞源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2일(을해)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박서원(朴瑞源)의 계

○ 집의 박서원(朴瑞源)이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671]은 이승훈(李承薰)[672]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673]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 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671) 이치훈(1759~?): 본관 평창(平昌). 1798년(정조 22) 문과 급제.

672) 이승훈(1756~1801): 본관 평창(平昌). 자 자술(子述). 호 만천(蔓川). 세례명 베드로. 1783년 북경에서 선교사들로부터 필담으로 교리를 배우고,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인 최초의 영세자가 되었음. 1784년 김범우 집을 신앙집회소로 정하고, 정기적인 신앙의 모임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었음. 1801년 신유박해로 이가환, 정약종 등과 함께 체포되어 4월 8일 서대문 밖 형장에서 대역죄로 참수되었음.

673) 이가환(1742~1801): 본관 여주(驪州). 자 정조(廷藻). 호 금대(錦帶)·정헌(貞軒). 1777년(정조 1) 문과 급제. 광주부윤, 개성유수, 형조판서 역임. 천주교 신자라는 공격을 받고 신유박해 때에 심문을 받다가 죽었음.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三日 丙子

○ 掌令姜彙鈺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快正典刑. 【措辭見上】 …… 答府曰, 亟停勿煩.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3일(병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강휘옥(姜彙鈺)의 계

○ 장령 강휘옥(姜彙鈺)[674]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사헌부에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674) 강휘옥(1748~?): 본관 진주(晉州). 자 원덕(爰德). 1775년(영조 51) 문과 급제.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五日 戊寅

○ 李溏, 以義禁府言啓曰, 鞫廳議啓內, 罪人李致薰減死絶島定配, …… 罪人李學逵·申與權·李寬基竝施以遠配之典事, 判付內, 依慈教擧行. 大王大妃殿傳曰, 依議啓擧行, 卽爲收殺後, 推鞫撤罷, 朝者批答, 以傳敎頒布朝紙事, 命下矣. 罪人李致薰, 全羅道·濟州牧, 減死絶島定配, …… 罪人李寬基, 全羅道長興府, 竝施以遠配之典, 而以鞫廳議啓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書吏·羅將, 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5일(무인)

▢ 이치훈(李致薰)을 배소인 제주목(濟州牧)으로 압송(押送)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이당(李溏)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국청(鞫廳)의 의계(議啓) 내에, 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중략〉 죄인 이학규·신여권·이관기를 아울러 원배(遠配)의 전(典)을 시행하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판부(判付) 내에 자전(慈殿)의 하교대로 거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의계대로 거행하되 즉시 마무리 지은 뒤에 추국(推鞫)을 철파하고, 아침에 내린 비답을 전교한 것으로 조지(朝紙)에 반포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이치훈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에 사형을 감하여 절도 정배하고, 〈중략〉 죄인 이관기는 전라도 장흥부에 아울러 원배하는 전을 시행하되, 국청의 의계 내의 내용으로 죄목을 갖추어 규례대로 본부 서리와 나장을 보내어 각기 배소로 압송(押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정배, 압송.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七日 庚辰

○ 洪羲運, 以備邊司言啓曰, 卽見濟州牧使鄭觀輝災實狀啓, 則以爲分等不爲擧論, 數件應行之事, 開錄于左, 而候風涉海, 遲速無期, 謹援已例, 一邊馳啓, 一邊擧行, 令廟堂稟處矣. 其一, 舊還竝督, 恐傷民力, 姑爲仍停事也. 其一, 男丁大同米, 每口例捧五升, 以資營邑排朔, 而獨於本島, 有此科外之役者, 實所矜憐, 今年爲始, 從他拮据, 永爲防給事也. 其一, 軍兵操鍊, 待明春從附近哨司鍊事也. 舊還之停捧, 軍兵操鍊停退等事, 自前擧行後狀聞, 例也, 而大同米拮据防給, 亦必有料量措處者, 竝依狀請, 施行,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7일(경진)

▢ 제주목사(濟州牧使)의 재실장계(災實狀啓)에 대해 장계에서 요청한 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는 비변사의 계

○ 홍희운(洪羲運)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재실장계(災實狀啓)를 보니, '분등(分等)은 거론하지 않고 몇 건의 시행해야 할 일을 왼쪽에 기록하였는데, 후풍(候風)하여 바다를 건너다보면 빠를지 늦을지 기약할 수 없으니 삼가 전례 대로 한편으로는 장계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거행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구환(舊還)을 아울러 독촉하는 것은 민력(民力)을 손상시킬까 걱정되니 우선은 그대로 정지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남정(男丁)의 대동미(大同米)를 한 구(口)에 으레 5되씩 거두어 영읍(營邑)이 달마다 배정하는 자본으로 삼는데, 유독 본도(本島)에만 이러한 과외(科外)의 역(役)이 있는 것은 실로 가엾습니다. 금년부터는 다른 곳에서 힘써 마련하여 영구히 방급(防給)[675]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는, 군병(軍兵)의 조련(操鍊)을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부근의 초사(哨司)에서 조련하는 일입니다. 구환을 정봉(停捧)[676]하고 군병의 조련을 정퇴하는 등의 일은 전부터 먼저 거행한 후 장문(狀聞)하는 것이 예이고, 대동미를 힘써 방급하는 것도 필히 헤아려 조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677]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재실장계, 구환, 대동미, 조련.

---

675) 방급(防給): 대신 내준다는 뜻.
676) 정봉(停捧): 조세나 환곡 따위의 납부를 중지함을 이름.
677)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1년 11월 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七日 庚辰

○ 洪羲運, 以備邊司言啓曰, 卽見京畿監司李始源狀啓, 則以爲長峰鎭漂人二十五名, 使京譯官問情, 則果是福建省泉州府同安縣人, 而舵桅俱折, 海路夐絶, 爲慮再漂, 願由旱路作行云矣. 事當依其願發送, 所着衣袴, 分付該道, 從厚題給, 沿路刷馬, 朝夕供饋, 定差員護送及禁雜人等事, 另飭各該道, 以示朝家懷綏之意. 彼人物件中可合帶去者, 以刷馬替運, 其外卜重難運者, 依願從優折價以給, 船隻及棄置物件, 彼人所見處, 依例燒火. 濟州漂人, 今方不日上來, 齎咨官不必別爲差送, 使問情譯官, 直爲領到于開城府, 仍爲交付於濟州漂人領來譯官處, 咨文令槐院撰出, 以爲同時入送之地. 而至於守臣狀辭, 則不但問情之頗有疎虞, 剩語之間多插入, 船票之摹上狀本, 俱違格例, 殊甚未安. 該守臣從重推考, 問情遺漏條件, 更令京譯官, 詳問以報,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7일(경진)

▢ 장봉진(長峰鎭)에 표도(漂到)한 중국인을 육로를 통해 고향으로 돌려보냄에 있어 제주(濟州)에 표도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재자관(齎咨官)과 역관으로 하여금 동시에 영솔해 가게 할 것 등을 청하는 비변사의 계

○ 홍희운(洪羲運)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경기감사 이시원(李始源)[678]의 장계를 보니, '장봉진(長峰鎭)에 표도(漂到)한 25명을 서울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문정(問情)하게 하였더니, 과연 이들은 복건성(福建省) 천주부(泉州府) 동안현(同安縣) 사람들이었는데, 키와 돛대가 모두 부러지고, 해로(海路)는 까마득히 멀어 다시 표류될까 걱정되기에 육로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은 마땅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되, 입을 옷을 해당 도(道)에 분부하여 후하게 제급(題給)하고, 연로(沿路)의 쇄마(刷馬)와 아침 저녁의 공궤(供饋), 차원(差員)을 정하여 호송하는 것 및 잡인을 금하는 등의 일을 특별히 각 해당 도에 타일러 경계하여 조정이 편안하게 어루만져 주는 뜻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피인(彼人)의 물건 중 가지고 가기에 합당한 것은 쇄마로 교대로 운반하고, 그밖에 짐이 무거워 운반하기 어려운 것은 원하는 대로 넉넉하게 값을 쳐서 주며, 배와 버려두는 물건은 피인이 보는 곳에서 규례대로 소각하겠습니다. 제주(濟州)에 표도했

678) 이시원(1753~1809): 본관 연안(延安), 자 경심(景深). 시호 문간(文簡). 1795년(정조 19) 문과 급제. 성균관대사성, 규장각직제학, 홍문관부제학 역임.

던 사람들이 지금 며칠 내에 올라오니 재자관(齎咨官)을 별도로 차송(差送)할 필요는 없고, 문정역관(問情譯官)으로 하여금 바로 개성부(開城府)로 영솔해 가게 하고, 이어서 제주에 표도한 사람들을 영솔해 오는 역관에게 교부하되, 자문(咨文)은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지어내어 동시에 들여보내도록 하며, 수신(守臣)의 장계 내용에 있어서는 문정에 자못 소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 사이에 많이 삽입되었고, 선표(船票)를 모사(摹寫)한 장본(狀本)은 모두 격례에 어긋나니, 특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신을 종중추고(從重推考)하고, 문정에서 누락된 조건을 다시 서울 역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물어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679)

△ 주제어: 장봉진, 표도, 육로, 재자관.

679) 이상은《비변사등록》순조 1년 11월 7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七日 庚辰

○ 洪羲運, 以義禁府言啓曰, 卽接漢城府牒報及西部成冊, 則大逆不道罪人嗣永應坐諸人, 査出以來矣. 其母允惠慶尙道巨濟府, 妻命連全羅道濟州牧大靜縣, 竝緣坐爲婢, 子景漢年二, 以年未滿, 依律文免絞,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 而右罪人等今方捉囚當部, 竝令刑曹押送于各其配所,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7일(경진)

▢ 죄인 황사영(黃嗣永)의 연좌죄인인 처와 아들 등을 배소로 압송(押送)하겠다는 의금부의 계

○ 홍희운(洪羲運)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한성부의 첩보 및 서부성책(西部成冊)을 보니, 대역부도한 죄인 황사영(黃嗣永)[680]으로 인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의 어미 윤혜(允惠)는 경상도 거제부에, 처 정명연(丁命連)[681]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아울러 연좌(緣坐)하여 비(婢)로 삼고, 아들 황경한(黃景漢)은 2세로 나이가 차지 않아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을 면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로 삼되, 위 죄인들이 지금 해당 부(部)에 잡혀 갇혀있으니, 모두를 형조로 하여금 각기 배소로 압송(押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황사영, 명연, 대정현, 황경한, 추자도, 압송.

---

680) 황사영(1775~1801): 본관 창원(昌原). 자 덕소(德紹). 세례명 알렉산데르. 1791년 처고모부인 이승훈(李承薰)에게 교리서를 얻어 보고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음.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충북 제천의 배론(舟論)으로 피신하여 은거하면서 신유박해로 타격을 입은 조선교회의 참상과 교회의 재건 책을 북경주교에게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임. 이 편지를 황심(黃沁)과 옥천희(玉千禧)에게 시켜 1801년 10월에 떠나는 북경 동지사(冬至使) 일행 편에 끼어 보내려고 하였으나 음력 9월 15일에 체포된 황심의 자백으로 음력 9월 29일 체포되었음. 서울로 압송된 뒤 대역 부도죄로 음력 11월 5일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되었고, 어머니·작은아버지·아내·아들은 모두 귀양 가게 되었음.

681) 정명연(丁命連): 정약용의 맏형인 정약현(丁若鉉)의 딸. 일명 정난주(丁蘭珠).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八日 辛巳

○ 金宗善, 以備邊司言啓曰, 濟州大靜縣漂人, 不日當上來矣. 入接于弘濟院後, 更爲問情, 所着衣袴, 分付各該司, 依例題給, 令領來譯官仍爲領往北京, 而定差員次次領送事, 分付各該道臣, 亦令義州府預先馳通于鳳城將處, 以爲渡江後護送之地,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8일(신사)

▢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도(漂到)한 사람들을 북경(北京)으로 거느리고 가는 일에 관한 비변사의 계

○ 김종선(金宗善)[682]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도(漂到)한 사람들이 며칠 내로 올라올 것입니다. 홍제원(弘濟院)으로 들어가 거처하게 한 후 다시 문정(問情)하되, 입을 옷을 각 해사(該司)에 분부하여 규례대로 제급(題給)하여 데리고 온 역관(譯官)으로 하여금 그대로 북경(北京)으로 영솔해 가게 하고, 차원(差員)을 정하여 차례대로 영송(領送)하도록 각 해당 관찰사에게 분부하십시오. 또한 의주부(義州府)로 하여금 미리 봉성장(鳳城將)의 처소에 급히 통보하여 강을 건넌 후 호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683]

△ 주제어: 대정현, 표도, 북경, 영솔.

---

682) 김종선(1766~1810): 본관 청풍(淸風). 자 성보(城甫). 호 송재(松齋). 정조에 의해 특별히 척신(戚臣)으로 기용됨. 도승지, 형조참판, 우윤 역임.

683)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1년 11월 8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八日 辛巳

○ 洪羲運, 以刑曹言啓曰, 因義禁府啓辭, 大逆不道罪人嗣永母允惠, 慶尙道巨濟府, 妻命連, 全羅道濟州牧大靜縣, 竝緣坐爲婢, 子景漢年二, 以年未滿, 依律免絞, 全羅道靈巖郡楸子島爲奴事, 命下矣. 上項罪人等, 方囚當部, 自臣曹捉來, 卽爲押送各其配所之意, 敢啓. 傳曰, 知道.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8일(신사)

▢ 죄인 황사영(黃嗣永)의 연좌죄인인 처와 아들 등을 배소로 압송(押送)하겠다는 형조의 계

○ 홍희운(洪羲運)이 형조의 말로 아뢰기를, “의금부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대역부도한 죄인 황사영(黃嗣永)의 어미 윤혜(允惠)를 경상도 거제부에, 처 정명연(丁命連)을 전라도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에 아울러 연좌(緣坐)하여 비(婢)로 삼고, 아들 황경한(黃景漢)은 2세로 나이가 차지 않아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교형(絞刑)을 면하여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楸子島)에 노(奴)로 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위 죄인들이 지금 해당 부(部)에 갇혀있으니, 신의 조(曹)에서 잡아와서 즉시 각기 배소로 압송(押送)할 뜻을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황사영, 명연, 대정현, 황경한, 추자도, 압송.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十一日 甲申

○ 金宗善, 以備邊司言啓曰, 濟州牧大靜縣漂人, 入接弘濟院後, 使本司郎廳及譯官問情, 別單書入, 而漂人皆願速歸云, 卽爲發送,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11일(갑신)

▢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도(漂到)한 사람들을 속히 떠나보내는 일에 관한 비변사의 계

○ 김종선(金宗善)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 표도(漂到)한 사람들을 홍제원(弘濟院)으로 들어가 거처하게 한 후 본사 낭청 및 역관으로 하여금 문정(問情)하게 하고,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였습니다. 표도한 사람들 모두가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니, 즉시 떠나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684]

△ 주제어: 대정현, 표도.

684) 이상은 《비변사등록》 순조 1년 11월 11일자 기사에 같은 내용이 확인됨.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十二日 乙酉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薦新與進上柑橘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南公轍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12일(을유)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가 천신(薦新)과 진상(進上)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에, 천신(薦新)과 진상(進上)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하여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남공철(南公轍)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천신, 진상, 감귤, 대죄.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十二日 乙酉

○ 嚴耆,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鄭觀輝狀啓謄報, 則去十月令, 薦新所封柑子, 唐金橘, 一一摘取, 肇慶廟薦新封進外, 所餘柑子六十二箇, 唐金橘五十三箇, 謹援已例, 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之地事爲辭矣. 取考本曹謄錄, 則在前本牧所封, 各樣橘果稀結之時, 多有減數薦獻之例, 今此柑子, 唐金橘封進之數, 雖爲不足, 依近例, 宗廟景慕宮, 孝元殿·山陵, 分排封進, 當日薦獻, 而山陵薦新, 則魂殿內官, 依例陪進陵所, 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12일(을유)

▢ 제주(濟州)에서 10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의 부족으로 인해 종묘와 산릉 등에 분배하여 봉진하는 일에 관한 예조의 계

○ 엄기(嚴耆)[685]가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 등보(謄報)를 보니, 지난 10월령 천신(薦新)으로 봉진(封進)한 감자(柑子)와 당금귤(唐金橘)을 일일이 따가지고 조경묘(肇慶廟)에 천신용으로 봉진한 것 외에 나머지 감자 62개와 당금귤 53개를 삼가 전례를 원용(援用)하여 모두 봉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천헌(薦獻)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살펴보니, 전에 본목(本牧)에서 봉진함에 각종 귤과가 드물게 열매를 맺었을 때는 수량을 감하여 천헌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감자와 당금귤을 봉진하는 수량이 비록 부족하게 되었지만, 가까운 사례에 의거하여 종묘와 경모궁(景慕宮), 효원전(孝元殿)과 산릉(山陵)에 분배하여 봉진하되 당일 천헌하며, 산릉의 천신은 혼전내관(魂殿內官)이 규례대로 능소(陵所)에 배진(陪進)하여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봉진, 감자, 당금귤.

685) 엄기(1762~?): 본관 영월(寧越). 자 백영(伯英). 1790년(정조 14) 문과 급제. 부교리, 승지, 대사간 역임.

❖ 嘉慶 六年 辛酉 十一月 十二日 乙酉

○ 辛酉十一月十二日申時, 上御熙政堂. 大王大妃殿垂簾,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承旨嚴耆, 假注書趙民和, 事變假注書李泳夏, 記事官吳淵常·呂東植, 領中樞府事李秉模, 領議政沈煥之, 左議政李時秀, 右議政徐龍輔, 開城留守金文淳, 大提學李晩秀, 知中樞府事趙鎭寬, 行大護軍徐有大, 行護軍李漢豐, 行都承旨南公轍, 副校理任厚常, 以次進伏訖. …… 大王大妃殿下敎曰, 濟州漂人, 果於今番使行, 入去耶? 煥之曰, 使行之治發已久, 故令別齎咨官領去, 昨宿高陽站云, 而下敎有問知何國人之命, 故使之探問, 而尙不知爲何國人矣.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1월 12일(을유)

▢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한 사람들을 영솔해 가는 것과 관련하여 아뢰는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의 계

○ 신유년 11월 12일 신시에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으로 나아갔다. 대왕대비전이 수렴(垂簾)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할 때, 좌승지 엄기(嚴耆), 가주서 조민화(趙民和), 사변가주서 이영하(李泳夏), 기사관 오연상(吳淵常)·여동식(呂東植), 영중추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 개성유수 김문순(金文淳), 대제학 이만수(李晩秀), 지중추부사 조진관(趙鎭寬), 행대호군 서유대(徐有大), 행호군 이한풍(李漢豐), 행도승지 남공철(南公轍), 부교리 임후상(任厚常)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대왕대비전이 하교하기를, "제주(濟州)에 표도(漂到)한 사람들은 과연 금번 사행(使行)에 들어갔는가?"라고 하였다. 심환지가 아뢰기를, "사행이 길을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됩니다. 때문에 별재자관(別齎咨官)으로 하여금 영솔해 가도록 하였고, 어제 고양참(高陽站)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 알아보라는 명이 있었기에 탐문하게 하였는데, 아직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략〉.

△ 주제어: 표도, 사행, 별재자관, 영솔.

❖ 嘉慶 六年 辛酉 十二月 十日 壬子

○ 執義朴瑞源, 持平申溆啓曰, …… 噫, 彼致薰, 以承薰之同氣, 家煥之親甥, 萬惡咸萃, 千妖俱備. 嘯聚邪黨, 養成部落, 凡諸排布設施, 皆出其手, 而今番訊問之下, 乃反歸其兄於喪性溺邪, 至謂之賊黨, 此可見良心之都亡, 倫紀之全喪, 卽此一節, 邪術淺深, 有不暇論. …… 請 ……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2월 10일(임자)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집의 박서원(朴瑞源) 등의 계

○ 집의 박서원(朴瑞源), 지평 신서(申溆)가 아뢰기를, "〈상략〉 아, 저 이치훈(李致薰)은 이승훈(李承薰)의 형제이고 이가환(李家煥)의 친조카로, 온갖 죄악을 다 모으고 온갖 요망함을 갖추어 간사한 무리를 불러 모아 부락(部落)을 양성하였으니, 무릇 모든 배포와 시행이 모두가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문(訊問)에서는 도리어 본성을 잃고 사악함에 빠지게 된 것을 그 형에 돌리면서 그를 적당(賊黨)이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에서 양심이 모두 없어진 것과 윤기(倫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한 조목에서 사술(邪術)의 옅고 깊음을 논할 가치조차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청컨대, 〈중략〉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 嘉慶 六年 辛酉 十二月 十四日 丙辰

○ 以濟州牧使鄭觀輝狀啓, 薦新柑橘, 不得如例封進, 惶恐待罪事, 傳于申獻朝曰, 勿待罪事, 回諭.

❖ 순조 1년(1801) 신유년 12월 14일(병진)

▢ 천신(薦新)하는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하지 못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에게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하라는 전교

○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장계에, 천신(薦新)하는 감귤(柑橘)을 규례대로 봉진(封進)할 수가 없어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待罪)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신헌조(申獻朝)에게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고 회유(回諭)하라."라고 하였다.

△ 주제어: 제주목사, 정관휘, 천신, 감귤, 봉진.

❖ 嘉慶 六年 辛酉 十二月 十四日 丙辰

○ 尹益烈, 以禮曹言啓曰, 卽接濟州牧使所報, 則今十二月令宗廟·孝元殿·山陵薦新洞庭橘, 依數封進, 而同月令宗廟·景慕宮·孝元殿·山陵薦新乳柑所結, 只是十五箇, 故都封上送, 以爲稟旨薦獻之地事爲辭矣. 洞庭橘則當日薦進, 而至於乳柑, 則在前結顆稀疎之時, 或有減數封進之例, 而今此所封乳柑十五箇有不可備用於莫重薦新. 謹依丁巳年唐金橘五箇, 不爲薦進, 還下送之已例, 還爲下送, 恐合事宜. 該牧使之只以十五箇橘果, 稟旨進獻措辭者, 事體所在, 極爲未安, 該牧使鄭觀輝, 推考. 山陵薦新洞庭橘, 則魂殿內官, 依例陪進陵所, 薦進, 何如? 傳曰, 允.

❖ 순조 1년(1801) 신유년 12월 14일(병진)

▢ 12월령 종묘(宗廟) 등에 천신(薦新)하는 유감(乳柑)과 관련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 정관휘(鄭觀輝)의 추고(推考)를 청하는 예조의 계

○ 윤익렬(尹益烈)이 예조의 말로 아뢰기를, “방금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보고한 것을 보니, 이번 12월령 종묘(宗廟)·효원전(孝元殿)·산릉(山陵)에 천신(薦新)하는 동정귤(洞庭橘)은 수량대로 봉진(封進)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종묘·경모궁(景慕宮)·효원전·산릉에 천신하는 유감(乳柑)은 열매를 맺은 것이 단지 15개로, 때문에 모두 봉(封)하여 올려 보내면서 임금께 여쭈어 천헌(薦獻)하라고 하였습니다. 동정귤은 당일 천진(薦進)하고, 유감의 경우는 전에 열매를 맺은 것이 희소할 때에는 혹 수량을 감하여 봉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봉진한 유감 15개는 막중한 천신에 비용(備用)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정사년에 당금귤(唐金橘) 5개를 천진하지 않고 도로 내려보낸 사례에 의거하여 도로 내려보내는 것이 일에 합당할 듯합니다. 해당 목사가 단지 15개의 귤과(橘果)를 가지고 품지하여 진헌하라고 기술한 것은 일의 체모에 있어서 참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해당 목사 정관휘(鄭觀輝)를 추고(推考)하고, 산릉에 천신하는 동정귤은 혼전내관(魂殿內官)이 규례대로 능소(陵所)에 배진(陪進)하여 천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 주제어: 천신, 유감, 제주목사, 정관휘, 추고.

❖ 嘉慶 六年 辛酉 十二月 十四日 丙辰

○ 掌令姜彙鈺啓曰, …… 請黑山島島配罪人若銓, 康津縣定配罪人若鏞, 濟州牧島配罪人致薰, …… 竝令王府, 設鞫嚴問, 期於得情, 夫正典刑. 【措辭見上】 …… 答曰, 亟停勿煩. …….

❖ 순조 1년(1801) 신유년 12월 14일(병진)

▢ 제주목(濟州牧) 도배(島配) 죄인 이치훈(李致薰)의 국문(鞫問)을 청하는 장령 강휘옥(姜彙鈺)의 계

○ 장령 강휘옥(姜彙鈺)이 아뢰기를, "〈상략〉 청컨대, 흑산도 도배(島配) 죄인 정약전, 강진현 정배죄인 정약용, 제주목(濟州牧) 도배죄인 이치훈(李致薰)을 〈중략〉 아울러 의금부로 하여금 엄히 국문(鞫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전형(典刑)을 통쾌하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조사(措辭)가 위에 보임】 〈하략〉."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속히 멈추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략〉."라고 하였다.

△ 주제어: 이치훈, 제주목, 도배, 국문.

역주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오창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췌

고수미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노우정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교정 · 교열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양미혜　제주대학교 박사 수료

제주역사 자료총서 35

承政院日記 濟州記事 Ⅸ

－ 正祖代(1795)～純祖代(1801) (上)－

발행인 김완병

발행일 2026년 9월 일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251 제주시 동광로 23길 1, 3층
www.jst.re.kr

기 획 임승희·김우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 작 제주콤

ISBN : 979-11-997065-7-6 (93900)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